

차례

이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i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iii
이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약어	ix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x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xiii
주석:	
이사야서 서론	1
이사야 1 장	10
이사야 2 장	39
이사야 3 장	54
이사야 4 장	64
이사야 5 장	71
이사야 6 장	89
이사야 7 장	102
이사야 8 장	111
이사야 9 장	125
이사야 10 장	133
이사야 11 장	143
이사야 12 장	153
이사야 13 장	157
이사야 14 장	166
이사야 15 장	179
이사야 16 장	185
이사야 17 장	191
이사야 18 장	198
이사야 19 장	203
이사야 20 장	212
이사야 21 장	217
이사야 22 장	224

이사야 23 장	235
이사야 24 장	243
이사야 25 장	254
이사야 26 장	262
이사야 27 장	274
이사야 28 장	282
이사야 29 장	292
이사야 30 장	303
이사야 31 장	317
이사야 32 장	323
이사야 33 장	334
이사야 34 장	343
이사야 35 장	351
이사야 36 장	356
이사야 37 장	363
이사야 38 장	377
이사야 39 장	385
부록 1: 히브리 시 서론	389
부록 2: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서론	392
부록 3: 간략한 역사적 개관	397
부록 4: 표	
1. 구약의 연대표.	403
2.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왕조의 왕들과 사건들	405
3. 분열왕국의 왕들	410
부록 5: 교리적 선언	413

특별주제 목차

하나님의 이름, 1:1	12
밥의 복음적 편향, 1:3	17
선택/예정과 신학적 균형의 필요, 1:3	17
의, 1:4	18
성화, 1:4	22
만군의 여호와, 1:9	24
남은 자의 세 의미, 1:9	25
동양의 문학, 1:16	28
언약, 1:19	31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1:22	33
불, 1:31	37
이 세대와 오는 세대, 2:2	42
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가, 2:2	43
이사야서에서의 심판하다, 심판, 정의, 3:1	56
영광, 3:8	59
달 숭배, 3:18	62
나사렛 예수, 4:2	66
하나님의 두 책, 4:3	68
고대 근동에서의 도량형, 5:10	77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5:14	80
장례 관습, 5:25	86
하나님께 사용된 신인동형적 용어, 6:1	92
스랍, 6:1	93
거룩, 6:3	94
삼위일체, 6:8	97
구약에서의 회개, 6:10	99
믿다, 7:4-9	105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8:3	114
모퉁이 돌, 8:14-15	120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11:12	149
사탄, 14 장에 대한 문맥적 통찰	168
거인, 14:9	173
슬픔의 의식, 15:3	182
인자한 사랑(<i>헤세드</i>), 16:5	188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 숭배, 17:8	195
알다, 19:21	211
계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 22:25	231
묵시문학, 24 장에 대한 문맥적 통찰	244
땅, 나라, 세계(<i>에레츠</i>), 24:1	246
놀라운 일들(<i>펠레</i>), 25:1	256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 26:8	267
이스라엘이 사용한 빨, 27:13	280
속량하다/구속하다, 29:22	300
보호와 돌봄을 나타내는 은유인 그늘, 30:2	305
선지자(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 30:10	309
영원히(<i>올람</i>), 32:14	328
성령의 인격, 32:15-20	330
평화(<i>샬롬</i>), 32:17	332
구원, 33:2	337
귀신, 34:11-15	348
중보기도, 37:21-24	370
주의 천사, 37:36	375
용서를 나타내는 단어들, 38:17	383

이 구약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I. 사전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전으로서 여러 종류가 있다.

- 가.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찰스 A. 브릭스가 공저한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이것은 윌리엄 게제니우스의 독어판 사전에 기초한다. 이 책은 약어로 BDB 로 알려져 있다.
- 나. 루드빅 켈러와 발커 바움가트너가 저술하였고 M. E. J. 리차드슨이 영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이 책은 약어로 KB 로 알려져 있다.
- 다. 윌리엄 L. 할러데이가 저술한 *간이 히브리어 아람어구약사전*이 있는데 이 책은 독일어로 쓰여진 위의 사전에 기초한다.
- 라. 윌렘 A. 반 게머른이 편저한 다섯 권으로 된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이 책은 NIDOTTE 로 표시된다.

유의할 만하게 사전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곳에서, 나는 여러 영어 번역본(NASB, NKJV, NRSV, TEV, NJB)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역본들은 “축역적”인 것으로부터 “역동적 등가번역”을 따른 것까지 다양하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텐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8-44 쪽).

II. 문법

문법적인 내용은 요한 요셉 오웬의 4 권으로 된 *구약의 분석적 열쇠*에 일반적으로 의존한다. 이 책은 벤자민 데이빗슨의 *분석적 히브리어 갈대아어 구약사전*으로 뒷받침된다.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시리즈의 구약주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문법적 구문적 자료는 국제성서공회의 “번역가들을 돕기위한 시리즈”이다. 그 책들은 “_____의 핸드북”이란 이름을 가진다.

III. 본문

나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맛소라 모음부호와 각주가 아니라)이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는다. 전체가 손으로 직접 쓰여져 전해져 왔고, 고대의 본문이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 가. *하팩스 레고메논*(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인 단어)
- 나. 관용적 용어(문자적 의미를 적용할 수 없는 단어나 구)
- 다. 역사적 불확실성(고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 라.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셈어의 다중적인 의미를 가짐
- 마. 고대 히브리어 본문을 후기의 서기관들이 손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
- 바.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히브리 서기관들은 그들이 필사하는 본문이 자신들에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게 본문을 자유롭게 고치는 경향을 가짐(NIDOTTE 제 1 권 52-54 쪽)

맛소라본문 전통 이외에 히브리어 단어와 본문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다.

- 1. 사마리아 오경
- 2. 사해사본
- 3. 몇 가지 후기의 동전, 편지, 도편 자료(불에 굽지않은 도자기 조각 위에 쓴 글)

그러나 구약은 많은 경우 헬라어 신약 사본의 경우와 달리 사본적 계보가 없다. 맛소라 본문(주후 900년 경)에 대한 본문적 신뢰성에 대하여는 NIDOTTE 제 1권 51-67쪽에 있는 브루스 K. 왈트키의 “구약 성경 본문의 신뢰성”을 참고하라.

히브리어 본문은 독일성서공회에서 1997년에 발행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인데 이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주후 1009년에 기초한다. 간혹 히브리어 본문이 명료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고대 사본들(헬라어 70인역, 아람어 탈군,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 별게이트)을 참조하였다.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I. 히브리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고찰

히브리어는 서남 아시아의 셈족(셈어)어군에 속한다. 이 이름(현대 학자들에 의해 불리)은 노아의 아들인 셈(참조, 창 5:32; 6:10)에서 유래한다. 셈의 후예는 창 10:21-31 에서 아랍인, 히브리인, 시리아인, 아람인, 앗시리아인들이다. 사실상 어떤 셈어는 함의 계열(참조, 창 10:6-14)에 속하는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나안어, 페니키아어, 이디오피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히브리어는 이 셈어의 북서쪽 지류에 속한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고대 언어 그룹에 속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아모리어(주전 18 세기에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마리 서판*)

나. 가나안어(주전 15 세기에 유가릿어로 쓰여진 *라스 샤프라 서판*)

다. 가나안어(주전 14 세기에 가나안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아마르나 편지*)

라. 페니키아어(히브리어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사용한다)

마. 모압어(주전 840 년의 메사 비문)

바. 아람어(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 언어로서 창 31:47[2 단어]; 렘 10:11; 단 2:4-6; 7:28; 스 4:8-6:18; 7:12-26 에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 1 세기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언어이다)

히브리어는 사 19:18 에서 “가나안의 입”으로 불린다. 이것은 주전 180 년경 쓰여진 지혜서(벤 시라의 지혜)서론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불린다(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속하는 다른 몇 곳에서, 참조, *앵커 바이블 사전*, 제 4 권, 205 쪽 이하). 이 언어는 모압어 및 유가릿에서 사용된 언어와 아주 밀접한 언어이다. 성경 이외의 곳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1. 게제르 달력, 주전 925 년(한 남학생의 글씨연습)
2. 실로암 명각, 주전 705 년(터널벽에 쓴 글)
3. 사마리아 도판, 주전 770 년(부서진 도자기 위에 기록한 세금 내역)
4. 라기스편지, 주전 587 년(전쟁과 관련한 통신 내용)
5. 마카비 시대의 동전과 인장들
6. 사해사본 본문들
7. 많은 종류의 비문들(참조, “언어[히브리어],” ABD 4:203 쪽 이하)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셈어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자음(세 자음 어근)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어형변화가 있는 언어이다. 세 자음으로 된 어근은 고유의 뜻을 가진다. 또한 전접어 후접어 혹은 단어 안에 추가되는 어소(후에는 모음, 참조, 수 그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 46-49 쪽)에 의해 구문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히브리어는 산문과 시에서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된다. 단어의 뜻은 전승적 어원(언어적 기원이 아닌)을 따른다. 단어와 소리(유사음어 쓰기)에 기초한 언어유희가 매우 일반적이다.

II. 술부에 대한 동사의 상

가. 동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는 동사, 인칭대명사, 주어(수식 어구와 함께), 목적어(수식 어구와 함께)이다. 기본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는 동사는 칼, 완료, 남성, 단수이다. 히브리어 사전과 아람어 사전은 이 형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동사의 어형변화는 다음을 보여 준다

1. 수—단수, 복수, 쌍수
2. 성—남성과 여성(중성은 없음)
3. 태—직설법, 가정법, 명령법(행동과 사실과의 관계)
4. 시제(동사의 상)

- ㄱ. 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시작, 계속, 종결의 의미에서 마쳐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 동사 형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완료형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점은 어떤 일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미완료형은 어떤 상태가 가능하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기대함을 뜻할 수 있지만, 완료형은 그 일이 사실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분명함을 나타낸다”(36 쪽).
- S. R. 드라이버는 *히브리어에서 시제의 사용에 대한 논문*에서 이 점을 설명하기를,
 “완료형은 실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의지적 결심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결심, 약속,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진다”(17 쪽, 예, 예언적 완료형).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이 동사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동사형태는) 어떤 사건 전체를 외부에서 조망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일이나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종종 화자나 해설가의 수사적 관점에서 완료된 것임을 보여준다(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는지 또는 안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완료형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난(날) 행동/상태에 관계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어처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로 완료형의 시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반드시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86 쪽).

- ㄴ. 미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진행중(완료되지 않고, 반복적, 계속적, 혹은 불확실한)임을 뜻하며, 종종 목표를 향해 가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대개 이 동사 형태는 현재와 미래에 속하는 행동을 말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모든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나 발전해 가고 있는 것 혹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이 동사 형태는 어떤 의미(곧, 불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이다.

로버트 B. 치숨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말하기를

“미완료형은 상과 태를 함께 나타내기에 이것의 본질을 한 가지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떤 때는 미완료형이 직설법적 의미로서 객관적인

진술에 사용된다. 다른 경우에는 이 동사형태는 어떤 행동을 보다 더 주관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정적인 것, 조건적인 것, 가능한 것 등이 쓰인다”(89 쪽).

- ㄷ. 첨가되는 *와우*, 이것은 동사를 그 앞에 나오는 동사(들)의 행동에 연결시킨다.
- ㄹ. 명령형, 이것은 화자의 의지와 청자가 할 여지를 반영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ㅁ. 고대 히브리어에서 오직 큰 문맥이 저자가 의도한 시간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짓게 한다.

- 나. 일곱가지 주요 어형변화 형태와 그 기본적 의미. 실제로는 이 동사형태가 문맥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면 안된다.
1. *칼* 동사,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형태이면서 모든 동사형태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2. *니팔* 동사, 두 번째로 자주 쓰인다. 대개 수동형이지만, 이 동사형태는 또한 상호작용이나 재귀적 기능을 갖는다. 이 동사도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3. *피엘* 동사, 이 동사는 능동형이고 어떤 행동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것을 나타낸다. *칼*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발전되거나 어떤 상태로 확장되고 있다.
 4. *푸알* 동사, 이것은 *피엘* 동사와 대응하는 수동형이다. 종종 분사로 사용된다.
 5. *히트파엘* 동사, 이것은 재귀적 혹은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 동사형태이다. 이것은 반복적 혹은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피엘*형의 행동을 나타낸다.
 6. *히필* 동사, 이것은 *피엘* 동사와 대조되며 원인을 나타낸다. 이 동사형태는 허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일의 원인을 드러낸다. 독일인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에른스트 엔니는 *피엘* 동사가 일이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을 나타내고 *히필* 동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인다고 믿었다.
 7. *호팔* 동사, 이것은 *히필*의 수동형이다. 마지막 두 동사형태는 7 가지 동사 형태 가운데 가장 적게 사용된다.

위 사항의 대부분은 브루스 K. 왈트키 와 M. 오카너가 공저한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43-452 쪽을 참조했다.

작용자와 원인자 도표. 히브리어의 동사체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쇠는 이것을 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동사형태는 다른 동사형태와 대조를 이룬다(예, *칼-니팔, 피엘-히필*)

다음의 도표는 원인과 관련하여 동사형태의 기본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태 또는 주어	이차 원인자가 없음	능동적 이차 원인자	수동적 이차 원인자
능동태	<i>칼</i>	<i>히필</i>	<i>피엘</i>
중간태 수동태	<i>니팔</i>	<i>호팔</i>	<i>푸알</i>
재귀/상호관계적	<i>니팔</i>	<i>히필</i>	<i>히트파엘</i>

이 도표는 최근의 아카디아어 연구결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동사체계에 대한 좋은 자료에서 왔다(참조, 브루스 K. 왈트키, M. 오카너,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54-359 쪽).

R. H. 케넷은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짧은 논의*에서 필요한 경고를 제시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어의 동사를 가르치면서 각 동사형태가 히브리인의 마음에 의미하고 있는 뜻을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시말하면 각 히브리어 시제마다 이에 상응하는 여러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형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각 시제를 확일적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은 각 히브리어 동사형태가 구약성경의 언어에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는 분명한 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은 히브리인들이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의 차이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우리가 ‘시제’라고 표현함에서 보듯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적* 요소는 그들에게는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 형태에 크게 의존하여 각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히브리인의 마음에 제시하고 있는대로 각 행위의 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분명하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시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동사에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낳게 한다. 소위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행위의 *상태*만을 표현한다. ‘상태’라는 용어를 명사와 동사 모두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혼동만 아니라면, 실제로는 ‘상태들’이라는 표현이 ‘시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전혀 없는 요소(시간적)를 추가시키는 부작용없이 해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과거, 현재, 또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지 *완료형*, 즉 이루어진 일, 또는 *미완료형*, 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일로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 시제가 영어의 과거, 과거완료, 또는 미래와 상응하다고 말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과거, 과거완료, 미래로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동사형태도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서론과 1 쪽).

다음으로 유익한 경고로서는 슈 그롬,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이 말하기를,

“고대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대상으로 현대의 학자가 재구성한 어원적 세계와 지각적 관계성이 단순히 학자들의 통찰력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 자신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러한 어원적 관계성이 고전 히브리어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128 쪽).

다. 법

1.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직설법)를 표현하기위해서 완료시제나 분사(모든 분사는 직설법이다)를 사용한다.
2.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었다(가정법)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 ㄱ. 특별한 의미를 더 내포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 (1) 청유법(자음 *ㅎ* 이 추가됨), 이것은 1 인칭 미완료형으로서 소원, 청원, 혹은 자기 격려(즉, 화자가 소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2) 지시법(내적 변화), 이것은 3 인칭 미완료형으로서(부정문의 경우 2 인칭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원, 허가, 충고, 혹은 권면을 나타낸다
 - ㄴ. 완료 시제를 *루또는 루라*와 함께 사용한다
이 구조는 코이네 헬라어에서 제 2 유형의 조건절과 유사한 구문이다. 거짓 진술(조건절)이 거짓 결론(조건문의 귀결절)으로 결과를 맺는다.

- ㄷ. 미완료 시제를 *루*와 함께 사용한다
 문맥과 *루*는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더불어 이러한 가정법적 용법을 가진다. J. 와쉬 왓쓰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 나오는 몇 가지 예는 창 13:16; 신 1:12; 왕상 13:8; 시 24:3; 사 1:18(참조, 76-77 쪽).

라. *와우*-전환/연속/접속. 히브리어(가나안어)가 갖는 이 독특한 구문적 특성은 오랫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 용법은 장르마다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혼란이 생긴 이유는 초기의 학자들이 유럽인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비추어 히브리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려움을 가져오자, 그들은 히브리어가 고대의 고풍스럽게 “보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탓으로 핑계를 댔다. 유럽의 언어들은 시제(시간)에 기초한 동사형태를 갖는 언어이다.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의 동사 어간에 자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어떤 종류의 다양한 설명과 문법적인 의미가 특별히 가능하게 된다. 이 용법은 행동이 다르게 보이게 한다.

1. 역사적 이야기체에서는 동사들이 일정한 형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2. 앞에 붙는 *와우*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 이전에 사용된 동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3. 항상 큰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동사들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섹족어의 동사들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해서는 안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 앞에 쓰이는 히브리어 *와우*용법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52-53 쪽).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완료형의 동사는 종종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즉 *와우*가 추가된 미완료형의 동사는 과거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제 자체가 변하여 된 것이 아니라,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그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이 특별히 바뀌는 것에 기인한다. *와우* 완료형은 예언에서 잘 사용되는 형태이며, *와우* 미완료형은 이야기체에서 잘 사용된다(54, 68 쪽).

*와우*는 계속해서 정의하기를

“*와우* 접속법과 *와우* 연속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석에서 나타난다:

1. *와우* 접속법은 항상 병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2. *와우* 연속법은 항상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와우*가 연속적인 미완료형과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와우* 연속법으로 연결되는 미완료형의 관계는 시간적 연속, 논리적 연속, 논리적 원인, 또는 논리적 대조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의 연속성이 있다”(103 쪽).

마. 부정사 - 두 종류의 부정사가 있다

1. 부정사 절대형,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뚜렷한 구문이다. . . 주어로서 사용될 때 종종 쓰여진 동사없이 나타난다. 부정사 절대형이 홀로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생략된 동사는 “~이다”라는 동사로 이해된다”

J. 와쉬 왓쓰,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92 쪽).

2. 부정사 연계형, 이것은 “전치사, 소유 대명사, 연계 관계에 의해 문법적으로 문장에 연결된다”(91 쪽).

J. 와인그린은 *고전 히브리어의 실제적 문법*에서 연계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를

“두 개(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형성할 경우에, 의존적인 단어(혹은 단어들)가 연계상태에 있다고 말한다”(44 쪽).

바. 의문법

1. 이것은 항상 문장의 처음에 나타난다.
2. 해석적인 중요성
 - ㄱ. *하*-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 ㄴ. *할로'*- 저자가 “네”라는 답을 기대한다

부정

1. 이것은 항상 부정하려고 하는 단어 앞에 나타난다.
2. 부정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단어는 *로'*이다.
3. *'알*이라는 단어는 부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청유형과 지시형과 함께 사용된다.
4. *르빌티*이라는 용어는 “~하지 않기 위해서”를 나타내며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
5. *'엔*이라는 용어는 분사와 함께 사용된다.

사. 조건절

1. 4 종류의 조건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이네 헬라어의 경우와 평행을 이룬다.
 - ㄱ.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거나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경우(헬라어의 제 1 유형)
 - ㄴ.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헬라어의 제 2 유형)
 - ㄷ.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우(헬라어의 제 3 유형)
 - ㄹ.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적어서 그 성취가 의심이 되는 경우(헬라어의 제 4 유형)
2. 문법적인 표시
 - ㄱ. 사실이나 실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항상 직설법 완료형 혹은 분사를 사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조건절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 (1) *임*
 - (2) *키*(혹은 *아췌르*)
 - (3) *힌* 혹은 *힌네*
 - ㄴ.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절은 항상 완료 시상 동사나 분사를 사용하는데 불변화사인 *루* 혹은 *를레*로 시작한다
 - ㄷ.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조건절은 항상 미완료형 동사나 분사가 조건절에 사용되는데, 대개는 불변화사인 *임* 혹은 *키*로 시작한다.
 - ㄹ.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조건절은 미완료형 가정법이 조건절에 나오고 항상 불변화사 *임*으로 시작한다.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AB	앵커 바이블 주석,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만 편저
ABD	앵커 바이블 사전 (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만 편저
AKOT	구약의 분석 열쇄, 존 조셉 오웬스
ANET	고대 근동 본문, 제임스 B. 프릿처드
BDB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BHS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 GBS, 1997
DSS	사해사본
IDB	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 (4 권), 조지 A. 버트릭
ISBE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5 권), 제임스 오르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 (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루드빅 켈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 (페쉬타), 조지 M. 램사
LXX	칠십인역 (헬리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새 번역 성경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NEB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IDOTTE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5 권), 윌렘 A. 반게머른 편저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NRSV	새 개정 표준 성경
OTPG	구약성경 분해 가이드, 토드 S. 빌, 윌리엄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EV	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 로버트 영
ZPBE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 (5 권), 메릴 C. 텐니 편저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 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2.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3.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⁴)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5.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 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제 4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문학적 장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감받은 원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했다(예를 들면 역사적 이야기체, 역사적 드라마, 시, 예언, 복음서[비유], 서신, 묵시). 이러한 서로 다른 양식은 해석을 위한 특별한 열쇠를 제공한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즈의 *구약코드해독*, 또는 로버트 스타인의 *규칙에 따른 놀이*를 보라).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파 중심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 년 6 월 27 일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답답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좌절,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 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랐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I. 전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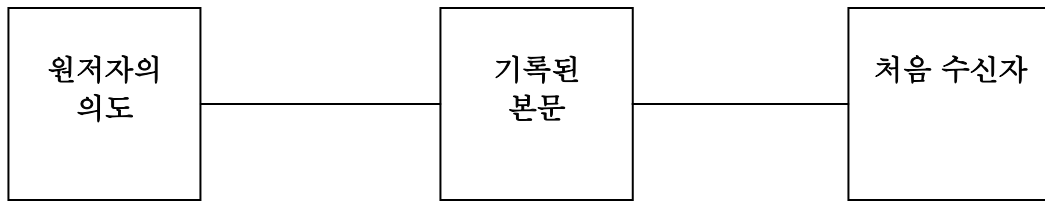
- 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져만 한다.
- 나.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다.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라.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4. 전체 메시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7. 대구(평행) 구절들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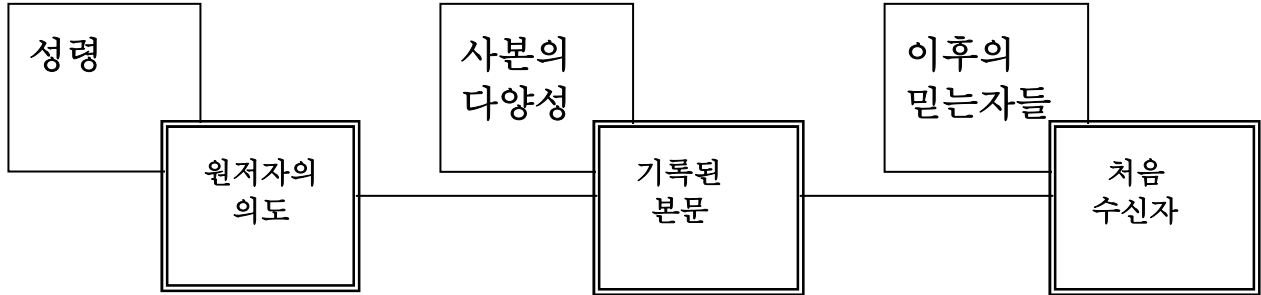
II. 부적절한 방법들

-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 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은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ㄴ.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ㄱ. 저자
 - ㄴ. 날짜
 -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전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과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이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 (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시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거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2. 뉴킹제임스역(NKJV)
3. 신개정표준역(NRSV)
4. 현대영어성경(TEV)
5. 새예루살렘역(NJB)

문단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의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의 등가 번역본에 기초한 영어역인 예루살렘역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이사야서 서론

I. 들어가는 말

- 가.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다른 어떤 예언서 보다도 더욱 많이 인용되는 책이다(411 회 이상). 그의 메시지는 보편적인 유일신 주의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구속적 계획을 나타낸다.
1. 한 하나님
 2. 한 세상
 3. 한 믿음
- 나. 이사야서는 굉장히 메시아적인 메시지이다.
1. 새 시대의 특별한 자녀, 7-14 장
 2. 종의 노래, 41:1-4; 42:1-9; 49:1-7; 50:4-11; 52:13-53:12(아마도 61:1-3)
 3. 미래의 메시아 왕국(새 시대), 56-66 장. 창세기 3 장의 타락은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
- 다. E. J. 영은 *신약개론*에서 말하기를
1. “이사야서가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으로 여겨진 것이 옳다,” 168 쪽.
 2.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다,” 171 쪽.
 3. “구약의 모든 사람 가운데 영적 통찰에 있어서 그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172 쪽.

II. 책의 이름

- 가. 이 책의 이름은 이 예언을 선포한 사람의 이름에서 왔다.
- 나. 이 이름의 뜻은 “야웨의 구원” 혹은 “야웨께서 구원하신다”이다. 히브리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 “야”는 야웨의 축약형이다. 영어에서는 여호수아(Joshua)와 요엘(Joel)에서 보듯이 첫 자음인 “j”와 모음이 이를 이룬다.

III. 정경화

- 가. 이 책은 후기 예언서를 이루는 4 두루마리의 처음 것이다.
1. 이사야
 2. 예레미야
 3. 에스겔
 4. 12 선지서(소 선지서)
- 나. 이 책은 이른 시기에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

IV. 장르

- 가. 이사야서의 문학적 기교는 다른 모든 예언서의 정도를 뛰어 넘는다. 그의 단어유희와 시적 표현은 뛰어나고 흥미롭다. 이 책은 주로 히브리 시로 되어 있다(부록 1 을 보라).
- 나. 이사야서를 읽은 자리에서 단번에 읽기는 어렵다. 이 책의 개요를 잡는 것도 어렵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설교가였지 저술가나 편집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가 말로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가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1. 주제에 의해
2. 연대기에 의해
3. 이스라엘에 미칠 사건에 의해
4. 우리의 문화와 매우 다른 고대 근동의 문화적 기준에 의해
5. 주로 핵심 단어와 언어유희에 의해

V. 저자

가. 저자에 대한 유대인의 견해

1. 탈무드의 *바바 바트라* 15a 는 히스기야와 그의 사람이 이사야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다(즉, 편집하거나 편찬했다)고 말한다.
2. 주전 185 년에 쓰여진 집회서 49:17-25 에서 벤시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1:1; 12:1; 13:1).
3. 대하 32:32 은 평행을 이루는 열왕기서의 기록(왕하 18:19-20:19 은 이사야에 대해 말함)과 더불어 이사야가 본 환상에 대해 증거한다.
 - ㄱ.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다. 아마도 웃시야 왕의 사촌이었을 것이다.
 - (1) 야웨의 축약형인 “야”(이름의 마지막 글자)는 유다 왕조에서 이름에 특별히 사용하던 요소로서 이를 뒷받침한다
 - (2) 이사야가 웃시야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점도 그의 가족관계를 지지한다
 - (3) 탈무드의 “멕” 10b 를 보라
 - ㄴ. 그는 여선지자와 결혼했다(8:3).
 - (1) 맏아들 “스알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 올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 (2) 둘째 아들 “마헬살랄하스바스”(8:3)는 “서둘러 약탈하라. 급히 전리품을 취하라”라는 뜻이다
 - ㄷ. 이사야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 보다도 더 오랜 기간동안 예언활동을 했다. 그는 요담(주전 742-735 년)의 치리 기간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주전 715-687 년) 때까지, 아마도 므낫세(주전 687-642 년)의 치리기간에 이르기까지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므낫세는 주전 696 년부터 섭정으로서 다스렸을 것이다.
 - ㄹ. 만일 대하 26:22 이 이사야에 대한 것이라면, 그는 왕의 국가의 서기관으로서 왕의 역대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이었다.
 - ㅁ. 전통에 의하면 그는 므낫세의 치리기간 중에 통나무 안에서 두 토막으로 톱질을 당해(참조, *이사야의 승천*) 죽었다(참조, 히 11:37).
4. 주후 11 년 경에 모세 벤 사무엘 이븐 게카틸라는 이사야가 사 1-39 장을 썼고 40-66 장은 제 2 성전 시기(페르시아 시대, 주전 538-430 년)에 기록되었다고 말했다.
5. 게카틸라를 따라 이븐 에스라(주후 1092-1167 년)는 40-66 장을 8 세기에 살았던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었거나 적어도 그가 썼다는 점에 의혹이 있다고 보았다.

나. 저자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견해

1. 역사적 개괄을 위해 좋은 자료가 R. K. 해리슨의 *구약개론*(어드먼사, 1969)에 나온다.
2. 두 저자설을 지지하는 전문적 이유에 대한 논의가 S. R. 드라이버의 *구약 문학 개론*(재판, 1972)에 나온다.

3. 1-39 장과 40-66 장으로 나뉜 히브리어 사본이나 헬리어 사본(70 인역)이 발견된 적이 없다.
 - ㄱ. 사해사본에는 33 장의 끝 부분에 두 줄로 된 여백이 있다. 이 점은 39 장이 아니라 이 곳에서 구분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 ㄴ. 1-33 장과 34-66 장 사이에 평행을 이루는 구조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히브리 예언서(참조,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저자 자신의 시대와 미래적인 내용에 기초한다.
4. 오늘날의 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저자가 있었고 어디서 이 책을 나누었는가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

다.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지지하는 몇 가지 근거

1. 이사야서의 두 부분에서 사용되지만 구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25 개 있다(NIV 의 이사야서 개론, 1014 쪽).
2.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1-39 장에서는 13 회 사용되었고 40-66 장에서는 14 회 사용되었지만 이사야서를 제외한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합해 6 회만 사용되었다.
3. 예수님은 요 12:38,40 에서 사 53:1 과 6:10 을 인용하는데 이 내용을 모두 이사야의 것으로 돌리신다.
4. 마 3:3; 8:17; 12:17; 눅 3:4; 4:17; 요 1:23; 행 8:28; 롬 10:16-20 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0-66 장의 본문이 이사야의 것으로 말해진다.
5. 39 장에서 책을 둘로 구분한 사본적 증거가 없다(맛소라 본문, 사해사본, 또 70 인역).
6. 주전 6 세기의 위대한 선지자(제 2 이사야)에 대한 역사적 언급이 없다.

구약 개론에서 R. K. 해리슨은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한다:

“문학적 스타일에 근거한 논쟁은 19 세기 말에 매우 불명료하게 되었다. 또한 고대 근동 언어에 대한 폭 넓은 이해로 이제 그러한 주장은 한층 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스타일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접근은 그라프와 벨하우젠의 문학적 분석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았다. 그들은 성경 저자에게로 돌려지는 자료를 확인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자기 모순적 행동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각 장에서 어떤 문학적 양식이나 단어가 똑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 저자의 것으로 보기를 거부했다. 분명히 초기의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성경의 저자에게 돌려지는 모든 자료를 주의 깊게 연구한 후에야 비로소 고대 저자의 스타일에 나타나는 몇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따라서 책의 어떤 부분 혹은 전체를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철저하게 행해진 객관적 연구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다”(776 쪽).

라. 이사야서의 다중 저자설을 지지하는 몇 가지 근거

1. 40-66 장에서 “이사야”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2. 40-66 장은 이사야의 역사적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
3. 이사야가 혼합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ㄱ. 앗시리아의 침략, 포로, 그들에 대한 심판
 - ㄴ. 바벨론의 침략, 포로, 그들에 대한 심판
4. 다중 저자설에 대한 논리적 근거
 - ㄱ. 역사적 상황의 변화
 - (1) 침략을 받기 이전의 유다, 1-39 장
 - (2) 포로, 40-55 장
 - (3) 포로기 이후의 유다, 56-66 장

- (4) 이사야 1-39 장에서는 성전이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40-66 장에서는 성전이 이미 파괴되었다. 저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일컫는 용어의 변화

- (1) 메시아인 아기
- (2) 고난받는 종
- (3) 이스라엘
 - (ㄱ) 아내로서, 50:1
 - (ㄴ) 야웨의 종으로서, 54:17

5. 오늘날의 보수적인 학자들

- ㄱ. E. J. 영이 55-66 장에 대해 말한 내용은 유용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사야 학파에 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른 선지자들이 편집자와 수집가로서 이 부분에 나타난 주제와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88 쪽).
- ㄴ. R. K. 해리슨은 말하기를, “나는 이사야서가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에 걸쳐 선포한 내용을 모아 제시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며, 또한 구약 예언의 다른 책을 다루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스타일이나 문학적 표현에 기초한 논쟁은 즉시로 이러한 접근방법에 의해 손상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렇듯 책으로 모아진 내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선지자의 창조적 활동에 나타난 저자의 전체적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를 책으로 모아진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요소는 예언서의 앞에 나오는 절에서 발견된다. 이 부분은 책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하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상으로 받은 계시적 자료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다. 책으로 모아진 모든 경우가 그러하듯이, 이 책이 선포된 예언적 말씀과 설교의 일부분만 포함하고 있음은 매우 명백하다. 또한 이사야가 이 책에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선포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 예언서가 책으로 모아진 것을 나타내는 점은 사 2:1 과 13:1 에 있는 표제로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 표제들은 예언으로 선포된 내용을 초기에 수집하였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780 쪽).

6. 40-66 장의 문학적 특색은 1-39 장의 것과 다르다.

마. 저자에 대한 결론적 견해

- 1. 경건한 학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가 어떻게 현재의 형태로 되었는가에 대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다(참조, 사해사본, 맛소라 본문). 야웨의 성품과 목적을 나타냄에 있어서 이 책이 영감으로 된 점과 또한 믿을 수 있음에 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 2.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충성스럽게 전한 것을 부정하는 어떤 전제도 우리는 배격해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예언의 예언적 면을 거부하는 선험적 논리를 배격하며, 구약을 단지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간의 기록으로 여기는 견해도 배격한다.

VI. 시기

- 가. 이사야는 8 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다.

1.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여로보암 II 세(주전 786-640 년)의 치세 기간동안 북왕국(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2. 이사야와 미가는 남왕국(유다)에서 활동했다
- 나. 그는 주전 760 년 경에 태어났고, 웃시야가 죽은 해(6:1)인 주전 742 년 경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다. 웃시야는 아사랴로 불렸다(주전 783-742 년).
- 다. 이사야는 웃시야(주전 783-742 년)의 마지막 해로부터 시작하여 요담(주전 742-735 년), 아하스(주전 735-715 년), 히스기야(주전 715-687 년), 므낫세(주전 687-642 년)의 통치기간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동안에 걸쳐 예언을 했다. 이사야는 산헤립의 죽음(즉, 주전 681 년)을 37:38 에서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다.
- 라. R. K. 해리슨은 이 책이 유다의 여러 왕들이 다스리던 기간에 선지자가 기록하고 설교한 내용을 모은 책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선지자가 죽은 이후인 주전 630 년 경에 최종적으로 모아지고 편집되었다.

VII. 8 세기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

- 가. 성경의 자료는 다음에서 발견된다
1. 왕하 14:3-17:6
 2. 대하 25-28 장
 3. 아모스
 4. 요나
 5. 호세아
 6. 이사야
 7. 미가
- 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호세아서에서 볼 수 있다.
1. 2:16, “더 이상 나를 나의 주인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2. 4:12-14, “딸들이 행음한다”
 3. 4:17, “에브라임이 우상에 연합했다; 그를 내버려 두라”
 4. 13:2, “사람들이 송아지에게 입맞춘다!” (종교의식)
- 다. 사회적 배경
1. 이 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확장하던 때였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단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었다. 가난한 자들은 탈취를 당하고 학대받았다. “돈과 힘”이 우상이 되었다!
 2.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회적 재정적 안정을 누리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 ㄱ.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II 세(주전 786-746 년)가 남왕국에서는 웃시야(주전 783-742 년)가 긴 기간동안 다스렸는데 각각 번영을 누리는 시기가 되었다
 - ㄴ. 앗시리아의 아닷-니라리 III 세가 주전 802 년에 시리아를 무찔렀다
 - ㄷ.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
 - ㄹ. 팔레스타인을 통해 남북으로 연결된 무역로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과 수입을 통해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고, 부유층의 사치도 초래했다
 3. “사마리아 도편”은 여로보암 II 세의 시대에 속하는데, 솔로몬 시대의 행정조직과 비슷한 내용을 나타낸다. 이것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깊어지는 간격이 있었음을 확인해준다.

4. 부유층의 부정직한 모습은 “사회적 정의의 선지자”로 불리는 아모스서에서 명백하게 말해진다. 재판에서 뇌물을 받는 것과 상거래 행위에서 저울 추를 속이는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횡횡했던 부정직한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두 가지 실례였다.

라. 종교적 배경

1. 이 시기는 외적인 종교적 활동은 많이 있었지만 진실된 믿음은 희귀한 때였다. 가나안의 다산숭배적 의식이 이스라엘의 종교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이것이 야웨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유대를 지향하는 경향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교도의 예배와 풍습에 참여하게 했다.
2.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왕하 17:7-18 에서 언급된다.
 - ㄱ. 8 절에서는 그들이 가나안인들의 예배 풍습을 따랐다고 지적한다.
 - (1) 다산의 신을 섬김(참조, 레 18:22-23)
 - (ㄱ) 산당, 9, 10, 11 절
 - (ㄴ) 기둥(바알), 10, 16 절
 - (ㄷ) 아세라, 16 절, 바알의 여성 배우자의 상징으로 사용된 나무였다. 이것은 조각된 나무거나 혹은 살아 있는 나무였다.
 - (2) 점, 17 절; 이것은 레위기 19-20 장과 신명기 18 장에서 정죄되고 있다.
 - ㄴ. 16 절에서는 여로보암 I 세(왕상 12:28-29)가 야웨의 상징으로서 단과 벧엘에 세운 두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계속해서 섬겼다고 지적한다.
 - ㄷ. 16 절에서는 바벨론의 별신들을 섬겼다고 말한다: 해, 달, 별, 성운.
 - ㄹ. 18 절에서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다산의 신으로서 섬긴 불의 신 몰렉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드려 섬겼다고 말한다(참조, 레 18:21; 20:2-5). 이러한 행위는 몰렉으로 불렸다. 이것은 신의 이름이 아니었다.
3. 바알숭배(참조, W. F. 올브라이트의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 82 쪽 이하)
 - ㄱ. 가장 좋은 고고학적 자료는 “우가릿에서의 바알 서사시”이다.
 - (1) 이 자료는 계절에 따라 죽고 또 다시 사는 신으로 바알을 묘사한다. 바알은 못에 의해 패하고 지하세계에 감금된다. 땅 위의 모든 생명이 그쳐진다. 그러나 여신(아눗)의 도움으로 이른 봄에 바알이 일어나 못을 물리친다. 그는 다산의 신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흉내내는 요술로 숭배받았다.
 - (2) 바알은 하닷으로도 알려졌다.
 - ㄴ. 엘이 가나안인의 만신전에서 주요 신이었지만, 인기를 차지한 바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 ㄷ. 이스라엘은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에 의해 두로의 바알숭배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오므리는 자기 아들 아합의 아내로 그녀를 택했다.
 - ㄹ. 이스라엘은 각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바알을 섬겼다. 바알은 똑바로 세워진 돌로 상징되었다.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조각된 막대기가 바울의 배우자인 아세라를 상징했다.
4. 우상숭배의 여러 형태와 종류가 언급되고 있다.
 - ㄱ. 여로보암 I 세가 야웨께 대한 예배를 위해 벧엘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 ㄴ. 산당에서 섬긴 두로인의 다산의 남신과 여신
 - ㄷ. 당시에 정치적 연맹을 위해 요구되었던 우상숭배

마.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미친 8 세기에 있었던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간략한 요약.

1. 8 세기에 활동했던 4 선지자들은 티그리스-유프라테스에서 앗시리아 제국이 흥왕하던 시기였다. 이 잔인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특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되었다.

- ㄱ. “시리아-에브라임 연합”으로 알려진 요단 서편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의 형성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주전 735 년).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로 하여금 자기들과 협력하여 앗시리아에 대항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아하스는 그들과 협력하지 않고 도리어 앗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강력한 제국을 이루려는 꿈을 가졌던 앗시리아의 왕 티글랏 필레셀 III 세(주전 745-727 년)는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를 공격했다.
- ㄴ. 앗시리아가 세운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인 호세아(주전 732-722 년)는 후에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반역하였다. 살만에셀 V 세(주전 727-722 년)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이 항복하기 전에 그가 죽었지만, 후계자인 사르곤 II 세(주전 722-705 년)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주전 722 년에 점령했다. 앗시리아의 티글랏 필레셀이 주전 732 년에 수 천 명을 사로잡아갔는데, 이번에는 27,000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갔다.
2. 아하스(주전 735-715 년)가 죽은 후에 앗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군사적 동맹이 맺어졌다(주전 714-711 년). 이것은 “아스돗의 반란”으로 알려져 있다. 앗시리아의 재침공으로 인해 많은 유대의 도시가 파괴되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이 동맹에 가담하였다가 후에 자신의 지지를 철회하였다.
3. 그러나 앗시리아의 강력한 왕인 사르곤 II 세가 주전 705 년에 죽은 틈을 타서 또 다른 동맹이 맺어졌다. 이 때 앗시리아 제국 전체에 여러 반란이 일어났다.
4. 이사야는 메데-페르시아의 통치자인 고레스 II 세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특별하게 예언했다(41:2-4; 44:28; 45:1; 56:11). 니느웨(앗시리아의 수도)는 주전 612 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바벨론 도시는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 주전 539 년에 멸망했다. 주전 538 년에 고레스는 유대에서 사로잡혀 온 자들을 포함하여 포로로 잡혀 온 모든 민족이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여러 민족의 성전이 재건할 수 있게 그는 국고의 재원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그는 미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신들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기를 원했다.

VIII. 문학적 단락

가. 간략한 개요

1. 1-39 장, 선지자와 그의 시대
2. 40-66 장(또는 40-55 장과 56-66 장)), 새 시대

나. 1-39 장, 이사야가 살던 때의 역사적 배경(포로기 이전)

1. 1-6 장, 웃시야 왕과 요담 왕의 시대
2. 7-14 장, 아하스 왕의 시대
3. 15-39 장, 히스기야 왕의 시대(36-39 장의 내용은 왕하 18:13-20:19 의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

다. 40-66 장,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미래의 왕국의 모습을 다룬

1. 1-39 장은 이사야의 설교로서 구두로 전한 내용이며 40-55 장은 새로운 배경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회복이 주된 주제이다. 이 부분은 구두로 전한 내용이라기보다 글로써 전한 것임을 암시하는 문체가 나타난다.
2. 1-39 장(특히 12-14, 21, 39 장)은 앗시리아의 위협과 바벨론의 위협을 분명히 다룬다. 40-55 장은 페르시아 시대를 다루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것을 다룬다.

3.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56-66 장은 종말론적 내용으로서,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가져온 은유를 사용하여 온 세상이 유일신인 야웨를 섬기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다.

라. 이사야서의 개요를 나누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1.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을 적어도 두 부분으로 나눈다: 1-39 장과 40-66 장. R. K. 해리슨은 사해사본에 나타난 간격에 근거하여 1-33 장과 34-66 장으로 나눈다. 사해사본에 있는 33 장과 34 장 사이의 분명한 구분은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여기게 한다. W. H. 브라운리는 이 두 부분이 구조상 대칭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제 1 권	제 2 권
1-5 장	멸망과 회복	34-35 장
6-8 장	자서전적 자료	36-40 장
9-12 장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가져오는 자	41-45 장
13-23 장	외국 열강에 대한 말씀	46-48 장
24-27 장	우주적 구속과 이스라엘의 구원	49-55 장
28-31 장	윤리적 설교	56-59 장
32-33 장	민족들의 회복	60-66 장

2. 어떤 이들은 역사적 배경이나 메시아적 내용에 초점을 두어 개요를 구분한다.

	NIV 역	류폴드역
7-12 장	“유다에 대한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을 인한 예언”	“임마누엘의 책”
28-33 장	“여섯 가지 화: 불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다섯 가지 화와 앗시리아에 대한 한 가지 화”	“시온의 책” (모퉁이 들)

3. 문학적 단락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예(1-12 장)

- ㄱ. 1-12 장에 대한 E. Y. 영의 장 구분, 211-214 쪽
- (1) 1:1-12:6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 (ㄱ) 1:1-31 커다란 조정
- (ㄴ) 2:1-4:6 메시아의 통치와 백성에 대한 심판
- (ㄷ) 5:1-30 유다에 편만한 죄악
- (ㄹ) 6:1-13 주님을 이사야가 뵈
- (ㅁ) 7:1-12:6 아하스의 통치기간 중에 선포한 예언
- ㄴ. 1-12 장에 대한 R. K. 해리슨의 장 구분, 764 쪽
- (1)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1-5 장
- (2)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자서전적 자료, 6-8 장
- (3) 당시의 세계 제국과 그들의 역할, 9-12 장
- ㄷ. 1-12 장에 대한 NIV 연구성경의 장 구분, 1016 쪽
- (1) 1-6 장
- (ㄱ) 서론: 언약을 깨트린 유다에 대한 비난, 1 장
- (ㄴ) 미래의 교훈 및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 2-4 장
- i 예루살렘이 미래에 받을 축복(2:1-5)
- ii 유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2:6-4:1)
- iii 시온의 회복(4:2-6)
- (ㄷ) 국가에 대한 심판과 사로잡힘(5 장)

- (ㄹ) 이사야가 독특하게 위임받음(6 장)
- (2) 7-12 장
 - (ㄱ)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음(7 장)
 - (ㄴ) 이사야의 아들과 다윗의 아들(8:1-9:7)
 - (ㄷ)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9:8-10:4)
 - (ㄹ) 앓시리아 제국과 다윗의 왕국(10:5-12:6)
 - i 앓시리아의 멸망(10:5-34)
 - ii 다윗 왕국의 성취 및 그의 왕국(11 장)
 - iii 구원을 인한 기쁨의 노래(12 장)

IX. 주요 내용

- 가. 이사야는 유다가 다윗에게 주신 언약(삼하 7 장)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택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심(즉, 출 19:5-6)을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창 12:1-3)의 원래 목적을 말한다. 야웨께서 우주로 다스리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속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실 것이다!
- 나. 이사야는 자신이 살던 때에 일어날 세상의 사건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특별하게 예언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일이다(미가서도 그렇다). 이것은 거룩한 왕국이고 우주적 왕국이다(미가서도 그렇다). 이사야는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했다.
- 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 방법과 타락한 인간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의 헛됨을 분명히 지적한다. 구원은 오직 야웨로부터 올 것이다!
- 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 갖는 3 가지 가장 뚜렷한 특징을 드러낸다.
 1. 메시아의 오심
 2.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
 3.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

이사야 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 1:1-3	1:1	표제 1:1	1:1	제목 1:1
(2-3 절)	유다의 사악함	예언의 처음 시리즈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감사를 모르는 백성에 대한 책망
1:4 (4 절)	1:2-4 (2-3 절) (4 절)	1:2-31 (2-3 절) (4 절)	1:2-3 1:4-6	1:2-9 (2-9 절)
1:5 (5-6 절)	1:5-9 (5-6 절)	(5-6 절)		
1:7:9 (7-9 절)	(7-9 절)	(7-9 절)	1:7:9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1:10-15 (10-15 절)	1:10-17 (10-11 절) (12-15 절)	(10-17 절)	1:10-14 1:15-17	위선에 대한 말씀 1:10-20 (10 절) (11-17 절)
1:16-17 (16-17 절)	(16-17 절)			
우리가 변론하자 1:18-20 (18-20 절)	1:18-20 (18-20 절)	(18-20 절)	1:18-20	(18-20 절)
타락한 시온: 구속받아야 함 1:21-23 (21-23 절)	타락한 도시 1:21-23 (21-23 절)	(21-23 절)	최악된 도시 1:21-23	예루살렘에 대한 애통 1:21-28 (21 절) (22-23 절)
1:24-26 (24-26 절)	1:24-31 (24-26 절)	(24-26 절)	1:24-26	(24 절) (25 절) (26 절)
1:27-31 (27-31 절)	(27-31 절)	(27-31 절)	1:27-28 1:29-31	(27-28 절)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나무에 대하여 1:29-31 (29-31 절)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해 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 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 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3 가지 은유적 문학양식을 특징적으로 사용했다.
1. 재판 소송(참조, 2,18 절)
 2. 장례에서의 만가(참조, 24-26 절)
 3. 약속의 말씀
- 나.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내용이 6 장에 기록된 점은 놀랍다. 1 절에는 간략한 서언만 나온다. 그러나 이 간략한 서언은 이사야의 긴 사역에 대하여 말한다.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전한 이상과 시와 계시의 일부만이 이사야 자신에 의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나 혹은 그가 죽은 후에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이다. R. K. 해리슨은 기록된 글의 모음으로 이 책을 본다.
- 다. 1 장은 책 전체의 요약일 것이다.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 이와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 유다의 죄에 대한 환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1. 언약을 고의적으로 범함
 2.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에 대한 신뢰
 3. 사회의 부정직함
 4. 우상숭배
-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실하다면, 레위기 26 장과 신명기 28 장에 있는 결과는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사실이라면, 알려진 죄에 대하여 따르는 결과도 분명히 있다. 이 둘은 한 언약의 두 면이다! 심판의 목적은 친밀한 교제의 회복임을 기억하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 망가지기 이전에는 이러한 교제를 에덴 동산에서 누렸다.

개역개정 1:1-3

¹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²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³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1:1 “계시” 이 용어(BDB 302)는 “계시적 말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29:7; 미 3:6). “계시”와 “꿈”은 29:7 에서 평행을 이루며 나타난다(참조, 단 7:1). 꿈은 보통 밤에 꾸고, 계시는 밤과 낮에 보게 된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은유와 관용적 표현과 물체를 사용하여 특별한 계시를 보이시는 바뀌어진 의식적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진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가 메시지의 형태를 구성했을 것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영감의 작동방법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있는 말씀을 낳는다.

여기의 문맥에서 맨 앞 절에 나오는 이 용어는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다(참조, 2:1; 13:1; 암 1:1; 미 1:1; 합 1:1).

▣ “이사야” 이 이름(BDB 447)은 “야웨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야웨의 구원”(여기에 동사가 없다)을 뜻한다. 히브리 이름의 끝 글자가 “야”일때, 이것은 왕족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반영한다(참조, 출 3:14).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 (BDB 42, KB 48)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신을 일컫는 이 고대 용어의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이다(라스 샬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보통은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러한 합성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방법이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BDB 42 & 751 II),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BDB 42 & 909),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BDB 42 & 994),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BDB 42 & 761),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 16
- ㅁ. *엘-베렛* (“언약의 하나님,” BDB 42 & 136), 삿 9:46
-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 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 ㅂ. “신실하신,” 신 7:9; 32:4
 - ㅅ.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ㅇ. “지식,” 삼상 2:3
 - ㅈ.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ㅊ.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ㅋ. “거룩하신 분,” 사 5:16
 - ㅌ. “힘,” 사 10:21
 - ㅍ. “나의 구원,” 사 12:2
 - ㅎ. “크고 능하신,” 렘 32:18
 - ㄱ. “값으심,” 렘 51:56
-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 가 반복됨)
- 나. *엘론* (BDB 751, KB 832)
 -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에서 많이 사용됨; 단 3:26; 4:2; 5:18,21 에서는 *일라이르* (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 3.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였다.
 - ㄱ. 벨기세텍,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또한 헬라어로 같은 뜻을 지닌 *휘시스토스*를 사용(참조, 1:32,35,76; 6:35; 8:28; 행 7:48; 16:17)
- 다. *엘로힘* (복수형), 시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아* (단수형) (BDB 43, KB 52)
 -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이방의 신들을 말할 수 있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엘로힘은 다른 영적 존재들(천사, 악령)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5. 이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이 이름과 야웨가 함께 사용된 창 2:4 이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기본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편).
이것은 엘의 동의어이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된다.
 - ㄱ. 뉘미세덱,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2
 - ㄷ. 모세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할 때, 신 32:8
8.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있는 것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알지못,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 에서 하나님의 창조; 창 1:2 에서 성령의 행하심;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대행자였다 (참조, 요 1:3, 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라. 야웨 (BDB 217, KB 394)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편).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한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야웨)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족장들과 그들의 가족)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직 **엘 사다이**로 알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 (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에 의해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ㄹ. 히브리어 **칼** 동사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히필** 동사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쓰의 **구약 문맥 개요**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 (2) **야후**(이름, 예, 아사야)
 - (3) **요**(이름, 예,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조합의 여러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BDB 217 & 906),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시다, BDB 217 & 950, **칼 분사**),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BDB 217 & 651),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BDB 217 & 872, **피엘 분사**), 출 31:13
 - ㄹ. **야웨-샬롬**(야웨는 평화이시다, BDB 217 & 1022, **칼 분사**), 삿 6:24
 - ㅂ. **야웨-쓰바옷**(만군의 야웨, BDB 217 & 878), 삼상 1:3,11; 4:4; 15:2; 종종 예언서에 쓰임
 - ㅅ. **야웨-로이**(야웨는 나의 목자, BDB 217 & 944, **칼 분사**), 시 23:1
 - ㅇ. **야웨-치드케누**(야웨는 우리의 의이시다, BDB 217 & 841), 램 23:6
 - ㅈ. **야웨-삼마**(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BDB 217 & 1027), 겔 48:35

▣ “**아모스**” 이 사람(BDB 55)의 이름은 오직 이사야와의 관계에서만 언급된다.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세력,” “강함,” “힘”이다.

▣ “**그가 본**” 이 단어(**하자**, BDB 302, KB 301, **칼 완료형**)는 “환상”(하존) 및 “선견자”(호제)와 같은 어근을 가진다. 이 단어는 이사야에서 거듭 사용된다(참조, 미 1:1).

▣ “웃시야” 이사야가 웃시야(“야웨는 나의 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통은 전한다. 이 내용은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자료가 가리킨다. 이 경건한 왕은 주전 742 년에 문둥병으로 죽었다. 그는 성경에서 아마샤(“야웨는 나의 도움”)로 알려져 있다.

▣ 왕들의 연대와 그들과 이스라엘의 왕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부록 4 를 보라.

1: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곳에 나오는 두 명령은 서로 다른 어근에서 왔지만 그 기본적 의미는 같다.

1. 들으라, BDB 1033, KB 1570, **칼 명령**, 참조, 10,15,19 절; 6:8,9(2 회),10 절 등
2. 기울이라, BDB 24, KB 27, **히필 명령**, 참조, 1:2,10; 8:9; 28:23; 32:9 등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반역을 깨닫게 하도록 충격을 주는 놀라운 방법이다. 야웨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 대해 법정 소송을 하고 계신다! 이러한 시작의 말은 이사야와 동시대에 유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1:2)의 서두와 비슷하다.

이 말은 법정 장면인 2 장의 배경을 이룬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범죄를 심리하신다. 이것은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학적 기교에 속한다(즉, 미 6:6-8; 렘 2:1 이하; 롬 8:31 이하). 이것은 말을 확증하기 위해 두 증인을 요구하는 구약의 일반적인 절차이다(참조, 신 4:26; 30:19; 31:28; 32:1; 시 50:4).

“하늘”(BDB 1029)은 여기서 지구 위의 대기로서 피조물의 한 부분이다(참조, 창세기 1 장).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주지”를 가리키지 않는다.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이다. 1: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여기서도 호 11:1-4 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익숙한 신인동형적 용어로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또한 출 4:22; 신 32:6; 렘 3:4; 31:9, 6: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인간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유추는 (1) 부모 (2) 결혼의 배우자 (3) 친족 구속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 “거역” 이 동사(BDB 833, KB 981, **칼 완료형**)는 적극적이고 파괴적이며 알면서도 행하는 개인적 반역을 뜻한다(참조, 1:28; 43:27; 53:12; 59:13; 66:24).

▣ “나를”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참조, 창 39:9; 삼하 12:13; 시 41:4; 51:4). 노만 H. 스나이스는 **구약의 독특한 개념들**에서 “(선지자들은) 이것(죄)을 범법이라기보다 반역으로 여겼다”고 말한다(65 쪽). 죄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변질시키는 행위이다(참조, 창 1:26,27). 하나님은 세상이 그를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인류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개인(아브라함)과 가족(야곱)과 국가(이스라엘)를 선택하셨다(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야웨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다. 그들은 “알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했다. 죄의 핵심은 어떤 값을 치루어서라도 “나를”이다!

1:3 이 절은 아마도 잘 알려진 문화적 잠언일 것이다. 말 못하는 짐승조차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손을 물지 않는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한다!

▣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알다”(BDB 393, KB 390, **칼 완료형**)라는 동사는 어떤 사물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인격적 지식을 뜻한다(참조, 창 4:1; 렘 1:5). 이스라엘은 들으려 하지 않았기에 자기 자신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호자를 알지 못했다(참조, 5:12,13; 6:9-13; 30:9).

▣ “나의 백성” 이것은 언약적 용어이다(참조, 호 1-3 장, 11 장). 구약에서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뜻함을 기억해야만 한다. 언약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최초 선택에는 이에 대등한 책임이 따른다. 언약은 당사자 양 쪽의 책임을 요구한다.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의 것(즉, 마 28:18-20; 눅 24:46-47; 행 1:8)이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렘 31:31-34; 겔 18 장;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 19-20, 21-32), 즉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 (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셨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시다(참조, 엡 2:11-3:13)! 성경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다.

이러한 사전 이해는 내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갖고 있는 색채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는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제조건이다.

특별주제: 선택/예정과 신학적 균형의 필요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속을 위한 통로가 되거나 혹은 방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섬김을 낳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표면상의 모순을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을 다 인정하고 있다! 로마서 9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로마서 10 장에 있는 인간이 해야 할 반응(참조, 10:11,13) 사이의 긴장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긴장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는 엡 1:4 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칼 바르트).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가 되신다(칼 바르트). 에베소서 1:4 도 예정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끌리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선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은 물론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리는 다른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따로 떨어진 하나의 진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좋은 유추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서양이 아닌 동양의 장르로 나타내신다. 우리는 교리적 진리들의 변증법적(역설적) 쌍이 형성하는 긴장을 제거해서는 결코 안된다:

1.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2.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3. 원죄 대 의지적 죄
4. 죄없음(완전함) 대 죄를 적게 지음
5.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6.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7.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8. 궁극적으로 알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에서 알려진 하나님
9.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10.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인간이 언약을 따라 가져야 하는 응답으로서의 회개
11. 하나님이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12.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정하시는 분으로서)을 인간에게 요청되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 및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과 하나로 묶는다. 역설적 진리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느라 다른 한 쪽을 약화시키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의 내용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동사(BDB 106, KB 122, *히트팔렐 완료형*)의 동사형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를 뜻한다.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이다(참조, 6:9,10; 신 4:6; 32:29). 그들은 요청되는 삶의 변화와 회개와 인격적 신뢰를 빠뜨린 채 단지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이스라엘의 제사의식)으로 만족했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5:18-23 절(특히 21 절, 참조, 미 4:12)에 드러나 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마음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참조, 롬 2:28-29; 9:6)!

개역개정 1:4

⁴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4 “슬프다” 감탄사(BDB 222)는 심판의 선언을 이끈다(참조, 10:5; 17:12; 28:1; 29:15; 31:1; 45:9,10; 암 5:18; 6:1).

▣ “범죄한 나라요” 많이 나오는 “범죄한”이란 단어(BDB 306, KB 305, *칼 능동 분사*)는 “표적을 못 맞추다”를 뜻한다. “나라”를 뜻하는 단어는 *고이*이다(BDB 156). 이 용어는 종종 이방인들에 대해 사용되었지만,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한다(참조, 출 19:5-6).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했지만(참조, 출 19:5-6), 그들은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얼마나 기대했던 일의 정반대인가!

▣ “허물 진 백성이요” “굽다” 혹은 “무겁다”라는 이 용어(BDB 458)는 사람의 등에 있는 짐으로서 죄를 표현하는 은유이다(참조, 마 11:28). 죄를 뜻하는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 굽음이나 휨(즉, 표적을 빗나감)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측량용 갈대”나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BDB 841)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 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망가진 교제를 고쳐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 언약의 개념이었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즉,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를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걸작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어 단어인 “의”를 여러 형태로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세덱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의 저작에서 사용한 범주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에서 사용한 디카이오쉬네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과 상류사회의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카톨릭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됨)와 “의”(종교와 관련됨)의 경우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둘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격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다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보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제시된다)
 - ㄱ. 로마서 3:26
 - ㄴ. 데살로니가 후서 1:5-6
 - ㄷ. 디모데 후서 4:8
 - ㄹ. 요한계시록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ㄱ.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ㄴ. 마태복음 27:19
 - ㄷ. 요한일서 2:1,29; 3:7
3.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ㄱ. 레위기 19:2
 - ㄴ.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4.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ㄱ. 로마서 3:21-31
 - ㄴ. 로마서 4 장
 - ㄷ. 로마서 5:6-11
 - ㄹ. 갈라디아서 3:6-14
 - ㅁ. 하나님께서 주심
 - 1) 로마서 3:24; 6:23
 - 2) 고린도 전서 1:30
 - 3) 에베소서 2:8-9
 - ㅂ. 믿음으로 받음
 - 1) 로마서 1:17; 3:22,26; 4:3,5,13; 9:30; 10:4,6,10
 - 2) 고린도 전서 5:21
 -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1) 로마서 5:21-31
 - 2) 고린도 후서 5:21
 - 3) 빌립보서 2:6-11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 ㄱ. 마태복음 5:3-48; 7:24-27
 - ㄴ. 로마서 2:13; 5:1-5; 6:1-23
 - ㄷ. 고후 6:14
 - ㄹ. 디모데 전서 6:11
 - ㅁ. 디모데 후서 2:22; 3:16
 - ㅂ. 요한일서 3:7
 - ㅅ. 베드로 전서 2:24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 ㄱ. 사도행전 17:31
 -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고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견실하게 추구해야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서 인용할 좋은 내용이 있다. 이것은 IVP 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바르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더 강조하거나 어느 것을 빠뜨리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환영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것은 부모의 악한 생활방식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을 지적하는 출 20:5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행법을 주목하라.

1. 범죄한 나라, 4 절
2. 허물을 가진 백성, 4 절
3. 행악의 종자, 4 절
4. 행위가 부패한 자식, 4 절

또한 뒤따르는 평행절을 주목하라.

1.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BDB 736, KB 806, **칼 완료형**)
2.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BDB 610, KB 658, **피엘 완료형**)
3.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물러갔도다(BDB 266, KB 267, **니팔 완료형**)

모든 내용이 알지만 반역하는 언약백성의 행동을 지적한다(죄를 가리키는 다양한 단어의 사용을 주목하라).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으로 야웨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의 완료형은 몸에 밴 행동을 가리킨다!

이 백성은 아브라함(참조, 창 12:7; 13:15,16; 16:10; 22:27,18; 24:7; 26:3,4,24; 28:13,14; 32:12)의 축복받은 “씨”(BDB 282)이지만 행악자의 “씨”가 되어버렸다! 이 얼마나 계시의 내용과 기회를 낭비한 비극인가(참조, 눅 12:48)!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으로 즐겨 사용되었다(참조, 1:4; 5:19; 10:17,20; 12:6; 17:7; 29:19,23; 30:11,12,15; 31:1; 37:23; 또한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도 그렇다, 40:25; 41:14,16,20; 43:3,14,15; 45:11; 47:4; 48:17; 49:7; 54:5; 55:5; 60:9,14).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참조, 레 19:2; 마 5:48; 뱀전 1:16).

이 호칭은 어떤 면에서 최악되고 범죄한 백성이 거룩한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모세의 언약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참조, 사도행전 15 장; 갈라디아서 3 장; 히브리서). 옛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으며, 그들이 자기들의 타락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고, 이를 자신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충족하신다. 새 언약(참조, 렘 31:31-34; 겔 36:22-38)이 비록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가져오지만(참조, 약 2:14-26), 이것은 믿음과 회개의 언약이지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열방에 드러내는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참조, 마 5:48).

특별주제: 성화

죄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즉시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성화된다고 신약은 단언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 위치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다(참조, 롬 4 장).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언받았다(하나님의 법적 행위).

신약은 또한 신자가 계속적으로 거룩함과 성화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기초한 신학적 지위이며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행동으로의 부르심을 포함한다. 구원이 은사이자 값진 삶의 양식이듯이 성화도 그러하다.

최초의 응답

행 20:23; 26:18
 롬 15:16
 고전 1:2-3; 6:11
 살후 2:13
 히 2:11; 10:10,14; 13:12
 뱀전 1:1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롬 6:19
 고후 7:1
 살전 3:13; 4:3-4,7; 5:23
 딤후 2:15
 딤후 2:21
 히 12:14
 뱀전 1:15-16

▣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뒤쪽으로 돌아갔다”(BDB 30, 참조, 44:25)이다. 우리는 “그들이 의지적으로 그 분께 등을 돌렸다”고 말할 수 있다(참조, 2 절).

개역개정 1:5-6

⁵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⁶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1:5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으로 의인화되었다. 이것은 육체의 병이 죄를 가리키는 은유로서 사용된 좋은 예이다(참조, 53:4-6; 시 103:3; 호 5:13). 육체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은 속죄의 부분적인 약속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용서를 뜻한다! 죄와 병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참조, 요 9:2; 약 5:5).

▣ “어찌하여” NKJV, NRSV, TEV, NIV, RSV, ASV 는 이것을 바르게 번역하여 “왜”(BDB 752 II)로 나타낸다. 이렇게 계속되는 번역의 이유에 강조점이 있다.

▣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동사(BDB 414, KB 418, 히필미완료형)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내신 뜻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번역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 “온 머리는 ... 온 마음은” 이 평행법은 한 사람 전체(생각, 동기, 행동)를 가리킨다. 두 번째 구는 렘 8:18 과 애 1:22 에 나오며, 이 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임을 보여준다.

1:6 “성한 곳” 이 명사(BDB 1071)는 “완전함,” “무흠함,” “성실함”을 뜻한다. 이 문맥에서는 다음을 뜻하는 은유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1. 성실함이 없는 삶(참조, 창 20:5,6; 시 78:72; 101:2)

2. 건강하지 않은 사람(참조, 시 38:3)

6 절의 나머지 부분은 고대의 의학적 치료과정을 나타낸다.

1. 짜며

2. 짜매며

3.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기름을 약으로 사용하였다, 참조, 눅 10:34; 약 5:14)

사람(혹은 나라)의 상처를 적절하게 소독하고 짜매지 않으면 회복할 기대를 가질 수 없었다(참조, 호 6:1).

개역개정 1:7-9

⁷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⁸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에워 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⁹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7 이 절은 포로로 끌려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아마도 주전 701 년에 있었던 앗시리아의 공격과 주전 723 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격을 가리키거나 혹은 주전 586 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유다침공을 가리킬 것이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모아 놓은 것임을 기억하라. 정확히 어떤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종종 그의 시는 서로 다른 침략에 대해 말한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나타내는 구성에 기인할 것이다. 이 내용은 신명기 28 장의 저주를 반영한다.



NASB, NKJV “낮선 사람”
 NRSV “이방인”
 TEV, NJB “외국인”

이 분사(BDB 266, KB 267, 칼 능동 분사, 2 회)는 다른 가족, 다른 부족,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을 가리키는데(참조, 25:2,5; 29:5; 61:5), 대개는 언약 백성의 적을 가리킨다. 야웨는 이교도인인 적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참조, 10:5).

1:8 “딸 시온” 이러한 부모-자식의 주제는 2 절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이 단어는 은유로서 사용되는데, 이러한 용법은 예언서에서 자주 사용된다.

1. 시온의 딸, 사 1:8; 10:32; 16:1; 37:22; 52:2; 62:11; 렘 4:31; 6:23; 애 1:6; 2:1,4,8; 2:18; 미 4:8,10,13; 습 3:14; 숙 2:10; 9:9
2. 예루살렘의 딸, 사 37:22
3. 유다의 딸, 애가 2:2,5,13,15; 미 4:8
4. 두로의 딸, 시 45:12
5. 바벨론의 딸, 시 137:8; 사 47:1(처녀 딸); 렘 50:42; 51:33; 숙 2:7
6. 내 백성의 딸, 사 22:4; 렘 4:11; 6:26; 8:11,19,21,22; 9:1,7; 애 2:11; 3:48; 4:6,10
7. 처녀 딸, 사 23:12; 37:22; 렘 14:17; 46:11; 애 1:15; 2:13
8. 이집트의 딸, 렘 46:24
9. 에돔의 딸, 애 4:21,22
10. 다시스의 딸, 사 23:10
11. 갈대아인의 딸, 사 47:1,5
12. 신실하지 않은 딸, 렘 31:22

이것은 어떤 나라, 지역, 도시에 거하는 사람들의 연합함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이것은 도적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는 자들이 쉴 수 있도록 추수 때에 세운 구조물로서, 매우 깨지기 쉽고 연약한 것을 나타낸다(참조, 24:20). 하나님이 없는 그의 백성에게는 보호나 소망이 없다(참조, 9 절).

1:9 “만군의 여호와”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다음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 1:1 의 특별주제: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나. “만군”(BDB 838)은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천사(참조, 느 9:6)
 2.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참조, 삼상 17:45; 단 8:10; 눅 2:13)
 3. 천사들의 회의(참조, 왕상 22:19; 단 7:10)
 4. 인간의 군대(즉, 민 2:4,6; 삿 8:6; 9:29)
 5. 밤 하늘에 있는 빛은 영적인 능력들로 여겨졌다(즉, 바벨론 사람들의 별 숭배, 참조, 신 4:19; 17:3; 왕하 17:16; 21:3,5; 23:4-5; 대하 33:3,5; 렘 8:2; 19:13)
 6. 이것은 아모스 4:13; 5:27 에서 야웨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암 3:13; 6:14; 9:5 에서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었고 왕상 5:14,15,16; 6:8; 19:10,14 에서는 전치사 없이 사용됨).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심을 나타내었다.
 7. 수 5:14-15 에 특별한 용법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 미가엘을 가리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 자신의 현현하심으로 본다.

▣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앗시리아와(혹은)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가는 무서운 심판을 가리킨다.

이것은 믿는자의 “신실한 남은 자” 개념을 나타낸다(참조, 10:20-22; 11:11,16; 37:4,31,32; 46:3,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바울은 롬 9:19-29 에서 이 개념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속받는 것이 아니다!

특별주제: 남은 자의 세 의미

“신실한 남은 자”라는 구약의 개념은 예언서(주로 8 세기의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포로 생활에서 생존한 사람들(예, 사 10:20-23; 17:4-6; 37:31-32; 렘 42:15,19; 44:12,14,28; 암 1:8)
2. 야웨께 계속 신실한 자들(예, 사 4:1-5; 11:11,16; 28:5; 율 2:32; 암 5:14-15; 미 2:12-13; 4:6-7; 5:7-9; 7:18-20)
3. 종말에 있을 새롭게 됨과 새 창조에 참여할 자들(예, 암 9:11-15)

▣ “소돔과 고모라” 이것은 창세기 18-19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사적 암시이다. 가나안인의 이 두 도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악을 뜻하는 잠언이 되었다.

개역개정 1:10-15

- ¹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 ¹¹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 ¹²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 ¹³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 ¹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 ¹⁵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10-15 2-6 절에 있는 하나님의 비난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은 자신의 종교성이었다!

1:10 “들을지어다 . . . 귀를 기울일지어다” 2 절에서 사용된 두 명령이 반복된다.

▣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 . .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 이들의 지도자와 백성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4 절의 *고이처럼* 이 구는 언약 백성에 대한 충격적인 비난이었다.

▣
NASB “교훈”
NKJV “법”
NRSV, TEV “가르침”

이것은 토라(BDB 435)를 가리킨다. 가능한 의미들을 주목하라.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1) 성경 (2) 선지자들의 설교, 혹은 (3)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가리킬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알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다.

1:11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자세에 대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참조, 29:13; 호 6:6; 암 5:21-27; 미 6:6-8). 만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로 행해진 것이라면 제물을 드리는 일은 의미가 있었다(참조, 시 50 편). *성경의 어려운 말의* 207-208, 274-275 쪽을 보라.

▣ “나는 배불렀고” 이 동사(BDB 959, KB 1302, *칼 완료형*)는 배가 가득찬 것이나 음식에 물린 것을 말한다.

▣ “번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여 전체로 드린 번제를 나타낸다.

▣ “살진 짐승의 기름” 이것은 제단에서 짐승의 일부분(내장의 기름)만 드린 제사로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나 제물을 가져 온 사람에게 주어 하나님 앞에서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먹었다. 큰 동물의 고기는 보관할 수 없었기에 매우 급히 먹어야 했다.

▣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동사(BDB 342, KB 339, *칼 완료형*)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심을 뜻한다. 일반적인 표현은 “기쁘시게 하는 향기”였다(참조, 창 8:21; 출 29:18,25).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의 예배를 거부하셨다(참조, 10-15 절).

1:12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회막/성전(즉, 출 23:17)에 나아감을 뜻한다. 그들은 참된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식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1:13 “헛된 제물” 이 용어(BDB 996)는 “빈,” “헛된,” “아무 것도 아닌”을 뜻한다. 이것은 다음을 뜻한다

1. 우상숭배(욘 2:8; 시 31:6)
2. 제물(이 곳)
3. 악한 사람(사 5:18)
4.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출 20:17; 신 5:11; 시 139:20)
5. 거짓된 말(사 59:4)

▣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이라는 용어(BDB 882)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다음을 뜻했다

1. 제사의 연기

2. 향의 내음(대개 향료를 제물의 위에 뿌렸다)이나 회막/성전의 안 쪽 커튼 앞에 놓여진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

이것은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7 장에 나오는 “성전에서의 설교”가 기억나게 한다. 의식과 예식이 회개와 믿음의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다(참조, 사 6:9-10).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참된 믿음은 거부했다(참조, 딤후 3:5).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여긴 것은 비극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시대에 있었던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잘못되었다.

“가증”(BDB 1072)이라는 용어는 주로 신명기, 잠언, 에스겔서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다음의 다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표현한다.

1. 동성애, 레 18:22
2. 다른 종류의 성적 죄, 레 18:26,27,29,30
3. 우상숭배, 신 7:25,26; 12:31; 14:3; 17:4; 27:15; 32:16; 왕하 16:3; 23:13; 렘 32:35
4. 흠있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 신 17:1
5. 마술을 행함, 신 18:8,12
6. 성의 혼동, 신 22:5
7. 성전의 창기, 신 23:18; 왕상 14:25
8. 이혼 후의 재 결혼, 신 24:4
9. 상거래에서의 속임, 신 25:16; 잠 11:1; 20:10,23
10.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잠 3:32; 6:16; 8:7; 11:20; 12:22; 15:26; 렘 7:10
11. 사악한 자의 제물, 잠 15:8,9; 21:27
12. 교만한 자, 잠 16:5
13. 거만한 지도자, 잠 16:12
14. 뇌물을 받는 재판관, 잠 17:15
15. 믿음의 삶이 없이 의식을 따라 드리는 분향의 제물, 사 1:13

▣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히브리인들이 음력을 사용했음을 기억하라. 모든 안식일이 중요했고 모든 월삭(참조, 민 28:11-15; 왕하 4:23; 사 66:23)에는 종교적 행사가 있었다. 또한 모세의 법을 따라 매년 세 번씩 절기로 모였다(참조, 출 23:14-17; 34:18-26; 레 23 장; 신 16:1-17).

1:14 히브리어의 구문은 여기서 완전하지 않은데, 이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격하게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앞에 나오는 세 동사는 모두 **완료형**(마쳐진)이다.

1: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 . . 기도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가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본문에 없음을 뜻한다. 손을 펴는 것(참조, 출 9:29,33; 왕상 8:38,54; 대하 6:12)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참조, 요 11:41; 17:1)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자세였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 듣기를 거부하신다(참조, 8:17; 54:8; 59:2; 신 31:17; 렘 11:11; 겔 8:18). 그 이유는 그들이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된 자세로 나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기 때문이다. 많은 제물이 야웨께 아무 소용이 없었듯이, 마음 속 깊이 일어나는 믿음과 회개없이 드리는 많은 기도도 그렇다.

▣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은 폭력적인 살인 혹은 무죄한 자를 계획적으로 죽임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1:16-17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16-17 선지자는 야웨의 마음을 일련의 명령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1. 너희 자신을 씻으라, BDB 934, KB 1220, 칼 명령
2.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BDB 269, KB 269, 히트파엘 명령
3. 악을 제거하라, BDB 693, KB 747, 히필 명령
4. 행악을 그치라, BDB 292, KB 292, 칼 명령
5.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 BDB 540, KB 531, 칼 명령
6. 정의를 구하라, BDB 205, KB 233, 칼 명령
7. 무자비한 자를 꾸짖으라, BDB 80, KB 97, 피엘 명령(아마도 “압제자를 꾸짖으라”)
8. 고아를 신원하라, BDB 1047, KB 1622, 칼 명령
9. 과부를 위해 신원하라, BDB 936, KB 1224, 칼 명령

사람이 동정을 하는 바른 행위으로써 야웨의 뜻을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마 25:31-46). 우리가 함께 언약적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종종 성경적 믿음에 대하여 혼동이 생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즉, 은혜, 자비)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신자의 행위에 근거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언약적 상호관계에 대한 좋은 예는 겔 18:31 과 겔 36:26-27(또한 엡 2:8-9,10)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분명해진다!

특별주제: 동양의 문학

큰 그림 - 성경의 역설

1. 이 통찰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 나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서로 다른 본문이 조직적으로 정리된 진리가 아니라 취사 선택한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성경을 진지하게 다루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영감받은 본문은 영감받은 다른 본문을 취소하거나 그 뜻을 약화시킬 수 없다! 진리는 성경 전체를 알 때 얻게 되는 것이지(단지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영감받은 것이다, 참조, 딤후 3:16-17), 어떤 본문을 인용함으로써(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대부분의 성경적 진리(동양의 문학)는 변증법적으로 혹은 역설적인 쌍으로 제시된다(누가를 제외한 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졌고 대중적인 헬라어로 기록했다. 지혜문학과 시문학은 진리를 평행을 이루는 행으로 표현한다. 반의적 평행법은 역설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동의어적 평행법은 평행을 이루는 귀절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어쨌든 양자가 똑같이 참이다!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단순한 전통적 방법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된다!

- ㄱ.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 ㄴ.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 ㄷ. 원죄 대 의지적 죄
- ㄹ. 하나님이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 ㅁ.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 ㅂ.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 인간이 저자인 성경
- ㅅ. 죄없음(완전함, 참조, 로마서 6 장) 대 죄를 적게 지음
- ㅇ.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 ㅈ. 믿음으로 의롭게 됨(로마서 4 장) 대 행함으로 확인되는 의롭게 됨(참조, 약 2:14-26)
- ㅊ. 그리스도인의 자유(참조, 롬 14:1-23; 고전 8:1-13; 10:23-33)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참조, 갈 5:16-21; 엡 4:1)
- ㅋ.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 ㅌ.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 ㅍ. 구원에 대해 사용한 바울의 여러 은유
 - (1) 양자됨
 - (2) 성화
 - (3) 칭의
 - (4) 구속
 - (5) 영화
 - (6) 예정
 - (7) 화목케 됨
- ㅎ.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 ㄱ.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인간이 언약을 따라 가져야 하는 응답으로서의 회개(참조, 막 1:15; 행 20:21)
- ㄴ. 영원히 있는 구약 대 내버려져 무효로되고 쓸모없이 된 구약(참조, 마 3:17-19 대 5:21-48; 로마서 7 장 대 갈라디아서 3 장)
- ㄷ. 종/노예인 신자 대 자녀/상속자인 신자

1:17

NASB

“무자비한 자를 책망하라”

NKJV

“압제자를 책망하라”

NRSV

“압제받는 자를 구출하라”

TEV

“압제받는 자들을 도우라”

NJB

“폭력적인 자를 훈계하라”

LXX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를 구해내라”

페쉬타

“압제받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맛소라 본문에는 “압제자들을 바르게 하라”(이곳에서만 사용됨)로 되어있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복된 자로 불리다” 또는 “바르게 하다”(BDB 80, KB 97, *피엘 명령*)인데 이 문맥에는 적합하지 않는 뜻이다. 이것은 아마도 맛소라 본문의 모음부호를 “압제자들”에서 “압제를 받는 자들”(즉, *칼 분사*, BDB 330)로 바꾸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 “고아... 과부” 이 작은 압제를 받는 모든 자와 사회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을 모두 일컫는 상징적 표현이다(참조, 출 22:21-22; 신 24:17,19,20,21; 욥 24:3; 시 68:5; 렘 7:6; 애 5:3; 겔 22:7; 숙 7:10;

말 3:5). 이들은 신명기에서 야웨의 개인적 돌보심과 관심의 대상으로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즉, 신 10:18; 시 10:14,18; 68:5; 렘 49:11).

고대 근동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함을 가져오는 책임은 특별히 왕에게 있었다!

개역개정 1:18-20

¹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¹⁹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²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18-20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개인의 책임과 범죄함에 따르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 선지자는 “법정 장면”(즉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과 이혼하심)을 나타내는 문학적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에 대한 유추는 계속 이어진다.

만일 야웨의 백성이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한다면 야웨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으시다! 그들이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언약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참조, 레위기 26 장; 신명기 28 장).

여기서 두 **동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초청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1. 오라(문자적으로는 “걸으라,” “가라”), BDB 229, KB 246, **칼 명령**
2.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BDB 406, KB 410, **니팔 청유형**, 참조, 욥 23:7

그들이 만일(처음 나오는 “만일” 조건절, 19 절) 적합하게 응답할 때(즉,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19 절) 일어날 결과를 주목하라.

1. 죄가 용서 받는다(주홍같음에서 눈 같이 희게)
2. 죄가 용서 받는다(진홍같음에서 흰 양털같이)
3. 땅의 가장 좋은 산물을 먹는다

그들이 만일 거절하고(BDB 549, KB 540, **피엘 미완료형**) 반역할 때(BDB 598, KB 632, **칼 완료형**) 일어날 일을 주목하라. 그들은 삼키움을 당할 것이다(BDB 37, KB 46, **칼 수동 미완료형**).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로하여금 적합하게 반응할 것을 촉구하고 계심이 흥미롭다. 이것은 예정과 자유의지의 신비스런 면이다. 둘 다 맞는다. 이 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언약 관계의 기본적 골격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창세기 1-2 장에 있는 교제는 구속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 회복된다. 타락의 영향은 뒤바뀔 수 있다(시간적인 한계 안에서). 1:19의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고대 세계에서 염색된 물건을 되돌릴 방법이 없었음을(즉, 그들은 탈색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용서(와 잊어버리심)는 기적적인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었다(참조, 시 103:11-14; 사 38:17; 43:25; 44:22; 미 7:19)!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죄를 가리키는 은유인 붉은 색은 15 절에서 언급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구에서 가져 온 표현일 것이다.

1:19 19 절의 “순종이 풍요의 문을 열 것이다”(문자적으로는 “땅의 가장 좋은 소산을 먹는다”; 항상 하나님의 뜻인 이 동사[BDB 37, KB 46, 칼미완료형])와 20 절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삼킴을 당하다”(칼수동 미완료형 또는 푸알미완료형)로 번역된 같은 동사 사이에 단어유희가 있다. 언약에는 축복과 책임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연결된다(참조, 레위기 26 장; 신명기 27-29 장)!

▣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구약에서 언약은 조건적이며 동시에 무조건적인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한 언약은 무조건적이지만, 인간이 응답해야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건적이다 (참조, 눅 6:46; 약 2:14-26).

특별주제: 언약

언약을 뜻하는 구약 용어 **ברית**(BDB 136)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히브리어에는 없다. 이것을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이 개념이 갖는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가 갖는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긴장은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한다:

1. 창조 자체(참조, 창세기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세기 12 장)
3. 아브라함과 언약(참조, 창세기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약속을 주심(참조, 창세기 6-9 장)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반응을 요구한다

1. 믿음으로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다(참조, 창세기 2 장)
2.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친척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또한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 했다(참조, 창세기 12, 15 장)
3. 믿음으로 노아는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배를 건축하여 동물들을 모아야 했다(참조, 창세기 6-9 장)
4.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함께 특별한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규정을 받았다(참조, 신명기 27-28 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같은 긴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난다. 이 긴장 관계는 겔 18 장과 겔 36:27-37(야웨의 행동)을 비교할 때 분명해 진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기초하는가 혹은 요구된 인간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점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는 내용이다. 두 언약은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창 3 장에서 상실한 교제의 회복 (2)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렘 31:31-34 의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 긴장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법은 외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내적인 갈망이 되었다.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방법은 달라졌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을 입증했다. 문제는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과 약함에 있다(참조, 로마서 7 장; 갈라디아서 3 장).

구약의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사이에 있는 긴장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거저주시지만, 구원을 위해 회개와 믿음(최초의 또한 계속적인)을 요구한다. 이것은 법적 선언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받아 주심을 직설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며 또한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이다!

신자들이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순종에로 부르심을 받았다(참조, 엡 2:8-10). 경건한 삶은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다.

1:20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참조, 24:3; 25:8; 40:8; 55:10-11; 마 5:18; 24:35; 눅 16:17)!

신자의 소망의 근거는 다음에 있다

1.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2.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3.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4. 하나님의 계시의 정확성

개역개정 1:21-23

²¹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²²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²³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1:21-23 이 부분은 이사야 당시의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특별한 장소였다(참조, 신 12:5,11,14). 그들은 신실하지 않게 되었으며 언약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참조, 23 절). 이 부분은 히브리어의 애가에 사용되는 운율이나 리듬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예언서의 문학적 양식이기도 하다(즉, 장례에서의 만가).

예루살렘이 범한 언약적 범죄를 주목하라.

1. 살인자(참조, 출 20:13,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생명을 취함, BDB 953, KB 1283, 참조, 렘 7:9; 호 4:2)
2. 반역자들인 지도자들
3. 도적과 같은 편이 된 지도자들
4. 뇌물을 사랑하는자들(참조, 5:23; 출 23:6,8; 신 16:19; 삼상 8:3; 시 26:10; 암 5:12; 미 3:11; 7:3)
5. 보상을 구하는 자들
6. 고아의 의지할 자가 아님
7. 과부를 위한 송사를 수리하지 않음(참조, 출 22:21-24; 렘 5:28; 7:6; 22:3; 겔 22:7; 스후 7:10)

이러한 내용은 신명기에 요약되어 있는 모세의 언약에 대한 범죄이다. 이 문맥에서 유다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언약을 어긴 일로 정죄받음을 주목하라(21 절에 있는 “창기”라는 단어가 가나안 사람들의 다산 숭배를 의미하지 않는 한).

1:21 “신실하던” 7:4-9 에 있는 특별주제: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을 보라.

1:22 유다의 도덕적 부패를 가리키는 두 은유가 나온다. 처음에 유다는 순수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NASB

“음료”

NKJV, NRSV

TEV, NJB

“포도주”

이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가 아니다(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단어의 여성 단수형은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동계어인 아카디아어 어근에 비추어 볼 때 이 단어는 물이 들어간(즉, 못 쓰게된) 맥주를 가리킨다.

특별주제: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I. 성경적 용어

가. 구약

1. *야인* - 이것은 포도주의 일반적 용어(BDB 406)로서 141 번 사용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어근으로 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항상 과일(주로 포도)의 즙을 발효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특별한 구절들은 창세기 9:21; 출 29:40; 민 15:5,10 이다.
2. *티로쉬* - 이것은 “새 포도주”(BDB 440)이다. 왜냐하면 근동의 날씨에서 발효는 즙을 짠 후 6 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 다음의 전통적인 구절들을 보라,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3. *아시스* - 이것은 분명히 알코올 음료를 말한다(“달콤한 술” BDB 779, 예, 율 1:5; 사 49:26).
4. *셰카* - 이것은 “독주”(BDB 1016)를 말한다. 히브리어 어근은 “술 취한” 또는 “주정뱅이”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좀 더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을 말했다. 이것은 *야인*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나. 신약

1. *오니스* - 이것은 *야인*과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다.
2. *에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 *티로쉬*와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이다(참조, 막 2:22).
3. *글레우코스 비노스*(달콤한 포도주, *아시스*) - 발효의 이른 시기에 있는 포도주(참조, 행 2:13).

II. 성경에서의 사용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창 27:28; 시 104:14-15; 전 9:7; 호 2:8-9; 율 2:19,24; 암 9:13; 숙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분이었다(출 29:40; 레 23:13; 민 15:7,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6:2; 잠 31:6-7).
4. 포도주는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노아 - 창 9:21; 롯 - 창 19:33,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 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장).

5. 포도주는 남용될 수 있다(잠 20:1; 23:29-35; 31:4-5; 사 5:11,22; 19:14; 28:7-8; 호 4:11).
6. 포도주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를 수행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7.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사용되었다(암 9:13; 율 3:18; 슥 9:17).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전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다. 신약

1. 예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다(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 되었다(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막 15:23; 눅 10:34; 딤후전 5:23).
5. 지도자들이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금욕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딤후전 3:3,8; 딤후 1:7; 2:3; 뱀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은 깊이 뉘우쳐야 한다(마 24:49; 눅 11: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뱀전 4:3; 롬 13:13-14).

III. 신학적인 통찰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이 커다란 문제가 된다.
3. 어떤 문화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믿는 자는 반드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마 15:1-20; 막 7:1-23; 고전 8-10장; 롬 14 장).

나. 주어진 한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다.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해왔다.

다. 남용의 문제가 물질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에게 있다. 창조된 물질 안에 악한 것은 없다(참조, 막 7: 18-23; 롬 14:14, 20; 고전 10:25-26; 딤후전 4:4; 딤후 1:15).

IV. 1 세기의 유대 문화와 발효

- 가. 발효는 포도가 으깨어진 후 6 시간 정도 후에 바로 시작된다.
- 나. 유대전통은 표면에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발효의 표시), 그것은 포도주 십일조에 적당했다(마 아세로쓰 1:7). 그것은 “새 술” 또는 “달콤한 술”이라 불렸다.
- 다. 격렬한 첫 번째 발효는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 라. 발효의 두 번째 과정은 40 일이 걸린다. 이 상태를 “숙성된 포도주”라고 간주하며 제단에 제사드릴 수 있다 (엘후요쓰 6:1).
- 마. 포도주의 앙금(오래된 포도주)위에 있었던 포도주를 상품으로 여겼지만, 사용하기 전에 이것을 잘 걸러져야만 했다.
- 바. 보통 1 년 동안 발효된 포도주를 적당하게 오래된 것으로 생각했다. 3 년은 포도주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라 불렀고 이것은 반드시 물로 묽게 만들어야만 했다.

사. 오직 지난 100 년 동안 멸균 환경과 화학적 첨가제를 사용하므로 발효기간이 길어졌다. 고대에는 발효의 자연적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V. 맺음말

가. 당신의 경험, 신학, 성경적인 해석이 예수님, 1 세기의 유대인, 그리고 혹은 기독교 문화를 깎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다.

나. 나는 알코올의 사회적인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말해 왔다. 그리고 문화적/교파적 편견에 근거해서 보다 나은 의를 주장해 왔다.

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10 장 말씀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안내서가 되었다. 즉, 개인적인 자유나 판단하는 비평이 아닌 모든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라. 만약 우리가 전체적인 금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화(예 -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1:23

NASB, NKJV,

LXX, 페쉬타 “상”

NRSV, TEV,

REB “선사품”

NJB

“선물”

이 용어(BDB 1024)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나온다. BDB 는 이것이 “상” 혹은 “뇌물”(앞 행에 나오는 뇌물[BDB 1005]과 평행을 이룸)로 설명한다. 기본적인 의미는 (1) **살룸**(BDB 1024), “평화,” “건강,” “완전함” 혹은 (2) “보상”(BDB 1024, 참조, 59:18; NIDOTTE 제 4 권 143 쪽)이다. 예루살렘 사회에서 평화는 사악하고 부유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개역개정 1:24-26

²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²⁵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²⁶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1:24-26 야웨께서 사악한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하신 이후에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앞으로의 계획(참조, 2 절)을 말씀하신다.

1.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24 절, BDB 636, KB 688, **니팔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된 **미완료형**
2.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24 절, BDB 667, KB 721, **니팔 청유형**
3.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리겠다,” 25 절, BDB 996, KB 1427, **히필 청유형**
4. “내가 네 찌꺼기를 잣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겠다,” 25 절, BDB 864, KB 1057,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
5.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25 절, BDB 693, KB 747, **히필 청유형**
6. “내가 네 재판관들을 회복할 것이다,” 26 절, BDB 996, KB 1427, **히필 청유형**
7. “내가 네 모사들을 회복할 것이다,” 26 절(6 항과 같이 한 동사에 두 목적어가 있다: 이 내용은 출애굽 시기와 반드시 연결이 된다)

심판의 목적이 회복에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27 절)!

1:24 24 절에 하나님의 두 이름이 있음을 주목하라!

- 1.-2. 주 만군의 여호와(아돈, 야웨, 참조, 시 110:1; NIDOTTE 제 4 권 1297-1298 쪽)
3. 이스라엘의 전능자(참조, 창 49:24; 시 132:2,5; 사 49:26; 60:16)

1:25-26 “네게 . . . 네” 이 두 절은 야웨께서 말씀하고 계신 유다의 신실하지 않은 수도 예루살렘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힘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여성 단수**로 표현한다.

19 절과 20 절에서 같은 **동사**가 대조적으로 사용되었듯이, 25 절과 26 절도 그러하다

- 1 내가 내 손을 네게로 돌리겠다, BDB 996, KB 1427, **히필 청유형**
- 2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BDB 996, KB 1427, **히필 청유형**

27 절에 나오는 같은 용어인 “그 돌아온 자들”(BDB 996, KB 1427, **칼 능동 분사**)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 도우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1:26 “신실한 고을” 이것은 21 절에 나오는 비아냥거리는 말의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가? 예루살렘은 더 이상 “창녀”가 아니었다. 오히려 회복된 신실한 여인(즉, “도시”는 여성형이다)이 되었다. 이 도시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며, 서로에게 신실한 여인이 되었다!

개역개정 1:27-31

- ²⁷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 ²⁸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 ²⁹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 ³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 ³¹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끝 사람이 없으리라

1:27-28 평행법을 주목하라.

1. 27 절, 회복된 도시의 사람들(26 절의 3 행과 4 행)은 “정의”와 “공의”로 특징지어진다
2. 28 절,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돌아선 자들)은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따라서 27 절과 28 절에는 동의어적 평행법이 있고, 27 절과 28 절에는 반의적 평행법이 나온다.

27 절과 관련하여 약간의 질문이 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행하실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신실한 언약 백성이 할 일을 가리키는가? 그 답은 “그렇다”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잃어버려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내용은 목적격적(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주격적(신자들이 행함)이다.

1:29 이 절은 유다의 우상숭배에 대해 지적한다.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다

1. *바알, 아세라*를 지역에 있는 성소에서 섬김(즉, 살아 있는 나무나 조각한 막대기가 *아세라*를 상징했다. 참조, 또한 57:5 는 아이들을 *몰렉*에게 제사로 바쳤다고 언급한다)
2. 성스러운 나무를 섬김(지역의 신, 참조, 65:3; 66:17)
3. 성스러운 정원에서 예배하는 행위는 종종 비밀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있다.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 특별한 정원과 신전은 종종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문단(27-31 절)이 유대 사회 부유층의 물질주의와 수탈을 가리킬 수 있음을 반드시 덧붙여 말해야 했다. 29 절의 내용은 우상숭배(즉, 야웨의 독특성을 범하는)가 아니라 재산을 취하는 것(즉, 야웨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보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에 대한 범죄)을 말한다

이 장을 읽고 당신 자신의 결정을 하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열방에 야웨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실패한다!

1:30 “마른” 이 동사(BDB 615, KB 663, *칼 능동 분사*)는 은유적으로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뜻한다(참조, 34:4; 64:6; 시 90:5-6).

1:31 불은 종종 심판이나 정결케 함과 관련이 있다(즉, 6:13; 렘 4:4; 7:2; 암 5:6).

특별주제: 불

성경에서 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 긍정적 의미

1. 따뜻하게 함(참조, 사 44:15; 요 18:18)
2. 빛을 비춤 (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힘(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정화함(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3: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심(참조, 행 2:3)

나. 부정적 의미

1. 태움(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멸망시킴(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냄(참조, 민 21:28; 사 10:16; 스후 12:6)
4. 벌함(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된 종말론적 표식(참조, 계 13:13)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은유로써 나타난다

1. 그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참조, 호 8:5; 스후 3:8)
2. 그가 불을 쏟고 있다(참조, 나 1:6)

3. 영원한 불(참조, 렘 15:14; 17:4)
 4. 종말론적 심판(참조, 마 3:10; 13:40; 요 15:6; 살후 1:7; 벴후 3:7-10; 계 8:7; 13:13; 16:8)
- 라. 성경에 있는 여러 은유적 표현과 같이(즉, 누룩, 사자) 불은 문맥에 따라서 축복 혹은 저주를 나타낼 수 있다.

▣

NASB	“강한 남자”
NKJV, NRSV, NJB	“강한 자”
LXX, 페쉬타	“그들의 힘”
REB	“가장 강한 나무”
JB	“높은 계급의 사람들”

이 형용사(BDB 340)는 이곳과 암 2:9 에서만 사용된다. 두 문맥에서 나무와 관련이 있다(참조, 29,30 절). 아마도 REB 의 해석이 가장 좋다. 이것은 목재, 나무, 혹은 정원과 관련있는 우상숭배를 가리킨다.

▣ “삼오라기” 이 용어(BDB 654)는 이 동사형에서는 “흔들린”(참조, 33:9,15)을 뜻하지만, 구약에서 단 두 번만 사용된 명사형은 아마로 엮은 줄/로프(거친 삼)를 가리킨다(참조, 삿 16:9).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사야가 유다를 위한 주요 예언자로서 섬겼는가?
2. 왜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신인동형적 용어를 사용하는가?
3.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4. 구약과 신약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정의하라.

이사야 2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하나님의 집의 미래	두 번째 표제어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
2:1	2:1-4	2:1	2:1-5	2:1-5
		새 희망		
2:2-4 (2-4)	(2-4)	2:2-4 (2-4)	(2-3) (4)	(2-3) (4)
		주님의 날		
2:5-11 (5-11)	2:5-9 (5) (6-9)	2:5-22 (5-22)	거만함이 멸망받는다 2:6-8 2:9	(5) 야웨의 위엄이 빛남 2:6-22 (6-8) (9-10)
응보의 날이 옴	2:10-11 (10-11)			(11-16)
2:12-22 (12-22)	2:12-22 (12-18) (19) (20-21) (22)		2:19-21 2:22	(17) (18-19) (21) (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2 장은 1:1 장과는 다른 서론적 구로서 시작한다. 다음의 사항에 근거하여 편집자들이나
 편찬가들이 이사야의 설교/환상/메시지를 정리하였을 것이다
 1. 연대기(다스린 왕)
 2. 주제
 3. 중심 단어
 4. 알려지지 않은 문학적 구조
 5. 이사야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기록된 사본
 유대인 연구 성경 787 쪽에 있는 설명을 보라.
- 나. 이 장은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1.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 모든 열방이 갖는 희망(2-4 절)
 2. 언약을 범한 일과 사악함에 대한 심판(5-22 절)
- 다. 야웨는 의롭고 거룩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열방에 드러내어 열방으로 하여금
 믿음과 의로써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기를 원하셨다(참조, 45:22; 49:6; 60:3; 66:18,23).
- 라. 어떤 단어의 단편적인 사전적 연구나 혹은 그것의 상세한 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행법과 단어유희와 대조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모습에 근거하여 이러한 시 문학적 단위
 (이상)의 해석에 임하여야 함을 기억하라! 시 전체가 한 가지의 주요 진리를 말한다!
 당신이 좋아하거나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조직신학에 들어 맞는 어떤 주제나 단어 혹은
 진리를 취사선택하여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사야서가 말하게 하라!
- 마. 예루살렘(심판을 받고 축복을 받는)이라는 통일된 주제를 고려할 때, 2-4 장은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이룬다.
- 바. 예언서와 묵시문학의 언어적 표현을 이해함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된 책은 D. 브렌트
 샌디의 *쟁기와 전정용 낫: 성경의 예언과 묵시문학적 언어를 재고함*(IVP, ISBN 0-83-8-
 2653-X)이다.

간략한 개요

- 가. 비유적인 노래, 1-6 절
- 나. 아이러니한 해석, 7 절

- 다. 결과로서 있을 야웨의 심판, 8-30
 - 1. 화의 연속적인 선언, 8-23 절
 - 2. 심판, 24-30 절
 - ㄱ. 자연적, 25 절
 - ㄴ. 침략자에 의한, 26-30 절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1

¹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1 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설명되는지는 불확실하다

- 1. 이상, 1:1; 29:7(BDB 302, 참조, 미 3:6)
- 2. 그가 본 것, 1:1; 2:1; 13:1; 26:11; 33:17; 48:6; 57:8(참조, 미 1:1)

이것은 계시의 신비로운 면이다. 계시는 성경의 여러 저자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전했졌다(이상, 꿈, 신의 현현, 말씀 등). 각 저자(저자, 편집자, 편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하고 이를 제시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모른다. 그들이 자신의 언어적 기교와 용어들을 사용했을 것은 분명하다. 계시가 작용하는 방법을 완전하게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이 개념은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특별한 시대와 특별한 공동체적 환경에 있던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시대의 각 사람에게 상관성이 있다! 원래 영감을 받은 원저자의 의도가 해석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적합한 해석을 위한 열쇠이다(한 가지 뜻을 가지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중요성/적용점을 갖는다).

개역개정 2:2-4

²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³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⁴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2:2-4 이 간략한 문단은 언약 백성의 위치와 목적에 대한 구약의 시각을 잘 나타낸다(미 4:1-5 과 비슷함). 그들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다(참조, 51:4,5; 눅 24:47)!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2:2 “말일에” 이 구는 성경 저자가 가진 미래적인 지평을 가리킨다(G. B. 케어드의 *성경의 언어와 상상*, 제 14 장 “종말론적 언어” 243-271 쪽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때를 가리킨다.

1. 메시아 왕국, 창 49:1(특히 49:10); 민 24:14-25(특히 24:17); 사 2:2; 렘 48:47; 49:39; 겔 38:8,16
2. 이스라엘의 반역, 신 31:29
3. 이스라엘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 오, 신 4:30; 호 3:5; 렘 23:19-22(특히 23:20)
4. 마지막 때에 있을 언약 백성에 대한 공격, 겔 38:16; 단 2:28; 10:14(아마도 시 2 편)
5. 포로, 암 4:2

어떤 때를 말하는 지를 문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당신이 가진 조직신학의 사용을 조심하라!

특별주제: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현재의 연장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다. 한편 그들은 새 날을 보았다(참조, 사 65:17; 66:22).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함(심지어 포로기 이후에도)을 인해 신구약 중간시기에 쓰여진 묵시문학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즉, 에녹 1 서, 에스라 4 서, 바룩 2 서). 이 책들에는 두 세대가 구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령과 오실 메시아(종종 강력한 전사)가 주장하는 다가올 의의 세대와 사탄이 주장하는 현재의 악한 세대.

이러한 신학적 영역(종말론)에 사상의 발전이 분명히 나타난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점진적 계시”로 말한다. 신약은 두 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새 우주적 실재를 제시한다(즉, 시간적 이중성):

<u>예수</u>	<u>바울</u>	<u>히브리서</u>
마태복음 12:32	로마서 12:2	1:2
마태복음 13:22&29	고전 1:20; 2:6,8; 3:18	6:5
마가복음 10:30	고후 4:4	11:3
누가복음 16:8	갈라디아서 1:4	
누가복음 18:30	엡 1:21; 2:1,7; 6:12	
누가복음 20:34-35	디모데전서 6:17	
	디모데후서 4:10	
	디도서 2:12	

신약의 신학에서 이러한 유대인의 두 세대가 겹쳐지는데, 이는 메시아가 두 번 오시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또 간과된 예언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성육신은 새 세대가 도래함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 그러나 구약은 예수께서 심판자와 정복자로 오심을 말하면서도 또한 그가 처음에 겸손하고 온유한(참조, 스펀 9:9) 고난받는 종(참조, 사 53 장)으로서 오실 것을 말한다. 구약이 예언하듯이 그는 권능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계 19 장). 이렇듯 두 단계에 걸친 성취는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 임했고(시작됨)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완전히 완성되지 않은)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다!

▣ “여호와와의 전의 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 위에 위치한 성전을 가리킨다. 이 곳은 야웨께 대한 예배의 중심적 장소였다(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실 장소, 참조, 신 12:5,11,14,18,21,26; 14:25; 15:20; 16:2,6,11,15; 17:8,10; 18:6; 26:2; 31:11).

NIV 연구성경(962-3 쪽)은 마지막 날에 모든 열방이 올 여호와와 산이라는 주제가 이사야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 가에 대해 설명한다(참조, 11:9; 27:13; 56:7; 57:13; 65:25; 66:20).

어떤 면에서 시온 산(즉, 야웨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는 것은 가나안의 신화에 나온다(참조, NIDOTTE 제 4 권 1314-1321 쪽).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이 가장 북쪽에 있는 차폰

산(참조, 사 14:13)에 거한다고 여겼다. 시 48:2 은 이것을 시온 산에 대한 내용으로 바꾼다. 야웨는 가나안의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다!

이와 같이 성전이나 도시가 높이 들린다는 개념이 메소포타미아의 문학에서도 발견된다(참조, 와이드너 역대기, 앗시리아의 비문, 마르둑에 대한 예언). 따라서 이 개념은 이사야서에 독특한 것은 아니다.

▣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 주신 야웨의 계시에서 중요 장소를 나타내는 은유적 용어를 주목하라.

1. “모든 산 꼭대기,” 즉, 참 계시의 장소
2.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뛰어남과 유일성
3. “많은 백성이 그리로 가며,” 이것은 항상 야웨의 목적이었다, 참조, 창 3:15; 12:3; 출 19:5-6; 사 56:6-8! 이것은 유일신 주의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특별주제: 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가?

나는 종말론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정리되고 조직된 마지막 때의 연대에 대해 모르거나 혹은 그것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심리적, 혹은 교파적 이유에서 이것에 강조점을 두거나 이것을 기독교의 주요 교리로 삼아 연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이 끝나게 될지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결국 복음의 긴급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말적(세상 끝) 예정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복음전파의 위임에는 참여할 수 있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에 성취될 것을 믿는다. 역설적으로 보이는 여러 성경구절로부터 어떻게 이 절정을 시간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가 제기된다.

1. 옛 언약적 예언 모델과 새 언약적 사도 모델 사이의 긴장
2. 성경의 유일신론(모든 이를 위한 한 분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특별한 민족으로) 사이의 긴장
3. 성경의 언약과 약속이 갖는 조건적인 면(“만일 . . . 하면 그 때는”)과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신실하심 사이의 긴장
4. 근동의 문학적 장르와 서구의 문학적 모델 사이의 긴장
5. 지금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긴장
6.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반드시 어떤 일들이 먼저 있을 후에 임하실 것이라는 믿음 사이의 긴장

첫 번째 긴장 (구약의 인종적, 국가적, 지역적 단위 대 온 세상에 있는 믿는 자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왕국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다. 거기에 땅의 모든 민족이 찬양드리기 위해 모여들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릴 것이 또한 예견되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이 내용에 초점을 둔 적이 없다. 구약이 영감되지 못하였는가(참조, 마 5:17-19)? 신약의 저자들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 질 중요한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는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자료의 여러 원천은 다음과 같다:

1. 구약의 선지자들(이사야, 미가, 말라기)
2. 구약의 묵시적 책의 저자들(참조, 겔 37-39 장; 단 7-12 장; 스가랴)
3. 신구약 중간시대의 정경이 아닌 묵시적 책의 저자들(유다서에서 암시된 에녹 I 서와 같은 책)
4. 예수님 자신(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5. 바울의 서신들(참조, 고전 15 장; 고후 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
6. 요한의 글들(요한 1 서와 계시록).

이것들은 모두 분명하게 마지막 때의 일(사건, 연대, 인물들)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는가? 만일 아니라면 왜 그런가? 이것들은 모두 영감받지 못했는가(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저작은 제외하고)?

성령은 구약의 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내용으로 진리를 그들에게 드러내셨다. 그러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 성령님은 구약의 종말론적 개념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셨다(“그리스도의 신비,” 참조, 엡 2:11-3:13, 10:7의 특별주제를 보라). 여기에 몇 가지 관련된 예가 있다:

1. 구약에서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유(시온)로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에서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심을 나타내는 용어로 제시된다(계시록 21-22 장의 새 예루살렘). 글자대로 눈에 보이는 도시를 하나님의 새 백성(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신학적 확장은 창 3:14 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아직 유대인도 유대인의 수도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에서 미리 보여진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 12:1-3)에도 이방인들이 말해진다(참조, 창 12:3; 출 19:5).

2.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주위에 있는 고대 근동 국가였지만, 신약에서는 믿지 않고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사탄에 의해 영감을 받는 모든 이들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전쟁은 지형적, 지역적 갈등에서 세계적, 우주적 갈등으로 바뀌었다(참조, 골로새서).
3.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땅의 약속(창세기에서 족장에게 주신 약속, 참조, 창 12:7; 13:15; 15:7,15; 17:8)은 이제 지구 전체가 되었다. 새 예루살렘은 재 창조된 땅으로 내려오지 근동에만 혹은 배제적인 면으로 성취되지 않는다(참조, 계 21-22 장).
4. 구약에서 예언의 개념이 확장된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로는:
 - ㄱ. 아브라함의 씨는 이제 영적으로 할례받은 자이다(참조, 롬 2:28-29)
 - ㄴ. 언약의 백성은 이제 이방인을 포함한다(참조, 롬 9:24-26 에서 인용한 호 1:10; 2:23; 또한 고후 6:16-18 에서 인용한 레 26:12; 출 29:45; 그리고 딤후 2:14 에서 인용한 출 19:5; 신 14:2)
 - ㄷ.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고(참조, 마 26:61; 27:40; 요 2:19-21) 그를 통하여 지역교회(참조, 고전 3:16) 혹은 믿는 각 사람(참조, 고전 6:19)이 성전이 되었다.
 - ㄹ.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일컫는 독특한 구약의 명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즉, “이스라엘,” 참조, 롬 9:6; 갈 6:16, 즉, “제사장 나라,” 참조, 벧전 2:5,9-10; 계 1:6)

예언 모델은 성취되었고, 확장되었으며 이제 더욱 많이 포괄적이 되었다. 예수님과 사도적 저자들은 마지막 때를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참조, 마틴 원가르텐, *예언에서의 왕국의 미래와 성취*). 구약의 모델을 문자적 혹은 규범적으로 취하려는 현대의 해석가들은 계시록을 매우 유대적인 책으로 뒤틀며, 그 의미를 따로 떼어 놓아 예수님과 바울의 표현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것의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나타내었다. 예수님이나 바울의 종말론은 조직화된 논리적 시스템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구속적이거나 목회적이었다.

하지만 신약 자체 안에도 긴장이 나타난다. 종말론적 사건이 분명하게 조직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놀라우리만큼 많은 면에서 계시록은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 구약의 암시를 사용하여 마지막 때를 설명한다(참조, 마 24 장; 막 13 장)! 이것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라서에 의해 시작되고 신구약 중간시대를 거쳐 발전된(유대 묵시문학) 문학적 장르를 따른다. 이것은 요한이 옛 언약을 새 언약과 연결시키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된 인간 반역의 형태와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 헌신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명백히 하여야 할 점은 비록 계시록이 구약의 언어, 인물, 사건을 사용하지만 이것을 1 세기의 로마시대의 배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계 1:7).

두 번째 긴장 (유일신론 대 선택받은 한 백성)

성경의 강조점은 한 영이시며,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한 분께 있다(참조, 출 8:10; 사 44:24; 45:5-7,14, 18,21-22; 46:9; 렘 10:6-7). 당시 구약의 독특성은 유일신론에 있었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신교 신앙이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구약 계시의 핵심이다(참조, 신 6:4).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의 목적을 위한 장이다 (참조, 창 1:26-27). 그러나 인간은 반역했고 하나님의 사랑, 지도력, 목적에 거스려 범죄했다(참조, 창 3 장).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은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여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국가를 택하시 나머지 인류를 구원코자 하실 때 긴장이 발생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참조, 출 19:4-6) 섬김 대신에 자긍심을, 끌어 앉음 대신에 배척을 야기시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의도적인 축복을 포함했다(참조, 창 12:3). 구약에서 택함은 섬김을 위한 것이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강조해야 한다. 결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그들이 전적으로 출생에 의해서(참조, 요 8:31-59; 마 3:9)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였다(참조, 롬 4 장에서 인용한 창 15:6). 이스라엘은 받은 바 사명을 잃어 버렸고(이제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이다, 참조, 1:6; 벧후 2:5,9), 위임을 특권으로 바꾸어 버렸고, 섬김을 특별한 지위로 간주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택하시기 위해 한 명을 택하신다!

세 번째 긴장 (조건적 언약 대 무조건적 언약)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사이에 신학적인 긴장 혹은 역설이 있다.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계획이 무조건적임은 확실히 사실이다(참조, 창 15:12-21). 그러나 요구되는 인간의 응답은 항상 조건적이다!

“만일 . . . 하면 그 때는”의 표현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 이 긴장은 많은 혼동을 일으킨다. 해석가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 다 성경적이고 또한 필요하다.

이것은 종말론,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으면, 그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얽매어 있으시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참조, 겔 36:22-38).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난다(참조, 사 53 장)! 하나님의 궁극적 신실하심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지 당신의 아버지/어머니에 달려있지 않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열매가 되신다. 만일 성경에 어떤 신학적인 삽입구가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참조, 행 7 장과 갈 3 장).

복음 전파를 위한 세계선교는 교회에 전해졌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이것은 아직 조건적인 언약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거부하심을 뜻하지 않는다(참조, 롬 9-11 장). 믿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위한 장소와 목적이 있다(참조, 스펀 12:10).

네 번째 긴장 (근동의 문학적 모델 대 서구의 모델).

장르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는 서구(헬라)의 문화적 환경에서 발전되었다. 동양의 문학은 현대의 서양 문화에 배경을 둔 문학적 모델보다 더 회화적이고, 은유적이며, 상징적이다. 이것은 간결한 명제적 진리보다 사람들, 만남, 사건에 더 큰 관심을 둔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역사와 문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성경(구약과 신약)의 예언을 해석하려는 잘못을 해 왔다. 각 세대와 지역에 속한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 역사, 문학을 사용하여 계시록을 해석하려 했다. 이 모두가 잘못되었다! 현대의 서양 문화가 성경의 예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만한 생각이다!

영감받은 원저자가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한 장르는 독자와의 문학적 약속이다. 계시록은 역사적 이야기체가 아니다. 이것은 편지(1-3 장), 예언, 그리고 대부분은 묵시적 문학의 조합이다.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은 그가 의도했던 것 이하로 말하게 하는 것만큼 잘못이다! 해석자의 거만함과 교리적 독선은 계시록과 같은 책을 해석함에 있어서 더욱 부적합하다.

교회는 계시록의 적절한 해석에 있어서 결코 동의한 적이 없었다. 나의 관심은 성경의 일부분이 아닌 전 책을 들고 다루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동양적 사고 방식은 진리를 긴장으로 가득찬 짝으로 제시한다. 명제적 진리를 추구하는 서양의 접근방법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신자들에 맞춘 바뀌어진 목적을 인식함으로써 적어도 몇 가지의 막다른 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많은 해석자들이 반드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이것의 장르를 고려하여 계시록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계시록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반드시 첫 번째 독자가 이해했거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다루어야 한다.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해석자들은 그 책에 있는 많은 상징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계시록의 일차적인 관심은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구약의 예언서들이 그리하였듯이); 이 책은 역사가 심판이든 축복이든 정해진 끝을 향하여 진행함을 확인해 준다(구약의 예언서들이 그리하였듯이). 이 책은 1 세기의 유대 묵시적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 임재, 능력, 주권을 나타낸다!

이 책은 각 시대에 속한 신자들에게 이같은 신학적 방법으로 말한다. 이 책은 선과 악의 우주적 싸움을 그린다. 1 세기의 세세한 설명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위로가 되는 진리의 상실이 아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자들이 계시록의 세세한 부분을 자신의 최근 이야기로써 이해하려 할 때 잘못된 해석의 형태는 계속된다!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인 지도자(참조, 살후 2 장)와 문화에 의해 마지막 세대의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책에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다시 한번 놀랍도록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구약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죽음에 대하여 그리하였듯이). 예수님의 말씀(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과 바울의 증거(참조, 고전 1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지를 모른다. 추측, 관망, 교리화는 모두 부적절하다. 묵시 문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비유적인 표현과 상징이 역사적 기술방법을 뛰어 넘어 메시지를 전달함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오신다!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은 이 장르가 지닌 특징을 놓치고 있다! 현대 서구 번역가들은 종종 명확하고 논리적인 신학적 구조를 추구하는 반면, 모호하고 상징적이며 극적 장르에 속하는 유대 묵시문학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은 랄프 P. 마틴의 “신약성경 주해의 방법”에서 잘 표현되었다. 마틴의 글은 I. 하워드 마샬이 편저한 책인 *신약성경 해석*에 있다:

“우리가 이 책의 극적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이 책의 언어가 종교적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갖는 특징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하게 된다. 곧 이 책의 이상을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산문으로 기록된 책에 있는 내용으로서 경험적인 사건들과 측정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해석하려는 잘못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 경향을 갖는 것은 해석에 따르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일으킨다. 더 심각하게는 이것은 묵시로 표현된 본질적 의미의 변질을 가져와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양식으로 쓰여진 부분의 중요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신약의 묵시문학은 신비로운 시적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능력과 사랑이 역설적으로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지배(즉, 5:5, 6; 그 사자는 그 어린 양이시다)를 극적으로 확인한다”(235 쪽).

W. 란돌프 테이트는 그의 책 *성경적 해석*에서:

“열정적으로 읽혀지는 책이지만 묵시적 장르를 갖는 다니엘서와 계시록만큼 서글픈 결과를 가져오는 성경의 장르는 없다. 이 장르가 갖는 문학적 형태, 구조, 목적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로 인해 묵시적 장르의 내용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재앙적인 역사적 고통을 받아 왔다.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드러낸다고 이 장르가 주장하기 때문에 묵시적인 책은 미래에 대한 지도와 청사진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비극적 생각의 시작은 묵시적 책이 말하는 사항이 저자의 시대적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 오늘날의 독자의 시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있다. 묵시적 책(특히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접근방법은 마치 이 책의 본문에 나오는 상징을 오늘날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암호문으로 여기게 한다. ... 첫 째로, 묵시적

본문이 상징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해석자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은유적 의미로 사용된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길이다. 묵시적 책에 있는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일일 수 있다;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저자는 표상과 본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고 표상과 본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137 쪽).

리켄, 율호스트, 롱맨 III가 편저한 *성경의 표상 사전*에서:

“오늘날의 독자들은 이 장르로 인해 종종 당황하고 당혹하게 된다. 예상치 못한 표상들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은 기괴하고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과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학적 장르를 액면 그대로 취함으로써 많은 독자들은 서둘러 “무엇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알기 위해 혼동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이 묵시적 메시지가 의도한 바를 놓치게 된다”(35 쪽).

다섯 번째 긴장 (지금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 있지만 또한 미래에 있을 왕국이다. 이러한 신학적 역설은 종말론의 관점에 초점을 둔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구약 예언의 문자적 성취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지형적으로는 자신의 땅을 갖고 신학적으로는 뛰어난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대개 뜻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5 장이 교회가 비밀스럽게 휴거됨을 말하는 것으로 또한 그 이후의 장들이 이스라엘에 관계된 내용으로 계시록을 이해하게 한다(그러나 계 22:16 을 보라).

그러나 우리가 약속된 구약의 메시아가 시작하신 왕국에 초점을 둔다면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현재적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삶, 가르침, 죽음, 부활에 초점을 두게 된다. 신학적 강조점은 현재적인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도래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구원으로 구약이 성취되었지만, 어떤 이들에 대한 그의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 진것은 아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나는 대부분의 구약 예언이 메시아 왕국의 설립인(참조, 단 2 장) 초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와 같은 개념이다(참조, 단 7 장). 구약에서 초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있는 한편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작은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서이다(참조, 고전 15:26-27). 이것은 어느 것이 옳은가의 질문이 아니다; 둘 다 옳다, 하지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떤 해석가들은 메시아의 천년 왕국에 강조점을 둔 나머지(참조, 계 20 장) 성부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성경적 초점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 두어야겠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예비적인 사건이다. 구약에서 초림과 재림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것 처럼, 메시아의 임시적 통치도 그러하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것은 현재적(구원과 섬김에 있어서)인 동시에 미래적(권인과 능력에 있어서)이다. 만일 계시록이 메시아가 다시는 천년 왕국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예비적인 것이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참조, 계 21-22). 구약은 임시적인 통치가 필요한 것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사실상 다니엘서 7 장에 있는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지 천년의 통치가 아니다.

여섯 번째 긴장(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 대 늦춰진 *파루시아*)

대부분의 신자는 예수님께서 곧,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으로 배워 왔다(참조, 마 10:23; 24:17,34,44; 막 9:1; 13:30; 계 1:1,3; 2:16; 3:11; 22:7,10,12,20).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던 모든 세대의 신자들은 많이 잘못되었다! 예수께서 곧(즉시) 오심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약속이요 소망이었지만, 실제로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랬다. 신자들은 반드시 주께서 내일 오실 것 처럼 살아야 하며, 또한 주께서 더디 오실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대위임(참조, 마 28:19-20)을 수행해야 한다.

복음서(참조, 막 13:10; 눅 17:2; 18:8)와 데살로나가 전후서의 몇 본문은 늦춰진 재림(*파루시아*)에 기초한다.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이 반드시 먼저 일어날 것이다:

1. 전 세계적 복음전파(참조, 마 24:14; 막 13:10)
2. “죄의 사람”이 나타날 것임(참조, 마 24:15; 살후 2 장; 계 13 장)
3. 대 박해(참조, 마 24:21,24; 계 13)

의도적인 불명료함이 여기에 있다(참조, 마 24:42-51; 막 13:32-36)! 매일의 삶이 마치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서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자신을 훈련하라!

일정함과 균형

현대의 종말론적 해석을 하는 여러 학파는 모두 절반의 진리만을 말하고 있음을 지적해야만 하겠다. 그들은 어떤 본문에 대하여는 잘 설명하고 또 해석한다. 문제는 일정함과 균형에 있다. 종종 미리 갖고 있는 전제들을 가지고 성경의 본문을 사용하여 미리 형성된 신학적 골격을 채운다. 논리적이고, 연대적으로 잘 들어 맞으며, 조직적인 종말론을 성경이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가족 사진첩과 같다. 사진들이 사실을 나타내지만 항상 질서를 나타내거나, 문맥에 들어 맞거나, 논리적 연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진은 앨범에서 빠져 나와 있는데,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의 자손들은 이 사진들을 어떻게 제자리에 놓을지 모른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열쇠는 원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문학적 장르에 드러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해석가들은 신약의 다른

장르에 사용하는 자신의 석의적 도구와 과정을 그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에 사용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이 신학적 구조를 형성하게 하고 또 계시록이 그림을 그리듯이 하게 하는 대신 구약에 강조점을 둔다.

내가 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야 하겠다. 이는 계 22:18-19에 있는 저주를 인함이 아니라, 이 책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논란을 가져 왔고 또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킴을 인함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이지만 이것은 참되다(참조, 롬 3:4)!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촉진시키는 시도로서, 지도가 아니라 도로의 지시판으로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주석을 사용하기 바란다. 내가 가진 부적절함, 편견, 신학적 관심사에 따른 문제를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다른 해석가들이 가진 비슷한 문제도 보아 왔다. 모두들 계시록에서 찾아내기 원하는 것들을 그 책에서 찾고 있다. 장르로 인해 이것이 남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성경에 들어 있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속한 자신의 각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손을 잡자. 그러나 우리의 단체를 형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아마 그럴 것 혹은 아마 그럴지도 모르는 것 혹은 아마 사실이었을 지도 모르는 것을 따르지 말고, 명백하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신다!

▣ “**많은 백성이 가며**” 이 동사(BDB 625, KB 676, **칼 완료형**)는 이하의 수압에 의해 물이 지상으로 뿜어나오는 우물처럼 항상 물이 흐르는 물줄기를 뜻한다. 여기서 이것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야웨께로 흘러가는 것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2:3 민족들이 말하는 내용을 주목하라.

1. “오라,” BDB 229, KB, 246, **칼 명령**
2.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자,” BDB 748, KB, 828, **칼 미완료형**으로서 **칭유형**의 의미임
3.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BDB 434, KB, 436, **히필 미완료형**으로서 **지시형**의 의미임
4.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BDB 229, KB, 246, **칼 지시형**
5.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BDB 422, KB, 425, **칼 미완료형**으로서 **지시형**의 의미임

▣ “**그의 길**” 이 용어(BDB 73)는 이사야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고(참조, 2:3; 3:12; 26:7,8; 30:11; 33:8; 40:18; 41:3), 잠언에서도 빈번히 나온다(참조, 1:19; 2:8,13,15,19,20; 3:6; 4:14,18; 5:6; 8:20; 9:15; 10:17; 12:28; 15:10,19,24; 17:23; 22:25).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걷는(참조, 출 16:4; 사 30:20; 42:24; 렘 9:12; 26:4; 32:23; 44:10,23; 스 7:12) 믿음의 삶을 뜻한다. 믿음의 삶을 뜻하는 삶의 방법에 대한 은유는 신약 교회의 처음 이름인 “도”를 얻게 했다(참조, 요 14:6; 행 9:2; 19:9,23; 22:4; 24:14,22; 18:25-26).

▣ “**시온**” 예루살렘(로마와 같이)은 7 개의 언덕위에 세워졌다. 시온(BDB 851, 뜻은 불분명함)은 원래 그 위에 여부스 혹은 살렘으로 불리는 가나안인의 도시가 세워진 언덕의 이름이었다(참조, 왕상 8:1; 대하 5:2). 예루살렘이 커지면서 이 이름은 도시 전체와 성전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참조, 3 절의 6 행과 7 행; 렘 50:28; 51:10).

2:4 “**그가 ... 판단하시며 ... 판결하시리니**” 이 두 동사(BDB 1047, KB 1622 과 BDB 406, KB 410)는 지혜로운 통치자의 논리적 사고와 결정을 나타낸다. 야웨와 그의 메시아는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이다!

▣ 주님의 임재와 가르치심은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을 그치게 할 것이다(참조, 시 2 편; 겔 38-39 장). 그들은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참조, 9:6-7; 11:6-9; 57:19; 호 2:18; 스 9:10).

▣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것은 평화를 나타내는 관용구이다. 요엘 3:10 에 그 반대 내용이 나온다.

개역개정 2:5-11

- ⁵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 ⁶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 ⁷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 ⁸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 ⁹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 ¹⁰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 ¹¹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2:5 3 절(열방)과 5 절(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행을 이룸을 주목하라.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증거이다. 인간은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 안에서 걸어야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열방이 진리를 이스라엘을 통해 배웠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빛”은 참된 계시이다(참조, 60:1-2,19-20). 밤 하늘의 빛을 예배하는 것은 거짓된 계시에 속한다. 이 절은 바벨론 사람들이 행하던 별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일 것이다(참조, 6 절). 야웨와 그의 메시아는 열방을 향한 참된 빛이다(참조, 9:2; 42:6; 49:6; 51:4; 53:11).

2:6-9 이 부분은 왜 야웨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버리셨는가(BDB 643, KB 695, **칼 완료형**)를 설명한다.

1.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6 절
2.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다(BDB 778 II), 6 절
3. 그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였다, 6 절
4. 그들에게 재물이 많았고 군사적으로 강했다(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지했다), 7 절(7 절과 8 절에 “가득했다”[BDB 567, KB 583, **니팔 미완료형**]라는 것이 3 번이나 사용됨을 주목하라).
5.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다, 8 절(참조, 17:8; 37:19; 40:19; 44:17).
6. 그들은 일반 백성을 알잡아 보았다, 9 절(참조, 11, 17; 이 절이 8 절과 같이 우상숭배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 NKJV).

열방이 이러한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배울수 있겠는가!

위의 6 항(9 절)에 관하여 NASB 와 NKJV 는 이것을 언약백성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 가에 대한 또 다른 모습으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NRSV 와 TEV 는 이것을 모든 것의 종합으로서 보며 마지막 행은 야웨께 대한 탄원으로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실 것을 간구하는(폐쉬타) 내용이나 혹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임을 야웨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서(70 인역) 번역한다.

■	
NASB, NRSV	“동에서 온”
NKJV	“동방의”
TEV, JPSOA	“동쪽에서 온”
폐쉬타	“옛날의”
REB	“장사군들”

UBS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는 “동에서 온” 또는 “옛날의”(이 명사[BDB 869]의 의미로서 둘 다 가능하다)에 “B”등급(약간 의심이 있음)을 준다. NEB 와 REB 는 한 자음을 추가하여 “장사군들”로 번역한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부패시킨 동방(즉, 시리아, 앗시리아, 바벨론)의 종교적 영향을 가리킨다.

■ “**점을 치며**” 만일 이것이 바로 위의 행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라면, 맛소라 본문에는 “점장이” (참조, 레 19:26; 신 18:9-12)와 같이 “점치는 자”와 평행을 이루는 명사가 우연히 빠져있는 셈이다. 맛소라 본문이 가장 오래된 본문이거나 혹은 원래의 히브리 본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은 아니다. 이 본문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주요 교리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기억하라.

■	
NASB	“그들이 이방인의 자녀와 흥정하였다”
NKJV	“그들이 이방인의 자녀를 기뻐하였다”
NRSV	“그들이 이방인과 손을 잡았다”
TEV	“그들이 외국 풍습을 따랐다”
NJB	“이방인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다”
70 인역	“많은 이상한 자녀들을 그들이 낳았다”
폐쉬타	“그들이 많은 이방 자녀들을 길렀다”
REB	“이방인의 자녀들이 도처에 있었다”
JPSOA	“그들이 이방인의 풍속으로 가득찼다”

맛소라 본문에 “자녀”라는 단어는 없다. 동사 (1) “그들이 손을 맞잡다”(BDB 706 I, KB 765, **히필 미완료형**) 또는 (2) “넘치다”(BDB 974, 참조, NIDOTTE 제 3 권 1769 쪽)의 뜻이 불확실하다. 이 단어는 아마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상업적 거래
2. 정치적 연합
3. 우정
4. 외국인의 관습을 인정함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믿음이 분명히 희석되고 있다!

2:7 유다의 지도자에 대한 이 절의 설명은 신 17:16-17 에 나타난 내용과 정반대의 것이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참조, 31:1). 그러나 22 절(참조 31:3)은 물질이나 인간적 자원에 대한 의뢰가 실패함을 보여준다!

2:9 “자...자” 9 절은 동의어적 평행을 이루는 두 행으로 되어있다(참조, 왕하 7:10). 사람/인간을 뜻하는 용어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평행을 이룬다.

1. *아담*, BDB 9, 참조, 1:26; 6:1,5,6,7; 9:5,6
2. *이쉬*, BDB 35, 참조, 창 2:23; 민 23:19



NASB, NKJV,

NRSV, TEV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NJB, NIV “그들을 다시 일으키지 마옵소서”

70 인역 “그들을 사하지 마옵소서”

페쉬타 (난외주로써 생략함. 참조, 사해사본과 JB의 각주)

이 동사(BDB 669, KB 72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는 “들어 올리다” 또는 “나르다”를 뜻한다. 여기서 이것은 “가져 가다”(즉, 그들의 죄를 제거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이사야 자신이 말한 감탄사일 것이다.

2:10-11 이 두 절은 언약을 범한 자들에게 주시는 야웨의 충고 내용이다(10a 절).

1. 바위 틈에 들어가라, BDB 97, *칼 명령*(즉, 이것은 19-21 절과 연결된다. 참조, 계 6:15-17)
2. 진토에 숨으라, BDB 380, KB 377, *니팔 명령*

그들은 다음의 사항을 피한다(10b 절)

1. 주님의 두려움, 참조, 19,21
2. 주님의 위엄의 영광(참조, 11c,19,21 절; 살후 1:9)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11 절이 17 절과 평행을 이룸을 주목하라)

1. 사람의 교만한 모습이 비천함으로 바뀔 것이다, BDB 1050, KB 1631, *칼 완료형*(9 절과 반대를 이룸)
2. 사람의 자만함이 낮아질 것이다, BDB 1005, KB 1458, *칼 완료형*(9 절과 반대를 이룸. 참조, 13:11; 23:9; 고후 10:5)
3. 주님만이 홀로 그 날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BDB 960, KB 1305, *니팔 완료형*(17 절의 내용과 평행을 이룸을 주목하라. 또한 “두려움” 과 야웨의 “영광”이 19c 절과 21b 절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라)

어떤 주석가들은 10 절이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야웨를 피하라고 의로운 자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본다(참조, NIDOTTE 제 2 권 377 쪽). 그러나 문맥(즉, 19-21 절)에서 이것은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2:11 “그 날에” 이것은 2a 절에 있는 마지막 날을 가리킨다. 이것은 아모스서의 주된 주제로 제시된다. 이사야서에서 이 주제는 12 절에서 다시 나온다(참조, 2:20; 3:17; 5:30; 28:5-6; 암 2:16; 8:9; 호 2:18).

양심을 가진 피조물(인간과 천사)들은 어느 날 자신의 창조주 앞에 서서 선물로 받은 생명의 청지기직에 대한 회계를 할 것이다. 야웨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이다; 피조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피조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 보다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여 자기 자신을 더 많이 깨뜨린다. 율법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 주신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제약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개인의 자유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어느 날 양심있는 존재인 모든 인간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을 고할 것이다!

개역개정 2:12-22

¹²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¹³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¹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¹⁵ 모든 높은 땅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¹⁶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¹⁷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¹⁸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¹⁹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²⁰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²¹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²²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쉼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2:12-13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과 나라를 뜻하는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됨을 주목하라.

1. “모든 교만한 자”(BDB 144)
2. “거만한 자와”(BDB 926, KB 1202, *칼 능동 분사*[13,14 절에 같은 형태가 나옴을 주목하라]), 12 절
3.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BDB 669, KB 724, *니팔 능동 분사*[13,14 절에 같은 형태가 나옴을 주목하라]), 12 절
4.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13 절(사람과 민족들에 대한 은유)

2: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날이 . . . 임하리니” NASB의 번역(“만군의 여호와께서 벌하시는 날을 가지실 것이다”)은 히브리어 본문을 따른 것이 아니다. 맛소라 본문에는 “만군의 여호와와 날”(참조, NKJV)로 되어 있다. NASB의 번역은 이것을 1:18과 연결시키려 한다.

2:12-16 “~에게”(BDB 752)가 반복됨을 주목하라.

1.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에게, 12 절
2. 모든 자고한 자에게, 12 절
3.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에게, 13 절
4.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역시 높고 높아진 자들임)에게, 13 절
5. 모든 높은 산에게, 14 절
6.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에게, 14 절
7. 모든 높은 땅대에게, 15 절

8. 모든 견고한 성벽에게, 15 절
9. 다시스의 모든 배에게, 16 절
10.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게, 16 절(“조각물”[BDB 967]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만 나오는데 그 뜻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아마도 16a 절에 있는 “다시스의 배들”과 평행을 이루는 의미일 것이다)

주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참조, 11 절과 17 절).

2:13 나무(1:29)와 정원(1:29-30)으로 우상숭배를 암시하는 것과 또한 야웨께서 이것들을 불태우실 것이라는 점을 인해, 이러한 높고 높은 나무에 대한 언급이 무엇을 뜻하는 지 궁금하게 된다

1. 열방의 교만과 거만함
2. 우상숭배가 나무/목재와 관련이 됨

큰 문맥(즉, “~에게”의 연속)에서 볼 때 처음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인간이 가진 교만함의 문제는 17 절에서 잘 요약된다(이것은 책 전체의 주제일 것이다).

2:16 “다시스의 모든 배” 23:1 의 설명을 보라.

2:17 이 내용은 11 절과 평행을 이룬다. 악한 지도자들과 사회의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 9 절에서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에게 행했던 일의 반대되는 내용이 11 절에 나온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이사야서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로 이해한다!

2:18 우상숭배가 완전히 그칠 것이데(참조, 21:9), 그 이유는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30:22; 31:7; 40:18-20; 44:9-20; 46:5-7)!

2:19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일어나다”라는 동사(BDB 877, KB 1086, *칼 부정사 연계형*)는 다음을 뜻한다

1. 장면이 등장하다, 출 1:8; 신 34:10; 사 5:7; 왕하 23:25
2. 행동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다(보좌에서), 민 10:35; 대하 6:41; 욥 31:14; 시 76:9; 132:8

또 다른 동사인 “진동하다”(BDB 791, KB 888, *칼 부정사 연계형*)는 창조자가 가까이 오실 때 일어나는 물질적 창조를 가리킨다(참조, 13:13; 24:1,19,20; 시 18:7; 68:7-8; 학 2:6). 축복 혹은 심판을 위해 야웨께서 오신다. 이 문맥에서는 심판을 위해서다!

2:20-21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할 것인데 이는 10 절의 첫 행의 내용을 분명히 한다

1. 바위 사이의 굴로(참조, 21 절)
2. 땅에 있는 구멍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던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1. 두더지에게 던져 버린다(이 단어의 뜻은 불확실하다. 70 인역은 “헛된 것”으로, REB 는 “쇠똥구리”로, JPSOA 는 “나르는 여우”[박쥐의 일종으로서 시의 다음 행과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땅을 파다”[BDB 343]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2. 박쥐에게 던져 버린다

두 개의 부정사 연계형이 사용되었다.

1. 예배하다(문자적으로, “업드리다”), BDB 1005, KB 295, *히스타펠 부정사 연계형*
2. 두더지에게(문자적으로, “땅을 파다”), BDB 343, KB 340, *칼 부정사 연계형*
3. 들어가다, BDB 97, KB 112, *칼 부정사 연계형*

4. 일어나다, BDB 877, KB 1086, 19 절(제 5 행)과 같은 형태임
5. 진동하다(문자적으로, “놀라다”), BDB 791, KB 888, *칼 부정사 연계형*, 19 절(제 5 행)과 같음

IVP의 성경배경주석에는 “주전 2,000년-3,000년 경에 속하는 수메르 글에서 여신 이난나를 엔헤두안나가 찬양하는데, 신들이 여신의 두려운 존재로부터 당황하며 박쥐처럼 자기들의 동굴로 숨는 것이 나온다”(588쪽). 이것은 우상들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곤충(풍뎅이)이나 땅을 파는 동물에 의해 숨을 곳으로 옮겨져 야웨께서 오심으로부터 피하여 숨는 것을 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22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고 야웨께서 명하시는데(“그치다,” BDB 292, KB 292, **칼 명령**), 그 이유는 생명(“호흡,” *루아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덧 없는 존재이다(참조, 시 144:3-4). 이것은 무신론적 인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이다!

이사야 3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없애실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의 무정부 상태	예루살렘에서의 혼란	예루살렘의 무정부 상태
3:1-12 (1b-12)	3:1-9 (1-3) (4-5) (6-7) (8-9) 3:10-12 (10-12)	3:1-15 (1-5) (6-8) (9-12)	3:1-5 3:6 3:7 3:8-9 3:10-11 3:12a 3:12b	3:1-15 (1-15)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억압과 사치에 대한 정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3:13-15 (13-15)	3:13-4:1 (13-15)	(13-15)	3:13-15	
유다의 여자들이 책망받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비친해짐	예루살렘의 여인들에 대한 경고	예루살렘의 여인
3:16-26 (16-17) (24-26)	(16-17) (18-23) (24-26)	3:16-4:1 (16-17) (24b-4:1)	3:16-17 3:18-23 3:24	3:16-26 (16-17) 3:18-23 3:24 (24) 예루살렘의 참상
	(4:1)		3:25-4:1	3:25-4:1 (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1

¹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²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³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⁵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⁶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⁷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⁸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⁹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¹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¹¹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¹²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3:1 3 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심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계속된다.

▣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사용된 이 칭호는 이사야의 초기 사역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1:24; 3:1; 10:16,33; 19:4). 1:24 에 있는 자세한 설명과 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제하여 버리시되” 이 동사(BDB 693, KB 747, *히필 분사*)는 *히필*에서 “제거하다” 또는 “없애다”를 뜻한다.

1. 야웨께서 이스라엘의 병을 없애신다, 출 23:25; 신 7:15
2.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물건(즉, 아간의 범죄로 인한)을 제거했다, 수 7:13
3.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들을 제거했다, 삿 10:16
4.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영매를 제거했다, 삼상 28:3
5. 개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삼하 22:23; 시 18:23

그런데 여기서는 유다가 의지하고 유다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들을 없애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목하라.

1. 식량으로서 의뢰하는 것(문자적으로는 “지팡이,” BDB 1044), 1 절
2. 물의 공급(즉, “지팡이”), 1 절
3. 용사, 2 절
4. 전사, 2 절
5. 재판관, 2 절
6. 선지자, 2 절, 참조, 9:14-15; 28:7; 29:10
7. 복술자, 2 절
8. 장로, 2 절, 참조, 9:14-16
9. 오십부장, 3 절
10. 귀인, 3 절
11. 모사, 3 절
12. 정교한 장인, 3 절, 참조, 40:20(우상을 만드는 자)
13. 능란한 요술자, 3 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야웨께서 심판하심은 자기의 자녀에게 교훈을 주어 그들로 강하고 안정적이 되고 행복하게 되며 또한 열방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두심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였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만큼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다!

특별주제: 이사야서에서의 심판하다, 심판, 정의(사팔)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BDB 1047)이다. NIDOTTE 제 4 권 214 쪽은 이 단어의 분포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오경, 13%, 사람 재판관
2. 역사서, 34%, 사람인 지도자
3. 지혜문학, 22%, 하나님의 행하심
4. 예언서, 31%, 대부분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이 있음

다음의 표를 보라.

재판장이신 야웨 2:4 3:14 4:4 5:16 28:6,17,26 30:18 33:5,22 61:8 66:16	재판장이신 메시아 9:7 11:3,4 16:5 32:1 40:14 42:1,3,4 51:4,5 53:8	이스라엘의 이상적 재판관들 1:17,21,23 26:8 56:1 58:2,8	이스라엘의 실제 재판관들 3:2 5:7 10:2 59:4,9,11,14,15
--	--	---	---

이스라엘은 야웨의 성품을 열방에게 나타내어야 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따라서 야웨는 “이상적”인 한 이스라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이루게 하셨다(즉,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참조, 사 52:11-53:12)!



NASB	“공급품과 의지하는 것 둘 다”
NKJV	“저장해 놓은 것과 비축한 것”
NRSV	“공급품과 지팡이”
TEV	“백성이 의지하는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
NJB	“재원과 공급원이 되는”
70 인역	“강한 남자와 강한 여자”
페쉬타	“버팀목과 막대기”
REB	“의지가 되는 모든 것과 버팀목”

맛소라 본문은 *미스안*의 남성형과 여성형을 다 사용하고 있다. BDB 는 이 단어를 “의지하는 것과 막대기”로 정의한다(참조, 삼하 22:19). 레 26:26 에서 이 단어는 “뿥 막대기”이다.

3:3

NASB	“능란한 요술자”
NKJV, NRSV,	
REB	“요술의 전문가”
TEV	“요술을 사용하여 어떤 사물을 조정하는 모든 자”
NJB	“점장이”
70 인역	“지식을 가진 듣는 자”
페쉬타	“전문적인 상담가”

이 명사형(BDB 538)은 “속삭임” 혹은 “유혹함”을 뜻한다. 이것은 원래 뱀에게 속삭임을 뜻했다(참조, 시 58:6; 전 10:11; 렘 8:17). 이것은 후에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참조, 26:16; 삼하 12:19; 시 41:8).

똑같은 단어가 3:20 에서 유다의 여인들이 지닌 부적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금지된 마술을 행함과 마술적인 유혹을 가리킨다.

3:4 “” 유다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가장 높은 자까지 포함하여 제거될 것이다(야웨 자신에 의해서). 효과적이지 않고 무감각한 젊은 이들이 이끌 것이다(참조, 전 10:16).

▣

NASB “아이들”
 NKJV, NRSV “아기들”
 NJB “젊은이들”
 70 인역, 페쉬타 “조롱하는 자들”

이 차이는 맛소라 본문의 알룰림(BDB 760, “장난기 있는,” 참조, 신 22:14,17; 시 141:4)과 올림(BDB 760, “자녀들,” 참조, 시 8:2) 사이에 기인한다. 둘 다 문맥에 맞는다.

3:5-6 압제와 남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서로 간의 압제
2. 이웃에 의한 압제
3. 세대 간의 갈등
4. 사회적 갈등
5. 가족적 갈등

3:7-12 가족들이 지도자로 선택한 자는 현재의 위기(유다가 상처를 입었다[1:6], 하나님만 이것을 고치실 수 있다[30:26]와 가족(즉, 유다)이 야웨께 대해 반역함을 인해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 그들의 언어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8 절
2.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8 절
3. 그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8 절
4.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했다, 9 절
5. 그들의 죄가 소돔과 같이 드러났다, 9 절
6.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9 절
7. 그들이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둔다, 10-11 절
 - ㄱ. 의
 - ㄴ. 사악함
8. 그들이 어린 지도자에 의해 압제를 받는다(참조, 4 절), 12 절
9. 그들을 여자들이 다스린다, 12 절
10.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되게 이끌었다, 12 절
11. 그들의 길(즉, 계획과 목표)이 혼동되었다, 12 절

반역의 이러한 결과는 신 28:15-68 에 나와 있다.
 JPSOA 는 10 절과 11 절을 괄호 안에 넣었다.

3:8

NASB, NRSV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
 NKJV “그의 영광의 눈”
 TEV “하나님 자신”
 NJB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선”
 70 인역 “그들의 영광”
 페쉬타 “그의 영광의 위엄”
 REB 그의 영광”

맛소라 본문은 NKJV 의 번역과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다. “눈”은 하나님의 개인적 임재를 나타낸다. “영광”(카보드, BDB 458)은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넓은 어원적 의미를 가진다.

특별주제: 영광

성경의 개념인 “영광”은 정의하기 어렵다. 신자들의 영광은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영광이 아니다(참조, 1:29-31; 램 9:23-24).

구약에서 “영광”(카보드)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원래 저울(“무겁다”)과 관련된 상업 용어였다. 무게가 나가는 것은 가치가 있거나 내재적인 가치를 가졌다. 종종 밝음의 개념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첨가되었다(참조, 출 19:16-18; 24:17; 사 60:1-2). 하나님은 홀로 귀하시며 영예로우시다. 그는 매우 빛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를 볼 수 없다(참조, 출 33:17-23; 사 6:5).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야웨를 알 수 있다(참조, 램 1:14; 마 17:2; 히 1:3; 약 2:1).

“영광”이란 단어는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룰 수 있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온전하심”을 가리킬 수 있다; 또는 (3)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컬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참조, 창 1:26-27; 5:1; 9:6) 후에 반역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다(참조, 창 3:1-22). 이 용어는 광야 방랑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출 16:7,10; 레 9:23; 민 14:10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3:9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아람어 탈군에는 “그들이 재판에서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것(법의 남용과 뇌물을 받음)이 그들을 고소한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8 절에 언급된 주님의 눈과 9 절에 있는 범죄한 유대인들이 보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

▣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1:10 에서와 같이 이사야는 유대 사회의 죄를 소돔의 죄와 다시 한번 비교한다(참조, 창세기 19 장). 유대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교만은 물론 사회의 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탈취하는 일을 과시했다.

소돔이 거만했는데(겔 16:50), 야웨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이제 유다(16 절)가 그러한데, 그들도 야웨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16-26 절, 주어가 자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자랑하는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

▣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은 자기들이 심은 것을 거둔 것이다(참조, 10-11 절). 이것은 영적 원리이다. 하나님은 윤리적/도덕적이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도 그러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자신을 망가뜨렸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 이것은 신자들(그러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과 불신자들에게 사실이다(참조, 욥 34:11; 시 28:4; 62:12; 잠 24:12; 전 12:14; 램 17:10; 32:19;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7-10; 딤후 4:14; 벧전 1:17; 계 2:23; 20:12; 22:12).

3:12

NASB, NKJV,
NRSV

“그들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TEV

“사채업자들이 내 백성을 학대하고 그들의 신용 담보자들이 그들을 속인다”

NJB

“압제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착취자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70 인역

“강제 징수자들이 너희를 벗기고
착취자들이 너희를 다스린다”

폐쉬타

“그 방백들이 나의 백성을 탈취할 것이요,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할 것이다”

REB

“사채업자들이 내 백성을 벌거 벗기고
고리대금업자들이 그들 위에 군림한다”

“내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기들이요
그들을 여인들이 다스린다”

맛소라 본문에는 “내 백성, 그들의 압제자, 아이들과 여인들이 그들을 다스린다”로 되어 있다. TEV, NJB, REB 는 70 인역을 분명하게 따른다(“여인들,” *나쉴*, BDB 61 을 “사채업자” [1] BDB 673 I, 참조, 24:2, *나사*[nsh']의 능동 분사 복수형, 참조 24:2 혹은 [2] BDB 674 I, *나사*[nshh]의 능동 분사 복수형, 참조, 출 22:25).

이 구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문자적
 - ㄱ. 어린이 왕
 - ㄴ. 다스리는 자가 다음의 경우일 때
 - (1) 강력한 “모후”
 - (2) 어린 왕의 부인들
 - (3) 재판을 하는 여인들
2. 회화적으로 무기력하고 경험이 없는 지도자

■

NASB, NRSV	“혼동하다”
NKJV	“멸망시키다”
NJB	“지워버리다”
70 인역	“변질시키다”
페쉬타	“혼란을 가져 오다”
REB	“망하게 하다”

이 동사(BDB 118, KB 134, *피엘 완료형*)는 “빨아들이다” 또는 “삼키다”를 뜻한다(참조, 출 15:12; 민 16:30,32,34; 26:10; 신 11:6). *피엘*에서 이것은 또한 “삼키는 것”을 뜻하나, 어떤 것의 파괴 혹은 혼란하게 된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은유로서 사용되기도 한다(참조, 9:16; 19:3; 28:7).

학자들은 같은 세 자음(bi')으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기원이 같은 하나, 둘, 혹은 세 어근을 놓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개역개정 3:13-15

- ¹³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¹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¹⁵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땀들길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3:13-15 야웨는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장로와 방백)과 논쟁을 시작하신다(즉, 법정에서의 장면, 참조, 1:2).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즉, “포도원,” 14 절)를 파괴했다. 그들은 가난한 자, 도울 자 없는 사람, 사회의 힘없는 자들을 등쳐 먹었다.

그들은 법적 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부정직하게 행했고, 이제 야웨의 심판 앞에 서야만 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세의 언약에서 요구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순종에는 이에 대한 결과가 따르며 불순종에도 이에 따른 결과가 있다!



NASB, NKJV,
 TEV, NJB,
 70 인역, 페쉬타,
 REB
 NRSV

“백성”
 “백성들”

단수형은 70 인역에 나오고 페쉬타가 이를 따른다. 맛소라 본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선지자가 유다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즉, 14 절) 단수형이 더 적합하다.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는 “나라들”과 “백성들”이 사용되었다. 문맥, 문맥, 문맥이 중요하다! 맛소라 본문에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맥이 최종적인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개역개정 3:16-26

¹⁶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¹⁷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¹⁸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¹⁹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²⁰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²¹ 반지와 코 고리와
²² 예복과 겹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²³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²⁴ 그 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술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혼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²⁵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²⁶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3:16-26 야웨께서 부유한 엘리트 지도자들의 부인들과 딸들을 정죄하고 계신다.

1. 교만한 걸음(“늘인 머리” 혹은 “늘인 목”)
2. 유혹(즉, 색칠한 눈)
3. 유혹적인 걸음걸이(즉, 잼싸게 짧은 걸음으로 아이처럼 걷기)
4. 관심을 끌기 위해 발목을 장식하는 악기 모양의 보석

야웨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듯이 역순으로)

1. 이마에 딱지가 나게 하신다(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됨, BDB 705, KB 764)
2. 그들의 보석장식을 제하신다
3. 그들의 축제옷을 벗기신다
4. 그들의 화장품과 향수를 치우신다
5. 그들의 남편과 애인을 죽이신다

유대인 연구성경은 JPSOA 의 번역과 각주설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18-24 절에 나오는 여러 항목의 물건이 불확실하다고 언급한다. 이 물건들은 아름다움이나 우상숭배를 위한 특별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이 물건들을 남녀가 사용했다.

3:16

NASB, NJB “발목고리 장식으로 딸랑딸랑 소리를 내다”
 NKJV, 페쉬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하면서”
 NRSV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TEV “그들의 발목에 있는 발목고리가 딸랑딸랑 소리를 내다”

이 동사(BDB 747, KB 824, *피엘 미완료형*)는 사람이 걸을 때 발목 고리 장식이 내는 소리를 뜻한다(즉,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어근은 이곳과 잠 7:22 에서만 사용되었다.

3:17

NASB, NJB,
 REB “그들의 이마가 벗어지게 하시며”
 NKJV “그들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시며”
 NRSV, 페쉬타 “그들의 은밀한 부분이 벗어지게 하시며”
 TEV “그들의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하시며”
 70 인역 “그들의 형태가 드러나게 하시며”

맛소라 본문은 드물게 사용된 단어(BDB 834)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1. 문찌귀(문을 위한), 왕상 7:50
2. 은밀한 부분(여성의 생식기), 사 3:17(?)

“이마”를 뜻하는 아카디아 어근(KB 983)이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가능한 의미를 말한다. 이렇듯 교만하고 웃을 잘 차려입은 부유한 탈취자들이 비천하게 될 것이다!

3:18 “머리 띠” IVP 성경 배경 주석은 이것을 “해 모양의 장식”으로 설명한다.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달을 숭배하는 것을 뜻하였듯이, 이러한 장식은 해를 숭배하는 것을 나타낸다.

▣ “반달 장식” 이것은 달 숭배를 의미하는 상징이었다(BDB 962).

1. 군사용으로 사용된 낙타에 사용, 사 8:21
2. 미디안 왕들이 사용, 사 8:26
3. 부유한 유대의 여인들이 사용, 사 3:18

그들이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긴 또 다른 증거이다!

특별주제: 달 숭배

고대 근동에서 달을 숭배하는 것은 수메르(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의 신화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아주 널리 퍼졌다. 신화에는 남신과 여신이 다 나온다. 원래 달신은 하늘 신인 *엔릴*이 곡식의 여신인 *닌릴*을 강간함으로써 태어났다. *엔릴*은 만신전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가 한 일에 대해 정죄받아 지하세계로 처해졌다. 그런데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된 것을 *닌릴*이 알고 나서는 그와 한 편이 되었다. 그 자식인 *신*(혹은 *진*)은 밤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달신의 숭배는 달의 주기마다 행해졌다.

1. 새 달 - *아심밌발*
2. 초승달 - *신*
3. 보름달 - *나나이*(수메르어로 “지혜의 신”인 *엔수*가 “빛을 비춤”)

이 이름들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섬긴 “지혜로운 주”(즉, 수^엔) 혹은 “빛을 비춤”(나나이)을 기본적으로 뜻한다. 도시 자체가 종종 난날의 도시로 불렸다. 도시에 세워진 지구랏(위가 평편하게 된 커다란 피라미드)에서는 짝으로 된 풍요의 신들을 섬겼다. 태양신(*샤마스*)은 이 부부의 장자이며 그 다음은 *에레스키갈*(지하세계의 여왕)과 *난나*(하늘/공중의 여왕)이다.

이 종교는 모든 고대 근동 세계에 전파되었지만, 이 종교의 주된 예배장소는 다음과 같았다

1. 우르
2. 하란
3. 테마
4. 가나안
5. 맥카

기본적으로 이 신화는 별신들을 섬기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다산의 신을 섬기는 형태이다.

구약은 별신을 섬기는 것(참조, 신 4:19; 17:3; 왕하 21:3,5; 23:5; 렘 8:2; 19:13; 스 1:5)과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즉, *바알*과 *아세라*, 우가릿의 시)을 거부한다. 원래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은 달신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했다. 그 이유는 달을 숭배하는 것은 밤에 이동하는 유목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었고, 정착해서 사는 자들과 농경문화에 속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유목민이 마침내 정착하여 살게 되었을 때 별신을 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3:20 “향합” “상자”로 번역된 이 용어(BDB 108)는 문자적으로는 “집”이다. 틴텔 구약주석에서 J. 알렉 폴엘은 이것이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목걸이”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58 쪽). 현대를 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 근동 문화의 자세한 내용은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우리의 해석은 동쪽어나 문맥에 근거한 추측일 경우가 많다. 이것의 자세한 설명은 큰 문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와 관련된 신학적 주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이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흥미롭지만, 이 연이나 이 문단의 중심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너무 세세한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3:24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이것은 아마도 묶여 있는 죄인들이 앗시리아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

NASB, NKJV	“그리고 아름다움 대신에 칼자옥이”
NRSV, TEV	“아름다움 대신에 수치가”
NJB, REB	“아름다움 대신에 칼에 의한 자옥이”
페쉬타	“그들의 아름다움이 망할 것이기에”
70 인역	---생략됨---

맛소라 본문에는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로 되어 있다. “흔적”은 BDB 464 에서 왔다(태우다, 그슬리다, 낙인찍다). NRSV 와 TEV 에 있는 “수치스러운”은 맛소라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해사본 이사야서(1QIsa)에서는 나와 있다.

3:26 예루살렘(“그녀,” 여성형, 25,26 절)은 잃어버려진 자들을 위해 우는 사람으로 의인화 되었다. 시온이 축제의 옷을 입는 것이 회복될 것이 사 61:3 과 스 3:4 에 나온다(축제의 옷을 뜻하는 드물게 사용된 용어가 22 절과 스 3:4 에만 나온다).

이사야 4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준비된 남은 자	시온을 새롭게 하심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야웨의 묘목
4:1				
4:2-6	4:2-6	4:2-6	4:2-6	4:2-6
	(2)			(2-6)
	4:3-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4:1

¹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4:1 JPSOA 역은 이 장을 시로 된 두 부분과 한 개의 산문으로 구분한다.

1. 1b-3 절
2. 4 절
3. 산문인 5-6 절

대다수의 번역본은 4:1 을 3:16-4:1 에 속한 것으로 나타낸다. 이들은 또한 이 절들을 시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 NKJV 는 2 절을 시로, NJB 는 2-6 절을 하나의 긴 시로(JB 는 2-3 절과 4-6 절로 구분되는 시로 본다) 나타내지만 그 외의 다른 역본은 대부분 이것을 산문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한 본문이 고양된 산문인지 혹은 시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어디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다른 주제를 다루는 지 아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현대의 번역본이 나타내는 장 절의 구분을 따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영감된 안내가 아니다!

4:1 이 절은 3:6 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다른 동사임. 3:6 의 것은 BDB 1074 이며 4:1 의 것은 BDB 304 이지만, 이 둘의 뜻은 다 “꼭 붙잡다”이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의 시대와 관련이 있다(즉, 4:2, “가지”). 히브리 시는 “분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종종 단어유희 및 비슷한 종류의 표현을 활용한다.

▣ **“일곱 여자”** 일곱은 창세기 1 장과 관련을 짓는 유대인의 관념에서 완전을 나타내는 수이다. 따라서 이것은 3:25-26 에서처럼 예루살렘/유다의 모든 거민을 뜻한다.

▣ **“붙잡고”** 이 동사(BDB 304, KB 302, *히필 완료형*)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꼭 붙드는 것을 뜻한다(즉, 신 22:25; 25:11; 삼상 15:27; 삼하 1:11; 왕상 1:50; 왕하 2:12; 4:27; 잠 7:13; 26:17; 숙 8:23).

▣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이름은 어떤 사람이나 그의 특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다음의 구에서 나타난다,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BDB 62, KB 74, *칼 완료형*).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1. 의로운 자, 3:10
2. 메시아의 “가지,” 4:2-6

▣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 명사(BDB 357)는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야웨께 대한 그들의 죄와 반역의 상징
2. 모든 남자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기에 그들의 과부들이 자녀가 없게 된 것(NASB 연구 성경 965 쪽, NIDOTTE 제 2 권 75 쪽)

이사야 54:4 은 두 항에 모두 들어 맞는데, 그 이유는 “과부됨”이 야웨로부터 이혼당함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 법적 은유).

개역개정 4:2-6

²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딸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우실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³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기록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⁴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광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⁵여호와께서 거하시니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⁶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4:2 “그 날에” 이것은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실(축복 혹은 심판을 위해) 미래의 때를 가리킨다(참조, 2:2,11,12,20; 3:7,18; 4:1,2).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사야가 다음의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다

1. 페르시아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 온 자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 회복됨(즉, 에스라와 느헤미야)
2. 셀루시드 시대에 마카비에 의한 회복
3. 예수님의 초림(새 시대의 시작)
4. 예수님의 재림(새 시대의 완성)

선지자가 근본적으로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예언서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어느 한 쪽이 빠진 메시지를 생각할 수 없다! 심판의 목적은 항상 회복이다.

▣ “여호와와 의 짝” 이 호칭(BDB 855, 탈군은 이것을 메시아로 번역하였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가 쓴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주석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곳에서는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우리는 어떤 단어나 구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 어떤 전문적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만 한다— 문맥, 문맥, 문맥이 중요하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된 용어로서, 어떤 이상적인 풍성함으로부터 그 풍성함(즉, 순과 짝)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가리키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스가랴서의 주석에서 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속 3:8 “그 가지” 이것은 “짝”(BDB 855)을 가리킨다. 이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또 하나의 칭호이다(참조, 6:12; 사 4:2; 11:1; 53:2; 렘 23:5; 33:15).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단 4:15 에 있는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를 보라.

6:12 절에서 스룹바벨에게 사용한 칭호는 다윗 왕의 계보를 뜻하는 상징이었다. 이 단어가 메시아의 제사장적 면을 강조하는 이 문맥에서 사용된 점은 놀랍다. 구속자(제사장, 참조 이사야 53 장)와 행정적 지도자(왕, 참조, 사 9:6-7)로 이루어진 쌍둥이적 특성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로 되어 나타난다(참조, 4 장).

속 6:12 “가지” 이 단어(BDB 855)는 “짝”을 뜻한다(참조, 3:8; 6:12; 사 4:2; 11:1; 53:2; 렘 23:5; 33:15).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이다. 스가랴서는 스룹바벨을 메시아의 한 형태로서 나타낸다(참조, 이본 에스라와 라쉬).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아카디아어에서 “바벨론의 짝”을 뜻한다. 이것은 그가 주전 516 년에 성전을 재건한 것을 인해 그의 이름과 관련된 언어유희일 것이다. 하지만 이 이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칭호와 더불어 이와 어울리는 동사(“짝을 낼 것이다,” **칼 미완료형**)가 이 절에 함께 나온다.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

신약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헬라어 용어가 여러 개 있다.

1. 신약의 용어

- ㄱ. 나사렛 - 갈릴리의 도시이다(참조, 눅 1:26; 2:4,39,51; 4:16; 행 10:38). 이 도시는 당시의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후기의 비문에서는 나온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것은 찬사가 아니었다(참조, 요 1:46).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던 죄패에 기록된 이 지명은 유대인들의 경멸을 나타낸다.
- ㄴ. 나자레노스 - 지형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눅 4:34; 24:19)
- ㄷ. 나조라이오스 - 도시를 가리키지만, 또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가지”와 관련된 언어 유희일 것이다(벧제르, 참조, 사 4:2; 11:1; 53:2; 렘 23:5; 33:15; 속 3:8; 6:12; 신약에서는 계 22:16). 누가는 18:37 과 행 2:22; 3:6; 4:10; 6:14; 22:8; 24:5; 26:9 에서 이 단어를 예수님께 대해 사용한다.
- ㄹ. ㄷ항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나지르는 맹세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

2. 신약 이외의 곳에서의 역사적 용법. 이 지명은 역사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 ㄱ. 이것은 유대인(기독교 시대 이전)의 이단 단체를 가리켰다(아람어인 *나소라이야*).
 - ㄴ. 유대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하였다(참조, 행 24:5,14; 28:22, *노스리*).
 - ㄷ. 시리아(아람어를 쓰는)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 교회에서 신자들을 뜻하는 용어였다.
 - ㄹ.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어느 시점에, 바리새인들은 암니아에서 재조직되었고 회당과 교회의 공식적인 분리를 선동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를 선언한 예는 *베라곳* 28b-29a의 “18 개의 축복”에 있는데, 여기서는 신자를 “나사렛 사람들”로 부른다.

“나사렛인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신실한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 ㅁ. 순교자 저스틴이 *Dial.* 126.1 에서 이사야서의 *넛쩨인* 예수를 말했다.

3. 저자의 견해

비록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용어의 철자가 매우 다양하게 있음에 나는 놀랐다. 그럼에도

- ㄱ. 메시아적 용어인 “가지”와의 관계 때문에
- ㄴ.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 ㄷ. 당시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 도시와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기에
- ㄹ.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즉,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나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확실히는 모른다.

이 단어들에 대해 충실한 참고문헌을 갖기 위해서는 코린 브라운(편저),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제 2 권 346 쪽이나 레이몬드 E. 브라운의 *출생*, 209-213, 223-225 쪽을 보라.

▣ 야웨의 “씩”에 대한 묘사(NKJV, NRSV, JB)

1. 아름답다, BDB 840, 참조, 렘 3:19(중중 단 8:9; 11:16,41 에서 약속의 땅에 대해 사용됨)
2. 영광스럽다, BDB 458 은 “풍부함,” “영예,” “영광”을 뜻함(“영광,” BDB 802, 또한 이 절에서)

이 두 용어는 종종 함께 사용된다(참조, 13:19; 28:1,4,5).

어떤 번역본은 회복의 시기에 식물이 성장하는 것으로 이 절을 제시한다(70 인역, 페쉬타, TEV, NJB, REB, NET).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와 회복의 시기는 사전적으로 연결되는 용어이다(2 절의 맨 앞 부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약속의 땅에 대한 두 번째 부분).

▣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종종 말하고 또한 그들을 누구인지 종종 설명한다(참조, 10:20; 37:31,32;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런데 이사야가 어떤 그룹의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2 절의 앞 쪽에 있는 설명을 보라.

성령님은 성경의 참된 저자이시다. 예언과 묵시적 본문에서 인간 저자들은 종종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이러한 본문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믿지 않고(즉, 충분한 의미),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그 의도했던 뜻이 더 명확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종종 다중적 성취는 성령의 메시지에 의도된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즉, 7:14). 그러나 적절한 해석학은 반드시 “저자의 의도”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성경 본문이 어떤 장르에 속하든지 그것으로써 성경의 해석을 평가해야 한다.

4:3 이 절은 예레미야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야웨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로 여기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야웨는 우선적으로 포로에서 돌아 온 자들을 위해 일하신다(참조, 에스라와 느헤미야).

▣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해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이것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를 말하는가 아니면 새 시대의 상징인 “새 예루살렘”(참조, 계시록 21 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가? 이것은 역사적인 내용인가 혹은 종말론적 내용인가?
2. 생명의 책(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두 책

가. 어떤 의미에서 이 특별한 주제는 다음과 관련이 있다

1. 성격(즉, 창조, 참조, 시 19:1-6)
2. 성경(참조, 시 19:7-14)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점이 과학과 믿음 사이에 궁극적인 갈등이 있다고 내가 여기지 않는 이유이다. www.freebiblecommentary.org 사이트로 올린 나의 창세기 1-11 장 주석을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나. 성경에서 언급하는 책이 두 권이 있다(참조, 단 7:10; 계 20:12)

1. 인간이 행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책.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에 대한 은유로서, 어느 날 모든 인간이 생명을 주신 자신의 창조주께 청지기로서 모든 일을 고할 것을 말한다.

- ㄱ. 시 56:8; 139:16
- ㄴ. 사 65:6
- ㄷ. 말 3:16
- ㄹ. 계 20:12-13

2. 야웨/예수님께 대한 신실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가진 자의 이름이 있는 책. 이것은 구속받아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 ㄱ. 출 32:32-33
- ㄴ. 시 69:28
- ㄷ. 사 4:3
- ㄹ. 단 12:1
- ㅁ. 빌 4:3
- ㅂ. 히 12:23
- ㅅ. 계 3:5; 13:8; 17:8; 20:12,15; 21:27
- ㅇ. 또한 에녹 1 서 47:3; 81:1-2; 103:2; 108:3

이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반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지만,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섬기며 인내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잊으신다(참조, 시 103:11-13; 사 1:18; 38:17; 43:25; 44:22; 미 7:19). 하나님께서 변함 없이 자비하신 인격과 약속과 공급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한 커다란 확신과 신뢰가 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4:4 이 절에는 영적 정화를 나타내는 두 은유가 있다

1. 씻음

ㄱ. 씻기다, BDB 934, KB 122, **칼 완료형**

ㄴ. 정화하다(문자적으로 “씻어 없애다”), BDB 188, KB 216, **히필 미완료형**(제사적인 의미를 가짐, 참조, 대하 4:6; 겔 40:38)

2. 불

ㄱ. 영적 심판으로서, 참조, 28:6

ㄴ. 영적으로 태우는, 참조, 1:31; 9:19(1:31의 특별주제: 불을 보라)

“영”(루아흐)을 야웨의 격렬하고 파괴적인 바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다가 스스로 행한 반역을 인해 심판을 받고 또 정결케 씻김을 받을 것이다.

▣ “더러움” 이것은 죄에 대하여 사용된 강한 용어이다(BDB 844)

1. 사 28:8에서 사람이 토함을 말함

2. 사 36:12에서 사람의 똥을 말함(참조, 신 23:14; 겔 4:12)

▣ “시온의 딸들” 이것은 예레미야 3:16-26에서 사용된 은유이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이다.

▣ “피” 이것(BDB 196)은 계획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 여기서 이것은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탈취하는 일을 가리킨다(즉, “그녀의 가슴에서”).

4:5 이것은 출애굽 때와 광야 방랑 시기에 야웨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돌보신 일에 대한 역사적 암시이다. 이것은 영광의 구름인 **쉐키나**를 가리킨다(즉, 출 13:21,22; 40:38; 민 9:15-23; 시 78:14; 99:7; 105:39). 하나님(혹은 하나님의 천사)이 다시금 자기 백성을 친히 이끄시며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실 것이다.

▣ “여호와께서... 만드시교” 이 동사(BDB 135, KB 153, **칼 완료형**)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참조, 창 1:1).

▣ “덮개” 이 용어(BDB 342 I)는 다음을 가리킨다

1. 쉐키나 구름처럼 보호하기 위해 덮는 것(출애굽과 광야 방랑 시기에 온 백성을 덮음)

2. 결혼식에 사용하는 휘장(참조, 시 19:5; 욥 2:16)

어떤 이는 결혼과 관련된 이 은유를 4:1에 나오는 절망적인 여인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또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성막과 예루살렘에 미래에 회복될 성전과 연결시켜 이해한다. 후자의 경우 결혼을 나타내는 은유로써 야웨/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나타낸다(참조, 5:1; 호 1-3장; 엡 5:21-33).

4:6 야웨의 보호하심(열과 폭풍으로부터)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은유가 함께 사용되었다

1. 초막, BDB 697, 참조, 1:8; 시 27:5; 31:20; 같은 개념이 32:2에 나온다

2. 숨는 곳, BDB 340

ㄱ. **명사**, 사 25:4

ㄴ. **동사**, 사 14:23; 57:13

ㄷ. 시편에서, 14:6; 46:1; 61:4; 62:7,8; 71:7; 73:28; 91:2,9; 94:22; 142:5

3. 이사야의 다른 곳에서는, “방어,” BDB 731, 참조, 17:10; 27:5

종종 이 은유는 야웨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 어미 새의 보호(즉,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제공함)

2. 높은 성채 혹은 강한 성(참조, 시 18:1)

신자는 자신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섬세한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섬기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언약은 약속(혜택)이며 책임(의무)이다. 양 쪽 다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

이사야 5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포도원의 비유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포도원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
5:1-2 (1-2)	5:1-7 (1b-2)	5:1-2 (1-2)	5:1-2 (1-2)	5:1-4 (1-4)
5:3-6 (3-6)	(3-6)	5:3-4 (3-4)	5:3-4	
		5:5-6 (5-6)	5:5-6	5:5-7 (5-7)
5:7 (7)	(7)	5:7-10 (7-10)	5:7 (7)	
악한 자에 대한 화	지나친 것에 대한 임박한 심판		백성들이 행하는 악	저주
5:8-12 (8-12)	5:8-10 (8-10)		5:8-10	5:8-10 (8-10)
	5:11-12 (11-12)	5:11-13 (11-13)	5:11-14	5:11-14 (11-14)
5:13-17 (13-17)	5:13-17 (13-17)	5:14-17 (14-17)		
			5:15-17	5:15-17 (15-17)
5:18-23 (18-23)	5:18-19 (18-19)	5:18-24 (18-24)	5:18-19	5:18-19 (18-19)
	5:20 (20)		5:20	5:20 (20)
	5:21 (21)		5:21	5:21 (21)
	5:22-23 (22-23)		5:22-25	5:22-24 (22-24)
5:24-25 (24-25)	5:24-25a (24-25a)			야웨의 진노
	5:25b (25b)	5:25-30 (25-30)		5:25 (30)
				야웨께서 침략자들을 부르시
5:26-30 (26-30)	5:26-30 (26-30)		5:26-29	5:26 (26)
				5:27 (27)
				5:28 (28)
				5:29 (29)
			5:30	5:30 (30)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배경 연구

- 가. 이 장의 역사적 문맥을 알기 어렵다. 이 부분은 이사야가 한 설교 사역의 어느 기간에 일어났을 것이다. 현대인은 예언서들이 어떻게 편집되었는가에 대해 모른다.
- 나. 분명히 이 민속 민요는 유대 국민이 모인 어떤 시기에 불렸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에서 부른 노래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부른 노래인지는 불확실하다.
- 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름을 기억함이 중요하다(눅 12:48).
- 라. 신약의 여러 곳에서 이 민속 노래에 대한 암시가 나타난다(참조, 마 21:33-46; 막 12:1-2; 눅 20:9-19).
- 마.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한 대부분의 기간은 유대 나라가 특별하게 발전을 이루고 흥왕하던 시기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흥왕은 영적 연약함을 가져왔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하고 요구하는 바를 붙들기보다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간략한 개요

- 가. 비유적인 노래, 1-6 절
- 나. 아이러니한 해석, 7 절
- 다. 아웨의 심각한 심판, 8-30 절
 - 1. 연속되는 화, 8-23 절
 - 2. 심판, 24-30 절
 - ㄱ. 자연, 25 절
 - ㄴ. 침략자, 26-30 절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5:1-2

¹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²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짚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5:1 “내가 ... 노래하리라” 맨 앞에 나오는 이 동사(BDB 1010, KB 1479, 칼 청유형)는 26:1 과 42:10 에서도 사용되었다. 이것의 명사형은 1 절에도 나온다. 노래는 종종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참조, 출 15:1; 민 21:17; 삿 5:1; 삼상 18:6).

여기의 노래는 지나가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들었을 것이다.

▣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 사랑하는 자의”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다. 처음 것(BDB 391)은 주로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시에서 사용된다. 두 번째 것(BDB 187)은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자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주인의 특별한 기대가 향한 특별한 친구를 가리킨다. 이것은 유다의 농경사회를 잘 나타낸다.

▣ “포도원” 포도원(혹은 포도밭)은 올리브 나무나 비둘기처럼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즉, 출 15:17; 시 80:8; 렘 2:21; 12:10). 선지자가 볼 때 유다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 “기름진 산” “산”은 문자적으로는 “뿔”(BDB 901)로서 따로 떨어진 언덕에 위치하여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경사가 있어 내리는 비에 흠뻑 젖는 곳이었다. 완벽한 “산”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가장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했다!

“기름진”이라는 형용사는 문자적으로는 “기름의 아들” 또는 “기름진 것의 아들”(BDB 1032)로서 비옥함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5:2 2-5 절에서 같은 동사(BDB 793, KB 889)가 여러 번 사용되었으며 언어유희를 나타낸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고 있다

1. 열매를 맺다, 2 절(2 회)
2. 하다, 4 절(2 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행하신 일을 나타냄
3. 맺다, 4 절(2 회)
4. 하다, 5 절, 반역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신의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냄
5. 또한 16 절에 나오는 동사를 주목하라, “소출을 내다”(2 회)

▣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앞에 나오는 동사(BDB 740, KB 810, *피엘 미완료형*)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KJV 역은 “올타리를 했다”고 번역했다. 나는 이 번역이 히브리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해석은 문맥상 맞는다. 돌이 많은 팔레스타인에서는 밭에서 돌을 파내었을 때, 돌들이 올타리를 이루도록 그것을 쌓아 놓았다. 포도원은 종종 돌 올타리와 도랑(처음 동사의 가능한 의미임)으로 보호되었다(70 인역, 페쉬타, 벌게이트역). 이사야가 계단식 공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분명히 가능하다. 밭의 낮은 부분을 고르게 하기 위해 돌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포도송이가 땅에 닿지 않게 하도록 돌을 쌓아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제임스 프리먼, *성경에 나오는 태도와 관습*, 360-363 쪽).

▣ “극상품 포도나무” 이것은 “소랙”(BDB 977 I, 참조, 램 2:21)으로 알려진 광택이 있고 붉은 포도를 가리킨다. 이 품종의 이름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골짜기 이름에서 왔다(참조, 샷 16:4). 이것은 램 2:21 에서 여러 포도 품종 가운데 가장 값이 비싸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종류로서 언급된다. 이 포도 품종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는 본문에서도 언급이 된다(참조, 창 49:11).

▣ “망대” 이것(BDB 153, 밭에서 파낸 돌로 지은 “망대”)은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작물을 심을 때와 9 월의 추수 때에 사람이 거했던 곳이다(이것은 1:8 에서 언급된 “가옥”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군사용 망대를 뜻하기도 한다(참조, 사 2:15). 문맥, 문맥, 문맥이 중요하다!

▣ “술틀을 꿩도다” 이것은 사람이 바위 위에 파서 약간 우묵하게 만든 것으로서 그 위에서 여인들이 포도를 발로 밟으면 연결 통로를 따라 포도즙이 흘러 나와 더 깊게 만든 장소로 옮겨져 거기서 보관을 위해 통에 담을 수 있게 된다.

▣
 NASB “쓸모없는 것”
 NKJV, NRSV,
 NJB, REB “들 포도”
 TEV, JB “모든 포도가 시었다”
 70 인역 “가시”

히브리 용어(BDB 93)는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악취나고 유해한 풀, **단수형**, 참조, 욥 31:40
2. 악취나는 것, 쓸모없는 것, **복수형**

기본적의미는 다음의 악취를 가리킨다

1. 시체, 사 34:3(참조, 5:25); 욥 2:20; 암 4:10
2. 메뚜기, 욥 2:20(죽은 군대에 대한 은유)

맛소라 본문의 문맥은 “들 포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달지 않고 통통하지 않으며 작고 시어 포도주를 담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류였다.

개역개정 5:3-6

³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됴임고
⁵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걸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⁶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찢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5:3 선지자가 자신의 청중에게 결정을 하라고 촉구한다. 이것은 비유의 장르에서 요점을 이룬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판단하라”(BDB 1047, KB 1622)는 동사는 칼 명령으로서 마 21:40 의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5:4 이 질문은 비유의 노래에서 핵심을 이룬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다.

5:5-6 야웨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실망한 자신의 포도원(즉, 유다)에 행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을 선포한다(BDB 393, KB 390, *히* **필 청유형**).

1. 그 울타리를 걸어 그 결과 이것이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게 된다
2. 보호하는 그 담을 헐어 그 결과 포도나무가 땅에서 짓밟히게 한다
3. 소중히 다루기를 거부하여 그 결과 찢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참조, 7:23,25; 9:18; 27:4)
4.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그 결과 그것이 말라 죽게 될 것이다(참조, 신 28:23-24)

5:6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 동사(BDB 1011, KB 1483)는 칼 미완료형이다. 야웨께서는 자신의 포도원을 “황폐”(BDB 144)하게 하실 것이다. 이 용어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끝” 또는 “파괴”를 뜻한다. 야웨의 심판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이다(참조, 30 절)! 7-12 장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새 날이 있을 것이고(40-55 장)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56-66 장).

▣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연이 인류의 죄를 인해 영향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참조, 창 3:17-19 과 롬 8:19-26).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축복이나 심판을 위해 사용하신다(즉, 레 26:4; 신 11:14; 28:12; 암 4:7; 습 14:17).

개역개정 5:7

⁷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 “이스라엘 족속” 이 절에서는 이 용어가 유다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주전 922 년에 일어난 정치적 분리가 있기 이전의 유대 민족 전체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두 개로 분리되었다. 북쪽의 10 지파는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 혹은 사마리아로 불렸고, 유다로 불린 남쪽의 세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과 시므온 및 대부분의 레위족속과 제사장들을 포함하였다.

▣ “정의... 포학... 공의... 부르짖음”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다른 소리에 기초한 언어유희로서 번역본에서는 이를 나타낼 수 없다: *mṣpt*, *미스파트*(정의) 대 *mṣph*, *미스파흐*(포학, BDB 705)과 *ṣdq*, *쓰다카*(공의) 대 *ṣ'q*, *쓰아카*(부르짖음). 이것은 성경에서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 또 하나의 예이다.

개역개정 5:8-12

⁸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⁹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¹⁰열흘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¹¹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¹²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5:8

NASB, NKJV,

NJB, REB “화”

NRSV, JPSOA “아!”

TEV “너희가 망한다”

이곳에 “화 있을진저”(BDB 222)가 6 개가 있는지 혹은 7 개가 있는지에 대해 주석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화”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니다(BDB 17, 이것은 슬픔을 나타낸다. 참조, 3:9,11; 6:5; 24:16). BDB 는 이 단어의 뜻으로서 “아,” “슬프다” 또는 “하”를 제시한다(참조, 1:4; 10:1,5; 17:12; 28:1). 이 단어는 현재의 상태나 혹은 뒤따르는 결과에 대한 고통스런 불만족을 표현한다.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미칠 심판의 내용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유다 사회에 근본적으로 있는 죄의 목록이다.

▣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것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이 유업으로 가진 땅(즉, 여호수아가 분할한 땅)을 그들로부터 강탈한 탐욕스러운 지주들을 가리킨다(참조, 렘 22:13-17; 미 2:2). 모세의 율법은 “회년”을 제정하여 할당된 땅에 대한 권리를 보호했다(참조, 레 25:8-55; 민 36:4). 50년 쯤 되는 해마다 모든 땅을 각 지파의 원래의 가족에게 돌려주어야만 했다. 비록 구약에 이렇게 되돌려 준 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신 뜻이었다.

5:9 9 절의 시작 부분은 동사가 없이 이루어진 문장으로서 매우 강조되어 있다. 문자적으로 “내 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주장하는 문자적 표현이다(참조, 22:14)!

이것은 이사야의 메시지도 또는 이사야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야웨께서 고집불통인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계신 것이다.

이 심판은 암 5:11 과 미 6:15 의 내용과 비슷하다. 부자들의 기대와 사회에서 횡횡하는 탈취는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여 취한 소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둔다(3:10-11 의 설명을 보라).

5:10 “열흘 같이 포도원에” “같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짜” 또는 “쌍”(BDB 855, 참조, 삼상 14:14)으로서 농경 목적으로 멩에를 함께 진 동물을 가리킨다. 한 “멍에”는 소 한 마리가 하루가 쟁기질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낸다.

▣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바트”(BDB 144 II)는 히브리인들이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로서 30-38 리터에 해당했다.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탈취한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함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무게와 부피(도량형)

상업적으로 사용한 무게와 양은 고대 농업경제에 있어서 중요했다. 성경은 유대인이 서로 공정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참조, 레 19:35-36; 신 25:13-16; 잠 11:1; 16:11; 20:1). 실제적인 문제는 정직성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표준화 되지 않은 용어와 체계였다. 두 개의 저울 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양에 대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성경해석사전 제 4 권 831 쪽을 보라). 또한 이집트의 10 진법(10 을 기초로 하는)은 메소포타미아의 60 진법(6 을 기초로 하는)과 결합되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된 “크기”와 “양”은 어느 것도 규격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신체의 일부분이나 동물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 혹은 농부의 용기를 기초로 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오직 어림짐작이었고 임시적이었다. 무게와 양을 나타내는 가장 이른 시기의 방법은 상호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이다.

I. 자주 사용된 부피와 관련된 용어

가. 마른 것의 양

1. 호멜(BDB 330, 아마도 “한 마리의 나귀에 실을 수 있는 양,” BDB 331), 예, 레 27:16; 호 3:2
2. 레텍(또는 레텍, BDB 547, 아마도 호 3:2 에서 암시됨)
3. 에바(BDB 35), 예, 출 16:36; 레 19:36; 겔 45:10-11,13,24
4. 스아(BDB 684), 예, 창 18:6; 삼상 25:18; 왕상 18:32; 왕하 7:1,16,18
5. 오멜(BDB 771 II, 아마도 “곡물 한 단”: [벤 곡식 한 단], BDB 771 I), 예, 출 16:16,22,36; 레 23:10-15
6. 잇사론(BDB 798, 에바의 “십분의 일”), 예, 출 29:40; 레 14:21; 민 15:4; 28:5,13
7. 카브(또는 캡, BDB 866), 참조, 왕하 6:25

나. 액체의 양

1. 고르(BDB 499), 예, 겔 45:14(이는 또한 마른 것의 부피를 재는 것이었다, 참조, 대하 2:10; 27:5)
2. 바트(BDB 144 II), 예, 왕상 7:26; 대하 2:10; 4:5; 사 5:10; 겔 45:10-11,14
3. 힌(BDB 228), 예, 출 29:40; 레 19:36; 겔 45:24
4. 록(BDB 528), 참조, 레 14:10,12,15,21,24

다. 도표(로랜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201 쪽과 *유대 백과사전*, 제 16 권, 379 쪽에서)

호멜(마른 것) = 고르(액체)	1					
에바(마른 것) = 바트(액체)	10	1				
스아(마른 것)	30	3	1			
힌(액체)	60	6	2	1		
오멜/이사론(마른 것)	100	10	-	-	1	
카브/갑(마른 것)	180	18	6	3	-	1
룩(액체)	720	72	24	12	-	4 1

II. 자주 사용된 무게의 용어

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세 가지 무게 단위는 달란트, 세겔, 게라였다.

1. 구약에서 가장 큰 무게의 단위는 달란트이다. 출 38:25-26 에서 1 달란트는 3,000 세겔에 해당한다(즉, “대략적인 무게,” BDB 503).
2. 세겔(BDB 1053, “무게”)은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 본문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것이 진술되지 않았다. 구약은 세겔의 여러 가치를 언급한다.
 - ㄱ. “상업적 표준”(NASB 참조, 창 23:16)
 - ㄴ. “성소의 세겔”(NASB 참조, 출 30:13)
 - ㄷ. “왕의 저울에 의해”(NASB 참조, 삼하 14:26), 또한 엘리판틴 파피루스에서도 “왕의 저울”이라고 불림.
3. 게라(BDB 176 II)는 1/20 세겔의 가치를 가졌다(참조, 출 30:13). 이 비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율을 따랐다(우가릿).
4. 미나(BDB 584)는 50 혹은 60 세겔의 가치이다. 이 용어는 주로 후기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본문에 나타난다(예, 겔 45:12; 스 2:69; 느 7:70-71). 가나안에서는 50:1 의 비율을 사용한 반면 에스겔서는 60:1 의 비율을 사용했다.
5. 베카(BDB 132, “반 세겔,” 참조, 창 24:22)는 구약에서 오직 두 번 사용되었고(참조, 창 24:22; 출 38:26) 1/2 세겔의 가치를 가졌다. 이것의 이름은 “나누다”란 의미이다.

나. 도표

1. 출애굽기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000	50	1		
베카	6,000	100	2	1	
게라	6,000	1,000	20	10	1
2. 에스겔서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600	60	1		
베카	7,200	120	2	1	
게라	72,000	1,200	20	10	1

▣ “나졌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다시 한 번 탈취한 땅에서의 소출이 없을 것을 가리키는 놀라운 은유가 사용되었다. 우리는 겔 45:11 에서 열 에바가 한 호멜임을 안다. 따라서 농부가 45 kg 의 종자를 심어 추수 때에 4.5 kg 을 거두게 됨을 말하고 있다.

5:1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다음으로 언급되는 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쾌락을 몹시 추구하는 내용이다. 성경이 포도주 사용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것임을 강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독주에 대한 같은 종류의 은유가 이사야 28 장에서 사용된다. 이 주제에 대한 강력한 본문은 잠 20:1 과 23:29-35 에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시 104:1-4 의 내용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독주”(BDB 1016)는 곡주를 포도주에 섞어 취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1:22 의 특별주제: 알코올과 알코올 중독을 보라.

5:12 “그들이 연회에는” 이것은 당시 문화에 따른 연회를 나타낸다. 이것은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는 부유층의 모습을 나타낸다.

▣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듣고 이를 깨닫기 거절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있는 주제이다(참조, 1:2-3,10a; 5:12,13,24; 6:9-10; 30:9).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 귀와 눈을 주셨지만(참조, 신 29:4), 그들 모두가 눈멀고 귀먹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가능성을 없애고 있다(참조, 사 6:9-10; 29:9-10).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자원과 계획을 의지했다는 점은 이 절들에 나타나는 비극이다. 우리는 24d, e 절과 신 8:11-20 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개역개정 5:13-17

¹³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¹⁴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¹⁵ 여느 사람은 구푸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¹⁶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¹⁷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5:13-17 이것은 유다의 부유층과 탈취하는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의 목록이다.

1. 사로잡혀 감, 13 절
2. 굶주림, 13 절
3. 목마를 것임, 13 절
4. 스올에게 삼키움을 당할 것임, 14 절
5. 비천하게 됨, 15 절
6. 낮아짐, 15 절(2 회)
7. 이방인들이 부유한 자의 기름진 것을 먹음, 17 절

5:13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이것은 분명히 포로로 잡혀감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이 앗시리아에 의해 북왕국의 열 지파가 사로잡혀 가는 것(주전 722년)을 말하는지 아니면 남쪽의 세 지파인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감(즉, 주전 605, 597, 586, 582년)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직접적 문맥은 양 쪽을 다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은 이사야서에서 매우 일반적이며, 아마도 의도적인 것에 속한다). 앗시리아는 사 7:18 과 10:5 이하에서 특별히 언급되었다. 나는 13:1-14:27 도 앗시리아에 대한 것으로서 바벨론 시를 멸망시켜 “바벨론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내용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약속의 땅으로부터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으로 주신 곳이다. 유다가 언약의 요구조건을 불순종함을 인해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무효로 되고 있다. 그들이 약속을 인해 기뻐하고 그것을 붙들었지만, 그 요구사항은 무시했다(참조, 예레미야 7 장).

신학적 의미에서 이 내용은 창세기 2 장(하나님과 인간의 이상적 교제) 및 창세기 3 장(아담과 하와가 알면서 반역함)과 평행을 이룬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참조, 창 3:24). 이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에 대한 계시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영속적으로 주신 약속으로 여겨지는 것이 인간의 죄를 인해 영향을 받았다. 이와 비슷하게 렘 31:31-34 과 겔 36:22-38 의 “새 언약”도 충격적인 계시이다. 인간이 언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인해 영원한 언약이 대신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다음의 사항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1. 하나님께서 행하심(새 심장, 새 마음)
2.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간이 순종할 수 있게 됨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이 잃어버려지고 곤궁한 세상(즉, 열방)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여전히 원하신다. “의”의 방법이 바뀌었다. 인간의 능력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참조, 갈라디아서 3 장). 구약은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었다!

▣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식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지식을 거절함을 말한다(참조, 사 1:3; 호 4:6,14).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즉, 모세의 언약)에 대해 반역했다. 유다는 분명하게 제시된 길에서 떠났다!

5:14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스올”은 “죽은 자의 영역”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이다(BDB 982). 여기서 이것은 탐욕스런 식욕을 가진 동물로 의인화되었다(참조, 잠 1:12; 27:20; 합 2:5).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I. 구약

가. 모든 인간은 스올(어원이 불확실함, BDB 1066)에 간다. 지혜서와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대부분 죽음 또는 무덤을 가리킨다. 구약은 이곳이 그늘진 곳이고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기쁨이 있는 상태는 아닌 곳으로 말한다(참조, 욥 10:21-22; 38:17; 시 107:10,14).

나. 스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불), 신 32:22
2. 심판의 날 이전에 있는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 시 18:4-5
3. 또한 하나님께 열려있는 *아빔돈*(멸망)과 관계가 있다, 욥 26:6; 시 139:8; 암 9:2
4. “구덩이”(무덤)와 관계가 있다, 시 16:10; 사 14:15; 겔 31:15-17
5. 악한 자는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간다, 민 16:30,33; 시 55:15

6. 종종 큰 입을 가진 동물로서 의인화 된다, 민 16:30; 사 5:14; 14:9; 함 2:5
7. *르파임*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는 곳, 사 14:9-11

II. 신약

가. 히브리어의 *스올*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번역된다(보이지 않는 세상)

나. *하데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죽음을 가리킨다, 마 16:18
2. 죽음과 연결된다, 계 1:18; 6:8; 20:13-14
3. 종종 영원한 형벌의 장소(*게헨나*)로 표현된다, 마 11:23(구약의 인용); 눅 10:15; 16:23-24
4. 종종 무덤으로 표현된다, 눅 16:23

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랍비들)

1. 낙원으로 불리는 의로운 부분(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름, 고후 12:4; 계 2:7), 눅 23:43
2. *타타루스*라고 불리는 악한 부분, 벤후 2:4,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참조, 창 6 장; 예녹 I 서)

라. *게헨나*

1. 구약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예루살렘의 남쪽)를 나타낸다. 이곳은 페니키아의 불의 신인 *몰렉*(BDB 574)에게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참조, 왕하 16:3; 21:6; 대하 28:3; 33:6) 장소이다. 이것은 레 18:21; 20:2-5 에서 금지되었다.
2.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방인의 예배장소에서 야웨의 심판 장소로 바꾸었다(참조, 렘 7:32; 19:6-7). 예녹 I 서 90:26-27 과 Sib. 1:103 에서 그곳은 영원한 불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3.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 이방 숭배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곳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꾸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의 많은 부분은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왔다(불, 연기, 벌레, 악취. 참조, 막 9:44, 46). 오직 예수님만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약 3:6 을 제외하고).
4.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헨나*
 - ㄱ. 불, 마 5:22; 18:9; 막 9:43
 - ㄴ. 영구적인, 막 9:48(마 25:46)
 - ㄷ. 멸망의 장소(영과 육 모두), 마 10:28
 - ㄹ. 스올과 평행된, 마 5:29-30; 18:9
 - ㅁ. 악한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특징짓는, 마 23:15
 - ㅂ. 사법적 판결의 결과, 마 23:33; 눅 12:5
 - ㅅ. *게헨나*의 개념은 두 번째 죽음(참조, 계 2:11; 20:6,14) 또는 불의 못(참조, 마 13:42, 50; 계 19:20; 20:10,14-15; 21:8)과 평행을 이룬다. 불의 못을 인간(스올에서)과 악한 천사(*타타루스*에서, 벤후 2:4; 유 6 절 또는 지옥, 참조, 눅 8:31; 계 9:1-10; 20:1,3)가 영원히 거할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ㅇ. 이것은 사람을 위해 계획된 것이지 사탄이나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 25:41

- 마. *스올*, *하데스*, *케헨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음 설명이 가능하다
1. 원래 모든 인간은 *스올/하데스*에 갔다
 2. 심판의 날 후에 그곳에서의 그들의 경험(좋고/나쁜)은 심화될 것이지만, 악한 자의 장소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KJV 역이 *하데스*(무덤)를 *케헨나*(지옥)로 번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 심판 전에 받는 고통에 대해 언급한 신약 본문은 오직 눅 16:19-31의 비유이다(나사로와 부자). *스올*은 또한 현재의 형벌 장소로서 묘사된다(참조, 신 32:22; 시 18:1-5). 그러나 비유에 근거하여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

III. 죽음과 부활의 중간 상태

- 가. 신약은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고대 관점 중의 하나인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1. 인간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적 생명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2. 인간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 이전과 이후에 영원하다
 3. 종종 육체적 몸은 감옥으로, 죽음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가는 것으로 말해진다
- 나. 신약은 죽음과 부활 사이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암시한다.
1.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나누어 말씀하신다, 마 10:28
 2. 아브라함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막 12:26-27; 눅 16:23
 3.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상에서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다, 마 17 장
 4.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들이 그들의 새 몸을 먼저 갖게 된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살전 4:13-18
 5. 부활의 날 믿는 자들이 새로운 영적 몸을 가진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전 15:23,52
 6. 믿는 자들은 *하데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후 5:6,8; 빌 1:23.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의로운 자를 하늘로 취하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벧전 3:18-22.

IV. 천국

- 가. 이 용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지구 위의 대기, 창 1:1,8; 사 42:5; 45:18
 2. 하늘의 별, 창 1:14; 신 10:14; 시 148:4; 히 4:14; 7:26
 3. 하나님 보좌의 자리, 신 10:14; 왕상 8:27; 시 148:4; 엡 4:10; 히 9:24(삼층천, 고후 12:2)
- 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마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방법도 능력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고전 2:9).
- 다. 천국은 장소일 뿐 아니라 주님과 의 인격적 교제를 말한다(참조, 고후 5:6,8). 천국은 회복된 에덴동산일 수 있다(창 1-2 장; 계 21-22 장). 땅은 정결하여지고 회복될 것이다(참조, 행 3:21; 롬 8:21; 벧후 3:10). 하나님의 형상(창 1:26-27)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에덴동산의 친밀한 교제는 다시 가능하다.
-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이 아니라 은유적일 것이다(계 21:9-27의 크고 네모 반듯한 도시로서의 천국). 고전 15 장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름을 성장한 식물의 씨로서 묘사한다. 고전 2:9(사 64:6 과 65:17 에서의 인용)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며 희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을 것임을 나는 안다(참조, 요일 3:2).

V. 도움이 되는 자료

- 가. 윌리엄 헨드릭슨,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말씀*
- 나. 모리스 롤링스, *죽음의 문 너머*

▣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것은 기대한 것과 완전히 정반대 되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5:15 “여느 사람은 구푸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이것은 사회 전체에 일어날 심판을 가리킨다(참조, 2:9,12,17). 문맥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두 히브리 단어인 *아담*(NASB, “보통 사람”)과 *잇사*(NASB, “존귀한 사람”) 사이에 대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로서, 20 절과 21 절에서는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은유로서 약간 다른 방법으로 반복된다.

5:16 “오직 만군의 여호와와는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택하심을 입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함으로써 누리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그들의 고집불통을 인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든지 할 것이다. 신자는 증인이다(참조, 마 5:13-16). 문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증인인가 하는 점이다.

▣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것은 시의 앞 행에 나오는 내용과 동의어적 평행을 이룬다. 히브리 시를 평행법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5:17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절과 앞의 문맥의 정확한 관계에 대하여 주석가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1.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돌보심을 말한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유한 지주들을 심판하심을 말한다
3. 이것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후에 남아있는 유대의 남은 자를 말한다
4. 이것은 유대의 시민들이 포로로 잡혀간후에 그곳에 재정착한 이방인들을 말한다

나는 심판의 직접적인 문맥이 부유한 자들의 멸망과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땅이 황폐하게 됨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제 공공의 땅이 되었다!

개역개정 5:18-23

¹⁸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¹⁹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²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²¹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²²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빛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²³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5:18-23 악한 자에 대한 “화”를 말하는 또 하나의 연이 열거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18 절, 그들이 짐승을 끌듯이 악을 끈다
2. 19 절, 그들이 야웨께서 속히 자신의 언약적 약속을 이루시기를 요구했다(언약의 요구조건에 대한 고려없이)
3. 20 절, 이것은 19 절과 관련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악한 것, 어두움, 쓴 것으로 여겼다
4. 21 절,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가 참되며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된 것으로 여겼다(19-20 절)
5. 22 절, 그들이 술취했다
6. 23 절,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뇌물을 사용했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일을 맘대로 주무르는 자들이다!

5:18-19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의 히브리어는 불분명하다. 이것은 내가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보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였지만, 이 지식을 따라 살기는 거부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기까지 했다(참조, 19 절).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들의 죄를 고집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 삶에 묶여 있었고 이에 얽매어 있었다!

5:19 이 절에 여러 명령이 나온다.

1. 그가 속히 이루게 하라, BDB 554, KB 553, **피엘 명령**으로서 **지시형**의 의미임
2. 그가 빨리 이루게 하라, BDB 301, KB 300, **히필** 청유형
3.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라, BDB 897, KB 1132, **칼 명령**으로서 **지시형**의 의미임(“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이사야서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이다; 1:4 의 설명을 보라)
4. 지나게 하라, BDB 97, KB 112, **칼 청유형**
5. 우리가 알게 하라, BDB 393, KB 390, **칼 청유형**

이 절은 문맥적으로 12 절과 관계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원치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정하여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타락(창세기 3 장)의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

NASB 연구성경은 위의 1 항과 2 항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속히 이루게 하라”와 “빨리 이루게 하라”라는 히브리어는 ‘마할 살랄 하스 바즈’(‘노략이 신속하고 약탈이 빠름’을 의미한다, 8:1,3 을 보라)라는 이름의 처음 요소와 세 번째 요소와 관련이 있는데, 그가 죄인들에게 풍자적인 조소로 응하는 모습일 것이다”(967 쪽).

5:2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많은 이들이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비록 그러한 설명이 18-23 절과 맞기는 하지만, 나는 이것이 재판관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이 내용은 우리의 빛이 어둡게 되었을 때(참조, 마 6:22-23) 일어나는 비극의 심각한 상황의 한 예이다.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공정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피조물의 도덕적 영역에 창세기 3 장의 타락이 영향을 미쳤다!

5:21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또 다시 교만함과 거만한 죄(즉, 창세기 3 장의 결과)를 가리킨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렘 9:23-24 에 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를 의뢰하는 것이다! 자아와 죄와 자신을 스스로 중요하게 여김으로 인해 인간의 눈이 흐려져 있다(참조, 잠 26:5,12,16; 28:11).

5:22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이사야가 비꼬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용감하며”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전쟁의 용사”를 뜻하는데, 여기의 문맥에서는 전쟁의 상황이 아닌 “술 잔치”를 뜻한다.

▣ “독주를 잘 빛는 자들은” 이것(BDB 1016)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다.

1. 포도주를 물과 섞는 것, 1:22,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그렇게 함. 그러나 이사야서의 본문은 일반적으로 음료로 부적합한 저질의 포도주를 가리킨다.
2. 묵은 쉰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섞는 일
3. 증류시킨 과일즙 혹은 꿀이 들어간 술과 포도주를 섞는 것으로서, 이 방법은 더 잘 취하게 함(오늘날 쉽게 구할 수 있는 높은 도수의 알코올 농도를 가진 발효시킨 음료를 그들은 가지지 않았다)

이것은 “취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이다. 성경은 종종 술취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참조, 5:11,22; 28:7; 56:12; 잠 20:1; 23:29-35; 미 2:11). 이것은 야웨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은유로서 사용되기도 한다(참조, 시 75:8). 1:22의 특별주제를 보라.

5:23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이것은 이 연에서 7 번째 화가 빠진 곳이라고 주석가들이 여기는 절이다. 해석을 위한 질문은 7 가지 화(완전 수)가 나오는가 아니면 6 가지 화(인간의 불안전함을 나타내는 수)가 나오는가 하는 점이다.

뇌물은 사 1:23; 10:1-2에서 계속해서 정죄받는다(참조, 출 23:8; 신 10:17; 16:19; 잠 17:23; 미 3:11; 7:3).

개역개정 5:24-25

²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²⁵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 같이 되었고도다
그렇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5:24 불은 심판과 깨끗케 함을 나타내는 은유이다(즉, 겨와 검불을 재빨리 안전하게 태움, 참조, 33:11; 47:14; 율 2:5; 마 4:1) 1:31의 특별주제: 불을 보라.

▣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히브리 은유이다.

▣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것이 심판을 내리는 이유이다. 유다의 사람들이 언약관계에 있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특히 19 절). 하나님께 사용된 두 칭호를 주목하라. 1:1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5: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심판은 하나님의 권속에 대하여 먼저 시작한다.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주제이다! 노는 큰 빛을 인하여 더욱 강조된다(참조, 눅 12:48).

▣ “산들은 진동하며” 많은 이들은 이것을 웃시야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된 격렬한 지진으로 본다(참조, 암 1:1; 숙 14:5). 그러나 이것은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과장법일 것이다. 자연은 자신의 창조주께서 오심을 인해 진동한다. 이러한 묘사는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즉, 64:3; 출 19:18; 렘 4:24; 율 2:10; 나 1:5).

▣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 같이 되었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묻지 않거나 썩은 시신, 드러난 시신 혹은 동물이 먹은 시신은 충격이 되었다(즉, 겔 39:4,17-20; 나훔 3:3). 적절한 장례는 사후에 그가 누릴 즐거움에 영향을 주었다. 매장하지 않음을 당하는 것은 저주요 공포스러운 것이었다(참조, 삼상 31:8-13).

특별주제: 장례 관습

I. 메소포타미아

- 가. 행복한 내세를 위해 적절한 장례는 매우 중요했다.
- 나.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한 저주의 예는, “땅이 당신의 시신을 받아주지 않기를...” 이었다.

II. 구약

- 가. 적절한 장례는 매우 중요했다(참조, 전 6:3).
- 나.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다(참조, 창 23 장의 사라와 창 35:19 의 라헬의 경우. 신 21:23 를 주목하라).
- 다. 부적절한 장례는 거부됨과 죄의 표식이었다.
 - 1. 신명기 28:26
 - 2. 이사야 14:2
 - 3. 예레미야 8:2; 22:19
- 라. 가능하다면 장례는 집 근처에 있는 가족 묘지나 굴에서 행해졌다.
- 마. 이집트에서와 같은 방부처리는 하지 않았다. 사람은 흙에서 왔기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예, 창 3:19; 시 103:14; 104:29).
- 바. 랍비적 유대교에서 시신에 대한 적절한 존경과 취급을 하는 일과 죽은 자의 몸에 접촉됨으로서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하게 되는 개념을 조화시키는 일은 어려웠다.

III. 신약

- 가. 장례는 임종 후에 신속히 진행되었는데, 대개 24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종종 무덤을 3 일간 지켰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 올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참조, 요 11:39).
- 나. 장례를 위하여 시신을 씻는 일과 향신료를 사용하여 감싸는 과정을 거쳤다(참조, 요 11:44; 19:39-40).
- 다. 1 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행해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의 독특한 장례 방법이나, 혹은 독특하게 무덤 안에 넣어 두는 물품의 사용은 없었다.

개역개정 5:26-30

²⁶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²⁷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메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²⁸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29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5:26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기치”(BDB 651)는 군대가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참조, 11:12; 18:3; 30:17; 31:9; 49:22).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회복)일 수도 부정적(침략)일 수도 있다. 이 문맥에서는 침략자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이유에서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하다: (1) 하나님께서 자연 뿐만 아니라 역사 곧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준다 (2)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고 계시다. 많은 이들은 이 절의 내용을 신 28:49-57의 암시로 본다.

이사야서에서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사 1:2-4; 11:9,10,11; 27:13; 49:22; 56:7; 62:10; 66:19)!

“나라들”은 맛소라 본문에서 복수형인 **고임**으로 되어 있다. 많은 현대 번역가들은 이 단어를 단수형으로 바꾼다. 하지만 복수형은 여러 나라에서 온 용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가리킬 것이다. 앗시리아와 바벨론은 전쟁에 진 나라로부터 군인을 징집하여 복무하게 했다.

▣ “**불러**” 이것은 야웨께서 이방 나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의 죄악된 백성과 싸우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가리키는 은유이다(참조, 7:18).

같은 어근(BDB 1056)이 혐오, 놀람, 조소 등의 표현으로서 “입맞춤”을 뜻하기도 한다.

▣ “**땅 끝에서부터**” 이것은 과장법적 표현이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일상적인 상거래나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불러냄을 뜻한다. 이것은 신 28:49에 있는 언약에 따른 저주를 반영한다.

5:27-30 이 연은 침략해 오는 무적의 군대에 대한 설명이다. 사 40:29-31에서 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한 용어들을 이 내용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본문의 설명은 충격적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항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은 침략해 오는 이교도 적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참조, 하박국 1-2 장).

5:28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이 용어(BDB 693)는 파괴적인 폭풍을 나타낸다.

1. 문자적으로, 사 17:13; 21:1; 읍 21:18; 38:9; 시 83:15
2. 은유적으로, 사 29:6; 렘 4:12-13
 - ㄱ. 야웨의 병거, 사 66:15; 렘 4:13
 - ㄴ. 야웨께서 보내신 침략자들, 사 5:28

5:29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 **분사**(BDB 664, KB 717, *히필 분사*)는 “뉘아 채다” 혹은 “구출하다”를 뜻한다(참조, 42:22; 43:13; 47:14; 호 5:14; 미 5:8). 야웨의 행하심은 분명하다. 아무도 또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즉, 심판 또는 구원)을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다.

5:30b, c 야웨의 빛이 비취는 땅이 어두움과 암흑의 땅이 되었다. 이교도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크게 즐길 것이다! 이 얼마나 기대했던 바와 반대되는 일인가!!!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진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이사야는 왜 이 방법(민속 노래)을 사용하고 있는가?
2. 능동적이며 일시적인 심판과 수동적이며 일시적인 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참조, 롬 1:24, 28)
3. 이 비유적인 노래의 중심진리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
4. 8-23 절에서 암시되고 있는 죄를 열거하라.
5. 26 절 이하의 내용은 어떤 나라를 가리키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 6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이사야의 환상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이사야의 소명
6:1-3 (3b)	6:1-5 (3b)	6:1-5 (3b)	6:1-3 (3b)	6:1-3 (3b)
(5b)	(5b)		6:4	6:4-5 (5b)
6:6-7	6:6-7 (7b)	6:6-13	6:5 6:6-7	6:6-10 (7b)
이사야에게 주신 위임				
6:8-13	6:8 (8b)		6:8a 6:8b (8b)	(8b)
(9b-10)	6:9-10 (9b) (10)	(9b-13)	6:9-10	(9b-10)
(11b-13)	6:11-13 (11b-13)		6:11a 6:11b-13a 6:13b	6:11-1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사야가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왜 1 장이 아니라 6 장에 나오는가에 대해 질문이 항상 있었다.
1. 구약의 책은 현대인 특히 서양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종종 연대를 따른 구성이 아니어서 현대 서양 해석가들로 하여금 놀라게 한다. 구약은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 단위에는 언어유희나 평행법이 사용되었다.
 2. 1-5 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일반적 서론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주요 주제의 대부분이 여기에 나온다.
 - ㄱ. 언약백성의 죄
 - ㄴ. 불순종에 뒤따르는 결과
 - ㄷ. 특별하게 오실 이를 통하여 이루어 질 회복
 - ㄹ. 의의 새 날
 - ㅁ. 이상적인 환경(회복된 에덴)에서 있을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 나. 유대인의 연구 성경(796 쪽)은 6 장의 위치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6 장은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그가 새로 받은 과제에 대한 것이라고 각주에서 주장한다. 선지자는 1-5 장에서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6:9-10의 계시가 있는 이후에는 선지자의 모든 사역(7-66 장)을 하면서 다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다.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새 날의 희망이 있지만, 이 날은 오직 미래적인 소망에 대한 것이다.
- 다. 6 장이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에 대하여 야웨의 무섭고 완전한 심판을 드러내는 반면에, 12 장은 희망과 회복이 있는 새 날을 보여준다. 선교의 명령도 새롭게 되었다(참조, 12:4-5). 이러한 신학적 갈등은 예언서의 메시지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러한 면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다음 내용을 강화한다
1. 불순종의 결과와
 2. 순종에 대한 약속.

간략한 개요

- 가. 하나님께서 계신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다. 1-4 절
- 나.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보았다. 5 절
- 다. 이사야가 자기가 사는 사회가 어떠함을 보았다. 5 절
- 라. 이사야가 섬기기 위해 정결케함을 받았다, 6-7 절
- 마. 이사야가 갈 준비가 되었다. 9-13 절

개역개정 6:1-5

¹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²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³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⁴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⁵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더라

6:1 “웃시야 왕” 웃시야(주전 792-740 년)는 유다의 경건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다(참조, 왕하 15:3; 대하 26:4-5). 이사야와 웃시야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야”는 왕족의 이름의 마지막 자로 사용되었다). 웃시야는 분향을 드렸는데(이것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는 문둥이가 되었다(참조, 왕하 15:4; 대하 26:16-23).

웃시야는 왕하 15 장에서 아사랴로 불리고 대하 26 장에서는 웃시야로 불린다. 웃시야(“내 힘은 약해이다”)는 그가 왕이 된 때에 사용한 이름이었다. 이 이름은 대하 26:17 에서 볼 때 대제사장의 이름도 아사랴였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역대하에서 웃시야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죽은 해인 주전 740 년은 이사야와 유다에 있어서 암흑기였다. 유다는 그의 치리기간 동안 안정을 누렸다.

▣ “내가 본즉 주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었다(참조, 창 16:13; 출 33:20; 왕상 19:13; 사 6:5; 요 1:18; 6:46; 딤페전 6:16).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와 입으신 옷을 분명히 보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본 것은 아니었다(참조, 요 12:41).

구약의 어떤 본문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뵈 수 있었음을 뜻하는 내용이 있다.

1. 모세, 출 33:11; 민 12:8; 신 34:10

2.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 장로, 출 24:10-11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일어날 결과와 관련하여 질문이 생긴다. 이것은 개인적인 친밀한 사귄에 대한 질문이다.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제라는 점에 분명한 핵심이 있다!

▣ “주”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도나이*(BDB 10, 1:1 의 특별주제를 보라)이다. 어떤 고대 히브리 사본에는 “야웨”로 되어 있다.

▣ “보좌” 야웨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하늘의 재판장에 대한 환상에서 나오는데 해당되는 본문은 왕상 22:19; 시 103:19 및 두 본문보다 후기에 속하는 사 66:1 이다. 에스겔서 1 장과 10 장에서 야웨의 보좌는 움직이는 병거인 보좌였다(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떠나가심).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인동형적 언어에 속한다(참조, 5 절; 계 4:2,3; 20:11. N. T. 라이트의 *성경의 언어와 상징* 172-182 쪽을 보라).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 I. 이러한 용법은 구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의 표현이다(일부만 예로 들었음)
- 가. 신체의 일부분
1. 눈 - 창 1:4,31; 6:8; 출 33:17; 민 14:14; 신 11:12; 숙 4:10
 2. 손 - 출 15:17; 민 11:23; 신 2:15
 3. 팔 - 출 6:6; 15:16; 신 4:34; 5:15; 26:8
 4. 귀 - 민 11:18; 삼상 8:21; 왕하 19:16; 시 5:1; 10:17; 18:6
 5. 얼굴 - 출 33:11; 민 6:25; 12:8; 신 34:10
 6. 손가락 - 출 8:19; 31:18; 신 9:10; 시 8:3
 7. 소리 - 창 3:8,10; 출 15:26; 19:19; 신 26:17; 27:10
 8. 발 - 출 24:10; 겔 43:7
 9. 인간의 모양 - 출 24:9-11; 시 47 편; 사 6:1; 겔 1:26
 10. 하나님의 천사 -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4,13-21; 14:19; 삿 2:1; 6:22-23; 13:3-22
- 나. 신체적 행동
1. 창조의 방편으로 말씀하심 - 출 1:3,6,9,11,14,20,24,26
 2. 에덴에서 걸으심(즉, 소리) - 창 3:8; 레 26:12; 신 23:14
 3.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심 - 창 7:16
 4. 번제를 흠향하심 - 창 8:21; 출 29:18,25; 레 26:31
 5. 내려 오심 - 창 11:5; 18:21; 출 3:8; 19:11,18,20
 6. 모세를 묻으심 - 신 34:6
- 다. 인간의 감정
1. 후회하심/회개하심 - 창 6:6,7; 출 32:14; 삿 2:18; 삼상 15:29,35; 암 7:3,6
 2. 화내심 - 출 4:14; 15:7; 민 11:10; 12:9; 22:22; 25:3,4; 32:10,13,14; 신 6:15; 7:4; 29:20
 3. 시기하심 - 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16,21; 수 24:19
 4. 싫어하심/혐오하심 - 레 20:23; 26:30; 신 32:19
- 라. 가족적 용어
1. 아버지
 - ㄱ. 이스라엘의 - 출 4:22; 신 14:1; 사 1:2; 63:16; 64:8
 - ㄴ. 왕의 - 삼하 7:11-16; 시 2:7
 - ㄷ. 아버지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 신 1:31; 8:5; 시 27:10; 잠 3:12; 렘 3:4,12; 31:20; 호 11:1-4; 말 3:17
 2. 부모 - 호 11:1-4
 3. 어머니 - 시 27:10(젓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유추); 사 49:15; 66:9-13
 4. 신실한 젊은 연인 - 호 1-3 장
- II. 이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 표현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 나.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관계를 취하여 말씀하신다(아버지, 어머니, 부모, 연인)
- 다. 비록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육체적 형태로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참조,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라. 궁극적인 신인동형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만진 바 되셨다(참조, 요일 1:1-3).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참조, 요 1:1-18).

▣ “그의 옷자락은” 왕의 옷은 매우 길었다. 이사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기대했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에 계셨다(참조, 히 9:1,24; 계 5-6 장).

많은 주석가들은 길게 흘러내린 긴 이 옷자락이 하나님의 얼굴 형상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4 절에 있는 연기처럼). 이것은 광야 방랑 시기 동안 있었던 영광의 쉼이나 구름처럼 가리는 역할을 했다.

6:2 “스랍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스랍

- 가. 이 절은 그들에 대해 성경에서 언급한 유일한 곳이다. 14:29; 30:5 에 나오는 “날라다니는 뱀”(BDB 977 I 과 BDB 733)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집트 단어인 “셀렘”(“사자 몸통에 목수리 머리와 날개를 가진 수호신)에서 이 명칭이 왔을 가능성도 있다.
- 나. 그들은 천사의 특별한 계급에 속했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불타는 자들”(BDB 977 II)을 뜻한다. 이 단어는 “태우다”(BDB 976)라는 어근에서 왔다.
- 다. 계시록 4:8 에서는 스랍과 그룹이 합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짐승”은 두 날개(출 25:19) 혹은 네 날개(겔 1:6-14)를 가진 그룹과 비슷했지만, 계시록에서 그들은 여섯 날개를 가졌고 또 스랍의 자리를 차지했다.

6:2 “여섯 날개” 그들의 여섯 날개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는 흥미롭다.

1. 눈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은 보좌 앞의 천사들조차도 압도했다.
2. 발을 가리기 위해. 신의 현현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문자적으로 어떤 물질이나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종종 발은 생식기에 대한 완곡어법으로 사용되었다(참조, 7:20; 출 4:25; 삿 3:24; 룩 3:4,7,8,14; 삼상 24:3). 그러나 마 22:30 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아마도 거룩한 자의 존전에서 갖는 겸손을 나타내는 자세일 것이다(참조, 출 3:5).
3.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빨리 수행하려고 날기 위해(참조, 6 절)

6:3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함은 이사야서에서 중심되는 주제이다.

1. *카도쉬, 형용사*, BDB 872, “거룩한,” “신성한”
 - ㄱ. ~의 거룩함
 - (1) 하나님, 5:16; 6:3(3 회)
 - (2) 하나님의 이름, 57:15
 - (3) 하나님의 처소, 17:15
 - (4) 하나님의 안식, 58:13
2. *카다쉬, 동사*, BDB 872, “따로 구분하다,” “신성하게 하다”
 - ㄱ. 하나님의 성품, 5:16; 29:23
 - ㄴ. 하나님, 8:13; 65:5
 - ㄷ. 하나님의 천사, 13:3
 - ㄹ. 하나님의 이름, 29:23

- ㄱ. 축제, 30:29
- ㄴ. 기록하게 된 사람, 66:17
- 3. *코데쉬*, *명사*, BDB 871, “구분함,” “신성함”
 - ㄱ. 기록한 씨, 6:13
 - ㄴ. 기록한 산, 11:9; 27:13; 56:7; 57:13; 65:11,25; 66:20
 - ㄷ. 구분하다, 23:18
 - ㄹ. 기록함의 길, 35:8
 - ㅁ. 성소, 43:28; 62:9; 64:11
 - ㅂ. 기록한 도시, 48:2; 52:1
 - ㅅ. 기록한 자, 49:7
 - ㅇ. 기록한 팔, 52:10
 - ㅈ. 기록한 날, 58:13
 - ㅊ. 기록한 백성, 62:12
 - ㅋ. 기록한 영, 63:10,11
 - ㅌ. 하나님의 보좌, 63:15
 - ㅍ. 기록한 장소, 63:18
 - ㅎ. 기록한 도시들, 64:10

삼중적 반복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나타낸다(참조, 램 7:4; 겔 21:27).

특별주제: 기록

I. 구약의 용법

- 가. 이 용어(*카도쉬*, BDB 872)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가나안어에서 왔을 것이다. 이 단어의 어근(즉, *카드*)의 일부가 “나누다”를 뜻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함”(가나안 문화로부터, 참조, 신 7:6; 14:2,21; 26:19)을 뜻하는 보편적인 정의의 기원이다.
- 나. 이것은 제사를 위한 물건, 장소, 시간, 사람과 관련이 있다. 이 의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 다. 예언서 이전 시기에도 나타나기는 했지만 강조되지 않았던 사람과 관련된 용법이 예언서(특히 이사야서 호세아서)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참조, 사 6:3). 하나님은 기록하시다. 기록하신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의 백성은 기록하다(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언약을 순종한다면).
- 라. 하나님의 공호와 사랑은 언약, 정의, 본질적 성품과 같은 신학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기록하지 못하고 타락하였고 반역적인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 갈등이 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과 “기록하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글이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의어* 112-113 쪽에 있다.

II. 신약의 용법

- 가. 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인의 사상을 가졌지만(누가만 제외하고는) 코이네 헬라어(즉, 70 인역)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어휘에 영향을 끼친 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었지 전통적 헬라어 문학, 사상, 또는 종교가 아니었다.
- 나.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록하시다(참조, 눅 1:35; 4:34; 행 3:14; 4:27,30). 그는 기록한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다(참조, 행 3:14; 22:14).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기록하시다(참조, 요 8:46; 고후 5:21; 히 4:15; 7:26; 뱀전 1:19; 2:22; 요일 3:5).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레 11:44-45; 19:2; 20:7,26; 마 5:48; 벧전 1:16). 예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롬 8:28-29; 고후 3:18; 갈 4:19; 엡 1:4; 살전 3:13; 4:3; 벧전 1:15).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도록 구원받았다.

▣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늘 군대의 대장”을 뜻한다. 1:9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은 땅” 이것은 유일신 사상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참조, 창 1:26,27; 3:15; 12:3; 출 19:5,6; 민 14:21; 시 2:8; 22:27-28; 59:13; 72:8,19; 사 45:21-22; 49:6; 52:10; 미 5:4). 이사야의 신학은 우주적이다(즉, 12:5; 24:14-16; 42:10-12). 2:2의 특별주제를 보라.

6:4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리키거나(참조, 8 절) 혹은 문맥에서 스랍의 소리를 가리킨다(즉, 3 절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동사(BDB 569, KB 583, *니팔 미완료형*)는 겔 10:4에서도 사용되었다. 이것은 민 14:21; 시 72:19; 합 2:14을 반영한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2)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며 또 이를 가리는 *쉐키나* 구름(참조, 출 40:34) 혹은 (3) 번제단의 향로에서 연기가 나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를 뜻한다.

6:5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동사(BDB 198 II, KB 225, *니팔 완료형*)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물건의 멸망(즉, “잠잠케 됨”)을 가리킨다.

1. 도시
 - ㄱ. 모압의, 사 15:1
 - ㄴ. 블레셋의, 렘 47:5
2. 사람
 - ㄱ. 이스라엘, 호 4:6
 - ㄴ. 예루살렘, 습 1:11
 - ㄷ. 에돔, 욥 5 절
3. 왕
 - ㄱ. 이스라엘, 호 10:7,15
 - ㄴ. 이집트, 겔 32:2
4. 동물의 은유로써 사람의 멸망을, 시 49:13,21
5. 이사야의, 그가 하나님을 뵈었기 때문임, 사 6:5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사야로 하여금 그가 의롭지 않음을 알게 했다. 성경은 의롭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이 있음을 말한다! 은혜가 열쇠이지만 거룩함은 목표가 된다(참조, 레 11:44-45; 19:2; 20:7,26; 신 18:13; 마 5:48)!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 “입술이 부정함” 인간의 언어는 그의 마음을 나타낸다(참조, 마 15:18; 막 7:20,23). 이것은 사 29:13(마 15:8-9)과 겔 33:30-32 절에서 나타난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죄(즉, 언약의 개인적 책임, 참조, 에스겔 18장과 36장)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죄(공동체적 책임)를 인식했다. 두 영역 다 사실이며 이에 따른 책임과 혜택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열방에 드러내야 했지만, 그들은 열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부패했다. “심령이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참조, 마 5:8) 이사야는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았고 또 언약 백성도 그렇지 않음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백성이 되게 하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인한 소망과 “조건적인 언약” 사이의 긴장이다(참조, 겔 36:22-38).

▣ “(내 눈이) 왕을 뵈었음으로다” 1 절의 설명을 보라.

▣ “왕” 유다의 왕은 언약 백성의 참 왕이신 야웨를 나타냈다(즉, 출 15:18; 민 23:21; 삿 8:23; 삼상 8:7; 12:12; 왕상 22:19; 렘 46:18; 48:15; 51:57).

개역개정 6:6-13

⁶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⁷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⁸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⁹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¹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¹¹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¹²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¹³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6:6 이 절은 매우 상세한 묘사를 제시한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성전의 비전을 보았다. 이것이 실제적인가 혹은 상상적인 것인가는 답하기가 항상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는 안개를 통해 영적 영역을 본다. 우리는 이 같은 본문으로부터 천국을 자세히 알 수 있지 않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진리 혹은 인상을 개략적으로 제시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기 시작하심은 놀랍다. 하나님은 (1) 하나님 자신과 (2) 자신의 계획과 (3)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거부하시고 미래에도 그리하실 것을 드러내신다(참조, 6:9-13). 유다는 듣고 보기를 거부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한 이사야는 깨끗하게 하심을 받고 또 사역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참조, 8 절).

▣ “제단” 이것(BDB 258)은 (1) 휘장 앞에 있는 향로 제단 혹은 (2) 성전 앞에 둔 번제단을 가리킨다. 이사야의 입술에 댄 행동은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정결을 상징한다.

6:7 “내 입술에 대며” 깨끗하게 하여 위임하는 이 방법은 렘 1:9 과 단 10:16 에 나타난 것과 비슷하다. 한편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는데(참조, 겔 2:8-10; 3:3) 이 점은 렘 15:16 과 계 10:8-11 의 내용과 비슷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은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그 내용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 “네 악이 제하여졌고” 이 동사(BDB 693, KB 747, 칼 완료형)는 “옆으로 돌려 놓다” 혹은 “치우다”를 뜻한다. 여기서 이것은 “용서 받은”(문자적으로 “뒤편,” “속함을 받음,” BDB 497, KB 493, **뿌알 미완료형**, 참조 22:14; 27:9; 28:18)과 평행을 이룬다. 이사야는 야웨를 만남으로 인해 변화를 받았다. 과거가 효과적으로 처리함을 받았고 미래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야웨를 대신해서 말한 스랍이 확인해 준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경험한 커다란 은혜 만큼 은혜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중요한 본문이다(참조, 행 9 장).

6:8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복수형 이름인 엘로힘(창 1:1; 5:1)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수형을 나타낸다(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복수형이 나타난다, 참조, 창 1:26; 9:6; 신 6:4-5; 시 110 편). 필로와 에벤 에즈라는 이것이 “장엄함의 복수형”이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하늘의 회의”(참조, 라쉬, 참조, 왕상 22:19-23; 욥 1:6-12; 2:1-6)라고 말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미리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 가. 복음서
 - ㄱ.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 ㄴ. 요한복음 14:26
- 나. 사도행전 - 행 2:32-33, 38-39
- 다. 바울
 - ㄱ. 롬 1:4-5; 5:1,5; 8:1-4,8-10
 - ㄴ. 고전 2:8-10; 12:4-6
 - ㄷ. 고후 1:21; 13:14
 - ㄹ. 갈 4:4-6
 - ㅁ. 엡 1:3-14,17; 2:18; 3:14-17; 4:4-6
 - ㅂ. 살전 1:2-5
 - ㅅ. 살후 2:13
 - ㅇ. 딤후 3:4-6
- 라. 베드로 - 벧전 1:2
- 마. 유다 - 유 20-21 절

삼위일체는 구약에서 암시되고 있다

- 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 ㄱ.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를 가진다.
 - ㄴ.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 ㄷ. 신 6:4 의 **쉐마**(BDB 1033)에서 “한 분”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창 2:24; 겔 37:17 에서도 그러함)
- 나.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나타남
 - ㄱ. 창세기 16:7-13; 22:11-15; 31:11,13; 48:15-16

- ㄴ. 출애굽기 3:2,4; 13:21; 14:19
- ㄷ. 사사기 2:1; 6:22-23; 13:3-22
- ㄹ. 스가랴 3:1-2

- 다.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구별됨, 창 1:1-2; 시 104:30; 사 63:9-11; 겔 37:13-14
- 라.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아돈)는 서로 구별됨, 시 45:6-7; 110:1; 스가랴 2:8-11; 10:9-12
- 마.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 바. 사 48:16; 61:1 에서는 3 위가 모두 언급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1. 터틀리안 - 성자를 성부에 종속시킴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4. 모나키안 주의 -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셨다고 믿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1. 주후 325 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 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동등하심을 확인함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이 쓴 *데 트리니타테*에서 잘 설명된다.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있다. 한편 신약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 위격으로 나타나셨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창 22:1,7,11; 27:1; 31:11; 46:2; 출 3:4; 삼상 3:4,5,6,8,16; 22:12; 삼하 1:7).

▣ “나를 보내소서” “보내다”(BDB 1018, KB 1511)라는 동사는 *칼 명령*으로서 간구하는 기도로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야웨의 질문에 대한 이사야의 응답이다. 이것은 그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이 히브리 개념이 모형론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과 또한 주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로서의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는 지는 놀랍다(참조, 요 17:18; 20:21). 하나님은 반역적인 자신의 피조물에게 찾아 오신다! 나는 최근의 복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여전히 보내시고 계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가!

6:9-10 야웨께서 이사야의 사역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알리실 때에, 하나님은 그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1. 가라, 9 절, BDB 229, KB 246, *칼 명령*
2. 말하라, 9 절, BDB 55, KB 65, *칼 완료형*
3. 계속 들으라, 9 절, *칼 명령과 칼 부정사 절대형*(BDB 1033, KB 1570)
4.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9 절, BDB 106, KB 12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참조, 1:3; 5:21; 10:13; 29:14
5. 계속 보아라, 9 절, *칼 명령과 칼 부정사 절대형*(BDB 906, KB 1157)
6.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 9 절, BDB 393, KB 380,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7.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문자적으로는 “기름지게”), 10 절, BDB 1031, KB 1566, **히필 명령**
8.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10 절, BDB 457, KB 455, **히필 명령**
9.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10 절, BDB 1044, KB 1612, **히필 명령**

이 명령들은 뒤 따르는 단어들과 연속을 이루며 사용되었다(세 **미완료형 동사**인 “보다,” 듣다,” 알다”가 앞서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지하심에 의해 혹은 그들이 이미 가진 고집스런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신다.

1. 그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BDB 996, KB 1427, 부정을 나타내는 **칼 완료형**
2. 그들이 고침을 받지 않도록, BDB 950, KB 1272, 부정을 나타내는 **칼 완료형**

이사야의 설교를 통하여 일부의 사람이 응답을 할 것이지만, 그 사회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은 응답을 하지 않거나(참조, 롬 1:24,26,28; 엡 4:19) 응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참조, 29:9,10; 신 29:4; 마 13:13; 롬 11:8)! 여기서 이사야는 복음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마 13:13; 막 4:12; 눅 8:10). 그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는 미래적인 것이지 그 당시에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었다!

6:10 “눈이 감기게” 이 단어(BDB 1044, KB 1612)는 문자적으로는 “분비물로 덮이다”를 뜻한다(참조, 29:9; 32:3).

▣ **“다시 돌아와”** 이것(BDB 996, KB 1427)은 구약에서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신약에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두 개념이 서로 관련이 있다!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회개

이 개념은 중요하지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취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히브리(또한 헬라어) 단어가 신학적으로 “고정된” 어떤 정의를 특별히 뜻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단어가 그렇게 “고정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약의 저자들(누가를 제외하고는)은 코이네 헬라어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히브리 단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개념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nhm*(**나함**, BDB 636, KB 688)

2. *swb*(**쉬**, BDB 996, KB 1427)

처음 단어인 **나함**은 원래 숨을 깊이 쉬는 것을 뜻하며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 ㄱ. “휴식” 또는 “위로” (예, 창 5:29; 24:67; 27:42; 37:35; 38:12; 50:12; 종종 이름으로 사용됨, 참조, 왕하 15:14; 대상 4:19; 느 1:1; 7:7; 나훔 1:1)
- ㄴ. “슬퍼하다” (예, 창 6:6, 7)
- ㄷ. “마음을 바꾸다” (예, 출 13:17; 32:12,14; 민 23:19)
- ㄹ. “동정” (예, 신 32:36)

이 단어들이 모두 마음 속 깊이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임을 주목하라! 여기에 열쇠가 있다: 마음 속 깊이 있는 느낌이 행동을 낳는다. 이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행동의 변화이다. 여기에 주의를 요하는 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다”(참조, 창 6:6,7; 출 32:14; 삿 2:18; 삼상 15:11,35; 시 106:45)라는 말은 죄나 잘못에 대한 슬픔으로 인한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을 가지시고 돌보심을 문자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참조, 민 23:19; 삼상 15:29; 시 110:4; 램 4:27-28; 겔 24:14). 만일 죄인이 진실되게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죄와 반역으로 인한 형벌을 용서받는다.

이 용어는 어원적으로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진다.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정지음에 있어서 문맥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용어인 **שוב**은 “돌아가다”(~에서 돌아 오다, 돌아 가다, ~로 돌아 가다)를 뜻한다. 만일 언약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내용이 “회개”와 “믿음”(예, 마 3:2; 4:17; 막 1:4,15; 2:17; 눅 3:3,8; 5:32; 13:3,5; 15:7; 17:3)가 사실이라면, **נחם**은 자신의 죄를 강도있게 느끼는 것과 죄로부터 돌이킴을 뜻하고 **שוב**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이 두가지 영적 행동이 나오는 경우는 아모스서에서 찾을 수 있다:4:6-11,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5 회]와 암 5:4,6,14, “나를 찾으라... 야웨를 찾으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회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예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밧세바와 관련하여 범죄하였을 때이다(참조, 삼하 12 장; 시 32 편; 51 편). 다윗 자신과 그의 가정 및 이스라엘에 계속적인 영향이 미쳤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교제는 회복되었다! 악했던 므낫세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참조, 대하 33:12-13).

이 두 용어는 시 90:13 에서 병행하여 나타난다. 죄를 인식하고 죄로부터 의식적이고 개인적으로 돌아서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이 요구된다(참조, 사 1:16-20). 회개는 인식적인 면,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함과 이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 나감에 있어서 이 세 영역이 모두 요구된다. 후회함의 깊은 감정이 하나님께 향한 또한 하나님을 위한 지속적인 헌신으로 바뀐다!

6:11 “어느 때까지니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6:12 “멀리 옮기셔서”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것이 앗시리아가 북쪽의 지파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말하는지 혹은 바벨론이 남쪽의 지파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아마도 의도적인 모호성에 속한다).

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1:9 의 특별주제: 남은 자를 보라. 또한 (1)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야습(7:3)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임을 주목하라 (2) 10:20-22 의 설명을 참고하라.

▣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3 절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문자적 문맥 - 커다란 나무의 은유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베어지고 불탔지만 남겨진 그루터기에 생명이 있었다. 싹이 나올 것이다(즉, 메시아 혹은 메시아적 공동체, 참조, 4:2; 11:1; 53:2; 렘 23:5; 33:15; 숙 3:8; 6:12). 그러나 미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즉, 불탐).
2. 역사적, 문화적으로 - 다산송배를 위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즉, *아셀라*)은 철저히 불탈 것이다. 어느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상송배를 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13 절에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두 핵심 단어가 있다!

1. “넘어지다,” BDB 1021 I, 성전에 있는 문과 같은 어근에서 옴(참조, 대상 26:16). 이 어근의 기본적 의미는 “던지다,” “내던지다,” 혹은 “내동맹이치다”이다.
2. “그루터기,” BDB 663,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돌 기둥을 가리킨다
 - ㄱ. 족장과 모세가 세운
 - ㄴ. 다산송배를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세운(즉, 바알)

▣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것은 4:2 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적 의미를 갖는다. 사 11:1 의 설명을 보라. 이 구는 70 인역에는 빠져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웃시야 왕의 죽음이 이사야에게 왜 그렇게 깊은 영향을 주었는가?
2. 이사야는 누구를 보았는가?
3. 이사야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왜 거부했는가?
4.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이사야 7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루살렘에 대한 전쟁	아하스 왕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이사야	시리아-에브라임 연맹 전쟁과 이사야 (7:1-8:15)	아하스 왕에게 주는 메시지	이사야의 증재
7:1-2	7:1-2	7:1-2	7:1 7:2	7:1-2
7:3-9	7:3-9 (7b-9)	7:3-9 (7b-9)	7:3-6 7:7-9a 7:9b	7:3-9 (7b-9)
임마누엘 아기	임마누엘 예언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	이사야가 다시 증재하다
7:10-17	7:10-17	7:10-17	7:10-11 7:12 7:13-16 7:17	7:10-17 (11) (13b-17) 침략에 대한 예고
7:18-20	7:18-22 (18-19) (20)	7:18-19 7:20	7:18-19 7:20	7:18-25 (18-25)
7:21-22	(21-22)	7:21-22	7:21-22	
7:23-25	7:23-25 (23-24) (25)	7:23-25	7:23-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이 문학적 단락(7-12 장)은 종종 “임마누엘의 책”으로 불린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주제가 새 시대의 경이로운 아기인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시리아-에브라임 연맹이 주전 735-733 년에 일으킨 전쟁 및 티글랏 필레셀 III 세(불로 불리기도 함, 참조, 왕하 15:19)가 이끄는 앗시리아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역사상의 사건이 이 본문의 배경을 이룬다.

1. 7 장-10:4 은 주전 735 년 경에 속한다(티글랏 필레셀 III 세의 시대, 주전 745-729 년)
2. 10:5-34 은 주전 701 년 경에 속한다(산헤립의 시대, 주전 705-681 년)
3. 11:1-12:26 은 메시아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있다.

다. 이 전체 단락에서 아이들은 역사상의 사건에 대한 상징이 되고 있다

1. 이사야의 맏아들(스알야습), 7:3
2. 아하스에게 징조로 언급된 아기, 7:14-16
3. 이사야의 둘째 아들(마헬살랄하스바스), 8:1,3
4. 메시아인 아기, 7:14; 9:6-7, 11:1-5
5. 새 시대의 아기들, 11:6-9

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음의 병행구절을 읽으라

1. 7 장-10:4 에 대하여는 왕하 16 장과 대하 28 장을 읽으라
2. 10:5-34 에 대하여는 왕하 18:17-20:11 과 대하 32:9-24 을 읽으라

마. 아하스 왕이 보여준 불신앙과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믿음 사이에 대조가 나타난다(참조, 37:14-20,30). 성경에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만(즉, 임마누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7:1-2

¹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²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7:1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는 주전 735-715 년에 다스렸다. 이 장은 앗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맺은 군사동맹에 유다가 참여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한다.

▣ “베가” 그는 열 지파로 구성된 북왕국의 왕위를 찬탈한 자였다(즉, 그의 치세기간에 대하여는 브라이트, 주전 737-732 년; 영, 주전 736-730 년; NIV 연구성경, 주전 752-732 년). 부록 IV 의 3 항에 있는 도표인 “분열왕국의 왕들”을 보라.

7: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것은 소식이 왕족 전체에 알려진 것을 뜻하거나 혹은 왕궁에서 이 소식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을 뜻한다.

▣	
NASB	“진쳤다”
NKJV	“부대를 배치하였다”
NRSV	“동맹하였다”
TEV	“이미 안에 있었다”
NJB	“머물러 있다”
70 인역	“공모했다”
페쉬타	“연합했다”
REB	“동맹을 맺었다”

이 동사(BDB 628, KB 679, *칼 완료형*)는 “취다”를 뜻한다.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그들 한 가운데에 영속적인 진지를 구축하였음을 뜻한다. 이것은 시리아가 강했고 정치적 동맹에 있어서 우세한 쪽이었음을 말한다.

같은 동사가 19 절에서 침략해 온 큰 군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

▣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이것은 소식을 들은 왕족 혹은 예루살렘 주민을 가리킨다.

▣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흔들리다” 혹은 “동요하다”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다(BDB 631, KB 681, *칼 명령과 칼 부정사 연계형*). 대개는 *미완료형 동사*와 *부정사 절대형*으로 강조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동사와 같은 동사형의 *부정사*를 함께 사용하여 강조를 나타낸다.

유다와 유다의 지도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들은 야웨의 임재하심이나 야웨의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았다.

개역개정 7:3-9

³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⁴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깥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⁵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피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⁶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⁷주 여호와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⁸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⁹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7:3 “이사야” 그의 이름은 “구원”과 “야웨”라는 두 명사로 되어 있다. 내포한 뜻을 의미있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를 넣어야 한다: “야웨께서 구원이시다,” “야웨께서 구원을 가져오신다” 등.

▣ “스알야습” 이것은 이사야의 말아들의 이름이다. 10:20-23 에서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 온다”이다.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왕을 만나도록 명령을 받은 사실은 이 이름이 그 만남에 있어서 주제가 됨을 뜻한다. 이 이름은 다음의 사실을 가리킬 것이다

1. 침략해 오는 군대의 소수만 살아 남아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2. 믿음이 없는 유다의 소수만 살아 남을 것이다. 이사야는 “충성된 남은 자”라는 개념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윗못 수도 끝” 이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성에 물을 공급하는 기혼 샘을 가리킨다. 이 샘은 유다 왕의 대관식이 행해진 곳이기도 하다. 아하스는 성이 포위되는 것에 대비한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점검했다!

7:4-9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야웨의 말씀이다. 처음 부분은 아하스에게 대한 말씀이다.

1. 주의하라, BDB 1036, KB 1581, **니팔 명령**
2. 조용하라, BDB 1052, KB 1641, **히팔 명령**
3. 두려워 말라, BDB 431, KB 432,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
4. 낙심하지 말라, BDB 939, KB 1236,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

아하스가 두려워한 이유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침략 계획을 인함이었다(5 절).

야웨는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이 가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신다(6 절).

1. 우리가 유다로 올라가자, BDB 748, KB 828,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
2. 그것을 쓰러뜨리자(NASB 의 난외주), BDB 880, KB 1089,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된 **히팔 미완료형**
3.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자, BDB 131, KB 149,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된 **히팔 미완료형**
4.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BDB 573, KB 590,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된 **히팔 미완료형**

야웨는 자신의 계획을 7 절에서 말씀하신다.

1. 그 일은 서지 못한다, BDB 877, KB 1086, **칼 미완료형**
2.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BDB 224, KB 243, **칼 미완료형**

그것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든지 혹은 앗시리아든지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야웨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한편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사항은—그들이 야웨의 말씀을 믿고 이를 신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9 절)!

1. 믿다, BDB 52, KB 63, **히팔 미완료형**, **복수형**(왕궁과 지도자들, 참조, 13,14 절)
2. 끝나지 말아야 한다(문자적으로 “확실해야 한다”), BDB 52, KB 63, **니팔 미완료형**, **복수형**

이것과 같은 언어유희가 대하 20:20 에서 *아만의* 뜻과 관련하여 나타난다.삼하 7:16 에서 같은 동사가 다윗의 왕위의 영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야웨의 언약에 있어서 만일 언약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거부한다면 야웨께서는 언약에 따른 행동을 취하기를 그치신다 (참조, 30:15 절). 22:25 의 특별주제인 “믿다”를 보라.

▣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 침략자는 얼마 안있어 “있었던 자들”이 될 자들로서 묘사되고 있다. 시리아(즉, 다마스쿠스)는 앗시리아에 의해 주전 732 년에 이스라엘(즉, 사마리아)은 주전 722 년에 멸망했다. 8 절에 나타나는 숫자(65 년)는 우리가 당시의 역사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7:6

NASB
NKJV

“그 벽을 무너뜨리고”
“그 벽에 틈을 만들고”

NRSV “그것을 정복하고”
 NJB “그것을 멸망시키고”
 폐쉬타 “그 안에 터진 곳을 만들고”
 REB “그것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이 동사(BDB 131, KB 149,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미완료형**)는 기본적으로 “부수어 열다” 혹은 “부수어 지나가다”를 뜻한다(참조, 왕하 3:26).

▣ “다브엘”(BDB 370)은 앗시리아의 이름이다. 두 가지 가능한 용법이 있다: (1) 길르앗에 있는 지파의 이름 혹은 (2) 두로 왕의 이름(토-바-일, 옛바알로 알려진 70 인역의 다브엘); 그러나 맛소라 본문은 이 이름에 모음을 추가하여 “타브알”로 바꾸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은 “아무 쓸모도 없는”이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의 성격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일이 흔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문맥에서 이 단어는 유다에 있는 알려져 있지 않은 친 앗시리아 인물을 가리킨다.

7:7 “주 여호와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역사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이를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 가리키는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참조, 17,18,20 절). 8:10 과 28:18 도 참고하라.

7:8 “(이제 또 다른 65년 안에)” 기간을 말하는 이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예살핫돈이 이스라엘을 추방하고 그들의 땅에 재 정착시키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왕하 17:24; 스 4:2). 이것은 (1)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가진 애매모호한 성격이나 (2) 후에 이사야서 본문의 손을 본 서기관이 편집자적 언급을 한 내용이거나 (3) 앞의 두 경우에 다 기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7:9 NIV 는 이사야서의 언어유희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전혀 설 수 없을 것이다”로 나타낸다.

7:9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22:25 의 특별주제: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실함을 보라.

개역개정 7:10-17

¹⁰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¹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¹²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¹³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¹⁴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¹⁵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영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¹⁶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¹⁷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7:11 11 절의 히브리 본문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구하라”(BDB 981, KB 1731, **칼 명령**)라는 동사를 두 번 사용한 것, 참조, NKJV, 폐쉬타
2. 한 동사(**스알라**)와 스올(**š'lh**)이라는 단어의 사용, 참조, NASB, 벌게이트, TEV, NJB, REB(70 인역은 “깊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UBS 히브리 본문 프로젝트는 “구하라”(명령형)에 “B” 등급(즉, 약간 미심쩍음)을 주고 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직접적인 문맥에 들어 맞는다. 여기서 사용된 정확한 단어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절의 의미는 분명하다. 이점은 이와 같은 본문의 문제를 갖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이다. 어떤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연(혹은 문단)의 중심 사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열쇠가 됨을 기억하라. 남들보다 더욱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의기소침해진 자신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돕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증표를 주신다(참조, 37:30; 38:7,8; 55:13). 이러한 구체적 확인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며 그들 모두에게 약속된 것도 아니다(참조, 마 12:38-39; 16:1,4; 막 8:11-12; 13:4; 눅 11:16,29; 요 2:18; 4:48; 6:30; 고전 1:22). 징조와 기적은 종종 사탄이 속이는 방법이 된다(참조, 마 7:21-22; 24:24; 막 13:22)!

▣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하나님” 대 “내 하나님” 사이에 나타나는 언어유희를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한편 구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신학적 의도가 들어있지 않은 관용적 표현이다.

▣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땅 위나 땅 아래로부터 혹은 위로 하늘로부터 왕이 어느 징조라도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아하스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길 원하셨다.

스울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5:14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7:12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참조, 출 17:2,7; 민 14:22; 신 6:16; 시 78:18,41,56; 95:9; 106:14)을 “시험하지”(BDB 650, KB 702) 않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값진 진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왕이 이렇게 말하는 동기는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앗시리아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그가 이미 결심을 굳혔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다윗의 후손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하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다!

7:13 “들을지어다” 이 동사(BDB 1033, BK 1570, 칼 명령, 복수형)는 이사야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임마누엘의 책”(즉, 7-12 장)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 “다윗의 집이여” 공동체를 일컫는 이 구는 이 문맥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아하스를 가리킨다(참조, 삼하 7 장).

▣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이것은 히브리 관용구이다(BDB 589, 참조, 민 16:13; 수 22:17; 겔 16:20; 34:18).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이 작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다.

▣ “괴롭히려 하느냐” 이 동사(BDB 521, KB 512)는 두 번 사용되었다.

1. 한 번은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히필 부정사 연계형)
2. 한 번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히필 미완료형)

아하스는 백성들에게 대하여 야웨를 대신하는 자(참조, 삼하 7 장)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하지 않았다!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징조(BDB 16)는 반드시 아하스의 시대에 먼저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다(특히, 15-16 절)!

▣ “처녀” 이곳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알까*(BDB 761)이다. 이 용어는 결혼적령기의 젊은 여인을 가리킨다(참조, 창 43:24; 출 2:8; 잠 30:19). 이 용어는 성적으로 성숙한 여자를 나타낸다. 처녀를

뜻하는 또 다른 히브리 단어는 *뽀틀라*(BDB 143)로서 이사야서에서는 23:4,12; 37:22; 47:1; 62:5 에서 사용되었다. 70 인역은 이 절을 번역함에 있어서 헬라어의 “처녀”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들은 의미상 서로 겹치며, 이스라엘의 관습은 모든 젊은 여자들을 처녀로 여겼다. 한편 나는 이것이 두 번의 동정녀 출생이 아니라 오직 한 번의 동정녀 출생을 말한다고 믿는다. 한 징조로서 아하스의 시대에 정상적인 잉태가 있었고 예수님의 때에 처녀(“바로 그,” 맛소라 본문)가 잉태하는 일이 이루어 졌다(참조, 마 1:18-23; 눅 1:26-38). 이것은 예언의 다중 성취이다!

신약이 이 사실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있는 점(이 사실이 두 출생 기록[즉, 마 1:23; 눅 1:31,34]에만 나타나지 사도행전의 설교나 사도들의 서신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은 헬라-로마의 종교적 배경에서 신과 인간이 함께 동거하여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매우 흔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죄가 남성의 정자를 통해 전달된다고 교리를 세우기 위해 동정녀 출생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이것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족장들의 부인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을 때에야 비로소 자녀를 갖게 된 것과 비슷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해서도 일을 주관하신다! 더 놀라운 진리는 메시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신약에서 드러난다(즉, 요 1:1; 5:18; 10:33; 14:9-11; 빌 2:6)! 따라서 동정녀 출생의 필요가 여기에 있다!

▣	
NASB	“아기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NKJV, 폐취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NRSV	“아기와 함께 있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TEV	“임신한 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NJB, REB	“아기와 함께 있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 인역	“아기와 함께 있을 것이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형용사(BDB 248)는 대개 이미 임신한 어떤 사람을 나타내지만, 번역본에서 분명해지듯이 어떤 모호성을 갖고 있다.

이 일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어떤 부인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녀가 왕의 부인(즉, 히스기야의 출생)인지, 선지자의 부인인지, 혹은 궁정에 있는 어떤 젊은 여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히스기야(아하스의 아들)가 다윗과 관련된 문맥에 가장 적합한 해석이다.

▣ “임마누엘” 이 이름(BDB 769)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를 뜻한다(참조, 8:8,10).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관한 이름을 가졌다. 이 아이의 이름은 징조로서이지 그의 독특한 출생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출생인 동정녀 탄생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초자연적 아기의 출생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구약의 진리가 아니라 신약의 점진적인 계시에 속한 진리이다!

7:15-16 이 두 절은 서로 평행을 이룬다(세 동사가 관련되었다). 이러한 평행법은 히브리 문학 양식의 특징이다(문자적인 단어 및 문단과 절의 구조에 있어서).

7:15 “영진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구의 의미에 대하여 두 가지 이론이 제시된다: 그가 매우 풍성한 시기에 올 것이다(즉, 출 3:8), 혹은 이와 정반대로 그가 매우 빈곤한 때에 올 것이다(참조, 21-22 절).

- ▣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 “책임을 지는 시기”(즉, 종교적 훈련의 결과)
 2. 그가 금지된 것과 적합한 것을 아는 어린이가 될 것이다. 후기 유대교에서 이것은 13 세 전후를 의미했다(즉, *발-미즈바*). 한편 8:4 은 이 보다 훨씬 이른 시기임을 암시한다!

7:16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은 시리아(참조, 암 1:3-5)와 이스라엘(참조, 17:3)이 앗시리아에 의해 패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오랜 포위 끝에 앗시리아에 의해 주전 722 년에 멸망했다. 이들 지파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결코 돌아오지 못했고 그들이 사로잡혀 간 곳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즉, 메데)에게 흡수되었다.

7:17 “여호와께서 . . . 임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역사적 위기는 야웨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개역개정 7:18-19

¹⁸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앗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¹⁹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7:18 “그 날에는” “그 날”은 주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이다(참조, 18,20,21,23 절). 이것은 가까운 미래(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멸망, 참조, 16 절)를 가리킬 수도 있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즉, 메시아 시대, 참으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분의 시대)를 가리킬 수 있다.

▣ “부르시리니” 5:26 절의 설명을 보라.

▣ “이집트” 하나님의 백성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있는 제국과 나일강에 있는 제국의 세력다툼을 인해 여전히 영향을 받았다. 이집트는 호세아 7:11; 8:13; 9:3,6; 11:5,11; 12:1 에서 언급된다.

7:19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이것은 침략해 온 큰 군대가 약속의 땅의 가장 먼 쪽까지도 차지한 것을 가리키는 일련의 은유적 표현이다.

개역개정 7:20

²⁰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앗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 털과 발 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7:20 “그 날에는 주께서 . . . 삭도로 . . . 깎으시리라” 이것은 아하스가 공물을 보내 앗시리아가 자신을 돕도록 꾀한 일을 가리킨다, 왕하 16:7-9. 머리 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부끄러움과 슬퍼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참조, 삼하 10:4-5; 대상 19:4; 렘 48:37).

“발 털”이라는 표현은 짧은 이의 음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참조, 6:2; 삿 3:24; 삼상 24:3) 수치를 뜻하였다.

히브리어에서 “발”(BDB 919)은 여러 곳에서 다음의 내용을 뜻한다

1. 남자의 성기, 출 4:25; 삿 3:24; 룻 3:4,7; 삼상 24:3
2. 여자의 성기, 신 28:57; 겔 16:25
3. 천사적인 피조물, 스랍, 사 6:2; 그룹, 겔 1:23

이사야서 36:12 에서 오줌을 “발의 물”(NIDOTTE 제 3 권 1048 쪽)로 부른다.

개역개정 7:21-22

²¹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²²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영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영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7:21 15 절의 경우처럼 이것이 번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궁핍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개역개정 7:23-25

²³ 그 날에는 천 그루에 은 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찢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²⁴ 은 땅에 찢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²⁵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찢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7:24-25 이것은 약속의 땅에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많은 수의 야생동물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을 가리킨다(둘 다 신명기 28 장에 있는 언약에 따른 저주와 관련이 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유대 민족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메시야가 되실 것을 기대했는가?
2. 이사야 7:14 은 아하스 시대에 동정녀 탄생이 일어 날 것으로 예고하는가?
3. 이 곳에 나오는 아이들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사야 8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다마스쿠스와 사마리아의 멸망	앗시리아가 그 땅을 침략할 것임	마헬살랄하스바스의 징조	백성을 위해 상징이 된 이사야의 아들	이사야의 한 아들의 출생
8:1-4	8:1-4	8:1-4	8:1-2 8:3	8:1-2 8:3-4
8:5-8 (5b-8)	8:5-8 (6-8)	8:5-8	8:5-8a 8:8b	8:5-10
믿는 남은 자				
8:9-10 (9-10)	8:9-10 (9-10)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8:9-10 (9-10) 간증과 가르침	8:9-10 주께서 선지자에게 경고를 주심	(9-10) 이사야의 사명
8:11-15 (12-15)	8:11-15 (12-15)	8:11-15	8:11-15 죽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한 경고	8:11-20 (11-20)
8:16-18	8:16-18 (16-18)	8:16-22	8:16-17 8:18	
8:19-22	8:19-22		8:19 8:20 어려움의 때 8:21-9:1a	어두움에서 방황함 8:21-23a (21-23a) 구해냄 8:23b-9: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시적 표현으로 된 예언의 개요를 제시함에 있어 연에 따른 구분으로 하는 것의 어려움을 나타내 보인다. 연이 어떠한 구조를 갖는 가는 불확실하다. 그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조차도 불확실하다!
- 나. 이와 같은 장에서는 각 연의 주요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다음에는 어떤 반복적인 “핵심” 단어나 개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세세한 내용이 어떤 교리적 혹은 조직신학적 진리를 말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히브리 시는 애매함을 갖기로 유명하다. 부록 1 을 보라.
- 다. 애매성은 히브리 시와 예언의 특징이다. 세세한 내용에 대한 석의는 문학성(언어유희, 평행법)을 죽이고, 또 세세한 것을 추구하느라 종종 전체의 의미를 놓치게 한다. 연의 구분은 원래 있었다. 연의 구분은 듣는 것을 돕기 위한 고안이었다! 각 연은 즉각적인 감성적 효과를 주기 위함이었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기도와 점진적 계시를 통하여 그 진리가 명확해 진다!
- 라. 6-8 장에는 많은 수의 **단수 대명사**가 있다. 야웨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집합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8:1

¹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²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³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⁴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8:1-4 이사야의 둘째 아들(참조, 3 절)의 출생은 유다를 공격해 온(즉,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주된 적인 시리아(다메섹이 수도임)의 멸망에 대한 것이다. 다메섹은 주전 732 년 앗시리아에 의해 함락되었고 그 땅의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어떤 의미에서 이사야의 둘째 아들은 7:14-16 에 나오는 약속의 아들과 평행을 이룬다.

8:1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 쓰라” 야웨께서 이사야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신다.

1. “가지고,” BDB 542, KB 534, 칼 명령
2. “쓰라,” BDB 507, KB 503, 칼 명령, 이를 위해 종종 새기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참조, 출 32:4,16

야웨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일을 그 당시의 사람들과 후세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란”(BDB 152) 판이나 진흙 혹은 도장 위에 기록해야 했다(참조, 30:8). 히브리 단어(BDB 163)는 이 판이 어떤 종류의 재료인지 나타내지 않고 있다(3:23 에서 이 단어가 목에 건 원통형 도장을 가리킴을 주목하라, 참조, JB 의 1155 쪽에 있는 각주와 IVP 성경배경주석 594 쪽). 본문에서는 기록한 내용이 긴 문장이었는지 혹은 큰 글자로 기록한 짧은 문구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	
NASB	“보통 글자로”
NKJV, 70 인역	“남자의 펜으로”
NRSV, REB,	
JPSOA	“일반적 형태로”
TEV	“큰 글자로”
NJB	“보통 펜촉으로”
페쉬타	“그 위에 분명하게”

이 경우는 “남자”(BDB 60)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여 물질을 나타내는 유일한 경우에 속하기에 매우 애매한 표현이다. 야웨는 자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자신의 백성이 그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	
NASB	“재빨리 노획하고 약탈을 신속하게”
NKJV, NRSV	“마헬살랄하스바스”
TEV	“빠른 약탈, 신속한 탈취”
페쉬타	“사로잡아 감을 신속히하고 또 탈취물을 기록하며”
JB 각주	“빠른 약탈-신속한 노획”
NEB 각주	“약탈에 빠르고 탈취에 신속함”

“마헬살랄하스바스”는 이사야의 둘 째 아들의 이름이다(참조, 3 절). 여기에 있는 두 동사가 5:19 에서 풍자적인 문장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유다의 거만함에 대한 야웨의 반응일 것이다. 이 이름(이사야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과 마찬가지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것은 아하스의 불신앙을 인하여 앗시리아가 침략해 올 것을 가리킬 것이다. 이 침략(아하스가 요청하여 일어난)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물론 유다도 휩쓸었다.

합 1:6-8 에서는 똑 같은 두 동사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8:2	
NASB	“나는 나 자신에게로 취할 것이다”
NKJV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취할 것이다”
NRSV	“이것이 나에게 대해 증거한다”
NJB	“취하다”
70 인역	“나에게 ~하다”
페쉬타	“내가 나에게로 취했다”
JB	“나를 발견하다”
REB	“나는 이것이 나를 위해 증거하게 했다”
JPSOA	“부르다”

맛소라 본문에서 이 동사는 “증거하다”(BDB 729, KB 795, *히필 청유형*)이다. 사해사본, 70 인역, 페쉬타는 동사를 명령형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을 NRSV 와 REB 가 따르고 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입증할 두 진실된 증인(참조, 신 4:26; 30:19; 31:28)을 찾고 계시다(즉, 하늘과 땅, 1:2 의 설명을 보라).

먼저 이름이 언급된 증인은 “제사장 우리아”로서 왕하 16:10-16 에서 언급되고 있다(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증인(예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 대하여는 왕하 26 장에서 그가 웃시야 시대에 살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이사야가 자신의 둘 째 아들의 이름을 말할 때에 두 증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긴 사람은 바로 이사야 자신이었다고 NIDOTTE 제 3 권 336 쪽은 설명한다.

8:3

NASB “내가 가까이 갔다”

NKJV, NRSV,

70 인역 “내가 다가 갔다”

NJB “내가 관계를 가졌다”

REB “내가 더불어 누웠다”

이 동사(BDB 897, KB 1132, *칼 미완료형*)는 성적 접촉을 나타낸다(참조, 창 20:4; 레 18:6,14,19; 신 22:14; 겔 18:6).

7:14 에서 “누가” 임신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주요한 설명이 있다.

1. 이 특별한 아기는 아마도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이상적인 다윗 계보의 왕으로서 나타낸다.
2. 이사야는 아하스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아기는 다윗 계보의 왕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7:14 에 대한 8:3 의 근접성은 이사야의 둘 째 아들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난 성취를 뜻했을 것이다.

8:3 “아내를” 이것은 이사야의 아내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녀는 (1) 선지자(BDB 612, *여성형 단수*) 혹은 (2) 선지자와 결혼한 사람이었다.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여자

I. 구약

가. 문화적으로 여자는 재산으로 여겨졌다

1. 재산 목록에 포함됨(출 20:17)
2. 노예 여자에 대한 대우(출 21:7-11)
3. 여자가 한 맹세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남성에 의해 취소될 수 있었다(민 30 장)
4. 전쟁의 전리품인 여자(신 20:10-14; 21:10-14)

나. 실제로 남녀 간에 친밀함이 있었다

1.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음(창 1:26-27)
2. 부모를 공경함(출 20:12[신 5:16])
3. 부모에 대한 존경(레 19:3; 20:9)
4. 남자와 여자가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었다(민 6:1-2)
5. 딸들도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민 27:1-11)
6. 언약백성의 한 구성원이 됨(신 29:10-12)
7. 부모의 가르침을 지킴(잠 1:8; 6:20)
8. 헤만(레위 족)의 아들 딸이 성전에서 음악을 지도함(대상 25:5-6)

9. 새 시대에 아들 딸이 예언할 것임(을 2:28-29)
- 다. 여자가 지도력을 가짐
1.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불림(출 15:20-21)
 2. 회막을 건설하는 일을 위해 여자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음(출 35:25-26)
 3. 여선지자(참조, 삿 4:4) 드보라도 모든 지파를 이끌음(삿 4:4-5; 5:7)
 4. 요시아 왕이 불러 와 새로 발견한 “율법 책”을 읽고 해석하게 한 홀다가 여선지자였다(왕하 22:14; 대하 34:22-27)
 5. 경건한 여인 룻은 다윗의 조상이었다
 6. 경건한 여인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했다

II. 신약

가. 유대교와 헬라-로마 세계의 문화에서 여자들은 인권과 특권을 거의 가지지 않은 이등국민으로 여겨졌다.

나. 여성 지도자

1. 경건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눅 1-2 장)
2. 경건한 여인으로서 성전에서 섬긴 안나(눅 2:36)
3. 신자요 가정 교회의 지도자였던 루디아(행 16:14,40)
4. 여선지자였던 빌립의 네 딸(행 21:8-9)
5.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비비(롬 16:1)
6.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가(브리스길라) (행 18:26; 롬 16:3)
7. 바울의 여성 동역자인 마리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의 자매(롬 16:6-16)
8. 유니아(KJV)는 아마도 여사도였다(롬 16:7)
9. 유오디아와 순두게(빌 4:2-3)

III. 다양한 성경의 예를 오늘날의 신자가 어떻게 균형있게 취할 것인가?

가. 원래의 문맥에서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진리로부터 어떻게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영원히 유효한 진리를 구별해 낼 수 있는가?

1. 우리는 영감받은 원저자의 의도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우리는 명백히 역사적 환경 가운데 영감을 받은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ㄱ. 이스라엘의 예배(즉, 예식과 의식)
 - ㄴ. 제 1 세기의 유대교
 - ㄷ.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조건적인 바울의 진술
 - (1) 이교도인 로마의 법적 제도
 - (2) 노예로 남아 있는 것(7:20-24)
 - (3) 독신(7:1-35)
 - (4) 처녀(7:36-38)
 - (5) 우상에게 바친 음식(8 장; 10:23-33)
 - (6) 주의 만찬에 있어서 부적합한 행동(11 장)
3. 하나님은 자신을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시대에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우리는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역사적 환경에 맞추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다.

나.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적절한 해석의 기초요 중요한 면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을 우리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야만 한다. 이제 여기에 여자 지도자의 문제가 제기된다(해석에 있어서 실제 문제는 그 용어의 정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목사외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여집사와 여선지자는 지도자로 여겨졌는가?) 고전 14:34-35 과 딤펴전 2:9-15 에서 여자는 공공 예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할 것인가? 나는 바울 당시의 문화나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잠잠케 하기를 원한다고 보지 않는다. 바울 당시에는 그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너무 풀어져 있다. 바울의 말과 가르침은 제 1 세기의 지역교회 상황에만 들어맞는 제한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상당히 불편하다. 내가 누구라고 내 생각이나 내가 속한 문화로 하여금 영감받은 저자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한단 말인가!

한편 성경에 여성 지도자들의 실례가 나오는데(바울서신에서 조차, 참조, 로마서 16 장)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바울이 공공예배에 대해 고전 11-14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바울이 11:5 에서는 여자가 공공예배에서 머리를 가리고 설교나 기도를 하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4:34-35 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집사들(참조, 롬 16:1)과 여선지자들(참조, 행 21:9)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나로 하여금 바울의 언급(여자에게 제한을 주는)을 1 세기의 고린도와 에베소에 국한시키게 한다. 두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새롭게 얻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참조, 브루스 윈터, *바울이 떠난 후의 고린도*). 즉 그 교회들이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였다.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여야 했다.

오늘날은 바울 시대의 상황과 정반대이다. 오늘날 잘 훈련되고 준비된 여성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복음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 공적 예배의 궁극적 목적인가? 바로 복음전도와 제자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여성 지도자들을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사역을 인해 기뻐하시는가? 성경 전체는 이것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다!

나는 바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며, 내가 가진 신학도 바울신학이 주된 내용이다. 나는 현대의 여성운동자들로부터 과도하게 영향을 받거나 그들에 의해 조종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편 교회는 노예제도, 인종차별, 편협주의, 성차별 등의 부적절한 관습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따름에 있어 느렸다고 나는 느낀다. 교회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히 행동함에 있어서도 느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여성을 자유롭게 하셨다. 문화적으로 묶여져 있는 본문이 그들에게 다시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고 나는 담대히 주장한다

한 마디 더: 해석자인 나는 고린도 교회가 매우 어지러운 교회였음을 안다. 은사를 갖고 자랑하고 과시했다. 여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었을 것이다. 나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 거짓교사들은 여자들을 이용하여 에베소의 가정교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대리하여 말하게 했다.

다. 추가적인 독서를 위한 제안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61-77 쪽)

고든 피의 *복음과 성령: 신약 해석학의 질문*

왈터 C. 카이저, 피터 H. 데이빗, F. F. 브루스, 맨프렛 T. 브랜치의 *성경의 난해구절*(613-616; 665-667 쪽)

8:4 이것은 7:15-16(또한 4 절)의 시간적 배경과 메시지와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은 앓시리아가 공격해 온 바로 그 사건을 묘사한다(참조, 10:5-7).

개역개정 8:5-8
⁵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⁶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⁷그러므로 주 내가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앓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⁸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8:5-6 이 연에서는 야웨께서 앓시리아를 사용하여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되지만, 그 일이 유다(즉, 남아 있는 예루살렘, 참조, 8b 절)에 미칠 무서운 결과를 추가하여 말한다.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지만 간신히 살아 남을 것이다.

8:6 “이 백성이” 이것은 누구에게 대한 것인가?

1. 이스라엘
2. 유다

답은 6b 절에 있다. 유다는 르신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스라엘(“르말리야의 아들”)이 그와 더불어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참조, 7:4-5,8,9). 따라서 7 절은 다메섹(참조 7:20)의 멸망만 아니라 사마리아(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그 동맹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다에 있는 무리도 포함할 것이다.

모트여는 틴델 구약주석 시리즈(81 쪽)에서 “이 백성”은 다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1. 유다, 28:14
2. 외세, 23:13
3. 이스라엘, 9:16(또한 여기)

▣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것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작은 물길로서 기혼 샘에서 나오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 들인다(참조, 왕하 20:20; 대하 32:30). 이것은 (1) 무시된 야웨의 행하심과 말씀(참조, 5:24; 30:12) 또는 (2) 성이 포위되어 있는 기간에 야웨께서 다윗의 집인 예루살렘의 필요를 공급하심에 대한 상징이다.

▣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시리아는 다윗의 왕위를 전복시키려는 음모에 관여했다(참조, 7:6). 이스라엘은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신뢰했다.

▣ “기뻐하다” 이 용어(BDB 965)는 “기뻐하다” 혹은 “즐거워하다”를 뜻하는데 이 문맥에 들어맞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보다는 시적 표현에 적합하기에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6 절의 “버리다”와 “기뻐하다”라는 동사는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 이 예언을 큰 소리로 읽었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키는 가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제기되었다

1. 다메섹의 즐거움
2. 아하스의 친 앓시리아 동맹에 반대하는 유대인들
3.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 “눅다”(본문의 수정)
4. 앓시리아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침략함을 인한 유다의 즐거움

문맥에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불확실하다.

8:7 “뒤덮을 것이라” 야웨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참조, 5:26; 7:7,18; 10:5; 13:2-3).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다. 역사에는 최종적인 때가 있다. 역사는 인간의 죄의 결과 및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움직인다!

▣ “큰 하수”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두 큰 강의 하나를 가리킨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비옥한 초생달로 불리는 지역 곧 페르시아 만에서부터 레바논에 있는 지중해 해안까지 이르는 기름진 지역을 이루었다. 메소포타미아 제국(즉, 앗시리아와 바벨론)과 가나안 사이에 사막이 위치했다.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따라 온 군대는 레바논과 가나안의 해안가로 이동할 수 있었다. 성경의 표현에서 “북쪽”을 악의 방향으로 보는 이유를 이러한 지형학적 통로가 제공하였다.

8:8 이 절은 앗시리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결과를 나타낸다. 유다는 간신히 국가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야웨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다.

▣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NASB, NRSV, NJB, REB 는 이 일을 앗시리아에 의해 일어날 파괴와 연결시킨다(“날개”는 “끝”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로서 사용되었다, 참조 NIDOTTE 제 2 권 670 쪽, 따라서 모든 땅이 침략을 받을 것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TEV 와 JPSEA 는 은유의 변화(즉, 앗시리아의 침공을 가리키는 홍수에서)를 통해 새가 날개를 펴는 것(BDB 642 와 BDB 489 를 조합하여, 참조, 8:8; 시 17:8; 36:7; 57:1; 61:1,4; 63:7; 91:1,4)을 7:14 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아이와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9-10 절을 참고하라!

▣ “임마누엘이여” 이 호칭은 여기서 당시의 다윗 계보에 따른 왕(즉, 아하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7:14 에 나오는 아기가 히스기야임을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당시에 자연스런 과정으로 잉태된 남아를 가리키고 있다(즉, 7:15-16).

개역개정 8:9-10

⁹너희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이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¹⁰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8:9-10 NASB 의 1970 년 판은 9-15 절을 하나의 연으로 다루는데 NASB 의 1995 년 판은 9-10 절을 하나의 구별된 연으로 본다(나도 나중 것이 맞다고 본다. 참조, NKJV, NRSV, 페쉬타). 야웨께서 침략하는 용병에게 말씀하신다.

1. 함성을 질러라, 9 절, BDB 949, KB 1270, *칼 명령*
2. 패망하라, 9 절, BDB 369, KB 365, *칼 명령*, 참조, 7:8; 30:31; 삼상 2:10; 렘 48:1,2; 49:37; 50:2; 51:56
3. 들으라, 9 절, BDB 24, KB 27, *히필 명령*
- 4-5. 허리를 동이라(2 회), 9 절, BDB 25, KB 28, *히트파엘 명령*
6. 패망하라, 2 항과 같음
7. 함께 계획하라, 10 절, BDB 734, KB 801, *칼 명령*

8. 말을 해 보아라, 10 절, BDB 180, KB 210, **피엘 명령**

침략자의 각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계획이 제시된다. 그들의 모든 악함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을 인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불러 오셨으나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구해내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기억하라.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8:10 “**말을 해 보아라**” 이 용어(BDB 734)는 인간의 계획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종종 이러한 계획은 야웨의 계획과 다르고 심지어 반대되기까지 한다(참조, 14:24-27; 잠 19:21).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참조, 46:10; 55:8-11; 시 33:11). 하나님은 모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40:13).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영원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구속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1:3의 특별주제를 보라).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것은 7:14; 8:8에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다. 이 문맥에서 이 호칭은 아하스를 가리킨다(다윗 계보의 왕).

개역개정 8:11-15

¹¹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¹²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¹³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¹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들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¹⁵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덧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8:11-15 이 연은 다음과 관련된 메시지일 것이다

1. 자신의 범죄한 백성에 대한 야웨의 심판
2. 야웨의 선지자가 자신의 동시대 사람이나 사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 연은 7:9에 있는 아하스에 대한 말씀을 반영하는데 이제는 전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믿고 소망을 가져야 했던 심판의 메시지이다!

8:11

NASB “강한 힘으로”

NKJV, 70 인역 “강한 손으로”

“손”(BDB 388)은 종종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뜻하는 신인동형적 의미(6:1의 특별주제를 보라)를 갖는다.

1. 계시에 대한 특별한 은유, 사 8:11; 램 15:17; 겔 1:3; 3:14,22; 8:1; 33:22; 37:1; 40:1
2. 이집트에서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은유, 출 3:20; 6:1; 13:3; 14:31
3. 맹세 혹은 심판에 대한 은유
 - ㄱ.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심, 19:16; 숙 2:9

- ㄴ.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심, 26:11; 49:22; 신 32:40; 겔 20:5
 - ㄷ. 하나님께서 손을 펴심, 14:26-27; 출 7:5; 렘 6:12
4. 창조에 대한 은유, 19:25; 45:11-12; 48:13; 60:21; 64:8

▣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11 절은 이사야에게 주신 것이지만 12 절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건다”는 삶의 양식에 대한 은유이다(즉, 시 1:6). 하나님의 백성(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에 따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들은 열방에게 쓸모없는 증인이 되어버렸다(참조, 겔 36:22-38).

새 날 곧 특별한 아이의 날에 새 방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참조, 57:14; 62:10). 이것은 침례(세례)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인식한 개념이었다(즉, 그 길을 예비하라, 참조, 사 40:3; 마 3:3; 막 1:3; 눅 3:4-6).

8:12 이것은 7:2 을 가리킨다. 그들은 시리아-에브라임 동맹에 대해 듣고 두려움에 빠졌다!
 이것은 또한 아하스의 친앗시리아 정책에 대해 이사야가 반대한 일을 가리킬 수도 있다.
 선지자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혹은 심지어 매국노로도 여겨졌을 것이다!

8:13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분은 기록하신 만군의 주이셨다. 참으로 하나님은 강력한 군대의 대장이시다(참조, 41:10,13,14; 43:1,5; 44:2; 54:4). 참으로 하나님은 사건들을 주관하시고 계신다(참조, 7:7,18,20).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1. 그를 너희가 두려워 할 자로 삼으라(BDB 432, 또는 “그가 ~한 분이 되게 하라”)
2. 그를 너희가 무서워 할 자로 삼으라(BDB 791, 또는 “그가 ~한 분이 되게 하라”)

이 구의 내용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적합한 두려움(참조, 시 76:12; 말 2:5)과 부적합한 두려움(참조, 눅 12:4; 요 12:43)이 있다! 야웨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며(참조, 잠 1:7) 진실함이다; 인간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야웨의 임재와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여이다!

8:14-15 야웨 자신의 언약 백성이 야웨를 거부함에 따른 야웨의 반응을 심판의 두 은유를 사용하여 야웨께서 나타내시고 있다.

1. 돌로 지어진 성소(참조, 겔 11:16) (야웨는 성소이시다, 참조, 겔 11:16)
2. 동물을 잡는 함정과 울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스라엘의 두 집”은 성소의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BDB 505, KB 502, **칼 완료형**)). 이 은유는 후에 거부받은 모퉁이돌(메시아)의 개념으로 발전된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많은 사람이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BDB 656, KB 709, **칼 완료형**) 함정에 빠지거나 밧에 걸려 잡히고(참조, 28:13) 망하게 될 것이다(참조, 24:18)! 그러나 어떤 자들(즉, 충성된 남은 자)은 그를 신뢰할 것이다(참조, 16-18 절).

특별주제: 모퉁이 돌

I. 구약의 용법

- 가.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어 좋은 기초를 이루는 물질인 돌이라는 개념은 야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시 18:1).
- 나.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로서 발전되었다(참조, 창 49:24; 시 118:22; 사 28:16).
- 다. 이것은 메시아에 의한 야웨의 심판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8:14; 단 2:34-35; 44-45).
- 라.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은유로 발전했다.

1. 처음 놓이는 기초석으로서 안전하며 또한 그 위에 놓이는 건물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모퉁이 돌”로 불렸다
2. 이것은 또한 벽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얹은 돌을 가리킬 수도 있다(참조, 슥 4:7; 앵 2:20, 21). 이것은 히브리어 로쉬(즉, 머리)에서 온 “머릿돌”로 불린다
3. 이것은 “열쇠 돌”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치형 문의 중앙에 위치하며 벽 전체의 무게를 견딘다

II. 신약의 용법

- 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내용을 시 118 편에서 여러 번 인용하여 말씀했다(참조, 마 21:41-46; 막 12:10-11; 눅 20:17)
- 나. 바울은 시 118 편을 야웨께서 믿음이 없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거부하시는 것과 연결시킨다(참조, 롬 9:33)
- 다. 바울은 “머릿돌”의 개념을 앵 2:20-22 에서 그리스도께 대해 사용한다
- 라. 베드로는 이 개념을 벵전 2:1-10 에서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예수는 모퉁이 돌이시고 신자들은 살아있는 돌들이다(즉, 신자들은 성전(참조, 고전 6:19)으로서 그 위에 지어졌다(예수는 새 성전이다, 참조, 막 14:58; 마 12:6; 요 2:19-20).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은 자기들이 가진 소망의 바로 그 기초가 되신 이를 거부하는 일이 된다.

III. 신학적 진술

- 가. 야웨는 다윗/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다.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킨다면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참조, 왕상 9:1-9)!
- 나. 랍비들의 유대교는 형식과 의식을 강조했지만 믿음의 개인적 측면은 소홀히 했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과 매일 인격적이고 경건한 교제를 하기 바라신다(참조, 창 1:26-27). 마 5:20 이 유대교에 향한 내용을 나타내듯이 눅 20:17-18 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다.
- 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기 위해 성전의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개인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야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쇠이다(즉, 요 14:6; 요일 5:10-12).
- 라.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존재에 회복되어(창 1:26-27 과 3 장)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됨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목적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즉, 새 성전)를 따라 지어지고 형성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한다.
- 마. 예수는 우리 믿음의 기초시며 우리 믿음의 머릿돌(즉,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럼에도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 그를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개역개정 8:16-18

¹⁶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¹⁷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¹⁸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8:16-18 이 연은 이 장의 앞 부분과 관련이 있다(참조, 1-2 절). 이 예언의 말씀은 야웨의 신실한 제자들(모든 세대의)을 위한 것이다. 신실한 제자들(BDB 541)이 항상 있었고 또 항상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다,” “훈련하다,” “배우다”로 번역되는 이 용어(참조, 8:16; 50:4[2 회]; 54:13)의 함축적 의미(즉, 제자)를 이사야가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19-22 절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은 (1) 믿음이 없는 유다 사람들(즉, 남왕국) 혹은 (2)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즉, 북왕국)을 가리킬 것이다.

8:16 이사야는 다음의 일을 해야 했다

1. 싸매다, BDB 864, KB 1058, 칼 명령
2. 봉함하다, BDB 367, KB 364, 칼 명령(즉, 길을 왁스로 봉하는 것)

이러한 은유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8:17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간에 있을 충성된 남은 자를 대신하여 말한다. 그들은 “기다릴 것”(BDB 314, KB 313, *피엘 완료형*)이다. 이 단어는 “소망하다,” “인내하며 기다리다,” 또는 “사모하다”를 뜻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8:17; 25:9; 26:8; 33:2; 40:31; 51:5; 60:9; 64:4; 습 3:8). 믿음은 시험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이것은 깨진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이다(참조, 신 31:17-18).

▣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동사(BDB 875, KB 1082, *피엘 완료형*)는 간절한 기다림을 뜻한다

1. 5:2,7 에서 야웨께 대해 사용함
2. 25:9; 33:2; 60:9 에서 하나님의 제자에 대해 사용함

이것은 다른 이와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갖는 면을 강조한다.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뜻하고 있는 바이다.

8:18 문맥에서 이 사람은 주전 8 세기 살았던 이사야를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참조, 히 2:13).

▣ “시온 산에 계신” 야웨는 사실상 하늘에 계시고, 언약궤는 그의 발등상이다(즉, 참조, 대상 28:2; 시 99:5; 132:7,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개역개정 8:19-22

¹⁹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²⁰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²¹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²²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8:19-22 이 산문으로 된 이 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거짓 믿음과 야웨를 신뢰하고 그분께 구하는 참된 믿음의 대조를 보여준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 대한 금지는 신 18:9-11과 레 20:26,31 에 나온다.

8:19 “구하다” 이 동사(BDB 205, KB 233)는 이 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다.

1. 거짓 신(예배)들을 찾다, 자문을 구하다, 문의하다, **칼 명령**
2. 야웨를 찾다, 자문을 구하다, 문의하다, **칼 미완료형**

11:10 에서 같은 동사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나라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즉,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8:11 에서 보듯이 야웨의 손이 이사야에게 있었음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상상이나 악령의 영향을 받아 말했다. 참된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 사이에 있는 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럼에도 타락한 인간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몰려 든다!

▣ 하나님의 백성이 주위 나라들의 이교적 풍습에 동화되어 행한 일의 목록을 주의하여 보라.

1. 신접한 자, 이 **분사**(BDB 981, KB 1371)의 기본적 의미는 “구하다” 혹은 “문의하다”이다. 여기서는 영적 영역에 대하여 문의함을 뜻한다(예, 야웨, 수 9:14 또는 우상들, 호 4:12)

처음 나오는 명사인 “신접한 자”(BDB 15)는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레 19:31; 20:6,27 에 나타난 것으로서 (1) 영들이 피어들어 있는 구덩이나 무덤 혹은 (2) 조상숭배를 뜻하는 “아버지”에서 유래한 형태로 이해한다. 70 인역 사 8:19 에서 이것은 “복화술사”로 번역되었다. 이 절과 사 29:4 의 용법을 인해 어떤 이들은 이 단어가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 혹은 “속사이다”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다른 목소리로 말하다”를 뜻할 것이다. 한편 삼상 28:7-9 에서 이것은 지하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 내거나 그와 말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죽은 사람이나 지하 세계의 영들과 의사소통하는 강령술과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나오는 명사인 “영매”(BDB 396)는 히브리어에서 “알다”(BDB 395)와 관련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영역의 사람과 접촉하는 자를 가리킨다 (참조, 사 8:19; 19:3).

2. 마술사, 이 단어(BDB 396)는 두루 알려진 영들을 가지고 죽은 자와 대화하는 남자를 뜻한다(참조, 19:3; 레 19:31; 20:6,17; 신 18:11; 삼상 28:3,9; 왕상 21:6; 23:24)
 - ㄱ. 그들은 속삭이는 사람들이었다, BDB 861, KB 1050, **펼펼 분사**, 참조 29:4
 - ㄴ. 그들은 중얼거리는 사람들이었다, BDB 211, KB 237, **히펼 분사**

8:20 “율법과 증거의 말씀” NRSV 와 REB 는 이 구를 19 절에서 시작하는 문장의 끝부분으로 다룬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와 생명을 위해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즉, 19:3; 31:1)과 그의 말씀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수가 없다(“어두움,” 참조, 47:12-13).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와 자신의 말씀과 기록된 자신의 일을 주신다(참조, 8:1,2,16).

8:21 “그들” 문자적으로 21 절과 22 절에 있는 모든 동사는 **단수형**이다. 이 단어는 언약백성을 일컫는다. 그들은 거짓 종교의 지식을 구하면서 그들의 신들이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을 인해 놀랐다. 번영은 신명기 27-28 에 있는 언약적 약속의 하나이지만 이것은 언약적 충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마지막(즉, 농업을 통한 심판, 참조, 22 절; 5:13-17)에 그들은 정치적 지도자들과 자신들의 거짓 신들을 욕할 것이다(참조, 70 인역을 따르는 NRSV 와 REB).

욕을 한다는 것은 출 22:28 과 레 24:15-16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언약 위반의 또 다른 예가 된다. 나는 19-20 절의 문맥이 거짓 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한다.

8:22 이 절은 9 장과 연결된다. 문맥에 암울함/어두움 대 빛의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5:30 에 있는 병행구절을 참조하라. 이것은 야웨께서 처음 행하신 창조 목적에 반대된다(참조, 램 4:23-26,27-28).

이사야 9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평화의 왕자의 출생과 통치	약속된 아들의 통치	전환절	어려움의 때 (8:21-9:1)	구원 (8:23b-10:4)
9:1-7	9:1-7 (1-2)	9:1	9:1a	9:1-2 (1-2)
(2-7)	(3-5)	메시아인 왕 9:2-7 (2-7)	미래의 왕 9:1b-7 (2-7)	9:3 (3) 9:4 (4) 9:5-6 (5-6)
	(6-7)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임	복왕국에 대한 명령 (9:7-10:4)
이스라엘의 거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유다를 위한 객관적 교훈 (9:8-10:4)		9:7-11 (7-11)
9:8-12 (8-12)	9:8-12 (8-12a) (12b)	9:8-12 (8-12)	9:8-10 9:11-12	9:12-16 (12-16)
9:13-17 (13-17)	9:13-17 (13-17)	9:13-17 (13-17)	9:13-17	9:17-20 (17-20)
9:18-21 (18-21)	9:18-21 (18-21a) (21b)	9:18-21 (18-21)	9:18-10: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9 장은 강한 대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8:19-22 과 단어유희로 연결된다(즉, 어두움, 흑암 대 빛).
- 나. 단어유희를 주목하라
1. 어두움(BDB 365), 5:20; 8:22; 9:2; 29:18; 42:7; 45:3,7,19; 47:5; 49:9; 58:10; 59:9; 60:2
 2. 흑암(BDB 734), 8:22; 9:1
 3. 심한 흑암(BDB 66), 8:22; 58:10; 59:9
 4. 그가 영화롭게 하신다(BDB 457, KB 455, *히읃 완료형*), 9:1
 5. “큰 빛”(BDB 21, 형용사, 152), 9:2(2 회)
 6. “깊은 어두움”(BDB 853), 9:2; 읍기에서 여러 번; 시 23:4; 44:19; 107:10,14; 램 2:6; 13:16; 암 5:8
 7. 빛이 그들에게 비칠 것임(BDB 618, KB 667, *칼 완료형*), 9:2
- 이것들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은유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참조, 요일 1:5,7; 2:8,9,10; 계 21:22-25)!
- 다. 이 장에서는 어떤 완료된 행동을 나타내는 **완료형 동사**가 여러 개 사용된다. 완료형은 과거의 행위나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도적인 애매성은 예언의 다중적 성취에 들어 맞는다. 이것은 현재의 위기이며 미래적인 위기이기도 하다; 현재의 예언적 초점과 미래에 대한 예언적 초점이 있다(즉, 7:14).
- 라. 예언적 글에서 연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은 흔하게 나타난다
1. 심판에서 희망으로
 2. 어두움에서 빛으로
- 하나님의 말씀에는 혜택과 책임이 따른다.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9:1-7

¹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도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²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³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⁴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멩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⁵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겂옷이 불에 쏘 같이 살라지리니
⁶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⁷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9:1 “**흑암이 없으리로다**” 맛소라 본문에서 8 장은 23 절로 되어 있는데, 70 인역은 23 절을 9 장의 1 절로 가져 왔다.

“흑암”(BDB 734)이라는 단어는 8:22 절(9:1)에서만 나온다. 이것은 이 문맥에 잘 들어 맞는다. 예언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마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의 장절 구분, 대문자 사용, 문단 구분을 따름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한다. 편집자(이사야 자신 혹은 그의 제자 가운데 한 명)가 이사야의 설교와 예언과 시를 선집으로 편집했다. 종종 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언어유희, 역사적 배경 혹은 종말론적 문맥 뿐이다.

“없다”라는 용어는 (1) 부정적 의미(만일 그렇다면, 이 절은 앞에 있는 문맥을 요약하는 것이 된다) 혹은 (2) 만일 “더 이상”이라는 말을 추가시키면(NASB)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주며 다음에 나오는 문맥의 시작을 이룬다.

▣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녀”라는 대명사는 “땅”(BDB 75, *에레츠*)을 가리킬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지파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1) 북쪽 지파들 혹은 (2) 모든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9:1,3 “**그 . . . 그 . . . 너희 . . . 너희**” NASB의 번역가들은 이 대명사들을 대문자로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8:19-22 와 9:1 이하의 내용에 상당한 대조가 나타난다. 티글랏블레셋 III 세(즉 불, 참조, 왕하 15:29)가 주전 732 년에 침략해 왔을 때 이 두 지파가 위치한 땅은 큰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아무도 이 지역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가져 온 성취를 설명한다(“그러나 후에 그가 이곳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참조, 4:12-17).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사이에 놓여 있는 사막을 인해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물자를 공급받고 또 해안 지역을 따라 공격해 내려 왔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북쪽에서 침략해 왔음을 뜻한다. 스블론과 납달리(단 지파의 성읍들과 함께)는 제일 먼저 공격받은 지역일 것이다.

▣ “**이방의 갈릴리를**”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방의 원”(BDB 165 II 과 BDB 156 이 함께 사용됨)이라는 뜻이다. 앗시리아는 많은 피정복민들을 이 지역에 재정착시켰다. 이방인으로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열방을 뜻하는 *고이*(BDB 156, 참조, 9:3)이다. 때때로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창 12:2; 18:18; 출 19:6; 사 1:4).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 (1)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 혹은 (2) 이방인으로써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사역의 세계적 성격을 나타낸다. 후자의 설명은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이사야의 강조점에 잘 들어 맞는 설명이다.

9:2 “큰 빛을 보고” 빛은 야웨의 임재하심에 대한 은유이다(참조, 신 33:2; 함 3:3; 계 21:22-24). 여기서 빛(BDB 21)은 복음에 대한 은유이다(참조, 사 42:6; 49:6; 51:4; 60:1,3). 아무도 메시아의 사역이 “정결치 않은” 유대인들을 위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한 지역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다! 아무도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이 최초로 시작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9: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것(동사, BDB 915, KB 1176, *히필 완료형*)은 야웨께서 이전에 주신 약속인 아브라함의 씨를 창대케 하실 것을 가리킬 것이다.

1. 하늘의 별(참조, 창 15:5; 26:4; 신 10:22; 28:62)
2. 바닷가의 모래(참조, 창 22:17; 32:12)
3. 땅의 먼지(참조, 창 13:16; 28:14; 민 23:10)

▣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히브리 맛소라 본문(기록된 본문)에는 “아니다”(BDB 518)가 있는데 NASB 는 이것을 “그들의”로 번역했다. 맛소라 본문의 편집자는 난외(읽는 것)에서 이것을 “그를”로 바꾸었다(그들은 다른 14 곳에서도 이같이 함). 70 인역도 “그를”로 하였다.

“즐거움”(BDB 970)이란 **명사**가 이 절(또한 17 절에서도)에서 두 번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기뻐하다”(BDB 162, KB 189, *칼 미완료형*)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다. “즐거워 함”(BDB 970, KB 1333, *칼 완료형*)이란 단어의 **동사형**이 이 절에 나타난다. 이사야가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들은 야웨의 임재를 인해 기뻐한다.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즉, 임마누엘). 그들의 즐거움이 두 가지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1. 추수
2. 전리품을 나눔

9:4-5 야웨께서 함께 계시기에(3 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신다(즉, 거룩한 전쟁).

1. 그들이 무겁게 멘 멩에를 꺾으신다(즉, 외세로부터 구해내심, 참조, 렘 28:2; 겔 34:27)
2. 그들의 어깨에 있는 채찍을 꺾으신다
3. 그들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채찍과 막대기는 외국 왕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상징임, 참조, 10:27)

“꺾다”라는 **동사**가 3 번 다 사용된다, BDB 369, KB 365, *히필 완료형*, 참조, 7:8; 8:9(3 회).

하나님께서 군세계 하신 자(즉, 기드온)가 미디안을 물리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인 바벨론이 앗시리아의 가나안에 대한 지배를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의 씨(즉, 오실 메시아)를 인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행하신다.

▣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10:26 과 사사기 6-8 장을 보라.

9:5 언약 백성의 적은 패배할 것이고 그들의 옷(즉, 신발과 겹옷)은 불을 때는 재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큰 승리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 여러 본문이 외국 군대의 군사 무기가 파괴될 일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전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지 그들의 무기를 인함이 아니다(참조, 시 46:9; 76:3; 호 2:18).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다시금 싸우시고 계시다. 4 절은 뚜렷한 실례를 보인다!

9:6-7 NKJV 는 이 두 절을 하나의 분리된 문단으로 취급한다.

6 절은 특별한 아기인 임마누엘에 대해 설명한다.

1.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멘 특별한 아기 곧 다윗의 의로운 씨에 대한 소망이 되시는 분(참조, 삼하 7 장)이 돌아 오신다
2. 그분의 이름은(그의 하나님의 성품)
 - ㄱ. 모사, 이 이름은 신적 계획을 나타낸다, 참조, 14:26,27; 19:17
 - ㄴ. 전능하신 하나님
 - ㄷ. 영존하시는 아버지
 - ㄹ. 평강의 왕, 미 5:5

처음 이름은 두 개의 구별된 이름일 수 있으며, 그 다음의 세 이름은 두 단어로 구성된 이름이다. 오중으로 된 이름은 이집트에서 당시 사용하던 관습을 반영할 것이다. 그 곳에서 새로 세워진 바로는 대관식때에 5 가지 새 이름을 받았다.

이것은 4 가지 이름의 합성이다. 이것은 왕으로 즉위하는 때에 아기가 받게 되는 새 이름일 것이다. 7:14 과 8:8-10 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용어와 9:6 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윗 계보의 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 호칭들은 (1) 행정의 영역 (2) 군사적 힘 (3) 목자의 돌봄 (4) 다스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단 7:14 과 렘 32:18 에서 메시아의 신성이 함축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 유일신 사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강조점을 인하여, 야웨께서 육체를 가진 메시아로 성육신하실 것을 유대인들이 예상하지 못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격적 성품은 유일신 주의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였다(즉, 출 8:10; 9:14; 신 4:35,39; 사 40:18,25; 46:56). 오직 “점진적인 계시”만이 이 진리를 가르친다(참조, 요 1:1-14; 빌 2:6; 히 1:2-3). 만일 신약이 진실되다면 구약의 유일신 주의를 반영해야 한다(즉, 한 가지 신적 본질이 세 가지의 영원한 위격으로 나타나심). 구약의 과장법적 표현은 사실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지리적 이스라엘과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 예언의 문자적 성취는 “열방”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범위가 되었다.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창세기 3:15 은 실현되었고 요 3:16; 4:42; 딤후 2:4; 딤후 2:11; 벴후 3:9; 요일 2:1; 4:14 에서 요약적으로 제시된다).

7 절은 주님의 통치를 설명한다.

1. 영원하고 우주적인 통치(참조, 미 5:4)
2. 영원하고 우주적인 평화(참조, 미 5:5a)
3.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리심(참조, 16:5; 삼하 7 장)
4. 정의의 의를 영원히 세우심(이 두 명사는 종종 함께 사용된다, 참조, 32:16; 33:5; 59:14)
5. 야웨의 열심이 이것의 성취를 보증함

7 절은 영원한 통치를 말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이지만(참조, 단 2:44; 4:3,34; 6:26; 7:13-14,27; 겔 37:25; 미 4:7; 5:4; 벴후 1:11) 천년의 다스림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내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중요한 서언”과 요 20 장의 서론을 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보라).

열쇠는 용어이다. 이 약속은 성령의 새시대라는 개념의 핵심이다! 이것은 타락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상(즉,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이 새롭게 시작됨이다.

개역개정 9:8-12

⁸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⁹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¹⁰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¹¹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¹²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8-12 하나님은 북쪽의 지파들에게 명확한 내용을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것을 들었고 이해했지만(참조, 9 절 a)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1. 그들은 거만(BDB 144)과 교만((BDB 152)으로 단언했다
 - ㄱ.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더 좋게 다시 건축할 것이다, 10 절
 - 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심을 것이다, 10 절
2. 주께서 적들을 일으켜(BDB 960, KB 1305, **피엘 미완료형**) 그를 치게 하신다(BDB 1127, **필필 미완료형**, 이곳에서 또한 19:2 에서도)
 - ㄱ. 시리아
 - ㄴ. 블레셋
3. 그럼에도 야웨께서 여전히 흥분하여 계신다(참조, 12,17,21 절)
 - ㄱ.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 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9:8-9 “이스라엘 ... 에브라임 ... 사마리아” 이 세 가지 이름은 주전 922 년에 분열되어 10 지파로 이루어진 북 왕국을 일컫는다.

개역개정 9:13-17

¹³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¹⁴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¹⁵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¹⁶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¹⁷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13-17 야웨께서 계속하여 분노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이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즉, 회개하다, 문자적으로는 “돌다,” BDB 996, KB 1427, **칼 완료형**)

2. 그들이 만군의 주를 찾지 않는다(BDB 205, KB 233, **칼 완료형**)

따라서 그들은 완전히(머리[“장로”]와 꼬리[선지자]가 끊어 진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을 잘못가게 하여(BDB 1073, KB 1766, **히필 분사**) 혼동에 빠지게 했다(문자적으로는 “삼키다,” BDB 118, KB 134, **푸알 분사**). 예수께서는 마 15:14; 23:16,24 에서 이러한 종류의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너희의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NRSV, MT, “기뻐하다”)

1. 장정들(17 절)

2. 고아(17 절)

3. 과부(17 절)

보통은 야웨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셨지만(즉, 신 10:18), 여기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1. 경건하지 않으며(BDB 338)

2. 악을 행하고(BDB 949, KB 1269, **히필 분사**)

3. 망령되어 말하기 때문이다(BDB 615)

8-12 절은 12c,d 절과 17e,f 절에서 반복되는 표현(“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에 의해 통일된 단위를 이룬다. 또한 문맥이 10:4 까지 이어짐을 주목하라. 거기에서 이 표현이 다시 나온다. 장절의 구분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라. 그 구분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며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다!

9:16

NASB

“미혹하게 했다”

NKJV

“멸망받았다”

NRSV

“미혹받았다”

TEV

“그들을 완벽하게 미혹했다”

NJB

“삼켜졌다”

70 인역

“그들을 삼켰다”

페쉬타

“아래로 가라 앉았다”

REB

“삼켜졌다”

이 히브리어 어근(BDB 118, KB 134)은 기본적으로 “삼키다,” “삼켜버리다”를 뜻한다(참조, 25:7,8; 28:4; 49:19). 하지만 이것은 다른 어근에서 온 단어일 가능성도 있다

1. 알리다(KB 135 II, 참조, 잠 19:28)

2. 많은 양의 포도주로 혼동시키다(KB 135 III, 참조, 3:12; 19:3; 28:7) (NASB)

“미혹했다”가 평행법에 가장 잘 들어 맞는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 문맥, 문맥이 의미를 결정지음을 기억하라!

9:17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서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상징이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 내용이다.

개역개정 9:18-21

¹⁸대저 악행은 불 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찢레와 가시를 삼키며

뻑뻑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¹⁹ 만군의 여호와와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썩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²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주리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²¹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9:18-21 이 절들은 북쪽의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 심판이 땅을 삼키는 불로써 표현된다. 1:31의 특별주제: 불을 보라. 사람까지도 불의 멸감이 된다!

악한 백성들이 처할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2. 흠치지만 여전히 배고프다
3. 먹지만 배부르지 않다(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의 일부를 먹는다, 참조, 램 19:9; 탈곡은 이것을 “동료”로 번역하고 있고 따라서 JPSOA는 “자기 자신의 친족”으로 번역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서로가 서로를 치고 있다!

9:18 “악행은 불 타오르는 것 같으니” 불이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을 가지는 점은 흥미롭다.

1. 여기서, 부정적 의미로(악함)
2. 62:1, 긍정적 의미로(구원)

문맥, 문맥, 문맥이 의미를 결정짓는다. 성경에 사용된 단어를 고정된 의미로 사용함을 조심하라!

이사야 10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앗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9:8-10:4)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 유다에게 객관적 교훈이 됨 (9:8-10:4)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9:8-10:4)	북왕국에 있을 시련 (9:7-10:4)
10:1-4 (1-4)	10:1-4 (1-4)	10:1-4 (1-4)	10:1-4	10:1-4
	교만한 앗시리아도 심판을 받는다	화 있을진저, 앗시리아여!	하나님의 도구인 앗시리아 제국	앗시리아 왕에 대하여
10:5-11 (5-11)	10:5-11 (5-11)	10:5-11 (5-11)	10:5-6	10:5-11 (5-11)
10:12-14 (13-14)	10:12-14 (13-14)	10:12-14 (13-14)	10:7-11 10:12	10:12-14 (13-14)
10:15-19 (10-19)	10:15-19 (10-19)	10:15-19 (10-19)	10:15 10:16-19	10:15-19 (10-19)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옴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적은 수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의 적은 무리
10:20-23 (21-22)	10:20-23 (20-23)	10:20-23	10:20-23	10:20-23 (20-23)
10:24-27	10:24-27 (27)	10:24-27a 앗시리아가 공격해 옴 10:27b-32 (27b-32)	10:24-27 주께서 앗시리아를 벌하실 것이다 침략자들이 공격해 옴	10:24-27 (24b-27) 하나님을 신뢰함 침략
10:28-32 (28-32)	10:28-32 (28-32)	산림이신 주께서 앗시리아를 쳐서 꺾으실 것임	10:28-32 (28-32)	10:28-34 (28-324)
10:33-34 (33-34)	10:33-34 (33-34)	10:33-34 (33-34)	10:33-3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0:1-4

- ¹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 ²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 ³ 벌하시느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 ⁴ 포로 된 자 아래에 구푸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렇지라도 여호와와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1 “화 있을진저” 이 감탄사(BDB 222)는 이사야서(또한 예레미야서)에서 종종 사용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NASB 1995 년 판에서)

1. “또한,” 1:4; 17:12
2. “아,” 1:24
3. “화 있을진저,” 5:8,11,18,20,21,22; 10:1,5; 18:1; 28:1; 29:1,5; 30:1; 31:1; 33:1;
45:9,10; 55:1(즉 화를 선언하는 예언에서)
4. “호,” 55:1; 또한 10:5 도

이것은 고뇌와 고통 혹은 불려 모음(즉, 4 항의 내용)을 뜻한다. 또 다른 감탄사(BDB 17)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대개 “화 있을진저”로 번역되어 슬픔과 좌절을 나타낸다(참조, 3:9,11; 6:5; 24:16 과 예레미야서에서 8 회 사용됨).

■ 1 절의 a 행과 b 행의 평행법은 사회의 지도자들(즉,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과 재판관들(계속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기록하는 자, 참조, 5:23)을 서로 연결시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힘없는 자들에 대해 강조점을 둔 모세의 언약을 침해했다(참조, 2 절; 1:17,23; 3:14,15; 11:4; 신 16:19; 24:17; 27:19; 잠 17:23; 18:5; 암 4:1; 5:12).

10:2 일이 아주 거꾸로 되어 야웨께서 돌보라고 부탁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들(즉, 과부와 고아)이 약탈과 강탈을 당했다!

10:3 이러한 강탈자들의 운명에 대해 일련의 질문이 주어지고 있다! 창조주께서 일시적으로든지 혹은 종말론적으로든지 어느 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참조, 4 절). 야웨는 도덕적 윤리적 하나님이시며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언약 백성이 이러한 성품을 갖기를 요구하시며 또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은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10:4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것은 이 문학적 단위에서 반복되는 구이다(참조, 9:12,17,21).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그러짐이 없이 심판하심을 나타내는 신인동형적 표현이다(6:1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0:5-11

- ⁵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 ⁶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 ⁷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 ⁸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 ⁹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 ¹⁰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 ¹¹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10:5-19 이것은 앗시리아 국가에 대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문학적 단위이다. 그들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였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 온 민족들에 대해 포악하게 행했다. 야웨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건치 않은 이 이교 국가를 사용하실 것이다(참조, 5b; 6b; 합 1:12-17 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 선지자가 묻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즉, 사탄, 귀신, 타락한 천사, 악한 제국)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지만 더 큰 선을 위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용하신다(참조, 욥 12:23; 시 47:7-8; 66:7; 단 2:21; 행 17:26, 즉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 계획,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한편 악은 악한 행동에 따르는 열매를 거둔다. 어느 날 그들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참조, 신 32:34-43; 사 14:24-27; 30:27-33; 31:5-9). 앗시리아가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일을 바벨론(참조, 13:5)이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10:5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행한 반역을 벌하는 도구는 잔인한 나라인 앗시리아였다(참조, 7:17; 8:7).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참조, 10:24-27). 앗시리아의 교만은 8-11 절과 12 절에 나타난다.

10:6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 . .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아!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참조, 9:17,19)! 이스라엘에 대해 이와 똑 같은 표현이 19:17; 32:6에서 사용되었다. 언약 백성이 “경건하지 않은” 자로 불리어 도덕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앗시리아와 같은 상태가 됨은 얼마나 커다란 모순인가!

▣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21 절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가 이사야의 맏아들의 이름을 반영하였듯이(참조, 7:3) 이것은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반영한다(참조, 8:1,3).

10:7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앗시리아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앗시리아는 더 많은 전리품만을 추구하였다.

야웨께서 앗시리아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일련의 **칼부정사 연계형**(6 절)으로 드러나고 있다.

1. 쳐서 탈취하며(BDB 1021, KB 1531)
2. 노략하게 하며(BDB 102, KB 117)
3.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동사형 BDB 962, KB 1321, 명사형 BDB 942)

앗시리아의 왕이 행하고자 하는 일은 7 절의 c,d 행에서 두 **히필 부정사 연계형**으로 표현된다.

1. 파괴하다(BDB 1029, KB 1552)
2. 멸망시키다(BDB 503, KB 500)

10:8-11 앗수르 왕의 생각(즉, “자랑,” TEV)은 다음의 절에서 드러난다

1. 그의 모든 군대 장관은 왕이다(NRSV, TEV, NJB, REB, 페쉬타), 8 절
2. 그(티글랏빌레셀 III 세 혹은 주전 701년에 산헤립)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여러 도시와 국가를 그들의 모든 우상과 함께 무찔렀다, 9 절
 - ㄱ. 시리아 북쪽에 위치한 성읍인 갈로(또는 갈네)는 주전 742년에 멸망했다(이 모든 년도는 추정적인 것임)
 - ㄴ.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 가까이 위치했던 히타이트의 주요 도시인 갈그미스는 주전 738년에 앗시리아에게 합병되었다
 - ㄷ. 이스라엘의 북쪽인 오론텔 강가에 위치한 하맛(참조, 대하 8:4)은 주전 738년에 멸망했다
 - ㄹ. 시리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인 아르밧은 주전 741년에 멸망했다
 - ㅁ. 사마리아(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르곤 II 세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했다
 - ㅂ. 다메섹(시리아의 수도)은 주전 732년에 멸망했다
3. 그는 11 절에서 예루살렘과 그 성의 “우상들”을 그가 사마리아에서 했던 것과 같이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우상들”(참조, 2:8)과 야웨를 섬기는 참 예배의 차이점을 알지 못했다.

앗시리아의 침략에 대해 한 단어가 사용되었다. 앞의 지명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근동 제국이 정복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통로에 있었다. 사막을 피하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에 이른 후에는 남쪽으로 해안의 평야지대를 따라 진군했다. 앗시리아가 침략시 사용했던 길을 확인하는 것이 복잡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산헤립이 주전 701년에 실제로 남쪽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된 도시들은 티글랏빌레셀 III 세 (즉, **불**)가 점령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나는 그 통로를 북쪽에서 온 침략자들이 “이상적”인 경로로 여겼다고 생각한다.

10:11 “**우상들**” 이것은 흥미로운 단어이다(BDB 47).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엘로힘**과 비슷한 철자를 가져 학자들로 하여금 약하고 실재하지 않는 우상들을 가리킨다고 추정하게 하였다 (참조, NIDOTTE 제 1 권 411 쪽). 유일신 주의는 이스라엘이 가진 **아주** 독특한 믿음이다.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지만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뿐 이시다(참조, 신 4:35,39; 6:8; 32:39; 사 43:9-11; 45:21-22; 렘 2:11; 5:7,10; 롬 3:30; 고전 8:4,6; 딤후전 2:5; 약 2:19). 우상은 물질적이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영적 진리(즉, 계시)가 있음을 타락한 인간이 인식함으로써 가지는 두려움(미신)과 거짓된 희망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나타내지 못한다.

개역개정 10:12-14

¹²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¹³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¹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10:12-14 아웨께서 앗시리아와 그들의 승리를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사실을 인해 앗시리아의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12 절)

1. 완악한 마음
2. 그의 거만한 눈

앗시리아 왕의 교만은 자화자찬적인 말의 연속적 사용을 통해 드러난다(12-14 절). 이 내용은 당시의 앗시리아 자료와 매우 흡사하다(IVP 구약 성경 배경 주석 599 쪽을 보라)

1. 내 손의 힘으로
2. 내 지혜로

10:13

NASB

“용감한 자처럼”

NKJV

“힘센 자처럼”

NRSV, TEV,

REB

“황소처럼”

NJB

“영웅처럼”

이 **형용사**(BDB 7)의 기본 의미는 “강한”으로서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힘센/폭력적인 사람, 욥 24:22; 34:20; 렘 46:15; 애 1:15
2. 고집센 마음을 가진 사람, 사 46:12

3. 천사, 시 78:25
4. 동물
 - ㄱ. 황소, 사 10:13 은 황소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날개 달린 황소는 앓시리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즉, 이스타르 문의 벽에 있음, 참조, 시 22:13; 68:30; 사 34:7)
 - ㄴ. 영웅, 삿 5:22; 렘 8:16; 47:3; 50:11

10:14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나타내기 위해 새의 은유를 종종 사용한다(참조, 출 19:4; 신 32:11; 룻 2:12; 사 31:5; 마 23:37; 눅 13:34).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은유가 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두셨다!

개역개정 10:15-19

¹⁵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같음이로다
¹⁶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¹⁷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¹⁸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¹⁹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10:15-19 야웨께서 앓시리아 왕의 자랑에 대해 질문하심으로 응답하신다.

1.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2.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3.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겠느냐?
4.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겠느냐?

야웨께서 한 날에 그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실 것이다(17 절). 이것은 (1) 티글랏빌레셀 III 세 혹은 (2) 특별히 산헤립(주전 701 년)을 가리킬 것이다. 산헤립의 공격은 사 36-38 장; 왕하 18:17-21:11; 대하 32:9:24 에 기록되어 있는데 앓시리아 왕과 그 군대 지휘관들의 거만함을 인해 185,000 명의 군인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2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 하지만 이 일은 티글랏빌레셀 III 세가 사마리아를 취한지 수 십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 사이에 차이가 있다!

10:16 야웨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은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신 사상이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의 원인자로 묘사된다(참조, 신 32:29; 욥 5:18; 사 45:7; 호 6:1; 암 3:6). 이것은 유일신 사상을 확증해 주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언제 어디서 행하시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는 알려 주셨다

1. 영원한 구속 계획
2. 언약 백성
3. 오실 메시아
4. “열방”을 향한 마음

역사는 유희적 흐름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10:17 빛(9:2의 설명을 보라)과 불은 하나님을 상징한다(참조, 9:19; 29:6; 30:27; 31:9; 33:11-12,14). 1:31의 특별주제: 불을 보라.

10:18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사람은 육체적 부분과 생명의 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 위에서의 삶을 위해서 또한 육체를 가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지으심을 입었다! 우리가 동물들과 더불어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개역개정 10:20-23

²⁰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²¹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²²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²³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10:20-23 이 구는 두 가지 신학적 진리에 초점을 둔다

1. 야웨께서 진실된 남은 자(“진실되게 주를 의뢰하는 자,” BDB 1043, KB 1612, *니팔 완료형*)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2. “그 날에”는 구원의 날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된 때가 페르시아 시대이었던지 아니면 마카비 시대였는지 아니면 마지막 때 인지를 모른다. 예언과 묵시문학의 장르를 이해함에 있어서 내게 많은 도움이 된 책은 D. 브렌트 샌디의 *보습과 낮: 성경의 예언과 묵시적 용어를 다시 생각하기*이다.

10:20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하스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앗시리아를 신뢰하고 의지했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즉, 언약 백성)은 야웨만을 의지할 것이다!

10:21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이 남은 자는 야곱과 이스라엘에서 음을 말하고 있다. 이 문맥에서 이들은 주전 922년에 갈라지고 주전 722년에 앗시리아에 의해 사로잡혀 간 북쪽의 열 지파를 가리킨다. 주전 538년에 선포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어 사로잡혀 온 민족들이 자신의 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일부의 사람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1:9의 특별주제: 남은 자, 그 세 가지 의미를 보라. 이 구는 이사야의 만아들의 이름(스알야습)을 풀이해 놓은 것이다. 스알야습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났다(참조, 7:1-3).

▣ “능하신 하나님께로” 이것은 9:6에서 메시아께 사용된 것과 같은 칭호이다. 이 이름은 이 두 곳에서만 사용되었다.

10:22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주요한 부분인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가리킨다(참조, 창 22:17; 32:12).

야웨께서 족장들에게 많은 수의 자손을 약속하신 것과 대조할 때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1. 별처럼
2. 티끌처럼
3. 모래처럼

많은 수가 언약을 불순종하고 개인적 신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참조, 20 절)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된다(참조, 21-22 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축복과 타락한 인간의 능력이 서로 만나는 모습이다!

▣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스라엘의 심판을

1. 야웨께서 결정하셨고, 22 절
2. 야웨께서 선언하셨다, 23 절

이 두 단어(NASB 1995 년 판)는 모두 한 가지 동사(BDB 358, KB 356, 참조, 28:22; 단 9:26,27; 11:36)에서 왔다. 23 절은 (1)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거나 (2) 야웨께서 모든 땅을 심판하실 것 (70 인역, 페쉬타, NRSV. 바울은 롬 9:27-28 에서 70 인역을 인용하고 있다)을 나타낸다. 문맥상 1 항이 더 좋은 설명이다. 야웨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말씀했고 이를 이루셨다!

개역개정 10:24-27

²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이 앓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²⁵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²⁶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렐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²⁷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10:24-27 이 구는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다시금 야웨의 도덕적 의로움을 강조한다.

1. 야웨의 의로우신 분노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참조, 22 절)
2. 앓시리아(참조 사 37:26-28)
3. 출애굽시 이집트에 내리신 그의 진노처럼(참조, 출 14:16,27)
4. 미디안에 대해 싸우는 기드온처럼(사사기 7-8 장)

27 절에 기록된 야웨께서 과거에 행하셨고 또 미래에 행하실 일은 9:4 의 메시아를 통해 일 하시는 것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14:25). 9:4 에서는 미디안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도 언급한다(야웨께서 원수를 완전히 패배시키시는 것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임, 참조, 9:4; 시 83:9-11).

10:24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동사(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는 지시형으로 사용되었다. 이 의미는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 오시는 야웨를 두려워하라”이다(25-27 절).

10:26 “오렐 바위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소집하여 퇴각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남은 자들을 쓸어 버리는 일에 자기를 돕도록 했다. 두 지도자가 잡혀 죽임을 당했다(참조, 삿 7:24-25). 미디안 지도자인 오렐과 스압의 이름에서 따와 이 일이 일어난 곳의 이름으로 사용했다. 바위가 위치한 정확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10:27

NASB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NKJV	“기름붓기 위해 사용하는 기름을 인해 멍에가 부러지리라”
70 인역, REB	“멍에가 너의 어깨에서 벗겨져 부서지리라”
페쉬타	“너의 힘을 인해 멍에가 너의 목에서 부서지리라”

위의 번역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당신은 볼 것이다

1. “기름진 까닭에”를 없앴, 70 인역, REB
2. 메시아를 언급함, NKJV(즉, 기름부음 받은 자)

3. 페쉬타는 이것을 힘과 성장에 대한 것(참조 신 32:15)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16 절과 대조를 이룬다.

7-12 장이 메시아를 포함하여 새 시대의 아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NKJV 의 해석이 큰 문학 단위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합한 번역이라고 본다.

개역개정 10:28-32

²⁸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딕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²⁹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³⁰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돏이여

³¹ 맛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³² 아직 이 날에 그가 눕에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10:28-32 H. C. 류폴드는 *이사야서의 강해* 제 1 권 40 쪽에서 이 연(절)은 “전선에서 온 소식지의 용어를 사용하여 앗시리아가 전략적으로 시온을 거의 차지한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용병으로 구성된 앗시리아의 군대가 나아가면서 빼앗고 있는 지역이 다른 여러 지역의 이름과 더불어 언급되고 있다.

▣ “아얏” 이것은 여리고 인근에 있는 아이이다. 언급된 장소들은 앗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북쪽에서 왔음을 시사한다.

10:30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 . .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것은 둘 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

1. BDB 843, KB 1007, *칼* 명령
2. BDB 904, KB 1151, *히필* 명령

이것은 28-32 절의 형태에 변화를 준다. 만일 이 연이 “전선에서의 보고”라면 30 절은 앗시리아 전령이 전한 말이 아니라 선지자가 한 말이다.

▣

NASB	“가련하다 아나돏이여”
NKJV	“불쌍한 아나돏이여”
NRSV	“그녀에게 대답할, 오 아나돏이여”
TEV	“아나돏의 백성들이 대답하라”
NJB, REB	“아나돏이 들을 것이다”
페쉬타	“나에게 대답해다오, 오 아나돏이여”

이것은 다음 둘 중의 하나에서 왔다

1. 동사인 “대답하다,” BDB 772, *칼* 명령
2. 형용사인 “불쌍한,” BDB 776

이 둘은 같은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UBS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는 2 항에 “C”등급(의심스러움)을 주고 있다. “불쌍한”과 “아나돏” 사이에 소리에 의한 언어유희가 있음이 분명하다(NASB 연구성경 974 쪽).

10:32 시의 두 번째 행은 앓시리아 사람들이 유다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경멸하는 내용이다.

개역개정 10:33-34

³³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치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³⁴ 쇠로 그 뾰뾰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10:33-34 33-34 절에서 누구의 “가치가 꺾힘을 받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이 부분은 16-19 절과 11:1 을 문학적으로 서로 잇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는 종종 삼림이라는 회화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편집한 사람은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의 메시지를 언어유희와 주된 주제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시켰다. 우리는 문학적 단위나 연의 중심 진리가 다음의 사항들 보다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1. 상세한 내용
2. 각 문학적 구성 단위의 정확한 역사적 배경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이 책에 대해 더욱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성경의 상황을 무시하고 이를 문자적으로 다루게 하여 성경 특히 예언의 문학적 특성을 망가뜨리게 한다!

나는 이 두 절이 16-19 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본다. 이것은 삼림이라는 회화적 표현으로 묘사된 앓시리아 군대와 그들의 지도자들의 멸망을 나타낸다.

10:33 이 절의 후반부에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여러 단어가 나온다. 문단(산문) 혹은 연(시)에서의 중심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각 단어가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요 진리나 주요한 회화적 표현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

10:34

NASB, NKJV	“권능 있는 자에 의해서”
NRSV	“위엄있는 나무들과 함께”
TEV	“가장 좋은 나무들”
NJB	“권능 있는 자의”
70 인역	“높은 자들과 함께”
REB	“고상한 나무들과 함께”

이 구는 다음을 가리킨다

1. 하나님(참조, 33a 절, 34a 절)
2. 레바논의 높은 나무(참조, 33b,c 절, 70 인역)

이사야 1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가지의 의로운 통치	이새의 후손이 통치함	메시아 왕	평화로운 왕국	다윗의 후손
11:1-9 (1-9)	11:1-5 (1-5)	11:1-3a (1-3a)	11:1 11:1-5 (2-5)	11:1-4 (1-4)
		11:3b (3b)		
		11:4-9 (4-9)		
				11:5 (5)
	11:6-9 (6-9)		11:6-9 (6-9)	11:6-9 (6-9)
		메시아 시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올 것임	홀어짐에서 돌아옴
11:10 (10)	11:10 (10)	11:10	11:10-16	11:10-16 (10-16)
회복된 남은 자				
11:11-16 (11-16)	11:11 (11)	11:11-16 (12-16)		
	11:12-16 (12-1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11 장은 앗시리아의 멸망을 말하는 10 장 33-34 절의 내용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참조, 10:15-19).
- 나. 큰 삼림인 앗시리아가 잘라지듯이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실 것이다. 이사야는 종종 나무를 사용한 회화적 표현을 사용한다.
- 다. 이사야 11 장은 사무엘하 7 장에서 말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영한다.
- 라. 이상적인 이 종말적인 기간은 2:2-4; 9:1-7 에서 설명되고 있다. 11 장 10 절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범위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즉, 약속의 땅의 회복 혹은 전 지구의 회복)에 따라 1-9 절에 연결되기도 하고 또는 11:16 과 연결이 되기도 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1:1-5

- ¹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 ²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 ³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 ⁴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 ⁵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11:1 “한 싹” 이것은 구약에서 드물게 사용된 단어로서 이곳에서만 나온다(“줄기,” “가지,” 또는 “싹”은 잠 14:3 에서 “막대기”로 번역되었다, BDB 310, KB 307). 이 단어는 초자연적인 다윗의 후손(참조, 6:13; 삼하 7 장; 계 22:16)이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즉,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에서 나와 새 왕이 될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회화적 표현(다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함)은 이사야 52:13-53:12(즉, 2 절)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다시금 나타난다.

유대인의 연구 성경(807 쪽)은 “그루터기”에 관해 흥미로운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만일 “그루터기”라는 번역이 맞다면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다윗의 왕조가 올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을 뜻하는 이사야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참조, 삼하 7:8-16; 시 89:20-37). 그러나 히브리어인 “계자”는 잘라진 나무의 그루터기일 뿐 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도 뜻한다.”

나는 이러한 설명이 40:24 에 있는 “싹”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다. 이 후손은 10 절; 9:7; 16:5 에서 언급되고 있다.

구약은 기름부음을 받은 오실 특별한 분의 계보를 제공한다.

1. 유다 지파에서 오심, 창 49:8-12, 특히 10 절과 계 5:5
2. 이새의 자손으로 오심, 삼하 7 장

새 시대를 위한 특별한 아기는 이제 특별한 통치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의 성품은 새 시대를 특성짓는다(참조, 렘 23:5).

▣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4: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싹,” “새싹,” “순”이라는 명사(BDB 666, 참조, 14:19; 60:21; 단 11:7)는 “가지” 혹은 “싹남”(BDB 855, 참조, 4:2; 61:11)과 평행을 이룬다. 새로운 성장이 있을 것이다!

▣ “결실할 것이요” 맞소라 본문은 “결실하다”라는 동사(파라, BDB 826, KB 963, 칼미완료형, 사해사본, NASB)를 갖고 있지만, 많은 고대 역본과 현대 역본은 이와 비슷한 동사인 파라흐(BDB 827)를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1. NKJV, NRSV, 페쉬타, “성장할 것이다”
2. NJB, “자랄 것이다”
3. 70 인역, 탈군, “나타날 것이다”
4. REB, “나올 것이다”
5. JPSOA, “싹이 나올 것이다”

두 번째 항이 평행법에 가장 잘 들어 맞는다!

11:2 “여호와와 영”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계 1:4 에 있는 일곱 영과 연결시키려 시도한다. 나로서는 이러한 해석에 의심이 간다. 맞소라 본문은 6 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70 인역은 2 절에 있는 두려워 함을 “경건”으로 바꾸어 일곱 번째 특성으로서 나타내는 한편 3 절에 “두려워 함”을 추가시키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번역은 사 9:6 의 호칭과 관련이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찰력과 다스림과 경건을 갖추게 하심을 나타내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이 그에게 거하신다(참조, 삼상 16:13).

“성령”의 인격적 특성은 구약에서 완전하게 계시되지 않고 있다. 구약에서 성령님 야웨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인적 영향으로서 “하나님의 천사”와 매우 비슷하다. 성령의 인격과 신성이 완전히 계시되는 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이다. 6:8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32:15-20 의 특별주제: 성령의 인격을 보라.

이 단어(BDB 924)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인간의 특성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키는가의 여부이다.

▣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동사(BDB 628, KB 679)는 칼 완료형으로서 정착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가 거하시고 계속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진리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42:1; 59:21; 61:1; 마 3:16; 눅 4:18 에 나온다.

▣ “영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세 가지 종류의 선물을 말한다.

1. 지적
 - ㄱ. 지혜, BDB 315(10:13 과 반대임)
 - ㄴ. 이해, BDB 108(신 4:6 의 처음 쌍을 보라)
2. 효과적인 다스림(참조, 9:6-7)
 - ㄱ. 자문, BDB 420
 - ㄴ. 힘, BDB 150
3. 개인적 경건
 - ㄱ. 주를 아는 지식, BDB 395
 - ㄴ. 주를 두려워 함, BDB 432(참조, 3 절)

이와 같은 종류의 설명이 2:2-4; 9:6-7; 42:1-4 에 나온다. 이것은 정의, 공의, 평화의 때가 될 것이다.

11:3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것은 문자적으로 “숨을 들이 쉬다”(BDB 926, KB 1195, *히필 부정사 연계형*)를 말한다. 이것은 희생제사의 향기로운 것 또는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뜻한다(즉, 창 8:21).

▣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BDB 432)**라는 이 용어는 두려우신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나타낸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막는 의미를 가졌다(참조, 출 20:20; 신 4:10; 6:24). 다윗 왕은 야웨를 경외했다(참조, 삼하 23:3). 새 다윗이신 이 메시아는 이상적인 “참 이스라엘 사람”이 가진 이러한 경의를 완벽하게 나타낸다. 잠언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교훈을 주는지 주목하라(참조, 1:7; 또한 2:5; 14:26,27 을 주목하라)!

▣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은사를 인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이 특별한 통치자는 진리를 분별하며 거짓 증거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완벽하게 의로운 재판관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11:4 당신은 새 시대에서도 가난과 억압이 계속 될 것을 인해 놀랐는가? 문자적 해석은 이러한 종류의 혼동을 가져온다. 이 절의 목적은 통치자의 성품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지 천년 왕국의 사회가 어떠한가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언약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야웨의 성품을 자신을 통해 드러내시고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반영되도록 행하실 것이다.

▣ **“공의” 1:4**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의 입의 막대기로”** 이 단어의 소리는 계 1:16; 2:16 에 있는 구의 소리와 매우 비슷하다. 계시록에서는 “내 입의 칼”이라는 구로서 말하여진 말씀의 능력(참조, 창세기 1 장; 요한복음 1 장)에 대해 말한다. 이 시의 마지막 두 행은 통치자의 강력한 능력에 대해 말한다(참조, 2c 절).

11:5 다윗의 의로우신 왕으로 오시는 분의 특징을 묘사하는 은유로써 옷을 사용하였다. 후에 바울은 이것을 사용하여 영적 전투를 위한 신자의 무장을 설명한다(참조, 엡 6:14).

개역개정 11:6-9

⁶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⁷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⁸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⁹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1:6-9 이것은 창세기 1 장과 계시록 22 장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시대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죄를 인해 영향을 받았다(창세기 3 장). 자연은 메시아의 구원을 인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참조, 롬 8:19-25). 새 시대의 작은 아기에 대한 강조가 다시 주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라.

인간과 동물의 교제는 에덴 동산을 반영한다. 인간은 이 지구 위에 사는 동물과 굉장히 많은 것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짐승은 하나님과의 교제(참조, 욥 38:39; 40:34) 및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하나님, 인간, 동물이 동산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며(창세기 1-2 장) 끝맺음을 하나님, 인간 및 동물(이사야서의 이 본문에 나오는)로 끝맺고 있다(참조, 사 65:15; 호 2:18; 계 21-22 장).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의 애완동물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동물이 영원함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동물들은 삶을 놀랍도록 풍성케 한다. 타락 이후에 동물은 음식과 입는 것을 공급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종말론과 관련 있는 본문에 나타나는 내재적인 모호성은 거기서 언급되는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것이다. 어린 아이(6 절)와 아기(7 절)는 아기를 낳는 일이 계속됨을 뜻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과 완전히 비슷한 지상의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참조, 마 24:38; 눅 17:27). 한편 예수님은 새 시대에는 성적 활동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신다(참조, 마 22:29-30).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이에 있을 것인가? 그들은 늙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주석가들로 하여금 지상에 회복된 의의 시대가 제한적인 기간(즉, 천년왕국)이며 미래의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제시하게 했다. 어떤 이는 하늘에 있는 무리와 땅에 있는 무리로 나누는 것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나는 눈에 보이게 한 번 있을 재림 및 하나님과 즉각적으로 누리는 이상적인 교제가 있을 것을 믿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아야만 한다. 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주석으로서 내가 쓴 요한계시록, 다니엘, 스가라서의 주석을 보기 부탁한다.

우주적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새 날은 이상적이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로서 설명이 되고 있다. 언제 이 새 시대가 드러날 것인가?

1.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포로가 돌아온 것(즉,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2. 마카비 시대(신구약 중간시대)
3.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시작된 것(복음서)
4. 천년왕국 시대(계 20:1-10 에서만)
5. 영원한 왕국(참조, 단 7:14)

각 견해가 새로운 가능성을 갖지만 다 문제를 갖고 있다(1-4 항). 조직신학(교단배경의 신학)을 가지고 불명료한 자료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본문을 “신학적 틀”에 맞추어 놓고 그것에 의해 모든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해 일어난다. 약속들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때와 구체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은 “지상의 동산(즉,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문자적으로 취할 것인가(창세기 1-3 장과 요한계시록 21-22 장)”이다. 이것은 초점을 (1) 이 지구에 두는가 (2) 우주에 두는가 아니면 (3)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또 다른 차원의 실재인 영적 영역에 두는가(참조, 요 4:21-24; 18:36)?

11:6

NASB, NKJV

NRSV

REV, REB

NJB

“또 살진 짐승이”

“함께 먹일 것이다”

“기름진 짐승이”

70 인역과 페쉬타는 “소”라는 단어와 “함께 먹이다”라는 동사를 추가시키고 있다. 맛소라 본문에는 “살진”이 있지만 동사는 없다. “또 살진 짐승이”(우매리)를 변형시키면 “먹을 것이다”(임르우)로 바꿀 수 있다. UBS 히브리 본문 프로젝트는 이 동사에 “C”등급(상당히 의심스러움)을 주고 있다. 이 시의 처음 두 행과 네번째 행 사이에 나타나는 평행법에 의해 동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3 행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사해사본의 이사야서 본문과 70 인역에는 “먹이다”라는 동사가 나온다.

살진 짐승은 희생제사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참조, 1:11; 암 5:22).

▣ “내 거룩한 산” 이것은 예루살렘이나 시내 산을 가리키지 않고 9b 절에서 나타나듯이 온 땅과 평행을 이루는 표현이다. 메시아의 특징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창 1:26-27; 3:15). 그는 이상적인 언약의 사람이시다!

개역개정 11:10

¹⁰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10 4,9,10 절을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 회복시키실 것이며 세상을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2. 다윗의 씨가 세계를 다스릴 것에 대한 강조는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심의 약속인 창 3:15 을 성취할 것이다.

이 이사야 본문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만 대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것인가? 이것은 문자적 성취인가, 상징적 성취인가, 혹은 다중적 성취인가? 이곳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조직하기 시작하는 장소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비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에서 나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당신은 1:3 에서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본문과 문맥에 충실하기가 어렵고 또한 모든 본문에 대해 항상 그러하기가 어렵다! 누구라도 이 일을 잘 해 낼 수 없다!

개역개정 11:11-16

¹¹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¹²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¹³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¹⁴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¹⁵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¹⁶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1:11 이 절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심을 점증적으로 나타낸다(참조, 2:2,11,12,20; 3:7,18; 4:1,2; 7:17,18,20; 9:14; 10:3,17,20,27). 여기서 이것은 회복의 날을 뜻한다! 언약 백성(즉, 북쪽의 열 지파의 경우)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로 흩어졌는데 바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 올 것이다(야웨께 대한 신뢰로 돌아옴을 상징함).

한편 문학적 단위의 나머지 부분(7-12 장)은 우주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참조, 2:2-4; 9:1-7)!

▣ “그의 손을”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신인동형적 관용어이다.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떤 것이 생기게 하셨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움직이신다(참조, 15 절; 1:25; 5:25; 8:11; 9:12,17,21; 10:4 등).

11:12 “땅 사방” 넷은 지구 전체를 뜻하는 상징적 수이다.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 가. 어떤 숫자는 수와 상징 양쪽을 다 나타낸다:
1. 하나 - 하나님(예, 신 6:4; 엡 4:4-6)
 2. 넷 - 지구 전체(즉, 네 모퉁이, 네 바람)
 3. 여섯 - 인간의 불완전성(7 에서 하나 적음, 예, 계 13:18)
 4. 일곱 - 하나님의 완전성(7 일 간의 창조). 계시록에서의 상징적 용법을 주목하라.
 - ㄱ. 일곱 촛대, 1:13,20; 2:1
 - ㄴ. 일곱 별, 1:16,20; 2:1
 - ㄷ. 일곱 교회, 1:20
 - ㄹ. 하나님의 일곱 영, 3:1; 4:5; 5:6
 - ㅁ. 일곱 등잔, 4:5
 - ㅂ. 일곱 인, 5:1,5
 - ㅅ. 일곱 뿔과 일곱 눈, 5:6

- . 일곱 천사, 8:2,6; 15:1,6,7,8; 16:1; 17:1
 - ㄷ. 일곱 나팔, 8:2,6
 - ㄸ. 일곱 우뢰, 10:3,4
 - ㄹ. 칠천, 11:13
 - ㅅ. 일곱 머리, 13:1; 17:3,7,9
 - ㅇ. 일곱 재앙, 15:1,6,8; 21:9
 - ㅎ. 일곱 접시, 15:7
 - ㄱ. 일곱 왕, 17:10
 - ㅋ. 일곱 병, 21:9
5. 십 - 완전성
- ㄱ. 복음서에서의 용법:
 - (1) 마 20:24; 25:1,28
 - (2) 막 10:41
 - (3) 눅 14:31; 15:8; 17:12,17; 19:13,16,17,24,25
 - ㄴ.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2:10, 십일 간의 환란
 - (2) 12:3; 17:3,7,12,16, 열 빨
 - (3) 13:1, 열 면류관
 - ㄷ. 계시록에서 10의 배수:
 - (1) 144,000 = 12x12x10, 참조, 7:4; 14:1,3
 - (2) 1,000 = 10x10x10x, 참조, 20:2,3,6
6. 열 둘 - 인간의 조직
- ㄱ. 야곱의 열 두 아들(즉,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창 35:22; 49:28)
 - ㄴ. 열 두 기둥, 출 24:4
 - ㄷ.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열 두 보석, 출 28:21; 39:14
 - ㄹ. 빵 열 두 덩이, 성소 안에 있는 상에 놓임(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열 두 지파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나타냄), 레 24:5; 출 25:30
 - ㅁ. 열 두 정탐군, 신 1:23; 수 3:22; 4:2,3,4,8,9,20
 - ㅂ. 열 두 사도, 마 10:1
 - ㅅ.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인침을 받은 만 이천명, 7:5-8
 - (2) 열 두 별, 12:1
 - (3) 열 두 문, 열 두 천사, 열 두 지파, 21:12
 - (4) 열 두 사도의 이름을 딴 열 두 기초석, 21:14
 - (5) 새예루살렘은 사방이 만 이천 스타디아였다, 21:16
 - (6) 열 두 진주로 만든 열 두 문, 21:12
 - (7) 열 두 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 22:2
7. 사십 -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숫자
- ㄱ.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출애굽과 광야 방랑시기, 예, 출 16:35); 신 2:7; 8:2
 - ㄴ.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로써
 - (1) 홍수, 창 7:4,17; 8:6
 - (2) 시내산에서의 모세, 출 24:18; 34:28; 신 9:9,11,18,25
 - (3) 모세의 삶의 구분
 - (ㄱ) 이집트에서의 40년
 - (ㄴ) 광야에서의 40년

(ㄷ) 이스라엘을 인도한 40 년
 (4) 예수께서 40 일을 금식하심, 마 4:2; 막 1:13; 눅 4:2
 ㄷ. 성경에서(성구사전에 의하면) 이 숫자가 말하는 시간의 길이가 시간의 명칭으로 나타남을 주목하라!
 7. 칠십 - 사람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어림 수:
 ㄱ. 이스라엘, 출 1:5
 ㄴ. 칠십 장로, 출 24:1,9
 ㄷ. 종말론적 의미, 단 9:2,24
 ㄹ. 선교 팀, 눅 10:1, 17
 ㅁ. 용서함(70x7), 마 18:22
 나. 좋은 참고 자료
 1. 존 J. 데이비스, *성경의 수*
 2.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용 갈고리*

11:13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새 시대에는 연합이 핵심적 사항이 된다. 과거처럼 분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되지 않음을 주목하라.

11:14 이 절은 매우 놀라운 내용이다! 통일 국가인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을 것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하여금 야웨께 평화롭게 나아오도록 하는 통로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참조, 2:2-4)?

▣ “동방 백성을” 이 구는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민족을 가리킨다(참조, 창 29:1; 삿 6:3,33; 7:12; 8:10; 왕상 4:30; 욥 1:3; 사 11:14; 렘 49:28; 겔 25:4,10).

11:15 이 언약 백성의 전통적 원수들은 완전히 패할 것이다.

▣	
NASB, NKJV,	
NRSV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TEV, NJB	“말리실 것이다”
70 인역	“황폐케 하신다”
페쉬타	“완전히 말리실 것이다”
REB	“나누실 것이다”

NASB 는 맛소라 본문(*וְהַחֲרִיבְהֶם*, BDB 355, KB 353, *하필 완료형*)을 따르고 있는데 UBS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는 이에 대해 “B”등급(다소 의심스러움)을 주고 있다. 또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경우는 *וְהַחֲרִיבְהֶם*(BDB 351, KB 349)이다. NEB 와 REB 는 “갈라지다” 혹은 “나뉘다”를 뜻하는 어근(*חָרַם*, KB 354 II)을 상정하고 있다(참조, 출 14:16). 이것은 새 출애굽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11 절)!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9장과 11장에서 아기에 대해 사용한 칭호는 그의 신성을 뒷받침하는가?
2. 7장에서부터 10:4까지와 10:4에서부터 34절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3. 자연은 천국의 한 부분을 이룰 것인가?

이사야 12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감사의 표현	찬양의 노래	두 노래	감사 찬송	시
12:1-6	12:1-2	12:1-2	12:1-3	12:1-2
(1-6)	(1-2)	(1-2)	(1-3)	(1-2)
	12:3	12:3-4		12:3-6
	(3)	(3b-4)		(3-6)
	12:4-6		12:4-6	
	(4b-6)		(4b-6)	
		12:5-6		
		(5-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이 찬양 시(혹은 시들)은 “임마누엘 책”(즉, 7-12 장)을 끝맺는다.

나. 앞에 나오는 “그 날에”가 4 절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이(JB, NASB 연구 성경)는 이 장이 두 찬송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1. 1-3 절, 참조, 출 15:1-17; 시 118 편
2. 4-6 절, 참조, 시 148:13

다. 이것은 출애굽기 15 장과 시편 118 편과 비슷하다. 큰 승리나 구원의 때에 이스라엘은 종종 자기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노래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2:1-6

- ¹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 ²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 ³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 ⁴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 ⁵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 ⁶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2:1 “네가 말하기를” 이 동사(BDB 55, KB 65, **칼 완료형**)는 이스라엘 사람 각자(**단수형**)가 안정된 태도를 가짐을 나타낸다. 이것은 출 15:1-17 에 나오는 승리의 노래와 매우 비슷하다. 이것은 또한 야웨께서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노래이다. 한 사람이 언약 공동체를 대표하여 말한다.

간략한 이 시는 11:11-16 에서 언급된 포로에서 돌아옴과 연결되기에 이곳에 위치한다. 이것은 또한 열방이 야웨를 알고 그 분께 오는 신학적 목적과도 연결된다(참조, 2:2-4; 11:10; 12:4-6).

▣ “그 날에” 이것은 야웨께서 일시적으로든 혹은 종말론적으로든 역사 가운데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관용구이다. 정산하는 때가 오고 있다. 어떤 이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때가 될 것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거부받는 때가 된다!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은 현재와 영원의 때에 영향을 미친다!

이 구가 1 절과 4 절에 나타나기에 이 장을 두 개의 찬송 시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참조, JB).

▣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동사(BDB 392, KB 389 II, **히필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쓰임)는 기본적으로 “던지다” 혹은 “내던지다”를 의미한다. 특별히 시편에서 이 단어의 **히필형**은 “고백하다” 또는 “찬송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이 단어는 사 12:1,4; 25:1; 38:18,19 에서 사용되었다.

▣ “여호와여” 1:1 의 특별주제: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것은 반복적으로 침해받는 언약적 사랑에 대하여 야웨께서 취하신 행동을 나타낸다(참조, 40:1-2; 54:8; 또 다른 여러 곳). 많은 성경 독자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신 5:9 을 5:10 과 7:9 과 비교해 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화 내시는 것을 부모가 자식을 훈련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가장 좋다(참조, 히 12:5-13).

▣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 동사(BDB 996, KB 1427, 칼 지시형)는 인간에 대해 사용할 때 종종 “회개하다”로 번역된다. 어떤 면에서 야웨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회개(즉, 하나님께서 마음과 행동을 바꾸신다) 하신다(즉, 호 11:8-9). 구약에서 이것은 종종 그들의 회개와 특별히 관련이 있다. 한편 신약에서(또 새 언약에서, 롬 31:31-34; 겔 36:22-38) 이 일은 타락한 인간이 행하고 말씀을 따르고 변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

▣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 동사(BDB 636, KB 688, 꺾임 미완료형)는 “위로하다” 혹은 “위안하다”를 뜻한다(참조, 22:4; 40:1; 51:3,12,19; 61:2; 66:13). 심판 후에 위로가 오고 징계 후에 교제가 회복된다! 야웨의 변함없는 자비하심을 인해 반역자들과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참조, 말 3:6).

12:2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시행에는 동사가 없다. 이점은 이 구의 뜻을 강화시킨다. “구원”(BDB 447)에 대하여는 33: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신뢰하고” 이 동사(BDB 105, KB 120, 칼 미완료형)는 굳센 것(즉, 의지할 수 있는) 혹은 “그 앞에 엎드리다”를 뜻한다. 이 동사는 확신있게 하나님을 의지함을 나타낸다(참조, 26:3,4; 시 78:22).

▣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 동사(BDB 808, KB 922, 칼 미완료형)는 신뢰의 정반대를 말한다(참조, 신 28:66; 사 44:8,11). 그들이 야웨를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약속을 의뢰한다(참조, 요일 4:17-18)!

▣ “주 여호와와는” 이것은 하나님의 호칭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 경우이다.

1. 야, BDB 219 야웨의 축약형(참조, 출 17:16; 시 118:14; 사 26:4; 38:11)
2. 야웨, BDB 217(야웨)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이 “있다”라는 동사에서 왔다는 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알기 위해서는 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12:2a 에서와 같이 맛소라 학자들이 모음 기호를 넣은 이 두 명사가 동사없이 사용되었다.

1. 힘, BDB 738, 49:5 과 이스라엘의 찬송인 시 81:1 에서 “중”을 나타낸다
2. 노래, BDB 274 I; 이 두 명사가 출 15:2 에 있는 모세의 승리의 노래와 시 118:14 에 나온다

두 번째 명사인 *꺾임*의 뜻은 불확실하다 (BDB 275 II).

1. 노래, NASB, NKJV, NJB, 폐쉬타 (BDB274 I, KB 274 I)
2. 힘, NRSV, TEV, JPSOA (KB274 II)
3. 70 인역에서는 “내 영광과 내 찬송”으로 되어 있다
4. REB 에서는 “내 피난처와 방어물”로 되어 있다
5. 이 단어와 같은 형태의 단어(*꺾임*)가 창 43:11 에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땅의 가장 좋은 소산”으로 번역된다)

▣ 후에 4 행이 나타내는 내용을 1 행이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놀랍다. 히브리 시에는 모호성이 있다. 히브리 시를 이끄는 관사들을 보라.

12:3 이 동사에 두 가지 은유가 나타난다.

1.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명을 주는 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좋은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졌다(참조, 신명기 27-29 장).
2. 구원/구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원천으로 설명이 된다(참조, 48:18; 시 36:9; 렘 2:13; 17:13).

▣ “너희가” 1-2 절의 단수형이 공동체의 기쁨을 말하는 복수형으로 바뀌었다(참조, 4-6 절).

12:4-6 이 절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참조, 6b 절)이 해야 할 일의 목록과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5b 절; 6b 절)

1. 하나님께 감사하라, BDB 392, KB 389, *히필 명령*, 참조, 1 절(즉, 예배의 배경)
2.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BDB 894, KB 1128, *칼 명령*(즉, 예배의 배경)
3.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백성 중에 알게 하라, BDB 393, KB 390, *히필 명령*
4.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 BDB 269, KB 269, *히필 명령*
5. 주께 노래로 찬양하라, BDB 274 I, KB 273, *피엘 명령*(즉, 예배의 배경)
6.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하라, *케티브*(기록된) BDB 393, KB 390, *푸알 분사*; *케레*(읽어야 할) BDB 393, KB 390, *호팔 분사*(오웬스의 *분석적 열쇠*는 *히필 분사*로 다룬다)
7. 소리 높여 부르라, BDB 843, KB 1007, *칼 명령*, 참조, 54:1
8. 기쁨으로 외치라, BDB 943, KB 1247, *칼 명령*, 참조, 54:1

다시금 선교적 명령을 주목하라(참조, 2:2-4; 51:4-5).

12:4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 구는 예배에 참여함을 배경으로 한다(참조, 창 4:26; 12:8; 21:33; 26:25; 출 34:5-7; 롬 10:9-13).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함과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을 확인하게 된다. 이 구는 교제에 대한 사모함을 나타낸다(참조, 사 43:1; 45:3,4)!

NIDOTTE 제 4 권 150 쪽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좋은 내용을 제시한다.

1.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다, 율 2:26
2.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받으실 수 있다, 시 5:11
3.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될 수 있다, 시 22:22
4.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 할 수 있다, 말 4:2
5. 하나님의 이름을 기다릴 수 있다, 시 52:9
6. 하나님의 이름은 선포된다, 사 12:4
7.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다, 미 4:5
8.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수 있다, 사 52:5
9.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게 될 수 있다, 렘 34:6
10.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받을 수 있다, 겔 36:21-36

하나님의 백성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낸다(참조, 마 5:13-16)!

12:6 이 절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배경으로 한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있는 공간은 야웨의 발등상으로 말해지는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을 의미한다. 이 설명은 “하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기의 이름인 “임마누엘”과 평행을 이룬다. 야웨의 임재하심 및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1:11,24 의 설명을 보라.

이사야 13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바벨론에 대한 예언	바벨론에 대한 선포	외국에 대한 예언 (13:1-23:18)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실 것이다	바벨론에 대하여
13:1-5 (2-5)	13:1 13:2-3 (2-3)	13:1 13:2-3 (2-3)	13:1 13:2-3	13:1 13:2-22 (2-22)
주님의 날에 있을 심판	13:4-5 (4-5)	13:4-5 (4-5)	13:4-5	
13:6-16 (6-16)	13:6-10 (6-10) 13:11-16 (11-16)	13:6-22 (6-22)	13:6-10 13:11-13	
바벨론이 메대에게 망할 것이다			13:14-16	
13:17-22 (17-22)	13:17-22 (17-22)		13:17-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13 장은 이사야서에서 21:17 및 23:1-8 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단락을 형성한다. 이사야서의 이 단락은 주위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 이것은 명확히 드러나는 장르이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 46-51 장; 에스겔 25-32 장; 아모스 1-2 장; 오바댜, 나훔, 스가랴 2 장과 매우 흡사하다.

나. 야웨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주위의 크고 작은 나라들에 말씀하신다; 그들이 결코 듣지 못할 내용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드러낸다(참조, 2:1-4; 9:7; 11:9)! 하나님은 땅의 왕이시며 피조물의 주이시다(참조, 70 인역 신 32:8)!

다. 말씀을 다음의 나라들에게 주셨다

1. 바벨론(또는 바벨론의 보좌 이름인 “바벨론의 왕”을 사용하고 있는 앗시리아), 13:1-14:23
2. 앗시리아, 14:24-27
3. 블레셋, 14:28-32
4. 모압, 15:1-16:14
5. 시리아, 17:1-3
6. 이스라엘, 17:4-14
7. 이디오피아(구스), 18:1-7; 20:1-6
8. 이집트, 19:1-25; 20:1-6
9. 바벨론, 21:1-10
10. 에돔, 21:11-12
11. 아라비아, 21:13-17
12. 예루살렘, 22:1-25
13. 두로, 23:1-18

당신은 14:24-27 에서 앗시리아가 문맥 속에 들어 와 있는 것으로 보임을 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흥미로운 내용을 이룬다

1. 이사야의 시대에 문제가 되는 나라는 앗시리아인데 바벨론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
2. 바벨론이 21:1-10 에서 다시 언급된다.
3. 머릿말(즉, “경고라”) 없이 앗시리아가 14:24-27 에서 급작스럽게 간략히 언급되고 있다.

이 문제들을 상황적으로 다루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13:1-14:27 전체를 앗시리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앗시리아가 주전 689 년에 바벨론을 굴복시켰고 정복하여, 앗시리아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란 칭호를 가졌다(참조, 14:4). 만일 이것이 옳다면 이것은 신바벨론(즉,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주전 729 년에 앗시리아에게 망하여 주전 689 년에 수도가 약탈을 당했던 이전의 바벨론(므로다발라단)을 가리킨다. NASB 연구 성경(976 쪽)은 14:24 에 “경고라”는 머릿말이 없는 점은 13:1-14:32 이 문맥적으로 한 단위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이 갖는 한 가지 어려움은 신바벨론을 주전 539 년에 멸망시킨 “메데”가 17 절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메데와 바벨론은 서로 연합하여 주전 660 년에 앗수르바니팔(IVP 성경 배경 주석, 601 쪽)이 다스리는 약해진 앗시리아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앗시리아의 수도는 메데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 주전 612 년에 멸망되었다.

라. 이곳은 시로 된 단락에서 일 인칭(하나님을 대신해 말하고 있는 선지자)에서 삼 인칭(하나님께 대해 말하고 있는 선지자)으로 바뀌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곳이다.

1. 1-3 절, 일 인칭
2. 4-10 절, 삼 인칭
3. 11-16 절, 일 인칭
4. 17-18 절, 일 인칭
5. 19-22 절, 삼 인칭

그러나 13 절과 19 절은 이 구조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준다. 사실상 예언자는 자유롭게 앞 뒤를 오가며 “시적으로”(언어유희, 행의 리듬, 드문 단어의 사용, 인칭의 변화) 말씀을 전하고 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3:1-16

- ¹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²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³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⁴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⁵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⁶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⁷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⁸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⁹ 보라 여호와와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¹⁰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¹¹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¹²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¹³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¹⁴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¹⁵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¹⁶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3:1

NASB, NRSV,

REB

“경고”

NKJV

“부담”

TEV

“말씀”

NJB

“선포”

70 인역

“환상”

폐쉬타

“예언”

이 용어(BDB 672, KB 639)는 “부담” 혹은 “짐”을 의미한다. 이것(BDB 672 III)은 이사야서의 이 단락(13-23 장)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에 대한 어두운 미래에 관한 말씀을 말하기 위해 11 번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단순히 다음의 내용을 가리킨다

1.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높인 목소리
2. 어떤 사람이 수신자에게로 가지고 가는 메시지
3. 심판의 예언과 관련된 부담되는 내용

▣ “바벨론” 이것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있던 제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이다.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발흥한 세계적인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로는 앗시리아, 신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였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압제와 잔인함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참조, 뱀전 5:13; 계 14:8; 16:19; 17:5). 바벨론의 멸망이 13:1-14:23(옛 바벨론)과 21:1-10(새 바벨론)에서 계시되고 있다. 문맥적인 통찰 C 항의 두 번째 문단을 보라.

▣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 . . 받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직접적인 적은 앗시리아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는 앞으로 옛 바벨론, 앗시리아,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고레스 대제가 일어날 것(참조, 17 절; 44:28-45:1)을 보았다(“보다,” BDB 302, KB 301, **칼 완료형**, 참조, 1:1; 2:1; 13:1; 암 1:1; 미 1:1; 합 1:1). 예언이 갖는 예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해석에 있어서 왜곡을 가져 온다! 문맥적인 통찰 다항의 두 번째 문단을 보라.

미래에 대한 예언은 초자연적으로 영감된 성경의 독특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레이크사이드 침례교회(Lakeside Baptist Church)의 “비디오 설교”란에 있는 온라인 주소 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구약의 진실성”과 “신약의 진실성”에 대한 설교를 보라.

13:2 이것은 강한 군대(참조, 9 절)가 모임을 나타낸다. 17 절에서 우리는 이것이 (1) 앗시리아의 군대 또는 (2) “옛” 또는 “새” 바벨론을 패하게 하시려고 고레스 II 세가 이끄는 메데-파사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임을 안다(참조, 44:28; 45:1).

▣ “민등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이것은 옛날에 군대가 어떻게 통신을 취했는가를 설명한다.

1. 잘 보이는 장소에 깃발이나 기를 세움, 참조, 5:26; 31:9; 렘 51:12
2. 소리를 외치고(호각, 참조, 5:26)
3. 손을 흔들, 참조, 10:32; 19:16

야웨의 뜻을 나타내는 일련의 **명령형**이 사용되었다.

1. 높이 들어라, BDB 669, KB 724, **칼 명령**
2. 올려라, BDB 926, KB 1202, **히필 명령**
3. 흔들어라, BDB 631, KB 682, **히필 명령**, 참조, 10:32; 11:15; 19:16
4. 들어가라, BDB 97, KB 112, **칼 명령**이지만 **지시형**의 의미로 쓰임(NEB 는 모음을 바꾸어 “너희 귀인들이 너희의 칼을 뽑아 들어라”로 번역하고 있다)

13:3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 이 메데 군사들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 의미에서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거룩하게 된 자들,” BDB 872, KB 1073, **푸알 분사**) 자들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많은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이와 같은 개념이 44:28 에서 “내 목자”로 45:1 에서 “기쁨부음을 받은 나의 사람”으로 불리는 고레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JPSOA 에서 간행한 유대인 연구 성경은 각주에서 “나의 거룩한 자들”(즉, “정화된 나의 사람”)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손님에 비유하고 있다(809 쪽).

또 다른 해석 방법은 이 시를 “거룩한 전쟁”의 용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내용은 천사들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수 5:13-15).

13:4 이것은 전쟁과 승리의 소리를 나타낸다!

13:5 가나안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벌하기 위해 야웨께서 비옥한 초생달에서부터 커다란 용병을 데려오고 계시다(참조, 5:26; 7:18).

■	
NASB	“지평선 먼 곳”
NKJV, 폐취타	“하늘 끝”
NRSV	“하늘들의 끝”
TEV	“땅 끝”
NJB	“지평선 저 멀리에서부터”
70 인역	“하늘의 가장 깊은 기초로부터”

NRSV의 번역은 가장 문자적이다. 이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 즉 메소포타미아 열강의 본거지가 있는 방향인 동쪽을 가리킨다.

13:6 “애곡하다” 이 동사(BDB 410, KB 413, *히필 명령*)는 울부직고 애곡하는 것을 가리킨다. 동양인들은 서양인들보다 슬퍼하는 감정을 더욱 더 깊이 나타낸다. 이 용어는 이사야서(참조, 13:6; 14:31; 15:2,3; 16:7[2 회]; 23:1,6,14; 52:5; 65:14)와 예레미야서(참조, 4:8; 25:34; 47:2; 48:20,31,39; 49:3; 51:8)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으니” 창조주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며 윤리적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피조세계에 자신의 성품을 따라 다가오신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면과 축복을 위해 오시지만 하나님은 (여기서처럼) 심판을 위해 오신다(참조, 신명기 27-29 장). 모든 도덕적 피조물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 일시적으로 또 종말적으로 자기의 일을 고해야만 한다(참조, 마 25:31-46; 계 20:11-15).

■ “전능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다이*이다. 이것은 족장들이 야웨께 사용한 이름이었다(참조, 출 6:3). 1:1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떨망”(크쇼드, BDB 994)과 “전능자”(마샤다이, BDB 994) 사이에 소리유비가 있다. 요엘 1:15과의 관련을 참고하라.

13:7-8 야웨께서 오심은 어떤 두려운 결과를 가져 온다.

1. “애곡한다,” 6 절
2. “모든 손의 힘이 풀린다,” 7 절, 참조, 겔 7:17; 21:7
3. “각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 7 절, 참조, 19:1; 나 2:10
4. “그들이 놀란다,” 8 절
5. “피로움과 슬픔에 그들이 사로잡힌다,” 8 절
6.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한다,” 8 절, 참조, 21:3; 26:17; 66:7
7. “서로 보고 놀란다,” 8 절
8. “그들의 얼굴이 불꽃 같게 된다,” 8 절

13:9 이 절은 주의 날을 죄인과 관련지어 설명한다(참조, 10 절).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없는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 갖고 계신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다(참조, 창세기 1-2 장).

13:10 야웨께서 자신의 피조세계로 다가 오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반항을 일으킨다. 이러한 반항은 종종 묵시적인 것으로 말해지지만 사실상 이것은 구약의 예언에 사용된 은유적 표현이며, 신구약 중간시대와 신약에서만 묵시적인 것을 나타낸다.

1.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는다(고대인들은 별들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들이라고 여겼다), 10 절
2. 해와 달이 어둡게 된다, 10 절
3. 하늘이 흔들린다, 13 절
4. 땅이 흔들려 그 자리에서 떠나간다, 13 절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데 어둡게 되고 두렵게 된다(참조, 겔 32:7; 욕 2:10,31; 3:15; 마 24:29; 계 6:12-13). 그러나 새 빛이 오고 있다(참조, 2:5; 9:2; 60:1-3,19-20).

13:11 “땅을” 이 단어(BDB 385)는 시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에레츠*(즉, “땅,” “지구,” 참조, 14:21; 24:4; 34:1)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법에 속한다(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참조, 24:4; 34:1). 한편 이 단어는 야웨께서 창조주이시며 이 지구의 주관자시라는 신학적 개념을 나타낸다!

어떻게 인간에 대해 말씀하는지를 주의하여 보라.

1. 악함
2.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사악함
3. 교만하고 거만함
4. 무자비하며 거만함

2:9,11,17; 5:15 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을 언약백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의 촉각(즉, 자아, 죄)이 도처에 미치고 있다(또한 창 6:5,11; 8:21 의 설명을 보라)!

13:12 이것은 지리적으로 아라비아 남부를 가리킨다. 여기서 이것은 심판의 날에 살아 있는 사람의 수가 매우 드물 것을 암시한다.

13:14-16 이것은 침략으로 인한 공포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1. 노루처럼 쫓긴다
2.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된다
3.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본향으로 도망간다
4.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찢린다
5.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진다
6.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한다, 참조, 18 절, 왕하 8:12; 15:16; 호 13:16; 나 3:10
7.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한다
8.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한다(NASB), 참조, 신 28:30

침략으로 인한 심판은 두려운 일이었다. 이 호전적인 나라들은 이 같은 일들을 행했고 또 같은 일을 돌려 받았다(참조, 시 137:8-9)! 앗시리아 군대는 그 가운데 가장 포악했다.

13:16 맛소라 본문의 각주는 “욕을 당한다”(BDB 993, KB 1415, *니팔 미완료형*, 참조, 신 28:30; 렘 3:2; 습 14:2)라는 동사를 “함께 늙다”(BDB 1011, KB 1486, *니팔 미완료형*, 참조, 70 인역 레 15:20; 신 22 장; 27 장; 미 7:5)라는 것으로 읽기(*케레*)를 제안하고 있다.

개역개정 13:17-22

- ¹⁷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 ¹⁸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 ¹⁹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 ²⁰ 그 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 곳에 그들의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 ²¹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뿔 것이요
²²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3:17 “**메대 사람**” 이들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있었던 또 다른 강대국으로서 앗시리아의 동쪽에 있었다. 처음에는 이들이 “옛”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으나 후에는 그들이 고레스 II 세가 이끄는 페르시아에 합병되었다(참조, 44:28; 45:1; 렘 51:11).

▣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군대가 원수를 갚는 것에 매우 치중할 것이기에 그들은 돈으로 매수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13:18 “**태의 열매를**”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과 임신 중인 엄마 혹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킨다.

▣ “**여기지 아니하며**” 이것은 여기서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나타낸다(참조, 신 7:16; 13:8; 19:13; 겔 7:4; 16:5; 20:17). 여기서 이것은 침략자들이 어린 아이조차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을 가리킨다. 시의 이 행은 앞 행과 평행을 이룬다!

메대 군사들은 동정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참조, 렘 6:23; 21:7; 50:42).

13:19 바벨론 문화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은 잘 알려졌다(즉, 다니엘 4 장의 신바벨론). 하지만 이것은 모두 망가지고 파괴될 것이다! 한편 이것은 앗시리아가 지배하던 때의 바벨론을 가리킨다. 바벨론은 산헤립에 의해 주전 689 년에 완전히 멸망했다.

▣ “**갈대아 사람**” 이것은 바벨론 남부에 있던 부족의 이름이었는데 후에 신바벨론(즉, 느부갓네살)을 일컫는 동의어로 종종 사용되었다. 이 용어의 또 다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단 1:24 을 보라.

▣ “**소돔과 고모라**” 매우 악했던 이 두 도시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다(참조, 창 19:24-28; 신 29:23).

13:20-22 이것은 과장적인 표현이다(참조, 우르에 대한 수메르인의 애가 및 고대 이집트 왕국에 대한 네페르티티의 환상). 므로닥발라단의 시대에 이 도시가 앗시리아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다. 이 도시는 주전 539 년에 큰 파괴없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군대의 수중에 들어 갔다.

현대 서양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내가 동양의 예언과 묵시 문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준 책은 D. 브렌트 샌디의 *쟁기와 전정도구: 성경의 예언과 묵시적 언어를 재고함*이다.

13:20 파괴가 매우 심각할 것이다

1. 그 곳에 거주할 자가 대대에 없을 것이며
2.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3. 목자들도 그 곳에서 그들의 양 떼를 먹이지 않으며
4. 남은 건물은 들짐승만이 차지할 것이며(아마도 귀신들, 참조, 21-22 절; 34:13-15; 계 18:2)
5. 더 이상 국가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새” 바벨론 보다는 “옛” 바벨론에 더 들어 맞는 내용이다. 메대인들은 므로닥발라단과의 동맹 관계를 저버리고 앓시리아와 한 편이 되어 주전 689 년에 바벨론의 수도를 멸망시켰다.

이사야 14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이스라엘에 대한 조소	야곱에 대한 긍휼하심	포로에서 돌아옴	포로에서 돌아옴	포로됨의 마침
14:1-2	14:1-2	14:1-2	14:1-2	14:1-2
	바벨론 왕의 멸망	“강한 왕이 어떻게 망하였는가?”	바벨론 왕의 멸망	바벨론 왕의 죽음
14:3-23 (3-21)	14:3-4a	14:3-11	14:3-4a	14:3-8
	14:4b-8 (4b-8)	(4b-11)	14:4b-8	(4b-8)
	14:9-11 (9-11)		14:9-11	14:9-15 (9-15)
	루시퍼의 멸망			
	14:12-15 (12-15)	14:12-20a (12-20a)	14:12-15	
	14:16-17 (16-17)		14:16-17	14:16-21 (16-21)
	14:18-21 (18-21)		14:18-21	
	바벨론의 멸망	14:20b-21 (20b-21)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14:22-23 (22-23)	14:22-23	14:22-23	14:22-23
바벨론의 멸망	앗시리아의 멸망	앗시리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앗시리아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앗시리아에 대하여
14:24-27	14:24-27 (24-27)	14:24-27 (24-27)	14:24-27	14:24 (24) 14:25 (25) 14:26 (26) 14:27 (27)
	블레셋의 멸망	블레셋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블레셋에 대하여
14:28	14:28-31	14:28-31	14:28	14:28
블레셋에 대한 심판				
14:29-32 (29-32)	(29-31)	(29-31)	14:29-30	14:29 (29) 14:30-31 (30-31)
	14:32 (32)	14:32 (32)	14:31 14:32	14:3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14:12-21 을 사탄과 연결시키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나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 문맥 및 이사야서의 특별한 문학적 진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이 본문은 원래 바벨론 왕(혹은 앗수르바니팔 이후의 앗수르 왕)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양심을 가진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의 문제는 교만에 있었다. 만일 우리가 창 3:5 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을 확인하게 된다. 죄는 천사들의 세계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미쳤다(참조, 단 4 장; 11:36; 겔 28:13 이하; 살후 2:4). 성경에서 “바벨론”은 경건하지 않은 인간 정부를 나타낸다고 나는 생각한다(참조, 계 14:8; 16:19; 17:5; 18:2,10,21). 왕은 사악한 지도자의 한 유형이다. 구약에서 사악한 세계 지도자들의 배후에는 그들 나라의 신이 있었다(참조, 단 10:13,20; 70 인역 신 32:8). 신약에서 우리는 사탄으로 알려진 악의 특징적 힘을 보게 된다. 이 장을 사탄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1. 제롬이 벌게이트역에서 12 절을 “루시퍼”로 번역한 점
2. 터툴리안과 대그레고리가 이 본문을 눅 10:18 에 연결시킨 점
3. 이 본문이 단테의 *신곡*과 밀톤의 *실락원*의 배경을 이룬 점

나.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사탄

이것은 여러 이유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선의 옛 원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야웨의 종을 드러낸다. 이 종은 인간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또 인간의 의롭지 못함을 비난한다. 구약에서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유일신 주의), 한 권세자, 한 분의 근원자—야웨만 나타낸다.
2. 하나님의 개인적인 옛 원수에 대한 개념은 신구약중간시대(정경이 아닌)의 책에서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종교(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그 결과 이러한 생각은 랍비들이 이끄는 유대교와 에세네파(즉, 사해사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를 간략하면서도 좁혀진 항목으로 놀랍게 발전시킨다.

만일 우리가 성서신학적 관점(각 책을 저자나 장르에 따라 연구하고 독립적인 개요를 제시하는)에서 악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악에 대한 여러 견해를 보게 된다. 한편 우리가 악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성경 이외의 자료나 성경 밖의 세계 종교나 동양 종교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많은 내용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헬라-로마의 강신술을 그 배경으로 함을 알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면 신약에 나타난 내용을 점진적 계시로 이해해야만 한다. 유대인의 민족적 전승이나 서양의 문학(단테, 밀톤)이 이러한 개념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분명히 신비함과 모호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패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악의 기원, 악의 발전, 악의 목적 등 악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사탄” 또는 “참소자”(BDB 966)는 세 종류의 그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 인간인 참소자(참조, 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20,29; 시 109:6)
2. 천사인 참소자(참조, 민 22:22-23; 욥 1-2 장; 슥 3:1)
3. 악마적 참소자(참조, 대상 21:1; 왕상 22:21; ; 슥 13:2)

후기인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세기 3 장의 뱀을 사탄으로 간주하였다(참조, *지혜서* 2:23-24; *예레미야서* 31:3). 또한 이러한 개념은 좀 더 후기에 가서야 랍비들의 견해가 되었다(참조, *Sot* 9b 과 *Sanh.* 29a). 창세기 6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레미야 1 서 54:6 에서 천사들로 해석되었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옳음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개념이 발전해 온 모습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활동을 의인화된 악인 천사에게로 돌린다(참조, 고전 11:3; 계 12:9).

의의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찾는 일은 어렵고 혹은 불가능하다(당신의 견해에 따라 다름). 그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진 강한 유일신 사상 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전 7:14; 사 45:7; 암 3:6).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웨께 돌려져 야웨의 유일하심과 그의 우월하심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43:11; 44:6,8,24; 45:5-6,14,18,21,22).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욥 1-2 장, 이곳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로 나온다(즉, 천사) 혹은 (2) 이사야 14 장과 에스겔 28 장, 이곳에서는 고대 근동의 교만한 왕들(바벨론과 두로)이 사탄의 교만을 예시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뎀전 3:6). 나는 이 연구에서 혼합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에스겔은 두로의 왕을 사탄으로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참조, 겔 18:12-16) 이집트 왕에 대하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는 에덴동산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겔 31 장). 한편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천사들이 교만함으로 인해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말하는듯이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명백한 특징과 기원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본문을 그러한 것으로 보기에 매우 간접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저자와 책과 장르가 각각 다른 신구약 성경의 어떤 짧고 애매한 본문을 서로 조합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퍼즐의 작은 조각을 찾으려는 조직신학적 접근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나는 랍비적 유대교가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사탄적 관점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알프레드 에더샤임(*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대* 제 2 권, 부록 XIII[748-763 쪽]과 XVI[770-776 쪽])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 영역에 있어서 랍비들의 글은 진리에 대한 좋은 자료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영역에 있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셨다. 천사장이 야웨의 적이라는 개념이 이란의 이원론에서 말하는 두 높은 신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랍비들은 *아키만*과 *올마자*를 야웨와 사탄에 대한 성경의 이원론으로 발전시켰다.

신약에는 의인화된 악에 대하여 점진적 계시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것은 랍비들이 구성한 내용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 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상세한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진 것조차 묵시적 장르에 의해 베일에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7,12-13). 비록 사탄이 예수님께 패해 땅으로 쫓겨났지만 사탄은 여전히 야웨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참조, 마 4:1; 눅 22:31-32; 고전 5:5; 딤후 1:20).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조절해야만 한다. 유혹과 악은 힘을 가진 인격적 존재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하나님만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다. 구원 이전과 이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 승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오며 또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 악은 패했고 또 제거될 것이다!

- 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사야 14 장과 에스겔 28 장을 천사인 유혹자에 대한 기원과 멸망에 대해 말하는 성경본문으로 사용함에 대해 갈수록 더 불편한 마음이 든다. 우리가 가진 호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문맥을 부적절하게 다루도록 이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성경은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많은 주제에 대해 잠잠히 있다. 신학은 반드시 석의와 함께 가야만 한다! 영적 영역은 여러 면에서 의도적으로 덮여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
- 라. 비슷한 문맥에 대하여는 www.freebiblecommentary.org의 “구약의 연구”에서 에스겔 28 장의 주석을 참고하라.
- 마. 유대인의 연구 성경(812 쪽)은 이 시에 대해 “이것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일어난 앗시리아 군주(아마도 주전 705 년에 전쟁에서 죽은 사르곤 II 세)의 갑작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은 후에 바벨론 군주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야웨께서 동양의 거만한 왕들을 멸망시키신 일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 시기의 시 혹은 이 일에 대한 은유를 이사야(혹은 그의 제자)가 사용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 바. 이 예언에 있어서 모든 역사적 암시를 하나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 히브리 예언은 역사적인 일에 대한 자세한 지도가 아니라 “지시표”임을 기억하라. 서양인들은 은유적 표현, 모호성, 과장법을 오해하고 있다! D. 브렌트 샌디의 *쟁기와 전정도구: 성경의 예언과 묵시적 언어를 재고함을 보라*.

개역개정 14:1-2

¹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²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그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14:1 “여호와께서 . . . 긍휼히 여기시며” 이 동사(BDB 933, KB 1216, *피엘 미완료형*, 참조, 49:13,15; 54:7-8)는 야웨께서 자신의 언약적 백성(참조, 호 1-2 장)을 “택하심”(BDB 103, KB 119, *칼 완료형*, 참조, 41:8,9; 44:1; 49:7)과 더불어 그들과 갖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9:17 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적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참조, 호 1-3 장; 미 7:19) 13:18 에서는 메대인들이 바벨론에 대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을 말씀한다. 하지만 야웨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와 갖는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야웨께서 불순종하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벌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신 후에는 “새 출애굽”과 “새 정복”을 하게 행하실 것이다!

▣ “야곱 . . . 이스라엘” 이 두 용어는 북쪽의 열 지파와 남쪽의 두 지파가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14:1-2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 . .” 1-2 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1) 1 절과 2 절이 모두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것(즉, 나그네 된 자 . . . 민족들)으로 보는 것 (2) 1 절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즉, “나그네 된 자”)이 받을 축복을 말하며 2 절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사야서와 미가서에서 민족들에 대한 야웨의 태도와 행하심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에 포함시키신다(참조, 2:2-4; 11:10,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2. 하나님은 그들은 심판하시며 그들을 종으로 삼으신다(즉, 60:10; 61:5)

어떤 면에서 둘 다 사실이다! 선지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조차도 이 두 기둥 사이에서 종종 다른 입장을 취했다. 1 항의 설명은 창세기 1-3 장과 12 장을 반영하고 2 항의 설명은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한다.

이사야서에서 민족들이 언약 백성을 그들의 땅(즉, 가나안)으로 돌려 보내며 또 그들과 하나되어 야웨를 예배하게 된다(참조, 49:22; 60:4-9,10-14; 66:20). 이것은 “새 출애굽”을 나타낼 것이다. 많은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고 그외의 사람들도 도중에 그들과 합류했다(광야 방랑 시기와 정복). 아마도 2 절의 은유적 표현은 이 일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점은 앞의 2 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14:3 2 절(이스라엘의 적이 섬김)과 3 절(이스라엘이 섬김, 이 일은 이제 그침)은 “역할이 뒤바뀌는” 것을 보여 준다. “뒤바뀌는 역할”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줄거리의 구조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택하심을 통하여 야웨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행하신다(참조, 창 12, 15, 17 장). 하나님의 특별한 관점은 편애가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참조, 창 1:26-27) 모든 인간을 위한 영원한 구속 계획(참조, 창 3:15; 12:3)에 있다.

이사야서에서도 단기적인 목적과 장기적인 목적이 종종 나타난다. 선지자는 이 두 지평을 하나로 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바벨론과 신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나로 합쳐져 제시되는 13 장은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는 예이다.

개역개정 14:3-27

- ³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⁵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⁶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⁷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⁸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던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⁹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¹⁰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¹¹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음이어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네 아래에 깔림이어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¹²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¹³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¹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¹⁵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¹⁶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¹⁷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¹⁸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마는

19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중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찢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20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21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2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5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 때에 그의 땅에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27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14:4 “노래를 지어” 이것은 히브리 지혜문학의 용어인 *마살*(BDB 605)로서 일반적으로 “잠언”으로 번역된다. 한편 3-21 절의 시적 구조에서는 운율이 장례식 만가의 것으로 되어 있다(즉, 47 장과 예레미야 애가서).

▣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호칭이 누구를 말하는가는 불확실하다. 13 장의 “문맥적 통찰” 다항의 두 번째 문단을 읽기 바란다. 14:24 에서 이것이 “경고”라는 말이 없이 시작됨을 주목하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앗시리아에 대한 내용이다. 바벨론의 수도가 주전 689 년에 앗시리아에 의해 함락된 후에는 앗시리아 왕이 “바벨론의 왕”이라는 호칭을 더 가졌다.

▣

NASB

“강포가 그쳤다”

NKJV

“황금의 도시가 그쳤다”

NRSV

“그의 무례가 그쳤다”

NJB

“어떻게 거만이 그쳤는가”

70 인역

“강제 노역관이 그쳤다”

맛소라 본문은 *판해바*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만일 **ר** (ר)이 **ר** (ר)로 바뀌었다면 *말해바*(BDB 923)는 “거만한” 혹은 “교만한”을 뜻한다. UBS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는 바꾸어 읽는 것에 “C”등급(즉, 상당히 의심스러움)을 주고 있다.

NKJV 역은 금을 일컫는 아람어 어근을 따른다. 어떤 주요 번역본도 이러한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있다.

14:5 “여호와께서” 야웨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참조, 22-23 절, 24 절).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초림)를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의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재림)을 주관하시고 계신다.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막대기(BDB 641)와 홀(BDB 986)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이다(참조, 5 절). 10:5 에서 이 두 물건은 야웨께서 앗시리아를 사용하심을 뜻하고 있다.

14:7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조용하다”(BDB 628, KB 679, **칼 완료형**)는 침략이 그친 평화의 때를 가리킨다. 언약 백성이 쉬고 평화를 누리며 나타내기 위해 똑 같은 **동사(히필 부정사 연계형)**가 3 절에서 사용되었다. 여기서 이 단어는 고대 근동 전체를 가리킨다(즉, “온 땅”).

메소포타미아 열강의 멸망은 고대 근동 전체에 쉼과 조용함과 기쁨을 가져 왔다. 압제자가 망할 것이다(참조, 8 절).

▣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사야는 종종 구원의 기쁨에 대해 말했다(참조, 44:23; 49:13; 52:9; 54:1).

여기서 이것은 종말론적 기쁨의 요소를 나타낸다(즉, “온 땅”). 야웨께서 인류에 대해 가지신 뜻은 쉼과 평화와 풍요와 기쁨이었다(참조, 창 1-2 장)!

14:8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이것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의미할 것이다.

1. 바벨론이 자신의 건물을 짓기 위해 많은 나무를 가져 갔다(문자적)
2. 원수가 포위하는데 사용할 물건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지 않을 것이다(문자적)
3. 땅이 평화를 누리며 번영할 것이다(상징적)

14:9 “스울” 스울이 죽은 왕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의인화되었다.

이곳(BDB 982)은 죽은 자들을 모아 두는 장소이다. 구약에서 죽음 이후의 삶은 의식은 있지만 기쁨이 없는 상태로 설명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전 모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며 잠잠히 있는 상태에 처한다(참조, 10-11 절; 욥 3:17-19; 10:21-22; 21:33-26). 5:14 의 특별주제: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	
NASB	“죽은 자의 영들”
NKJV	“죽은 자”
NRSV	“그림자들”
TEV, NJB	“영들”
70 인역	“강한 자들”
REB	“죽은 고대인”

이 용어(BDB 952 I, 참조, 26:19)는 시에서 다음의 사람을 가리킨다

1. 죽은 왕들, TEV, NJB
2. 죽은 전사들, LXX
3. 죽은 조상들, REB
4. 일반적 의미에서 죽은 자들, NASB, NJKV

역사를 다룬 본문에서 이것은 거인들과 관련이 있는 족속인 **르파임**을 가리킨다.

특별주제: 키가 크고 강한 전사나 종족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

몸이 크고/키 크고/강한 이 민족들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1. **네페림** (BDB 658) - 창 6:4; 민 13:33
2. **르파임** (BDB 952 혹은 BDB 952 II) - 창 14:5; 신 2:11,20; 3:11,13; 수 12:4; 13:12; 삼하 21:16,20,22; 대상 20:4,6,8
3. **삼숨림** (BDB 273), **숨림** (BDB 265) - 창 14:5; 신 2:20

4. *에뫼* (BDB 34) - 창 14:5; 신 2:10-11
 5. *아나킴* (*아낙*의 자손, BDB 778 I) - 민 13:33; 신 1:28; 2:10-11,21; 9:2; 수 11:21-22; 14:12,15

- ▣
 NASB, NRSV “땅의 지도자들”
 NKJV “땅의 권세가”
 TEV “강했던 사람들”
 NJB “세계의 지배자들”

이것은 문자적으로 “양들”(BDB 800, 참조, 겔 34:17)을 뜻한다. 이것은 양떼의 지도자를 가리키며 따라서 은유적으로 인간 사회를 뜻한다.

14:11 처음의 두 행은 동방의 왕들의 사치스럽고 영화스러움을 나타낸다. 그들은 베개를 베고 부드러운 잠자리에서 잤다.

마지막 두 행은 스올/무덤에서 그들이 가진 새 잠자리(즉, 구더기)에 대해 말한다.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던 군주들도 어느 날 구더기로 된 잠자리에 누울 것이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똑 같게 한다(참조, 5:14). 이 얼마나 놀라운 대조인가!

▣ “구더기” 여기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죽음을 가리키는 관용어로서 죽음의 두려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41:14 에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덧없음을 이 단어가 나타낸다.

14:12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동사(BDB 656, KB 709, *칼 완료형*)는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낸다. 문제는 “이것은 문자적인 내용인가 아니면 회화적인 내용인가?”이다. 이 동사는 비명의 죽음을 나타낸다(BDB 657, 2a 절). 이사야는 3:8; 8:15 에서 도시의 멸망을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 한편 덧붙여진 구인 “하늘에서”는 눅 10:18 에서 예수께서 하신 비슷한 언급과 더불어 주석가들로 하여금 이들이 천사적인 존재라고 주장하게 한다.

- ▣
 NASB “오! 아침의 별이여”
 NKJV, 벌게이트 “오! 루시퍼여”
 NRSV “오! 낮의 별이여”
 TEV “빛나는 아침 별”
 NJB, 70 인역 “낮의 별”
 REB “빛나는 아침 별”

이 남성형 명사인 용어는 *헬렐*(BDB 237, KB 245)이다. 이 형태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동사의 어근인 할랄은 다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 “빛나다,” 아마도 초승달을 가리킨다
2. “자랑하다” 또는 “찬양하다,” 여기서 우리의 할렐 시편이 유래함(즉, 찬송시)

KB 는 이 어근의 유래에 대하여 여러 가능성을 언급한다.

1. 우가릿 어근에서, *hll*
2. 아랍어 어근에서, 초승달인 새 달
3. 히브리어 어근에서, 불확실함, 아마도 아침의 별인 금성을 가리킴(“여명의 아들”)
4. 라틴어에서, 루시퍼는 금성을 가리킴(즉, 문자적으로 “빛을 가진 자”)

이 이름에 있어서 요점은 이 천체의 빛이 아침 햇살에 의해 신속히 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빛나는 기간은 짧다! 더 밝고 더 좋은 새 빛이 오고 있다!

▣ “너” 12 절에서 다음 두 행은 분명히 앓시리아나 바벨론의 왕을 가리킨다(참조, 16-17). 시적 묘사(4-21 절)는 가나안의 신화에서 취하였는데(특히 13-14 절), 이것은 우가랏 도시에서 발견된 주전 15 세기의 라스 샴라 서판에 있다.

“아침 별”(헬랄)과 “여명”(샤발)은 모두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으로서 북쪽에 있는 신들의 산(차폰 산, 참조, 시 48:2)에 있었다. 또한 “지극히 높은”이라는 신의 호칭은 우가랏 시에서 자주 나오며 *바알 샤뎀*(“하늘의 주”)을 가리킨다. 가나안 신화의 시에서 작은 신인 헬랄은 권력을 찬탈하려고 시도하지만 패했다. 이것이 이사가야가 동방의 거만한 독재자들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의 배경을 이룬다.

근동의 거만하고 교만한 왕에 대한 묘사가 8-11 절까지 확장된다. 벌게이트 역이 12 절을 문자적으로 취하고 다른 번역본이 이를 따르는데, 12 절은 우가랏 문학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이 문맥에서는 번역하는 천사의 두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맥적 통찰의 B 항을 보라.

14:13-14 이 두 절은 고대 근동 왕들의 거만함과 교만을 나타낸다.

1. “내가 하늘에 올라 . . .,” (BDB 748, KB 828, *칼 미완료형*)
2.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 . .,” (BDB 926, KB 1202, *히필 미완료형*)
3. “내가 앉으리라 . . .,” (BDB 442, KB 444, *칼 미완료형*)
4. “내가 구름에 올라가 . . .,” 1 항과 같은 동사임
5. “내가 . . . 갈아지리라,” (BDB 197, KB 225, *히필 미완료형*)

거만함과 교만은 타락한 인간의 진정한 영적 모습이다. 야웨께서 홀로 이러한 인간의 자기 신격화를 심판하신다!

▣ “하나님의 뜻 별” 이 호칭은 *엘, 𐤀𐤋* (BDB 42)로서 고대 근동에서 신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한 칭호이다. 이것은 또한 우가랏에서 발견된 가나안 신화를 반영한다.

별들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천사나 신으로 여겨졌다(즉, 지구랏에서 바벨론이 별신을 숭배함). 이 사람은 땅 전체를 완전히 다스리기를 원했다.

▣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에 대한 상징이다(참조, 시 48:2; 겔 28:14). 여기서 놀라운 것은 “북극 집회에서” 가리키고 있는 장소에 대한 것이다. 헬라인의 올림푸스 산과 비슷하게 가나안 신화에서는 먼 북쪽에 신들이 사는 산이 있다고 여겼다.

▣ “지극히 높은 이” *엘론*(BDB 751 II)이라는 이 칭호를 발람이 민 24:16 에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샤다이*(즉, 전능자, BDB 994)와 평행을 이루는 칭호이다. 이 칭호를 모세가 신 32:8 에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한 노래에서 사용했고 다윗도 삼하 22:14 와 여러 시편에서 이를 사용한다.

이 칭호는 라스 샴라 서판에서 가나안의 높은 신을 가리킨다.

14:15 멀리(BDB 438) 북쪽에 있는 산으로 가지 못하고 그가 깊음(BDB 438)인 스올로 내려가게 되었다.

스올(BDB 982, 5:14 의 특별주제를 보라)이라는 용어는 무덤을 뜻하는 단어로서(참조, 잠 28:17) “구덩이”(BDB 92, 참고, 겔 31:16)와 평행을 이룬다. 똑 같은 용어가 19 절에서 사용되어 무덤/관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18 절).

14:16-19 이것은 네 번째 연을 이루며, 바벨론 왕의 몸을 스올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들의 놀람을 나타낸다. 이 부분은 9-11 절과 비슷하다.

14:17 이 절은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강력한 주방정책을 나타낸다. 이렇게 인구를 이동시키는 정책은 주전 538 년에 고레스 II 세(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 뒤바뀌었다.

14:19 “가증한 나무 가지” 이와 똑 같은 단어(BDB 666)가 6:13 에서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를 나타내고 11:1 에서는 이새의 싹/순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두 경우 다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킨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거부받은 나무”였다!

▣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것은 부적절하게 매장당함(아마도 사르곤 II 세)을 인하여 낮아짐을 뜻한다. 이 왕은 왕의 장례식 뿐 아니라 매장함도 받지 못했다!

“밟힌”(BDB 100, KB 115, *호팔 분사*)이라는 용어는 25 절(*칼 미완료형*)에서도 사용되었다. 이것은 야웨의 심판에 대한 은유이다(참조, 63:6, *칼 미완료형*과 63:18, *포렐 완료형*). 시편에서는 야웨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통해 언약 백성이 원수를 이기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참조, 시 44:5; 60:12; 108:13).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땅을 짓밟는다(참조, 렘 12:10; *포렐 완료형*).

14:20 거만한 왕에 대하여 적합한 매장 뿐 아니라 그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자도 없게 되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끊어질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14:21 왕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창 20:5 을 반영한다. 왕과 그의 사악한 나라는 번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야웨께서는 땅이 불의로 가득차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14:22-23 이것은 이 산문의 결론이다. 23 절이 13:21-22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이 나라와 이 왕과 그의 도시가 완전히 황폐할 것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14:22 “아들과 후손을” 이 두 용어(BDB 630 과 645)는 자손을 가리킨다.

1. 첫 째로 현재의 자녀
2. 둘째로 가계나 족보

후손을 잃는 것은 큰 부끄러움과 저주로 여겨졌다(참조, 47:9). 아마도 이 일은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14:23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야웨께서 빗자루로 집을 청소하는 주부/아이처럼 묘사된다(BDB 370, KB 367, *필필 완료형*). 모든 쓰레기가 제거될 것이다. 가정에 대한 이 은유는 가정적이지만 얼마나 강력한가(이사야서에서만 사용된다)!

14:24-27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여기서 문단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경고”라는 단어가 없음을 주목하라. 따라서 13:1-14:27 은 하나의 문학 단위로서 앗시리아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 문맥적 통찰의 다항을 보라.

14:24 이 절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참조, 46:11; 55:8-9; 욥 23:13; 시 33:9; 행 4:28).

▣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야웨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써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선언하신다(참조, 14:24; 45:23; 62:8; 신 1:8,35; 2:14; 4:31; 6:10,18,23; 렘 51:14; 암 4:2; 8:7).

14:25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앞에서 하룻 밤에 산헤립이 이끄는 군대의 185,000 명을 죽게 한 사건을 가리킬 것이다.

▣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이것은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참조, 9:4; 10:37). 멍에는 “지팡이” 혹은 “막대기”와 같이 외세의 압박을 상징했다.

14:26-27 이 앗시리아 왕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가졌지만(26 절) 야웨께서는 다른 계획 즉 세상을 구속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다(27 절)! 앗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야웨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손(즉, 능력)을 거스릴 수 없었다.

개역개정 14:28-32

²⁸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²⁹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³⁰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³¹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³²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4:28 “경고”라는 말이 14:28-32 에 나타남을 주목하라. 이 단락은 24-27 절에 있는 앗시리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연과 관련이 있지 않고 블레셋(즉, 팔레스타인)에 대한 야웨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

▣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작성한 구약의 연도표인 “분열왕국의 왕들”(부록 IV, 3 항)에서 아하스에 대한 추정적인 연대로서 세 명의 학자가 제시한 내용을 제시한다.

1. 존 브라이트, 주전 735 - 715 년
2. E. J. 영, 주전 736 - 728 년
3. R. K. 해리슨, 주전 732/732 - 716/715 년

이 연대(죽은 해가 아니라 재위 기간과 섭정으로 다스린 기간)는 앗시리아의 네 공격적인 왕들의 것과 들어 맞는다.

1. 티글랏빌레셀 III 세, 주전 745-727 년
2. 살만에셀 V 세, 주전 727 - 722 년
3. 사르곤 I 세 I, 주전 722 - 705 년
4. 산헤립, 주전 705 - 681 년(185,000 명의 군인이 주전 701 년에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죽었다, 참조, 사 36-39 장; 왕하 18-19 장).

나중에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죽게 되는 3 항의 사르곤 II 세는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했다.

14:29 악한 제국이 패했음을 인해 기뻐하지 말라고 블레셋에게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BDB 970, KB 1333,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 일시적인 구원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 29 절의 마지막 2 행은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이것은 일이 나쁜 상태에서 가장 나쁜 상태로 됨을 뜻할 것이다.

“날라다니는 뱀”이란 구는 “뱀” (BDB 977 I, 참조 30:6; 민 21:6)이라는 명사와 “날라다니는”(BDEB 733, KB 800, 포엘 분사)이라는 분사형이 합해진 것으로서 빠른 움직임을 뜻한다(즉, 치고 미끄러지고 돌진함).

14:30 처음 두 행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낸다

1. 하나님의 언약 백성(참조, 32 절) 혹은
2. 팔레스타인 사회의 궁핍한 자

14:31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은 두 명령으로 되어 있다

1. 슬피 울다, BDB 410, KB 413, *히필*
2. 부르짖다, BDB 277, KB 277, *칼*

이 내용은 각 성마다 왕이 있었던(도시 국가) 블레셋의 다섯 성이 멸망함을 뜻한다.

▣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이 동사(BDB 556, KB 555, *니팔 부정사 절대형*)는 백성이 공포로 사로잡혀 몸이 굳은 상태로 됨을 나타낸다(참조, 출 15:15; 수 2:9,24; 삼상 14:16).

이 구가 사회 전체의 멸망을 나타냄을 주목하라(참조, 렘 47 장과 암 1:6-8).

14:31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로이 침략해오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한 가지 일이 지나가고(참조, 29 절) 그 다음 것이 지나 갔지만 더 나쁜 일(참조, 29c,d 절)이 다가 오고 있다!

▣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비옥한 초생달에 있던 제국들은 가나안의 동쪽에 위치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사막이 있었기에 그들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에 이른 다음에 해안 평야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해 왔다. 따라서 “북쪽”은 침략, 악, 멸망을 가리키는 관용어가 되었다.

1. 여기서 이것은 앗시리아를 가리킨다
2. 렘 4:6; 6:1,22; 10:22; 13:20; 15:12; 46:20,24; 겔 26:7 에서 이것은 신바벨론을 가리킨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3 장과 14 장은 바벨론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앗시리아에 대한 것인가?
2. 13 장과 14 장은 특정한 역사상의 왕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 칭호는 경건치 않은 인간 정부의 상징으로서 언급되는 것인가?
3. 14 장은 사탄에 대해 말하는가?
4. 이 장(특히 13:21-22; 14:23)은 귀신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동물에 대한 것인가?
5. 이 장의 신학적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
6. 이 예언은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사야 15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모압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예언	모압에 대하여 (15:1-16:14)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모압에 대하여
15:1-9 (1-9)	15:1-4 (1-4)	15:1-9 (1-9)	15:1-9	15:1 (1)
				15:2a-d (2a-d)
				15:2e-3 (2e-3)
				15:4-5c (4-5c)
	15:5-9 (5-9)			15:5d-f (5d-f)
				15:6 (6)
				15:7 (7)
				15:8 (8)
				15:9 (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15-16 장에서 언급된 장소의 이름

이사야는 요단강 건너편(요단강 동편)의 지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가. 도시

1. 알, 1 절
2. 길, 1 절(기하레셋, 16:7,11)
3. 디분, 2 절
4. 느보, 2 절
5. 메드바, 2 절
6. 헤스본, 4 절; 16:9
7. 엘르알레, 4 절; 16:9
8. 야하스, 4 절
9. 소알, 5 절
10. 에글랏 슬리시야, 5 절(문자적으로 “제 3 의 에글랏,” 참조, 램 48:34)
11. 루히, 5 절
12. 호로나임, 5 절
13. 에글라임, 8 절
14. 브엘엘림, 8 절
15. 디몬(사해사본, “디분”), 9 절
16. 셀라, 16:1
17. 길하레셋, 16:7,11
18. 십마, 16:8,9
19. 야셀, 16:8,9
20. 아드마(REB 15:9)?

나. 수로

1. 니므림 물, 6 절
2. 아라빔 시내(아마도 “버드나무 강”), 7 절
3. 디몬 물, 9 절
4. 아르논 나루, 16:2

다. 이러한 여러 도시와 수로의 언급은 이 지역의 완전한 멸망을 강조한다.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또는 유다로 이동해 왔다(참조, 16:1-4).

개역개정 15:1-9

¹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²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³거리에서는 굶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⁴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⁵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야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트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⁶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⁷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⁸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⁹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렇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5:1 이사야서에서 문맥 구분의 표식인 새 메시지 혹은 이상(vision)과 관련이 있는 “경고”(BDB 672 III)가 1 절에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라. 13:1의 설명을 보라(참조, 14:28; 17:1; 19:1; 21:1,11,13; 22:1; 23:1; 30:6). 이 용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다.

▣ “모압” 이들은 롯이 소돔에서 도망친 후에 자기의 두 딸 가운데 한 명을 통해 낳은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를 이룬다(참조, 창 19 장). 모압, 암몬, 에돔(즉, 요단 강 건너편의 국가들)은 11:14에서 유다의 지배를 먼저 받는 나라들로 언급되고 있다.

15-16 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문학적 단위를 이룬다(참조, 렘 48 장; 겔 25:8-11; 암 2:1-3; 숙 2:8-11). 모압은 민수기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 오기 위해서는 이들의 땅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그곳에서 물렸다(참조, 신 34 장).

▣ “하룻밤에” 이 구가 두 번 반복되어 모압 도시에 다가오는 심판이 급작스럽고 철저한 것임을 강조한다.

두 동사인 “황폐하게 되다”(BDB 994, KB 1418)와 “망하다”(문자적으로 “잘리다,” BDB 198, KB 225)는 다 **완료형**으로서 완료된 멸망을 나타낸다. 이사야는 6:5 에서 “망하다”라는 동사를 자기 자신에게 대해 사용했다.

앗시리아의 군대는 여러 번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을 침략했다.

1. 사르곤 II 세가 주전 715 년에
2. 사르곤 II 세가 주전 711 년에
3. 산헤립이 주전 701 년에

▣ “**알**” 이 용어(BDB 786 I)는 도시(이것은 모압어에서 도시를 가리키는 평범한 단어이다)나 지역(즉, 신 2:9,29)을 가리킬 것이다.

기르(BDB 885 II)는 히브리어에서 “벽”(참조, 70 인역, 즉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을 뜻한다. 행에 나타나는 평행에 비추어 볼 때 알과 기르는 모압의 수도를 의미할 수 있다.

15:2 “**디본 . . . 느보 . . . 메드바**” 이 모압 도시들은 광야 방랑 시기 끝에 요단 협곡의 동편으로부터 가나안에 최종적으로 이르기 위해 이스라엘이 지나간 경로로서 민수기에서 언급되고 있다.

15:2-3 “**울며 . . . 머리카락을 밀고 . . . 수염을 깎았으며 . . . 굶은 베로 . . . 애통하여 심히 울며**” 이것은 모두 고대 근동에서의 슬퍼하는 모습을 가리킨다(참조, 22:12; 스 9:3; 욥 1:20; 렘 7:29; 16:6; 41:5; 47:5; 48:37; 겔 7:18; 27:31; 미 1:16).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을 바꾸려 한다(참조, 2 절); 그들이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려 하지만 생명이 없는 우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는다!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자신의 회개와 관련하여 혹은 공동체의 범죄를 인한 슬픔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다.

1. 겹옷을 찢음, 창 37:29,34; 44:13; 사 11:35; 삼하 1:11; 3:31; 왕상 21:27; 욥 1:20
2. 베로 동입, 창 37:34; 삼하 3:31; 왕상 21:27; 렘 48:37
3. 신발을 벗음, 삼하 15:30; 사 20:3
4. 손을 머리에 얹음; 삼하 13:9; 렘 2:37
5. 재를 머리에 뿌림, 수 7:6; 삼상 4:12; 느 9:1
6. 땅에 앉음, 애 2:10; 겔 26:16(땅에 누움, 삼하 12:16); 사 47:1
7. 가슴을 칩, 삼상 25:1; 삼하 11:26; 나 2:7
8. 몸을 뺨, 신 14:1; 렘 16:6; 48:37
9. 금식함, 삼하 1:16,22; 왕상 21:27
10. 애가를 부름, 삼하 1:17; 3:31; 대하 35:25
11. 머리를 밟(머리카락을 잡아 뽑거나 면도함), 렘 48:37
12. 수염을 짧게 깎음, 렘 48:37
13. 머리카락이나 얼굴을 가림, 삼하 15:30; 19:4

15:4 “**헤스본 . . . 엘레알레 . . . 야하스**” 이 도시들은 요단 동편에 위치했는데 모압과 동일시 되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또는 암몬, 즉 주전 9 세기 경의 메샤 비문).

▣ “**부르짖으며**” 이 동사(BDB 277, KB 277, **칼미완료형**)는 14:31(블레셋)에서 **칼명령형**으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이 단어가 여기서는 모압에 대해 사용되었고 5 절에서는 야웨 혹은 이사야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렘 48:20,31 에서 사용되을 주목하라.

■	
NASB	“무장한 자들”
NKJV, 폐쉬타	“무장한 군인들”
NRSV, 70 인역, JB	“사자들”
NJB	“전사들”
REB	건장한 전사들”

군인과 사자의 차이는 히브리어에서 자음의 차이가 아니라 모음의 차이에 기인한다.

■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 동사(BDB 438, KB 440 440, **칼 완료형**)는 여기서만 나온다. “떨리다”로 번역된 여러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갖는 두려움과 몸이 굳어버림을 나타낸다. 이 단어들은 “거룩한 전쟁”을 특징짓는다. 이 단어가 “부르짖다”라는 뜻의 동사와 비슷한 음을 갖기 때문에 시적 표현을 위해 여기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5:5-9 유대인의 연구 성경은 모압인들이 에돔으로 도망함을 이 절들이 나타낸다고 설명한다(815 쪽). 이 도시들이 요단 강의 동쪽 혹은 남동쪽에 있었지만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에 이러한 설명은 가능성이 있다.

15:5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나의”는 선지자 자신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지만(참조, 16:9,11) 문맥에서 야웨 자신을 가리킨다(참조, 9 절). 야웨께서 모압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안타까와 하신다. 그들은 여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생각이 없고 돌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다! 16:1-4 에서는 그들에게 도움/피난처를 제시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본문인가! 70 인역은 “모압 지역의 마음이 그 안에서 부르짖는도다”로 내용을 바꾸고 있다(참조, NJB).

■	
NASB, NRSV, TEV, NJB, REB	“에글랏 슬리시아”
NKJV, 70 인역, 폐쉬타	“3 년된 암소 처럼”

이것은 도시 혹은 구(phrase)를 뜻했을 것이다(참조, 렘 48:34).

■ “그 피난민들은” 맛소라 본문에는 “그녀의 빗장들”(BDB 138, *브리아호*에서 온 *브리헤하*)로 되어 있는데 많은 번역본에서는 발음을 달리하여 *밌리*인 “그의 피난민들”로 취한다.

15:6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낸다(참조, 신 27-29 장).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순종을 인해 풍요를 주시지만 악과 사악함과 반역을 인하여서는 농업적 소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모압은 침략을 받는 일(참조, 9a 절)과 음식의 부족 두 가지를 직면했다.

15:7 모압은 이집트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주요 교역로에 위치했다. 모압은 모든 대상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 부유하게 되었다.

15:9 “사자” 이 단어는 다음을 나타낼 것이다

1.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심판하신다(즉, 왕상 13:24-28; 왕하 17:25)
2. 앗시리아 군대의 상징(참조, 5:29; 렘 50:17)
3. 회화적으로 유다가 공격해 옴(참조, 11:14, 유다의 사자[통치자]).

JPSOA 는 이 절(특히 2-4 행)의 내용이 긍정적인 것이 되도록 그 내용을 상당히 바꾸어 번역했다(참조, 5 절, “나의”).

“왜냐하면 내가 디몬에 (물을) 부어 더했고

내가 그 물을 빼냈다 - 모압의 피난자들을 위해 - 그 남은 자들을 위해 흙으로(각주, ‘눈물’)”

70 인역에서 9 절의 2-4 행도 많이 다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랍인들을 램논에 끌고 올 것이며,

또 모압과 아리엘의 후손을 제거할 것이고

아다마의 남은 자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16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모압이 황폐케 됨에 대한 예언	망한 모압	모압에 대하여 (15:1-16:14)	도움이 없는 모압의 상태	모압인의 탄원
16:1-5 (1-5)	16:1-2 (1-2)	16:1-4b (1-4b)	16:1-2	16:1-2 (1-2)
	16:3-5 (3-5)		16:3-4b	16:3-5 (3-5)
		16:4c-5 (4c-5)	16:4c-5	
16:6-12 (6-12)	16:6-7 (6-7)	16:6-7 (6-7)	16:6 (6)	16:6 (6)
				모압의 탄식
			16:7-12	16:7-12 (7-12)
	16:8-9 (8-9)	16:8-11 (8-11)		
	16:10-11 (10-11)			
	16:12 (12)	16:12		
16:13-14	16:13-14	16:13-14	16:13-14	16:13-1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16:1-5

¹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²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³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 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⁴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⁵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16:1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내용이며 또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는 문맥적인 질문이다.

1. 도망하는 모압인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희생제물로 사용할 선물을 보낸다, TEV, NRSV
2. 메시아에 대한 언급, 참조, 5 절; 페쉬타, 벌게이트역
3. 모압의 생존자들에게 미칠 계속되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참조, 12 절

▣ “보낼지니라” 이 동사(BDB 1018, KB 1511)는 칼 명령이다. 이것은 절망적이고 필사적인 노력을 나타낸다.

▣ “어린 양들을 드리되” 맛소라 본문에는 “어린 양들”(BDB 503 III, 복수형, 또한 “제물로써”를 언급함)로만 되어 있다. NASB 역만 제물로써라는 형용사를 덧붙인다. 복수형과 단수형에 대하여는:

1. 복수형, NRSV, REB, JB
2. 단수형, 맛소라 본문, NJB, NASB, NKJV, TEV

모압의 양은 잘 알려져 있었다(참조, 왕하 3:4)

1. 70 인역, “내가 그것이 마치 그 땅 위에서 울고 있는 짐승인 것처럼 보낼 것이다!”
2. 페쉬타, “내가 그 땅의 통치자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3. JPSOA, “그 땅의 통치자에게로 사신을 보내라.”

▣ “셀라에서부터” 이 용어(BDB 700)의 기본적 의미는 “낭떠러지,” “절벽”인데(참조, 렘 51:25) 이 명칭은 예돔의 도시인 셀라 혹은 페트라(BDB 701 II, 참조, 왕하 14:7; 사 42:11)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한편 셀라가 이 문맥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유다와의 접경에 위치한 바위로 이루어진 다른 장소를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것은 단순히 남쪽 길을 의미할 수 있다.

어디에서라는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왜의 질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 “딸 시온 산으로”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웨의 성전을 가리키는 회화적 용어이다. 이것은 양들이 야웨께 희생제물로 드려졌음을 의미한다(참조, 스 7:17).

16:2 모압은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1. 도망가는/떠다니는 새들, BDB 622 I, KB 672, **칼 능동 분사**
2.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들, BDB 1018, KB 1511, **푸알 분사**

더 나아가 모압이 “모압의 딸”로 말해지는데, 이러한 명칭은 16 절에서와 같이 그 땅에서 살아 남은 모든 주민을 가리킨다.

▣ “아르논 나루에서” 아르논(엘무집 시내)은 동편에서 사해의 중간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다. 이것은 북쪽으로는 암몬이 남쪽으로는 모압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다(세렛 시내[아마도 엘헤사 시내였음]로 이어진다).

이 나루들(물이 얕아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유다의 경계에서 가깝지 않고 사해 건너편에 있다는 점이 놀랍다. 아마도 유대의 군대가 암몬을 거쳐 이 나루로 행진했을 것이다. 이 구는 또한 북쪽에서 온 침략자들을 인해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16:3-4 이 두 절은 다음의 내용을 말한다: (1) 어린 양을 가지고 간 자들이 전한 메시지(명령형을 요청으로 취함) 혹은 (2) 유대인들에게 모압사람을 받아들이라는 이사야의 충고. 나는 1 항의 설명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1. “방도를 베풀며,” BDB 97, KB 112, **히필 명령**, 남성 복수형으로 쓰여졌지만 여성형인 “방도”와 같은 형태인 **여성 단수형**으로 읽어야 함
2. “관결하며,” BDB 793, KB 889, **칼 명령**
3. “그들을 지으며,” BDB 1011, KB 1483, **칼 명령**(참조, 25:4; 32:2; 시 91:1)
4.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BDB 711, KB 771, **피엘 명령**
5.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BDB 162, KB 191, **지시형**으로 사용된 **피엘 명령**
6.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BDB 157, KB 184, **지시형**으로 사용된 **칼 명령**
7.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BDB 217, KB 241, **칼 명령**

비록 모압이 전통적인 적이었지만 이들과 다윗의 가계 사이에 가까운 관계가 있었다(즉, 롯기; 삼상 22:3-5).

16:3 “대낮에 밤 같이 그들을 지으며” 이것은 보호함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것은 광야 방랑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영광의 구름인 **쉐키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일 것이다. 이것은 낮에는 덮는 구름(그들과 시원함을 줌)이었고 밤에는 불기둥이었다. 이것은 야웨의 직접적인 임재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을 상징했다.

16:4 유다 정부의 지도자들이 모압을 공격하여 모압의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된 때와 관련이 있는 언급이 나온다(참조, 5 절).

여기에 관련된 상황이 나온다.

1. 토색하는 자(BDB 568)가 망하였고(BDB 67, KB 79, **칼 완료형**)
2. 멸절하는 자(BDB 994, **칼 능동 분사**)가 그쳤고(BDB 477 I, KB 476, **칼 완료형**)
3. 압제하는 자(BDB 942, **칼 능동 분사**)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BDB 1070, KB 1752, **칼 완료형**)

16:5 이 절은 유다의 통치자가 오고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9:6-7; 11:3-5).

1. 인자함(BDB 338,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완료형**)
2. 다윗의 장막에서 그 위에 앉을 자(**완료형**)는 충실함(BDB 54)으로 판결하며
3. 정의를 구하며(BDB 1048, 참조, 11:3,4)
4. 공의(“의,” BDB 841, 참조, 11:4,5. 또한 1:4 의 특별주제를 보라)를 신속히 행하리라 (“신속히” [BDB 555]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숙련됨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일을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것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가 의를 행함에 있어서 신속히 함을 나타낸다.
이 절은 페쉬타와 별게이트역이 이 문맥을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특별주제: 인자한 사랑(헤세드)

이 용어는 넓은 범주의 의미를 갖는다. BDB 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338-339 쪽).

가. 인간과 관련된 용법

1. 동료 인간에 대한 친절(예, 삼상 20:14; 대하 24:22)
2.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에 대한 친절(예, 미 6:8)
3. 동정(참조, 램 2:2; 호 6:4)
4. 모습(참조, 사 40:6)

나. 하나님과 관련된 용법

1. 언약적 충성과 사랑
 - ㄱ. “원수로부터 혹은 어려움에서 구속하심”(예, 램 31:3; 스 7:28; 9:9)
 - 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키심”(예, 욥 10:12; 시 86:13)
 - ㄷ. “영적 생명을 활기차게 하심”(예, 시 119:41,76,88,124,149,150)
 - ㄹ. “죄에서 구하심”(참조, 시 25:7; 51:3)
 - ㅁ. “언약을 지키심”(예, 대하 6:14; 느 1:5; 9:32)
2.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함(예, 출 34:6; 미 7:20)
3. 하나님의 친절
 - ㄱ. “풍성하심”(예, 느 9:17; 시 103:8)
 - ㄴ. “범위가 넓음”(예, 출 20:6; 신 5:10; 7:9)
 - ㄷ. “영원하심”(예, 대상 16:34,41; 대하 5:13; 7:3,6; 20:21; 스 3:11)
4. 친절하신 행동(예, 대하 6:42; 시 89:2; 사 55:3; 63:7; 애 3:22)

개역개정 16:6-12

- ⁶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 ⁷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 ⁸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 ⁹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 ¹⁰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뜰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 ¹¹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 같이 소리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12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16:6 이것은 새 연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1-5 절은 야웨께서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일을 나타내고 6 절은 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가를 설명한다(렘 48:29 와 비교하라).

1. 모압의 교만함
2. 심히 교만함
3. 거만함
4. 교만
5. 분노함(BDB 720, “무례”)
6. 헛된 과장(BDB 95 III, 공허하고 허황된 과시, 참조, 욥 11:3; 렘 48:30)

“교만”(BDB 144)이라는 히브리어가 조금 다르게 4 번 반복되었다. 모압의 우상처럼 모압이 많은 것을 주장하고 많은 것을 말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6:7-10 “그러므로” 여기에 그 결과가 제시된다

1. 모압이 자신이 행한 바알숭배(즉, “건포도 떡”)를 인해 통곡할 것이다, 7,12 절(이 단어가 농사에 실패함을 일컫는 관용적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2. 밭이 마르고 추수할 것이 없을 것이다, 8-10 절(참조, 15:6)

이 문맥에서 “건포도 떡”이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16:10 “포도” 1: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것은 야웨께서 보내신 침략자들이 그들의 추수와 매년 있는 축제를 망쳐놓았음을 가리킨다.

이 절에서 “즐거움”을 그치게 한다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 즐거움이 떠남, BDB 62, KB 74, *니팔 완료형*
2. 기쁨이 떠남(1 향과 같은 동사를 암시하고 있음)
3. 외침(또는 노래)이 없어짐, BDB 943, KB 1247, *푸알 미완료형*
4. 즐거운 소리가 없어짐, BDB 929, KB 1206, *풀라 미완료형*
5.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함, BDB 991, KB 1407, *히필 완료형*

16:11 누가 말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1. 하나님(매예, BDB 588, 즉 63:15; 렘 31:20)
2. 선지자
3. 의인화된 모압

12 절을 고려할 때 말하는 자는 모압(3 향)이 아니다. 13 절을 볼 때 2 향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15:5,9 의 내용과 메시아에 대한 암시인 5 절을 고려하여 볼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인해 슬퍼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위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거짓된 희망인 거짓된 신들에게로 향해 갔다!



NASB, REB “길 하레셋”

NKJV, NRSV,

TEV, NJB “길 헤레스”

맞소라 본문의 내용이 NKJV 에서 반영되었는데, 더 짧은 형태가 NASB 에 나온다(참조, 7 절; 이 도시는 15:1 에서 단순히 “길”로 언급된다).

16:12 이 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모압이 예물(1 절)을 예루살렘(5 절)으로 가지고 오지만, 자신의 교만함을 인해 야웨를 온전히 모시기를 거부한다(6 절). 야웨께서 그들을 돌보신다(15:5; 16:11).
2. 모압이 자신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15:2; 16:12) 우상들은 아무런 반응도 취할 수 없다.

개역개정 16:13-14

¹³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¹⁴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삼 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6:14 이것은 교만한 모압에게 곧(3 년 내) 임할 일에 대해 설명한다!

많은 국민이 있었고 부유했으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곡식을 거두었던 모압은 이제 “매우 소수의 무기력한 사람”들로 될 것이다! 역사상 일어난 이러한 역전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안정과 평화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

이사야 17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다메섹에 대한 예언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임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17:1-3 (1-3)	17:1-3 (1-3)	17:1-3 (1-3)	17:1-3	17:1-3 (1-3)
17:4-11 (4-11)	17:4-8 (4-8)	17:4-6 (4-6)	17:4-6	17:4-6 (4-6)
		17:7-8	17:7-8	17:7-8
	17:9 (9)	17:9	17:9	17:9-11 (9-11)
	17:10-11 (10-11)	17:10-11 (10-11)	17:10-11	
			적국들이 패함	
17:12-14 (12-14)	17:12-14 (12-14)	17:12-14 (12-14)	17:12-14	17:12-14 (12-1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17:1-3

¹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²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³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1 “다메섹” 이 도시는 아람/시리아의 수도였다. 시리아에 대한 공격과 그들의 멸망은 이미 7:16; 8:4; 10:9 에서 암시되고 있다. 이 도시는 북쪽과 북동쪽으로 통하는 무역로에 위치한 고대의(참조, 창 14:15; 15:2)의 중요 도시였다.

▣ 제 2 행과 3 행에 나타나는 동의어적 평행법을 주목하라. 티글랏 빌레셀 III 세는 주전 732 년에 다메섹을 부분적으로 멸망시켰다. 이것은 지방에 있는 앗시리아의 수도로서 재건축되었다. 모든 예언에 과장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하라(D. 브렌트 샌디의 *쟁기와 전정도구: 성경의 예언과 묵시적 언어에 대한 재고*를 보라).

17:2 “아로엘의 성읍들이” 이 구는 혼동을 준다.

1. 이것은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이다.
2. 이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 성읍이 있다(BDB 792, “나무” 혹은 “산의 정상”을 뜻할 것이다, AB 제 1 권 399 쪽). 이 성읍의 가능한 위치로 여겨지는 4 곳 가운데 3 장소는 시리아의 남부에 위치한다.
3. 70 인역은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REB 도 그러하다).
4. 폐쉬타는 이것의 철자를 아도엘로 나타낸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이 장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앗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정치적 군사적 연합을 이루었으며 유다로 하여금 이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연맹관계는 이 두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오는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나게 했다(참조, 7:16; 8:4; 10:9).

많은 경우 북쪽의 10 지파는 이스라엘이나 야곱으로 불렸고(4 절) 혹은 사마리아나 에브라임으로 불렸다(3 절).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룬 시기에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다.

아로엘은 아마도 아르논 강에 위치한 요새를 뜻할 것이다.

▣ 제 2 행과 3 행은 이곳이 완전히 멸망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될 것을 나타낸다.

17:3 시리아와 에브라임에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BDB 991, KB 1407, *니팔 완료형*). JPSOA 는 평행법을 강조하여 본문의 *매옐라임*을 *아람*으로 고쳐 “에브라임”(BDB 68)을 “아람”(BDB 78)으로 읽는 것을 각주에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첫 번째 연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 대한 것이라면 거기에 이미 평행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맞소라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3 절에 AB, BA 형태의 시적 구조(교차대조법)가 있다고 나는 이해한다.

▣ “아람의 남은 자” 이 구는 다음의 내용을 가리킬 것이다

1. 시리아의 권세가 미치는 곳으로서 남은 유일한 장소인 수도(또 이것이 멸망할 것이다, 6 절)
2. 수도가 멸망을 당할 때 그 피난민조차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 비록 3 절의 마지막 두 행이 긍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에브라임은 3a 절에서 멸망했고 지금은 시리아가 자신의 운명을 당하고 있다(풍자적으로 “영화,” 참조, 4 절). “영화”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가리킬 수 있다. 사르곤 II 세가 이끄는 앗시리아가 오랜 기간 동안 포위한 끝에 주전 722 년에 이 도시를 멸망시켰다.

▣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야웨께서 역사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에 대하여는 1: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개역개정 17:4-11

- ⁴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 ⁵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 ⁶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⁷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뵈겠고
- ⁸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 ⁹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 ¹⁰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 ¹¹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7:4 “그 날에” 이 본문을 어떻게 시적 구조(연)로 나눌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이 구는 새 연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다(참조, 4 절, 7 절, 9 절, 11 절). 시적 산문과 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역시 어려운 질문에 속한다(문단 구분과 시행의 구분이 여러 번역본에서 다양하게 나타남을 이 장의 맨 앞 부분에서 참고하라).

▣

NASB	“쇠하다”
NKJV	“지다”
NRSV	“낮아지다”
TEV	“끝나다”
NJB	“줄어들다”

이 동사(BDB 195, KB 233, *니팔 미완료형*)은 원래 낮은 곳에 맺힌 열매 혹은 가지를 뜻하는데, *니팔형*은 낮아진 것 혹은 낮은 곳에 놓인 것을 나타낸다(참조, 샛 6:6). *칼형*은 19:6 과 38:14 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부정적 문장의 처음 내용이다.

1. 영광이 쇠하고, 4 절
2.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된다, 4 절
3. 이스라엘이 잘리워 진다, 5 절
4.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아주 조금 남은 열매처럼 된다, 6 절

17:5 “**르바임 골짜기**” 이것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비옥한 계곡으로서 구약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참조, 삼하 5:18,22; 23:13; 대상 11:15; 14:9; 또한 이곳). 이것은 이사야의 환상이 원래 열매맺음이 위축됨을 나타내고 있음이 틀림없다(참조, 4 절). 왜 그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에 있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17:6 감람나무의 처음 열매는 나무를 흔들거나 쳐서 수확했다(참조, 24:13; 신 24:20). 대부분 매우 적은 수의 감람나무 열매만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 열매들은 가난한 자(즉, 이삭줍는 자)를 위해 남겨 두었다. 이사야는 살아 남은 자에 대한 상징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 “**두세 개 . . . 네다섯 개**” 이것은 개략적인 수에 대한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의 예이다.

17:7-8 이 두 절은 대조를 이룬다. 7 절은 회개를 8 절은 그들이 무엇을 섬기다가 돌이키는지(즉, 우상숭배)를 말한다. 이 두 절이 누구에게 대한 말씀인가에 대해 질문이 생긴다.

1. 이스라엘
2. 이스라엘과 시리아
3. 이스라엘, 시리아, 앗시리아
4. 고대 근동의 모든 국가(즉, “사람들,” *하야담*)

이것은 7 장, 9 장, 11 장과 평행을 이루는가? 또한 12-14 절(특히 14b 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가 약속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17:7 이 절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즉 하늘과 땅의 창조자 또는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 참조, 51:13)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주로 이사야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호칭) 사이에 평행법이 나타난다. 이 내용은 유일신 주의에 대한 암시이다!

17:8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다(즉, *바알*과 *아세라*, 3 행; 2:8,20; 30:22; 31:7).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 숭배

- I. 섬기는 까닭
 - 가. 고대인들이 사냥하고 양식을 수집하는 삶에서 유목생활을 거쳐 정착하였을 때 곡식과 짐승의 떼에 대한 필요가 생겼다.
 - 나. 고대 근동의 주민들은 자연의 힘 앞에 무력했다.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들은 계절의 정상적인 질서에 의존적이게 되었다.
 - 다. 자연의 힘은 신이 되어 사람들은 그 앞에서 탄원하고 이를 조절하려 했다.
- II. 어디서 왜
 - 가. 다산의 신을 숭배하는 일은 다음의 장소에서 발전되었다
 - 1. 이집트(나일강)
 - 2. 메소포타미아(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 3. 가나안(요단강)
 - 나. 고대 근동의 다산 숭배 예식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 다. 계절과 기후의 조건이 예측하지 못하게 변화하는 것은 신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신화는 영적 세계와 지구를 배경으로 인간과 신의 조화를 다룬다.
- III. 누가 어떻게
 - 가. 누가(남신들과 여신들)
 - 1. 이집트
 - ㄱ. 이시스(여신)
 - ㄴ. 오시리스(남신)
 - 2. 메소포타미아
 - ㄱ. 이스탈/이난나(여신)
 - ㄴ. 탐무스/두무시(남신)
 - 3. 가나안
 - ㄱ. 바알(남신)
 - ㄴ. 아세라, 아스탈테, 아낫(여신)
 - 나. 각 쌍의 신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신화화되었다
 - 다. 곡식과 가축과 사람의 번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간의 성적 결합(즉, 신들의 결혼)을 보는 마술적 모방이 행해졌다
- IV. 이스라엘 사람들
 - 가. 다산 숭배적 종교(특히 가나안의)를 피하라고 야웨의 백성이 경고를 받았다(즉 레위기와 신명기)
 - 나. 이러한 종교는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며 성적 행위에 강조점을 두었기에 매우 널리 대중화 되었다.
 - 다. 우상숭배는 야웨께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신뢰 대신에 어떤 종교적 혹은 의식적 방법으로 생명의 축복을 구하려는 시도이다
- V. 추천 도서
 - 가. W. F. 올브라이트,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
 - 나. J. H. 브레스넛, *고대 이집트에서의 종교와 사상의 발전*
 - 다. 제임스 G. 프렛저
 - 1. *아도니스, 앗티스, 오시리스*
 - 2. *구약의 전승*
 - 3. *자연 숭배*
 - 라. C. H. 고든, *성경 앞에서*
 - 마. S. N. 크래머, *고대 세계의 신화학(Mythologies)*

▣ “태양상” 이 용어(BDB 329 는 이것을 “태양 기둥”으로 부르지만 KB 329 는 이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분향 단”으로 부른다)는 우상숭배의 문맥에서 항상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레 26:30; 대하 14:5; 34:4,7; 사 17:8; 27:9; 겔 6:4,6).

17:9 이 절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곳으로 보인다. 이 절은 과장적인 농업적 은유를 사용하여 다가 올 심판에 대해 말한다(맛소라 본문)

1.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같이
2. 그들이 버린 가지같이
3. 그 땅이 황폐하리니

이 절은 70 인역과 이 번역을 따르는 JB, NRSV, REB(또한 JPSOA 는 각주에서 이것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매우 다르게 번역되고 있다. 이 구는 다음을 나타낸다: (1)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급속히 떠난 출애굽 또는 (2)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민족들(즉,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

17:10 이 절은 독특하게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며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1.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즉, 시 78:11,42)
2.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즉, 시 18:1-3; 78:3-5)
3. 낮은 신을 위해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참조, 1:29-30; 65:3; 66:17, 즉 신성한 정원이나 나무. 이것은 아도니스/탐무스라는 채소의 신으로서 이른 봄에 이들을 위해 꽃을 심었다, 참조, AB 제 6 권 318 쪽)

▣ “네 구원의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칭호이다(참조, 12:2; 17:10; 33:2; 45:17; 61:16; 62:11; 시 65:51; 68:19; 85:4). 구원은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가지신 소원을 부정하고 취소하게 하는 어떤 힘이나 압력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한다.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신 소망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네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신다(참조, 미 7:7; 합 3:13,18).

17:11 이것은 위에 있는 10 절의 3 항의 신성한 정원을 가리킨다.

1. 그들이 이것을 주의 깊게 심었다
2. 그들이 이것에 울타리를 둘렀다
3. 그들이 이것에 비료를 주었다

이것은 자라 매우 빠르게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다음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1. 한 더미를 이룬 추수
2. 병약
3. 고칠 수 없는 아픔(참조, 욥 34:6; 렘 15:18; 17:9; 30:12,15; 미 1:9)

개역개정 17:12-14

- ¹²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물려움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¹³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려움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4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17:12-14 이것은 17 장의 마지막 연이다. 이것은 평행법과 두 어근의 반복적인 사용이 특징을 이룬다.

1. BDB 242, KB 250, “중얼거림,” “투덜투덜 댐,” 으르렁거림, 혹은 “시끄럽게 함”
 - ㄱ. 명사, 12 절
 - ㄴ. 칼 부정사 연계형, 12 절
 - ㄷ. 칼 미완료형 동사, 12 절
2. BDB 980, KB 1367, “으르렁거림,” 대소동, “큰 소리,” 혹은 “부딪힘”
 - ㄱ. 명사(BDB 981), 12 절
 - ㄴ. 명사(BDB 981), 12 절
 - ㄷ. 니팔 미완료형 동사, 12 절
 - ㄹ. 명사(BDB 981), 13 절
 - ㅁ. 니팔 미완료형 동사, 13 절
3. 평행을 이루는 은유, 13 절
 - ㄱ. 겨같이, 13 절
 - ㄴ. 티끌같이, 13 절

야웨의 고향소리가 민족들이 소동하며 내는 소리보다 더 커서 이를 인해 그들이 물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하셨듯이 무질서한 물을 이기실 것이다(참조, 시 29 편).

4. 대조
 - ㄱ.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 ㄴ.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5. 동의어, 14 절
 - ㄱ. 노략한 자, BDB 1042, KB 1367, 칼 능동 분사
 - ㄴ. 강탈한 자, BDB 102, KB 117, 칼 능동 분사

17:14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 구에는 동사가 없는데 그것이 있었다면 강조를 나타내었을 것이다. 이 행은 12-14 절에 대하여 회복을 이루는 문맥이다. 이 연은 시편 2 편과 평행을 이루는 사상으로 되어있다. 야웨께서 나라들을 보내시지만(즉, 자신의 언약 백성이 불순종하고 또 신실함이 없음을 인해 벌하려고)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10:33-34 에 나온다.

이사야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을 빛이 오는 것과 연결시킨다(참조, 8:22-9:2; 17:14; 29:18; 30:26; 33:2; 42:16; 49:9-10; 58:8,10; 60:1-3,19-20).

▣ “몫” 이 용어(BDB 324)는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은 제비가 아무렇게나 운명이나 일을 결정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뜻한다(참조, 렘 13:25).

이사야 18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디오피아에 대한 메시지	이디오피아에 대한 선포	이디오피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를 벌하신다	구스에 대하여
18:1-7 (1-7)	18:1-2 (1-2)	18:1-2 (1-2)	18:1-2	18:1-6 (1-6)
	18:3 (3)	18:3-6 (3-6)	18:3-6	
	18:4-6 (4-6)			
	18:7	18:7	18:7	18:7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8:1-7

¹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²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³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꺾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⁵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짚어 버려서
⁶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⁷ 그 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18:1

NASB “아아 슬프다”
 NKJV, 폐쉬타 “화로다”
 NRSV, JPSOA “아”

이 감탄사(BDB 222)는 예언서에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1:4,24; 5:8,11,18,20,21,22; 10:1,5; 17:12; 18:1; 28:1; 29:1,15; 30:1; 31:1; 33:1; 45:9; 55:1). 대부분의 경우 이 단어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갖는 어두운 면을 나타낸다. 한편 사 18:1; 55:1; 렘 47:6 과 같은 곳에서 이 단어는 동정이나 연민을 나타낸다.

▣

NASB, NRSV “날개 치는 땅이여”
 NKJV “윙윙거리는 날개로 그늘진 땅이여”
 TEV “날개 소리가 들리는 땅이여”
 NJB “땀도는 메뚜기가 있는 땅이여”
 70 인역 “배가 있는 땅의 날개여”
 폐쉬타 “날개의 그늘이 있는 땅이여”
 REB “항해하는 배들의 땅이여”(아랍어와 아람어의 동계어, 탈군, 70 인역에서)
 JPSOA “날개의 질은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여”

이 단어(츨라찰, BDB 852)의 어근은 여러 의미를 가진다.

1. 852 I, 곤충의 날개가 날개치고 윙윙거림
2. 852 II, 전투에서 창이 윙윙거리며 날아감(참조, 욥 40:31)
3. 자음은 같지만 모음을 달리하여, 윙윙거리는 메뚜기(참조, 신 28:42)
4. 복수형, 타악기의 진동(참조, 삼상 6:5; 대상 13:8; 시 150:5)

5. 관련된 **동사**(**칼랄**, BDB 852), 울렁거리다(참조, 삼상 3:11; 왕하 21:12; 렘 19:3) 혹은 흔들리다(참조, 합 3:16)
6. 853 II, 가라앉다(참조, 출 15:10)
7. 853 III, 어둡게 되다(참조, 느 13:19; 겔 31:3)
8. 관련된 **명사**, **첼**, 그림자(참조, 사 4:6; 16:3; 25:4,5; 30:2,3; 32:2; 34:15; 38:8; 49:2; 51:16(JPSOA 는 이 구를 이 뜻으로 번역한다))



NASB, 맞소리,
 NJB, REB “구스”
 NKJV, 70 인역,
 페쉬타 “이디오피아”
 NRSV 각주 “느비아”

이것은 나일 강의 첫 번째 폭포 남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창세기에서 “구스”로 알려졌다(BDB 468, 참조, 창 2:13; 10:6,7,8). 헬라시대에는 이곳이 “이디오피아”로 알려졌다. 오늘날 이 지역은 수단과 이디오피아에 걸쳐 있다(TEV의 각주, 625 쪽).

이 문맥(즉, 19 장)에서 이것은 이집트의 제 25 왕조인 누비안 통치자를 가리킬 것이다(즉, 피안치아, 샤바카).

한편 이 백성들이 “구스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로 불림을 주목하라. 아마도 이집트 자신이 용병을 기다리고 있음을 뜻한다!

18:2 “갈대 배” 언뜻 보기에 이것은 나일 강에서 행해하는 배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배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도 사용되었다(참조, 제임스 M. 프리먼, *성경의 풍습과 관습*, 2560 쪽).

▣ “가라” 이것은 **칼 명령**이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1. 구스의 사자
2. 이집트의 사자
3. 구스 남쪽의 용병이 보내는 사자
4. 앗시리아의 사자
5. 야웨와 야웨의 언약백성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모든 군대

이사야는 정규적으로 역사적 상황을 다루다가 종말적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당시의 사건과 위기는 역사의 정점을 이루게 될 결론적 사건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예언서를 어느 한 가지 역사적 상황(때, 장소, 사람)으로 고정시키기가 어렵게 한다. 우주적 결과와 목적은 현재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다.

▣ 이 절은 이 민족의 특징을 말한다.

1. 배를 타는 민족(즉, 나일의 갈대 배, BDB 479 가 BDB 167 과 함께 사용됨)
2. 키가 큰 민족(BDB 604, KB 645, **푸알 분사**, 문자적으로 “늘이다”)
3. 준수한 백성, BDB 598, KB 634, **푸알 분사**(대머리 또는 날을 간 칼과 매끄러운 피부의 사람을 뜻한다; [1] 흠이 없음, REB, TEV, “매끄러운 피부” [2] 고정된 색, “구리빛,” NJB; 혹은 [3] 깨끗하게 면도하여 얼굴에 털이 없는)
4. 멀리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5. 강한 백성(히브리어로는 뜻이 불확실함, 아마도 “다른 언어”를 뜻하는 관용어일 것임)
6. 압제하는 백성(히브리어로는 뜻이 불확실함)
7. 강에 의해 땅이 나뉜 곳(히브리어로는 뜻이 불확실함, 이 **동사**(BDB 102, KB 107, **칼 완료형**)는 이 장에서 두 번만 사용되었다. “나뉜다”라는 번역은 아람어의 뜻에 기초한다.

REB는 “징벌의 땅”으로 번역하여 해마다 있는 범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단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킬 수도 있다)

2-6 항의 내용은 7 절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 설명은 나일 강의 첫 번째 폭포 남쪽에 있는 키가 크고 검은 피부를 가진 호전적인 민족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내용이다.

한편 이 문맥은 이집트가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적 동맹을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대한”으로 번역된 용어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뜻으로 번역되지 않았다. 3 절에 나타난 세계적 연결고리는 누구라도 야웨의 심판에서 어떤 민족을 구할 자가 없음을 이 시가 뜻하게 한다. 이집트도 또 호전적 민족으로 알려진 그 어떤 민족도 유다를 도울 수 없고(참조, 7 장), 오직 야웨만 그들을 도우실 수 있다.

문맥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이 생긴다

1. 18 장은 독립적인 시인가?
2. 18 장은 17 장과 관련이 있는가?
3. 18 장은 19 장과 관련이 있는가?

■

NASB	“강성하여 대적을 밝는 백성”
NKJV	“강성하여 짓밟는 백성”
NRSV	“힘있어 정복하는 백성”
TEV	“강하고 강성한 백성”
JPSOA	“말을 빨리 지껄이고 떠드는 백성”

70 인역과 페쉬타는 패배한 백성에 대한 것으로 이 본문을 번역하는데 현대 번역본들은 이러한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민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명사가 사용되었다.

1. “강함”(BDB 876)이 중복된다. 이것은 이 용어의 뜻을 강화하거나(즉, 진군하는 그들의 군대가 내는 소리, IVP 성경배경주석 608 쪽) 혹은 JPSOA 와 같이 그들의 언어를 묘사하는 의미로 이것을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
2. 두 번째 용어(BDB 101)는 문자적으로 “발로 짓밟다”(NKJV)로서 정복자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18:3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이사야는 이 포괄적인 그룹의 사람에게 여러 번 말한다(참조, 2:2-4; 9:7; 11:10,11-12; 12:4-6; 17:7-8; 26:9). 야웨의 언약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용어는 전 세계적 구속 혹은 심판을 가리킨다(참조, 13:11; 24:4; 34:1). 어떤 의미에서 “세상”(BDB 385)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야웨의 힘과 임재하심이 세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이는 문학적 단락이 주위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야웨께서 행하심은 온 땅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누가 3 절의 메시지를 보내며 또 누구에게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

1. 구스가 아시리아에게
2.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연합국이 구스에게(NRSV 각주)
3.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나라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협력을 구하는(REB 각주)
4. 유다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구스가 이에 응하는(유대인 연구성경 각주)
5. JB 각주는 당시의 바로가 누비아 사람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본문 전체가 이집트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17 장이 아니라 19 장과 한 문맥적 단위를 이룰 것이다!
6. 아시리아가 세상에 대해
7. 야웨께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백성에 대해 대항하는 모든 인간에게(참조, 시 2 편)

이와 같이 우리는 모호하면서도 강력한 히브리 시의 비유적 표현을 다시금 접했다.

▣ 전쟁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나타난다(즉, 기를 세우고 나팔을 부). 이러한 상징은 다음을 나타낸다

1. 심판(참조, 5-6 절)
2. 구원(참조, 7 절)

이 짧은 시가 땅의 혼란 대 하늘의 평온함을 또한 심판으로 보이는 내용을 초청으로 바꾸어 얼마나 놀랍게 잘 나타내고 있는지(즉, 2:2-4; 11:10; 49:6; 51:4-8)!

18: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것은 이사야가 자신이 받은 영감에 대해 말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언급이다. 그의 메시지는 그의 것이 아니라 야웨의 것이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주제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성경으로 나아와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 반드시 답해야 한다. 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성경 해석 세미나”의 두 번째 강의인 “구약의 진실성” 과 “신약의 진실성”에 대한 설교를 참조하라.

▣ 2-4 행은 구스 혹은 앗시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다(두 **청유형**) (1) 모리아 산에서, 이 장소에 세워진 성전의 언약계 위에 있는 그룹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혹은 (2) 하늘에 대한 언급으로써(참조, 왕상 8:39,43,49).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비치고 있다!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은 결코 정복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절은 그러한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3 절) 유다는 야웨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다(즉, 7:4; 8:8). 유다는 시리아/이스라엘 혹은 이집트와의 동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앗시리아는 완전히 패할 것이다.

야웨의 보호하심, 하늘의 평온함과 평화가 땅 위의 혼란과 대조를 이룬다. 이 점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2-3 장과 4 장에서는 땅 위의 혼란을 말하는 반면 5-6 장에서는 하늘 보좌 앞의 조용함과 평온함을 묘사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문학적 구조이다! 역사는 우연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절정을 향해 가도록 설계하시고 지휘하시는 도구이다!

18:5 심판에 대한 야웨의 말씀이 농업적 비유로서 제시되는 이러한 용법은 이사야에서 자주 나온다.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일은 매해 농작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을 것이다.

이것은 신속하게 임하는 심판을 가리키는 은유이다(참조, 17:14).

18:6 사람들의 죽음은 새와 들짐승에게 잔치를 제공할 것이다.

18:7 이 백성들의 남은 자들(혹은 모든 이방 세계)이 위협이 아닌(참조, 3 절) 야웨께 드리는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 오기 위해 사자를 보내는 때가 오고 있다(참조, 7 절, 6 행). 선물은 야웨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제사/종교적 상징물일 것이다. 1-2 절에 나오는 원수들이 이제 예배자들이 되었다! 이것은 창 3:15의 성취이다(1:3의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견을 보라). 구속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그의 영적 자녀를 포함한다(참조, 롬 2:28-29)!

▣

NASB, NKJV,

NRSV, REB,

70 인역

“~로 부터”

NJB

“대신하여”

맛소라 본문에 “백성”(BDB 766 I)이라는 **명사**는 있지만 **전치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아마도 백성들 자신이 예물이 된다.

사해사본과 70 인역과 벌게이트역에는 “~로 부터”라는 **전치사**가 나타난다.

이사야 19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집트에 대한 메시지	이집트에 대한 선포	이집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하실 것이다	이집트에 대하여
19:1-4 (1-4)	19:1 (1)	19:1-4 (1-4)	19:1-4	19:1-4 (1-4)
	19:2-4 (2-4)			
19:5-10 (5-10)	19:5-10 (5-10)	19:5-10 (5-10)	19:5-10	19:5-15 (5-15)
19:11-15 (11-15)	19:11-15 (11-15)	19:11-15 (11-15)	19:11-15	
		이집트와 앗시리아의 회개	이집트가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집트의 회개
19:16-17	19:16-17	19:16-17	19:16-17	19:16-23
	복받은 이집트, 앗시리아, 이스라엘			
19:18	19:18	19:18	19:18	
19:19-22	19:19-22	19:19-22	19:19-22	
19:23	19:23	19:23	19:23-25	
19:24-25	19:24-25	19:24-25		19:24-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19:1-4

¹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²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³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⁴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9:1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것은 야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말하기 위한 은유이다

1.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2. 자연의 힘을 주관하시는 분
3. 그의 오심이 신속함

시 18:10; 104:3 을 보라. 이 표현은 단 7:13 과 마 26:64; 막 14:62 에서 메시아와 관련을 가진다.

야웨께 대해 사용된 구약의 여러 표현이 고대 근동의 이방신이나 통치자들에 대해 비슷하게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안다. 구름을 타는 것이 우가랏 시에서 바알에 대해 사용되었다. 주위 국가의 민족들이 사용한 과장적 표현이나 주장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하나님인 자기들의 하나님 곧 그 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참된 성취를 이루는 분께 이러한 표현을 돌렸다. 야웨께 사용한 호칭인 “왕 중의 왕이요 만군의 주” 및 이러한 종류의 여러 표현도 같은 배경을 갖는다.

▣ “애굽에 임하시리니” 야웨의 임재하심은 다시금 심판(1-15 절)과 구원(16-23 절)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는 히브리 예언의 많은 부분에 나타난다. “역”으로 알려진 문학적 기법이 이 장르에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용법은 큰 범위에서 나타나는 반의어적 평행법(역설로서)과 비슷하다.

이집트는 심판을 받아 깨끗하게 될 것이고 야웨를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하기 위해 오셔야 되듯이 그들을 위해 오실 것이다. 야웨의 마음은 선택받은 한 민족(즉, 이스라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은 인류에게 향하여 있다(참조, 창 1:26-27). 하나님은 보다 커다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씨를 사용하신다(참조, 창 3:15)!

▣ “애굽의 우상들이” 이집트는 여러 신들을 섬겼다(출 12:12; 민 33:4). 이집트의 우상숭배와 영적 열심이 3 절에 나타난다.

1. 우상들(BDB 47)
2. 죽은 자의 영혼들(BDB 31,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됨)
3. 신접한 자(BDB 15, “강령술사,” 참조, 신 18:11)
4. 요술객(BDB 396, “마법사,” “영과 친밀함,” 참조, 신 18:11)

8:19 의 설명을 보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은 이스라엘인과 이집트인(즉, “수다한 여러 무리,” 참조, 출 12:38)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여러 우상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내린 재앙이었다.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나 영적 연결(즉, 영적 친밀성)으로써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참조, 레 19:31; 20:6,27; 신 18:11; 삼상 28:8; 왕하 21:6; 대하 33:6; 사 8:19; 19:3). 그들은 야웨를 떠나서 미래에 대해 알고자 했고 또 미래를 조종할 수 있는 지식을 구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타락한 성품
2. 자신을 속이는 제사장들/예언자들
3. 악령의 활동
4. 우리의 삶과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영적 능력에 대한 탐구

▣ 1 절의 마지막 두 행은 서로 평행을 이룬다.

1. 이집트의 우상들이 떨 것이다, BDB 631, KB 681, **칼 완료형**, 참조, 6:4; 7:2(2 회); 19:1; 24:20(2 회); 29:9; 37:22
2.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녹을 것이다, BDB 587, KB 606, **니팔 미완료형**, 참조, 13:7; 수 2:11; 5:1; 7:5(즉, “거룩한 전쟁”의 용어)

19:2 이 내용이 다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놀랍다

1. 나일 삼각주 지역에 있는 토착 이집트인에게 누비아 족의 통치자가 군사적 공격을 가함
2. 각각 자신의 독특한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의 도시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남

같은 민족 사이에 또 같은 군대 사이에 생기는 이러한 내적 갈등은 “거룩한 전쟁”의 또 다른 예가 된다(즉, 사 7:22; 삼상 14:20; 대하 20:23).

▣ “내가... 하리니” 이사야는 야웨를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2,3,4 절). 야웨는 다음의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1. 내전, 2 절
2. 사기의 저하, 3a 절
3. 혼란스런 자문/책략, 3b 절
4. 거짓된 우상을 의지함, 3c,d 절
5. 잔인한 지배자, 강력한 왕이 일어남, 4 절

▣

NASB, REB “내가 야기시킬 것이다”

NKJV “내가 만들 것이다”

NRSV, TEV,

NJB, 70 인역,

페쉬타 “내가 휘저을 것이다”

이 동사(BDB 696 I 혹은 BDB 1127)는 **핍핍형**으로 두 번 사용되었다(사 9:11 과 이곳).

문맥에서 이 단어는 다음을 뜻한다

1. 휘젓다
2. 선동하다
3. 자극하다(이디오피아어 어근)

아랍어 어근은 “악취를 풍기게 하다”(참조, NIDOTTE 제 3 권 233 쪽).

19:3 “깨뜨리다” 이 히브리 단어의 어근(BDB 118 I)은 일반적으로 “삼키다”를 뜻한다. 많은 학자들은 같은 어근이 “어리둥절하게 하다” 또는 “혼동하다”라는 제 2의 의미를 가진다고 추정한다(BDB 118 III, 참조, 3:12; 9:15; 28:7).

19:4 문맥(참조, 20:4)에서 이것은 (1) 앓시리아(참조, 20 장) 혹은 (2) 누비아족 침략자(참조, 18 장)를 가리킨다. 같은 용어가 램 46:26; 겔 29:19 에서 바벨론에 대해 사용되었다. 야웨께서는 세계의 제국을 사용하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당신은 이 내용이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듯이 고대 근동 왕이 사용한 전형적인 과장법에 속하는지 아니면 사실(즉, 성경의 세계관)을 나타내는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영감을 받은 저자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사용한 용어를 취하여 야웨께 대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유효성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 성경은 홀로 진실되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영감하시고 자기 계시를 하신 내용인가? 이 점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성경 해석 세미나”(2009 년에 개정된 비디오 세미나의 세 번째 강의)에서 “구약의 진실성”과 “신약의 진실성”에 대해 다룬 나의 설교를 참조하라.

▣ “내가 ... 붙이리니” 이 동사(BDB 698, KB 755, *피엘 완료형*)는 “손에 넘기다”를 뜻한다(참조, 탈굽, 70 인역, 폐쉬타). *피엘형*은 이곳에서만 나타난다. 이 동사의 *니팔형*이 창 8:2 과 시 63:12 에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멈추게 되다”를 뜻한다. *피엘형*의 의미는 고대 아람어 어근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두 개의 구분된 히브리 어근이 이 단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역개정 19:5-10

- ⁵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잿아서 마르겠고
- ⁶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 ⁷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 ⁸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 ⁹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베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 ¹⁰그의 기둥이 부스러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19:5-10 이 연은 야웨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심을 묘사한다.

1. 그들의 풍부한 나일 강물이 마른다.
2. 그 결과 강에 자라는 식물이 죽는다.
3. 그 결과 관계수를 대어 기르는 작물이 죽는다.
4. 그 결과 고기 잡는 자들이 탄식하고 피곤하게 된다.
5. 그 결과 천을 만드는 산업이 멈춘다.
6. 이집트 사회가 붕괴하고 곡물을 빵아 가루를 내는 일이 멈춘다.
7. 고용된 모든 노동자가 근심하게 된다.

세 개의 연관된 동사를 사용하여 물의 마름을 나타내고 있다.

1. “말라 버리다,” BDB, 677, KB 732, *니팔 완료형*, 5 절; 41:17; 램 18:14
2. “타다,” BDB 351, KB 349, *칼 미완료형*, 5,6 절; 11:15; 37:25; 44:27; 50:2; 51:10
3. “마르다,” BDB 386, KB 384, *칼 완료형*, 5,7 절; 15:6; 27:11; 40:7,8,24; 42:15(2 회); 44:27

하나님께서 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심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물은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유일한 물질이다).

1.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서로 나누심, 창 1:7
2. 물을 모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심, 창 1:9-10
3. 홍수를 보내심, 창 7:4,7
4. 홍수로 범람했던 물이 빠져 마르게 하심, 창 8:2-3
5. 하갈에게 샘물을 공급하심, 창 21:19
6. 홍해를 가르시고 또 다시 합쳐지게 하심, 출 14:16,27
7. 마라의 물을 깨끗게 하심, 출 15:22-25
8.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공급하심, 민 20:8,11
9. 언약을 순종하면 농업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심, 신 27-28 장
10. 요단강을 가르심, 수 3:14-17; 4:23-24
11. 나일강과 그 지류를 말리심, 사 19:5
12. 유프라테스 강을 말리실 것임, 계 16:12
13. 물이 새 성전(겔 47:1)과 예루살렘(슌 14:8)과 하늘에 있는 새 도시에서 흘러 나옴, 계 22:1

물은 사막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의 상징이었기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으로 강력한 기적이었고 그 증거였다. 나일강이 이집트인의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음을 기억하라(태양신 *레*를 중요하게 여겼듯이, 참조, 18 절).

19:6 “악취가 나겠고” 이 동사(BDB 276 II, KB 276, *하필 완료형*)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아람어 어근을 반영한다. 많은 양의 죽은 초목이 썩기 시작한다!

19:9

NASB, NJB	“흰 옷”
NKJV	“고운 천”
NRSV, REB	“창백하게 되다”
70 인역	“베옷”
JPSOA	“원통해 하다”

맛소라 본문에는 *호라*, “흰 옷”(아람어에 평행으로 나타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단 7:9 을 보라)으로 되어 있는데 평행법에 의하면 *하유히*, “창백하게 되다”(참조, 사 29:22 과 사해사본에 있는 이 본문)가 더 잘 들어 맞는다. “흰”(홀, BDB 301)과 관련된 언어유희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19:10

NASB	“기둥들”
NKJV, JPSOA	“그 기초들”
NRSV, TEV,	
NJB	“직물을 짜는 자들”

맛소라 본문(BDB 1011, 오직 이곳)은 “기초” 혹은 “계층”(사회)으로 되어 있어 상류 지도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직물을 짜는 자들”은 제 2 행에 나오는 “품꾼들”(사해사본, 아람어 어근을 사용하는 탈굼, “직물을 짜는 자들”)과 평행을 이루는 내용을 찾는 자들의 견해이다. 문제는 “이것이 동의어적 평행법(직물을 짜는 자들)을 이루는가 아니면 반의어적 평행법(상류층과 하류층)을 이루는가 하는 점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모호하게 되어 있다(참조, 70 인역과 페쉬타).

개역개정 19:11-15

- ¹¹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라
- ¹²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 ¹³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잇들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 ¹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게 하였으니
- ¹⁵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19:11-15 이 연은 3 절의 자세한 설명이다.

1. 11 절, “소안의 방백”(삼각주 지역에 있던 수도인 타니스)들은 순전히 바보였다(BDB 17, 램 4:22 에서는 유다에 대해 사용됨)
2. 11 절,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충고가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문자적으로 “이성이 없는,” BDB 129 II, KB 146, *니팔 분사*, 참조, 램 10:14,21; 51:17)
3. 13 절,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게 행동했다”(BDB 383, KB 381, *니팔 분사*, 참조 램 5:4; 50:36)
4. 13 절, “멤피스(이집트의 또 다른 수도인 놉)의 방백들이 미혹되었다”(BDB 674, KB 728, *니팔 완료형*; *히필 완료형*이 창 3:13 에서 사용됨)
5. 13 절, “그릇 가게 하였다”(BDB 1073, KB 1766, *히필 완료형*, 참조, 14 절; 3:12; 9:16; 램 23:13,32; 호 4:12; 미 3:5)
6. 14 절, “잘못 가게 하며 . . . 비틀거리게 함”(5 항과 같은 동사임, 여기서는 술취함을 뜻함)

19:11 제 4 행은 지혜자의 그룹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속했던 것과 유사한 그룹을 말한다. “자손(아들)”은 “어떤 그룹의 구성원”을 뜻하는 단어이다.

19:12 야웨께서 비꼬는 수사적인 질문을 하신다. 이것은 **지시형**(즉, “그들로 하여금 . . . 하게 하라”)의 의미를 갖는 두 **미완료형**으로 이어진다(BDB 616, KB 615 와 BDB 393, KB 390).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했다(11d 절; 왕상 4:30; 행 7:22). 그들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3b 절) 그들의 지혜와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이다(12a 절).

19:13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잇들이거늘**” 여기서 “모퉁잇들”(BDB 819)은 지도자를 가리킨다(참조, 삿 20:2; 삼상 14:38).

19:14

NASB, 70 인역 “섞으셨으므로”
 NKJV, 폐취타 “혼합하셨으므로”
 NRSV, JB “부으셨으므로”
 REB, NJB “불어 넣으셨으므로”

맛소라 본문에는 “섞다”(마삭, BDB 587, KB 605, 칼 완료형)라는 동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독주를 의미한다(참조, 5:22). 사 29:10 에 비추어 볼 때 이 단어는 나삭“붓다,” BDB 650, KB 703, 칼 완료형)인 것이 분명하며 사해사본의 본문의 지지를 받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술취함이 혼란과 불안정을 뜻하는 은유인 것은 분명하다.

19:15 두 번째 행에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뜻하는 두 관용어가 나온다(참조, 9:14-15).

1. 머리 - 꼬리
2. 종려나무 - 갈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무능력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주장하던 자들(참조, 11d, 12a, 13c 절)은 지혜롭지 않은 자들로 드러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의지한 것이 (1) 거짓 신들과 (2) 거짓된 종교주의자들과 (3) 빈약한 계획(참조, 3 절)이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참조, 11-12 절)은 이집트의 품꾼들(참조, 8-10 절)과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 19:16-17

¹⁶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¹⁷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19:16-17 이것은 야웨께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17b 절, BDB 420) 행하실 일(즉, “만군의 주께서 손을 흔드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1. 이집트 사람들이 부녀처럼 될 것이다, 16 절
2. 그들이 떨 것이다, 16 절(BDB 353, KB 350, 칼 완료형)
3. 그들이 두려워 할 것이다, 16 절(BDB 808, KB 922, 칼 완료형)
4. 유다가 이집트에 공포를 가져올 것이다, 17 절(동사, 칼 완료형, 명사, “공포,” BDB 291, 하지만 이곳에서만 사용됨)
5. 그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17 절(BDB 808, KB 922, 칼 미완료형, 3 항을 보라)

19:16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날에”라는 구가 이 마지막 다섯 연을 연결시킨다(참조, 16, 18, 19, 23, 24 절). 마찬가지로 야웨를 가리키는 이 반복적인 칭호도 같은 역할을 한다(참조, 16, 17, 18, 20, 25 절 및 야웨만 사용된 19, 20, 21, 22 절). 언약의 하나님은 열방을 위한 놀라운 구속을 말하는 이 연들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일하신다!

개역개정 19:18

¹⁸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19:18 이것은 분리된 단락이다. 이것은 회개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야웨를 예배함을 나타낸다.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를 뜻할 것이다(BDB 488 I). 이것은 사 6:5 혹은 창 11:1 에 대한 암시이다.

“맹세하는”(BDB 989, KB 1396, *니팔 분사*)은 유다의 하나님과 갖는 새로운 관계를 나타낸다(참조, 19-22, 23, 24-25 절).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목적하는 바이다!

▣ “그 날에” “그 날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됨을 주목하라, 16, 18, 19, 20, 23, 24 절. 이 표현은 미래의 특별한 때를 가리킨다.

1. 심판과 두려움의 날, 16-17 절
2. 회심의 날(18, 19-22 절)과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23, 24-25 절)

현재의 위기(참조, 20 절)는 고대 근동에서 종말론적 사건을 나타냄을 다시금 인식하자. 이것이 회심을 나타내지만 모든 이의 회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즉, 10 의 절반, 11:12 의 특별주제: 성경의 상징과 숫자를 보라). 남은 질문은 “이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가?”이다.

1. 유대인들이 정착한 도시들
2.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도시들

19-22, 23, 24-25 절을 고려할 때 나는 2 항을 지지한다. 이 문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에 대한 것이다.

▣ NASB, NKJV “멸망의 성읍”

NRSV, TEV,

NJB “태양의 성읍”

맛소라 본문에서 “멸망”(BDB 249)은 이곳에서만 나타난다. 같은 어근을 갖는 **동사**(BDB 248)는 “던져 버리다,” “부수다,” 혹은 “헐다”를 뜻한다. 이것은 “태양”신(은, 헬리오폴리스)을 섬긴 이집트의 도시에 대한 언어유희일 것이다.

1. *하헤레스(hhrs)*, 태양의 성읍(BDB 357, 참조, 사해사본, 탈군, 별게이트)
2. *하헤레스(hhrs)*, 멸망의 성읍

이것은 *레*(태양신)에게 바쳐진 전이 부숴질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어에서는 “태양”과 같은 자음을 가진 단어가 “멸망”(즉, 멸망시켜 바침)을 뜻한다. 다중적 언어유희가 이곳에 나타난다.

개역개정 19:19-22

¹⁹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²⁰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²¹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²²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19:19

NASB, NKJV,

페쉬타

“애굽 땅 한 가운데는”

NRSV, NJB

“애굽 땅 중앙에는”

REB

“애굽의 가슴에는”

70 인역

“그 변방에는”

이 용어(BDB 1063)는 수 3:17; 4:3,9,10,18 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언저리”로 해석해야만 한다. 이 점은 70 인역이 “그 변방에는”으로 번역한 배경이 된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

1. 유대인 용병들이 주전 525년 이전에 나일강에 있는 한 섬에 세운 유대인의 작은 성전(엘리판틴, 나일강의 첫 번째 폭포가 있는 오늘날의 에스완)
2. 예루살렘에서 축출된 유대인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IV 세가 주전 160년 경에 레온토폴리스에 세운 유대인의 성전(예루살렘 성전을 본따 지음, 참조, 요세푸스, *Antiq.* 12.9.7; 13.3.3)
3. 종말론적 사건

19:19-20 야웨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가 이집트에 세워진다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랄만한 일인가!

19:20 이러한 일의 진행이 사사기서에서 야웨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 행하셨는가와 대조를 이룬다. 적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것을 차지하는 혹독한 심판(참조, 4 절)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 이심을 믿었다. 이집트가 그러한 영적 상태에 이르렀고 야웨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이 문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되는지! 언약 백성의 적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완전히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진실로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시다(참조, 요 3:16; 딤후 1:3; 2:10; 3:4).

▣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문맥에서 이것은 4 절에 나오는 잔인한 군주와 포악한 왕을 패배시킬 자를 가리키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적 의미를 지닌다. 이사야서에서 “구원자”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이가 아닌 야웨 자신(참조, 43:3,11; 45:15,21)을 가리키지만, 신약에서는 야웨를 대표하는 자로서 메시아가 행하심을 나타낸다(즉, 사 28:16; 롬 9:30-33; 10:9-13; 뱀전 2:6-10).

1. 구원자, BDB 446, KB 448, *히필 분사*
2. 변호자, BDB 936, KB 1224, *칼 분사*
3. 구출자, BDB 664, KB 717, *히필 완료형*

19:21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알다”(BDB 393, KB 390)와 관련된 언어유희로서 지식적인 앎과 개인적 관계를 통한 앎을 다 말한다.

특별주제: 알다(대부분의 경우 신명기에서 전형적인 예를 들음)

히브리어 단어 “알다”(BDB 393)는 *칼 동사형*에서 여러 의미(의미론적인 범위)를 가진다.

1. 선과 악을 이해하는 것 - 창 3:22; 신 1:39; 사 7:14-15; 수 4:11
2. 이해를 통해 아는 것 - 신 9:2,3,6; 18:21
3. 경험을 통해 아는 것 - 신 3:19; 4:35; 8:2,3,5; 11:2; 20:20; 31:13; 수 23:14
4. 숙고하는 것 - 신 4:39; 11:2; 29:16
5. 개인적으로 아는 것
 - ㄱ. 사람 - 창 29:5; 출 1:8; 신 22:2; 33:9
 - ㄴ. 신(god) - 신 11:28; 13:2,6,13; 28:64; 29:26; 32:17
 - ㄷ. 야웨 - 신 4:35,39; 7:9; 29:6; 사 1:3; 56:10-11
 - ㄹ. 성(sexual) - 창 4:1,17,25; 24:16; 38:26
6.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 - 사 29:11,12; 암 5:16
7. 지혜롭게 되는 것 - 신 29:4; 잠 1:2; 4:1; 사 29:24
8. 하나님의 지식
 - ㄱ. 모세의 - 신 34:10
 - ㄴ. 이스라엘의 - 신 31:21,27,29

▣ “경배하다” 언급되고 있는 예배(BDB 712, KB 773, **칼 완료형**)의 요소를 주목하라.

1. 제물, BDB 257
2. 예물, BDB 585
3. 경배, BDB 623, KB 674, **칼 완료형**

이러한 요소들은 단지 예배 의식으로써만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삶의 양식(즉, 맹세)을 갖고 살 것을 나타낸다(BDB 1022, KB 1532, **피엘 완료형**, 문자적으로 “행하다”).

19:22 야웨께서 언약 백성에게 행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집트에 행하신다.

1.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2 회, BDB 619, KB 669)
2.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209 절
3.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다(2 회, BDB 950, KB 1272)
4.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BDB 996, KB 1427, 이것은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 용어이다)
5.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BDB 801 I, KB 905, **니팔 완료형**, 창 25:21; 대하 33:13; 스 8:23 에서 **미완료형**을 보라. 회개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야웨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심판(즉, 치심)의 목적은 야웨와의 관계를 세우기(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를 회복시키기) 위함임이 분명하다.

개역개정 19:23

²³그 날에 애굽에서 앓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앓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앓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앓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19:23 열방이 야웨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유롭게 몰려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열방이 왔다!

얼마나 많이 이사야가 대로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가는 매우 흥미롭다.

1.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대로, 11:16; 57:14
2. 이방인 예배자들이 오는 대로, 19:23
3. 거룩함의 대로, 26:7; 35:8; 43:13; 49:11; 51:10
4. 메시아의 대로, 40:3; 42:16

개역개정 19:24-25

²⁴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앓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²⁵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앓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19:25 이것은 이전에 미운 자였던 이집트 사람과 앓시리아 사람들에게 사용된 언약적 표현이다.

이 내용을 45:14-17 과 비교해 보라.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가! 이것을 함께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즉, 사랑을 입은 열방, 심판을 받은 열방). 나는 22 절을 취한다! 나는 20 절을 취한다!

이사야 20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한 예언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한 징조	이집트에 대하여	벌거벗은 선지자의 징조	아스돗이 함락될 것에 관련하여
20:1-6	20:1-6	20:1-6	20:1-6	20:1-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0:1-6

¹앗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²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³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⁴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가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⁵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⁶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20:1 이 절은 아스돗(블레셋의 주요 5 도시의 하나—아스돗, 아스켈론, 가자, 갓, 예그론)의 멸망을 말함으로써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야웨의 심판의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준다. 한 도시의 멸망은 전 도시의 멸망을 뜻했다(14:28-32 에 있는 앞선 시기의 예언을 보라).

그들은 두 번 멸망했다 (1) 앗시리아의 왕인 사르곤 II 세(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특별히 언급됨, 그는 주전 722-705 년에 다스렸다)에 의해. 주전 713 년에 아스돗의 왕인 아주리가 반역하였을 때 사르곤 II 세의 군대가 주전 711 년에 와서 반란을 진압했다. (2) 또한 산헤립이 주전 705-701 년에 이 성읍을 멸망시켰다.

한편 이 장은 블레셋(또는 “해변 지역,” 참조, 6 절)의 멸망에 대한 새로운 예언이 아니라 18 장에서 시작된 구스/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계속이다. 아스돗의 낮아짐은 이집트 사람들을 앗시리아 군대가(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해) 부끄럽고 비굴한 모습으로 포로로 잡아갈 것을 예시하였다. 이집트 군대가 전쟁에서 사로잡히고 포로로 끌려갔다.

▣ “군대장관” 이 용어(BDB 1077)는 전투 사령관을 뜻한다(참조, 왕하 18:17 또한 사 36:2 를 주목하라. 왕하 18 장에서는 사령관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의 직책명은 기록되지 않았다).

20:2 이사야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애도를 나타내고(15: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방법의 의상을 하도록(더 낮게 표현하면 옷을 벗도록) 말씀을 받았다. 앗시리아에 패하여 여러 나라가 사로잡혀갔다.

1. 아스돗(블레셋)
2. 이집트
3. 구스 또는 누비안 왕조인 이집트의 제 25 왕조의 동의어.

아스돗에 일어난 일은 3 년 안에(참조, 3 절) 이집트에 일어난다.



NASB, NRSV,

 폐쉬타 “베를 느슨하게 하고”

NKJV

 “베를 제거하고”

TEV, 70 인역

 “베를 끄르고”

REB

 “벗고”

자주 사용된 이 동사(BDB 834, KB 986, *피엘 완료형*)는 기본적으로 “열다”를 뜻한다. 따라서 문제는 “이것이 ‘느슨하게 함’(슬퍼함)을 뜻하는가 아니면 ‘벗어 버리는 것’(부끄러움)을 뜻하는가”이다.

1. “제거하다,” NIV, 시 30:11; NASB 는 “느슨하게 하다”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를 사 52:2; 렘 40:4 에서는 “제거하다”로 번역하였다
2. “느슨하게 하다,” 사 5:27

일반적으로 “베옷”(BDB 974)을 입는 일은 맨발로 걷는 것처럼(참조, 미 1:8)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였다. 하지만 이사야가 자신의 선지자직을 나타내는 상징을 제거함을 뜻할 가능성이 있다(“털 있는 겹옷,” BDB 12 가 BDB 972 와 함께 사용됨, 참조, 마 3:4). 만일 그렇다면 본문은 나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그러나 2,3,4 절에서는 “벌거벗은” BDB 736 을 뜻할 것이다, 참조, 창 2:25). 한편 대부분의 경우 “벌거벗은”은 부분적으로 옷으로 가린 것을 나타낸다(참조, 47:1-3; 삼상 19:24; 삼하 6:14,20; 암 2:16; 미 1:8; 요 19:23; 21:7).

20:3 “징조” 이 명사(BDB 16)는 다음의 내용을 나타낸다

1. 시간의 표시, 창 1:14
2. 사람의 구분, 창 4:15
3. 언약의 표시, 창 9:12,13,17; 17:11
4. 믿음에 따른 약속의 표시, 출 3:12
5.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적(즉, 모세), 출 4:8(2 회),9,17,28,30; 7:3; 8:23 등
6. 지파의 기, 민 2:2; 시 74:4
7. 경고, 민 16:38; 17:10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1. 특별한 출생, 7:14
2. 이사야의 자녀, 8:18
3. 이집트에 있는 제단과 기둥, 19:20
4. 이사야의 옷, 20:3
5. 추수, 37:30
6. 예루살렘을 앗시리아로부터 건짐, 38:7
7. 히스기야의 병고침, 38:22
8. 거짓 증거, 44:25
9. 농업적 축복, 55:13
10. 열방을 향한 전파자들, 66:19



NASB “예표”
NKJV, 폐쉬타 “놀라운 일”
NRSV, REB,

NJB, 70 인역 “전조”

“놀라운 일,” “징조,” “전조”라는 뜻의 이 용어(BDB 68)는 “징조,” “표식”(BDB 16)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두 번만 나온다(즉, 8:13 과 20:3).

BDB 는 이 단어의 두 가지 주요 의미를 말한다.

1.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나타냄
2.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예표나 상징적 행위(참조, 슄 3:8).

20:4 이 절은 포로로 감을 설명하고 있다.

1. 젊은 자와 늙은 자가 끌려 감(전 인구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2. 벌거벗음(BDB 736,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관용어로서 짝끼는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임)
3. 벗은 발(BDB 405, 슬픔을 뜻하는 관용어)
4. 볼기를 드러냄(BDB 1059,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이곳과 삼하 10:4 에서만 사용됨)
5. 수치/벌거벗음(BDB 788, 앗시리아의 벽화를 보라)

이사야가 신학적 진리/예언을 나타내기 위해 3 년동안 부분적으로 벗은/벌거벗은 상태로 다님으로써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볼 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이 이 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벌거벗음은 포로로 잡혀감을 뜻하는 말로서 신명기에 기록된 저주의 하나였다(참조, 28:48).

20:5 구스/이집트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였기에(즉, 군대, 지혜, 부, 종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된다

1. 놀란다, BDB 369, KB 365, 칼 완료형, 참조, 7:8; 8:9(3 회); 9:4; 20:5; 30:31; 31:4,9; 37:27; 51:6,7
2. 수치를 당한다, BDB 101, KB 116, 칼 완료형, 참조, 1:29; 19:9; 20:5; 23:4,23; 26:11; 29:22; 30:5; 37:27; 41:11; 44:9,11(2 회); 45:16,17,24; 49:23; 50:7; 54:4; 65:13; 66:5

분명히 이 두 용어는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의 두 면 곧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중요한 내용이다!

20:6 이 절은 아스돗(1 절)을 팔레스타인의 해안 지역에 거하는 모든 거민과 연결시킨다. 앗시리아가 침략해 온다면 군사적 도움을 주겠다고 이집트인들이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참조, 30:7; 31:3). 도움을 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참조, 10:3).

이 장은 히스기야에게 이집트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한다(참조, 30:1-5; 31:1-3).

이사야 2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다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됨	바벨론에 대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상	바벨론의 멸망
21:1-10 (1-5)	21:1-2 (1b-2)	21:1-10	21:1-2a	21:1-5 (1-5)
			21:2b	
	21:3-5 (3-5)		21:3-4	
			21:5	
(6-7)	21:6-9 (6-9)		21:6-7	21:6-10 (6-10)
(8-10)			21:8	
			21:9	
	21:10 (10)		21:10	
예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	예돔에 대한 말씀	예돔에 대하여	예돔에 대한 말씀	예돔에게
21:11-12 (11-12)	21:11-12 (11-12)	21:11-12 (11b-12)	21:11	21:11
			21:12	21:12
	아라비아에 대한 선포	아라비아에 대하여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	아랍에 대하여
21:13-15 (13-15)	21:13-15 (13-15)	21:13-15 (13-15)	21:13-15	21:13a
				21:13b-15 (13b-15)
21:16-17	21:16-17	21:16-17	21:16-17	21:16-17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야웨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러 나라를 열거한다. 이 말씀은 “~에 관한 경고라”라는 문학적 표식으로 시작한다.
- 나. 나는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앗시리아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을 이미 밝혔다(즉, 13:1-14:27). 이 장(즉, 1-10 절)은 바벨론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나보니두스와 느브갓네살이 다스린 신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 인근에 살던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바벨론이 그들의 수도였을 것이다. 그들의 왕은 므로닥발라단으로서 주전 720 년에 반역을 꾀했다가 사르곤 II 세에 의해 패하여 늪지대를 거쳐 주전 710 년에 엘람으로 도망갔다(IVP 성경 배경 주석 611 쪽). 바벨론 시는 주전 703 년에 앗시리아에게 망했고 앗시리아 왕이 “바벨론 왕”이란 칭호를 가졌다.
- 다. 이 장은 또한 다음에 대하여 말한다
 1. 에돔, 11-12 절
 2. 아라비아, 12-17 절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1:1-10

¹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 겹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² 흑독한 목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³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⁴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⁵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⁶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⁷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⁸파수꾼이 사자 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⁹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¹⁰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1:1 “해변 광야” 이것은 (1) 바벨론을 가리키는 앗시리아 이름(맛 + 야밀, 참조, JB 각주) 혹은 (2) “바다의 땅”(맛 *탐탐*)이라는 아카디아 호칭(으로서 지금은 멸망하여 “땅”을 “광야”로 일컬음)을 번역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페쉬타역은 이것을 “바다의 광야”로 번역하는데 아마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어구에 위치한 늪지대를 가리킬 것이다. TEV 는 “바벨론”으로 번역했다. “광야”(BDB 184)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넓은 지역을 뜻한다.

21:1-2a 이사야는 그가 이 예언의 내용을 받았을 때 가졌던 감정을 깊이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1. 네겝 지역에 부는 회오리바람처럼, 1 절
2. 광야로부터, 1 절
3. 두려운(BDB 431, KB 432, *나팔 분사*) 땅에서, 1 절
4. 혹독한(BDB 904) 목시, 2a 절

21:2b 이것은 바벨론을 침략한 자들에 대해 설명한다(즉, 앗시리아, 참조, 9 절).

1. 번역하는 자가 여전히 번역한다, BDB 93, KB 108 과 관련된 언어유희, 두 개의 *칼 능동 분사*, 24:16; 33:1; 렘 3:20; 5:11(NIV 의 “배역자,” REB 의 “배역자,” 혹은 NRSV 의 “배반자”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인 므로닥발라단과 더 잘 들어 맞는다)
2. 파괴자가 여전히 파괴한다, BDB 994, KB 1418 과 관련된 언어유희로서 두 개의 *칼 능동 분사*, 16:4; 33:1; 렘 6:26

21:2c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두 나라에게 바벨론을 치도록 명하신다.

1. 엘람(BDB 743)이여 “올라가라”(BDB 748, KB 828, *칼 명령*). 엘람이 처음에 바벨론을 도와 앗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기에 이것은 놀라운 내용이다.
2. 메대(BDB 552)여 “에워싸라”(BDB 848, KB 1015, *칼 명령*).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살던 부족의 하나이다.

이러한 내용은 앗시리아에 대항하는 동맹관계에 있는 자들이 발하는 전쟁의 외침일 것이다(즉, 엘람, 메대, 유대인 주석가인 이븐 에즈라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이 내용을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바벨론에 대한 것으로 취한다면 더욱 이해가 잘 된다.

21:2d NASB 는 “그녀가 내는 모든 신음을 내가 그치게 했다”로 번역한다. 맛소라 본문은 “모든 신음을 내가 그치게 한다”(BDB 991, KB 1407, *히 팔 완료형*)로 되어 있다. NASB 에 있는 “그녀가 내는”이라는 구는 맛소라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만일 이 부분을 취한다면 시에서 이 행은

신바벨론에 더 잘 들어 맞는다. 후에 들어선 이 제국은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즉, 느부갓네살, 참조, 다니엘 4 장).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이들(나를 포함하여)은 이 마지막 행이 앗시리아/니느웨에 의해 “멸망당할” 자인 바벨론 왕(므로닥발라단) 혹은 그가 위하는 신(마르둑)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이 장에는 많은 수의 사람이 말을 하고 있기에 누가 말하는가를 알기가 어렵다(선지자, 야웨, 바벨론 왕, 여러 파수꾼, 알려지지 않은 사람).

21:3-4 선지자는 메시지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다니엘도 야웨의 계시로 인해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다(참조, 단 7:15,28; 8:27; 10:16-17).

1. 허리에 커다란 고통이 있었다
2.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다, 참조 13:8; 26:17
3.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했다, 참조, 19:14(즉, 술취함의 관용적 표현)
4. 놀라서 보지 못했다
5. 내 마음이 어지럽게 되었다
6.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다
7.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서광”은 바벨론의 패배로 인해 더 강하고 더 확장적인 정책을 가진 앗시리아가 옴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동사가 이미 일이 끝나 완전히 확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왜 그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까? 앗시리아를 멈추게 할 자가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다! 앗시리아가 오고 있다!

21:4 이 절은 2a 절(“혹독한 묵시”)의 연속이다. 이 내용은 이 묵시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을 말한다.

1. 내 마음이 어지럽다, BDB 1073, KB 1766, **칼 완료형**
2.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한다, BDB 129, KB 147, **피엘 완료형**
3.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된다, BDB 962, KB 1321, **칼 완료형**

문제는 “왜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인해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가?”이다.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1. 참혹한 폭력을 인함이다
2. 바벨론이 앗시리아에 대해 힘의 균형을 이루었었기 때문이다. 이제 앗시리아는 마음껏 영토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석의 성경 주석, 제 6 권 134 쪽을 보라).

21:5 이 절은 네 개의 **칼 부정사 절대형**(명령형의 역할을 함)과 두 개의 **칼 명령**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1. 식탁을 베풀라
2. 자리를 펴라(아래의 설명을 보라)
3. 먹으라
4. 마시라

이것은 사치스러운 식사를 나타낸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다니엘서 5 장을 가리킨다고 본다. 만일 그렇다면 이 장은 후기에 속하는 신바벨론을 뜻한다(즉, 느부갓네살).

연회의 중간에 사자가 도착하여 군사적 준비를 요청한다(“고관들,” BDB 978).

1. 일어나라,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BDB 602, KB 643, **칼 명령**. 고대 전사들이 가죽으로 방패를 덮어 사용했기 때문에 불화살이 부드러운 가죽을 뚫고 불사를 수 있었다, 참조, 삼상 1:21.



NASB, NJB

“천을 펼치라”

NKJV, 폐쉬타

“망루에 파수꾼을 세우라”

NRSV, TEV,

REB

“양탄자를 피라”

JB

“그것을 천으로 덮어라”

이 구는 한 명사와 이와 매우 비슷한 어근의 동사로 되어 있다.

1. 이 명사 *סִפְפֹּת*(BDB 860 II)는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카펫”으로 또 어떤 이는 이것을 “파수꾼”(BDB 859, *מִסְפָּן*)으로 이해한다.

2. 동사인 *סִפַּף*(BDB 860 II, 부정사 절대형)는 “펼치다” 혹은 “~의 위를 덮다”를 뜻한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렇듯 앉아서 먹도록 정돈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즉, “방석을 정돈하라,” 참조, NIDOTTE 제 3 권 832 쪽).

21:6 선지자가 야웨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가라, BDB 229, KB 246, *כָּל מִצְוָה*

2. 파수꾼을 세우라, BDB 763, KB 840, *הִפְלֵ מִצְוָה* (“파수꾼,” 문자적으로 “지켜보는 사람,” BDB 859, KB 1044, *פִּיֵּל בְּנֵי*)

3.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BDB 616, KB 665, *הִפְלֵ מִצְוָה*형이 지시형으로 사용됨

21:7 그는 군대가 취한 매우 특별한 형태의 진영을 주목하여 보라는 말씀을 받는다.

1. 쌍쌍인 마병대

2. 나귀 떼

3. 낙타 떼

“말탄 자”(BDB 935)라는 용어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를 탄 자로 이해할 수 있다(NKJV, 페쉬타). 2 항과 3 항에 대하여도 탄 자를 의미할 수 있다(참조, NRSV, 70 인역).

이러한 종류의 군사적 장비와 진영을 보자 그는 즉각 보고한다(“주의”를 중복하여 사용함, BDB 904). 앗시리아가 오고 있다!

21:8 이것은 성벽에 있는 파수꾼이 큰 소리로 발하는 군사적인(즉, 사자와 같이) 보고의 방법이다. 그는 여태껏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맛소라 본문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는데 사해사본의 히브리어 사본은 파수꾼이 사자처럼 외치는 것으로 말한다. 후자는 난해한 히브리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제안을 제공한다.

한편 “보다,” *רָא*(BDB 906)를 서기관이 잘못 이해하여 사자,” *אַל*(BDB 71)로 된 것으로 본다면, 이 문장의 번역은 “그 때 초병을 본 자(즉, 파수꾼)가 외쳤다”로 된다.

21:9 갑자기 군대의 진영과 장비가 시야에 들어 왔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일이 일어남은 바벨론 시가 이전에 멸망한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멸망을 동사의 중복(BDB 656, KB 709, *כָּל מִצְוָה*)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앗시리아의 여러 왕이 바벨론 시를 함락시켰다.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은 그들의 신상이 부서져 산산조각남(BDB 990, KB 1402, *פִּיֵּל מִצְוָה*)으로 표현된다(참조, 46-47 장). 바벨론을 이기고 엘람과 메대를 무기력하게 함으로써 앗시리아는 자신의 영토확장적 야심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21:10 선지자는 억압을 받고 있는 언약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즉,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일하시는가?

1.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앗시리아가 침략해 온다는 분명한 약속이다.

2. 선지자가 어떤 바벨론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다.

ㄱ.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인 므로닥발라단이 다스리던 바벨론

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신바벨론 제국

문제의 핵심은 예언적인 면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 절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것은 앗시리아가 멸망시키게 될 바벨론 사람들에게 선언되는 내용일 수 있다. 야웨는 이미 모압의 멸망을 말씀했고(참조, 15:4; 16:11) 억압받는 이집트인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다(참조, 19:20).

▣ “내가 타작한 너여” 이것은 “내 타작마당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이사야가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아들”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1. 기름짐의 아들, 5:1
2. 아침의 아들, 14:12
3. 지혜의 아들, 19:11
4. 사람의 아들, 56:2
5. 이방 땅의 아들, 56:6

개역개정 21:11-12

¹¹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¹²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21:11 새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다(즉, “~에 관한 경고라”라는 문학적 표식). 맛소라 본문에는 “두마”(BDB 189)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잠잠함”(BDB 189)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관련된 언어유희이다. 에돔이 잠잠히 있을 것이다. 70 인역에는 “이두매”로 되어 있다. 에돔은 블레셋처럼 앗시리아에 대항하는 동맹에 가담한 나라였다. 사르곤 II 세가 이끄는 군대가 주전 711 년에 모두를 짓밟았다.

▣ “세일” 이것(BDB 973)은 에돔 땅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창 32:3; 36:30; 민 24:18; 신 2:4,8,12,22,29; 삿 5:4).

21:11c-12 이것은 여러 명령이 들어 있는 매우 수수께끼같은 연이다. 6 절과 8 절에서와 같이 성벽에 있는 파수꾼에게 밤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묻고 있다(2 회). 답변 또한 이상스럽다.

1. 아침이 온다
2. 그런데 밤도 온다
3. 다시 물으라
4. 다시 물으라

아마도 이것은 “언제 이 일이 모두 일어날 것인가?”를 뜻한다.

개역개정 21:13-15

¹³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14 데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15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뺨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21:13 새 메시지가 아라비아에 대해 선포된다(즉, “~에 관한 경고라”라는 문학적 표식). 누가 적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1. 앓시리아(침략)
2. 게달(내전)

“두마”(11 절)와 세일(11 절)이 지명으로서 아라비아 인근의 장소를 나타내는 점이 흥미롭다.

▣ “수풀” 이사야는 “산림”의 은유를 자주 사용한다. 이 용어(BDB 420)는 다음을 뜻한다

1. 산림
2. 수풀

아라비아가 사막지역이기에 두 번째 항이 더 잘 맞는다. 이것은 잡목이 우거진 계곡으로서 동물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다. 이제 도망온 자들, 피난민들, 대상들(즉, 드단 사람들은 스바와 관련이 있는 베두인 족속이다)이 군대의 공격을 피해 이곳으로 피하여 숨고 있다(참조, 15 절). 그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휴식을 위한 장소를 이용할 수 없었다.

21:14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갖다 주라고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명령이 내린다(BDB 87, KB 102, *히필 명령*).

▣ “데마” 이것은 북쪽에 있던 중요 도시로서 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다. 3:18의 특별주제: 달을 섬김을 보라.

개역개정 21:16-17

16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일 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17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1:1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일 년 내에” 이와 똑 같은 기간이 이미 사 16:14에서 사용되었다.

▣ “게달” 이것은 아라비아의 큰 도시였다. 이곳 및 이 도시가 대표하는 아라비아의 모든 군대가 패할 것이다. 사르곤 II 세는 이 지역을 주전 715년에 공격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신학적 표현이 다시금 사용되었다.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당시 열강의 군사적 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었다! 이것은 유일신에 대한 주장이다.

이사야 22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선포	예루살렘에 임할 파괴에 대한 경고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	기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22:1-11 (1-11)	22:1-7 (1b-4)	22:1a	22:1a	22:1-4 (1-4)
		22:1b-4 (1b-4)	22:1b-2a	
			22:2b-5	
	(5-7)	22:5-8 (5-8a)		22:5-11 (5-11)
			22:6-8a	
	22:8-11 (8-11)	22:8b-11	22:8b-11	22:8b-11
22:12-14 (12-14)	22:12-14 (12)	22:12-14 (12-14)	22:12-13	22:12-14 (12-14)
	(13)			
	(14)		22:14	
	셉나에 대한 심판		셉나에 대한 경고	셉나에 대하여
22:15-25 (15-23)	22:15-19 (15b-19)	22:15-19	22:15-19	22:15-23 (15-23)
	22:20-25 (20-23)	22:20-25	22:20-23	
			2:24-25	2:24-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2:1-11

¹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

²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³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⁵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밧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⁶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⁷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⁸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때

그 날에야 네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⁹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¹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¹¹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2:1 “경고” 이것은 야웨께서 어떤 나라나 족속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임을 나타내는 본문상의 표시이다. 놀랍게도 주위의 나라들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다루는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아마도 그들의 죄를 인해 여러 교양(민족)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계신 것이다.

이 메시지들이 역사상 일어난 특정한 여러 침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른 시기에 다른 군대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히브리 시에 나타난 모호성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언어유희 혹은 핵심 단어 등에 따라서 후기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즉, 시들이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선지자(즉, 야웨)가 전한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은 드물게 사용한 단어를 포함하여 모든 단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이 아니라 예언의 전체 내용의 요점과 각 연이 나타내는 중심진리를 파악하는 것으로 가능함을 기억하라.

▣ “환상의 골짜기” 이 구가 5b 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혼란의 날”을 가리킴이 분명하다(을 3:14 을 참고하라).

놀랍게도 JB 는 “환상”을 “힌놈”으로 바꾸었다(참조, 렘 7:31-34). 70 인역은 “시온의 골짜기”로 되어 있다.

22:1b-2b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때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1. 지붕에 올라간다
2. 너희가 소란하며
3. 너희가 떠들던 성
4. 너희가 즐거워하던 고을

JB(각주)는 이것이 주전 705 년 혹은 713 년에 앗시리아의 공격을 물리친 히스기야의 초기 승리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한다(유대인의 연구 성경).

22:2c-3d 도시의 일부 사람(즉, 지도자들과 병사들)은 침략자 앞에서 도망쳤음이 분명하다.

1. 그들이 잡혔지만 전쟁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2. 그들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지만 그들도 결박을 당했다
3. 도망한 모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 행들을 인해 이 장이 주전 586 년에 느부갓네살이 포위하였을 때 시드기야가 도시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가 붙잡힌 일(참조, 왕하 25:4-6)을 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앗시리아의 공격과 관련이 있으며 아래에 언급한 경우 가운데 하나를 말한다고 본다:

1. 티글랏빌레셀 III 세(사 7-12 장)
2. 살만에셀 V 세(참조, 왕하 17 장)
3. 사르곤 II 세(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의 함락, 참조, 28:1-6)
4. 산헤립(주전 705 년과 701 년, 사 36-39 장; 왕하 18-19)

이 장은 특별히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주전 715-687 년).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자주 그러하듯이 이 침략은 서로 합해져서 제시되고 있다. 이사야는 신학적인 내용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 역사는 하나님, 인류, 죄,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제시하는 종이였다.

22:4 21:3-4 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1. 너의 눈을 나에게서 돌이키라, BDB 1043, KB 1609, *칼 명령*
2.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BDB 600, 638,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된 *피엘 미완료형*
3.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BDB 21, KB 23,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히필 미완료형*(“위로하다,” BDB 636, KB 688, *피엘 부정사 연계형*)

개인적으로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 선지자는 자기 혼자 있기를 원했다.

▣ “내 딸 백성이” 이것은 어떤 백성이나 민족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1:8; 10:30,32; 16:1; 23:10-12; 37:22; 47:1,5; 52:5; 62:11). 여기서 이것은 언약 백성인 유다를 나타낸다(즉, “시온의 딸”).

22:5 이 절은 야웨의 “혼란의 날”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1-2 절과 정반대 내용이다.

1. 혼란, BDB 223, 참조, 신 28:20
2. 종속, BDB 101, 세 번만 사용됨, 참조, 18:2,7
3. 혼동, BDB 100, 두 번만 사용됨, 참조, 미 7:4
4. 성벽이 무너짐, *뿔칼칼*, BDB 903 II, KB 1148, *꺾꺾 분사*(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됨; 어떤 학자들은 이 어근이 “외치다,” “탁탁 소리내며 부서지다,” 혹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KB 1128 I, *칼*)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또는 우가릿어의 단어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5.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음(**동사가 없음**)

▣ “산악에” 이 명사(BDB 249)는 **단수형**이며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킬 것이다(즉, 야웨께 외치다).

22:6-7 이 두 절은 침략의 군사적 측면에 대해 말한다. 엘람과 기르(아마 메대를 말하는 것임, 참조, 21:2; 왕하 16:9)는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지역에 위치했다. 그들은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앗시리아 군대의 용병이 되었다.

22:6

NASB

“보병”

NKJV

“남자들”

REB

“아람”

맛소라 본문에는 “남자”(아람, BDB 9, “아담”이 군사적 의미로 사용된 31:8 을 보라)로 되어 있는데 평행법을 고려하여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아람”으로 바꾼다. **ㄷ**과 **ㄹ**의 혼동은 히브리어에서 자주 일어난다.

22:8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때” 이 절에서 “방어”를 뜻하는 단어는 “덮었던 것”(BDB 697)을 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참조, 11c,d 절).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임재하심을 거두신다(즉, 구름, 참조, 4:5; 신 105:39).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문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을 인해 문제가 일어났다! 신명기 27-29 장에 나오는 저주와 축복은 이 점을 명확히 나타낸다.

“덮었던 것”은 문자적으로 아제카 성채를 가리킨다(유대인의 연구 성경의 각주, 825 쪽).

▣ “그 날에야” 예언서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관용어이다(즉, 19:16,18,19,21,23,24).

▣

NASB

“네가 의지한”

NKJV, NRSV

“네가 바라본”

NJB

“너의 바라보는 것을 내가 돌려 버렸다”

이 **동사**(BDB 613, KB 661, *히필 미완료형*)는 그들이 야웨가 아니라 자기들의 무기를 의뢰하였음을 나타낸다.

▣ “수풀 곳간의”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기고의 이름이다(참조, 왕상 7:2; 10:17).

22:9 역사적 배경이 히스기야 시대의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성이 포위되는 때를 대비해 물을 저장하기 위한 못(참조, 11 절; 7:2; 느 3:16)을 만들었다(왕하 20:20). 산헤립이 주전 701 년에 공격해 오기 전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방어를 위한 여러 시설을 준비해 놓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시설물이 예루살렘 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야웨와 야웨의 커다란 목적이 그들을 구한 것이었다(11 절).

22:10 이 절이 이중으로 된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이것을 지지하는 고고학적 지지는 없다). 이곳으로 피해 온 많은 사람들이 두 성벽 사이에 임시로 거할 집을 지었다. 그러나 그러한 집들은 제거되었다(IVP 성경 배경 주석, 614 쪽을 보라).

본문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집들을 부수어 벽 사이의 공간을 채운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성을 에워싼 자들이 성벽에 구멍내는 일을 더욱 어렵게 했다.

어떤 저지대에서는 성벽 사이에 물을 채워 넣었을 수도 있다(참조, 11 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외벽을 깨트리는 자에게 장애를 줌
2. 피난민들로 가득찬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함

22:11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문맥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학적 열쇠가 된다. 8b 절에서 같은 동사가 반복되고 있다(여기서는 *히필 완료형*으로서 문자적으로는 “보다”이다). 전쟁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성곽과 전쟁에 대비하여 준비한 물건을 신뢰했다!

▣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동사(BDB 906, KB 1157)는 *칼 완료형*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이사야는 이러한 약속을 강조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을 인함이다(즉, “계획,” 문자적으로는 “형성한,” BDB 427, KB 428, *칼 분사*, 참조, 37:26; 46:11; 렘 18:11).

1. 세상에 야웨를 알림
2. 경건한 사회의 모델
3.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통로

개역개정 22:12-14

¹²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¹³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¹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12-14 이것은 “그 날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연이다.

12 절은 예루살렘을 특징짓는 애곡 의식(15:2-3의 특별주제를 보라)을 열거하고 있다.

1. 통곡함, BDB 113(동사가 사용되지 않음)
2. 애곡함, BDB 704(동사가 사용되지 않음)
3. 머리털을 밀음, BDB 901(동사가 사용되지 않음, 머리털을 깎거나 뽑아 대머리를 만들, 참조, 스 9:3; 욕 1:20; 렘 7:29; 16:6; 41:5; 48:37; 미 1:16)
4. 굵은 베옷을 입음, BDB 291, KB 291, *칼 부정사 연계형*

13 절은 예루살렘이 오히려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그들이 회개와 기도로써 야웨를 찾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일에 열중했다

1. 기뻐함, BDB 965

2. 즐거워 함, BDB 970
3.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림, 두 개의 칼 부정사 절대형(BDB 246, BDB 133)
4. 화목제물을 먹음, BDB 37, 칼 부정사 절대형
5. 마심, BDB 1059 I, 칼 부정사 절대형

22:13d 그들이 인생에 대해 가진 태도는 이 행에서 나타난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5 장에 나오는 벨사살의 연회와 비슷하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야웨께서 예루살렘과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BDB 427, KB 428, 칼 분사, 참조, 11d 절)에 대해 그들이 무지함을 보여준다(참조, 5:11-12). 그들은 공동체에 대한 목적과 소망을 생각지 않고 개인적인 눈 앞의 향락을 추구했다! 이것은 교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22:14 유다의 불신앙은 그들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심판이 유다에 미쳤다. 예루살렘이 비록 살아남기는 했지만 유다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야웨께서 방문하심(구원을 위해)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멸망을 위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무슨 죄인가? 나는 이것이 11c,d 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를 하지 않는 죄라고 생각한다.

개역개정 22:15-25

- 15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썩나를 보고 이르기를
- 16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 17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 같이 세계 던지되
- 18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 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 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 19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 20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 21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 22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²³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²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²⁵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2:15-19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청지기인 셉나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나타낸다. 엘리야김으로 셉나를 대신하게 하는(참조, 20-25 절)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심각한 내용에 기인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문맥에서 볼 때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셉나는 왕하 18:18 에서 엘리야김의 서기관이었던 “세브나”였을 것이다.

22:16 이 절은 셉나가 일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일련의 질문을 던진다.

22:17-19 죄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책임이 크다. 야웨께서 심판을 직접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1. 너를 던진다, 17 절, BDB 376, KB 373, **펼펼 분사**; 관련이 있는 **명사**(BDB 376), “너를 세계 던진다”
2. 너를 단단히 결박한다, 17 절, BDB 742 II, KB 814 II 의 **칼 완료형**과 **칼 부정사 절대형**
3.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 같이 . . . 던질 것이라,” 18 절,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동사**가 같은 어근을 가진 **명사**(BDB 857, KB 1039)와 더불어
4. 광막한 곳에서 죽는다, 18c,d 절
5.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19 절, BDB 213, KB 239, **칼 완료형**
6. “네 지위에서 낮춘다,” 19 절, BDB 248, KB 256, **칼 미완료형**

2 항과 관련하여서 흥미로운 사전적 이론이 있다. NIDOTTE 제 3 권 380-381 쪽은 어근의 의미가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은유인 “이를 잡다”라고 설명한다(참조, 램 43:12).

22:19-25 이 부분은 야웨께서 셉나의 후임자인 엘리야김에게 행하시려는 일들에 대해 말한다(참조, 왕하 18:18,26,37; 19:2; 사 22:20; 36:3,11,22; 37:3).

1. 야웨께서 엘리야김을 불러내실 것이다, 문자적으로 “부르다,” BDB 894, KB 1128, **칼 완료형**
2. 야웨께서 옷을 그에게 입히시며 띠를 그에게 띠우실 것이다, 21 절, BDB 527, KB 519, **히필 완료형**
3. 야웨께서 그를 힘 있게 하실 것이다, 21 절, 2 항의 **동사**가 적용됨
4. 야웨께서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실 것이다, 21 절, BDB 304, KB 302, **피엘 미완료형**
5. 야웨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실 것이다, 22 절, BDB 678, KB 733, **칼 완료형**
6. 야웨께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23 절, BDB 1075, KB 1787, **칼 완료형**

22:21-23 이 부분은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1.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된다
2.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된다, 22 절
3.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된다, 23 절(참조, 24 절)

이 절들은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김을 메시아의 전형 또는 메시아의 예표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예표가 스가라서에서 스투바벨과 여호수아에 대해 나타난다(참조, 3-4 장).

22:23 “견고”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히 II., 가., 1., 나., (2)의 내용을 보라.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I. 들어가는 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 개념이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사용됨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 이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몇 핵심 귀절과 사람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구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섞여있다

1. 개인과 공동체
2. 개인적 경험과 언약에의 순종

믿음은 개인적 경험이요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사전적 형태(즉, 단어 연구)보다는 사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은 다음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1. 아브라함과 그의 씨
2. 다윗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경험함으로 그들의 삶이 철저히 바뀌었다(완벽한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약점과 강점을 시험이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생애를 거쳐 지속된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정화되지만 그들의 헌신과 삶의 양식은 계속해서 믿음을 입증한다.

II. 사용한 주요 어근

가. *아멘*(BDB 52)

1. 동사

ㄱ. *칼* 형 - 지지하다, 공급하다(즉, 왕하 10:1,5; 예 2:7, 신학적 용어가 아님)

ㄴ. *니팔* 형 - 분명히 하다 또는 확실히 하다, 달성하다, 확인하다, 신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 (1) 사람, 사 8:2; 53:1; 렘 40:14
- (2) 물건, 사 22:23
- (3) 하나님, 신 7:9,12; 사 49:7; 렘 42:5

ㄷ. *히팔* 형 - 굳게 서다, 믿다, 신뢰하다

-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 창 15:6
- (2)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다, 출 4:31; 14:31(신 1:32에서 반대의 내용이 사용됨)
- (3) 야웨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 출 19:9; 시 106:12,24
- (4)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사 7:9
- (5) 누구든지 그것/그를 믿는 자는, 사 28:16
- (6)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믿다, 사 43:10-12

2. 명사(남성형) - 신실함(즉, 신 32:20; 사 25:1; 26:2)

3. 부사 - 진실로, 참으로, 내가 동의하여, 그렇게 되기를(참조, 출 27:15-26; 왕상 1:36; 대상 16:36; 사 65:16; 렘 11:5; 28:6).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식적 용법이다.

나. *에펠*(BDB 54) 여성형 명사, 단단함, 신실함, 진리

1. 사람, 사 10:20; 42:3; 48:1
2. 하나님, 출 34:6; 시 117:2; 사 38:18,19; 61:8
3. 진리, 신 32:4; 왕상 22:16; 시 33:4; 98:3; 100:5; 119:30; 렘 9:4; 스 8:16

- 다. *에무나*(BDB 53), 굳음, 견실함, 충성됨
 1. 손, 출 17:12
 2. 시간, 사 33:6
 3. 인간, 렘 5:3; 7:28; 9:2
 4. 하나님, 시 40:11; 88:12; 89:2,3,6,9; 119:138

III. 바울이 사용한 구약의 이 개념

- 가.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에 야웨와 구약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해의 기초를 두고 있다.
- 나. 그는 *아판*이라는 어근이 있는 구약의 두 가지 핵심 본문에 기초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새로운 의미를 설명한다.
 1. 창 15:6 - 아브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창 12 장)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가져 왔다(창 12-22 장). 바울은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에서 이 점을 암시한다.
 2. 사 28:16 -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결코 보지 않는다
 - ㄱ. 롬 9:33,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는 “실망치 않는다”
 - ㄴ. 롬 10:11, 위의 내용과 같음
 3. 합 2:4 -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렘 7:28). 바울은 이 본문을 롬 1:17 과 갈 3:11 에서 사용한다(또한 히 10:38 의 설명을 보라).

IV. 베드로가 사용한 구약의 개념

- 가. 베드로는 단어를 합성하고 있다
 1. 사 8:14 - 뱀전 2:8(걸려 넘어지는 돌)
 2. 사 28:16 - 뱀전 2:6(모퉁이돌)
 3. 시 111:22 - 뱀전 2:7(건축가들이 버린 돌)
- 나. 그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독특한 표현인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다음에서 취하였다
 1. 신 10:15; 사 43:21
 2. 사 61:6; 66:21
 3. 출 19:6; 신 7:6
 또한 이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교회의 믿음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V. 요한이 사용한 구약의 개념

- 가. 이 단어의 어원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피스투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명사형**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요 8:31-59 과 행 8:13, 18-24 에 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초기에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31-32).
- 마.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18; 4:39; 6:40; 7:5,31,39,48; 8:30; 9:36; 10:42; 11:45,48; 17:37,42; 마 18:6; 행 10:43; 빌 1:29; 뱀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26; 12:44,46; 14:1,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ㅁ.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ㅂ. 빛 안에(요 12:36)
- ㅅ. 하나님 안에(요 14:1)
- 2. **엔**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 3. **엠펜**은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24; 9:33; 10:11; 딤펜전 1:16; 벰전 2:6
-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 5. **호티**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였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VI. 결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시작하신다(즉, 요 6:44,65). 한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신뢰
2. 언약적 순종

성경적인 믿음은 다음을 뜻한다

1. 개인적 관계(최초의 믿음)
2. 성경의 진리를 확인함(하나님의 계시를 믿음)
3. 그 진리에 대한 적합한 순종(매일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천국행 표나 천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참조, 창 1:26-27)과 창조에 대한 목적이다. “친밀함”이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적 입장이 아니라 교제를 바라신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녀들이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기를 요구한다(즉, 거룩함, 참조, 레 19:2; 마 5:48; 벰전 1:15-16). 타락(참조, 창세기 3 장)은 우리가 적합하게 응답할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참조, 겔 36:27-38).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세 가지를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고(히브리어와 헬라어적 의미에서) 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다. 믿음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인간이 가진 믿음은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지(신약)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구약):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 구원에 대한 신약적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인간이 처음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보내셨고 공급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참조, 엡 2:8-9,10)!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또 믿지 않던 자들이 각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22:25 엘리야김(즉, 단단한 곳에 박힌 못) 조차도 야웨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가 오는 심판을 멈출 수 없다.

1. 못이 부러진다(BDB 559 I, KB 561, **칼 미완료형**)
2.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진다(BDB , KB , **니팔 완료형**)
3. 그 위에 걸린 것이 떨어진 다(BDB , KB , **칼 완료형**)
4. 그 위에 걸린 것이 부서진다(BDB , KB , **니팔 완료형**)

심판이 오고 있다. 야웨께서 말씀하셨다(BDB 180, KB 210, **피엘 완료형**).

22:25 “못” 이 단어(BDB 450)는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셉나
2. 엘리야김
3. 유다
4. 예루살렘
5. 메시아

문맥에서 1 항 또는 2 항이 가장 적합하다. 한편 나머지 항목은 야웨의 장래 계획과 관련이 있다(참조, 11 절).

이사야 23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두로의 멸망	두로에 대한 선포	시돈에 대한 예언	페니키아에 대한 메시지	두로에 대하여
23:1-7 (1-7)	23:1-7 (1)	23:1-12 (1-7)	23:1-3	23:1-14 (1b-4)
	(2-3)			
	(4-5)		23:4	
	(6-7)		23:5	(5-6)
			23:6-9	
				(7-14)
23:8-11 (8-11)	23:8-14 (8-9)	(8-12)		
	(10-12)		23:10-13	
23:12 (12)				
23:13-18 (14)	(13)	23:13-18 (14)	23:14	
	(14)			
	23:15-18		23:15	23:15
(16)	(16)	(16)	23:16 (16)	23:16 (16)
			23:17-18	23:17-18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페니키아에 대한 정죄는 에스겔 26-28 장과 아모스 1:9-10 에 있는 내용과 평형을 이룬다. 두로(페니키아의 수도)는 강하고 부유했던 해양국가였는데 이점은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고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나. 그들이 광대하게 영향을 미친 제국이었기에 많은 나라들과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역적인 손실을 인해 슬퍼했다.

1. 다시스의 배(즉, 지중해 서쪽 지역), 1,6 절
2. 해변, 2,6 절
3. 시돈의 상인(즉, 두 번째로 큰 페니키아의 도시), 2 절
4. 이집트, 3,5 절
5. 가나안, 11 절
6. 키프루스, 12,13 절

다. 두로/페니키아에 대해 여러 명령이 말해지고 있음을 주목하라.

1. 슬피 부르짖으라, 1 절, BDB 410, KB 413, **히필 명령**, 참조, 13:6; 14:31; 15:2,3; 16:7(2 회); 65:14
2. 잠잠하라(문자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1 절, BDB 198, KB 226, **칼 명령**
3. 부끄러워하라, 4 절, BDB 101, KB 116, **칼 명령**, 참조, 1:29; 19:9; 20:5; 24:23; 26:11; 29:22; 30:5; 37:27; 41:11; 42:17; 44:9,11; 45:16,17,24; 49:23; 50:7; 54:4; 65:13; 66:5; 미 3:7; 7:16
4. 건너가라, 6 절, BDB 716, KB 778, **칼 명령**, 참조, 23:2
5. 고통받으라, 6 절, 1 항과 같음
6. 넘쳐라(문자적으로 “건너가라”), 10 절, 4 항과 같음
7. 일어나라, 12 절, BDB 877, KB 1086, **칼 명령**
8. 건너가라, 12 절, 4 항 및 6 항과 같음
9. 슬피 부르짖으라, 14 절, 1 항 및 5 항과 같음
10. 수금을 들어라, 16 절, BDB 542, KB 534, **칼 명령**
11. 성읍을 두루 다니라, 16 절, BDB 685, KB 738, **칼 명령**
12. 수금을 타라(문자적으로 “기묘하게 연주하라”), 16 절, BDB 405, KB 408, **히필 명령**, 참조, 삼상 16:17; 시 33:3; 겔 33:32
13. 많은 노래를 부르라, 16 절, BDB 915, KB 1176, **히필 명령**

라. 이사야서에 있는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항상 그러하듯이 역사적 상황은 세세한 내용과 암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 시들은 다른 시기에 있는 여러 침공에

들어맞는다. 이사야서는 선지자가 전 생애에 걸쳐 전한 메시지를 이후에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은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가 아니라 다음의 사항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1. 관련된 단어들
2. 관련된 지명들
3. 언어유희
4. 주제
5. 그 외에 다른 요소들

현대인들은 언제 어떻게 누가 구약의 책들을 최종적으로 편집/편찬했는지 알지 못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3:1-7

¹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²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³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⁴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⁵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⁶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⁷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나

23:1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슬피 부르짖다”(야랄, BDB 410, KB 413, *히필 명령*)는 크게 비명을 지르는 것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종종 사용되었다(참조, 13:6; 14:31; 15:2,3; 16:7[2 회]; 23:1,6,14; 52:5; 65:14 또한 이와 관련이 있는 용어[예랄라]가 15:8[2 회]에서). 15:2-3의 특별주제: 슬피함의 의식을 보라.

똑같은 구가 14절에서 나온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가 종종 문단의 단락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기능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

다시스의 배들은 주로 이집트로부터 곡물을 수송하는 상업적 용도의 큰 배였다. 이 용어는 상인을 가리키는 용어(“페니키아”와 “가나안”과 같이)가 되었다.

▣ “다시스” 이 지명(BDB 1077)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페니키아의 식민지로서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대서양에 인접한 곳(즉, 탈렛서스, 7 절)
2. 사르디나이의 섬(참조, 창 10:4)
3.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도시(칼타게는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다)
4. 먼 곳에 있는 항구를 뜻하는 은유
5. 바다를 향해하는 상업용 목적의 큰 배
6.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해양 국가(참조, 왕상 10:22)

▣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두로의 성읍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1. 대부분의 집과 가게는 본토와 접한 해안에 있었다(참조, 수 19:29; 삼하 24:7)
2. 궁궐, 사원, 성채는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섬(원래 두 개의 작은 섬)에 있었다(참조, 겔 27:32)

이러한 구조를 인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2 년에 해안 쪽의 건물을 파괴하여 그 잔해로 섬의 성채로 가는 길을 만들기까지 이 성은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참조, 겔 26:3-5).

다시스에서 온 배들은 화물을 내릴 곳을 찾지 못했고 또 고국으로 신고 갈 다른 종류의 화물을 구할 수 없었다.

“항구”와 관련하여 본문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들어 오다”(NJB, “들어갈 길이 없음,” BDB 97, KB 112, **칼 부정사 연계형**)로서 항구나 피할 장소를 뜻한다.

이것은 14 절과 평행을 이룬다. 따라서 NRSV 는 이 행을 “왜냐하면 너의 성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로 번역하고 있다.

▣ “깃딤” 맛소라 본문에는 “깃딤”(BDB 508)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원래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참조, 7 절) 키프루스 섬을 “시티움”으로 일컬은 로마 지명에서 왔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야반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엘리샤에게서 나온 사람들로 본다(참조, 창 10:4; 겔 27:7).

23:2 “잠잠하라” 이 **칼 명령**이 1 절의 “슬피 부르짖어라”(BDB 198 I)와 평행을 이룬다. 이것이 파생어근(BDB 199 II)인 “탄식하다”(“슬퍼하다,” TEV; “탄식하다,” REB)를 뜻하는 우가릿 어근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시돈” 이것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40 km 떨어진 곳에 있는 페니키아의 해변 도시(참조, 창 10:19)였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중요한 도시였다(참조, 수 13:4,6). 이 이름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장자의 이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참조, 창 10:15). 신약에서 두로와 시돈은 함께 사용되어 페니키아 국가를 종종 나타낸다(참조, 마 11:21,22; 15:21; 행 12:20).

▣

NASB, NRSV,

NJB

“너희 사신들이 바다를 건넜다”

NKJV

“바다를 건너는 자들이 채운”

TEV

“너희가 사자를 보냈다”

JB

“그들의 물건이 바다를 왕래한”

NASB 는 사해사본의 이사야서 본문과 같다. 맛소라 본문은 “바다를 건너(BDB 569, KB 583, **피엘 완료형**) 그들이 너를 채웠다”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에서 “너희 사신들”이라는 용어의 어형 변화형은 “채우다”라는 **동사**와 매우 비슷한 형태이다.

1. **동사**, 밀육(“채우다,” BDB 569, NKJV)
2. **명사**, *말아카이크*(“사신,” BDB 521, NASB)

23:3

NASB, JB “나일의 곡물”

NKJV, NRSV,

REB “시홀의 곡물”

NJB “운하의 곡물”

페쉬타 “강의 추수”

맛소라 본문은 “시홀의 곡식, 나일의 추수”로 되어 있다. 시홀(BDB 1009)은 “호루스의 못”(KB 1477)을 뜻한다. 이것은 다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 나일의 동편(BDB 1009)
2. 운하(BDB 1007 I)의 검은 물
3. 삼각지의 동편 지역에 있는 호수

원어에서 이것은 같은 음가를 갖지만 장모음이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1. 수 13:13; 대상 13:5, 시호르
2. 렘 2:18, 시호르
3. 사 23:3, 시호르

그러나 이 모든 경우 이집트에 있는 같은 장소를 가리킨다.

▣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겔 27:3-23 을 보라.

23:4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동사(BDB 101, KB 116, 칼 명령)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참조, 렘 50:2). 여기서 이 단어는 패배한 국가의 부끄러움을 나타낸다(참조, 1:29; 19:9; 37:27; 41:11). 만일 이 나라들이 야웨께 돌아온다면 그들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참조, 49:23);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도 사실이다(참조, 29:23; 45:17; 54:4).

▣ 시돈이 의인화 되었다. NRSB의 각주는 “파괴된 시돈이 선원(즉, 젊은 이)이 없는 바다처럼 자녀가 없다”라고 말한다.

23:7 이것은 두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참조 5 절)

1. 희락의 성(즉, 교만하며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참조, 22:2; 24:8; 32:13)
2. 옛 성(즉, 자신의 오랜 역사를 자랑함)
3. 식민지를 건설하는 국가(그들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자랑)

개역개정 23:8-11

⁸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⁹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¹⁰딸 다시스여 나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¹¹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혼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23:8-12 이 연은 “정하다”라는 동사(즉, “자문을 주다” 혹은 “의도하다,” BDB 419, KB 421, 칼 완료형, 참조, 8,9 절 14:24,26,27; 19:12,17)에 의해 한 단락을 이룬다. 역사의 배후에 의도성이

있다—바로 야웨이시다! 이 세상의 왕국이 모두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8 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9 절).

23:8

NASB, NRSV	“면류관을 씌우는 자”
NKJV, 폐쉬타	“면류관의 도시”
TEV	“황제의 도시”
NJB	“면류관을 전해주던 자”
REB	“면류관을 선물로 주는 도시”

이 동사(BDB 742, KB 815, *히브리어* 분사)는 “면류관을 씌우다”를 뜻한다. 이것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면류관을 수여하는 자(NASB, NRSV, NJB, REB)
2. 면류관을 쓰는 자(TEV, NKJV, 폐쉬타)

23:10 경쟁적 해양제국인 다시스에게 페니키아의 멸망을 인해 확장하고 넘치라고 초대한다.

70 인역은 이 문장을 다르게 이해한다: “너희 땅을 경작하라; 칼타고로부터 더 이상 배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을 REB 가 따른다: “너희 다시스의 백성이여, 너희 밭의 경작지를 취하라. 너희 시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역하던 날이 끝났다. 이제 정착하여 너희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지으라.

23:11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14:26 의 설명을 보라.

▣ “열방을 혼드시며” 이 동사(BDB 919, KB 1182, *히브리어* 완료형)는 야웨께서 “혼드시는”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1. 산들, 5:25
2. 하늘, 13:13
3. 스올, 14:9
4. 바다, 23:11
5. 야웨 자신, 28:21
6.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32:10,11
7. 나라들, 64:2

또한 37:29 에서는 야웨께 대항하는 유다에 대해 한 번 사용되었다.

▣ “가나안” 이것은 가나안 해안에 있는 가장 좋은 성채/항구를 뜻하는 의미에서 두로를 가리키거나 혹은 상업적 왕국인 페니키아를 뜻하는 의미에서 가나안을 가리킬 것이다.

개역개정 23:12

¹²이르시되 너 확대 받은 처녀 딸 시돈아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3:12 이 장에서 페니키아(NIV)는 옛 수도인 “시돈”으로 불리는데 당시의 새 수도는 “두로”였다.

▣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이는 이 내용을 특별히 시돈 왕 “룰리”에 대한 것으로 본다. 그 왕은 주전 701 년에 앗시리아 군대를 피해 키프러스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JB 의 각주, 1177 쪽). 이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설명이다. 히브리 시는 애매성을 갖는다.

개역개정 23:13-18

¹³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땅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¹⁴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¹⁵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칠십 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칠십 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¹⁶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¹⁷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¹⁸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블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23:13 “갈대아 사람의 땅을” 이것은 앗시리아에 의해(참조, 13-14 장) 바벨론(신바벨론 제국이 아님)이 멸망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두 “바벨론”이 예언서에서 언급된다.

1.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구 인근에 위치하여 부분적 독립을 이루었던 작은 지역을 말한다. 이들이 앗시리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사르곤 II 세(주전 722-705 년)가 그들을 공격하여 수도인 “바벨론”을 함락시켰다. 사르곤 II 세는 바벨론의 왕위를 뜻하는 “바벨론의 왕”이란 칭호를 취하였다. 그렇다면 이 구는 바벨론 왕들을 가리킨다
 - ㄱ. 므로닥발라단, 주전 721-710 년과 703-702 년에 다스림(그는 주전 712 년에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다, 참조, 왕하 20:12-21; 사 39 장)
 - ㄴ. 샤마스-슘-우킴(에살하돈[주전 681-669 년]의 아들로서 앗시리아의 왕이 된 앗수르바니팔[주전 669-633 년]의 형제이며 정적이었다)
2. 새(즉, “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II 세(주전 605-562 년)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술(주전 626-605 년)의 등장으로 주전 626 년에 역사에 나타났다. 나보폴라술은 주전 614 년에 앗술(앗시리아의 한 수도)과 주전 612 년에 니느웨(앗시리아의 주요 수도)의 멸망을 가져왔다(부록 III 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열강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개요”를 보라).

▣ “그 곳을” 이것은 갈대아인의 수도인 바벨론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시돈/두로를 의미하는가? 문맥에서 이것은 사르곤 II 세가 주전 710 년에 멸망시킨 바벨론(혹은 산헤립이 주전 689 년에 멸망시킨)을 가리킨다. 두로가 바벨론처럼 보였을 것이다. 앗시리아, 신바벨론, 알렉산더 대왕이 오고 있다!!!

▣ “들짐승” 이 용어(BDB 850 II)는 어떤 종류의 들짐승을 가리킨다. 이 단어에는 귀신이 들린 자를 뜻하는 의미가 부가적으로 들어 있다(참조, NIDOTTE 제 3 권 79 쪽, NEB, REB).

23:15 “칠십 년 동안” 이 곳과 17 절에 시간의 기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것은 어떤 완벽한 기간(7 x 10 에서, 11:12 의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된 상징적 숫자를 보라)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 이 숫자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를 주목하여 보라.

1. 복수, 창 4:24
2.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의 데라의 나이, 창 11:26
3.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수, 출 1:5
4. 광야 방랑 시기에 있던 70 장로의 수, 출 24:1,9; 민 11:16,24,25(또한 겔 8:11)

5. 죽임을 당한 아비멜렉의 형제들의 수, 삿 9:56
6. 인간의 예상 수명, 시 90:10(이 수명의 두 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나타냄, 욥 42:16)
7. 70,000 명의 죽음을 가져 온 야웨께서 일으킨 역병, 삼하 24:15; 대상 21:14
8. 아합의 70 명의 아들, 왕상 10:1,6,7
9. 70 년의 심판 기간
 - ㄱ. 유다가 바벨론에서, 렘 25:11; 단 9:2; ;슥 7:5
 - ㄴ. 두로, 사 23:15
10. 예수께서 70 인을 보내심, 눅 10:1,17
11. 70 번씩 7 번을 용서함, 마 18:22

▣ “한 왕의 연한 같이” 이 구는 예상되는 한 왕의 통치기간을 나타낸다. 70 년은 일반적인 수명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매우 긴 기간을 나타낸다. 아마도 십 단위에서 보듯이 상징적 모습을 나타낸다.

23:17-18 페니키아의 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백성에게로 흘러 들어 올 것이다(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18:7 과 45:14 을 보라). 페니키아는 이스라엘의 증거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이교도(즉, 바알 숭배)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사야 24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땅에 대한 심판	땅에 대한 임박한 심판	“이사야”의 묵시 (24-27 장) 세계에 대한 심판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야웨의 심판
24:1-6	24:1-3 (1-3) (4-6)	24:1-23 (1-3) (4-13)	24:1-3 24:4-13	24:1-6 (1-6) 파괴된 성읍에 대한 노래
24:7-23 (7-23)	(7-13) 24:14-20 (14-16) (17-18) (19-20) 24:21-23 (21-23)	(14-16) (17-20) (21-23)	24:14-16a 24:16b-20 24:21-23	24:7-16 (7-16) 마지막 전투 24:16-23 (16-2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사야서 24-27 장은 마지막 때(즉, 세상에 대한 심판)와 관련하여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이룬다. 이사야서에서 이 특별한 장르(이것은 묵시문학적 장르의 발전을 가져 온 문학적 무대를 제공했다)는 마지막 때의 축복과 심판이 함께 엮인 형태를 갖는데, 이러한 점은 신명기 27-28 장과 매우 흡사하다. 이사야 24 장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말하고, 25 장은 회복된 시온에 의해 온 땅에 임할 축복에 대해 말한다(참조, 사 2:2-24).
- 나. 이사야서 13-23 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 이사야 24-27 장은 이 문학적 단위의 명백한 결론이다. 이와 같은 결론적 장르가 24 장과 35 장에 나타난다.
- 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묵시 문학

(이 특별 주제는 내가 쓴 요한계시록에서 가져 왔다)

계시록은 독특한 유대적 문학 장르인 묵시로 되어 있다. 이 장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것을 나타내는 긴장이 가득한 시기를 다루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이러한 문학적 장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강하게 나타냄(유일신론과 결정론)
2. 선과 악,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대결(이원론)
3. 암호를 이루는 단어의 사용(일반적으로 구약의 묵시문학 또는 신구약 중간시대의 묵시문학에서)
4. 색, 숫자, 짐승 때로 짐승들/사람들로 표현
5. 천사들이 환상과 꿈을 중개함, 대개는 천사적 존재의 중개를 통해
6. 마지막 때(새 시대)에 대한 주된 강조
7.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실재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잘 알려진 내용을 사용함
8. 이 장르의 몇 가지 예를 다음의 책에서 볼 수 있다
 - ㄱ. 구약
 - (1) 이사야 24-27 장, 56-66 장
 - (2) 에스겔 37-48 장
 - (3) 다니엘 7-12 장
 - (4) 요엘 2:28-3:21
 - (5) 스가랴 1-6 장, 12-14 장
 - ㄴ. 신약
 - (1) 마태복음 24 장, 마가복음 13 장, 누가복음 21 장, 고린도전서 15 장(어떤 면에서)
 - (2) 데살로니가 후서(대부분)
 - (3) 요한계시록(4-22 장)
 - ㄷ. 정경 이외의 책(D. S. 러셀의 책, *유대인의 묵시적 방법과 메시지*, 37-38 쪽에서 취함)

- (1) 에녹 1 서, 에녹 2 서(에녹의 비밀)
- (2) 주빌리의 책
- (3) 시빌린의 예언 III, IV, V
- (4) 열 두 족장의 증거
- (5) 솔로몬의 시편
- (6) 모세의 승귀
- (7) 이사야의 순교
- (8) 모세의 목시(아담과 이브의 삶)
- (9) 아브라함의 목시
- (10) 아브라함의 증거
- (11) 에스드라 II 서(에스드라 IV)
- (12) 바룩 II, III 서

9. 이 장르에는 이원적 개념이 나타난다. 이 장르는 이원론, 대조, 혹은 둘 사이의 긴장(요한의 글에서 매우 자주 나타남)으로 실재를 이해한다:

- ㄱ. 하늘 - 땅
- ㄴ. 악한 시대(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 - 의의 새 시대(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천사들)
- ㄷ. 현재의 상태 - 앞으로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며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분기점을 이루지만 두 번 오심은 현재의 이원론을 가져 왔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4:1-6

¹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흠으시리니 ²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³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⁴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⁵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⁶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24:1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1 절과 3 절은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일련의 강력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다(이것은 “땅”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1.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1 절, BDB 132, KB 150, **칼 능동 분사**, 참조, 3 절; 나 2:2
2. 황폐하게 하시며, 1 절, BDB 118, KB 135, **칼 능동 분사**, 참조, 나 2:10
3. 뒤집어 엎으시고(무자적으로 “뒤틀다,” 참조, NRSV), BDB 730, KB 796, **피엘 완료형**
4. 흠으시리니, 1 절, BDB 806, KB 918, **히필 완료형**

5.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3 절, BDB 132, KB 150, **니팔 부정사 절대형**과 또 같은 어근의 **미완료형 동사**가 함께 사용되어 강조를 나타냄
6.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3 절, BDB 102, KB 117, **니팔 부정사 절대형**과 또 같은 어근의 **미완료형 동사**가 함께 사용되어 강조를 나타냄. 야웨께서 창조를 통해 주신 자신의 선물을 거두실 것이다(참조, 5-6 절). 이것은 창조의 원래 목적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신실한 남은 자들은 살아 남을 것이다(참조, 6 절)!

1 절과 3 절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땅(**에레스**, BDB 75)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매우 흡사하다(참조, 창세기 6-9 장;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2:10,19,21 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라). 전 세계가 공허하게 되는 일은 창조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일이다!

특별주제: 땅, 나라, 세계(**에레스**)

모든 히브리어 어근에서처럼 문맥이 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제한된 수의 히브리어 어근(즉, 고대 셈족 언어)은 각 단어가 여러 다른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갖게 한다. 이 단어의 어근(BDB 75, KB 90)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전체 행성(비록 고대인들이 이것의 크기나 모양을 알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알려진 세상”을 나타냈다)
 - ㄱ. 창 1-2 장; 6-9 장; 10:32; 11:1,4,8,9; 14:19; 18:18,25; 22:18 기타
 - ㄴ. 출 9:29; 19:5
 - ㄷ. 시 8:1,9; 24:1; 47:2,7; 렘 25:26,29,30
 - ㄹ. 잠 8:31
 - ㅁ. 사 2:19,21; 6:3; 11:4,9,12; 12:5
2. 하늘에 대조되는 땅
 - ㄱ. 창 1:2
 - ㄴ. 출 20:4
 - ㄷ. 신 5:8; 30:19
 - ㄹ. 사 1:7; 37:16
3. 인간이 거하는 행성을 나타내는 은유
 - ㄱ. 창 6:11; 11:1
 - ㄴ. 왕상 2:2; 10:24
 - ㄷ. 욥 37:12
 - ㄹ. 시 33:8; 66:4
4. 나라 혹은 지경
 - ㄱ. 창 10:10,11; 11:28,31
 - ㄴ. 특별히 이스라엘(야웨께로부터 온 선물,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유하신다)
5. 땅, 참조, 수 7:21
6. 지하세계(KB 91)
 - ㄱ. 출 15:12
 - ㄴ. 시 22:30; 71:20; 렘 17:13; 은 2:7
7. 새 세상
 - ㄱ. 사 9:1-9; 65:17; 66:22
 - ㄴ. 신약을 보라, 롬 8:19-22; 갈 6:15; 벧후 3:13; 계 21:1,5

문맥, 문맥, 문맥이 중요함을 기억하라. 종종 동족어의 어근이 갖는 의미가 도움이 되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 “지면을 뒤집어엮으시고” 이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물리적인 용어(문자적으로 “뒤틀다,” BDB 730, KB 796, **피엘 완료형**)일 수 있고 혹은 사람이 더러워진 부엌 바닥을 청소하듯이 하나님께서 땅의 거민들을 비우심에 대한 은유일 수 있다.

▣ “그 주민을 흠으시리니” 이것은 창세기 10 장에서 바벨탑에 대해 사용한 용어와 매우 비슷하다. 여기서 이 단어는 포로됨을 뜻한다.

24:2 이것은 모든 사회적 구분이 사라짐을 뜻한다. 모든 이가 심판을 받는다(참조, 4 절).

24:3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분명함을 나타낸다(BDB 180, KB 210, **피엘 완료형**, 참조, 24:3; 25:8; 40:8; 55:10-11). 또한 의도된 대조를 주목하라; 창조를 위해 사용하신 말씀이 이제 심판을 위한 말씀이 되었다.

24:4 땅에 대한 설명을 주목하라.

1. 슬퍼하다 - (1) BDB 5 I, KB 6, **칼 완료형**, 참조, 램 23:10; 땅에 대한 의인화, 또한 7 절을 주목하라, 또는 (2) BDB 5 II 가 “말라 버리다,” 이것은 4 절과 7 절의 평행법에 더 잘 들어 맞는다(참조, NRSV, REB)
2. 쇠잔하다 - BDB 615, KB 663, **칼 완료형**(2 회)
3. 쇠약하다 - BDB 51, KB 63, **푸알 완료형**, 참조, 16:8; 33:9
4. 쇠잔하다 - BDB 337, KB 335, **칼 완료형**

4 절과 5 절에서 이미 이루어진 행동이나 완료된 행동을 뜻하는 **완료형 동사**가 여러 개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 **동사**들은 모두 비슷한 소리를 갖는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 대해 주권자로서 행하신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갖기 위한 장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자기들의 행동으로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더럽혀 놓았다. 세상은 풍요로움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죄받았고 쓸모없게 되었다.

▣ “세계” 이 히브리 단어(BDB 385)는 종종 “땅”(BDB 75, 참조, 욥 37:12; 시 96:13; 98:9; 램 10:12; 애 4:12, 또한 1 절의 특별주제를 보라)과 연결되어 사용되었다. 이사야는 이 단어를 다른 선지자들 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참조, NIDOTTE 제 4 권 273 쪽, 참조, 13:11; 24:4; 34:1).

▣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RSV 역(모음을 변형하여)은 이 구가 땅의 백성 가운데 지도층(즉, “높은 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즉,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24:5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인간의 범죄로 인해 자연이 고통을 받는다(참조, 24:20; 창 3:17-19; 민 35:33; 램 3:1-2,9; 롬 8:18-25).

1.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BDB 716, KB 778, **칼 완료형**
2. 그들이 율례를 어기며, BDB 322, KB 321, **칼 완료형**
3.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BDB 830, KB 974, **히필 완료형**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 시 19:1-6 과 롬 1:19,20; 2:14-15 에 나오는 자연적 계시 혹은 (2) 노아 시대(참조, 창 6:5-7,11-12, 아마도 특별히 9:4-6)를 가리킨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똑 같은 구가 창 9:16 에 나온다. 이 영원한 언약은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일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참조, 26:21). 살인에는 결과가 뒤 따른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성하여 땅을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24:6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 구의 소리는 창 3:17-19 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롬 1:18-3:20 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즉, 언약을 깨뜨렸다, 참조, 5 절)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



NASB, NKJV,

JB	“불에 탔다”
NRSV	“감소되었다”
REB	“감소하다”
폐쉬타	“멸망하게 될 것이다”
70 인역	“가난하게 될 것이다”
사해사본	“창백하게 된다” (BDB 301 I 에서, 참조, 사 29:22)

맛소라 본문은 “불탔다”(BDB 359 I, KB 357 혹은 351 I, 칼 완료형)로 되어 있다. 학자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구와 어울리는 단어로써 “감소하다”(KB 351 II)라는 뜻의 아랍어 어근을 제시한다.

이것은 히브리 시가 갖는 애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드러내는 예이다. 다른 어근과 동족어가 유용한 도움을 경우에도 문맥은 종종 해석가의 유일한 안전장치가 된다. 맛소라 본문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 본문은 아니다.

▣ “남은 자가 적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백성 가운데 적은 수의 진실된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구약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마 7:14 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1:9 의 특별주제: 남은 자의 세 가지 의미를 보라.

개역개정 24:7-23

- 7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 8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 9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 10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 11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 12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 13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 14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 15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7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18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21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4:7-14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 농경사회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 그치게 됨을 나타내는 일련의 은유적 표현이다.

24:9 “포도주 ... 독주” 1: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24:10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이 문학 단위 전체에 걸쳐 “성읍”과 관련된 언어유희가 나온다. 이것이 특별히 어떤 성읍에 대한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모든 인간 사회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인다(창세기 11 장에 있는 성읍과 비슷하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1) 요한 1 서에 나오는 “세상”과 (2) 요한계시록 18 장에 나오는 표현으로서 타락한 모든 인간 사회를 가리키는 “음녀 바벨론”과 비슷한 용법을 갖는다. 이 성읍에 대한 언급은 사 25:2,3,12 에서도 나온다. 하나님의 성에 대한 암시는 사 26:1-6 에 나온다(참조, 히 11:10,16).

문자적으로 볼 때 “약탈을 당한”(BDB 1062)은 “비어 있음,” “허무함,” 형태가 없음,” “혼동” 혹은 “실재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로써 창세기 1:2 에서 땅의 모습(“혼돈하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이사야서에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24:10; 29:21; 34:11; 40:17,23; 41:29; 44:9; 45:18,19; 49:4; 59:4). 이것은 오직 한 번만 다른 예언서에서 사용되었다(즉, 렘 4:23).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 이렇게 행하셨는데(창세기 6-9 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또 하실 것이다!

26 장의 서론 라항에 나오는 “두” 성읍에 대한 도표를 참고하라.

24:12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동사(BDB 510, KB 507, 호꼴 미완료형)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 성읍”이 방어가 없는 상태로 되고 그 성문이 파괴되었음을 뜻한다! 누가 야웨 앞에 설 수 있던 말인가?

24:13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 이것은 땅의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참조, 1 절과 사 11:10) 또는 (2) 이것은 포로로 잡혀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참조, 11:11 과 24:8). 이 점에 관하여 결론을 짓기 어렵다. 하지만 14,16 절과 25:6,7 을 고려할 때 나는 이것이 세계 전체(즉, 1 항의 견해)를 가리킨다고 본다. 세계에 대한 관심은 이사야서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세계주의는 사 19:18-25 에서 이집트와 앗시리아를 포함시켜 하나님의 왕국에 초청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것은 추수와 관련된 농업적 은유이다. 이것은 매우 적은 수의 사람이 남게 될 것임을 말한다(참조, 6 절; 미 7:1). 14-16 절은 야웨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단락이다. 이사야서에서 이 문학 단위에 나타난 특징과 이러한 종류의 특별한 장르인 심판의 한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24:14-15 “바다 . . . 동방” “서쪽”(BDB 410)은 문자적으로 “바다”를 뜻하며 지중해를 가리킨다. “동방”(BDB 22)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빛”으로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 용어는 서쪽으로는 이집트를, 동쪽으로는 앗시리아를 가리킬 것이다(참조, 19:23-25).

24:15 유대인의 연구 성경은 어떤 무리(야웨를 신뢰한 유대인 혹은 이방인, 15,16a 절; 25:3)가 심판이 끝남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기 시작할 것(14 절)이지만 그들은 곧 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참고, 16b-23 절)고 주장한다.

야웨의 위엄과 영광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식이 된다(참조, 12:5; 26:10). 적은 수의 사람들(유대인과 이방인)이 신실한 남은 자(참조, 6 절;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로서 심판 때에도 신실한 자로 드러날 것이다(참조, 합 2:4).

▣ “바다 모든 섬에서” 70 인역에서는 “섬들”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참조, 41:5; 42:4,10).

24:16a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시키는 의미에서 세계적인 표현이다(참조, 2:2-4).

▣ “의로우신 이에게” NASB 와 NRSV 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구를 번역했다. 폐쉬타, KJV, ASV 는 “의로운 자”로 번역하여 이스라엘과 땅의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믿는 남은 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나타낸다. REB 는 “의로운 나라”로 번역하여 이상적인 이스라엘로 이해한다.

24:16b 여기에는 전통적인 장절의 구분으로 나타나지 않은 구분이 분명히 나타난다. 14-16a 절에서 시작한 찬양의 내용이 16b 절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장례식의 만가로 바뀌어 나타난다(“화로다”[2 회, 문자적으로 “내가 파괴하고 소진되고 있다”]와 “화로다,” 감탄사, BDB 17). 이것의 정확한 문맥적 상황을 아는 것은 불확실하다. 14-16a 절은 이사야의 시대에 들어 맞지 않는다. 이 내용은 이사야 자신의 개인적 언급일 것이다. 이 구에 대하여 영어 번역본은 서로 다양한 번역을 제시한다.

앵커 바이블 주석(353 쪽)은 이 구가 70 인역에서 생략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저자(블렌킨숍)는 랍비들의 전통과 폐쉬타, 별게이트역본을 따라 “비밀”이라는 아람어 어근을 제시한다.

24:16c,d 이것은 매우 강력한 언어유희이다. 한 단어(BDB 93, KB 108)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신실치 않고 속이는 백성에 대한 강력하고 반복적 강조를 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을 주목하라

1. 배신자, BDB 93, KB 108, **칼 능동 분사**
2. 배신하다, BDB 93, KB 108, **칼 완료형**
3. **명사**, BDB 93 I(참조, 렘 12:1)
4. 1 항의 반복
5. 2 항의 반복

24:17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 이것은 비슷한 단어가 갖는 소리유희이다. 이 모든 단어(BDB 808, 809, 809)는 짐승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렘 48:33,34).

24:18

NASB	“재앙의 보고”
NKJV, 폐쉬타	“두려움의 소란”
NRSV	“공포의 소리”
NJB	“두려움의 외침”
70 인역	“두려움”
REB	“무서움의 큰 소동”

맛소라 본문에는 “공포의 소리에”로 되어 있다(BDB 876 이 BDB 808 과 함께 사용됨). 이것은 다음에 대한 암시를 가리킨다: (1) 전쟁의 소리(참조, 사 29:6; 렘 4:19,21; 겔 1:24) (2) 하나님의 소리(참조, 30:30-31) 또는 (3) 언약의 개념(참조, 렘 3:13,25; 7:23; 11:4,7; 26:13; 38:20).

▣ “함정에 빠지겠고 . . . 울무에 걸리리니” 사람이 동물처럼 함정에 빠지는 것에 대한 암시가 나온다(참조, 8:15; 28:13).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지만 재앙을 만날 뿐이다(참조, 2:10,19-22).

24:18c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홍수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암시이다(참조, 7:11; 8:2).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은 축복(즉, 농사와 가축을 위한 물, 참조, 왕하 7:2,19; 말 3:10) 혹은 심판(즉,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보냄, 참조, 창 7:11; 8:2; 사 24:18, 또는 물이 없음)을 뜻한다.

24:19 부정사 절대형과 이것과 같은 어근의 동사가 평행법을 이룸을 주목하라.

1. 땅이 깨지고 깨지며, BDB 949, KB 1270, **칼 부정사 연계형과 히트포엘 완료형**
2.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BDB 830, KB 975, **칼 부정사 연계형과 히트포엘 완료형**
3.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BDB 556, KB 555, **칼 부정사 연계형과 히트포엘 완료형**

이것과 같은 형태의 강조적 표현(즉, 부정사 연계형과 이와 같은 어근의 동사가 함께 사용됨)이 20 절(BDB 631, KB 681, **칼 부정사 연계형과 칼 미완료형**)에서 계속된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교제를 하며 풍요와 생명을 위해 창조된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또 파괴될 것이다

1. 불로써, 창 6-9 장
2. 하신 말씀에 의해, 사 24:3
3. 묵시적 표현에 의해, 렘 4:23-28
4. 불로써, 벧후 3:10-11

24:20 구약에서 술취함(즉, 비틀거림, BDB 631, KB 681, 부정사 연계형과 이와 같은 어근의 동사가 함께 사용됨)은 종종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사 19:14; 28:7,8; 29:9).

▣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여기에 사용된 문화적 암시인 밭에 세운 작은 움막(BDB 434)은 사람이 추수철에 그 곳에 거함으로써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참조, 1:8). 19-20 절은 죄로 물든 피조세계를 나타낸다(참조, 롬 8:18-22).

▣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오염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난 강도를 나타내는 과장법적 표현이다. 다른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긍휼을 베푸시며 회복시키실 것임을 안다! 예언서와 묵시문학에 나타난 과장법적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는 D. 브렌트 샌디의 *쟁기와 전정도구: 성경의 예언과 묵시적 언어에 대한 재고를 보라*.

24:21 “**그 날에**” 2:11 의 설명을 보라. 종말론적 주제를 나타내는 이 표식이 25:9; 26:1,2,12 에서 반복되고 있다.

▣ “**높은 군대를**” 구약에서 이것은 여러 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긴 별신을 가리킨다(참조, 40:26; 45:12). 한편 이 문맥에서 이것은 민족들의 천사에 대한 구약의 개념을 가리킨다(참조, 70 인역의 신 32:8 와 단 10 장).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물론 인간의 반역이나 사탄적인 유혹에 연루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G. B. 케어드, *성경의 언어와 묘사*, 179 쪽을 보라).

24:22 땅 위의 거만하고 오만한 왕들(참조, 10:12; 13:11)과 나라들에 관련된 반역하는 천사들은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벰후 2:4; 유 6 절; 계 20:1-3 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이것은 스올(구약) 혹은 탈타러스(신약)에 대한 암시로 보인다. 5: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어떤 학자들은 “여러 날 후에”가 계 20:1-6 의 천년왕국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요한계시록 20 장에서 언급된 시간에 대한 구분을 입증하는 성경 본문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전형적인 해석이다. 내가 요한계시록 20 장에 대해 쓴 주석 내용을 인터넷 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보라.

▣ “**죄수**” 이 형태(BDB 64)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사해사본, 70 인역, 아람어 탈군에는 빠져 있다.

24:23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것은 창조주께서 다가오심을 인해 자연계에 임할 커다란 변혁을 나타내는 묵시적 표현이다. 주님 자신의 임재하심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참조, 사 30:26; 60:19,20; 계 21:23; 22:5).

▣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여기의 범세계적 진술은 온 세상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낸다(참조, 사 2:2-4; 24:23; 25:6-7; 27:6,13). 이러한 범세계적 표현은 단 2:35,44-45 에 기록된 온 세상에 대한 야웨의 다스리심을 나타낸다.

▣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장로들(BDB 278)은 모세의 시대에 지도자였다(즉, 출 3:16,18; 4:29; 12:21 등). 이 용어는 각 지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나타낸다. 이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을 대표했다. 이사야서에서 장로들이 무책임했지만(참조, 3:2-3; 9:14-16), 여기서는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한다(아마도 예배와 경배를 통해, 즉 구속받은 장로들). 로버트 거들스톤(구약의 동의어, 245 쪽)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24-27 장을 묵시적 내용이라고 부르는가?
2. 이사야는 구약의 어떤 본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회화적 묘사를 가져오는가?
3. 1:26 의 신실한 성읍이 24:10 에 나오는 약탈을 당한 성읍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4. 14-16a 절에서 말하는 자는 누구이며, 또 16b 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5. “높은 군대”(문자적으로 “높은 곳의 높은 군대”)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사야 25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감사의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감사 찬송	찬양의 찬송	감사 찬송
25:1-5 (1-5)	25:1-5 (1-5)	25:1-5 (1-5)	25:1-5 (1-5)	25:1-5 (1-5)
25:6-12 (6-12)	25:6-8 (6-8)	3 번째 종말적 단락 25:6-10a (6-10a)	하나님께서서 연회를 준비하심 25:6-8	하나님의 연회 25:6-12 (6-12)
	25:9-12 (9)		25:9	(9-12)
		제앙의 예언 25:10b-12 (10b-12)	하나님께서서 모압을 벌하실 것이다 25:10-1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야웨의 범우주적 사랑을 말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장인가!
 1. 하나님의 구속 계획, 1d 절
 2. 하나님의 사랑, 4 절

- 나. 이 장은 여러 진술의 구약적 배경을 이룬다
1. 예수님의 진술(즉, 요 5:28-29)
 2. 바울의 진술
 - ㄱ. 고전 15 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54 절
 - ㄴ. 고후 3:15-16 과 엡 4:18 에서 가림(veil)의 목적에 대하여
 3.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사용한 구약의 이미지
 4. 누가가 말한 미리 작성된 구속 계획, 행 2:23; 3:18; 4:28; 또한 눅 22:22(사 2:2-4; 9:6-7; 11:1-10 을 보라)
- 다. 이것은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 비추어주는 몇 가지 간략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1. 사 26:19
 2. 욥 14:14; 19:25-27
 3. 겔 37:12-14
 4. 단 12:2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5:1-5

¹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²주께서 성읍을 들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³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⁴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⁵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25:1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 매우 개인적인 면을 갖는다(참조, 61:10). 이사야는 야웨를 알았고(그는 언약적 정신의 이상적인 대표자이다) 또 하나님의 친구로서 구원자요 주재이신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사야가 어떻게 야웨께 말씀드리는지를 주목하라.

1.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1 절, BDB 926, KB 1202, 포괄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2.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1 절, BDB 392, KB 389, *히필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는지를 주목하라.

1.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 절
2. 주께서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1 절
3.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1 절
4.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2 절
5.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4 절
6. 주께서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4 절
7.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5 절

이것은 시편 145 편처럼 찬송의 시이다. 이것은 24 장에 나오는 우주적 심판과 반대되는 신학적 내용이다.



NASB, NKJV,

NRSV

“아름다운 일들”

TEV

“놀라운 일들”

NJB

“경이로운 일들”

특별주제: 놀라운 일들(궤리)

이 단어(BDB 810)는 놀라움과 경이를 일으키는 행동으로서 인간이 스스로 이를 수 없거나 설명할 수도 없는 행동을 가리킨다(참조, 창 18:14; 렘 32:17,24; 슥 8:6).

동사

1. 출애굽 사건, 출 3:20; 34:10; 미 7:15
2. 재앙, 신 28:59
3. 요단강을 건넌, 수 3:5
4.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 삿 6:13; 대상 16:9,12,24; 느 9:17
5. 삼손의 출생, 삿 13:19
6.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사랑, 삼하 1:26
7. 율기에서 종종 사용함, 5:9; 9:10; 10:16; 37:5,14; 42:3
8. 시편에서 32 회 사용됨
9. 야웨의 모사, 사 28:29
10. 야웨의 행하심, 사 29:24(2 회); 율 2:26

명사

1. 출애굽, 출 15:11; 시 77:11,14; 78:12
2. 죽은 자와 관련하여, 시 88:10,12
3. 야웨의 행하심에 대한 하늘에서의 찬송, 시 89:5
4. 야웨의 법, 시 119:129
5. 야웨의 메시아, 사 9:5
6. 야웨의 행하심, 사 25:1; 29:14
7. 마지막 때의 행동, 단 12:6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가장 귀한 피조물(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능력과 구속적 방법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계시이고, 이러한 행하심의 기록은 영감된 내용이며, 이러한 행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조명이다. 야웨는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온전히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은 구약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즉, 사 14:24,26-7; 23:8,9; 46:10-11). 역사는 윤회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다. 맞소리 본문에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정하신”은 가정하여 삽입된 단어이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번역한 두 히브리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왔다.

1. 앞 단어(*에푸나*, BDB 53)는 “단단함,” “견실함,” “충성됨”을 뜻한다. 이것은 **여성형 명사**이다(참조, 시 88:12; 89:1,3,5,8; 호 2:20).
2. 뒤의 단어(*오벤*, BDB 53)는 “신뢰하는” 또는 “신실함”을 뜻한다. 이것은 **남성형 명사**이다(참조, 26:2; 신 32:20).

함께 사용된 두 단어(아멘이라는 단어에 속함)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성실함을 뜻한다(즉, 창 3:15; 12:3; 출 19:5-6; 사 2:2-4; 19:23-25,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25:2 “**성읍을 돌무더기로**” 사람의 반역을 상징하는 성읍이 여기에서 다시 사용되었다(참조, 24:10). 성읍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방법에서 찾으려는 모든 인간 사회의 수도에 위치한다. 24:10 과 26 장의 도표에서 서론의 라향을 참조하라.

“무더기”(BDB 164)라는 용어는 성을 파괴한 후에 쌓아 놓은 돌무더기를 가리킨다(참조, 37:26; 왕하 19:25; 렘 9:11; 51:37). 요새화된 성읍은 그들의 강력한 방어 구조물이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돌무더기가 되었다!

▣ “**외인의 궁성을**” JPSOA 는 이것을 “거만한 사람들의 성채”(각주)로 고쳤는데 JB, 스미스와 근스피드의 *성경: 미국역*, 스푸렐의 *원래의 히브리어로부터 번역한 구약 성경*이 이를 따른다. 70 인역은 “경건치 않은(또는 불경스러운) 사람들”로 번역했다.

이것은 다음의 단어를 변형시킨 것이다

1. 맞소리 본문, *자림*, BDB 266 I, KB 267, *칼, 능동 분사*, “외인”
2. *제딤*, BDB 267, “거만한,” “교만한”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비슷한 모양인 “**르**”과 “**느**”의 혼동이다.

25:3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이것은 아마도 여러 이방인 그룹을 가리킨다.

1. 18:2,7(구스)
2. 19:19-25(이집트와 앗시리아)
3. 24:14-15(동쪽과 서쪽[해변가]에 있는 국가들)

“강한 민족”(BDB 766 & 738)은 “포악한 국가”(BDB 156 & 792, 4d,e 절과 5 절)와 평행을 이룬다. 야웨께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시는 것(즉, “아름다운 일,” BDB 810, 1 절)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게 한다.

▣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기에 또 다시 “성읍”과 관련된 언어유희가 나온다. 한편 이 암시는 이렇듯 반역적인 성읍들 조차도(즉, 24:10; 25:2,3,12; 26:1-6) 어느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우주적 주제이다(즉, 2:2-4; 19:23-25; 24:14-16a; 43:21). 하나님을 찬양하라!

25:4 이것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암시이다(즉, 4:5-6; 32:2).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참조, 29:19).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도움이 없는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에 대해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목하여 보라.

1.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2.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3.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참조, 4:6; 32:2

4.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이것은 “포학한 자”의 행동과 매우 다르다(BDB 792, 참조, 29:5,20). 이것은 사회가 행하여야 할 역할을 나타낸다(즉,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야웨께서 약속하신 도움을 구하며 야웨를 신뢰하여야 함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를 따라 타락한 인간과 더불어 일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며 그 조건을 정하여 놓으신다. 한편 인간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써 하나님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참조, 시 50:15; 91:15; 107:6,13). 신약과 구약은 모두 혜택과 책임에 대해 말한다!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NASB	“벽을 치는 폭풍 우갈다”
NKJV, 폐쉬타	“벽을 치는 폭풍갈다”
NRSV	“겨울의 폭풍우처럼”
TEV, NJB	“겨울 폭풍처럼”
REB	“얼음 폭풍처럼”

맛소라 본문은 “폭풍우”(BDB 281, 참조, 4:6; 28:2; 30:30; 32:2)와 “벽”(길, BDB 885, 참조, 22:5; 38:2; 59:10)으로 되어 있다. 비슷한 단어는 “추운”이다(코르, NRSV, TEV, NJB, REB, NIDOTTE 제 3 권 994, 995 쪽, 코르는 카랄에서 움, BDB 903). UBS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는 “벽”에 A 등급(매우 가능성이 높음)을 준다.

25:5 “포학한 자의 노래” JPSOA 는 히브리 본문을 “노래”에서 “폭풍우”로 바꾸었다(참조, 4 절).

개역개정 25:6-12

⁶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⁷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⁹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¹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개가 밟힘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¹¹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뻗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¹²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25: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 . .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서 시온 산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는 활동의 장소가 되고 있다(참조, 2:2-4; 출 24:11; 삼상 9:13; 마 8:11; 눅 14:15; 22:16; 계 19:9). 이 메시아의 연회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참조, 27:13; 66:20).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하실 것이다(참조, 사 55 장)!

▣ “이 산에서” 이것은 유다에 있는 새롭게 된 시온 산(즉, 예루살렘) 혹은 모리아산(즉, 성전)을 가리킨다(참조, 24:23). 예루살렘은 이러한 종말론적 문맥에서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문자적으로는 유다에 있는 도시
2. 상징적으로는 새 땅(참조, 계 21:1-2)

▣ “포도주” 여러 종류가 있음을 주목하라.

1. 오래 저장한 포도주, BDB 1038 II, 이것은 침전시키고 남은 포도주를 가리킨다
2. 맑은 포도주, BDB 279, KB 279, **푸알 분사**, 이것은 오랫동안 침전시킨 후에 걸러낸 포도주로서 극상품에 속한다.

1:22의 특별주제: 알코올과 술취함을 보라.

25:7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아 오는 이방인들(“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과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용어이며 전세계적 표현이다)로부터 어떤 것을 제거하실 것임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은 문자적으로 “얼굴”(BDB 815), “덮개”(BDB 532, KB 523, **칼 능동 분사**); “가리는 것”(BDB 532, KB 523, **칼 능동 분사**); 평행을 이루는 구는 문자적으로 “가리개”(BDB 697), “펼친 것”(BDB 651 II, KB 703, **칼 수동 분사**), 또는 “엮은”(BDB 651 II, NASB 난외주, NIDOTTE 제 3 권 253 쪽)이다. 이 “덮개”와 관련하여 여러 이견이 제시되었다.

1. 죽음 자체(참조, 8 절이 7 절의 **동사**를 반복함)
2.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의 표시(참조, 삼하 15:30)
3. 부끄러움의 표시(참조, 삼하 19:5; 렘 14:3)
4. 영적 소경됨(참조, 고후 3:15-16; 엡 4:18)
5. 히브리어 어근인 루트(BDB 532)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비밀”을 뜻하는 칼(BDB 532)과 관련이 있다(참조, 룻 3:7; 삼상 18:22; 24:4. 이것은 종종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 참조, 출 7:22; 8:3,14).

“덮개”는 타락한 인간의 눈을 멀게한 거짓된 종교를 가리킬 수 있다(참조, 롬 1:21-32).

25: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 에덴의 원래 상태가 회복된다(참조, 65:19-20). 범죄하였고 반역적인 인간이 영원히 구속을 받을 수 있다! 부활이 26:19에서 특별히 언급된다(참조, 욥 14:14; 19:25-27; 겔 37:12-14; 단 12:2; 고전 15 장).

사망이 아담의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스렸다(참조, 롬 5:12-21).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패배를 당했다(참조, 호 13:4 를 고전 15:55-57에서 인용함).

구약에서는 범죄한 자가 죽임을 당해야 했다(참조, 겔 18:4,20; 롬 6:23).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에 기초한 언약이었다(참조, 레 18:5; 갈 3:12). 그러나 타락(참조, 창 3 장)과 인간의 연약함은 인해 이것은 사형선고와 저주로 바뀌었다(참조, 갈 3:13; 4:5).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형선고로부터 구하실 것이다(참조, 골 2:14).

▣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을 씻기시는 분(BDB 562, KB 567, **칼 완료형**, 참조, 43:25; 44:22; 시 51:1,9)이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 하나님(문자적으로는 **아돈 야웨**)이심을 주목하라. 또한 “모든 얼굴”(BDB 481 과 BDB 815)을 씻기심을 주목하라!

슬픔, 가책(심판), 기쁨(구원)의 회복과 같은 주제가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참조, 30:19; 35:10; 51:11; 65:19; 또한 신약에서의 이러한 용법을 주목하라, 계 7:17; 21:4).

▣ “자기 백성의 수치를 은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 이것은 겔 36:22-38 에 있는 새 언약을 가리킨다. 새 언약은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명성을 바꾸어 준다
2.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백성과 연결시킨다(참조, 롬 2:28-29; 롬 9:6; 11:26; 또한 갈 6:16; 뱀전 2:5,9; 계 1:6 을 참고하라). 수치는 죄의 결과이다. 수치를 제한한다는 것은 용서와 회복을 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 계획을 나타낸다(1 절)!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분명하다는 점이 여기에 다시 나온다(참조, 24:3; 30:23; 40:8; 55:10-11).

25:9 “그 날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을 가리킨다. 어떤 이들에게 이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참조, 12:1-4; 26:1; 27:1-2). 2:11 의 설명을 보라.

▣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1) 이스라엘의 하나님(즉,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2, 15, 17 장) 혹은 (2) 창 3:15 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참조, 창 1:26,27)을 가리킨다.

▣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 동사(BDB 875, KB 1082, *피엘 완료형*)가 두 번 나온다(참조, 8:17; 26:8; 33:2; 40:31; 49:23; 51:5; 60:9). 이것은 “기다리다,” “신뢰하다,”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진다! 이 단어는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었다.

▣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이 동사(BDB 446, KB 448, *히팔 미완료형*)는 “구원하다”를 의미한다(즉, 육체의 구원, 창 12:12; 출 1:17-22; 14:30; 약 5:20). 하지만 이 문맥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신약에서 사용하는 “구원”에 더 가까운 뜻을 가진다(즉, 마 1:1; 18:11; 고전 1:21; 9:22; 딤후전 1:15; 딤후 1:9). 이 사람들(유대인과 이방인)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33: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두 청유형이 사용되었다.

1. BDB 162, KB 189, *칼 청유형*
2. BDB 970, KB 1333, *칼 청유형*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피조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회복을 가져 온다(참조, 35:1-2,10; 65:18; 66:10).

25:10-11 강조를 위해 여러 단어가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1. 밟힘, 10 절, BDB 190, KB 218
 - ㄱ. *니팔 완료형*
 - ㄴ. *니팔 부정사 연계형*
2. 손을 펴, 11 절, BDB 831, KB 975
 - ㄱ. *피엘 완료형*
 - ㄴ. *피엘 미완료형*
3. 헤엄 치, 101 절, BDB 965, KB 1314
 - ㄱ. *칼 분사*
 - ㄴ. *칼 부정사 연계형*

모압은 구정물 구덩이에서 헤엄치려고 할 것이다(10 절, 이 절은 이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곳이다[*만메나*, BDB 199]). 70 인역과 페쉬타는 이렇게 읽지 않고 “그들이 마당을 수레로 누른다”로 표현한다. JPSOA 는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명인 “만메나”로 고쳤다, 참조, 10:31.

25:10-12 이것은 주위 국가들에 대한 심판 특히 모압(JPSOA 는 “앗시리아”로 바꾸었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주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모압은 이사야서 15-16 장에서 이미 정죄받았다. 여기서 모압(24-27 장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나라)은 자기들의 상태를 자랑하며 반역하는 모든 인간에 대한 상징으로 보인다. 모압은 지리적으로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하며 그들의 상품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거두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성취를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상징이다. 이러한 점은 (1) 사 24:10 에서 언급한 “혼란의 성읍” 혹은 (2) 사 26:5 에서 언급한 “난공불락의 성읍”의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25:11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 . .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 동사(BDB 1050, KB 1631, *히필 완료형*, 참조, 10 절)는 26:5 에서 두 번 사용되었는데 야웨께서 “성읍”을 낮추심을 가리킨다(참조, 24:10; 25:2-3).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동사로서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참조, 2:9,11,12,17; 5:15[2 회]; 10:33; 13:11; 25:11; 29:4; 40:4; 또한 삼하 22:28; 욥 40:11; 시 18:27; 잠 29:33 을 보라).

모압의 지나친 교만은 이미 16:6 에서 언급되었고 16:14 에서는 그들의 멸망에 대해 말한다.

▣

NASB, NKJV	“그의 손의 능숙함”
NRSV	“그들의 손의 다툼”
TEV	“그들의 손이 도움이 없이 가라앉을 것이다”
NJB	“그의 손이 시도하는 것”
JB	“그가 그의 손을 뻗친다”
페쉬타	“그들의 손의 노력물”

JPSOA 는 “그들의 힘의 상징물과 함께”로 수정하여 “난공불락의 성채”와 연결시킨다, 참조, 12 절.

“능숙함,” *오르볼*(BDB 70)은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나오는데, 이것과 비슷한 형태인 *마아랍*(BDB 70)은 “매복”을 뜻하고 *아랍*(BDB 70)은 “업드려 기다리다” 또는 “매복하다”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뜻이 문맥에 맞지 않는 점이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25:9 과 24:23 에 있는 “그 날에”는 어떻게 서로 다른가?
2. 25:10-12 에서 왜 모압이 두드러지게 언급되는가?

이사야 26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감사의 찬송
26:1-6 (1-6)	26:1-11 (1b-6)	26:1-6 (1-6)	26:1-19 (1-6)	26:1-6 (1-6)
		목시적 시		시
26:7-10 (7-10)	(7-9) (10-11)	26:7-15 (7-15)	(7-18)	26:7-19 (7-11)
26:11-19 (11-19)	26:12-19 (12-15)			(12-15)
	(16-18)	26:16-19 (16-19)		(16-19)
	(19)		(19)	
	다가 오는 심판으로부터 피난처를 구함	네 번째 종말론적 단락 (26:20-27:1)	심판과 회복	주님의 심판
26:20-21 (20-21)	26:20-21 (20-21)	26:20-21 (20-21)	26:20-21	26:20-27:1 (20-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사야서 26 장과 27 장은 24 장에서 시작된 문학적 단락에 속함을 기억해야만 한다.
- 나. 24-27 장은 이사야서 13-23 장에 나오는 주위 나라들에 대한 연속적인 심판 예언의 결론을 이루는 문학적 단위에 위치한다. 심판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 계획을 갖고 계시다!
- 다. 이 부분은 두 도시에 대한 언어유희를 나타낸다.
 - 1. 타락한 인간 곧 가인의 자손들이 성읍을 건설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원과 힘으로 필요를 채우려 했다(즉, 창 10-11 장).
 - 2.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 성(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둔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 위에 거하심). 시온 성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다(참조, 2:2-4; 19:18-25; 히 11:10; 12:22; 13:14; 계 21:1-2).
- 라. 도시들은 민족들의 그룹/국가를 대표한다.

인간의 도시들

- 1:7,8, 불탄 유다의 성읍
- 1:21,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됨
- 6:11,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됨
- 14:17,21, 모든 성읍들이 황폐하게 됨
- 14:31, 블레셋의 성읍들
- 17:1-3,9, 파괴된 시리아의 성읍들
- 19:2, 이집트의 성읍들이 서로 멸망시킴
- 22:2,9, 기뻐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망함
- 23, 두로가 망함
- 24:1-25:5, 전세계적으로 도시가 파괴됨
- 25:10-12, 모압이 궁전, 성채와 함께 짓밟힘
- 26:5, 난공불락의 도시, 아마도 모압
- 27:10, 견고한 성읍이 망함
- 29:1, “아리엘”(예루살렘)
- 33:2,19, 즐거워 하는 성읍(예루살렘)
- 48:2, 거룩한 성읍, 그러나 이름만 그러함

하나님의 도시

- 1:26,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
- 19:18-22, 이집트의 성읍이 하나님을 예배함
- 19:23-25, 모든 이집트와 앗시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됨
- 25:6-9, 하나님의 산에서의 연회 (즉, 예루살렘)
- 26:1, 강한 도시 예루살렘이 회복됨
- 45:13, 내 도시(참조, 44:23)
- 52:1-6, 거룩한 시
- 60:14, 하나님의 도시
- 62:12, 잊어버린바 된 도시
- 66:6, 환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림

개역개정 26:1-6

¹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²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³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⁴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⁵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엮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⁶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26:1 “그 날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찾아오시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축복을 위해서 혹은 심판을 위해서다. 2:11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노래” 이 단락(즉, 24-27 장)에 여러 노래가 나온다.

1. 심판, 23:15-18
2. 심판, 24:7-11
예배, 24:14-16
3. 감사와 찬송, 25:1,3,6,9
4. 즐거워함, 26:1,19
5. 즐거워함, 27:2

음악/찬송의 유형은 야웨께서 심판 혹은 축복을 위해 오심을 나타낸다(참조, 신 27-28 장).

▣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1-6 절(5 절만 제외하고)에 나오는 이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으로서 회복된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 성읍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위의 문맥적 통찰의 방향을 보라.

▣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러한 외벽은 적이 성벽을 뚫지 못하도록 막는 흙 구조물이었다. 대명사는 야웨를 가리킨다.

“안전”은 문자적으로 “구원”(BDB 446)을 가리킨다. 33:2의 특별주제를 보라.

26:2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것은 거룩한 도시와 성전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60:11,18; 62:10).

“나라”(BDB 156)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경멸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신실한 유다를 가리키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문맥, 문맥, 문맥을 기억하라!

▣ “신의를 지키는” 2-4 절은 “신실한” 혹은 “믿을 수 있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관련된 언어유희이다. 22:23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절은 다음의 내용을 통해 믿음의 계속성을 강조한다

1. “지키는”의 칼 능동 분사(BDB 1036, KB 1581)

2. “믿음”의 **복수형**(BDB 53)

이것이 개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한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참조, NRSV, JB, REB). 이것은 어떤 면에서 24:13 에 있는 문제와 비슷하다(참조, 사 30:15). 신실한 남은 자라는 개념은 주를 기다리는 개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참조, 25:9; 26:8). 심판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26: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언약적 내용을 주목하라.

1. 신자의 마음은 야웨께 향해 있다(BDB 701, KB 759, **칼수동 분사**, 그런데 이것은 **능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참조, 대상 29:18).
2. 야웨는 그/그녀를 지키신다(BDB 665 I, KB 718, **칼 미완료형**, 언약적 관계에는 두 당사자가 관련이 있다,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3.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은 **살롱**(BDB 1022, 참조, 사해사본)을 두 번 사용한 표현이다. 단어의 이러한 중복은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었다.

▣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하다”**(BDB 105, KB 120, **칼수동 분사**)라는 단어는 야웨를 “신뢰함”을 뜻한다(참조, 12:2; 26:4; 36:15; 37:10; 50:10). 다음 절에서 같은 단어가 **명령**으로 나타남을 주목하라. 이것은 단지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필요함을 말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다. 둘 다 중요하다!

26: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동사**(BDB 105, KB 120, **칼 명령**)에 대하여는 2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4 절의 첫 행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웨이고, 두 번째 행에서는 야와 야웨의 **합성어**가 사용되었다. 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영원히”(BDB 723 I)라는 용어는 앞의 것은 **복수형**이고 뒤의 것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합성어, 참조, 65:18; 시 83:18; 92:8). “영원히”(BDB 761)와 더불어 야웨께 대해 사용된 이 구조는 현재의 삶 이후에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지속됨을 나타낸다(참조, 14,19 절; 시 23:6).

▣ **“주 여호와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이라는 단어는 야웨께서 변하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은유이다(참조, 시 18:1,2; 사 17:10; 30:29; 44:8).

26:5 “솟은 성” 이것은 모압의 교만을 가리킨다(참조, 25:10-12, 특히 12 절). 인간의 교만과 거만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

26:6 여기서 야웨는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신다. “밟다”라는 개념은 이 절을 25:10 과 연결시킨다. 여기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25:10 은 모든 인간 및 범죄하고 반역하는 사회에 대한 상징으로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대해 사용한 것과 비슷함).

여러 단어가 밟을 가리킨다.

1. **동사**, “밟다”(BDB 942, KB 1245, **칼 미완료형**)
2. **명사**, “발”(BDB 919, **단수형**)
3. **명사**, “발”(BDB 919, **단수형**)
4. **명사**, “걸음”(BDB 919, **복수형**)

이 장에는 중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점은 이사야서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다.

1. 평화, 3 절
2. 야웨, 4 절
3. 발, 6 절

24-27 장에서 중복되어 사용된 모든 동사를 기억하라.

1. “몸부림치다,” BDB 615, KB 663, *칼 완료형*, 24:4
2. “그치다,” BDB 991, KB 1407, *칼 완료형*, 24:8
3. “마시다,” BDB 1059, KB 1667, *칼 미완료형과 분사*, 24:9
4. “케홀을 행하다,” BDB 93, KB 108, *칼 분사와 완료형(2 회)*, 24:16
5. “밟히다,” BDB 190, KB 218, *니팔 완료형과 부정사*, 25:10
6. “펼치다,” BDB 831, KB 975, *피엘 완료형과 미완료형*, 25:11
7. “헤엄치다,” BDB 965, KB 1314, *칼 분사와 부정사 연계형*, 25:11
8. “신뢰하다,” BDB 105, KB 120, *칼수동 분사와 칼 명령*, 25:3,4
9. “낮추다,” BDB 1050, KB 1631, *니팔 미완료형(2 회)*, 26:51
10. “보다,” BDB 302, KB 301, *칼 미완료형(2 회)*, 26:11
11. “증가하다,” BDB 414, KB 418, *칼 완료형(2 회)*, 26:15
12. “그가 만들게 하라,” BDB 793, KB 889,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2 회)*, 27:5
13. “치다,” BDB 645, KB 889, *히필 분사와 완료형*, 27:7

▣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밟는 자는 바로 야웨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대리인을 사용하신다(즉, 앗시리아, 바벨론). 피해를 받았던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것을 여기서 말한다(참조, 3:14-15).

개역개정 26:7-10

⁷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⁸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⁹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¹⁰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26:7 “길... 첩경... 평탄” 이것은 왕의 방문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개념과 관련된 언어유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문을 영적으로 예비하는 은유적 표현이 되었다. 이것은 침례(세례)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개념이다(참조, 40:3,4; 42:16; 45:13; 마 3:3; 막 1:3; 눅 3:4-6; 요 1:25).

평탄한 첩경은 경건한 삶의 양식과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 뜻하는 평탄한 길을 염두에 두게 한다. 신실한 신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하나님을 위한 마음(개인적 관계, 참조, 9 절)
2. 하나님을 위한 삶(순종, 참조, 8 절)

이 둘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분리될 수 없다(참조, 눅 6:46).



NASB, NJB “의로운 사람”
 NKJV “아주 의로운 사람”
 NRSV, JPSOA “바른 사람”

이 곳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 이 칭호를 사용한 유일한 곳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의로운 자”(참조, 24:16)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또 어떤 번역본은 이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로 보며, 또 어떤 번역본(70 인역, 페쉬타, JB, REB)은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걷는 평탄한 길을 가리킨다고 여긴다(참조, 42:16).

26:8 “길에서” 이 단어(문자적으로 길, BDB 73)가 7 절에 있는 “길”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주목하라.

1. 7 절, 문자적 길
2. 8 절, 삶의 양식

▣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 동사(BDB 875, KB 1082, *피엘 완료형*)를 번역함에 있어서 NASB 는 “간절히”라는 부사를 첨가하여 하고 있다. 다른 영어 번역본들은 이러한 첨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둔 신뢰/기다림을 나타낸다(참조, 8:17; 25:9; 33:2).

▣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신명기와 시편에서)

- I. “규례” BDB 349, “법령, 명령, 혹은 규정”
 - 가. 남성형, *후* - 신 4:1,5,6,8,14,40,45; 5:1; 6:1,24,25; 7:11; 11:32; 16:12; 17:19; 26:17; 27:10; 시 2:7; 50:16; 81:4; 99:7; 105:10,45; 148:6
 - 나. 여성형, *후카* - 신 6:2; 8:11; 10:13; 11:1; 28:15,45; 30:10,16; 시 89:31; 119:5,8, 12,16,23,26,33,48,54,64,71,80,83,112,124,135,145, 155,171
- II. “율법” BDB 435, “가르침”
 - 신 1:5; 4:44; 17:11,18,19; 27:3,8,26; 28:58,61; 29:21,29; 30:10; 31:9; 시 1:2; 19:7; 78:10; 94:12; 105:45; 119:1,18,29,34,44,51, 53,55,61,70,72,77,85,92,97,109,113,126,136,142,150,153,163, 165,174
- III. “증거” BDB 730, “하나님의 법”
 - 가. 복수형, *에다* - 신 4:45; 6:17,20; 시 25:10; 78:56; 93:5; 99:7; 119:22,24,46,59, 79,95,119,125,138,146,152,167,168
 - 나. *에돏 / 에다* - 시 19:7; 78:5; 81:5; 119:2,14,31,36,88,99,111,129,144,157
- IV. “규칙” BDB 824, “명령”
 - 시 19:8; 103:18; 111:7; 119:4,15,27,40,45,56,63,69,78,87,93,94, 100,104,110,128,134,141,159,168,173

V. “명령” BDB 846

- 신 4:2,40; 5:29; 6:1,2,17,25; 8:1,2,11; 10:13; 11:13; 15:5; 26:13, 17; 30:11,16; 시 19:8; 119:6,10,19,21,32,35,47,48,60,66,73,86, 96,98,115,127,131,143,151,166,176

VI. “심판/규례” BDB 1048, “지배” 혹은 “정의”

- 신 1:17; 4:1,5,8,14,45; 7:12; 16:18; 30:16; 33:10,21; 시 10:5; 18:22; 19:19; 48:11; 89:30; 97:8; 105:5,7; 119:7,13,20,30,39,43, 52,62,75,84,102,106,120,137,149,156,160,164; 147:19; 149:9

VII. “그의 길” BDB 202, 야웨께서 자기 백성에게 삶의 양식으로서 주시는 지침

- 신 8:6; 10:12; 11:22,28; 19:9; 26:17; 28:9; 30:16; 32:4; 시 119:3,4,37,59

VIII. “그의 말씀” BDB, “”

가. BDB 202 - 신 4:10,12,36; 9:10; 10:4; 시 119:9,16,17,25,28,42,43,49,57,65, 74,81,89,101,105,107,114,130,130,147,160,161,169

나. BDB 57

1. “말씀” - 신 17:19; 18:19; 33:9; 시 119:11,67,103,162,170,172
2. “약속” - 시 119:38,41,50,58,76,82,116,133,140,148,154
3. “명령” - 시 119:158

▣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개인의 마음을 나타낸다(참조, 9 절; 25:9).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즉, 출 3:15; 시 135:13). “주를 기억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적 사건을 찬송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26:9 9 절의 처음 두 행은 시편과 비슷하다. 예배자가 야웨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1. 사모함, BDB 16, KB 20, **피엘 완료형**
2. 구함, BDB 1007, KB 1465, **피엘 미완료형**, 시 63:1; 78:34; 호 5:15

이것은 개인적인 강력한 용어이다. 이 내용은 나에게 시 42:1-2 를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사모한다!

▣ 9 절의 다음 두 행과 10 절은 악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하려는 자이다(참조, 롬 2:4-5). 하나님의 법(즉, 심판)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돕기 위함이었다(참조, 11 절).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계시를 가려놓았다. 이스라엘 조차도 자기들의 가족적인 전통을 주장하며 이를 이용했다(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계의 진실된 거민들은 의를 배우지만(9d 절) 악한 자는 그렇지 않다(10b 절).

▣ “심판” 3:1 의 특별주제: 이사야서의 심판하다, 심판, 정의를 보라.

26:10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 절은 야웨의 계시가 갖고 있는 의도(즉, 악한 자에게 말하여 그가 돌이키게 하기 위함)와 야웨의 행하심을 설명한다.

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즉, 은혜롭게 행하신다), BDB 335, KB 334, **호팔 미완료형**
 2. 그들이 “정직한 자의 땅에서” 살도록 하신다
 3.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신다(즉,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신다), 11 절
- 야웨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에 대하여 악인이 나타내는 반응은 무엇인가?
1. 의를 배우지 않는다, 10 절
 2. 정의롭게 행하지 않는다, 10 절
 3. 여호와와 그의 위엄을 알아보지 못한다, 10 절
 4.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열심을 보지 못한다, 11 절

개역개정 26:11-19

- ¹¹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 ¹²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 ¹³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 ¹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하셨음이니이다
- ¹⁵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 ¹⁶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별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 ¹⁷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 ¹⁸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 ¹⁹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26:11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것은 과거와 현재에 야웨께서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것이 명확할 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참조, 10 절; 5:12,25; 8:11; 9:12; 10:4,10; 11:15; 13:2; 14:26-27; 23:11; 25:10; 28:2 등).

▣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것은 미완료형이 지시형(즉,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기 원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26:12 이것은 야웨의 주권을 강하게 확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구속적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참조, 겔 36:22-38)!

26:13 “다른 주들이” 이것이 2:8 과 27:9 에 나오는 거짓 신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대면하고 있는 국가적 원수(시리아, 앗시리아, 바벨론)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이 동사(BDB, 127, KB 142, **칼 완료형**)는 다음을 뜻한다

1. 아내 혹은 첩으로 취함, 창 20:3; 출 21:3,22; 신 22:22; 24:4
2. 지배함, 16:8

이 절은 우상숭배 특히 다산적 우상숭배를 가리킨다. 야웨는 그들의 유일하고 참된 “주”요 “남편”이시다(참조, 호 2:14-20).

▣

NASB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NKJV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NRSV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식합니다”
NJB, REB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70 인역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동사(BDB 269, KB 269, **히필 미완료형**)는 “기억하다”를 뜻한다. KB 는 이것이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즉, 찬양)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높이는 예배의 장면을 나타낸다(공정적으로, 즉, 시 45:18; 71:14-16; 또한 부정적으로, 찬양에서 다른 신들을 언급하지 않음, 출 23:13).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야웨이심을(즉, “주를 통하여”) 주목하라.

1. 국가의 구원(참조, 15 절, 성전)
2. 개인의 구원(참조, 16 절, 그곳에 가고자 함)

26:14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13 절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들”은 외국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 절은 사후세계 특히 악한 자의 전멸에 대한 신학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일반적인 부활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주 많이 있다(참조, 단 12:2; 마 25:46; 요 5:28-29; 행 24:15). 이 절은 이제 심판받아 죽은 그 왕들이 개인적으로든 혹은 상징적으로든 다시 돌아와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결코 없음을 말하고 있다.

▣

NASB	“떠난 영들”
NKJV, JPSOA	“그늘들”
TEV, JB	“영들”
NJB	“그림자들”

이 히브리 용어(BDB 952 I)는 가라앉은 자, 죽어 무력하게된 자(참조, 욥 26:5; 잠 2:18; 사 14:9; 한편 26:19 에서 이 용어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의로운 자를 나타낸다).

같은 어근(BDB 952 II)이 거인을 가리키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14:9 의 특별주제를 보라. 르바임이 위대한 전사들을 일컫는 보편적인 은유요 또 강대국의 왕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다.

26:15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이 가진 목적이었다. 같은 비유적 표현이 종말론적으로 확대되어 모든 민족이 야웨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옴을 나타낸다.

26:16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 고통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무거운 손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낮고 신중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에 신학적 언어유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 간절히 기도드림(BDB 538 3 항)
2.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한 부분으로서 속삭임(BDB 538 1 항과 2 항, 참조, 3:3,30)

문맥, 문맥, 문맥이 뜻을 규정함을 기억하라!

26:17 “잉태한 여인” 성경에서 종종 출산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고통스럽게 임할 것을 나타내는 은유로서 사용되었다. 어떤 이는 17-18 절이 메시아의 출생(즉, 새 시대의 출산을 위한 고통에 대한 은유, 참조, 막 13:8)으로 해석하지만, 이 문맥에서 이것은 심판을 가리킬 것이다.

26:18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절은 이스라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선교적 역할을 나타낸다(참조, 출 19:4-6).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다(참조, 사 42:6; 56:6; 49:6). 한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결코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땅의 열방은 야웨의 심판만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참조, 15 절); 따라서 이스라엘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참조, 25:1)은 뒤틀려졌다.

“바람”(BDB 924)이라는 용어는 이사야서에서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

1. 호흡, 11:4; 25:4; 27:8; 30:28; 33:11; 40:9; 59:19
2. 바람, 7:2; 11:15; 17:13; 26:18; 32:2; 41:16,29; 57:13; 64:6
3. 영
 - ㄱ. 하나님의 영, 11:2(4 회); 30:1; 32:15; 34:16; 40:13; 42:1; 44:3; 48:16; 59:21; 61:1; 63:10,11,14
 - ㄴ. 인간의 영, 4:4; 19:3,14; 26:9; 28:6; 29:10,24; 31:3; 37:7; 38:16; 42:5; 54:6; 57:15(2 회),16; 61:3; 65:14; 66:2

한편 지혜문학에서 이 용어는 무의미함 또는 공허함을 나타낸다(즉, 전 1:14,17; 2:11,17,26; 4:4,6,16; 5:16; 6:9). 나는 이 26:18 과 41:29 의 경우는 2 항의 의미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아브라함의 씨가 야웨께 열방을 데리고 올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 기인했다

1. 그들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타락함
2. 국가적 타락

그러나 야웨께서는 행하실 수 있다(참조, 12 절)!

18d 절에 나오는 “출산하다”(BDB 656, KB 709, **칼미완료형**)는 문자적으로 “떨어뜨리다” 혹은 “떨어지다”를 뜻하는데,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 출산을 말한다. 아랍어 어근은 출산을 뜻하는데 이것은 주로 동물의 출산을 가리킨다(참조, NIV).

26: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19 절은 14 절과 대조를 이룬다. 이 점이 바로 왜 14 절이 신학적 견해를 위해 사용될 수 없는가를 말해준다. 19 절은 25:8 과 아주 가까운 신학적 의미를 나타낸다. 26:3 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문제는 이 내용이 국가 전체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한 개인에 대한 것인가이다. 히브리어에서 19b 절에 있는 “그들의”는 문자적으로는 “나의”로 되어 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개인 대 국가에 관련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이스라엘 국가의 부활은 겔 37 장에 나오는 내용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죽은 자들(“티끌에 누워 있는 너희”)이 하게 될 일을 말하는 이 절에는 두 명령이 사용되었다.

1. 일어나다, BDB 884, KB 1098, **히필 명령**
2. 외치다, BDB 943, KB 1247, **피엘 명령**

부활은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다.

1. 욥(주전 2,000 년 경의 에돔인), 14:13-15; 19:25-27
2. 이집트의 미이라 제조(주전 3,000 년경 전후에 시작되어 제 21 왕조 때 까지 이름)
3.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죽음을 가져온 것이라면,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 반대되는 일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랍비들(즉,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참조, 행 23:6; 히 6:1-2). 예수께서는 부활을 믿었다(참조, 마 22:23-33; 눅 14:14; 요 11:24-25). 천국의 개념은 교제에 대한 것이다. 게헨나는 믿음과 교제를 거부한 자들을 영원히 격리시키는 곳이다! 미래에 대한 성경의 은유적 표현은 회복된 에덴에서 보여진다(참조, 계 21-22 장).

▣

NASB	“새벽의 이슬”
NKJV	“풀의 이슬”
NRSV, NJB	“빛나는 이슬”
TEV	“반짝이는 이슬로서”
REB	“반짝이는 빛의 이슬”
페쉬타	“빛의 이슬”
JPSOA	“이슬 혹은 신선한 성장”

이것은 문자적으로 “빛의 이슬을 위해”이다. “빛”(BDB 21)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생명의 빛 대 죽음의 어두움(복수형, BDB 21 I, 아마도 에 8:16)
2. 풀(BDB 21 II, 창 1:11,12)

팔레스타인에는 오직 두 우기만 있다. 이 두 시기 사이에는 작물이 이슬에 의지하여 생존하고 성장한다. 따라서 “이슬”과 “빛”은 다 생명과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개역개정 26:20-21

²⁰ 내 백성이 같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²¹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잤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6:20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다. 이에 따른 결과가 있다. 심판이 그들에게 오고 있지만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이 절에는 4 명령이 나온다.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말한다.

1. 오라, BDB 229, KB 246, 칼 명령
2. 들어가라, BDB 97, KB 112, 칼 명령
3. 닫으라, BDB 688, KB 742, 칼 명령
4. 숨으라, BDB 285, KB 285, 칼 명령

이 명령은 모두 남성 단수형이지만 집합적으로 모든 신실한 자에게 대한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12 장에 있는 출애굽 사건의 암시이다.

1. 문을 닫다
2. “지나 가다”(BDB 716)라는 동사는 출애굽기 12 장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동사(BDB 820)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 남는다.

26:21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 구는 이 곳과 미 1:3 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다음을 나타낼 것이다

1. 하늘(즉, 하나님의 보좌)
2. 성전(즉, 하나님의 발등상)

▣ “땅” 24-27 장은 세계에 임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사야 27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스라엘의 구원	다가 오는 심판으로부터 피난하라 (26:20-27:1)	네 번째 종말적 부분 (26:20-27:1)	심판과 회복 (26:20-27:1)	주님의 심판 (26:20-27:1)
			26:20-27:1	
27:1 (1)	(27:1)	27:1		27:1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에 관한 네 번째 묵시적 시		야웨의 포도원
27:2-11 (2-11)	27:2-11 (2-5)	27:2-11 (2-5)	27:2-5	27:2-5 (2-3) (4) (5)
	(6)	(6)	27:6	용서와 벌 27:6-11 (6-11)
	(7-11)	(7-11)	27:7-9	
		최후의 심판과 승리에 대한 예언의 결론	27:10-11	이스라엘이 돌아옴
27:12-13	27:12-13 (12) (13)	27:12-13	27:12	27:12-13 (12-13)
			27:1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것은 24 장에서 시작된 문학적 단락의 결론을 이루는 장이다.
- 나. 마지막 두 행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 시작된 마지막 때의 심판(참조, 렘 25:29; 암 3:2; 벧전 4:17)을 매우 은유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심판은 모든 인간에게 확장된다.
- 다. 마지막 절은 5 절의 경우와 같이 희망을 이방 민족에게로 확장시킨다(참조, 2:2-4; 19:18-23; 25:2-3).
- 라. 이것은 놀라운 시로 된 장이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표현은 애매성과 혼동을 가져온다. 시에 사용된 단어의 세세한 뜻이나 신화적 암시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각 연이 나타내는 뜻을 찾아야 함을 기억하라.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7:1

¹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7:1 “그 날에” 2:11의 설명을 보라

▣ “날랜 뱀 리워야단” 리워야단(BDB 531)은 우가릿 신화에 나오는 바다 짐승(즉, 욥 41:19-21)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언급은 욥 3:8; 시 104:26; 암 9:3 에 나온다. 한편 이것은 악한 국가의 상징으로서 때때로 사용되었다(참조, 시 74:13-14, 아마도 이집트). 이것은 땅을 꿈틀거리는 강과 비슷하다. 때때로 이 용어는 “라합”과 독특하게 연결되어 사용된다. 라합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용어였다(참조, 시 87:4; 89:9-10; 사 30:7). 나는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이 적국인 이집트 또는 앗시리아를 강으로 상징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참조, 12 절). 이 용어를 쉽게 상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가나안의 신화적 글에서 이미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참조, 시 74:12-17; G. 알처의 성경의 어려운 표현의 백과사전 239-240 쪽을 보라).

평행이 다음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

1. 날랜 뱀(BDB 638 I) 혹은 바다 용(NASB의 각주)
2. 꼬불꼬불한 바다 용
3. 바다에서 사는 용

이같은 암시가 (1) 우가릿 시와 (2) 사 51:9에서 발견되는데 후자의 경우 “용”(BDB 1072)인 “라합”이 나온다.

이 절과 문맥의 분명한 연결점은 11-12 절에 나온다.

1. 창조주 하나님, 11 절
2. 유프라테스 강과 12 절에 나오는 이집트 시내
3. 마지막 때가 시작의 때와 비슷하게 제시된다(즉, 창 1-2 장; 계 21-22 장)

이사야의 기록은 여러 해에 걸쳐서 쓰여졌고,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언어유희나 주제에 따라 편집되었음이 분명하다.

▣ “용” 이 용어(BDB 1072)는 다음을 뜻한다

1. 뱀, 출 7:9,10,12; 신 32:33; 시 91:13
2. 용, 느 2:13; 렘 51:34
3. 바다/강의 용, 창 1:21; 욥 7:12; 시 74:13; 148:7. 이것은 리워야단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시 74:13-14). 이것은사 27:1; 51:9,10; 겔 29:3; 32:2 에서 이집트에 대한 은유로서 사용되었다.

고대 근동의 두 큰 강은 문명의 요람이 되었다(즉, 나일강과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타닌(BDB 1072)은 다음과 평행을 이룬다

1. 리워야단, 시 74:13-14; 사 27:1
2. 라합, 사 51:9
3. 바산, 시 68:22; 암 9:3(참조, NIDOTTE 제 3 권 87 쪽)

개역개정 27:2-6

²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³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됴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⁴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질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⁵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⁶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27:2

NASB	“포도주의 포도원”
NKJV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
NRSV, TEV	“기뻐하는 포도원”
NJB, REB	“빛나는 포도원”
70 인역	“좋은 포도원”
JPSOA	“즐거움의 포도원”

히브리어에서 “즐거움”은 *헤메르*(BDB 326)로서 BHS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단어로 되어있지만 맛소라 본문과 사해사본의 것은 “*느*”이 아니라 “*르*”로 되어 있다. “포도주”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헤메르*(BDB 330)이다. 두 단어가 같은 모음을 갖는다. UBS 히브리 본문 프로젝트는 “즐거움”에 “C”등급(상당히 의심스러움)을 준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었다(참조, 5:1-7; 폐쉬타). 하지만 여기서는 24-27 장의 전세계적 특성을 인해 이 단어가 전 지구를 가리킬 것이다(참조, 26:21; JPSOA 의 각주).

▣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것은 *피엘 명령*(BDB 777, KB 854)이다. 이 문학 단락에 “노래”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 26:1b 의 설명을 참고하라.

27:3 야웨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특별한 관계 즉 언약적 관계를 가지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다. 한편 6 절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대한 범세계적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나타낸다(참조, 창 3:15; 12:3; 출 19:5).

27:4-5 이 두절에 여러 **청유형**과 **지시형**이 사용되었다.

1. 내가 그들을 밟으리라, BDB 832, KB 979, **칼 청유형**(구약에서 이 동사는 여기만 나온다)
2. 내가 그들을 불사르리라, BDB 428, KB 429, **히필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3. 그가 내 보호를 의지하게 하라, BDB 304, KB 302, **히필 지시형**
4. 내가 나와 화친하게 하라, BDB 793, KB 889,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회

3 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야웨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낸다; 4 절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멸망시키실 것을 말한다; 5 절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라고 요청한다; 6 절은 축복의 결실이 어느 날 땅을 채울 것을 말한다(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갖고 계신 의도가 창세기 1 장에 나온다).

27:4

NASB	“진노”
NKJV	“격정”
TEV, JB	“분노”
NJB, 70 인역	“벽”
REB	“포도주”
페쉬타	“울타리”

여러 단어가 제시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해마**(BDB 404), “진노,” 이사야서에서 매우 자주 사용됨
2. **호마**(BDB 327), “벽,” 이 단락에서 여러 번 사용됨, 참조, 2:15; 22:10,11; 25:12; 26:1
3. **해메르**(BDB 330), “포도주,” 드물게 사용됨, 27:2 과 신 32:14 에서만 나옴

UBS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는 “진노”에 “B”등급(약간 의심스러움)을 준다.

27:5 “내 힘을 의지하고” 이것은 인간(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참조, 4 절)의 반응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보여준다(참조, 사 1:16-17,18-20). 성경에는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심 사이에 역설이 나타난다.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5 절은 용서와 구원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심을 말한다(참조, 2:2-4; 42:6; 45:22; 49:6).

▣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 구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이 점은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26:6 의 설명을 보라.

평화는 하나님(참조, 26:12; 32:17; 52:7; 54:10; 55:12; 57:2,19; 60:17; 55:12; 빌 4:7,9)과 그의 메시아(참조, 9:6,7; 53:5; 롬 5:1; 요 14:27; 16:33; 20:19,21,26)를 믿는 믿음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또한 국가 간의 평화도 포함한다(참조, 2:4; 39:8). 하지만 사악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참조, 48:22; 57:1; 59:18).

여기서 이 용어는 야웨께서 시작하신 평화조약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실한 자들이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살아야 한다.

27:6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모든 산 위에 높이 들린 시온 산과 또 모든 지형적 장애가 제거되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은유적 표현이 여기에

나온다 (참조, 2:2-4; 24:23; 25:6,7; 27:13). 이러한 신실함은 26:18 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결실의 한 부분은 26:19 에 나오는 “일어난 자들”이다.

개역개정 27:7-11

⁷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으나
⁸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⁹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¹⁰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 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¹¹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27:7 이것은 매우 어려운 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 절이 말한다(참조, 47:6).

단어와 구의 반복은 이 단락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26:6 을 보라). 여기서 **명사**인 **막카**(BDB 646, **여성형**, 종종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심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참조, 레 26:21; 신 28:61; 렘 30:12) “상처를 입히다” 혹은 “죽이다”에 이어서 같은 어근의 **동사**인 **나카**(BDB 645, KB 697, **히필 분사와 히필 미완료형**)가 반복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기 위해 야웨께서 사용하신 자들은 자기들이 벌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NET 성경).

27:8 “그들을” 8 절에서 “그들”은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참조, 50:1) 하나님께 이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즉, “문맥,” BDB 936, KB 1224, **칼 미완료형**, 참조, 호 2:2).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이방의 지배자들을 불러 오셨다(즉, 앗시리아, 사 10:5; 바벨론, 사 14 장). 한편 하나님은 그들도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7 절; 47:6; 49:25; 시 35:11).



NASB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NKJV	“재어서”
NRSV	“내쫓으심으로”
NJB	“내보내심으로”
70 인역	“해산시키신다”
폐쉬타	“그가 쟁 그 방법으로”

맞소라 본문은 **베사세아**(이곳에만 나옴)으로 되어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벧아 세아**, “정확하게 그 계량으로” (BDB 684, KB 738, **필필 부정사 연계형**, 탈굽과 벌게이트)
2. **베사세아**, 그녀를 내쫓아 내어(다음 문단을 보라)

UBS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는 1 항에 대해 “B”등급(약간 의심스러움)을 주는데 아마도 이 문학적 단위에 단어와 구의 중복이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בשאלה*(BDB 1018, KB 1511, *피엘 부정사 연계형*)로서 “포로로 내 보내다”를 뜻한다. 위의 여러 번역본은 맨 앞의 동사를 없애버리고 두 번째 동사를 번역하고 있다.

▣ “**쫓아내실 때에**” 이 히브리어 동사(BDB 212, KB 237, *칼 완료형*)는 불순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게 함을 뜻한다(은을 정련함에서, 참조, 잠 25:4).

▣ “**동풍**” 종종 이 단어는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을 가리킨다(즉, 46:11; 겔 17:10; 호 13:15). 하지만 여기서는 7 절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임이 틀림없다(참조, 출 10:13; 시 48:7; 렘 18:17). 때때로 동풍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낸다(참조, 출 14:21; 15:10; 민 11:31; NIDOTTE 제 3 권 871-873 쪽을 보라).

27:9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스라엘/유다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심판을 인해 용서받음을 나타낸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라.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다산적인 우상숭배의 모든 잔재를 파괴해야만 했다(3 행과 4 행). 한편 이것을 사 52:13-53:12 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여겨야만 한다. 다시금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떤 한 편의 상황으로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내용으로 보게한다. 메시아는 구원의 방편이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게 믿음과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 “**제단의 모든 돌 . . . 아세라**” 이것들은 가나안인의 다산적 우상숭배를 위한 남신과 여신으로서 야웨께 대한 예배를 매우 황폐하게 했다. 이것들은 파괴될 것이다! 17: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부서진 핏돌**” 이 단어(BDB 162)는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쉽게 가루로 될 수 있는 부드러운 돌을 가리킨다.

같은 아람어 단어가 단 5:5 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연회를 하던 왕궁 벽의 석고를 가리킨다.

27:10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이것은 “성읍”과 관련된 언어유희이다. 24:10 의 설명과 26 장의 서론 라항의 도표를 보라.

27:11 이것은 범죄하여 포로로 사로잡혀 간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버려진 초장에 대한 이미지로서 10 절부터 11 절의 1-2 행까지 계속된다.

불순종하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그들이 지각이 없다, 참조, 호 4:14
2. 그들을 지으신 이(참조, 43:1,7; 44:2,21,24; 신 32:18)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3.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다

개역개정 27:12-13

¹²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¹³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27:12-13 이것은 결론적인 문자적 진술로 보인다. 12 절은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말한다(즉, “과실을 떨다,” BDB 286, KB 285, *칼 미완료형*, 이것은 신실한 자와 신실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종말론적 추수를 가리킨다. 참조,

마 13:36-43; 24:31; 25:32).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약속의 땅의 한계를 나타낸다(참조, 창 15:18; 왕상 8:64; 겔 47:15-19). 13 절은 그 영역이 국제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초청받은 이방 국가들에 대해 말한다(즉, 2:2-4; 19:18-25). 이 마지막 두 절은 신 30:1-10의 종말론적 이미지를 나타낸다(호 11:8-11을 참고하라).

27:12 “창일하는 하수” 이 단어(BDB 987)는 두 의미를 가진다.

1. 흐르는 시내, BDB 987 I, 참조, 시 69:2,15
2. 곡식을 거둬, BDB 987 II, 참조, 17:5; 창 41:5,6,7,22,23,24,26,27; 룻 2:2; 욥 24:24

▣ “애굽 시내” 이것은 엘아리스 시내를 가리키는데 약속의 땅의 남단에 있다.

27:13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것은 자주 사용된 종말론적 주제로서 나팔을 부는 은유를 통해 예배 또는 군대를 모으는 것을 나타낸다(두 종류).

1. 예배, 출 19:16,19; 레 25:9; 민 10:2,8,10; 대상 15:24
2. 군대, 민 10:9; 수 6 장; 삿 3:27; 6:34; 7 장; 삼상 13:3; 삼하 2:28
3. 종말론, 이곳과 또 수 9:14; 마 24:31; 고전 15:52; 살전 4:16에서

특별주제: 이스라엘이 사용한 뿔

히브리어에는 뿔/나팔과 관련된 단어가 4 개 있다.

1. “그 수양의 뿔” (BDB 901) - 소리를 내는 도구로 뿔, 참조, 수 6:5. 같은 단어가 창 22:13에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사용한 뿔이 걸려 있던 양에 대해 사용되었다.
2. “나팔” (BDB 1051) - 들 양(야생 염소)을 말하는 앓시리아 단어이다. 이것은 출 19:16,19에 있는 시내산/호렙산에서 사용되었다; 1 항과 2 항은 수 6:5에서 병행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예배와 전투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였다(즉, 여리고의 경우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참조, 6:4).
3. “수양의 뿔” (BDB 385) - 수양을 말하는 페니키아어(참조, 6:4,6,8,13). 이것은 또한 희년을 나타냈다(참조, 레 25:13,28,40,50,52,54; 27:17,18,23,24).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아무런 구분이 없이 사용되었다. 미쉬나[RH 3.2]는 소의 뿔을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의 뿔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양, 염소, 또는 영양)

4. “나팔” (BDB 348) - 아마도 “내뿔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똑바른 뿔(동물의 뿔처럼 굽지 않은 것)를 뜻한다. 은으로 이것을 만들었다(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것의 모양과 형태를 따라서).

- ㄱ. 예배의식에(참조, 민 10:2,8,10)
- ㄴ. 군사적 목적에(참조, 민 10:9; 31:6; 호 5:8; 스 3:10; 느 12:35,41)
- ㄷ. 왕이(참조, 왕하 11:4)

이러한 금속 뿔은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에서 나타난다; 또한 요세푸스는 이것에 대해 *Antiq.* 3.12.6에서 설명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누가 또는 무엇이 사 27:1 에 나오는 리워야단인가?
2. 사 27:5 는 어떻게 사 1:16-17 과 관련이 있는가?
3. 왜 사 27:6 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가?
4. 사 27 장에서 12 절과 13 절은 이 전체 문학 단위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즉, 국가와 여러 나라들과 공동체와 개인과 관련된 언어유희)

이사야 28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유다와 에브라임에 대한 예언 (28:1-35:10)				
에브라임이 포로됨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북왕국에 대한 경고	사마리아에 대하여
28:1-8 (1-8)	28:1-4 (1-4)	28:1-13 (1-4)	28:1-4 (1-4)	28:1-4 (1-4)
	28:5-8 (5-6)	(5-8)	이사야와 유다의 솔취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7-8)		28:7-8	28:7-13 (7-13)
28:9-13 (9-13)	28:9-10 (9-10)	(9-10)	28:9-10	
	28:11-13 (11-13)	(11-13)	28:11-13	
유다가 경고받다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	시온을 위한 모퉁이들	악한 자문가들에게
28:14-22 (14-15)	28:14-15 (14-15)	28:14-22 (14-22)	28:14-17a	28:14-17a (14-17a)
	시온에 있는 모퉁이들			
(16-22)	28:16-22 (16b-19)		28:17b-21	28:17b-22 (17b-22)
	(20-22)		28:22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음	농부의 비유	하나님의 지혜	비유
28:23-29 (23-29)	28:23-29 (23-26)	28:23-29 (23-26)	28:23-29	28:23-29 (23-29)
	(27-29)	(27-2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사야 28:7-33:24 는 한 단락(여섯 “화 있을진저”가 선포됨)을 이룬다. 이것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통치 때에 앗시리아에 대항해서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을 다룬다(그가 다스린 시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부록 4 의 3 항에 있는 “분열왕국의 왕들”의 도표를 보라). 나는 3 학자가 제시한 연대를 사용했다: 존 브라이트, 715-687 년; E. J. 영, 727-699 년; R. K. 해리슨, 716/15-687/86 년). 역사적 배경은 앗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주전 701 년에 침공한 기간(즉, 주전 705-701 년)을 포함하고 있다.
- 나. 이사야 28:1-6 은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게 멸망당할 것을 다룬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주전 722 년에 3 년 간의 포위 후에 사르곤 II 세에 의해 멸망했다.
- 다. 사르곤 II 세는 주전 705 년에 죽었다(부록 3 의 “메소포타미아 열강의 역사 개요”란 도표를 보라). 조공을 바치는 많은 국가들은 이것을 앗시리아에 대항하여 반역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다음 왕인 산헤립은 유다를 주전 701 년에 침공했다. 우리는 앗시리아의 자료를 통해 그가 유다의 성벽 있는 46 개 성읍을 점령했고 반란을 진압했음을 안다.
- 라. 이 장의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에브라임의 술취함으로 인한 화, 1-6 절
 2. 유다의 술취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화, 7-13 절
 3.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화, 14-22 절
 4. 농업적 비유, 23-29 절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8:1-8

¹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꿀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²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³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⁴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⁵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⁶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⁷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⁸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28:1 “화 있을진저” 이 용어(BDB 222)는 이 전체 단락을 특징짓는다(여섯 “화 있을진저,” 참조, 28:1; 29:1,15; 30:1; 31:1; 33:1, 이것은 5:8-22 에 나오는 여섯 번의 화 있을진저와 비슷하다). “화 있을진저”라는 용어는 장례식 만가의 시적 운율을 나타낸다.

■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 1-4 절은 북쪽 10 지파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선지자가 전한 심판의 말이다. 그들이 술을 남용한 것에 대하여 일련의 언급이 나온다(참조, 1 절[2 회], 3,7 절; 호 7:5). 술의 남용은 재판의 실수를 가져왔고 이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했다. 1: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통일왕국(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이 르호보암(즉, 주전 922 년)의 시대에 나뉘는 이후로 북쪽 지파들은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불렸다.

1. 이스라엘(전체를 일컫는 칭호)
2. 에브라임(가장 큰 지파)
3. 사마리아(수도)

■

NASB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NKJV	“푸른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는”
NRSV, JPSOA	“많은 양식으로 우쭐대는 자의 머리에 있는”
NJB	“싱싱한 골짜기의 꼭대기에 위치한”
폐취타	“기름진 골짜기의 입구에”
REB	“향수를 흘리는 자의 머리 위에”

이 모호한 표현은 다음을 가리킬 것이다

1. 높은 언덕에 위치한 사마리아
2. 술취한 자들의 머리

REB 는 이사야서의 사해사본을 따른다.

28:2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것은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보내신 앓시리아 제국을 가리킨다(참조, 사 8:7; 10:5-6). 사르곤 II 세가 3 년의 포위 후에 수도인 사마리아를 주전 722 년에 함락시킴으로써 북쪽의 10 지파의 멸망은 절정에 이르렀다(참조, 왕하 17:6; 18:9-12). 모든 백성이 메데로 잡혀갔는데, 대다수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사람에 대한 묘사가 어떠한지를 주목하라.

1. 강하다
2. 힘있다
3. 쏟아지는 우박(참조, 30:30)
4. 파괴하는 폭풍우
5. 넘쳐 흐르는 강한 물의 폭풍(참조, 8:7-8)
6.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땅에 던졌다” (즉, 야웨께서 이것을 보내셨다)

28:4 이것은 극상품인 처음 익은 무화과와 관련된 농업적 은유이다(참조, 호 9:10; 미 7:1). 이 열매를 사람들이 열른 따먹어 없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쪽 10 지파의 기름진 땅도 점령당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28:5 “그 날에” 2:11 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야웨께서 방문하시는 날이다.

▣ “영화로운 면류관” 이것은 분명히 1 절에 있는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과 대조를 이룬다. 28:1 에서 이것은 사마리아를 가리키며 여기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회복된 예루살렘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16-27 절).

▣ “화관”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명사(BDB 862)로서 “면류관”(BDB 742)과 평행을 이룬다. 후자는 사마리아의 왕들(참조, 1 절)과 유다의 왕들(62:3)이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이 다윗 가계의 사람들도 포함하여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하듯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다(참조, 삼상 8:7; 10:19).

▣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연애에 위치한다. 이들은 북쪽의 지파에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소수의)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28:6 이 절은 하나님이 새롭게 임명하신 다윗 자손의 지도자에 대해 설명한다(참조, 9:1-7; 11:1-5,10).

1. 정의의 영(특히 11:2)
2. 성을 지키는 자의 힘이 됨(즉 예루살렘)

28:7 나는 6 절과 7 절 사이에 문단 구분을 두는 JPSOA, TEV, NJB 의 구분에 동의한다. 7 절과 8 절은 유다의 술취한 현재 지도자에 대해 말한다(참조, 14 절; 렘 13:12-14, 일곱 동사가 칼 완료형으로서 완료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술취한 지도자에 대한 내용인 1-4 절의 것과 비슷하다.

▣

NASB, NRSV,

NJB

“포도주로 혼란스러운”

NKJV, ASV,

70 인역

“포도주에 삼켜진”

TEV

“혼동에 빠진”

JB
REB

“포도주로 흐리멍덩한”
“포도주로 정신을 잃은”

BDB 118 에 있는 이 동사(니팔 완료형)는 “얇게 낮아지다” 혹은 “얇게 높아지다”를 뜻한다(참조 25:8; 창 41:7,24; 출 7:12; 15:12; 민 16:30,32,34; 26:10; 신 11:6; 램 51:34). 한편 NIDOTTE 제 1 권 666-668 쪽과 KB 135-136 은 세 가지 어근을 제시한다.

1. KB 135 I, 삼키다, 빨아들이다
2. KB 136 II, 광고하다, 의사소통하다
3. KB 136 III, 니팔 혼동하다; *피엘* 3:12; *푸알* 9:16

28:8 “상” 이 용어(BDB 1020)는 다음을 나타낼 것이다

1. 왕의 상, 참조, 21:5
2. 장관의 상, 참조, 느 5:17
3. 개인의 잔치
4. 제사, 참조, 출 25:33; 레 24:6; 민 3:31; 4:7(회막에서)

개역개정 28:9-22

- ⁹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젓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 ¹⁰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 ¹¹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 ¹²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패함이니
너희는 곧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 ¹³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 ¹⁴ 이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 ¹⁵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 ¹⁶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 ¹⁷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¹⁸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¹⁹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²⁰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²¹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²²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28:9-10 이사야의 말(혹은 야웨께서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을 (1) 종교 지도자 혹은 (2) 7-8 절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자들이 공격했다(참조, 램 26:9-15; 암 7:12; 미 2:6-11).

28:10,13 이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언급이다. 이것은 *썩브*(BDB 846, 호 5:11 에서 이것은 “명령”을 뜻한다)와 *카브*(BDB 876 II, 17 절에서 이것은 “측량줄”을 뜻한다)의 반복을 뜻한다. 술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메시지가 어린아이의 말 같고 또 이해하기(KB 1081 I 2 항) 어렵다고 비난했다. 11 절은 이사야의 메시지에 대해 그들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반응을 나타낸다.

28:11-13 이것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종교 지도자들과 거만한 자들에 대해 그가 한 반응이다.

28:11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에 대해 그들이 한 반응에 대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만일 너희가 그가 말하는 그, ㄴ, ㄷ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너희가 앗시리아어를 듣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참조, 13 절; 33:19; 램 5:15)이다. 고전 14:21 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함”에 대한 논의에서 이 절을 인용하고 있다. 내가 쓴 고린도전서 주석을 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참고하라.

28:12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야웨는 자신의 백성에게 “안식”(BDB 629)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참조, 11:10; 30:15; 32:17,18). 이 *동사*(BDB628, KB 679)는 *히필 명령*이다. 그들이 야웨께로 돌이킨다면 이것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12b 절)!

예수께서는 마 11:28-29 에서 비슷한 요청을 사람들에게 하신다.

28:13 야웨의 유일한 메시지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여 멸망을 택했다.

1. 뒤로 넘어지다, BDB 505, KB 502, *칼 완료형*, 참조, 3:8; 59:14
2. 부러지다, BDB 990, KB 1402, *니팔 완료형*, 참조, 8:15
3. 걸리다, BDB 430, KB 432, *니팔 완료형*, 참조, 8:15

4. 붙잡히다, BDB 539, KB 530, *니팔 완료형*, 참조, 8:15; 24:18

28:14 “들을지어다” 이 동사(BDB 1033, KB 1570, *칼 명령*)는 순종과 시작될 심판에 대한 초청이다. 그들은 듣지 않았다(참조, 28:12,14,22,23([2 회]; 29:18; 30:9,19,21,30; 32:3,9; 33:13,15,19; 34:1[2 회],11,13,16). 이 얼마나 반복되는 주제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려 하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부한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심판의 예언”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시가 된다.

▣ “너희 오만한 자여” 이것은 합성어이다(“사람,” BDB 35 과 “오만함” BDB 539). 이 표현은 잠언에서 자주 언급된다(즉, 1:22; 29:8). 이 내용이 다른 이 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더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얼마나 놀라운가!

28:15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사야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생각을 비꼬는 표현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유다가 이집트와 맺은(참조, 30:1-7) 조약(즉, “언약,” BDB 136, 1:19의 특별주제를 보라. 또한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나 “조약,” BDB 302를 보라. 참조, 18 절)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 30:15-20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과 죽음의 선택을 제공하실 때에 사용한 신학적 언어유희이다(온라인 주소인 www.freebiblecommentary.org에서 신명기 주석의 설명을 보라). 이 경우에 제시된 선택은 땅 위의 군사적 힘을 의지하든지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할 자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망을 선택했다.

▣ “스올” 이것은 죽은 자가 있는 곳으로서 헬라어의 “하데스”와 동의어를 이룬다. 5:14의 특별주제를 보라.

▣	
NASB	“밀려오는 재앙”
NKJV, NRSV	“넘쳐 흐르는 재앙”
NJB	“재앙의 물결”
JB	“파괴의 채찍”
70 인역	“넘치는 폭풍”
REB	“격노한 물결”

처음 용어는 *분사*(BDB 1009, KB 1474, *칼 능동*)이다. 고려할 용어는 두 번째 것이다 (NIDOTTE 제 4 권 64-65 쪽)

1. *샤탕*, BDB 1009, “넘쳐 흐르는,” 참조, 8:8; 10:22(즉, 쳐 들어오는 적군)
2. *숄*, BDB 1002, “재앙,” “채찍,” 참조, 왕상 12:11,14

▣ “미치지 못하리니” 이 동사(BDB 716, KB 778)는 *칼 미완료형*(*케레*) 혹은 *칼 완료형*(*케티브*, 참조, 26:20)이다. 이 동사는 “지나가다,” “거쳐가다” 혹은 “지나다”를 뜻한다.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39 회 사용되었고 이 문학 단위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었다(즉, 28-35 장, 참조, 28:15,18,19[2 회]; 29:5; 31:9; 33:8,21; 34:10; 35:8).

▣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자아가 육체적 팔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1. 거짓, BDB 469, 참조, 17 절(시편과 잠언에서 자주 사용됨)
2. 속임, BDB 1005, 참조, 9:15; 32:7; 44:20; 57:4; 59:3,13(시편과 잠언에서 자주 사용됨, 예레미야서에서 종종 사용됨)

“피난처”의 동사형(BDB 340)은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에게 확신과 신뢰를 둠을 뜻한다. 이것은 종종 야웨를 피난처로 삼는 것을 위해 사용되었다.

1. 야웨를 반석으로, 신 32:37; 시 18:2
2. 야웨를 어미 새로, 룻 2:12; 시 36:7; 57:1; 61:4; 91:4
3. 야웨를 방패로, 삼하 22:3,31; 시 18:30; 144:2; 잠 30:5
4. 하나님을, 시 2:12; 5:11; 7:1; 11:1; 16:1; 25:20; 31:1,19; 34:8,22; 37:40; 57:1; 64:10; 71:1; 118:8,9; 141:8; 사 57:13; 나 1:7
5. 야웨의 오른 손, 시 7:7
6. 시온, 사 14:32
7. 야웨의 이름, 습 3:12

28:16 이 절은 태도와 자세를 놀랍게 바꾸어 말한다. 즉 심판의 한 가운데서 소망으로 신학적 반전을 제시한다. 야웨의 우주적 구속 계획이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은 한 절에 지나지 않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가!

이것은 “건축”과 관계된 은유로서 메시아를 말하는 여러 칭호이다.

1. “돌”(BDB 6)은 종종 하나님께 대해 사용되었다; 한편 “모퉁이돌”(BDB 819)은 메시아와 특별한 연결을 나타낸다(참조, 시 118:22; 마 21:42,44; 눅 20:17; 행 4:11; 롬 9:33; 10:11; 엡 2:20; 벧전 2:6-8).
2. “시험한”(BDB 103)은 이집트에서 빌려 온 용어로서 조각에 적합한 고운 석재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6d 절에 있는 내용을 새겨 넣으시려는 모퉁이 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믿다”라는 용어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용어이다(참조, 사 30:15 이 “신뢰하다”에 대한 강조를 이와 비슷하게 나타냄).
3. “기초”(BDB 414)는 이곳과 대하 8:16 절에서만 사용되었다. 역대하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가리킨다. 기초가 “건고히 놓인 것”을 주목하라 (NASB 난외주, “잘 놓인”).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가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점이 “건고히” 혹은 “잘 놓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근거가 된다.

8:14-15의 특별주제: 모퉁이돌과 22:33의 특별주제: 믿다, 신뢰하다, 믿음, 신실함을 보라.

28:17 “정의” 3:1의 특별주제: 심판하다, 심판, 정의를 보라.

▣ “측량줄 ... 저울 추” 이것들은 수평(BDB 876 II)과 수직(BDB 1054)줄을 똑 바로 잡기 위해(참조, 왕하 21:13) 사용하는 도구이다.

▣ “공의” 1:4의 특별주제: 의를 보라.

▣ c행과 d행은 물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참조, 27:12). “거짓의 피난처”와 “숨는 곳”은 성전에서 행하는 우상숭배 행위를 가리킬 것이다(참조, 겔 8장과 신 27:15). 야웨는 어두운 곳에서 몰래 행하지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야웨는 밝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며 행하신다(참조, 45:19; 48:16).

28:18

NASB	“취소했다”
NKJV, NRSV,	
JB	“무효로 했다”
TEV	“폐지했다”
NJB	“깨뜨렸다”
70 인역, 페쉬타,	
REB	“서지 못할 것이다”

이 히브리 동사(BDB 877, KB 1086, 칼 미완료형)는 “일어나다,” “서다” 혹은 “일어서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7:7; 8:10; 28:18; 잠 15:22).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계획을 무용화시킨다(참조, 14:24-27; 40:8; 46:10; 시 35:10-11; 잠 19:21; 렘 44:28)!

28:19 이 절은 18 절에 있는 “넘치는 재앙”과 관련이 있다. 이들(침략자들, 참조, 왕하 24:2)은 오고 또 오며 공포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50:4 과 대조를 이룬다).

28:20 이 잠언은 인간의 계획이 부적합함을 나타낸다.

28:21 “브라심 산... 기브온 골짜기” 이 두 장소는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을 가리킨다; 한편 현재의 경우 하나님은 유다의 편이 아니라 앗시리아의 편이다(참조, 삼하 5:17-21; 대상 14:13-17).

▣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비상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비상한 일이 불경건한 앗시리아 제국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참조, 하박국, NIDOTTE 제 1 권 775 쪽).

28:22

NASB	“결정적인 파괴”
NKJV	“결정된 파괴”
NRSV	“파괴의 판결”
TEV	“파괴할 것에 대한 결정”
NJB	“돌이킬 수 없게 결정된”
REB	“파괴 판결”

이 동사(BDB 358, KB 356, 칼 완료형)는 칼형에서 “자르다,” “선언하다” 혹은 “정하다”를 뜻한다.

1. 인간의 수명, 욥 14:5
2. 미래에 일어날 일, 사 10:22-23; 단 9:26-27

역사는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다(즉, 범죄한 인간의 구속, 참조, 창 3:15). 다음의 진술을 참고하라

1. 누가복음 22:22
2. 사도행전 2:23
3. 사도행전 3:18
4. 사도행전 4:28
5. 사도행전 13:29

▣ “온 땅을” 24-27 장에서 언급된 우주적 심판이 반복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점은 여기에 또한 우주적 구속이 있는 사실 때문이다(즉, 16 절)!

개역개정 28:23-29

- ²³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²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²⁵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²⁶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²⁷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²⁸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²⁹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28:23-29 이것은 어떤 농작물을 어떻게 심고 거두는 일과 관련된 농업적 은유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적합한 목적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속적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이 계획이 인류의 역사에서 드러나게 행하신다!

28:23 이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명령(참조, 29 절)이 나온다.

1. 귀를 기울이라, BDB 24, KB 27, *히필* 명령
2. 내 목소리를 들으라, BDB 1033, KB 1570, *칼* 명령, 참조, 12,14,22 절
3. 들으라, BDB 904, KB 1151, *히필* 명령,
4. 내 말을 들으라, 2 항과 같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또 들을 수도 없었다(참조, 6:9-10)!

28:28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부정사 절대형과 같은 어근의 미완료형(BDB 190, KB 218)이 강조를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야웨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공의로우며 적합한 분량의 심판이다. 너무 많지도 또 너무 적지도 않은 분량이다!

28:29 소망, 도움,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귀히 여기는 데서 온다!

이사야 29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예루살렘이 경고받다	예루살렘에 대한 화	유다의 궁극적인 회복	예루살렘의 운명	예루살렘에 대하여
29:1-4 (1-4)	29:1-4 (1-4)	29:1-8 (1-4)	29:1-4	29:1-12 (1-4)
29:5-8 (5-8)	29:5-8 (5-8)	(5-8)	29:5-8	(5-8)
	불순종으로 인한 무지	영적 무감각	무시된 경고	
29:9-12 (9-10)	29:9-10 (9-10)	29:9-10 (9-10)	29:9-12	(9-10)
	29:11-12	29:11-12		예언
29:13:14 (13-14)	29:13:14 (13-14)	29:13:21 (13-14)	29:13:14	29:13:14 (13-14)
			미래에 대한 소망	빛의 승리
29:15-16 (15-16)	29:15-16 (15-16)	(15-16)	29:15-16	29:15-24 (15-24)
역경 후의 축복	미래에 회복될 지혜			
29:17-21 (17-21)	29:17-21 (17-21)	(17-21)	29:17	
			29:18-21	
29:22-24 (22-24)	29:22-24 (22b-24)	29:22-24 (22b-24)	29:22-2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유대인의 성경 공부(839-840 쪽)에서는 이 장을 세 개로 나누어진 독립적인 시로 제시한다.
1. 1-8 절(“슬프다”로 시작한다)
 2. 9-12 절
 3. 15-24 절(“화 있을 진저”로 시작한다)
- 나.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의 문제에 대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반전은 계속 나타나는 주제이다.
1. 3:25-5:6
 2. 8:6-8
 3. 8:22-9:1
- 다. 주전 701 년에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한 일이 이 장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인다. 예루살렘이 살아남긴 했지만(이사야의 신학) 황폐하게 되었다.
1. 사 36-39 장
 2. 왕하 18-19 장
 3. 대하 32 장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9:1-4

¹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투어 진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²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³내가 너를 사면으로 돌려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⁴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이리라

29:1 “슬프다” 5:8 의 설명을 보라.

▣ “아리엘” 이 단어(1,2,7 절)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영웅, 참조, 삼하, 23:20; 대상 11:22(BDB 72 I, 3 항)
2. “하나님의 사자(lion)” (BDB 72 I, 1 항)
3. “하나님의 풀무” (BDB 72 II)

2 절에서 겔 43:15-16 절을 따라 제단의 풀무라는 의미로 아리엘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31:9 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화로를 의미한다고 믿는다. 7 절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 것이 분명하다. 28:1-4 이 북쪽 열 지파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다루었던 것처럼, 이 장의 첫 번째 연(즉, 29:1-4)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다룬다.

▣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1-4 절이 이스라엘이 절기(참조, 출 23 장; 신 16 장)를 지키는 장소인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관점을 1 절의 둘째 행이 강화하고 있다.

1. 더하다(add), BDB 414, KB 418, **칼명령**
2. 지키다(observe), BDB 668, KB 722,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미완료형**

29:2-3 이 절들은 야웨께서 자신이 택하신 도시(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셨던 장소인 예루살렘, 참조, 신 12:5,11,21; 14:23,24; 16:2,6,11; 26:2)에 행하실 일을 묘사한다.

1. 내가 괴롭게 하리니, BDB 847, KB 1014, **히필 완료형**, 참조, 7 절; 51:13(2 회); 신 28:53; 55:57
2. ~같이 되리라
 - ㄱ. 슬퍼하고, BDB 58, 참조, 21:2; 35:10; 51:11
 - ㄴ. 애곡하며, BDB 58 이사야의 중복법, 또한 애 2:5 을 살펴보라
 - ㄷ. 타버린 풀무, BDB 72, 참조, 1,2,7 절
3. 내가 너를 . . . 진을 치며, BDB 333, KB 332, **칼 완료형**, 참조, 눅 19:43,44
4. 너를 에워 대를 쌓아, BDB 848 II, KB 1015, **칼 완료형**, 참조, 21:2
5. 너를 치리니, BDB 877, KB 1086, **히필 완료형**, 참조, 23:13

29:4 이 절은 죽음에 대한 일련의 은유이다.

1. 네가 낮아져서, BDB 1050, KB 1631, **칼 완료형**
2. 땅에서 말하며, BDB 180, KB 210, **피엘 미완료형**
3.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BDB 1005, KB 1458, **니팔 미완료형**
4.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BDB 224, KB 283, **칼 완료형**
5.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이리라, BDB 861, KB 1050, **필렐 미완료형**

이 문맥은 신 18:9-12,14 에서처럼 강령술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 직전, 바로 죽기 직전에 누워서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개역개정 29:5-8

⁵그렇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⁶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⁷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 같이, 밤의 환상 같이 되리니
⁸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곧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29:5-6 이 두 절에서 문맥상 얼마나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사 36-37 장에 있는 적군의 포위에서 예루살렘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 6 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 폭풍의 은유를 사용한다. 이것은 예언서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 이 은유를 좀 더 강하게 사용하는 곳은 30:27-33 이다.

야웨(즉, 만군의 주, 6 절)께서 침략자에게 행하실 일을 주시해 보라.

1. 세미한 티끌 같겠고
2.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3.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BDB 837, *파타*, 참조, 30:13 과 *피트움*, 참조, 47:11; 48:3)
4. 우리(BDB 947)와 ~으로 징벌하실 것인즉(문자적으로 “~을 가지고 방문하였다,” BDB 823, KB 955, *니팔 미완료형*)
5. 지진과 ~으로 징벌하실 것인즉(BDB 950)
6. 큰 소리와 ~으로 징벌하실 것인즉(BDB 876, 이것은 살전 4:16 과 평행을 이룰 수 있는 예언적 메시지로서 40:3 에서 사용된다)
7. 회오리 바람과 ~으로 징벌하실 것인즉(BDB 693)
8. 폭풍과 ~으로 징벌하실 것인즉(BDB 704)
9.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실 것인즉(BDB 529 와 BDB 77 을 함께 사용함; *동사형*, BDB 37, KB 46, *칼 능동 분사*)

이것은 심판(참조, 28:2)을 위해 야웨께서 오심/방문을 묘사한다. 이와 같은 격렬한 은유는 묵시적 언어의 출처였다.

29:5

NASB, NJB,

REV

“대적들”

NKJV, NRSV

“적들”

NASB, NRSV(각주)

“낮선 사람들”

TEV

“외국인들”

폐쉬타

“압제자들”

맛소라 본문은 “너의 낮선 사람들의”(자라익, BDB 266, KB 267, *칼 능동 분사*)로 되어 있지만 “ר”(**ר**)과 “ד”(**ד**)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너의 대적들의”(자돈)라는 히브리어는 탈굄에서 온 것이다.

29:7-8 이것은 유다에서와 앗시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결과를 묘사하는 악몽(문자적으로 “꿈,” BDB 321; “밤의 환상,” BDB 302 과 538)의 은유적 사용이다. 7 절에 있는 앗시리아의 포위공격은 유다를 지나가는 악몽과 같이 될 것이지만 8 절에서는 그 악몽이 앗시리아의 군대(참조, 왕하 19:35-37; 대하 32 장; 사 36-37 장)에게 일어날 것이다.

29:7

NASB, NRSV

“그 성채 ”

NKJV

“그 요새”

NJB
REB

“포위하는 것”
“공성보루”

다음의 두 가지 차이는 “ㄹ”과 “ㄷ”의 혼동에서 기인한다

1. 성채, BDB 845 II, *매추다*
2. 포위공격, BDB 849, *매추라*

UBS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는 1 항에 대해 “C”등급(상당히 의심스러움)을 주고 있다.

개역개정 29:9-12

⁹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¹⁰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¹¹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¹²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29:9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절의 처음 두 행은 네 개의 명령형을 가지고 있다.

1. 지연되다, BDB 554, KB 552, *히트팔팔 명령, 남성 복수*
2. 기다리다, BDB 1069, KB 1744, *칼 명령, 남성 복수*; 문자적으로 “몹시 놀라다” 이다.
참조, 합 1:5

NASB	“기다리다”
NKJV	“놀라다”
NRSV	“무감각해지다”
NJB	“대경실색하다”
70 인역, 페쉬타	“몹시 놀라다”

3. 너희는 맹인이 되고, BDB 1044 I, KB 1612, *히트팔팔 명령, 남성 복수*

4. 맹인이 되리라, BDB 1044, KB 1612, *칼 명령, 남성 복수*, 참조, 6:9-10; 미 3:6-7
“기뻐하다”(BDB 1044 II)라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3 항과 4 항이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비꼬는 뜻으로 씌어진 것이다.

9 절에 있는 인간의 자유와 10 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의 균형을 주목하라. 둘 다 참이다! 1: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들의 취함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참조, 28:1-4,7-8)의 배신을 묘사하는 술취함(BDB 1016, KB 1500, *칼 완료형*)이란 용어의 또 다른 의미이다.

29:10-12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참조, 6:9-10; 미 3:6-7)으로부터 그의 메시지를 제하시는데 주목하라.

1.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BDB 924 과 BDB 922)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BDB 650, KB 703, *칼 완료형*)
2.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BDB 783, KB 868, *피엘 미완료형*)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3.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의 눈(참조, 11-12 절; 6:9-10; 8:16)을 덮으셨음(BDB 491, KB 487, **피엘 완료형**, TEV “눈을 가리운”)이라
 롬 11:8 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믿고/신뢰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말하기 위해 10 절을 인용한다.

29:11 “**봉함**” 이 동사(BDB 367, KB 364, **칼수동 분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에 기록된 계시의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8:16 에서도 이사야가 사용한다. “봉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소유권을 가리킴
2. 안전성을 확인함

봉함은 다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1. 그것을 말아 가장자리를 작은 밀랍(혹은 점토)덩어리로 봉함한 후 보내는 사람의 반지 도장을 찍음
2. 사이에 줄로 연결시켜 봉한 두 개의 밀랍(혹은 점토)에 보내는 사람의 반지나 상징으로 찍음

8:16 에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봉하라고 한 것과 같이 단 12:4 에서 다니엘에게도 메시지를 봉하라고 하신다. 어쨌든 29:11 에서는 봉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가 그침을 말하는 은유이다.

개역개정 29:13-14

¹³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¹⁴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29:13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이 용어(BDB 620, KB 670, **니팔 완료형**)는 성전에서의 공공적인 예배행위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사용했다(즉, 출 19:22).

▣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은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삶의 양식, 사랑, 도덕성에 의해 동반되는 의식이나 예배 의식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심을 말하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이다(참조, 1:10-15; 58:1-5; 램 7 장; 암 5:21-24; 미 6:6-8; 마 15:1-20; 막 7:1-23; 골 2:16-23; 딤후 3:5). 의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인간적인 행위였다는 점이 잘못이다.

둘째 행은 다음에 있는 세째 행(“**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참조, 램 12:2)과 평행을 이룬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참조, 마 15:8-9; 막 7:6-7. 막 7:3,5,9,13 에서 보듯이 “입”과 “입술”을 사용하여 사람의 계명은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함을 나타낸다).

29:14 “**내가 . . .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 표현은 영어로는 좋은 의미이지만 이것은 **히필 부정사 연계형**; **히필 부정사 절대형**; 그리고 **명사가 모두 같은 어근**(BDB 810)에서 온 것으로서 다음을 나타낸다

1. 출 3:20; 신 28:59 의 놀랄만한 재앙들
2. 9:6; 28:29 의 놀랄만한 권고
3. 출 34:10; 대상 16:9,12,24; 사 25:1 의 신기한 일들

이것이 긍정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인지는 문맥에 따라 결정하여야만 한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의 백성에 대한 야웨의 심판을 말한다. 이 심판은 백성의 지혜로운 모사와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에 실패함에 기인한다(참조, 9-12 절).

인간적인 지혜의 어리석음 특별히 왜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야만 했는지(즉,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루기 위해 바울은 이 절을 고전 1:19 에서 인용한다.

개역개정 29:15-16

¹⁵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라 하니

¹⁶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빛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빛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29:15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 . . 숨기려 하는” 이것은 앗시리아로부터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와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는(참조, 28:7-22; 30:1-5; 31:1-3) 유다 지도층의 계획을 가리킨다. 그들은 야웨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신뢰하고 있다!

▣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에 대한 부인이다. 16 절은 이 진술의 어리석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9:16 “토기장이” 토기장이로서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은유이다(참조, 사 45:9; 64:8; 렘 18:4 이하; 욥 10:9). 이것은 창 2:7 에 있는 최초의 인간 창조 사건에서 발전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롬 9:20 에서 이 본문을 암시한다. 롬 9 장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총체적인 주권을 확인한다!

개역개정 29:17-21

¹⁷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¹⁸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¹⁹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²⁰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최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²¹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29:17-21 이것은 도래할 메시아의 새로운 날을 묘사한다.

1. 이것은 곧 도래할 것이다, 17a 절(참조, 10:24-25)
2. 레바논은 매우 기름지게 될 것이다, 17b,c 절, 참조, 32:15; 35:1-2(NASB 연구 성경(996 쪽)은 이것을 사 10:34 에 연결시키며 레바논이 앗시리아를 의미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산헤립은 레바논 숲의 착취를 자랑했다(참조, 37:24; 왕하 19:23).

3. 못 듣는 사람이 들을 것이며, 18a 절, 참조, 32:3; 35:5
4.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8b 절, 32:3; 35:5
5.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고, 19a 절, 참조 11:4; 61:1
6.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19b 절, 참조, 3:14-15; 11:4; 14:30,32
7.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20a 절
8.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20b 절, 참조, 28:14
9.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음이라, 20b 절
10. 정의가 성문에서 회복될 것이라, 21 절, 참조, 32:7

이것은 25:4 에 있는 야웨의 기이한 성품에 대한 묘사와 신학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3 항과 4 항이 야웨의 계시(참조, 신 29:4; 사 5:12,13; 6:9; 30:9)를 받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주요 은유로 나타남을 주목하라.

29:19 “거룩하신” 6:3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29:22-24

²²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²³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²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9:22-24 5-8 절이 소망의 말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상황을 뒤바꾸는 것과 같이 22-24 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심판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급반전되는 것은 예언서의 특징이다. 심판은 항상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자신의 언약을 어길 때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더 크신 목적을 갖고 있으시다(즉,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속의 계획).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구절들과 호칭을 주목하라.

1.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22 절
2. 그의 자손... 내 손이 행한, 23 절
3. 내 이름... 야곱의 거룩한 이, 23 절
4. 이스라엘의 하나님, 23 절, 참조, 1:4

29:22 택함을 입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로 발전되었다. 야웨께서 그의 능력과 언약적 임재에 의해 그들에게 한 날을 약속하신다

1.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BDB 101, KB 116, **칼 미완료형**,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자주 사용됨
2.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BDB 301, KB 299, **칼 미완료형**, 이 동사는 오직 여기에서만 발견된다.

두 동사 모두 불순종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절망과 죄에 대한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느낀다!

▣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자” 여기서 이 동사(BDB 804, KB 911, **칼 완료형**)는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1. 다신교를 믿는 가족으로 부터의 구속됨(참조, 창 11 장)
2.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서 특별히 택함받음(즉, 창 12, 15, 17 장)
3. 특별한 구출의 행동
 - ㄱ. 바로로부터(참조, 창 12:10-20)
 - ㄴ. 아비멜렉으로부터(참조, 창 20 장)

야웨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불린다(참조, 41:14; 43:14; 48:17; 49:7,26; 54:5,8). 택하심을 받은 가족의 특별한 구속자가 되시는 야웨의 개념은 22-23 절의 신학적 요점이 될 것이다.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I. 구약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있다:

1. *가알*(BDB 145, I),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엘* 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추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레 25, 27 장), 또는 친척(참조, 룻 4:15; 사 29:22)을 되돌리는 권리의 문화적 측면은 신학적으로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시는 것으로 나타난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렘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율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렘 50:34).
2. *파다*(BDB 804),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적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된다(시 49:7,8,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시 130:7-8)

나. 신학적 개념은 관계된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1. 필요, 속박, 상실, 감금이 있다.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 ㄴ. 개인의(참조, 율 19:25-27; 33:28)
3. 어떤 사람은 반드시 중재자로서 그리고 후원자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가알*에서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다(즉, *고엘*, BDB 145).
4. 야웨는 종종 자신을 가족과 관계된 단어로 묘사하셨다:
 - ㄱ. 아버지
 - ㄴ. 남편
 - ㄷ. 가까운 친척
 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확보되었다; 값은 지불되었고 구속은 성취되었다!

II. 신약

가. 신학적 개념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뱀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한 것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2. *엑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엡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인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임,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퀴오*, “자유롭게 하다”
 - ㄱ. *퀴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빚지지 않은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오신 목적을 생각하시며,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힘있는 단어이다.
 - ㄴ. *퀴트루*,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눅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딤후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벧전 1:18-19)
 - ㄷ. *퀴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눅 1:68
 - (2)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눅 2:38
 - (3) 예수님의 단 번에 드러진 더 나은 제사, 히 9:12
4. *아폴리트로시스*
 -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 (1) 누가복음 21:28
 - (2) 로마서 8:23
 - (3) 에베소서 1:14; 4:30
 - (4) 히브리서 9:15
 - 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 (1) 로마서 3:24
 - (2) 고린도전서 1:30
 - (3) 에베소서 1:7
 - (4) 골로새서 1:14
5. *안틸리트론*(참조, 딤후 2:6). 이것은 십자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놓아 주심과 연결되는 중요한 본문이다(딤후 2:14 에서와 같이). 그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제물이었다; “모든 자”를 위해 죽은 자(참조, 요 1:29; 3:16-17; 4:42; 딤후 2:4; 4:10; 딤후 2:11; 벧후 3:9; 요일 2:2; 4:14).
-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1.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2. 죄에 대한 인간의 속박은 구약의 모세 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에게 죽음의 집행이 선언되었다(참조, 골 2:14).
 3.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는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죄로부터 사신 바 되었다(참조, 롬 6 장).
 4. 함축적으로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가까운 친척”이 되었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5.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섭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화목이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되었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6. 우리 몸의 부활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이 포함된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엡 1:14; 4:30).

29:24 이 절은 9-12,14 절과 반대된다. 일반생활 및 종교 생활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회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와 이해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6:9-10의 눈멀과 귀먹음에 대한 회복이다!



NASB “마음”

NKJV, NRSV

70 인역, 페쉬타 “영”

루아흐(BDB 924)는 정신적 활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히브리 단어이다(참조, 출 28:3; 신 34:9; 대하 28:12; 욥 20:3; 겔 20:32). 문맥 안에서 단어의 의미가 결정됨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사야 30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이집트와의 동맹에 대하여 경고받은 유다 30: 1-5 (1-5)	이집트에 둔 헛된 신뢰 30: 1-5 (1-5)	이집트에 보낸 대사에 관하여 30: 1-7 (1-5)	이집트와 맺은 무익한 조약 30: 1-5	이집트에 보낸 대사에 관하여 30: 1-5 (1-5)
30:6-7 (6-11)	30:6-7 (6-7)	(6-7)	30:6-7	대사에 대한 또 다른 예언 30:6-7
(12b-14)	반역하는 백성 30:8-11 (8-11)	이집트와 공모한 유다 30:8-17 (8-14)	불순종하는 백성 30:8-11	계약 30:8-17 (8-11)
(15b-17)	30:12-17 (12b-14)	(15-17)	30:12-14 30:15-18	(12-14) (15-17)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30:18 (18)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30:18-22 (18)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소망 30:18 (18)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다 30:19-26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30:18 (18)
30:19-22 (19-22)	(19-22)	30:19-22		30:19-26 (19-26)
30:23-33 (27-33)	30:23-26 (23-26)	30:23-26		30:19-26 (19-26)
	앗시리아에 대한 심판 30:27-33 (27-28)	앗시리아에 대한 예언 30:27-28 (27-28)	하나님이 앗시리아를 심판하실 것이다 30:27-29 (27-28)	앗시리아에 대하여 30:27-33 (27-33)
	(29-33)	30:29-33	(29-33)	
			30:30-3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 문맥은 주전 705 년에 사르곤 II 세가 죽은 후 앗시리아를 대항해서 일어난 많은 반란을 나타내고 있다. 수많은 봉신 계층에 의한 반란을 새 왕인 산헤립이 진압하였다.
- 나. 히스기야는 이집트의 제 25 왕조와 정치적/군사적 동맹을 맺었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에서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는 지역에서 앗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 모든 작은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규합하려했던 구사/누비안의 왕 샤바카에 의해 이 동맹이 이루어졌다.
- 다. 화에 대한 여섯가지 예언이 이 문학적 단위에 들어있다(즉, 28-33 장).
 1.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지파에 대한 화, 28 장
 2. 예루살렘에 대한 화, 29:1-14
 3. 야웨께로부터가 아닌 정치적 동맹에서 도움을 찾는 자들에 대한 화, 29:15-24
 4. 이집트로부터의 도움을 찾고 있는 자들에 대한 화, 30 장
 5. 이집트로부터의 도움을 찾고 있는 자들에 대한 화, 31-32 장
 6. 앗시리아에 대한 화, 33 장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0:1-5

- ¹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 ²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 ³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 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 ⁵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30:1 “화” 18:1 의 설명을 보라.

▣ “패역한 자식들” 이 호칭은 두 가지 진리를 의미한다.

1. 그들은 “자녀”이다(즉, 약속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참조, 롬 9:4-5)
2. 그들이 “패역하게” 행동한다(BDB 710, KB 770, **칼 능동 분사**, 참조, 1:23, “패역하여”라고 번역됨, 또한 65:2 을 보라). 이 어근의 기본적 의미는 “완고한”이다(참조, 호 4:16). 시 78:8 에서 이 단어와 이 단어의 동의어(BDB 598) 가 평행을 이룬다(참조, 신 1:26,43; 9:7,23,24; 21:18,20; 31:27). 이 태도는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되어 왔다. 이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한 부분이다!
그들이 “패역한 자식들”로 불리도록 한 행동을 이사야가 매우 특별하게 다룬 것을 주목하라.
1. 그들은 앗시리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계획을 고안했다(참조, 29:15)
2. 그들은 이집트(참조, 20:5; 31:3; 36:9)와 정치적 동맹(아래에 있는 설명을 보라)을 맺었지만 야웨의 영은 무시했다(야웨의 임재, 약속, 보호, 참조, 28:14-22; 29:15-16)

▣

NASB, NRSV	“동맹을 맺다”
NASB 난외주	“전제를 붓다”
NKJV	“계획을 고안하다”
TEV	“조약에 서명하다”
NJB	“동맹을 맺다”
REB	“계약을 짜다”
70 인역	“동의하다”
폐쉬타	“포도주 제물을 바치다”

이것의 히브리어 어근은 여러 의미를 가진다.

1. **나삭, 동사**, BDB 650 I 칼형
 - ㄱ. 불다, 은유적으로, 사 29:10
 - ㄴ. 불다, 문자적으로, 사 30:1; 호 9:4
 - ㄷ. 쇠로된 우상을 만들다, 사 40:19; 44:10
2. **나삭, 동사**, BDB 651 II “흔들다”를 의미한다, 사 25:7, REB

비록 부어서 드리는 제사(신 32:38)가 알려진 동맹을 맺는 절차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동의(참조, 사 57:6)에 대한 종교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행했을 것이다.

30:2 “그들에 피하려 하여” 이 두 용어(BDB 731, KB 797 과 BDB 340, KB 347, **칼 부정사 연계형**)를 보통 야웨께 대하여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집트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별주제: 보호와 돌봄을 나타내는 은유인 그늘

“그늘”이라는 관용적 표현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성경의 예를 보라.

1. 보호에 대한 관용구, 사 16:3; 30:2-3; 애 4:20
2. “손의 그늘”에 대한 관용구, 시 121:5; 사 49:2; 51:16
3. “지붕의 그늘”에 대한 관용구, 창 19:8
4. “하나님의 특별한 구름의 그늘”에 대한 관용구, 참조, 출 13:21-22; 14:19,20,24; 사 4:6; 25:4-5; 32:1-2
5. “날개의 그늘”에 대한 관용구, 시 17:8; 36:7; 57:1; 61:4; 63:7; 91:1,4(비슷한 은유들, 신 32:10-11; 룻 2:12; 사 31:5; 마 23:37; 눅 13:34)
6. “나무의 그늘”에 대한 관용구, 삿 9:15; 겔 17:23; 31:6,17; 단 4:12; 호 14:7

▣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야웨의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문자적으로 “나의 입에 묻지 않다,” 참조, 출 4:16; 수 9:14) 마술사들(참조, 8:19)에게 물은 것이 분명하다.

30:3 이집트는 그들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참조, 3,5,7 절; 20:5-6; 36:6). 놀랍게도 유다는 이전에 자신을 노예로 부리던 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자신의 언약적 하나님을 버렸다. 유다는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런 일을 또 행할 것이다(참조, 렘 2:13; 42:18-22)!

30:4 “그 고관들” 맛소라 본문에는 “그의”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그것을 따른다. 여기의 “고관들”이 바로의 지도자들(참조, 19:11)을 의미한다고 NASB 는 단언하는 듯하지만, 문맥상 이것은 이집트와의 정치적/군사적 동맹을 모색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보낸 대표자들을 가리킨다.

▣ “소안 ... 하네스” 두 도시는 제 25 왕조에 의해 자유롭게 되었다. 이 두 도시는 이집트 군대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언급된 두 도시는 나일강의 삼각주에 연결된다.

1. 소안은 ‘타니스’ 또는 ‘아바리스’라고도 알려진다(참조, 민 13:22; 시 78:12,43; 사 19:11).
2. 하네스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70 인역에서는 생략됨) 가까이 있는 요새인 다바네스(참조, 렘 2:16; 43:7,8,9; 44:1; 46:14)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름을 헤라클레오폴리스 마그나와 연관시킨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오폴리스 마그나는 누비안 왕조 시대 동안 그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30:5

NASB, NKJV “수치스러운”

NRSV “부끄러움”

TEV “유감”

NJB “실망한”

여기의 모든 영어 번역본은 맛소라 학자들의 *케레* 옵션(즉, 난외 독법)을 선택했다(*호비슈*, BDB 101, KB 116, *히필 완료형*, 이 절에서 *명사형* [BDB 102]은 나중에 사용된다). 맛소라 본문(*케티*)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히이슈*, BDB 92, KB 107, *히필 완료형*; 동사형은 50:2 에 그리고 *명사형*은 34:3 절에 사용된다)으로 되어있다.

개역개정 30:6-17

⁶네겟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⁷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⁸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⁹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¹⁰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¹¹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¹²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¹³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¹⁴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¹⁵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¹⁶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¹⁷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30:6-7 이것은 이집트(즉, 라합, BDB 923, 27:1의 설명을 보라)와 정치적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시도로써 선물(6b,c 절)을 가지고 유다와 이집트의 위험한 사막(즉, 6d,e 절)을 통과하도록 보내진 유대 대상을 묘사한다

NASB 연구 성경은 앗시리아 군대가 주된 여행 도로(997 쪽, 또한 IVP 성경 배경 주석, 621 쪽)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이집트에 갈 때 뒷 길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NIDOTTE(제 3 권 87 쪽)는 이것이 출애굽의 경로를 거꾸로 한 것과 같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나는 처음 것(즉, 정치적 동맹)이 문맥상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해석적 고려점을 제시한다:

1. 히브리 시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가
2. 암시가 단어와 구절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

- 어떤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 시를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오히려 연과 또한 큰 문맥과 그 연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주된 요점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강조하기 위함이다

30:6 네겍(BDB 616)의 “짐승들”(BDB 96)의 목록으로 열거된 항목을 주목하라.

- 암사자, BDB 522
- 수사자, BDB 821
- 독사, BDB 821
- 날아다니는 불뱀, BDB 977 I 과 풀렐 분사 “날아다니는”(BDB 733, KB 800), 14:29 의 설명을 보라
- 나귀, BDB 747
- 낙타, BDB 168

1-4 항은 여행의 위험을 말하고 5-6 항은 상업적 물품을 운반하는 짐승들에 대한 것이다.

30:7

NASB
NKJV
NRSV
TEV
NJB

“완전히 몰살된 라합”

“라합-헵-쉐벨”(“라합이 한가하게 앉아 있다,” 각주)

“가만히 앉은 라합”

“그래서 나는 이집트를 ‘해롭지 않은 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애굽을 ‘무너진 라합’이라 부른다”

맛소라 본문은 “가만히 앉은 라합”으로 되어있다. 라합은 이집트를 가리킨다. UBS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는 “그들은 중단 (한다)”라는 맛소라 본문에 “B”등급(약간 의심스러움)을 준다. 전체적인 요점은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의 침략자인 앗시리아를 멈추게 하거나 심지어 대항하는 자들을 도울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집트는 이빨이 없는 뱀(라합, BDB 923)이다!

30:8 이것을 기록한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법정에서 서게 하실 때에 그들이 반역한 것에 대해 분명히 기록된 증거를 사용하기 원하셨다(참조, 8:1; 합 2:2) (2)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게 됨으로 다음 세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에 여러 명령이 있다.

- 가라, BDB 224, KB 112, 칼 명령
- 기록하라, BDB 507, KB 503, 칼 명령
- 써라, BDB 349, KB 347, 칼 명령
- 영원히 있게 하라, BDB 224, KB 243, 칼 지시형

맛소라 본문은 “증거”(BDB 723 I), “영원히”(BDB 761, 참조, NKJV, NJB, 70 인역 페쉬타)로 되어 있지만 그 어근, *א*, 은 일반적으로 “영속”(즉, 시간의 구분, *ולם*과 비슷함)을 의미한다. 영어 번역은 종종 히브리어 단어가 갖는 의미적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영어 번역본들을 서로 대조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

30:9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 절; 1:2-3; 6:9-10; 29:9-12 를 보라.

“듣다”(BDB 1033, KB 1570, 칼 부정사 연계형)라는 동사는 “행하기 위해 듣는 것”(즉, 신 4:1; 6:4)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삶의 양식으로 응답함을 나타내는 이 개념은 구약에서 믿음의 중심을 이룬다(참조, 신 29:4). 이 절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순종은 타락한 인간에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구약에서의 약점은 구약의 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파트너(참조, 창 3 장)인 인간에게 있다. 여기에 “새 언약”의 필요가 있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처음 언약처럼 새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름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하다(참조, 마 11:29; 눅 6:46).

30:10-11 경건치 않았던 유대인들은 야웨를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도 원치 않았다!

1.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 ㄱ. 선견자, BDB 906, KB 1157, **칼능동 분사**
 - ㄴ. 선견하지 말라, BDB 906, KB 1157, 부정의 **칼 미완료형**
2.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 ㄱ. 선지자, BDB 302
 - ㄴ.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BDB 302, KB 301, 부정의 **칼 미완료형**
3.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BDB 180, KB 210, **피엘 명령**
4. 거짓된 것을 보이라, BDB 302, KB 301, **칼 명령**. “거짓된 것”(BDB 1122)은 오직 여기에서만 발견된다. 그들은 야웨의 어떤 메시지도 원하지 않았다!
5. 바른 길을 버리며(문자적으로 “바른 길에서 돌이키라”이다), BDB 693, KB 747, **칼 명령**
6. 칩경에서 돌이키라, BDB 639, KB 692, **히필 명령**
7.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문자적으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이다), BDB 991, KB 1407, **히필 명령**

이것은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사야가 자신의 요지를 나타내기 위해 통렬하게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야웨의 백성이라는 것은 단지 이름 뿐이다!

30:10 “선견자들” 이 용어(BDB 909)는 자주 사용되는 “보다”(BDB 906)라는 **동사**와 분명히 관계가 있다.

특별주제: 선지자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

성경적 용어들

1. **로예** = “선견자”(BDB 906), 삼상 9:9. 이것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나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며 그 어근은 “부르다”에서 왔다. **로예**는 “보다”의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해했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물었다.
2. **호제** = “선견자(BDB 302), 삼하 24:11; 암 7:12. 이것은 원래 **로예**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인 “비전을 보다”에서 왔다. 이것의 **분사형**은 종종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거의 사용된다.
3. **나비** = “선지자”(BDB 611), 같은 어족의 아카디아 **동사 나부** = “부르다”이고 같은 어족의 아라비아어는 **나바아** = “알리다”이다. 이것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구약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된다. 정확한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다”가 가장 적합하게 보여진다. 아마도 가장 적합한 이해는 아론(참조, 출 4:10-16; 7:1; 신 5:5)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세와 바로의 관계에 대한 야웨의 설명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이다(참조, 암 3:8; 렘 1:7,17; 겔 3:4).
4. 세 가지 용어 모두 대상 29:29 에서 선지자의 직책으로 사용된다; 사무엘 - **로예**; 나단 - **나비**; 갓 - **호제**.
5. 또한 **이쉬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은 “선지자”라는 의미로서 구약에서 76 번 사용된다.

6. 신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이다. 그것은 다음에서 왔다
- ㄱ. 프로, “전에” 또는 “~을 위해”
 - ㄴ. 페미, “말하다”라는 의미에서

30:12 “너희가 . . . 믿어” 이 동사(BDB 105, KB 120, *칼 미완료형*)는 이사야에서 종종 사용된다.

1. 하나님을 믿다, 참조, 12:2; 26:3,4; 36:7,15; 37:10; 50:10 (여호와와 이름)
2. ~을 믿다
 - ㄱ. 30:12, 압박과 허망
 - ㄴ. 31:1, 이집트 군대
 - ㄷ. 36:6,9, 이집트
 - ㄹ. 42:17, 우상
 - ㅁ. 47:10, 악
 - ㅂ. 59:4, 허망한 것
3. 사람을 믿다, 36:5,6,9

▣ “의지하니” 이 동사(BDB 1043, KB 1612, *니팔 미완료형*)는 “믿다”(참조, 대하 13:18; 14:11; 16:7,8)와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오직 *니팔형*으로만 사용되었고 이사야에서 여러 번 나온다(참조, 10:20[2 회]; 31:1; 50:10). 이것은 문자적으로 “~에 기대다” 또는 “자기 자신을 지지하다”(참조, 창 18:4)이다.

30:13-14 이것은 다가올 파괴를 말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은유이다: (1) 축박한 벽의 무너짐 (2) 토기의 완전한 깨짐.

30:15 유다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라.

1. 아돈 야웨(여호와 하나님)
2.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참조, 11,12 절

이 이름들은 언약적 호칭이다! (1:1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만 했다!

▣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15-17 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해 설명한다. 15 절은 참된 신뢰(참조, 시 118:6-9)를 묘사하고 16-17 절은 거짓된 신뢰를 묘사한다.

구원(BDB 446, Kb 448, *니팔 미완료형*)은 두 개의 **명사**로 묘사된다.

1. 돌이킴(문자적으로 “되돌아가다”이다), BDB 1000, KB 1435;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용어로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것이 미 2:8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원래의 어근인 *שׁוּב*은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문맥과도 걸맞다.
2. 조용히 있음, BDB 629 I, KB 692 II, “고요함,” “인내,” “평화”의 의미
 - ㄱ. 욥 17:16; 전 6:5, 죽음에서의 쉼
 - ㄴ. 잠 29:9, 어리석은 자는 쉼이 없음
 - ㄷ. 사 30:15, 전쟁에서의 가능한 쉼, 미 2:8(위의 1항)과 평행을 이룬다는 전제에서

나는 복음적으로 여기의 중심 단어들(“구원받은,” “돌이킴,” “조용히 있음”)을 복음적 메시지로 바꾸기 원하지만 이것은 신약이 아니다! 이것은 유다가 이집트와의 군사적 동맹을 결성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연이다. 유다는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고 그분 안에서 쉬고 있지 않다(참조, 15d 절).

▣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행은 위에 있는 행과 평행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한 네 가지 용어가 있다.

1. 돌이킴, 위의 내용을 보라
2. 조용히 함, 위의 내용을 보라
3. 잠잠함, BDB 1052, KB 1641, *히필 부정사 절대형*, 참조, 7:4; 32:17

이것이 7:4 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한 것과 신학적으로 평행이 됨을 기억하라. 지금 야웨는 같은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나(야웨)를 신뢰하라!

30:17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유다는 이집트에서 불러 오기로 한 군대의 힘을 신뢰하고 있었다(참조, 2:6-7; 31:1). 그러나 그들이 빠르다고 믿고 기병대를 고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앓시리아 군대가 빠르다고 단언하신다.

30:17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이것은 거룩한 전쟁과 관련이 있는 용어이다 (참조, 레 26:8; 신 32:30; 수 23:10). 이 표현을 출애굽 때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때부터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어 하나님께서 앓시리아의 편이 되어 있으시다.

개역개정 30:18

¹⁸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30:18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야웨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 얼마나 놀라운 절(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인가!

1.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ㄱ. 애타게 바라다(문자적으로 “기다리다”), BDB 314, KB 313, *피엘 미완료형*
ㄴ. 은혜, BDB 335, KB 334, *칼 부정사 연계형*
2.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ㄱ. 기다리다(문자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 BDB 926, KB 1202, *칼 미완료형*
ㄴ. 긍휼, BDB 933, KB 1216, *피엘 부정사 연계형*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는(문자적으로 “기다리다,” 1. ㄱ) 항과 같은 동사지만 여기서는 *칼 능동 분사임*, 참조, 25:9; 26:8; 33:2; 시 33:20) 자마다 축복(BDB 80)하시기를 원하신다. “기다리는데”는 야웨의 임재, 약속, 목적(참조, 48:9-11; 호 11:8-11)을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며 인내하는 세계관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30:19-22

¹⁹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풀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²⁰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²¹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²²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30:19-22 진실되게 회개한 유다를 위해 야웨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을 주목하라.

1. 그들이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 이것은 단호(강조)하다. 같은 어근(BDB 113, KB 129)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동사**. 이와 같은 새 날은 25:8; 60:20; 61:1-3 에서도 암시되어 있다.
2. 그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 이것은 같은 어근(BDB 335, KB 334; 18 절의 설명을 보라)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하여 강조된다.
3. 그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 BDB 1033, KB 1570, **칼 부정사 연계형**.
4. 그는 응답하실 것이다 - BDB 772, KB 851, **칼 완료형**, 참조, 58:9; 65:24(즉, 언약은 유효하고 견고하다)
5.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 - BDB 489, KB 486, **니팔 미완료형**.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용어로서 여기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구석에 쫓겨났다”(NKJV)라는 뜻이다. NASB 는 아라비아 어근인 “에워싸다” 또는 “지키다”로부터 “숨기다”를 취한다.
6.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 BDB 906, KB 1157, **칼 능동 분사**.
7.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 BDB 1033, KB 1570, **칼 미완료형**. 이것은 6:9-10 의 반전이며 신 29:4 의 회복이다. 그들이 들을 “말소리”(BDB 182)는 믿음의 생활양식에 대한 은유로서 이 절의 나머지 부분을 이룬다.
 - ㄱ. 바른 길, BDB 202(즉, 살아 있는 언약, 참조, 35:8-9; 42:16; 시 25:8-9)
 - ㄴ. 이리로 가라, BDB 229, KB 246, **칼 명령**(참조, 레 26:3; 신 8:6; 10:12; 11:22; 28:9; 왕상 6:12; 8:36,61; 대하 6:16,27; 느 10:29; 사 2:3; 렘 6:16; 44:10,23; 겔 5:6-7; 11:20; 18:17; 20:13,16,19,21; 33:15; 37:24; 단 9:10; 미 4:2)
 - ㄷ.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바른 길에 있음과 관계있는 또 다른 관용구)
8. 너희는 너희의 우상에서 돌아설 것이다
 - ㄱ. 그것들을 더럽게 하다, BDB 379, KB 375, **피엘 완료형**
 - ㄴ. 그것들을 던지다, BDB 279, KB 280, **칼 미완료형**
 - ㄷ.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나가라”하리라, BDB 422, KB 425, **칼 명령**

예루살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독특하게 단언하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야웨께 돌아 온다면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함께 단언한다!

30:20 이 절은 여러 사람을 거론한다.

1. “여호와” - 아돈
2. “네 스승”(2 회)
3. “너희”(즉, 유대인들, **복수형**)

“스승”은 다음을 가리킬 수 있다

1. 야웨(주의 **복수형**, TEV, 참조, 45:15,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이다,” 그러나 **동사**가 다름)
2. 메시아(야웨의 대리자)
3. 선지자/제사장(즉, 참 계시의 회복, 참조, 시 74:9)

“스승”(모레카, BDB 435)이라는 용어는 단수와 복수로 해석할 수 있다

1. **단수**, 존 J. 오웬, *구약의 분석적 열쇠*, 제 4 권, 90 쪽, NASB, JPSOA, NRSV, ASV 를 보라
 2. **복수**, 벤자민 데이빗슨, *분석적 히브리어와 갈대아어 사전*, 475 쪽, NKJV, REB 를 보라
- 이 형태는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라도 의미할 수 있다(NIDOTTE 제 2 권 538 쪽).

30:21
 NASB “더러운 것”
 NKJV “불결한 것”
 NRSV “더럽혀진 냇마 같은”
 NJB “오염된 것들 같은”
 페쉬타 “월경하는 여인의 불결한 물같은”

이것은 여자가 월경 기간(참조, 레 15:33; 20:18) 동안 사용한 형질을 나타내는 용어(BDB 188)이다. 이것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할(참조, 64:6) 불결한 것을 가리키는 강력한 문화적 관용구가 되었다.

70 인역(REB)은 의식적인 불결을 나타내는 또 다른 문화적 관용구인 “배설물”과 비슷한 용어로서 “나가라”(BDB 422, KB 425)를 불결한 물건 바로 다음의 단어로 취한다.

개역개정 30:23-26

²³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²⁴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²⁵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²⁶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30:23-26 이것은 만일 아브라함 자손이 야웨의 언약을 따르면 받게 될 농경적 축복과 가축을 기르는 일에 대한 축복을 묘사한다(참조, 레 26 장과 신 27-28 장).

1. 적당한 시기의 비, 23,25 절, 참조, 35:6,7; 41:18; 43:19,20
2. 좋은 곡식, 23 절
 - ㄱ. 풍성(BDB 206)
 - ㄴ. 기름진(BDB 1032)
3. 가축을 위한 푸른 목장, 23 절, 참조, 32:20
4. 일하는 가축을 위한 특별한 먹이, 24 절(이 용어[BDB 330]는 오직 여기에서만 발견된다)
5. 원수가 패배함, 25 절(“고산마다.” 같은 관용구가 호세아서에서 바알 예배를 위해 사용되었다)
6. 건강과 성장을 위한 풍성한 빛, 26 절, 참조, 60:20-21(완전 수의 상징인 일곱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빛, 즉 그의 이름, 27 절)

30:26 회복(참조, 11:6-9; 롬 8:18-22)에 대한 상징이 뒤따른다

1.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25 절
2.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 26 절
3. 여호와께서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26 절

▣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이 구절과 이와 같은 종류의 구절(즉, 신 32:39; 삼상 2:6; 왕하 5:7; 욥 5:18; 사 45:7; 렘 1:10; 24:6; 31:28; 호 6:1; 암 3:6)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유일신주의(즉, 하나이고 오직 하나 뿐인 원인자)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현대의 서양인들은 그들의 경험과 역사에 있어서 많은 원인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는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

개역개정 30:27-33

²⁷ 보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뻑뻑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²⁸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²⁹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와 그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³⁰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³¹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에 앓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³²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앓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³³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는즉
 여호와와 그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30:27-33 이 연은 다가오는 폭풍(참조, 출 19:16 이하; 사 5:4-5; 시 18:7 이하; 50:3-5; 합 3:3-4)으로 하나님의 출현을 표현한 관용구로서 앓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반영한다.

1.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된 요소 - 27 절, 30a-c 절, 33e 절
2. 폭풍의 요소 - 28 절, 30d 절
3. 회복의 요소 - 29 절
4. 심판의 요소 - 앓시리아, 31-33 절

30:27

NASB “그의 연기가 뻑뻑하다”
 NKJV “그의 짐이 무겁다”
 NRSV “질은 연기가 일어나는 가운데”
 NJB “엄한 그의 위협”

맛소라 본문은 *카베드*, BDB 457, KB 451 과 BDB 673 를 함께 사용되어 “일어나는 연기”로 되어 있다. 첫 단어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무겁게 된
2. 무거운

3. 부답이 되는
4. 명예로운

두 번째 용어(뜻샤아, BDB 673), KB 640)는 구약에서 오직 여기서만 발견된다. BDB 는 이것이 “높여진 것”(구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KB 는 이것이 “올리기, 높임”을 의미한다고 보며 또한 평행구절로서 사 20:38-40 을 언급하고 있는데 38 절의 뜻엘은 불타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연기를 나타낸다. 문맥상 30:27 은 하나님의 출현과 심판이므로 두 가지가 모두 맞는다.

1. 높임, 구름을 나타냄(즉, 쉐키나)
2. 많은 연기

30:28 “목에까지 미치는” 8:8 에서 같은 관용구가 앗시리아의 침략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여기서 이 관용적 표현은 반대의 뜻을 나타낸다. 즉, 야웨께서 유다의 편이 되셔서 앗시리아에 대항하여 싸우신다.

30:29 “여호와와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이것은 평행법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사용한 관용적 표현이다. “반석”은 종종 야웨 자신을 가리킨다(참조, 17:10; 신 32:4,18,30; 삼상 2:2; 시 18:1,31,46; 28:1; 31:3; 42:9).

30:30 “그의 목소리” 문자적으로는 “그의 목소리의 장엄함”(BDB 217)이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하심(즉, 창조, 창 1 장)으로 성취된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으시다(참조, 사 45:23; 55:11; 마 24:35). 입(참조, 사 49:2; 계 1:16; 2:12,16; 19:15)에서 좌우에 날선 검(참조, 히 4:12)이 나오는 분으로 예수님을 나타낸 회화적 표현은 사 11:4 의 “그의 입의 막대기”와 신학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 “우박” 수 10:11 에서 가나안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참조, 수 10:14, 42; 23:3,10)를 주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셨다.

30:31

NASB, TEV,

NJB

“무서워할 것이다”

NKJV

“압도당할 것이다”

NRSV

“공포에 사로 잡힐 것이다”

JB

“박살날 것이다”

70 인역, 페쉬타

“패배할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 동사(BDB 369, KB 365, 칼미완료형)는 다가올 패배(참조, 7:8; 8:9[2 회]; 9:4; 20:5; 30:31; 31:4,9; 37:27; 51:6,7)로 인한 두려움에 감각을 잃고 마비되어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을 가리키는 “산산히 부서지다”이다. 야웨는 자기 백성의 편에 서서 앗시리아를 대항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험했던 두려움과 공포와 손실을 지금은 앗시리아(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참조, 10:5)가 느끼고 있다.

▣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사 10:5 에서는 앗시리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불렀지만 여기서는 역할이 뒤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편으로 돌아오신다. 막대기가 지금은 막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30:32 막대기로 친다는 관용구로써 여호와와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 두 행(32c,d 절)이 묘사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

1. 기쁨으로 음악에 맞춰 장단을 치기
2. 야웨께서 앗시리아가 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유다의 기쁨(참조, 32d 절).

30:33 “도벳” 이것은 “타는 장소”(BDB 1075)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이다. 이것은 종종 *몰렉신*에 대한 예배와 연결되어 사용된다. 여기서는 문맥상 다음을 내포할 수 있다

1.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야웨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장소
2. 앗시리아 왕을 화장시키기 위해 야웨 자신이 준비하신 장작더미(참조, 31:9)
3. 페니키아의 불의 왕인 *몰렉*을 뜻하는 “왕” (참조, 레 18:21)

문맥상 2 항이 가장 적합하다.

이사야 3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집트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서로부터의 도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음	이집트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집트와의 동맹에 대하여
31:1-3 (1-3)	31:1-3 (1-3)	31:1-3 (1-3)	31:1-3	31:1-3 (1-3)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해내실 것이다	산헤립에 대하여		앗시리아에 대하여
31:4-5 (4-5)	31:4-5 (4-5)	31:4-9 (4-5)	31:4-5	31:4-9 (4-9)
31:6-9 (6-9)	31:6-9 (6-9)	(6-9)	31:6-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29:15-30:33 처럼 31-32 장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문학적 단위이다. 히스기야는 앗시리아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와의 동맹을 결성하려고 시도했지만, 주전 701 년에 산헤립은 유다를 침략했다.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은 면했지만 성벽이 있는 46 개의 도시가 파괴되었다.
- 나. 앵커 바이블은 심판과 소망을 오가는 예언의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는 흥미있는 도표를 제시한다(426 쪽).

위협

28:14-15

29:1-4

29:15-16

30:1-17

31:1-3

보장

28:16-17

29:5-8

29:17-21

30:29-33

31:4-5, 8-9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1:1-3

¹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²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³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31:1 “화” 이것은 “화” 시리즈의 네 번째 것이다(28:1; 29:1,15; 30:1; 31:1; 33:1). 이 용어는 장송시의 운율을 사용한다.

▣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참조, 28-34 장)을 받기 위해 야웨의 힘과 임재와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에 정치적 동맹을 신뢰(BDB 105, KB 120, 또한 22:23의 특별주제를 보라)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 “말... 병거... 마병” 앗시리아인은 매우 큰 규모의 기병대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이집트는 매우 규모가 큰 전차 부대로 잘 알려져 있었다. 유다는 앗시리아인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신뢰하고 있었다. 모든 시대의 인간은 창조와 자비의 하나님 대신에 과학기술 수준이나 숫적 우세함을 신뢰하려는 것에 대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 “병거” 이집트는 주변의 모든 나라로 병거를 수출하였다(참조, 왕상 10:29). 그러나 이 병거는 오직 평평한 땅에서만 효과적이었지 유다의 구릉지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이 두 용어가 언약의 하나님(참조, 1:4)께 사용된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질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죄있는 인간을 그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다.

두 번째 용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야웨”(참조, 출 3:14)이다. 1:1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양모하지 . . . 구하지” 두 동사 모두 부정의 **칼 완료형**으로서 확정된 상태를 나타낸다.

1. 양모하다(문자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시하다”이다), BDB 1043, KB 1609, 참조, 17:7,8
2. 구하다, BDB 205, KB 233, 참조, 9:13; 55:6; 58:2; 65:10

이 동사들은 강력한 인격적 요소를 나타낸다(참조, 단 9:13).

31:2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NET 성경은 이것을 이집트로부터의 도움을 찾고 있는 유다의 조언자에 대해 비꼬는 말로 본다. 그러나 야웨께서는 마지막 두 행에서만 아니라 전체 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참조, 사 45:23; 55:11; 렘 44:29).

▣ “일어나사” 이 동사(BDB 877, KB 1086, **칼 완료형**)는 야웨의 백성(참조, 14:22)을 대신하여 싸우시기 위해 또는 야웨의 백성에 대항하여(참조, 암 7:9) 싸우시기 위해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야웨를 신인동형론적으로 표현한다. 6:1의 특별주제: 하나님께 사용된 신인동형론적 용어를 보라.

▣ “악행하는 자들의 집 . . . 행악을 돕는 자들” 이 두 구는 유다(즉, “도움을 받는 자,” 3e 절)와 유다의 정치적 동맹자들(즉, 이집트, “돕는 자,” 3d 절)을 의미한다.

31:3 이것은 인간의 덧없음과 하나님(엘)의 영원하심을 비교한다. 여기서 이것은 특별히 출 14:26-31a를 의미할 것이다.

이 절은 또한 하나님(엘)과 육체를 분명히 대조시킨다. 하나님은 영(참조, 요 4:24)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신의 현현)을 취하실 수 있지만 그는 영이시고 그의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참조, 왕상 8:27; 렘 23:24). 하나님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신자들과 교제를 가지신다(즉, 사 66:1-2).

▣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신인동형론적으로 표현한 관용구이다. 6: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동사(BDB 477, KB 476, **칼 미완료형**)는 완전한 파괴와 끝을 나타낸다(참조, 1:28; 16:4; 29:20). 강하고 오래 갈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아니다! 이것은 풀과 같은 인간의 무상함에 대한 일반적인 격언과 같다(참조, 사 40:6-8; 시 95:5-6; 103:15; 104:14; 약 1:10-11; 뱀전 1:24).

개역개정 31:4-5

⁴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⁵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31:4 “큰 사자” 이것은 자신의 특별한 장소(즉, 성전)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강하고 끈질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첫 연과 반대되는 내용이다(31:1-3).

▣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이 동사(BDB 432, KB 434, 칼미완료형)는 “내려오다,” “내려가다,”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야웨께서 거하시는 하늘을 떠나 땅으로 오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번 사용된다.

1. 인간의 행동을 보시고 반응하시기 위해, 창 11:5,7; 18:21
2.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출 3:8; 19:11,18,20; 민 11:17,25; 12:5(하나님의 속성이 특별히 기록된 두 곳은 출 34:5,6-7; 느 9:13,17 이다)
3. 시편의 여러 곳에서 야웨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삼하 22:10; 시 18:9; 144:5
4. 심판을 위해, 미 1:3(1 항처럼)

이 동사는 특별하지만(즉, 아래로) 이것은 하늘과 땅(참조, 행 1:2,9)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유다는 이집트로 내려갔고(1 절과 같은 동사) 야웨는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오셨다. 이사야는 유일하게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단언한다! 그러나 후기의 선지자들은 유다가 회개하고 야웨를 신뢰할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참조, 레 26:18; 미 3:11-12; 5:5b-6,7-8).

31:5 “새가 날개 치며” 이것은 부드럽고 충실한 어미 새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용이다(“보호할 것이라,” BDB 170, KB 199, 같은 어근으로 된 *히필 미완료형*과 *칼 부정사 절대형*은 강조를 나타낸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여성적인 은유로써 묘사된다(참조, 창 1:2; 신 32:11; 사 40:31; 호 11:4; 마 23:37; 눅 13:24).

5 절에서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실 일을 주목하라.

1. 보호할 것이다, BDB 170, KB 199, *히필 미완료형*
2. 호위할 것이다, BDB 170, KB 199, *칼 부정사 절대형*
3. 건질 것이다, BDB 664, KB 717, *히필 완료형*
4. 뛰어넘을 것이다, BDB 820, KB 947, *칼 부정사 절대형*
5. 구원할 것이다, BDB 572, KB 589, *히필 완료형*

▣ “뛰어넘어” 이 동사(BDB 820, KB 947, 칼 부정사 절대형, 참조, 출 12:11-27)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모든 강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건지신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역개정 31:6-9

⁶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⁷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⁸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⁹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31:6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 동사(畵, BDB 996, KB 1427, 칼 명령)는 원래 “되돌아가게 하다” “되돌아가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1.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섬, 민 14:43; 수 22:16,18,23,29; 삿 2:19; 8:33; 삼상 15:11; 왕상 9:6; 렘 3:19; 8:4
2. 하나님께 돌아감, 왕상 8:33,48; 대하 15:4; 30:9; 시 51:13; 116:7; 사 6:10; 10:21,22; 31:6; 렘 3:7,12,14,22; 4:1; 5:3; 호 3:5; 5:4; 6:1; 7:10,16; 11:5; 14:1,2; 암 4:6,8,9,10,11(특별히 렘 7 장과 암 4 장을 주목하라)
3. 야웨께서 처음에 이사야에게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또는 회개할 수 없다, 참조, 6:10)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곳은 아니다.

회개는 감정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향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의 삶의 방향전환이다. 이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변화를 원하며 변화되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죄를 완전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반항하기를 매일 멈추는 것이다! 이것은 창 3 장에서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으로 된 결과와 반대이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창 1:26-27) 지음받은 것이 손상을 입었지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구약의 회개는 우선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반면 신약은 우선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 참된 성경적 회개는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한다. 아울러 회개가 처음 시작하는 행동이며 또한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처음 시작하는 행동에 대한 것은 막 1:15; 행 3:16,19; 20:21 에 나오고 계속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요일 1:9; 계 2 장과 3 장에 나온다. 회개는 한번의 선택이 아니다(참조, 눅 13:3)! 6:10 의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회개를 보라.

▣ “심히 거역하던” 이것은 야웨께 대한 유다의 반역을 말한다.

1. “심히,” BDB 770, KB 847, *히필 완료형*, 이 단어는 30:33 에서 앗시리아 왕의 화장을 위한 장작더미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이것은 이곳과 호 5:2; 9:9 에서와 같이 죄를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히 이집트로부터 도움을 구하려는 유다의 “비밀스런” 계획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29:15).
2. “거역하던,” BDB 694, 여기서 이것은 배반을 의미한다, 참조, 신 13:5; 사 1:5; 31:6; 렘 28:16; 29:32

▣ “이스라엘 자손들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1) 이것은 족장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의미할 수 있다 (2) 이것은 북쪽의 열 지파를 의미할 수 있다—또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으로 불림 (3) 이것은 유다를 의미할 수 있다. 문맥상 3 항이 적합하다.

31:7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으로 택함을 입었지만 그들은 야웨께 대한 예배와 가나안의 다산 숭배를 따르려고 애를 썼다. 이것은 항상 재앙이었다. 야웨가 하나님이시며 또 홀로 그러하실 것이다.

31:8 “앗수르는 앞드러질 것이나” 앗시리아는 하나님께서 북쪽의 열 지파(참조, 사 10:5)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였다. 한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앗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다루실 것이다(참조, 10:12; 14:15; 30:31-33; 37:7).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는 주전 612 년 신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

▣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포위한 일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36 장과 37 장을 읽으라. 37:36 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해내심(인간의 칼로서가 아닌)을 주목하라.

▣ “복역하는 자” 전쟁에서 살아남은 패배한 군인들은 다음과 되었을 것이다

1. 승리한 군대의 용병으로서 징집됨
2. 노예로서 팔림

3. 군대를 섬기는 복역자가 됨

다른 거주자는 모두 강제로 노예가 되었다(참조, 애 1:1). 고대 세계에서 밋진자나 전쟁에 패배한 자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다.

31:9 “그의 반석... 그의 고관” 히브리어에서 이 두 단어는 평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석”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야웨의 “깃발”(BDB 651, 참조, 사 13:2; 램 50:12; 51:12,22)을 인해 겁먹은 앗시리아 왕(또는 왕의 신들 중 하나, 참조, 신 32:31,37)과 그의 군대 장관들(즉, “왕자들”)을 의미한다.

▣ **“여호와와 불... 풀무”** 이것은 심판의 불(비록 30:33의 암시가 가능하지만)도 아니고 조명의 불도 아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난로나 화로(참조, 예루살렘을 뜻하는 “아리엘,” 29:1,2,7)를 가리킨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31 장은 현재 우리의 군비확장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더 나은 과학기술과 더 나은 군사력이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가?
3. 왜 야웨가 여성형 단어로 묘사되었는가?
4. 회개를 설명해보라. 회개는 한 번만으로 충분한 행동인가 아니면 계속되는 경험인가? 회개는 태도를 말하는가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가?
5. 앗시리아가 어떻게 인간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패배하였는지 설명해보라.

이사야 32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영광스러운 미래 32:1-8 (1-8)	의의 통치 32:1-8 (1-4) (5-8) 자기 만족의 결과	도래할 공의의 시대 32:1-8 (1-8) 유다 여인들의 자기 만족에 대하여	성실한 왕 32:1-8 심판과 회복	좋은 왕 32:1-5 (1-5) 인색한 자와 존귀한 자 32:6-8 (6-8)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하여
32:9-20 (9-20)	32:9-15 (9-11) (12-15)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 32:16-20 (16-19) (20)	32:9-14 (9-14) 성령의 시대에 모든 피조물의 변화를 볼 것이다 32:15-20 (15-20)	32:9-14 32:15-20	32:9-14 (9) (10) (11) (12-13) (14) 성령의 부으심 32:15-20 (15-17) (18-20)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31-32 장은 여섯 번의 화 중에서 다섯 번째(28:1; 29:1,15; 30:1; 31:1; 33:1)로서 이집트의 제 25 왕조의 누비안 바로와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결성하려는 히스기야의 노력을 다룬다.
- 나. 유다는 야웨의 보호가 아닌 이집트의 보호를 신뢰했다. 이사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현존을 신뢰하고 믿어야 함에 대한 위반으로 보았다.
- 다. 이 장은 예루살렘에서 의의 왕이 미래에 통치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참조, 1 절; 9:6-7; 11:1-5; 미 5:2-5a). 히스기야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했다. 37:14-20,30 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믿음에 근접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2:1-8

- ¹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 ²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 ³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 ⁴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 ⁵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 ⁶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 ⁷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 ⁸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32:1 “왕... 방백” 1-8 절은 경건한 왕과 그(또는 하나님)의 통치(참조, 9:6-7; 11:1-5; 16:5; 미 5:2-5a)를 의미한다. 여기에 의도적인 모호성이 보이는데, 이는 히스기야(아마도 7:14-15 에 대한 즉각적인 성취)와 오실 메시아 (7:14 의 궁극적인 성취, 참조, 마 1:23)를 이 구절에서 둘 다 반영하기 위함인 것 같다.

32:2 이 절은 경건한 지도자와 그를 돕는 자들의 통치를 “사막”의 은유로 묘사하고 있다.

1. 광풍을 피하는 곳(BDB 285, 문자적으로 “숨기는 장소,” 이곳에서만 이 형태가 발견됨)
2. 폭우(1 향과 평행)를 가리는 곳(BDB 712)
3. 마른 땅에 냇물
4.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BDB 853)

25:4 에서 이와 비슷한 은유가 야웨께 대해 사용된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혹은 최소한 모든 지도자(즉, “통치자들이 다스릴 것이다,” **동사**, BDB 979, KB 1362, **칼 미완료형**)를 나타낸다.

“~갈을 것이며”라는 **동사**(BDB 224, KB 243, **칼 완료형**)는 1 절의 “방백”이나 램 31:31-34 에 묘사된 “새 언약”의 백성을 의미할 수 있다.

32:3-4 이것은 6:9-10 과 대조된 것으로서 언약적 백성의 회복된 영적 상태를 반영한다(참조, 신 29:4).

1. 그들은 볼 것이다
2. 그들은 들을 것이다
3. 그들은 지식을 깨달을 것이다
4. 그들은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어눌한 자,” BDB 748, 오직 이 곳에만 있다)

32:5-8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이 두 무리는 현재의 사회에도 있지만 그들의 진면목이 앞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6-7 절). 6-7 절은 두 악한 자를 묘사하는 반면 8 절은 “참으로” 존귀한 자를 나타내고 있다.

1. 6 절에 묘사된 “어리석은” 자(BDB 614)
 - ㄱ.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 ㄴ.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 (1) 간사를 행하며
 - (2)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 ㄷ.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 ㄹ.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2. 7 절에서 묘사된 “악한” 자(BDB 647, 오직 이곳에서만 2 회 발견됨)
 - ㄱ. 그 그릇이 악하여
 - ㄴ. 악한 계획을 세워
 - ㄷ.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 ㄹ.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3. 존귀한 자(BDB 622), 8 절
 - ㄱ. 6 절과 7 절에 언급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존귀한(또는 “관대한”) 일을 계획함
 - ㄴ.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개역개정 32:9-20

⁹너희 안일한 여인들이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¹⁰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 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¹¹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베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2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13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쪼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14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땅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 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15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19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20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32:9-12 이 연은 예루살렘의 부유하고 유복한 사회의 여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참조, 3:16-4:1). 그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1.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9 절 BDB 877, KB 1086, **칼 명령**. 같은 동사가 앞 절에서 “서있다” 또는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에서 이것은 내(여호와 또는 그의 선지자)가 너에게 말할 때 “일어나라”라는 뜻이다.
2.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9 절, BDB 1033, KB 1570, **칼 명령**
3.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9 절, BDB 24, KB 27, **히필 명령**(참조, 28:23). 설명적인 구절들(첫째 행과 세째 행)인 “안일한 여인들,”(참조, 11 절)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가 평행을 이루고 이것이 다시 10,11 절에서 평행을 이루는 것처럼 둘째 행과 네째 행의 동사가 평행을 이루는 것을 주목하라.
4. 너희가 당황하리니, 10 절, BDB 919, KB 1182, **칼 미완료형**. 이 용어는 “동요,” “몸을 뺄,” “혼란됨”을 가리킨다. 10 절에 있는 시간적 요소를 주목하라.
 - ㄱ. 일년 남짓 지나면
 - ㄴ. 포도 수확이 없으며
 - ㄷ.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5. 떨지어다, 11 절, BDB 353, KB 350, **칼 명령**, 참조, 10:29; 19:16; 41:5. 이것은 10 절의 “당황하다”와 평행이다(놀라운 것은 11 절의 모든 명령이 남성형인데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은 여인들이다).
6. 당황할지어다, 11 절, BDB 918, KB 1182, **칼 명령**, 10 절과 같은 동사
7. 옷을 벗어, 11 절, BDB 832 II, KB 980, **칼 명령**. 이것은 (1) 슬픔(참조, 겔 26:16) 또는 (2) 수치스러움(참조, 호 2:5)의 표시일 수 있다.
8. 몸을 드러내고, 11 절, BDB 792, KB 889, **칼 명령**
9. 베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1 절, BDB 291, KB 291, **칼 명령**, 또한 슬픔의 표시. 15:2-3의 특별주제를 보라.
10.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12 절, BDB 74, KB 763, **칼 능동 분사**, 슬픔의 또 다른 표시, 눅 18:13; 23:48.

이 모든 것은 주전 701 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시기와 관계가 있다. 포위는 부족과 질병의 무서운 경험이었다.

32:9,10,11

NASB, NKJV,

NRSV

“만족한 딸들”

NJB

“자부심이 강한 딸들”

REB

“걱정 없는 딸들”

70 인역

“소망의 딸들”

JPSOA

“자신만만한 여자들”

이 히브리 용어(BDB 105, KB 120)는 보통 “안전” 또는 “신임”을 의미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이것을 “땅에 떨어지다”(NIDOTTE 제 1 권 649 쪽)라는 의미인 또 다른 어근(BDB 105 II, KB 121)으로 본다.

이 용어는 또한 32:17 에 있고 “신임” 또는 “안전”(NASB 난외주)로 해석된다. 이 유복한 상류층의 여인들은 자부심이 강했다(NJB).

32:10 “일년 남짓 지나면” 이것은 매우 특별한 시간을 의미(아마도 수확하는 계절과 연관된)하며 주전 701 년에 있었던 산헤립의 침략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32:12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 구절은 다음의 두 가지로 다를 수 있다.

1. 이것을 11 절의 옷을 벗어 여인의 가슴을 드러내는 것과 관계시키라
2. JPSOA 의 관주에 기록된 것처럼 히브리어의 “가슴”(드문 시적 용어, BDB 994, *산*)을 “들”(BDB 961, *사다이*, 참조, 56:9)로 바꾸라. 만약 2 항을 따른다면 “들,” “밭,” “열매 많은 포도나무”는 농사의 풍부함의 손실에 대한 평행을 이룬다.
3. 이것을 남자든지 여자가 슬퍼하는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라(폐쉬타)

32:13 “기뻐하는 집” 같은 단어인 “즐기는”(BDB 965)이 14 절에서 “들나귀가 즐기는”으로 사용된다. 이사야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1. 이중
2. 단어유희
3. 반복되는 은유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애쓴다. 이사야서의 히브리 본문은 번역된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예술적이다. 그는 시의 대가였다. 사람들은 야웨께서 시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가 야웨의 메시지를 시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야웨의 모든 계시가 예술적인 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야의 문학적 기교로 보인다. 이사야에서 단어 선택의 많은 경우에 사전적인 의미보다 소리유희로 된 것이 훨씬 더 많다. 통상적인 단어보다 독특한 의미를 가진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해석가들을 더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 “희락의 성읍” 24:10 의 설명과 26 장의 서론에 있는 도표 라항을 보라. 하나님은 “나라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언약의 백성을 특별하게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역으로 인해 풍부함과 평화 대신 가시와 찢레가 나게 하셨다(참조, 5:6; 7:23-25; 9:18; 10:17; 27:4; 창 3:18).

32:14 이 절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묘사하는데(참조, 6:11; 64:10) 늘 이스라엘의 구원(참조, 1:8-9; 8:8; 29:1-8; 37:36-37)을 내다보는 이사야에게 이것은 유다른 일이다. 이사야는 야웨께서 예루살렘에 임재(즉, 성전)하시므로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단언하지만, 후에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야웨의 약속이 갖는 조건적 면(즉, 신 27-28 장)에 초점을 두어 이 신학적 문제를

다룬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인간의 합당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 언약은 양면적 모습을 갖는다!

어떻게 파괴를 묘사하는지 주목하라.

1.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즉, 다윗의 씨가 버린 바 됨)
2.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즉, 아브라함의 씨가 버린 바 됨)
3. NASB, “언덕”
NJB, “오벨”(BDB 779), 고대 예루살렘의 남동쪽 산등성이 지역(또는 전체 성읍에 대한 은유로서 “시온”과 비슷함). 이것은 대하 27:3; 33:14; 느 3:26-27; 11:21 에서 언급됨
4. 3 향은 “망대”와 평행됨; 둘 다 부서진 예루살렘의 요새를 나타낸다
5. 들나귀가 즐기는 곳
6. 양 떼의 초장, 5 향과 6 향 모두 적막하고 파괴된, 오직 동물만 사는(참조, 13:21; 34:13) 성읍을 나타낸다

평행을 이루는 두 동사가 있다.

1. 폐한 바 되며, BDB 643, KB 695, **푸알 완료형**, 푸알 형은 오직 여기만 있다
2. 적막하며, BDB 736, KB 806, **칼수동(푸알) 완료형**, 참조, 렘 49:25

▣

NASB	“동굴들”
NKJV	“소굴들”
NRSV	“굴들”
NJB	“저장소”

이 단어(BDB 792)는 “동굴”이라는 의미지만 문맥상 “동물의 굴”을 뜻한다. 이사야가 이 단어를 고른 이유는 이것의 소리가 다음의 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1. “무덤”(아라비아 어근), *아랄*(죽음과 파괴의 상황)
2. “~의 옷을 벗기다,” *아랄*, 11 절에서 사용된 드문 동사
3. “벌거 벗은 들,” *메아라* 아라비아 어근에서 음(NIDOTTE 제 2 권 1034 쪽)

▣ “영원히” 이것은 히브리 단어인 *올람*의 사용과 관계가 있다. 이 단어는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므로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만 한다.

특별주제: 올람(영원히)

히브리 용어인 *올람*(BDB 761, KB 798)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NIDOTTE 제 3 권 345 쪽). 이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보통 문맥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다음은 오직 몇 가지 예이다.

1. 고대의 것
 - ㄱ. 사람, 창 6:4; 삼상 27:8; 렘 5:15; 28:8
 - ㄴ. 장소, 사 58:12; 61:4
 - ㄷ. 하나님, 시 93:2; 잠 8:23; 사 63:16
 - ㄹ. 물건, 창 49:26; 욥 22:15; 시 24:7,9; 사 46:9
 - ㅁ. 시간, 신 32:7; 사 51:9; 63:9,11
2. 미래의 시간
 - ㄱ. 사람의 생명, 출 21:6; 신 15:17; 삼상 1:22; 27:12
 - ㄴ. 왕에 대한 과장, 왕상 1:31; 시 61:7; 느 2:3
 - ㄷ. 계속 존재하는 것
 - (1) 지구, 시 78:69; 104:5; 전 1:4

- (2) 하늘, 시 148:6
- ㄹ. 하나님의 존재하심
 - (1) 창 21:33
 - (2) 출 15:18
 - (3) 신 32:40
 - (4) 시 93:2
 - (5) 사 40:28
 - (6) 렘 10:10
 - (7) 단 12:7
- ㅍ. 언약
 - (1) 창 9:12,16; 17:7,13,19
 - (2) 출 31:16
 - (3) 레 24:8
 - (4) 민 18:19
 - (5) 삼하 23:5
 - (6) 시 105:10
 - (7) 사 24:5; 55:3; 61:8
 - (8) 렘 32:40; 50:5
- ㅂ. 다윗과 하신 특별한 약속
 - (1) 삼하 7:13,16,25,29; 22:51; 23:5
 - (2) 왕상 2:33,45; 9:5
 - (3) 대하 13:5
 - (4) 시 18:50; 89:4,28,36,37
 - (5) 사 9:7; 16:5; 37:35; 55:3
- ㅅ. 하나님의 메시아
 - (1) 시 45:2; 72:17; 89:35-36; 110:4
 - (2) 사 9:6
- ㅇ. 하나님의 법
 - (1) 출 29:28; 30:21
 - (2) 레 6:18,22; 7:34; 10:15; 24:9
 - (3) 민 18:8,11,19
 - (4) 시 119:89,160
 - (5) 사 59:21
- ㅈ. 하나님의 약속
 - (1) 삼하 7:13,16,25; 22:51
 - (2) 왕상 9:5
 - (3) 시 18:50
 - (4) 사 40:8
- ㅊ.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땅
 - (1) 창 13:15; 17:18; 48:4
 - (2) 출 32:13
 - (3) 대상 16:17
- ㅋ. 언약적 절기
 - (1) 출 12:14,17,24

- (2) 레 23:14,21,41
- (3) 민 10:8
- ㅅ.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
 - (1) 왕상 8:13
 - (2) 시 61:7-8; 77:8; 90:2; 103:17; 145:13
 - (3) 사 26:4; 45:17
 - (4) 단 9:24
- ㅇ. 시편이 말하는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할 것
 - (1) 감사하라, 시 30:12; 79:13
 - (2)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시 41:12; 61:4,7
 - (3)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라, 시 52:8
 - (4)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52:9
 - (5) 찬양하라, 시 61:7; 89:1
 - (6)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 시 75:9
 - (7)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시 86:12; 145:2
 - (8)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 145:1
- 3. 시간적으로 이전과 이후(“영원부터 영원까지”)
 - ㄱ. 시 41:13(하나님을 송축함)
 - ㄴ. 시 90:2(하나님 자신)
 - ㄷ. 시 103:17(여호와와 인자하심)

문맥이 이 용어가 갖는 의미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을 기억하라. 영원한 언약과 약속은 조건적이다(즉, 램 7 장). 이렇게 매우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시간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이나 당신의 신약적 조직 신학으로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대하려는 것을 주의하라. 신약은 구약의 약속을 보편화한다.

32:15-20 이 연은 예루살렘에 대한 새 날, 의의 날을 묘사한다.

1.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구약에서의 야웨와 성령의 관계를 똑같이 신약의 완전한 인격적 계시와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다. 성령은 종종 창조에 관련되신다(참조, 창 1:2; 욥 26:13; 시 104:29-30; 147:14-18). 새로운 창조에서도 함께하실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이 절에 신약의 특별주제인 “성령의 인격”을 포함시킨다.

특별주제: 성령의 인격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즉, *루아흐*)은 야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힘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인격이셨다(즉, 유일신주의)는 암시는 없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이 완전한 인격체이시며 위격이심을 기록한다:

1. 그는 신성모독을 받게 되실 수 있다(참조, 마 12:31; 마 3:29)
2. 그는 가르치신다(참조, 눅 12:12; 요 14:26)
3. 그는 증언하신다(참조, 요 15:26)
4. 그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참조, 요 16:7-15)
5. 그는 “~한 자”로 불려진다(즉, *호스*, 참조, 엡 1:14)
6. 그는 근심하실 수 있다(참조, 엡 4:30)
7. 그는 소멸되실 수 있다(참조, 살전 5:19)

삼위일체의 본문은 또한 세 인격(2:32-33의 특별주제:삼위일체를 보라)을 말씀하신다.

1. 마 28:19
2. 고후 13:14
3. 뱀전 1:2

성령은 인간의 활동에 관여하신다

1. 행 15:28
2. 롬 8:26
3. 고전 12:11
4. 엡 4:30

사도행전의 맨 앞부분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의 침례(세례)는 성령의 시작이 아니었고 새로운 장이었다. 누가는 효과적인 사역의 새로운 장을 위해 교회를 준비한다. 예수님이 중심인 동안 성령님은 효과적인 도구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은 목적이었다!

2.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5 절, 이것은 12-13 절과 정 반대이다. 같은 은유인 29:17의 기름진을 보라.
3. 정의가... 공의가... 거하리니, 16 절
4. 화평...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7 절. 이것은 침략이 없음을 의미한다(참조, 18 절).
5. 19 절은 앗시리아의 파괴를 의미한다.
6. 20 절은 또 다른 축복이지만 좀 모호하다.

32:15

NASB, NKJV

NIV

NRSV, JPSOA

TEV

NJB

REB

“성령을 우리에게 높은 곳에서 부으시기까지”

“높은 곳으로부터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까지”

“높은 곳으로부터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기까지”

이 히브리 본문에는 명사인 “영”(BDB 924)과 연결되는 관사, 대명사, 또는 설명적인 구(즉, 11:2에 있는 “여호와와”)나 44:3; 59:21; 율 2:28에 있는 “나의”와 같은)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가 이다.

1. 새 시대의 영
2. 성령
3. 하나님으로부터 온 회개와 신뢰의 영

문법적으로는 1항이나 3항이 맞지만 문맥상으로 2항이 적합하다.

이것은 문맥상 급격한 분기점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비슷한 구절은 사 44:3; 겔 39:29; 율 2:28-29; 슥 12:10; 행 2:1-21이다. 똑같은 동사가 메시아의 회생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 53:12에서 사용된다. 성령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일련의 일곱 가지 축복은: (1) 풍부 (2) 정의 (3) 공의 (4) 평화 (5) 고요 (6) 신임 (7) 안전한 거함이다.

■ “위에서부터” 이것은 야웨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인 하늘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율 16:19; 31:2; 사 33:5).

32:16 “정의 . . . 공의” 이것은 구약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짝이다(참조, 삼하 8:15; 왕상 10:9; 대상 18:14; 대하 9:8; 시 99:4; 사 9:7; 32:16; 33:5; 59:14; 렘 4:2; 9:24; 22:3,15; 23:5; 33:15; 겔 18:5,19,21,27; 33:14,16,19; 45:9; 암 5:7,24). 이것은 언약의 동반자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사회의 모습(참조, 17-18 절)을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말한다.

32:17 “평화”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평화(shalom)

이 히브리 용어(BDB 1022, KB 1532)는 셈족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가. 아카디아어
 - 1. 무사한 것
 - 2. 잘 있다
 - 3. 좋은 상태에 있는 것
- 나. 우가릿어(가나안어)
 - 1. 무사한 것
 - 2. 건강한
- 다. 아라비아어
 - 1. 건강하게 있는 것
 - 2.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
- 마. 아람어
 - 1. 완전하게 된 것
 - 2. 끝/완성에 이른 것
 - 3. 평화로 끝맺다
 - 4. 무사하게 머무르다
- 바. 히브리어의 함축적 의미
 - 1. 완성
 - 2. 건설
 - 3. 번영
 - 4. 평화

오늘날 **shalom**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의 첫 인사와 끝 인사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악의 부재와 선(즉, 만족한 삶)의 현존을 나타낸다. 이것은 안전과 만족에 대한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 **“평안과 안전”** 정의, 공의, 평화의 새 시대를 규정짓는 이 두 용어(BDB 1052 와 BDB 105)가 또한 30:15 에 나온다(참조, 1,16 절).

32:19 마치 잘 못 놓여진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이 절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앗시리아를 말하는 것 같다. “그 숲”이라는 표현이 앗시리아 대하여 10:18-19,33,34 에서 사용된다. “성읍”은 앗시리아에 대하여 24:10; 25:2,3; 26:5 에서 사용된다.

- ▣ NASB “우박이 내릴 것이다”
- NKJV “우박이라도”
- NRSV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 TEV “(그러나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 .)”

NJB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70 인역 “마치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폐취타 “우박이 내릴 것이다”
 REB “경사지에 추위가 있을 것이다”
 JPSOA “가라앉아 없어질 것이다”

고대 번역본들은 맛소라 본문의 *우바람*(알려지지 않은 형태)을 *바람*(BDB135, “우박,” 참조, 명사 28:2,17 에서)으로 본다.

REB 는 이것을 아라비아어로 “추워지다”(BDB 135)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NJB 와 JPSOA 는 맛소라 본문의 처음 두 단어를 같은 동사의 어근인 *야람*

1. 칼 완료형
2. 칼 부정사 연계형

에서 온 것으로 보아 전적으로 완전한 파괴(하락)를 나타낸다.

32:20 이 절 또한 문맥에 끼워 맞추기에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치점은 하나님의 축복의 날에 농작물 수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 없이 농작물이 풍성해져서 가축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먹을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 33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 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의 심판	깊은 고통의 기도	선지자적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	기대되는 구원
33:1-12 (1-12)	33:1-4 (1) (2-4) 33:5-9 (5-6) (7-9) 임박한 시온의 심판	33:1-24 (1) (2-6) (7-12)	33:1 33:2-4 33:5-6 33:7-9	33:1-16 (1-5) (2-4) (6) (7-16)
33:13-16 (13-16)	33:10-13 (10-13) 33:14-16 (14-16) 위엄있는 왕의 땅	(13-16)	33:10-13 33:14-16 영광스런 미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33:17-24 (17-24)	33:17-24 (17-19) (20-23a) (23b-24)	(17-22) (23a) (23b-24)	33:17-24	33:17-24 (17-20) (21-2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이 장은 단락의 구분이 모호하다(시의 구성상의 특징 때문에). 여러 다른 무리가 언급된다.

1. 앓시리아, 1 절
2. 언약의 백성, 2 절
3. 거리에서 부르짖는 용사, 7 절
4. 곡하는 평화의 사신, 7 절
5. 행인, 8 절
6. 민족들, 12 절
7. 너희 먼데 있는 자들, 13 절
8.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 13 절
9. 시온의 죄인들, 14 절
10. 공의롭게 행하는 자, 15 절
11. 그... 그의, 16 절
12. 네 마음, 18-20 절
13. 네 돛대 줄, 23 절
14. 거주민... 백성, 24 절

각각의 무리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를 일일이 다 식별하기는 어렵다.

나. 이 장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호칭과 성품이 언급되는지 주목하라.

1. 여호와, 2 절
2.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5, 10 절
3. 그는 평안함을 주신다(문자적으로 “성실하심”), 6 절
4.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6 절
5. 여호와를 경외함, 6 절
6. 왕을 그 아름다운데서, 17 절
7. 위엄중에 계신 분, 21 절
8. 여러 번의 “여호와는...,” 22 절

다. 사해사본에 있는 이사야서에서 39 장 이후가 아니라 이 장 끝에 두 줄의 간격을 둔 것으로 보아 이 장까지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라. 이 시의 순서/배열에 대한 “가능한” 개요

1.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앓시리아를 심판하시다, 1 절
2. 유다가 도움을 구하다, 2 절
3.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3-6, 10-12 절
4. 유다의 당면한 상황, 7-9 절
5. 면함을 입은 경건한 자들, 13-16 절

- 6. 앓시리아 시대의 반복, 17-20
- 7. 의로운 왕의 통치, 21-24 절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3:1-12

¹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²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³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⁴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들어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⁵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⁶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⁷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⁸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⁹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¹⁰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¹¹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짐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¹²민족들은 불에 굶는 횃들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33:1 “화 있을 진저” 28-33 장은 “화 있을 진저”라는 반복되는 용어의 사용 때문에 “과멸의 단위”라고 불리는 하나의 단위를 형성한다(참조, 28:1; 29:1,15; 30:1; 31:1; 33:1). 5:8 의 “화”의 설명을 보라.

▣ “학대하는 자” 3,4,7-9,11-12,17-19,23 절에서처럼 1 절은 앗시리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21 절은 심지어 이 성읍의 위치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에 있다고 말한다. 이 장은 이사야서의 일반적인 주제의 방식을 따른다.

1.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한 현재의 상태
2. 외국 열강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3. 외국(여기서는 앗시리아)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4. 의로운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질 미래의 영광스런 상태(참조, 32:1)

또한 “학대하다”(BDB 994, KB 1418, 2 회, **칼 능동 분사, 부정의 칼 수동 분사**)와 “속이다”(문자적으로 “불성실하게 행동하다,” BDB 93, KB 108, 2 회, **칼 능동 분사, 부정의 칼 완료형**) 두 단어는 모두 21:2 에서 구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말하는 데 사용된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사야서의 모호성은 의도적이다. 이사야는 그의 시가 예언의 다중적인 성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유다의 침략자들에 대한 식별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한다. 적들은 야웨의 손과 목적에 따라 오고 가지만 야웨 자신과 아브라함의 씨를 사용하시는 그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은 변함이 없으시다!

33:2 유다의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BDB 335, KB 334, **칼 미완료형**, 참조, 30:18,19
2.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BDB 875 I, KB 1082, **피엘 완료형**, 참조, 8:17; 25:9; 26:8; 40:31; 49:23; 51:5; 60:9
3. 아침마다 우리의 팔(문자적으로 “팔”이 되시며, BDB 224, KB 243, **칼 미완료형**)
4.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be” **동사**를 가정하여 사용함)

유다의 소망은 오직 야웨이다(참조, 59:16; 63:1,5). 앗시리아(동맹)나 이집트(동맹)가 아니라 오직 야웨이다. 사람들은 위기나 불분명한 시기에 무서워하고 신뢰를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들의 자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사용하려고 애쓴다!

▣ “힘” 이것은 문자적으로 “팔”(BDB 283)이다. 이것은 매일의 삶을 기초로한 하나님의 임재와 힘을 묘사하기 위한 성경적 신인동형론적 은유이다.

▣ “구원” 이 용어(BDB 447)는 육체적 구원을 위해 구약에서 사용된다(참조, 12:2[2 회], 3 절; 25:9; 26:1,18; 33:6).

특별주제: 구원(예수야)

이 용어(BDB 447)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복지, 번영, 욥 30:15
2. 육체적 영적 면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 ㄱ. 창 49:18
 - ㄴ. 신 32:15
 - ㄷ. 시 3:2,8; 22:1; 35:3; 62:2; 69:29; 70:5; 78:22; 80:3; 89:26; 91:16; 106:4; 140:7
 - ㄹ. 사 12:2; 33:2; 51:6,8; 52:7,10; 56:1; 59:11; 60:18; 62:1
3. 육체적 정신적인 구원의 개념은 온 2:9-10 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4. “기쁨”은 종종 야웨의 구원과 관계된다, 삼상 2:1; 사 25:9; 26:1; 시 9:14; 13:5; 35:9

구원은 야웨의 원래의 의도대로 그의 창조물인 인간과의 교제와 모임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개인적 사회적 온전성을 뜻한다!

33:4 이 절에 있는 “노략물”(BDB 1021)은 야웨의 적을 파괴하는 것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이 동사 “모으다”(BDB 62, KB 74, **뿔알 완료형**)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32:10 에서도 사용된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종말론적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 24:22 에서 또한 사용된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힘을 위해 “모으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모으신다. 신약은 마지막 때 모을 무리를 묘사하고 있다.

1. 구원받은 자, 마 13:48; 24:31
2. 악한 자, 마 13:40-41

▣ “메뚜기” 메뚜기의 공격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었다. 메뚜기는 종종 군대의 침략과 비교된다(참조, 신 28:38,42; 율 1:4; 2:25; 암 7:1-2).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듯이 군대도 통제하신다! 이 메뚜기의 떼는 부정수단으로 모은 앗시리아의 노략물을 모은다. 이 곤충의 (1) 다른 종 또는 (2) 성장단계가 다른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많은 샘족의 단어가 있다.

33:5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이 표현은 하늘에 대한 은유이다(참조, 32:15; 욥 16:19; 31:2).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을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생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만 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은유로서 “아래로”와 함께 신학적인 대조를 이룬다. 스올은 아래에 있었지만 하늘은 위에 있었다. 현대에 이 특별한 은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들은 고대의 은유로서 결코 글자 그대로를 전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다. 구약의 언어는 현상학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오감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언어를 의미했다. 성경은 반(anti)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 이전(pre)의 것이다! 고대의 은유를 문자적으로 취하는 것은 성경적 보수주의의 표시가 아니라 영감된 저자가 의도하는 원래의 역사적 배경을 놓치는 것이다.

▣ “정의와 공의” 32:16 의 설명을 보라.

33:6

NASB, NKJV

NRSV

“그는 네 시대의 안정이 있게 할 것이다”

NJB

“너는 네 모든 날에 이것을 의지할 수 있다”

폐쉬타

“믿음은 네 시대에 안정이 있게 할 것이다”

REB

“너의 변하지 않는 안정 속에 그의 힘이 있게 될 것이다”

야웨께서 “평안함”을 주신다” (문자적으로 “성실한”이다, BDB 53, 참조, 25:1). 유다의 소망과 안정은 그들의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이시다(참조, 신 32:4; 시 36:5; 89:1-2,5,24,33,49; 88:11; 92:2; 143:1). 이것은 2 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센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1. 부요함(BDB 340)
 - ㄱ. 구원의(BDB 447)
 - ㄴ. 지혜의(BDB 315 ㅅ에서 ㅎ으로 마지막 자음을 바꾸어, 참조, 11:2)
 - ㄷ. 지식의(BDB 395, 참조, 11:2)
2. 야웨를 경외(BDB 432, 경건한 두려움의 의미에서, 참조, 11:2; 잠 1:7,29; 2:5)함이 너의 보배(BDB 69, 가득찬 곳간의 의미에서, 참조, 대상 27:27-28; 대하 11:11)

33:7-9 이것은 교섭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은 임박한 포위의 슬픈 상태를 반영한다(참조, 왕하 18:13-16).

33:7 이 시의 두 행은 동의어적이 아니다. 성경 학자들은 히브리어의 모든 평행법을 세 개나 네 개의 틀에 맞추려고 시도한 로버트 로우쓰의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 학자들은 시적 평행법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둘째 행은 첫째 행에 “어떤 내용을 더하든지” 혹은 그것을 “뛰어 넘는다” (아델레 베를린, *역동적인 성경의 평행법: 개정되고 확장됨*, 64 쪽).

다른 두 무리가 언급된다.

1. 첫째 행 - 예루살렘의 군인들
2. 둘째 행 - 히스기야가 이집트에 보낸 평화의 사신들(참조, 8 절)

그들은 비슷한/평행되는 것을 행한다.

- “부르짖다,” BDB 858
- “곡하다,” BDB 113

평행법은 히브리 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되지만 그것이 많은 형식과 많은 문학 수준으로 사용됨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33:7 “용사” 이것은 아마도 *아리엘*(NJB, 참조, 29:1,2,7; 31:9)의 어근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33:8

NASB, NKJV,

페쉬타

“도시들”

NRSV, DSS

“맹세들”

NJB, RSV

“증인들”

REB

“조약들”

TEV

“협정들”

맛소라 본문은 “도시들”(아림, BDB 746)로 되어 있지만 평행법에 의거하여 “증인들”(예담, BDB 729)이 더 적당하다. 이것은 또 다른 “ר”-“ד”의 혼동일 것이다. UBS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는 “증인”에 C 등급(심각하게 의심됨)을 준다.

33:9 이 절은 주전 701 년에 있었던 앗시리아의 예루살렘 포위와 결부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농경적 은유를 사용한다. 이러한 형태의 농경적 은유는 이사야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참조, 16:8; 24:4,7). 야웨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날씨를 통제하신다(참조, 신 27-28 장). 고대 근동에서와 같이 성경에서는 “자연적인”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에 구분이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에 친밀하게 관계하신다. 신학적 잣대를 갖고 성경을 대하게 하는 당신의 현대적 과학적 관점을 조심하라.

33:10-12 이것은 1 절처럼 앗시리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33:11-12 “겨”와 “불”의 비유적 묘사는 이사야서에서 일반적이다(참조, 1:7; 5:24; 9:18-19; 10:16-19; 26:11; 29:6; 30:27-28; 33:11-14; 47:14, 또한 율 2:35). 1:31 의 특별주제: 불을 보라.

이사야가 인간의 생식과 관계된 비유적 묘사를 사용한다.

1. 이곳, 잉태하다, BDB 247 I, KB 255, *칼 미완료형*, 8:3; 26:18; 59:4,13
2. 헤산하다, 9:5; 13:8; 21:3; 23:4; 26:17,18; 39:7; 51:18; 54:1; 59:4; 66:7,9

▣ “너희(나)의 호흡” 이것은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심판의 호흡에 대한 신인동형론적 은유로서 사용된 *루아흐*(BDB 924)라는 용어이다(6: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심판(참조, 11:4; 30:28; 40:7)에 여호와 자신이 참여(참조, 출 15:18; 삼하 22:16; 시 18:15)하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은유이다.

개역개정 33:13-16

¹³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15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3:13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문맥상 이것은 앗시리아에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과 아직 유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단 9:7). 그러나 새 시대의 확장된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 백성을 의미할 것이다(참조, 49:1; 이것은 모든 이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참조, 렘 25:26).

33: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 속에 신실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섞여있는 현실을 다시 인정한다. 죄인들은

1. 두려워한다, BDB 808, KB 922, **칼 완료형**, 참조, **명사** - 2:10,19,21; 24:17,18; **동사** - 12:2; 19:16,17; 44:8,11; 51:13
2.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BDB 28, KB 31, **칼 완료형**, 참조, 13:8; 21:3

“경건하지 않은”(BDB 338) 자들은 32:6 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며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참조, 9:17; 10:6)로서 묘사된다.

▣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연결된 불의 은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한다(참조, 신 4:24; 5:24; 사 30:27,30).

“계속되는”(문자적으로 “영원히”)이라는 32: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33:15 이것은 야웨의 백성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1. 공의롭게 행하는 자
2. 정직히 말하는 자
3.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4.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악한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즉, 피 흘리려는)
6.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33:16 15 절에서 묘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1. 높은 곳에 거하리니
2.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3.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4.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새 시대의 사람을 묘사한다. 신명기의 이상이 현실화된다!

개역개정 33:17-24

17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18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19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20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1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22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23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24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33:17 “네 눈은 . . . 보며” 이 동사(BDB 302, KB 301)는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참조, 26:11; 33:17,20; 48:6; 욥 23:8-9; 시 46:8; 63:2). 인간은 두 영역을 갖도록 창조되었다.

1. 육체적 영역(즉, 네페쉬, 지구)
2. 영적 영역(즉, 루아흐, 하나님과의 교제)

창세기 3 장의 타락은 두 영역을 다 붕괴시켰다!

▣ “왕과 그의 아름다움” 이것은 의도적인 모호함을 나타낸다.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와 7:14 에서 말한 오실 메시아를 문맥이 모두 내포하도록 한 32:1 과 같다.

33:18-20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다음의 포위를 위해 앗시리아의 정찰병이 예루살렘을 정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33:19 “방언이 어려워” 이것은 앗시리아의 언어를 의미한다(참조, 28:11).

33:20 이것은 예루살렘이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신학이다(참조, 사 36-37 장). “성읍”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위해 24:10의 설명과 26 장 서론에 있는 도표의 라향을 보라. 이 예언은 문맥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예언을 주셨기 때문이다.

“장막”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출애굽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에 뒤진 암시이다. 이것은 역시 옮길 수 있는 장막으로서 세워진 성막을 의미할 것이다. 같은 암시(즉, 장막)가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기 위해 54:2에 사용된다.

33:21 “강들과 큰 배들”에 대한 은유는 이집트와 맺은 그들의 동맹에 대한 언어유희로 보인다(참조, 23 절). 이집트가 아닌 야웨(위엄있는 분)가 그들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다(참조, 22 절).

33:22 예루살렘(참조, 20 절)은 야웨의 의로운 대리자(다윗계보의 메시아)의 출현으로 다시 위대한 왕(야웨 자신)의 도시가 된다.

33:23 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앗시리아의 멸망
2. 예루살렘에 능력을 줌
3. 또는 1항과 2항 모두

17 절의 “네 눈”과 “그들은 보겠고”는 둘 다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전례들이다. 18 절은 앗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포위하기 위해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절은 침략자인 앗시리아가 말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를 암시할 것이다. 반면 20 절에서는 혼돈에 처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장면이 바뀐다. 그러므로 21 절과 22 절은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 있고 24 절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23 절의 “재물”(BDB 1021)을 주전 612년에 발생한 니느웨 자체의 약탈이 아닌 주전 701년에 앗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포기하고 두고간 물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본다.

33:24 야웨가 치료자로서 묘사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병든 자(참조, 1:5-6)로 묘사한 1 장을 암시한다. 병은 “죄”와 “반역”에 대한 은유이다(참조, 시 41:4; 103:3; 사 53:5). 신약은 병이 죄와 관련된다는 유대인의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한다(참조, 요 5:14; 약 5:14-15).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육체의 구원을 나타낸다(33:2의 특별주제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32장과 33장은 28:31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32장과 33장이 메시아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것인가?
3. 32:15-18에서 묘사한 성령의 축복을 나열해 보라.
4. 33:7-9의 역사적 상황을 말해 보라.

이사야 34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열국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무서운 결말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을 벌하실 것이다	에돔에 대한 선고
34:1-15 (1-15)	34:1-4 (1-4)	34:1-17 (1-4)	34:1-4	34:1-17 (1-4)
	34:5-7 (5-7)	(5-7)	34:5-8	(5-8)
	34:8-15 (8-12)	(8-17)		
	(13-15)		34:9-15	(9-11) (12-17)
34:16-17 (16a-17)	34:16-17 (16-17)		34:16-17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이사야 34 장과 35 장은 24-27 장과 매우 비슷하다. 이 장들은 모두 매우 긴 문학적 단위에 대한 결론인 심판과 축복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이사야 34 장은 회화적 용어로 우주적인 심판을 말한다.
2. 이사야 35 장은 아름답고 이상적인 용어로 우주적인 회복을 말한다.

나. 사해사본에 있는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33 장과 34 장 사이에 두 줄의 간격이 있으므로 이 문학적 단락(34-35 장과 38-39 장)이 40-66 장(문학적 배경에서는)과 함께 묶어서 다루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은 가능하다. 35 장은 새 시대의 회복의 날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창세기 3 장의 타락과 아브라함 자손의 불순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것을 이것이 묘사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4:1-15

- ¹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 ²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 당하게 하셨은즉
- ³ 그 살륙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 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 ⁵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 ⁶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 ⁷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 ⁸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 ⁹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 ¹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 ¹¹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인즉
¹²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¹³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뽕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¹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¹⁵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34:1 이 절에는 여러 명령이 있다.

1. 나아와, BDB 897 I, KB 1132, **칼 명령**
2. 귀를 기울일지어다, BDB 904, KB 1151, **히필 명령**
3. 들을지어다, BDB 1033, KB 1570, **칼 지시형**

세계의 주권자는 그의 창조물에게 심판을 알리고 있다.

1. “열국이여,” BDB 156, 참조, 2 절; 43:9
2. 민족들이여, BDB 522, 참조 17:12; 43:9
3. 땅, BDB 75, 참조, 37:16, 20; 창 18:18; 22:18; 미 1:2
4. 땅에 충만한 것, BDB 571, 참조, 6:3
5. 세계, BDB 385, 참조, 13:11; 24:4
6.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BDB 481 과 BDB 425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사야 시대에 알려진 세계를 의미하지만 우주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34:2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시며” “진멸하시다”(BDB 355 I, KB 353, **히필 완료형**)가 의미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가리킨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개념을 여리고와 관련하여 “온전히 바치되”(즉, 여호와께 바쳐진 파괴, 참조, 수 6:17,18[3 회]; 7:1[2 회], 13[2 회], 15)로 표현한다.

34:3 이 절은 생생한 전쟁의 비유로써 2 절의 생각을 확대한다.

1. 그 살륙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BDB 1020, KB 1527, **호팔 미완료형**
2.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문자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BDB 748, KB 828, **칼 미완료형**, 참조, 암 4:10
3.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문자적으로 “용해되다”), BDB 587, KB 606, **니팔 완료형**

이것은 죽은 시체가 장기간에 걸쳐 남아있는 전쟁터의 모습을 반영한다. 고대 근동에서 합당하게 장사되지 않는 것은 혐오스럽고 치욕적이며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멸망을 나타낸다.

34:4 해와 달의 자연적 순환과 관계되어 사용된 이 과장법은 성경의 계속되는 주제이다.

1. 이사야 13:13; 34:4; 51:6
2. 에스겔 32:7,8
3. 요엘 2:31
4. 마태복음 24:29
5. 베드로후서 3:10
6. 계시록 6:12-14; 20:11

“하늘의 만상”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별에 대한 신격화(해, 달, 별, 행성, 혜성 등)는 보통 바벨론과 관계되었다.
2. 천사적 군대(참조, 24:21-22; 수 5:14-15, 70 인역의 신 32:8 에 기초하며 단 10 장에서 설명한)

문맥상 이것은 하늘에 있는 빛의 대상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창조주의 접근에 영향을 받고 또한 혼란 속으로 던져진다! 종종 신으로 보여지는 이와 같은 물리적 대상들은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다!

▣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계 6:14 에서 이 비유적 표현을 요한이 사용한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을 (1) 둥근 그릇 같은 지구를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껍질(참조, 사 40:22) 또는 (2) 펼쳐진 장막(참조, 시 104:2)처럼 생각했다. 옛 것은 새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참조, 계 21:1).



NASB, NRSV “시들다”
NKJV, TEV “떨어지다”

이 동사(BDB 615, KB 663)는 이 절에 세 번 나온다.

1. 칼미완료형
2. 칼부정사 연계형
3. 칼능동 분사

이것은 또한 24-27 장의 평행적 문학적 단위 안에서 나타나다(참조, 24:4[2 회]). 농업 또한 창조주께서 오심으로 흔들린다! 창조주/심판의 접근에 의해 하늘과 땅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 역시 사람의 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참조, 창 3:17-19; 롬 8:19-22).

34:5 “에돔 위에 내리며” 사 25:10-12 에서 모압을 특별히 지적한 것처럼 이 문학 단위에서 심판을 위해 에돔이 특별히 발탁된다. 여기에서 에돔(일찌기 모압과 같이)은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교만한 열국의 상징이다.

34:6-7 이 절들은 야웨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희생(참조, BDB 830, f 항, 참조, 렘 50:27; 51:40; 겔 39:17-20)의 은유를 사용한다.

1. 어린 양과 염소의 피, 6 절
2. 숫양의 콩팥 기름, 6 절
3. 수소, 7 절

가축만 아니라 들소(BDB 910) 또한 희생에 사용하고 있다.

야웨의 칼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신 32:41-42 과 겔 21:28-32 에서도 볼 수 있다.



NASB “기름에 넉더리 나도록 물리다”
NKJV “기름기가 넘쳐 흐르게 하다”
NRSV, REB
70 인역 “기름이 목둘레에 차다”
NJB “기름으로 기름지다”

이 동사(BDB 206, KB 234, **호트파엘 완료형**)는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드문 형태이다(참조, 신 24:2 는 같은 동사형이지만 다른 단어이다). 이것은 “야웨의 칼이 그 자체를 기름으로 묻는다”라는 재귀적 개념을 나타낸다. 같은 동사의 **푸알미완료형**이 7 절에서 발견된다, “기름으로 윤택하라.” 둘 다 죽임을 당한 희생제물(적의 군대의 죽음에 대한 은유)의 거대한 수를 말한다. 동물의 아랫 부분에 있는 장기조직의 기름은 제단에 드러지는 부분이었다.

34:8 현대의 해석가로서 우리는 반드시 히브리 시의 본질을 기억해야만 한다

1. 단축된 형태임
2. 소리유회를 사용함
3. 평행법을 사용함

서양 사람들은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진 논리적 문자주의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시 문학이다. G. B. 케어드의 책 *성경의 언어와 비유적 표현*에서 5 장 “히브리 관용어구와 히브리인의 생각”(107-117 쪽)을 보라. 이것은 또한 창 1-2 장에 대한 정확한 상태이기도 하다. 존 L. 왈튼의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계*를 보라.

이 절은 첫째 행의 “날”과 둘째 행의 “해”가 평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역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과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닥칠 것에 대한 인식이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34:9 “역청... 유황... 불 붙는 역청” 이것들(BDB 278, 172, 278/128)은 창 19:24 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에 대한 암시이다. 또한 렘 49:17-18 에 있는 중요한 평행을 보라. 소돔과 고모라는 에돔의 북쪽지역에 있었다(즉, 사해 바다의 남쪽 끝).

34:10 이것은 과장법적 표현으로서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지속될 완전한 파괴를 나타낸다(참조, 1:31; 13:20; 66:24).

“영원히”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용어를 사용한다.

1. 둘째 행, *올랏*(BDB 761, 32:14 절의 특별주제를 보라)
2. 네째 행, *네차*(BDB 664, 참조, 삼하 2:26; 사 13:20; 25:8; 28:28; 33:20; 57:16)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 오를 것이며”란 구절은 계 14:11 과 19:3 에 사용된다. 이것은 (1) 25:10-12 에서의 “모압” (2) 이 곳의 문맥상 에돔 (3)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는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모든 사회 조직과 그 역할을 나타내는 “바벨론”으로 볼 수 있다.

“영원히”의 성경적 사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위해 D. 브렌트 샌디의 *보습의 날과 가지치는 낮*의 98-101 쪽을 보라.

34:11-15 이 절들에 언급된 많은 동물(대부분 새들)이 있다. 레 11 장에 따르면 그것들 모두가 부정하다. 같은 부정한 짐승들이 바벨론 도시의 황폐 속에서 보여진다(참조, 13:19-22). 이것에 대한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은: (1) 이런 황폐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파괴된 타락한 인간의 노력에 대한 상징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그곳에 짐승들은 살았다 또는 (2) 이 도시들은 귀신에 의해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참조, 마 12:43). NEB 역처럼 현대 번역가들은 이 동물들이 귀신을 의미할 것이라는 분명한 고고학적 증거를 보인다(참조, 특별히 14 절).

1. NASB “털 많은 염소”
- NKJV “들 염소”
- NRSV “염소-귀신들”
- TEV “귀신들”
- NJB “색마(바커스를 섬기는 반인반수의 숲의 신)”
- REB “숫염소들”

이 용어(BDB 972 III)는 다음을 가리킨다

- ㄱ. 우상들(참조, 대하 11:15)

- ㄴ. 귀신들(참조, 레 17:7)
- ㄷ. 들 짐승들(참조, 사 13:21)
- 2. NASB, TEV “밤의 괴물”
- NKJV “밤의 피조물”
- NRSV, NJB “릴리쓰(황야에 살면서 어린이를 습격하는 여자 귀신)”
- REB “쑥독새”

이 용어(BDB 535)는 후기의 유대교에서 밤에 유혹하는 여자의 이름이 되었다. 이 용어의 기원과 개념은 아카디아 신비주의(KB 528)의 밤의 세 귀신이었을 것이다. 페쉬타는 이것을 “부영이의 일종”으로 본다. 밤과 밤에 나는 모든 “자연의 소리”는 고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다.

특별주제: 귀신(부정한 영)

- 가. 고대인들은 정령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연의 힘, 동물, 자연물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생명은 사람과 이런 영적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되었다.
- 나. 이와 같은 의인화는 다신교(많은 신들)로 나타났다. 보통 귀신(*켄날*)은 개별적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좀 더 낮은 신 또는 반신반인(중거나 악한)이었다.
 - 1. 메소포타미아, 혼돈과 투쟁
 - 2. 이집트, 질서와 기능
 - 3. 가나안, W. F. 알브라이트의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다섯 번째 개정판), 67-92 쪽을 보라.
- 다. 구약은 강한 유일신사상으로 인해 낮은 신, 천사, 또는 귀신의 주제를 다루거나 이를 발전시키지 않는다(참조, 출 8:10; 9:14; 15:11; 신 4:35,39; 6:4; 33:26; 시 35:10; 71:19; 86:6; 사 46:9; 렘 10:6-7; 미 7:18). 구약은 이방 민족의 거짓 신을 언급하고 그것들의 몇몇 이름을 말한다.
 - 1. *세임*(색마[바커스를 섬기는 반인반수의 숲의 신] 또는 털 많은 귀신, 참조, 레 17: 7; 대하 11:15)
 - 2. *릴리쓰*(여성, 부추기는 귀신, 참조, 사 34:14)
 - 3. *마베트*(지하의 가나안 신에게 사용한 죽음이라는 히브리 용어, *모트*, 참조, 사 28:15,18; 렘 9:21; 그리고 아마도 신 28:22)
 - 4. *레웨프*(재앙, 참조, 신 33:29; 시 78:48; 합 3:9)
 - 5. *테버*(전염병, 참조, 시 91:5-6; 합 3:5)
 - 6. *아사셀*(불확실한 이름이지만 아마도 사막 귀신이거나 장소 이름, 참조, 레 16:8,10,26)(이 예들은 *쥬다이카 백과사전* 제 5 권의 1523 쪽에서 취한 것이다.) 어쨌든 구약에는 이원론주의나 야웨께로부터 독립된 천사는 없다. 사탄은 야웨의 중(참조, 욥 1-3 장; 숙 3 장)이지 적이 아니다(참조, A. B. 데이빗슨, *구약신학*, 300-306 쪽).
- 라.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기간(주전 586-538) 동안 발전되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인격화된 이원주의(*마즈다* 또는 *올마즈드*라고 불린 좋고 높은 신과 *아리만*이라고 불린 악한 적수의 신)를 신봉하던 페르시아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가 야웨와 그의 천사, 사탄과 그의 천사 또는 악마 사이의 인격화시킨 이원주의를 수용하게 했다.

인격화시킨 악에 대한 유대교의 신학은 알프레드 에더웨임의 *메시아 예수의 일생과 시간*(제 2 권, 부록 XIII[749-863 쪽]과 XVI[770-776 쪽])에서 설명되었고 잘 기록되어 있다. 유대교는 악을 세 가지로 인격화시킨다.

 - 1. 사탄이나 삼마엘
 - 2.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의도(*에트저 하라*)
 - 3. 죽음의 천사

에더샤임은 이것을 (1) 고소자 (2) 유혹자 (3) 처벌자라고 특징짓는다(제 2 권 756 쪽).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와 신약의 악에 대한 제시와 설명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 마. 신약(특별히 복음서)은 사람에게와 야웨께 대한 악한 영적 존재의 실재와 방해를 주장한다(유대교에서 사탄은 인간의 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왕국을 반대한다.

예수님은 이런 악마적 존재와 마주 대하시고 내쫓으셨으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1) 더러운 영(참조, 눅 4:36; 6:18) 또는 (2) 악한 영(참조, 눅 7:21; 8:2)을 불러내셨다. 예수님은 병든 것(육체적 그리고 정신적)과 귀신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셨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인식하시고 내쫓으시는 것을 통해 그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셨다. 악한 영은 종종 예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께 말하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을 거부하시고 그들이 조용히 할 것을 명령하셨으며 그들을 내쫓으셨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는 표이다.

신약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는 놀라우리 만큼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적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은사 목록에 전혀 없고 또한 사역자나 믿는 자들의 장래 세대를 위해 주어진 방법론이나 절차도 아니다.

- 바. 악은 실재한다; 악은 인격체이다; 악은 현존한다. 이것의 기원이나 목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성경은 악의 실재를 단언하고 그것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실제로 궁극적인 이원론은 없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장하신다; 악은 패배하였고 심판받았으며 피조물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 사.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대적해야만 한다(참조, 약 4:7). 악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치할 수는 없지만(참조, 요일 5:18) 그들은 악에게 유혹받을 수 있고 그들의 증거나 영향력은 악에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참조, 엡 6:10-18). 악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드러난 한 부분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재 정의할 권리가 없다(루돌프 발트만의 비신화화); 악을 비인격화(폴 틸리히의 사회적 구조)하거나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완전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말라(시그먼트 프로이드). 이것의 영향력이 퍼져 있지만 이것은 실패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34:11 “혼란”(BDB 1062, 참조, 24:10)과 “공허”(BDB 96)라고 번역된 용어를 창 1:2 에서 지구의 최초의 혼돈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다. 에돔(즉, 모든 반역한 민족들)은 최초의 헛됨과 혼돈처럼 몰락할 것이다(즉, 13:9-11; 렘 4:23-26).

개역개정 34:16-17

- ¹⁶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 ¹⁷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1 절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이 절 이전에는 명령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1 절(두 명령형)에서 그들에게 나아와 들으라는 야웨의 부르심은 이 장을 마무리하는 두 명령형과 조화를 이룬다(통상적인 셈족 문학의 기교임).

1. 보라, BDB 205, KB 233, **칼 명령**
2. 읽으라, BDB 894, KB 1128, **칼 명령**

민족들이 창 2 장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폐기해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땅을 주셨다!

(여호와의) 책(BDB 706)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심판의 두루마리로써 본다(참조, 29:11,12; 30:8).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비유로서 단 7:10; 12:1 과 계 20:4-15 에서 언급된 두 책을 암시한다고 본다.

1. “생명의 책”
 - ㄱ. 출 32:32
 - ㄴ. 시 69:28
 - ㄷ. 사 4:3
 - ㄹ. 단 7:10; 12:1
 - ㅁ. 눅 10:20
 - ㅂ. 빌 4:3
 - ㅅ. 히 12:23
 - ㅇ. 계 3:5; 13:8; 17:8; 20:12,15; 21:27
2. 행실/기억의 책
 - ㄱ. 시 56:8; 139:16
 - ㄴ. 사 65:6
 - ㄷ. 단 7:10
 - ㄹ. 말 3:16
 - ㅁ. 계 20:12-13

▣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두 가지 은유가 있다. 첫 번째 것이 군사적인 은유인 반면 두 번째의 것은 가정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참조, 24:3; 25:8; 55:10-11).

▣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1:2; 32:15-20 의 설명과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은 11-15 절에 기록된 동물/귀신을 모으신다.

34:17 이것은 수 12-19 장에서 제비뽑기(즉, 우림과 둠뎀)로 땅을 나눈 것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언약이 갱신되고 불변함을 단언하는 고대의 표현이다!

이사야 35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시온의 행복한 미래 35:1-10 (1-10)	시온의 미래의 영광 35:1-7 (1-2) (3-4) (5-7) 35:8-10 (8-10)	회복된 시온 35:1-10 (1-2) (3-4) (5-7) (8-10)	거룩한 길 35:1-10 (1-2) (3-4) (5-7) (8-10)	예루살렘의 승리 35:1-10 (1-7) (8-10)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34 장의 내용과 분명히 반대된다.
- 나. 문제는 이것을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말했느냐이다.
 1. 이것은 종말적인 의미(즉, 믿는 신실한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약속의 땅이 농경적으로 탁월함을 의미하는가?
 2. 이것은 앗시리아에 잡혀갔던 포로가 팔레스타인(즉, 이스라엘)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의미하는가?
 3. 이것은 고레스의 칙령(즉, 유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돌아 오를 의미하는가?
 4. 하나님의 백성이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 오도록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사막이 멋진 도로로 바뀌고 있는 것을 이것이 의미하는가?

개역개정 35:1-10

- ¹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 ²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 ³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 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값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 ⁵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 ⁶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 ⁷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 ⁸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 ⁹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 ¹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5:1 “광야” 이 단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목초지(BDB 184, 참조, 율 1:19-20)를 말한다.

▣ “메마른 땅” 이 단어(BDB 851)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참조, 41:18; 53:2; 율 2:20)을 의미한다. “광야”가 “메마른 땅”과 연결되고 “사막”과 평행을 이루는 것을 주목하라.

▣ “사막” 이 단어(BDB 787)는 사해 남쪽에 있는 요단강 지구대를 의미한다(참조, 33:9).

▣ “피어 즐거워하며” 1 절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동사 역시 식물에 대한 의인화로 평행을 이룬다.

1. 기뻐하며, BDB 965, KB 1314, 칼 미완료형(아마도 지시형의 의미), 이 동사는 61-66 장에서 여덟 번 사용되었다
2. 즐거워하며, BDB 162, KB 189, 칼 지시형, 참조, 2 절; 25:9; 이 동사는 61-66 장에서 네 번 사용되었다, 참조, 율 2:21,23

두 번째 동사 “피어”(BDB 897, KB 965, 칼 미완료형)는 식물이 어떻게 기뻐하는지(즉, 의인화)를 나타낸다. 이사야는 종종 자연물에 대한 의인화를 사용한다(참조, 33:9; 44:23; 55:12, 참조, NASB 연구성경, 1004 쪽). 에덴동산의 상태(창 1-2 장)은 회복된다; 새 시대가 왔다!

51:11 에서 10 절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회복된 새 시대의 표시이다(참조, 7:21-25; 27:6; 32:15; 41:8-19; 55:12-13).

▣

NASB, NRSV,

페쉬타

“크로커스”

NKJV, JPSOA

“장미”

NJB, REB

“수선화”

JB

“노랑 수선화”

70 인역

“백합”

성경에 나오는 식물이나 동물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TEV “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랍비들은 이것(BDB 287)이 장미를 가리킨다고 하는 반면 루터와 칼빈은 이것이 백합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누구의 추측이든 추측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한 좋은 자료는 “번역을 위한 도움”의 시리즈인 *성경의 동물과 식물*(UBS)가 있다.

35:2 “레바논 ... 갈멜과 사론” 이 세 지역은 초목이 무성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무성하게 피어”라는 구절은 강조를 위해(여기서는 무성하게 자람을 말하기 위해) 같은 어근(BDB 827, KB 965)의 칼 부정사 절대형과 칼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한다.

▣ “그것들이 ... 보리로다” 이것은 식물에 대한 계속되는 의인화로 보인다.

35:3-6 이 절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언급한다.

1. 약한 손(문자적으로 “약한 손들”)
2. 떨리는 무릎(문자적으로 “약한 무릎”)
3. 겁내는 자들(문자적으로 “서두르는 자들”)
4. 맹인(BDB 734)
5. 못 듣는 사람(BDB 361)
6. 저는 자(BDB 820)
7. 말 못하는 자(BDB 48)

이것은 또한 회복의 새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실 일을 묘사한다.

1. 1 항에 대하여 “강하게 하며”(BDB 304, KB 302, *피엘 명령*)
2. 2 항에 대하여 “굳게 하며”(BDB 54, KB 65, *피엘 명령*)
3. 3 항에 대하여
ㄱ. 굳세어라, BDB 304, KB 302, *칼 명령*

ㄴ. 두려워하지 말라, 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이지만 **지시형**의 의미

- 4. 4 항에 대하여 “눈이 밝을 것이며,” BDB 824, KB 959, **니팔 미완료형**
- 5. 5 항에 대하여 “귀가 열릴 것이며,” 4 항과 같은 **동사**
- 6. 6 항에 대하여 “사슴같이 떨 것이며,” BDB 194, KB 222, **피엘 미완료형**
- 7. 7 항에 대하여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BDB 943, KB 1247, **칼 미완료형**

이것은 침례(세례)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께서 그에게 보낸 메시지이다(참조, 마 11:4-5; 눅 7:20-22). 새 시대는 예수님의 사역에 반영된다!

35:4 야웨께서 언약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의 약속을 주목하라.

- 1.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BDB 668, 참조, 34:8; 59:17; 61:2; 63:4; 신 32:25; 렘 50:28
- 2. 갓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BDB 168, 참조, 59:18(2 회); 66:6, 또한 65:6의 설명을 보라.
- 3. 너희를 구하시리라, BDB 446, KB 448, **히팔 지시형**, 참조, 25:9; 33:22; 38:20; 45:17; 49:25; 59:1; 63:1,5,9; 64:5

35:6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1,2 절의 자연의 만발함으로 되돌아 간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축복에 대한 외부적 표시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자연의 놀라운 모습 속에 나타난다(참조, 7 절).

35:7 “승냥이의 눕던 곳에” 페쉬타와 KJV 는 이 단어(BDB 1072)를 “용들”로 번역했다. 우리는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물들이 종종 주변국가들의 우상을 의미하는 것임을 사해사본을 통해서 발견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1)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이거나 또는 (2) 귀신들의 거주지를 의미할 것이다(참조, 34:11-15).

이 행에 대한 문학적 전제는 승냥이가 사는 건조한 굴이 이제 늪지대의 풀이 자랄 수 있을 만큼 물로 가득차다는 것이다.

▣	
NASB	“그것이 쉬는 장소”
NKJV	“각각 눕는 곳”
NRSV	“늪”
REB	“그들의 굴들”

맞소라 본문은 **립싸 rbth**, BDB 918, “그것의 쉬는 장소,”라고 되어 있다. NRSV 는 그것을 **립싸 lbth**, 로 바꾼다(NIDOTTE 제 1 권 692-693 쪽). 이사야의 사해사본은 “그가 누워있다”로 되어 있다.

▣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충분한 성장을 보이기 위해 풀들이 갈대와 부들만큼 높이 자랄 것이다.

35:8 “**거룩한 길**” 이것은 이사야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참조, 26:7; 40:3-4; 42:13). 왕의 방문에 대한 똑같은 은유가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침례(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 4:5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물리적 도로에 대한 준비를 나타내는 은유이지만 회개를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35:9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나쁜 동물이 없을 것이고 길들여진 동물로 바뀌어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이다(참조, 사 11:6-9). 이것은 또한 레 26:22의 위협과 반대된다.

▣ “**속량함을 받은 자**” 이 용어는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연결지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출 13:13,15). 여기에서 주된 개념은 정해진 값을 지불함으로써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9 절의 “구속받은”(BDB 145 I, KB 169, **칼수동 분사**)과 10 절의 “속량받은”(BDB 804, KB 911, **칼수동 분사**)과의 관계는 40:13 에서 반복된다. 29: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35:10 “돌아오되” 이 동사(BDB 996, KB 1427, **칼미완료형**)는 “되돌아가게 하다”(즉, 회개나 방향을 바꾸다)를 의미한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그리고 8 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즉, 그러므로 40-66 장과 연결된다). 이사야의 시가 언제나 연대순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이것은 생활양식으로서의 “회개”를 나타낼 수 있다(즉, 거룩한 길의 도).

▣ “**시온**” 비록 성전이 지리학적으로 시온 산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특수성으로 시온은 나중에 예루살렘 전체 도시(일곱 개의 언덕 위에 지어진)의 명칭이 되었다.

▣ 돌아오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특성지워진다

1.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
2. 노래하며 이룬
3.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오는
4. 머리에 먼류관을 쓴
 - ㄱ. 기쁨
 - ㄴ. 즐거움
5. 슬픔이 사라진
6. 탄식이 사라진

▣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영한”이라는 용어는 **올람**(BDB 761)이다. 32: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 25:8 과 계 21:4 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와 같은 종류의 기쁨과 육체적 축복이 수반된 것처럼 결코 보이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 “구속받은”과 “속량받은”이라는 용어의 중요성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
3.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일에 왜 자연이 사용되었나?

이사야 36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다	산헤립이 여호와를 대항하여 자랑하다.	산헤립의 공격	앗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산헤립의 침략
36:1-3	36:1-3	36:1-3	36:1-6	36:1-10
36:4-10	36:4-10	36:4-10	36:7-10	
36:11-12	36:11-12	36:11-12	36:11 36:12	36:11-12
36:13-20	36:13-20	36:13-20	36:13-20	36:13-20
36:21-22	36:21-22	36:21-22	36:21-22	36:21-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배경 연구(36-39)

가. 이 장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일생과 관계된 1-39 장(앗시리아 시대)과 미래의 사건을 다루는 부분인 이사야서의 40-66 장(바벨론 시대와 종말)을 역사적 문학적으로 서로 잇는 전환점(또는 부록, 유대인 연구 성경 853 쪽)을 형성한다. 비슷한 역사적인 추가기록이 렘 52 장에 있고 왕하 24:18-25:30 에서 반복된다.

나. 이사야서에서 이 부분(38:9-20 을 제외함)은 왕하 18:13-20:19 과 평행을 이룬다; 또한 대하 32 장을 주목하라.

- 다. 이 부분은 앗시리아에 대한 강조(36 장과 37 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강조(38 장과 39 장)로 일관되게 전환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인다.
- 라. 앗시리아의 산헤립이 굴복하라는 요구와 위협을 히스기야가 거부한 것과 왕하 18:14-16 에서 조공을 바치는 히스기야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약간의 이견이 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조공을 드리다가 나중에 그것을 거부했을 가능성의 여부가 있다. 정확히 말해 이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한 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다.
- 마. 이 장 및 이 장과 평행을 이루는 내용은 다른 구약의 본문에서보다 “신뢰”(BDB 105, KB 120)의 사용에 좀 더 중점을 둔다.
1. 이사야 36:4,5,6(2 회),7,9,15
 2. 열왕기하 18:19,20,21(2 회),22,24,30; 19:10
 3. 역대하 32:10
- 언약에 있어서 “신뢰”(בטח)와 “믿음”(אמן, 2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은 개인적 관계의 적합한 역할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대하다. 이것은 순종보다 더 중요하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6:1-3

¹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²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발 큰 길에 서매 ³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썩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36:1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본문상 잘못된 “십사”라는 단어는 유대 왕들의 통치 연대와 이 연대와 관계가 있는 세속 역사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왕하 18:1 에서 히스기야는 주전 729 년에서 715 년까지 그의 아버지의 섭정왕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히스기야왕 이십 사년”으로 읽어야만 한다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참조, 글리슨 L. 아처의 *성경의 어려움에 대한 백과사전*, 207,211 쪽; E. J. 영, *이사야서*, 540-542 쪽; *강해성경주석*, 제 6 권 234 쪽; J. A. 모티어, *틴텔 구약주석*, 제 18 권 222 쪽).

이 책의 부록 4 의 3 항에 있는 도표에 히스기야의 통치에 관한 세 가지 다른 목록이 있다.

1. 존 브라이트 - 주전 715-687 년
2. E. J. 영 - 주전 727-699 년
3. R. K. 해리슨
 - ㄱ. 공동 통치 - 729-716/15 년
 - ㄴ. 통치 - 716/15-687/86 년

위의 세 학자들이 매우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다양성이 나타남을 주목하라. 통치와 공동 통치의 연대를 고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학자들이 바로 이 시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바라기는 고고학으로부터의 새로운 정보가 나와 이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우리는 앗시리아의 문서를 통해 산헤립(주전 705-681 년까지 통치)이 46 개의 성읍을 정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산헤립의 통치에 대한 앗시리아 기록과 주전 701 년에 유다를 침략한 이 본문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36:2 “앗수르 왕이 ... 랍사게를 ... 보내되”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BDB 913).

1. 고유의 이름(NASB, NKJV)
2. “관리의 장”
3. “군대장관” (폐쉬타, NIV)
4. “통치자” 또는 “참모총장”(NKJV 각주)
5. 술 맡은 관원장(NJB)

어쨌든 그는 앓시리아 군대의 높은 고관(JPSOA 각주)이었다(참조, 왕하 18:17).

NIDOTTE(제 3 권 1029 쪽)는 앓시리아의 여러 호칭을 열거한다.

1. 다르단 - 최고 사령관, 참조, 왕하 18:17
2. 랍사리스 - 수석 책임자, 참조, 왕하 18:17
3. 랍사게 - 군대장관, 참조, 왕하 18:17
4. 랍기스리 - 군대의 장
5. 랍헨스 - 오십부장
6. 랍사크 - 왕의 술 맡은 관원장
7. 아카디아어
 - ㄱ. 다르단 - 참조, 위의 1 항
 - ㄴ. 랍사레시 - 환관장 또는 군대의 장관
 - ㄷ. 랍사게 - 참조, 위의 3 항
 - ㄹ. 랍사크 - 위의 6 항
8. 아람어 - rb swq - 행군의 장

▣ “라기스” 이곳은 앓시리아 군대에 의해 점령된 해안 평야의 성읍 중 하나였다. 이곳은 세펠라 지역에 위치하며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약 45 km 지점에 있다.

▣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발 큰 길에 서매” 이것은 7:3 에서 앓시리아를 신뢰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난 장소와 동일하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반응(믿음, 참조, 37:14-20,30) 대 아하스의 반응(불신)을 지리학적 장소에 고의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6:3 “엘리아김 ... 셉나 ... 요아” 사 22:15 과 22:20-24 을 비교해보면 이들 중 두명의 직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가 이집트의 평행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행정 체계에서 다른 계급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 엘리아김
 - ㄱ. NASB, NKJV, “왕실을 돌보는 자”
 - ㄴ. NRSV, TEV, JPSOA, “궁전을 책임지는 자”
 - ㄷ. REB, “왕실의 감사관”
 - ㄹ. NJB, “궁전의 지배자”
2. 셉나
 - ㄱ. NASB, NKJV, JPSOA, “서기관”
 - ㄴ. NRSV, NJB, “비서관”
 - ㄷ. REB, “고급 부관”
 - ㄹ. TEV, “법정 비서관”
3. 요아
 - ㄱ. BASB, NKJV, NRSV, TEV, JPSOA, “기록관”
 - ㄴ. REB, “국가의 비서관”
 - ㄷ. NJB, “왕의 사자”

개역개정 36:4-10

⁴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나 ⁵내가 말하노니 네가 족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⁶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찢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⁷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⁸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이천 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⁹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¹⁰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36:4 산헤립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졌다(참조, 11-12 절)!

이 절은 “말하다”(BDB 55, KB 65)라는 동사를 세 번 사용한다.

1. 칼미완료형
2. 칼명령
3. 칼완료형

▣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나” 이것은 36 장과 37 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진술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히브리 단어 “신뢰하다”(BDB 105, KB 120, 칼 완료형, 참조, 12:2; 26:3,4; 31:1; 32:9-11; 36:4,5,6[2 회],7,9,15; 37:10) 또는 “네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질문과 관련된 단어유희이기 때문이다. 앗시리아의 논리는 수많은 다른 민족의 신들을 그들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을 기초로한다. 이러한 심리학적 공격 방식은 야웨의 능력과 그를 신뢰하는 백성을 비난하기 위해 야웨를 위한 히스기야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36:4,5,7,10,14,18; 37:4,6,10,17,20 특별히 23,29 절). 이것은 마치 단 3 장과 매우 비슷한 장을 마련한다. 즉, 야웨께서 하나님인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 야웨께서 의도적으로 앗시리아의 신들을 마주 대하신다(참조, 37:20; 45:6; 대하 32:7-8).

이 질문은 이 문학적 단위의 신학적인 목적을 이룬다!

36:5

NASB, NJB	“빈 말들”
NKJV	“헛된 말들”
NRSV	“단지 말들에 지나지 않는”
70 인역	“입술의 말들”

70 인역은 맛소라 본문(BDB 182 와 BDB 973)의 문자적인 번역을 제시한다. 이것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잠 14:23).

▣ “나를 반역하느냐” 이것은 히스기야가 처음에 앗시리아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추었지만(참조, 왕하 18:7) 산헤립이 침략했을 때 분명히 그것을 다시 시작했고(참조, 왕하 18:14:16) 그 다음에 조공바치는 것을 두 번째로 거부한 사실을 의미한다.

36:6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분명히 앗시리아는 이집트와의 군사동맹을 고안한 히스기야의 나쁜 발상에 대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사야는 일찌기 이 동맹을 비난했었다(참조, 30:1-5; 31:1-3).

36:7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이것은 야웨에 대한 히스기야의 관계를 비난하기 위한 시도이다(참조, 왕하 18:5). 이 주장의 목적은 지역에 있는 산당을 제하였기 때문에 야웨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이다(참조, 왕하 18:7). 그러나 이것은 앗시리아의 오해였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신명기의 명령대로 야웨가 택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앙화를 정확하게 실행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신 12:2-5). 산당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장소가 되었다(참조, 왕하 18:4).

36:8 “이제 청하노니 내 주 . . . 과(와) 내기하라” 이 동사(BDB 786, KB 876)는 정치적 서약의 제안을 나타내는 *히트파엘 명령형*이다(참조, 왕하 18:23; 욥 17:3; 시 119:112).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야웨와의 서약을 버리고 앗시리아를 신뢰하라”(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내포한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유다가 이미 이집트의 신들이 역시 결부된 이집트와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 시도했던 것을 기억하라(참조, 6,9 절)! 유다의 유일신주의는 시험받고 있었다!

▣ “내가 네게 말 이친 필을 주어도” 이것은 유다 군대의 약함을 비웃는 진술이다. 이것은 이렇게 이른 시기에 유다나 앗시리아에 기병대가 존재했었을까에 대한 역사적 의심들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주석가들은 비록 언어적으로는 분명히 기병대를 가리키지만 이것은 전차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36:9
 NASB, TEV “관리”
 NKJV, NRSV “지휘관”
 NJB “군인들”
 REB, 페쉬타 “종들”
 70 인역 “장관”

이 용어(BDB 808, 참조, 왕하 18:24; NIDOTTE 제 3 권 603 쪽)는 최근에 패배를 당한 유다 성읍에 임명된 장관을 의미할 것이다. 이런 지역을 통치하는 각각의 관리는 작은 군사적 분대를 가졌다. 분명히 라기스는 이 앗시리아 행정관의 본부가 되었다.

그러므로 랍사게는 예루살렘이 앗시리아 군대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은 각 지역의 지방 민병대로부터도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고 있다.

36:10 “내가 이제 올라와서 . . . 여호와와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 절은 (1) 앗시리아인들이 유다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2)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다라는 앗시리아인들의 진술이다! 10:5-7 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앗시리아를 선택하신 예언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37:26 과 관계된 반쪽 진리라고 믿는다.

이 절은 스스로 대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1. “물어보지 않았다,” 문자적으로 “~와 떨어져”(BDB 116)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분명히 앗시리아(즉, 산헤립)는 야웨의 뜻과 야웨의 백성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

개역개정 36:11-12

¹¹이에 엘리야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¹²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36:11 “아람 방언... 유다 방언” 아람 방언(BDB 74)은 고대 근동의 외교적 언어였고 “유다 방언”은 “히브리어”(BDB 397, 참조, 왕하 18:26,28; 대하 32:18)라고 번역되어야만 한다. 이 절의 목적은 히스기야의 관리들이 앗시리아 대표단에게 그들의 위협을 성읍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언어로 말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36:12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시키는 포위와 관련된 문제점들(즉, 음식과 물의 부족, 참조, 왕하 18:27)에 대한 위협이었다. 비록 히스기야는 야웨를 신뢰했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개역개정 36:13-20

¹³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¹⁴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¹⁵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¹⁶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¹⁷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¹⁸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¹⁹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²⁰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36:13-16 랍사게를 통하여 전달된 산헤립의 메시지 안에 여러 명령형과 지시형이 사용되었다 (위협과 약속).

1. 들으라, 13 절 - BDB 1033, KB 1570, **칼 명령**
2.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14 절 - BDB 674, KB 728,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부정의 **히필 미완료형**, 참조, 37:10; 창 3:13 에 같은 동사가 사용된다!
3.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15 절 - BDB 105, KB 120,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히필 미완료형**
4.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16 절 - BDB 1033, KB 1570,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
5.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16 절 - BDB 793, KB 889, **칼 명령**
6. 내게로 나아오라, 16 절 - BDB 422, KB 425, **칼 명령**
7. 떡다, 16 절 - BDB 37, KB 46, **칼 명령**
8. 마시다, 16 절 - BDB 1059, KB 1667, **칼 명령**

36:17 보호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읍으로 도망왔던 지방의 주민들에게 산헤립의 두 가지 약속이 직접적으로 적용됨을 주목하라. 그는 그들을 그들 자신의 땅에 머물게 할 것이라 했지만 17 절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오직 잠깐 동안이다. 그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줄 지라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들이 이 시간에 항복하더라도 여전히 유다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 어쨌든 앗시리아는 노인과 젊은 사람을 한 장소에서 죽였다!

36:18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기에 신학적인 도전이 있다. 괴로운 시련이 던져졌지만 야웨께서 그것을 집어 올려 치우실 것이다!

“건지다”(BDB 664, KB 717)라는 동사는 이 세 절(18-20 절)에서 다섯 번 사용된다. 처음과 마지막은 *히필 미완료형*이고 다른 세 번은 *히필 완료형*이다.

36:19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

1. 하맛은 시리아 중심부에 있는 성읍으로서 그 왕은 앗시리아를 배반하는데 참여하였고 주전 720 년에 사르곤에 의해 진압당하자 주민들은 사마리아로 강제 이송 당했다(참조, 왕하 17:24).
2. 아르밧은 시리아 북쪽의 성읍으로서 그 왕은 앗시리아를 배반하는데 참여하였고 주전 720 년 티글랏-필레셀 III 세에 의해 진압당했다.

이 성읍들이 섬기던 신들의 정확한 이름은 확실하지 않다.

▣ “스발와임의 신들” 이것은 바벨론 북쪽에 있었던 성읍일 것이다. 이곳은 사르곤 II 세가 포로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키기 위해 보내던 장소였다(참조, 왕하 17:24).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사마리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점령된 이스라엘의 수도, 주전 722 년).

왕하 17:31 에서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렸던 다산의 신들이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신의 이름은 산헤립을 살해했던 산헤립의 한 아들의 이름이다(참조, 37:38). 그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 신들을 유다의 하나님과 구별하여 기록한 것은 흥미롭다. 그들은 둘 다 야웨를 예배했지만, 분명한 것은 북쪽에서의 우상숭배가 너무 나빴거나 아니면 앗시리아의 정보가 매우 불충분해서 그들은 그들 양쪽이 야웨를 예배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참조, 왕하 17:5,6,24).

개역개정 36:21-22

²¹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²² 그 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말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36:22 “자기의 옷을 찢고” 15:2-3 의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을 보라.

이사야 37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도움을 구하다 37:1-4 37:5-7	이사야가 구원을 확신하다 37:1-7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다 37:1-4 37:5-7	왕이 이사야의 조언을 요청하다 37:1-4 37:5-7	선지자 이사야에게 묻다 37:1-4 37:5-7
37:8-13	산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기도 37:8-13	37:8-13	앗시리아가 다른 위협을 보내다 37:8-13	술 말은 관원이 그의 주인에게 돌아오다 37:8-9a 산헤립의 활동에 대한 두 번째 설명 37:9b-13
성전에서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 37:14-20	37:14-20	37:14-20	37:14-20	37:14-20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대답하시다 37:21-29 (22b-29)	산헤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37:21-29 (22b) (23-25) (26-27) (28-29)	37:21-29 (22b) (23-25) (26-27) (28-29)	왕에게 보낸 이사야의 메시지 37:21-25 37:26-27 37:28-29	이사야가 개입하다 37:21-29 (22b-25) (26-29) 히스기야를 위한 표
37:30-32	37:30-32 (30b-32)	37:30-32	37:30-32	37:30-32
37:33-35	37:33-35 (33b-35)	37:33-35	37:33-35	37:33-35 (33b-35)
앗시리아가 파괴되다 37:36-37	산헤립의 멸망과 죽음 37:36-38	37:36-38	37:36-37	산헤립이 처벌받다 37:36 37:37-38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1-7 절은 36 장에 나오는 앓시리아인들의 메시지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다.
- 나. 1-7 절과 14-20 절이 두 가지의 분리된 반응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하다. 문맥적으로 볼 때 8-9 절 후에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고 14-20 절에서 히스기야는 이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해 첫 번째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아마도 1-7 절에서 히스기야는 야웨와 이집트를 신뢰했지만 9 절 이후에 그는 오직 야웨만 신뢰했다(참조, 14-20,30 절).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7:1-4

¹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²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쉿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³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⁴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앓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37:1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이것은 슬픔의 표시이다. 15: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여호와의 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 그가 성전의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위치는 확실치 않다.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신성한 건물에 접근하였다. 하지만 가능한 한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절기 때 예식을 볼 수 있도록 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가 있었다.

37:2 “엘리아김 ... 쉿나” 36:3,22 의 설명을 보라.

37:3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다(참조, 왕하 19:3).

1. NASB, NRSV, “곤란의 날”(BDB 865 I)
NKJV, “불편의 날”
NJB, “고통의 날”
70 인역, “괴로움의 날”
2. NASB, NKJV, NRSV, “비난의 날”(BDB 407)
NJB, “처벌의 날”
70 인역, “책망의 날”
3. NASB, “거절의 날”(BDB 611)

NKJV, “신성 모독의 날”
NRSV, NJB, “치욕의 날”
70 인역, “비난의 날”

- 4. 70 인역, 페쉬타, “노여움의 날”
- 5.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 구절은 모두 앗시리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한다. 히스기야는 언약을 불순종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앗시리아는 진짜 문제가 아니었고 언약 백성의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야웨의 도구일 뿐이었다.

37:4 히스기야는 앗시리아가 오만한 과시(참조, 36:15,18,20)에서 행한 신성모독을 야웨께서 들으셨고(즉, “책망하다,” BDB 357, KB 355, *피엘 부정사 연계형*, 참조, 17,23, 24 절) 야웨께서 그의 이름(즉, *겔* 36:22-23)을 방어하실 것이라고 바라고 있다.

▣ “남아 있는 자” 이 용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1:9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37:5-7

⁵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⁶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⁷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37:6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야웨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주목하라(참조, 21 절)!

▣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진술(BDB 431, KB 432,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미완료형*)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메시지이다(참조, 7:4; 8:12; 10:24; 35:4; 40:9; 41:10,13,14; 43:1,5; 44:2; 51:7; 54:4; 창 15:1; 21:17; 26:24; 46:3; 출 20:20; 민 14:9; 신 1:21,29; 3:2,22; 7:18; 20:1,3; 31:6,8; 수 8:1; 10:8,25; 11:6; 수 6:23 등).

37:7

NASB, NJB,

70 인역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NKJV

“내가 영을 그의 위에 보내리니”

NRSV

“내 자신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TEV

“여호와께서 그 왕이 듣도록 할 것이니”

REB

“내가 그의 사기를 약화되도록 할 것이니”

페쉬타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낼 것이니”

맛소라 본문에는 문맥적으로 과멸이나 불길한 징조의 내적 느낌 또는 감정을 가리키는 *루아흐*(BDB 924)로 되어있다. 앗시리아의 “위대한 왕”(참조, 36:4)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 통제된다!

▣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것은 히스기야가 도움을 얻기 위해 야웨께 돌아왔기 때문에(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 행하시는 야웨의 반응이다. 그는 앗시리아 군대를 혼동시키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참조, 37 절). 어떤 사람들은 9 절이 이 소문의 성취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문맥상 소문의 성취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문이 그를 앗시리아로 돌려보내 그가 이집트와의 전투를 하지 않게 했다.

▣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인 38 절을 보라.

개역개정 37:8-13

⁸앗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립나를 치고 있더라 ⁹그 때에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¹⁰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¹¹앗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¹²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¹³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37:9-11 이것은 36:13-20 의 내용을 반복한다.

37:9 “구스 왕 디르하가” 이 절은 몇 가지 역사적 문제와 결부된다. 디르하가는 바로의 동생이었다. 당시에 사바카의 조카인 쉘레타쿠가 이집트 바로(즉, 제 25 누비안 왕조)로서 주전 696-690 년까지 통치했다. 디르하가는 후에 바로가 되어 주전 690-664 년까지 통치했다. 그는 또한 구스 왕으로 알려져 있었다(참조, 왕하 19:9). 그러나 이것은 군사적 칭호이거나 혹은 연대의 오기일 것이다 (나중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내용을 그 보다 앞선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문서로 읽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디르하가는 단지 바로가 군대와 함께 보낸 사자를 의미한다.

37:12-13 이 절들에는 앗시리아가 이전에 정복했던 여러 지리적 장소가 있다.

1. 고산 - 왕하 17:6; 18:11; 대상 5:26 에서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강(즉, 지역)이라고 불린다. 티글랏-필레셀 III 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지역에서 사람들을 추방했고 그 후에는 사르곤 II 세가 북쪽 10 지파에서 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추방했다.
2. 하란 - 이것은 앗시리아에 있었던 성읍(참조, 창 12:4; 24:4)으로서 반역했고 주전 763 년 앗수르-단 III 세에 의해 멸망되었다.
3. 레셉 - 이것은 앗시리아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읍으로서 살만에살 III 세에 의해 정복당했다(주전 858-824 년). 이것은 여러 번에 걸쳐 정복당했지만 최소한의 정보만 있다.
4. 들라살 - 이것은 티글랏-필레셀 III 세에 의해 정복당했던 에덴의 성읍이거나 왕국이다. 이것은 엘람의 국경에 가까웠다.
5. 하맛 - 이것은 이스라엘 변경에 있는 시리아의 도시이다. 이곳의 주민들 중 약간은 이스라엘로 추방당했다.
6. 아르밧 - 이것은 시리아 북쪽에 있는 성읍으로서 지방의 수도이거나 작은 왕국(비트-아구시)인의 수도였다. 이것은 주전 740 년 티글랏-필레셀 III 세에 의해 멸망당했다.
7. 라일 - 이것은 바벨론 북쪽의 성읍으로 이것의 철자는 “성읍”(BDB 746, 이르, NJB, NET 성경)과 비슷하다.
8. 스발와임 - 36:19 의 설명을 보라
9. 헤나 - 이것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위쪽에 있는 도시일 것이다(참조, ABD, 제 3 권, 137 쪽).
10. 이와 - 이것의 위치는 모른다. 어떤 학자들은 지역의 신 이름과 함께 이것을 8 항과 9 항에 연관시킨다.

이러한 특정한 성읍(히스기야가 알았음이 틀림없거나 또는 산헤립이 앗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길에 정복했던)을 언급하는 목적은 아무도 앗시리아 군대를 대적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개역개정 37:14-20

¹⁴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 놓고 ¹⁵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¹⁶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¹⁷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¹⁸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¹⁹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²⁰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37:14 이것은 분명히 직접적이고도 상세한 역사적 기록이다. 이것은 매우 생생하며 명확하다. 독자들은 히스기야가 야웨께로 나아가 성전의 어디에선가(참조, 왕상 8:33) 야웨께서 읽으실 수 있도록 앗시리아의 메시지를 펴놓고 있는 모습을 마음 속에 그릴 수 있다. 4 절에서 앗시리아 왕이 보낸 메시지를 랍사게 읽을 때 야웨께서 들으셨다고 히스기야는 언급한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들의 오만과 신성모독적인 기질을 야웨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한다!

37:16 히스기야가 야웨를 특징짓는 호칭과 방법을 주목하라.

1. 만군의 여호와
2. 이스라엘의 하나님(엘로힘), 참조, 수 7:13,19,20
3. 그룹사이에 계신, 참조, 출 25:22; 삼상 4:4; 삼하 6:2; 왕하 19:15; 대상 13:6; 시 80:1; 99:1
4. 주는... 하나님(엘로힘)이시라, 참조, 신 10:17
5. 유일하신, 이 용어(BDB 94)는 여기에서 유일신사상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야웨의 선택을 나타낸다
6.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42:5; 45:18; 창 1:1

1:1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37:17 정중한 요구로서 사용된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오는 일련의 명령이 있다.

1.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BDB 639, KB 692, *히필 명령*, 참조, 단 9:18
2. 들으시옵소서, BDB 1033, KB 1570, *칼 명령*
3. 여호와여 눈을 뜨고, BDB 824, KB 959, *칼 명령*, 참조, 단 9:18
4. 보시옵소서, BDB 906, KB 1157, *칼 명령*
5. 들으시옵소서, 2 항과 같음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오만하고 신성모독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반응해 주시기를 간청하기 위해 신인동형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왕상 8:29,52; 대하 6:39-40; 7:15에서 같은 동사들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사용된다.

▣ “살아계시는” 이 절은 매우 신인동형론적(6:1의 특별주제를 보라)인 표현으로 마치 야웨가 인간인 것처럼 그가 인간의 몸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구약은 영원하시고 언제나 현존하시는 영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 “살아계시는”이라는 용어는 출 3:14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야웨의 이름에 대한 유희이다.

37:18 산헤립의 주장에서 분명히 사실적인 부분이 있었다.

37:19 18 절의 사실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언급된 성읍의 신들은 우상이지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반응할 수도 없다(즉, 17 절). 그러나 야웨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셨고, 하실 것이다!

37:20 이 절은 두 동사를 가지고 있다.

1. 구원하다, BDB 446, KB 448, *히필 명령*, 참조, 25:9; 33:22; 35:4. 이것은 40-66 장에서 14 번 사용된다.
2. 알다, BDB 393, KB 390,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 19:21의 특별주제: 알다를 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절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의미했다(참조, 출 19:5-6).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참조, 창 12:3)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를 다루시는 것이었다(참조, 45:8,22). 1:3의 특별주제를 보라.

▣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분명히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독특함에 대한 확언이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참조, 43:11; 45:5,18,21-22). 이것은 유일신주의에 대한 신학적 확언이다!

“여호와이신 줄”의 표현은 맛소라 본문에는 없지만 사해사본과 70 인역에 있으며 왕하 19:19과 평행을 이룬다.

개역개정 37:21-29

²¹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앗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²²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²³네가 궤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나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²⁴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궤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²⁵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²⁶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27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 같이, 푸른 나물 같이,
 지붕의 풀 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28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29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7:21-24 이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한 야웨의 반응이고 또한 야웨의 목적을 넘어(참조, 10:5) 오만하고 신성모독을 한 앗시리아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이다.

1. 22 절, 그녀가 멸시하며(BDB 100, KB 114, 칼 완료형) 조소하였고(BDB 541, KB 532, 칼 완료형) 유다를 향하여 그녀의 머리를 흔들었느니라(BDB 631, KB 681, 히필 완료형), 여기서 부르기를
 - ㄱ. 처녀 딸 시온
 - ㄴ. 딸 예루살렘
 페쉬타, TEV, REB 는 이 절을 퇴각하는 산헤립을 향한 유다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유다에 대한 앗시리아의 오만함에 여호와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질문은 “그녀”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이다. 산헤립은 22a 에서 “그”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 ㄱ. 앗시리아
 - ㄴ. 유다
2. 23 절, 그녀가 유다의 하나님(즉,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공격했다
 - ㄱ. 휘방하며, BDB 357, KB 355, 피엘 완료형
 - ㄴ. 능욕한, BDB 154, KB 180, 피엘 완료형
 - ㄷ. 네가 소리를 높이며, BDB 926, KB 1202, 히필 완료형
 - ㄹ.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BDB 669, KB 724, 칼 미완료형, 참조, 10:12
3. 24 절, 그녀의 행동을 찬미하다
 - ㄱ.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 ㄴ.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이사야는 나무에 대해 많은 암시를 사용했다)
 - ㄷ.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24 절은 14:13 절에 언급된 바벨론 왕(나는 므로닥발라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참조 39:1)의 오만함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서의 표현은 역시 가나안 신비적 신들의 산인 북쪽 산을 의미할 것이다, 14:13-14 의 설명을 보라.

37:21 “네가 . . .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히스기야는 야웨를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다른 점이다. 이것은 중보기도의 신학적 중요성을 나타낸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기도한대로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활동을 제한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주제: 중보기도

I. 서론

- 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 1. 개인 기도, 막 1:35; 눅 3:21; 6:12; 9:29; 22:29-46
 - 2. 성전청결, 마 21:13; 막 11:17; 눅 19:46
 - 3. 주기도문, 마 6:5-13; 눅 11:2-4
- 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인격과 돌보심에 우리의 믿음을 명백하게 두는 행동이다.
- 다.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영역에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제한하고 계신다(참조, 약 4:2).
- 라. 기도의 주된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및 그 분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 마. 기도의 범위는 신자와 관계된 어떤 일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단 한번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생각이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거듭해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다.
- 바. 기도는 여러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 1.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
 - 2. 하나님의 임재, 교제, 공급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림
 - 3. 과거와 현재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
 - 4.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나 원하는 것을 간구함
 - 5.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의 필요에 대해 성부 앞에 중보함
- 사. 중보기도는 신비하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종종 우리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변화, 응답, 혹은 필요에 영향을 미친다.

II. 성경적 자료

- 가. 구약
 - 1. 중보기도의 몇 가지 예
 - ㄱ.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함, 창 18:22 이하
 - ㄴ.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
 - (1) 출애굽기 5:22-23
 - (2) 출애굽기 32:31 이하
 - (3) 신명기 5:5
 - (4) 신명기 9:18, 25 이하
 - ㄷ.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함
 - (1) 사무엘상 7:5-6, 8-9
 - (2) 사무엘상 12:16-23
 - (3) 사무엘상 15:11
 - ㄹ. 다윗이 자기 아기를 위해 기도함, 사무엘하 12:16-18
 - 2.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 이사야 59:16
 - 3. 알고 있으면서 자백하지 않은 죄나 혹은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 ㄱ. 시편 66:18
 - ㄴ. 잠언 28:9
 - ㄷ. 이사야 59:1-2; 64:7

나. 신약

1. 성부와 성령의 중보기도 사역

ㄱ. 예수님

- (1) 로마서 8:34
- (2) 히브리서 7:25
- (3) 요한일서 2:1

ㄴ. 성령님, 로마서 8:26-27

2. 바울의 중보기도 사역

ㄱ. 유대인을 위한 기도

- (1) 로마서 9:1 이하
- (2) 로마서 10:1

ㄴ. 교회들을 위한 기도

- (1) 로마서 1:9
- (2) 에베소서 1:16
- (3) 빌립보서 1:3-4, 9
- (4) 골로새서 1:3, 9
- (5) 데살로니가전서 1:2-3
- (6) 데살로니가후서 1:11
- (7) 디모데후서 1:3
- (8) 빌레몬서 4 절

ㄷ.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함

- (1) 로마서 15:30
- (2) 고린도후서 1:11
- (3) 에베소서 6:19
- (4) 골로새서 4:3
- (5) 데살로니가전서 5:25
- (6) 데살로니가후서 3:1

2.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

ㄱ. 서로를 위한 기도

- (1) 에베소서 6:18
- (2) 디모데전서 2:1
- (3) 야고보서 5:16

ㄴ. 특별한 그룹을 위한 기도

- (1) 우리의 원수들, 마태복음 5:44
- (2) 크리스천 사역자들, 히브리서 13:18
- (3) 다스리는 자, 디모데전서 2:2
- (4) 병자, 약 5:13-16
- (5) 신앙적으로 타락한 자, 요한일서 5:16

ㄷ.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1

III.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가. 그리스도와 성령께 대한 우리의 관계

- 1. 그 안에 거함, 요한복음 15:7
- 2. 그의 이름으로, 요 14:13, 14; 15:16; 16:23-24

- 3.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18; 유다서 20 절
- 4.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태복음 6:10; 요한일서 3:22; 5:14-15

나. 동기

- 1. 흔들리지 않음, 마태복음 21:22; 야고보서 1:6-7
- 2. 겸손함과 회개, 누가복음 18:9-14
- 3. 잘못 구함, 야고보서 4:3
- 4. 이기적임, 야고보서 4:2-3

다. 다른 측면

- 1. 인내
 - ㄱ. 눅 18:1-8
 - ㄴ. 골로새서 4:2
 - ㄷ. 야고보서 5:16
- 2. 계속 구함
 - ㄱ. 마태복음 7:7-8
 - ㄴ. 누가복음 11:5-13
 - ㄷ. 야고보서 1:5
- 3. 가정에서의 불화, 베드로전서 3:7
- 4. 알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 ㄱ. 시편 66:18
 - ㄴ. 잠언 28:9
 - ㄷ. 이사야 59:1-2
 - ㄹ. 이사야 64:7

IV. 신학적 결론

- 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 얼마나 중대한 의무요 책임인가!
- 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성부는 간절히 기다리신다.
- 다.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친구들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37:22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동사(BDB 631, KB 681, *히*필 완료형)는 경멸의 표시로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왕하 19:21; 욥 16:4; 시 22:7; 109:25; 애 2:15; 마 27:39; 막 15:29).

37:25-29 이 시점에서 초점이 앗시리아의 성취(비록 25 절은 산헤립의 오만한 주장을 의미할 수 있지만 26 절은 아니다)에서 야웨의 성취로 바뀐다

- 1. 25 절, 물에 대한 야웨의 통제(즉, 생명, 참조, 11:15; 44:27)
- 2. 26-27 절, 앗시리아를 사용하여 야웨의 백성을 처벌하시려는 야웨의 고대 계획. 27 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치와 패배를 의미한다.
- 3. 28 절, 야웨의 미리아심(시 139 편과 매우 비슷하다)
- 4. 29 절, 야웨를 대항하는 오만함의 결과
 - ㄱ. 내가 같고리로 네 코를 꿰며
 - ㄴ. 재갈을 네 입에 물려
 - ㄷ.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참조, 37:37)

37:26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것은 앗시리아(10:5; 렘 18:11) 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었음을 나타낸다(참조, 14:24,26; 22:11; 25:1; 46:10-11). 역사는 우연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 궤도 안에서 마지막 시간의 직면과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태초부터”(BDB 935)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오래 전에, 여기서
2. 미래에, 참조, 삼하 7:19; 대상 17:17

37:28 “네가 나를 거슬러” 이 동사(BDB 919, KB 1182, *히트파엘 부정사 연계형*)는 29 절에서 반복된다. 개인적인 요소를 주목하라!

*히궤형*에서의 이 동사는 자주 두려움과 떨림(참조, 14:16; 23:11) 또는 종말적 사건(참조, 13:13)으로 사용된다. 겔 16:43 에서 이것은 야웨 자신에 대해 사용된다.

37:29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이것은 정확히 앗시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다. 앗시리아는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행한 잔인함을 자랑함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앗시리아는 정복당한 사람들의 코, 입, 혀를 갈고리를 사용하여 서로 묶은 다음 그들을 포로로써 행진하게 했다(참조, 왕하 19:28).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한대로 행하실 것이다.

개역개정 37:30-32

³⁰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³¹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³²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37:30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즉, 8:8c,10c) 메시아적 상징(즉, 7:14-16)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그리고 38:7 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징조(BDB 16)를 보여주실 것이다(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는 7:14 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특별한 징조는 유다 땅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삼년 간의 약속과 관계가 있다. 30:33-35 과 36-38 절을 구분해야만 되는 것처럼 37:30-32 을 구분된 단락으로 보아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야웨께서 삼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즉, 신명기 27-28 장의 언약적 약속) 사용하신 일련의 명령형이 30 절에 있다.

1. 먹어라 - BDB 37, KB 46, *칼 부정사 절대형*. 이 형태는 이 절에서 반복(*케뵤*)되지만 맛소라본문의 학자들은 이 절에 있는 다른 명령형과 조화되는 *칼 명령*으로 바꿀 것(*케레*)을 제안한다. 그 차이점은 매우 미묘하다.
 - ㄱ. *웨의루*, 맛소라본문
 - ㄴ. *웨아콜로*, 제안된 변경
2. 심어라 - BDB 281, KB 282, *칼 명령*
3. 거두라 - BDB 894, KB 1126, *칼 명령*
4. 심어라 - BDB 642, KB 694, *칼 명령*
5. 먹어라, *케레*, 1 항의 설명을 보라

한 가지 생각을 첨가한다면 이 약속된 회복은 레 25:10 의 “회년”과 연결될 수 있다, 제임스 M. 프리먼의 *성경의 방법과 관습*, 96 쪽을 보라.

37:31 “피하여 남은 자”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농업적 은유가 계속된다. 유다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1. 튼튼한 뿌리를 박고
2. 열매를 맺으리니

37:32 앓시리아의 공격에서 살아 남은 자는 그들 자신의 계획이나 준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참조, 9:7; 59:17)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아하스는 계획을 짰지만 히스기야는 신뢰했다!

▣ “여호와와 열심” 이것은(BDB 888) 언약의 백성(호 1-3 장의 신실하지 못한 아내)에 대한 야웨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을 의미한다. 야웨께서 구원에 대한 그의 목적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하신다(참조, 63:15-19, 아브라함의 자녀와 관계된, 참조, 창 12:1-3). 9:7 과 59:17 에서 이 표현은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장 적당한 번역 즉, (1) 열심 또는 (2) 질투를 문맥이 결정한다. 이 용어는 문맥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도로 찾는 것이다!

개역개정 37:33-35

³³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앓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흥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³⁴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³⁵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7:33-34 이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시점은 앓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이 아닌 아직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세펠라의 견고한 성읍(이르테면 라기스)에 있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앓시리아에 관련하여 야웨께서 허락하실 것과 허락하지 않으실 여러 가지 것이 있다.

1. 앓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2. 그 군대는 화살 하나도 그곳으로 쏘지 못할 것이다
3. 그 군대는 방패를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이다
4. 그 군대는 흥벽을 치지도 못할 것이다
5. 앓시리아는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갈 것이다

37:35 앓시리아를 제한하고 되돌아 가게 하시는 이유는

1. 야웨 자신이 그 성을 보호(BDB 170, KB 199, 칼 완료형)하신다(즉, 거룩한 전쟁의 비유적 표현)
2. 야웨께서 그것을 구속/구원하신다(BDB 446, KB 448, 히필 부정사 연계형)
3. 야웨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 ㄱ. 야웨 자신을 위해(즉, 그의 영원한 구속계획과 그 자신의 평판, 참조, 겔 36:22-38)
 - ㄴ. 야웨의 종 다윗을 위하여(참조, 9:7; 11:1; 16:5; 22:9,22; 29:1; 38:5; 55:3; 삼하 7 장)

개역개정 37:36-38

³⁶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³⁷이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³⁸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37:36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이것은 출 11 장과 12:23,29 에 있는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에서 야웨의 임재를 상징했던 죽음의 천사의 역과 비슷하다(또한 삼하 24:16 의 설명을 보라).

여기서 “죽음의 천사”는 없다. 야웨께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다. 타락한 세상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다. 죽음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한 결과이다. 하나님은 아시고 허락하시고 그의 뜻을 행하신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제 2 의 원인(자)은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구분을 하지 않았던 고대의 세계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즉, 마 6:25-27; 10:28-31).

특별주제: 주의 천사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신을 육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이 분명하다.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은 삼위일체의 어느 위격이 이 역할을 감당하시는가이다. 성부(야웨)와 성령은 일관되게 육체가 아니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육신 이전의 메시아였다는 제안이 가능성있게 보인다.

다음에 나오는 목록은 천사의 만남에서 신의 현현을 구별하려고 노력할 때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실례이다.

1. 천사로서 주의 천사

- ㄱ. 창 24:7,40
- ㄴ. 출 23:20-23; 32:34
- ㄷ. 민 22:22
- ㄹ. 삿 5:23
- ㅁ. 삼하 24:16
- ㅂ. 대상 21:15-30
- ㅅ. 슥 1:12-13

2. 신의 현현으로서 주의 천사

- ㄱ. 창 16:7-13; 18:1-19:1; 22:11-15; 31:11,13; 48:15-16
- ㄴ. 출 3:2,4; 14:19(13:21)
- ㄷ. 삿 2:15; 6:22-24; 13:3-23
- ㄹ. 호 12:3-4
- ㅁ. 슥 3:1-5

▣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가 아니라 분명히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앗시리아 진중이다(참조, 왕하 19:35).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역병을 기록하고 이것이 설치동물과 관련된 것으로 선페스트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심판은 전체 군인을 죽이지 않았다. 이 사건이 바로 여호와와 칼에 의한 죽음이라고 묘사된 31:8 의 징조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역병으로 보인다. 이것이 역사적 이야기라기보다 과장법에 의한 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현대 서양 독자들은 과도하게 그들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 그들이 현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필터를 통해 성경(고대 동양의 책)을 읽는데, 이것은 항상 혼동과 오해를 일으킨다!

37:37 “니느웨” 이것은 앗시리아의 수도였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에 위치했다.

37:38 “자기 신 니스룩”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다.

1. 이것에 대한 70 인역의 번역은 앗시리아의 만신전의 우두머리였던 앗수르 도시의 신과 매우 비슷한 철자이다.
2. 이것은 하란에서 숭배하였고 달의 신(즉, 그의 아들)과 연관되었던 바벨론과 앗시리아의 빛과 불의 신인 “누스쿠”(BDB 652)를 잘못 철자화한 것일 수도 있다.
3. E. J. 영은 이것이 마르둑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와전시켰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임스 M. 프리먼의 *성경의 방법과 관습*, 182 쪽을 보라.

우리는 역사적 문서를 통해 37 장과 38 장 사이에 20 년의 간격이 있음을 안다. 이 예언은 산헤립의 두 아들이 그를 살해했고 셋째 아들이 왕위를 차지했던 주전 681 년에 성취되었다.

▣ “에살핫돈” 이 사람은 주전 681-669 년까지 앗시리아를 통치했던 왕의 아들 중 한명이다.

이사야 38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고침받은 히스기야	연장된 히스기야의 생명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히스기야 왕의 병과 회복	히스기야의 병과 치료
38:1-3	38:1-3	38:1-3	38:1	38:1-3
38:4-6	38:4-8	38:4-6	38:2-3 38:4-6 [38:21-22]	38:4-6 [38:21-22 과 7-8]
38:7-8		38:7-8	38:7-8	히스기야의 찬송
38:9-14 (10-14)	38:9-14 (10-14)	38:9-20 (10-15)	38:9-20 (10-15)	38:9-20 (10-15)
38:15-20 (15-20)	38:15-20 (15-19) (20)	(16-20)	(16-20)	(16-20)
38:21-22	38:21-22	38:21-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36-37 장이 앗시리아 시대와 관계가 있듯이 38-39 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준 바벨론 시대를 가리킨다.
- 나. 두 “바벨론”시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1. 히스기야 시대(내 생각으로는 사 13-14 장에서 가리키고 있는 자)의 므로닥발라단 II 세(주전 721-710, 703-702 년, 참조, 왕상 20:12; 사 39:11).

2. 나보폴라살(주전 626-605 년)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II 세(주전 605-562 년) 치하의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주전 586 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야기시켰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유대인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주전 605, 597, 586, 582 년)

다. 유대인의 연구 성경(858 쪽)은 “38-39 장에 묘사된 사건이 36-37 장에 묘사된 사건보다 최소한 10 년은 앞선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앗시리아에 의한 므로닥발라단 II 세의 참패 때문이다.

라. 히스기야의 병과 고침은 또한 왕하 20:1-11 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의 시는 시편 6 편과 118 편 심지어 요나서 2 장과 비슷하다. 히스기야의 시는 왕하 20 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8:1-3

¹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²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³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38:1-8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또한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좋은 예이다(참조, 37:21). 히스기야의 계승자였던 그의 약한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에 심판을 가져왔다. 우리는 결코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

38:3 “기억하옵소서” 이 동사(BDB 269, KB 269, **칼 명령**)는 구하는 명령이다. 느헤미야(참조, 느 13:14,22)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삶의 양식을 주목해 주시기를 청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잊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흥미롭다.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께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시도록 간청하는 방법이다.

히스기야가 단언하는 것을 주목하라.

1. 내가 주 앞에서 진실(문자적으로 “신실함,” BDB 54) . . .로 행하며(BDB 229, KB 246, **히트파엘 완료형**). “행하다”는 믿음의 생활양식에 대한 성경적 은유이다(즉, 시 26:3; 86:11).
2. 전심으로 행하며, 이것은 완전한 헌신에 대한 성경적 은유이다.
3.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다.

▣ “전심으로” 이것은 보통 다윗의 통치와 삶에 관련된 진술이다(참조, 왕상 3:6; 9:4; 11:4; 대상 28:9); 백성(대상 29:9); 또는 아사(참조, 왕상 15:14). 히스기야는 유다의 경건한 왕들 중의 하나로 꼽힌다(참조, 왕하 18:5-6).

▣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그의 죽음에 대해 왜 그렇게 낭패함을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들이 있다: (1) 젊은 나이에 죽는 것에 대한 그의 두려움, 10 절 (2)그에게 상속자가 없었던 사실(참조,

19 절; 39:7; 왕하 21:1).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역사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극은 생명이 15년 연장된 기간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는 유다에서 가장 나쁜 왕이었으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큰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개역개정 38:4-6

⁴이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⁵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⁶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38:4-8 영감은 묘사하기에 어려운 개념이다. 교리가 우리의 믿음에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하는지 정의하는 것은 막연하다.

1. 이상
2. 꿈
3. 상징적 활동
4. 말로 나타낸 진술
5. 부가적인 일
6. 심지어 번역(즉,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70 인역, 즉, 사 7:14)

나는 성경이 유일한 책임을 믿는다(하나님의 계시의 책). 선지서에서 매우 자주 그렇듯이 이 절에서 이 메시지는 야웨께로부터 오는 명확한 언어적 진술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드러내신다.

38:5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 진술은 37:35 과 55:3 에 앞뒤로 연결고리를 갖는다. 다윗은 이상적인 왕으로 대표되었고 야웨께서 다윗과 그의 가족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다, 삼하 7 장; 왕하 8:24-26. 미래의 다윗 계열의 이상적인 왕은 9:7; 16:5; 55:3 에 언급된다.

38:6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생명 또한 살리실 것이다! “내가 보호하리라”는 표현은 거룩한 전쟁이란 용어이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을 대신하여 일하신다!

개역개정 38:7-8

⁷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⁸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 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 도를 물러가니라

38:7-8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기서 다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리려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격려하시기 위한 물리적 징조였다(왕하 20:9 은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한다). 이것은 다음의 것들과 관계될 것이다

1. 왕의 개인적 방에 이르는 계단을 사용하여 고안된 해시계
2. “도”라는 용어는 해시계의 “각도”를 의미한다(참조, 왕하 20:9-11, JPSOA 역, 제임스 프리먼의 성경의 방법과 관습, 183 쪽을 보라)
3. 어떤 형태의 천문학상 현상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에 관하여 교의적으로 되는 것에 우리는 매우 주의하여야만 한다. 초인간적인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 안에서 그가 원하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름층에서 습도가 높은 것처럼 어떤 자연적 현상으로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일 수 있다. 수 10:12-13 에 있는 태양의 작용에 의한 다른 기적은 원래 물리적이라기보다 좀 더 시적이다. 기적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돌리지 않으려 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것(즉, 이집트의 재앙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연적인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하셨다. 고대의 세계에서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존 왈튼의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상을 보라*).

NASB(개정판) 38:9-14

⁹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¹⁰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¹¹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¹²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견음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베를 견어 말음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¹³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 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¹⁴ 나는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38:10-20 이것은 히스기야가 쓴 시이다. 그는 지혜서를 잘 깨달았고 시에 적용했다(참조, 대하 29:25-30). 그러나 이것이 왕하 20:1-11 과 평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38:10

NASB

“나의 생명의 중간에”

NKJV, TEV,

REB

“나의 생명의 가장 좋은 때에”

NRSV

“나의 생명의 전성기에”

NJB

“나의 생명의 절정에”

70 인역

“나의 날들의 극치에”

폐쉬타

“나의 날들의 한가운데에”

맛소라 본문은 “중지,” “잠깐 멈춤,” “휴식,” 또는 “고요”를 의미하는 *דומ*(BDB 198, KB 226 II)로 되어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루의 오후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KB 226 I 항은 “반”(NIDOTTE 제 1 권 972 쪽)을 의미하는 같은 어근의 또 다른 형태가 있다고 단언한다. 70 인역은 이것을 비슷한 해석으로 생각되는 “나의 날들의 극치에”로 번역한다.

▣ “스올의 문” 5:14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죽음의 문”은 욥 38:17; 시 9:13; 107:18과 마 16:18(“스올”이 “음부”로 불려진)에 언급된다. 이것은 감옥으로서의 지옥에 대한 은유이다.

▣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사람의 생명의 나이는 하나님의 승인의 표시로 보여진다(즉, 모세, 참조, 신 34:7; 여호수아, 참조, 수 24:9).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참조, 시 55:23; 89:45,46-48; 잠 10:27).

38:11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죽음을 하나님과의 재결합 또는 교제로서 보지 않고 생명으로부터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보았다. 구약은 사후의 삶에 대해 희미하다. 신약에서 비록 좀 더 많은 정보를 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점에 대해 가리워진 부분이 있다.

▣ “여호와 . . . 여호와” 맛소라 본문은 *야(yh, 참조, 12:2; 26:4)*가 두 번 나온다. 아마도 *야웨(yhwh)*가 한 번만 사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사해사본에 있는 이사야서의 두루마리에는 *야*가 한 번 있다.

▣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이 번역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 발견된다. 맛소라 본문에는 “중지”(즉, “죽은 자의 땅,” BDB 293 I, *הַעֲלָמִים*)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 “세상”으로 바뀜(BDB 317, *הָעוֹלָם*, 몇몇 히브리 사본들과 아람어의 탈굼에서). USB 히브리어 본문 프로젝트는 이것이 본문의 혼동이 아니라 고의적인 단어유희(93 쪽)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거민”이라는 구절은 또한 시 49:1에 나온다.

38:12 히스기야는 땅에서의 그의 생명의 마지막을 묘사하기 위해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한다.

1. 장막을 걷음 같이(참조, 고후 5:1; 벧후 1:13,14)
2. 베를 걷어 말음 같이

맛소라 본문에서 처음 단어인 *דֹרֵי*(BDB 189, KB 217)를 어떻게 번역했는가의 질문이 있다.

1. 거쳐, 오직 여기서만 발견되는 형태(BDB 190, 4 항, KB 217 I), NASB, NRSV, NJB, JPSOA, REB
2. 세대, 수명, 어근의 일반적 의미(BDB 189, KB 217 II), 70 인역, 페쉬타, NKJV, TEV 동사(, BDB 162, KB 191)에 관한 질문이 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말았도다,” BDB 164 II, *גַּלְלָה*의 *ניפול 완료형*, 참조, 34:4(오직 여기서만 이 의미로 사용됨)
 2. “떠나 옮겨졌고,” *גַּלְלָה*의 *ניפול 완료형*, 여기서는 독특한 의미. 일반적으로 이것은 다음의 어느 것이나 의미할 수 있다
 - ㄱ. 폭로하다, 드러내다
 - ㄴ. 떠나다, 내쫓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맛소라 본문을 따라 2 항을 사용하지만 문맥상 1 항이 잘 맞는다.

▣ “주께서 . . .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것은 완료된 행동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다(참조, 욥 4:20; 시 73:14).

38:13	
NASB	“나는 나의 영혼을 가라앉혔다”
NKJV	“나는 숙고했다”
NRSV, NJB	“나는 도움을 위해 부르짖는다”
TEV	“나는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REB	“나는 극심하게 고통을 겪는다”

맛소라 본문은 “나는 가라앉힌다”(즉, 나의 영혼을 진정시킨다)로 되어있다, *사바*, BDB 1000, KB 1436, *피엘 완료형*, 그러나 많은 번역가들은 *사바*의(BDB 1002, KB 1443 I, “도움을 위해 부르짖다”를 의미하는, 참조, 58:9, 가장 적당하게 보이는)로 바꾼다.

▣ “주께서 사자 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히스기야의 죽음은 주권자이신 여호와와 하시는 일로 보여진다. 구약의 유일신주의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모든 이유를 돌렸다. 고대인들은 제 2의 이유를 인식하지 않았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함에 있어 강력한 은유를 사용한다(여기서는 사자).

38:14 13 절이 여호와와 능력을 묘사한 것처럼 14 절은 히스기야의 약함을 묘사한다.

1. NASB, NJB, REB – “지저귀다”
NKJV – “외치다”
TEV – “나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다”
이 동사(BDB 861, KB 1050, *피엘 미완료형*)는 “짜깁 울다,” “삐악삐악 울다”를 의미한다. 여기서 그리고 10:14 에서 이것은 새에 대해 사용되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신접한 자(참조, 8:19; 29:4)로 사용된다.
2. “슬피 울며” - BDB 211, KB 237, *칼 미완료형*, 참조, 16:7; 59:11; 겔 7:16; 나 2:7.
이것은 처한 상황에 대한 슬픔을 나타낸다.
3.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ㄱ. “쇠하도록” - BDB 195, KB 223, *칼 완료형*, 시 79:8; 116:6; 142:6 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사용되었다(참조, NIDOTTE 제 1 권 951 쪽)
ㄴ. “높은 곳” - BDB 928, 하늘에 대한 은유일 것이다(참조, 32:15; 57:15; 58:4)
4. 압제를 받다 - BDB 799, 이 형태는 오직 여기에서만 발견된다. 23:12 에서 *푸알 동사* 형태는 “눌러 부수다”라는 의미이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시 103:6 또는 146:7 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 “여호와여” 맛소라 본문은 *아돈*(BDB 10)으로 되어 있다(마치 16 절 처럼, 약위로 표기하지 않음, 마치 3,4,5,7,11,20[2 회],22).

▣ “나의 증보가 되옵소서” 이 명령(BDB 786, KB 876, *칼 명령*)은 히스기야의 약함을 전제로 한 히스기야의 요청을 표현한 것이다. 이 동사는 맹세를 의미한다(참조, 읍 17:3; 시 119:122). 야웨 자신이 히스기야의 소망이고 보증이었다!

개역개정 38:15-20

- 15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 16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 17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 18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렁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와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38:15-20 이 연은 스올에 대한 구약의 신학을 나타낸다. 사후의 세계는 가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다.

38:15 “주께서 . . .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적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반영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참조, 55:11)!

38:16 맛소라 본문에서 둘째 행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70 인역은 그것을 “그리고 주께서 나의 호흡을 소생시키셨나이다”라고 번역한다; JPSOA 는 그것을 “내 생명의 호흡이 소생되었나이다”라고 번역한다.

38:17

NASB “나의 영혼을 지키신 주”
NKJV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스럽게 건지신다”
NRSV “주께서 나의 생명을 감추신다”
NJB “주께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신다”
REB, 페쉬타 “주께서 나를 구하신다”

맛소라 본문에 “사랑하였다”(חַסַּד, BDB 365 I, KB 362, 칼 완료형)라는 동사가 있지만 이것은 이 행에 걸맞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감추다”(חָסַד, BDB 362, 참조, 14:6; 54:2; 58:1)로 가정한다.

▣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시는 히스기야를 스올에서 건지신 구원과 관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재앙이 항상 죄와 연결된다. 히스기야의 행동 중 어떤 것이 야웨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이른 죽음에 마땅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잊어 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진술이다. 부디 시 103:11-14; 사 1:18; 43:2-5; 44:22; 렘 31:34; 미 7:19 을 비교해 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또한 잊어 주신다!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성경의 약속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잊어주심에 대한 완전한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특별주제: 용서를 나타내는 단어들

다음은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한 대부분의 히브리 단어 또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1. “용서하다,” “인정하다,” *살라흐* - BDB 699, KB 757, 즉, 출 34:9; 레 4:20,26,31,35; 5:10,13,16,18; 6:7; 19:22; 민 14:20; 15:25-28; 30:5,8,12; 왕상 8:30,34,36,39,50; 시 25:11; 103:3; 사 55:7; 단 9:19; 암 7:2(이 용어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 사용되며 인간에 대해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2. “없애다,” “지우다,” *나사*(여러 가지 의미의 매우 일반적인 동사) - BDB 669, KB

즉, 출 23:21; 32:32; 34:7; 민 14:18; 수 24:19; 시 25:18; 32:1,5; 85:2; 99:8; 미 7:18

3. “가리다,” “속죄하다,” *카파르* - BDB 497, KB 493, 즉, 레위기에서 매우 일반적이다; 시 65:8; 78:38; 79:9; 사 6:7; 22:14; 렘 18:23; 겔 16:63; 단 9:24
4. “지우다,” “없애다,” *마하* - BDB 562, KB 567, 즉, 느 4:5; 시 51:1,9; 사 43:25; 44:22; 렘 18:23
5. “병을 고치다,” *라파* - BDB 950, KB 1272, 즉, 대하 7:14; 시 41:4; 103:3; 사 6:10; 57:18; 렘 3:22; 17:14; 30:17; 호 5:13; 14:4
6. “넘어가다,” *아바르* - BDB 716, KB 778, 즉, 잠 19:11; 암 7:8; 8:2; 미 7:18
7. “씻다,” *카바스* - BDB 460, KB 459, 즉, 시 51:2,7; 렘 2:22; 4:14
8. “청결하게 하다,” *타하르* - BDB 372, KB 369, 즉, 레 16:30; 시 51:2; 잠 20:9; 겔 24:13; 36:25
9. “등 뒤로 던지다,” *샤라크* - BDB 1020, KB 1527, 즉, 사 38:17; 미 7:19
10. “청결하게 하다,” *하타* - BDB 306, KB 305, 즉, 시 51:7(일반적인 이 동사가 신적 청결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오직 이곳에서만 발견된다)
11. “주의 얼굴을 ~에서 돌이키시고,” *사타르* - BDB 711, KB 771, 즉, 시 51:9
12. “기억하다”(부정적인), *자카르* - BDB 269, KB 269, 즉, 사 43:25
13. “뺏다”(문자적으로 “정복하다”), *카바스* - BDB 461, KB 460, 즉, 미 7:19

38:20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33:2의 특별주제: 구원을 보라.

여기서의 “구원”이 성전에서 미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즉, 죽음으로부터의 육체적 구원과 결부됨을 주목하라, 참조, 22 절; 왕하 20:5, 시 23:6 과 많이 비슷함.

개역개정 38:21-22

²¹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오리라 하였고
²²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나 하였더라

38:21-22 이 절들은 사해사본의 이사야서에는 없지만 70 인역에는 있다. 이른 기록의 이 형태는 왕하 20:7 에서 발견된다. NJB 는 이 내용을 6 절 다음에 둔다.

38:21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오리라” 고대 이스라엘의 다른 문서를 통해 무화과가 약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우가릿에서도).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병(즉, 종기)의 정확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암적으로 성장한 어떤 종류였는지 아니면 취약한 부분에 생긴 어떤 종기 종류였는지는 불확실하다.

고치신 분은 야웨시지만 약(즉, 무화과)을 붙인 것은 궁정의 의사였다. 다시 말하지만 고대에는 신적 작용과 자연적 작용 사이에 차이점이 없었다. 모든 인과관계를 하나님께 돌렸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상, 그의 언약의 백성,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계하신다!

이 절에는 세 지시형이 있다.

1. 그것을 취하라 - BDB 669, KB 724,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미완료형**
2. 그것을 종처에 붙여라(문자적으로 “비벼라”이다) - BDB 598, KB 634,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된 **칼미완료형**
3. 그를 살게 하라 - BDB 310, KB 309, **칼지시형**

이사야 39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히스기야가 그의 보물을 보이다	바벨론 사신들	므로닥발라단의 사신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바벨론의 사신
39:1-4	39:1-2 39:3-8	39:1-4	39:1-3a 39:3b 39:4	39:1-2 39:3-4
39:5-8		39:5-8	39:5-7 39:8	39:5-8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xvi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xvi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사절이 온 가능한 시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위해 글리슨 아처의 *성경 난제 백과사전* 212-213 쪽을 보라.

개역개정 39:1-4

¹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왔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²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³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⁴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39:1 “므로닥발라단” 그는 남쪽 바벨론(주전 721-710 년, 703-702 년)을 통치했고 앗시리아를 두 번 반역한 비트-야긴의 왕자였다. 38 장의 문맥적 통찰을 보라.

▣ “바벨론 왕 글...을 보낸지라” 이 바벨론 왕은 분명히 앗시리아를 대항하는 동맹을 맺기 바랬다. 불행하게도 히스기야의 자긍심은 그가 그의 부와 자원을 바벨론 사절에게 드러내놓는 어리석은 짓(참조, 2 절)을 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마도 새로운 정치적 동맹을 찾고 있는 것 같다.

39:2

NASB, NKJV	“기뻐하였다”
NRSV, TEV,	
REB	“환영했다”
NJB	“아주 기뻐했다”
70 인역	“기쁘게 했다”

맛소라 본문에는 오만한 의미로 종종 사용된 “기쁘게 했다”(BDB 970, KB 1333, **칼미완료형**)로 되어있다(참조, 읍 31:29; 시 35:15,19,24; 38:16; 잠 24:17; 겔 25:6; 미 7:8).

▣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보이다”(BDB 906, KB 1157)라는 동사는 **히필 완료형**이다. 왕은 모두 보여주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민간적인 곳과 신성한 모든 장소에 그들을 손수 대동했다(참조, 4 절).

39:3-4 이사야가 정보를 찾고 있는 내용일까? 이것은 왕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수사학적 질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역개정 39:5-8

⁵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⁶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⁷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⁸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39:5 이것은 분명히 히스기야의 경솔한 행동과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문학적 표시(“들으라,” BDB 1033, KB 1570, **칼 명령**)이다.

39:6 이 절은 다가오는 느부갓네살 II 세 치하에서 일어날 바벨론 포로(즉, 주전 605, 597, 586, 582년)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은 성경의 요점이 (1) 히스기야의 오만 뿐 아니라; 또한 (2) 그의 아들 므낫세의 우상숭배(참조, 왕하 21:1-18); 백성의 계속되는 불신과 우상숭배이다. 실제 문제는 히스기야가 전에 이집트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동맹을 의지하는데 다시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 38 장에서 그의 기도로 하는 응답은 이런 종류의 행위에서 그를 멀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9:7 이 절은 정확한 예언 때문이 아니라 이사야가 항상 예루살렘과 다윗 계보에 대한 불가침성을 믿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놀랍다(참조, 삼하 7 장).

또한 히스기야를 방문했던 바벨론 사람들은 네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주목하라. 이사야 시의 많은 부분은 다음에 관련하여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1. 앗시리아
2. 바벨론
3. 신바벨론
4. 종말적 사건들

▣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 일은 여호야긴 왕에게 일어났다(참조, 왕하 24:15).

▣ “**환관**” 이 용어(BDB 710)는 문자적으로 “거세된 남자”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왕궁의 높은 관리를 의미하였다(참조, 보디발은 결혼하였다, 창 39:1). 문맥상 이것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1. 바벨론의 능력에 대한 권위적 상징
2. 국가의 감독자

39:8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종소이다**” 이것은 깜짝 놀랄만한 진술이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바로 그 출처가 자신의 자공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인 것이거나 아니면 8 절에서와 같이 심판이 그의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그 자체에 대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왕의 기쁨의 이유는 그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고 단언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신뢰의 개념이 사 36 장과 37 장에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내용을 말한 앗시리아 관리들의 메시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히스기야는 앗시리아에 조공을 바쳤는가? 그리고 그는 이집트와 군사적 동맹을 맺었는가?
3. 왜 사 37:20 이 그렇게 중요한가?
4.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징조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5.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에게 그의 보물을 보여준 것이 왜 그에게 그렇게도 심각한 심판을 초래 했는가?

부록 I

히브리 시 서론

I. 서론

- 가. 이 문학 장르는 구약에서 3분의 1 을 차지한다. 이 장르는 히브리 정경 가운데 특히 “예언서”(학개서와 말라기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에 시가 들어 있다)와 “성문서”에서 자주 나온다.
- 나. 히브리 시는 영어의 시와 매우 다르다. 영어의 시는 주로 소리에 기초한 시인 헬라이어와 라틴어의 시에서 발전되었다. 히브리 시는 가나안어로 된 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근동의 시에는 강세가 있는 행이나 리듬이 없다(하지만 운율에 강음이 있다).
- 다. 이스라엘 북쪽의 우가릿(라스 샴라)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은 학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시들은 주전 15 세기에 속하며 성경에 나오는 시와 매우 깊은 문학적 관계를 가진다.

II. 시의 일반적 특징

- 가. 히브리 시는 매우 축약적이다.
- 나. 히브리 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진리, 느낌, 경험을 나타낸다.
- 다. 히브리 시는 구두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기록을 통해 전해졌다. 히브리 시는 매우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 균형을 이룬 행(평행법)
 - 2. 단어유희
 - 3. 소리유희

III. 구조 (R. K. 해리슨 구약개론, 965-975 쪽)

- 가. 로버트 로우쓰 주교는 *히브리인의 거룩한 시에 대한 강의*(1753)를 통해 성경에 있는 시가 사상적 균형을 이루는 행으로 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주장했다. 대부분의 현대 영어 번역본들은 히브리 시의 행을 반영하는 구조로 인쇄되고 있다.
 - 1. 동의어적 -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행이지만 같은 사상을 나타낸다:
 - ㄱ. 시 3:1; 49:1; 83:14; 103:13
 - ㄴ. 잠 19:5; 20:1
 - ㄷ. 사 1:3,10
 - ㄹ. 암 5:24; 8:10
 - 2. 반의적 - 대조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을 말함으로서 반대되는 사상을 나타내는 행으로 되어 있다:
 - ㄱ. 시 1:6; 90:6
 - ㄴ. 잠 1:29; 10:1,12; 15:1; 19:4

3. 종합적 - 이어 나오는 두 행 혹은 세 행이 첫 행에서 제시한 사상을 발전시킨다 - 시 1:1-2; 19:7-9; 29:1-2
 4. 교차대조적 - 메시지를 나타냄에 있어서 확장되어 가는 것과 거슬러 올라 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강조점이 가운데에 있다.
- 나. A. 브릭스는 *성경 연구를 위한 일반적 서론*(1899)에서 히브리 시의 분석을 발전시켰다:
1. 표상적 - 한 절은 문자적의미를 갖고 다음 절은 은유적 의미를 가짐, 시 42:1; 103:3
 2. 점증법 혹은 계단법 - 절들이 상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진리를 드러낸다, 시 19:7-14; 29:1-2; 103:20-22
 3. 내향적 - 대개의 경우 4 절 이상의 일련의 절에서 1 행과 4 행, 2 행과 3 행이 서로 내적 관련이 있는 형태임 - 시 30:8-10a 절
- 다. C. B. 그레이는 *히브리 시의 형태*(1915)에서 균형을 이루는 절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1. 완전한 균형 - 첫 행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음 행에서 반복되거나 균형을 이루는 경우 - 시 83:14 와 사 1:3
 2. 불완전한 균형 - 서로 길이가 다른 행 - 시 59:16; 75:6
- 라. 오늘날 교차대조법으로 불리는 히브리 시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것은 모래시계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독특한 평행법으로서 가운데 행이 강조점을 갖는다.
- 마. 동양의 시에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소리 유형
1. 알파벳에 관련된 유희(알파벳 시, 참조, 시 9, 34, 37, 119 편; 잠 31:10 이하; 애 1-4 장)
 2. 자음과 관련된 유희(두음법, 참조, 시 6:8; 27:7; 122:6; 사 1:18-26)
 3. 모음과 관련된 유희(모음운, 참조, 창 49:17; 출 14:14; 겔 27:27)
 4.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지만 다른 의를 갖는 단어의 사용과 관련된 유희(동음이의어)
 5. 발음을 하였을 때 나는 소리가 그 이름이 되는 단어와 관련된 유희(의성어)
 6. 특별한 시작과 끝(포괄법)
- 바. 구약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다. 어떤 종류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어떤 종류는 형태와 관련이 있다.
1. 헌신의 노래 - 민 21:17-18
 2. 일하며 부르는 노래 - (삿 9:27 에서 암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사 16:10; 렘 25:30; 48:33
 3. 민요 - 민 21:27-30; 사 23:16
 4. 술을 마심에 대한 노래 - 부정적 의미, 시 5:11-13; 암 6:4-7; 부정적 의미, 사 22:13
 5. 사랑의 노래 - 애가서, 결혼식 수수께끼 - 삿 14:10-18, 결혼 노래 - 시 45 편
 6. 애가/만가 - (삼하 1:17 과 대하 35:25 에 암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삼하 3:33; 시 27, 28 편; 렘 9:17-22; 예레미야 애가; 겔 19:1-14; 26:17-18; 나 3:15-19
 7. 전쟁의 노래 - 창 4:23-24; 출 15:1-18, 20; 민 10:35-36; 21:14-15; 수 10:13; 삿 5:1-31; 11:34; 삼상 18:6; 삼하 1:18; 사 47:1-15; 37:21
 8. 지도자의 특별한 축도 혹은 축복 - 창 49 장; 민 6:24-26; 신 32 장; 삼하 23:1-7
 9. 마법의 본문 - 발람, 민 24:3-9
 10. 거룩한 시 - 시편
 11. 알파벳 시 - 시 9, 34, 37, 119 편; 잠 31:10 이하; 애 1-4 장
 12. 저주 - 민 21:22-30

- 13. 조롱의 시 - 사 14:1-22; 47:1-15; 켈 28:1-23
- 14. 전쟁 시의 책(야살) - 민 21:14-15; 수 10:12-13; 삼하 1:18

IV. 히브리 시의 해석을 위한 안내

- 가. 연 혹은 절(이것은 산문에서 문단과 같다)의 중심진리를 파악하라. RSV 는 시를 연의 구조로 나타낸 최초의 현대 번역본이다. 현대의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일은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 나. 회화적인 표현을 찾아 내고 이를 산문으로 바꾸어 보라. 히브리 시는 매우 축약적이어서 독자가 이를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라.
- 다.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 큰 문맥(종종 책 전체)과 역사적 상황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라.
- 라. 시로 어떻게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 사사기 4 장과 5 장은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된다. 사사기 4 장은 산문이고 사사기 5 장은 같은 사건을 시로 나타낸 것이다(또한 출애굽기 14 장과 15 장을 비교하라).
- 마. 관련된 평행법이 어떤 종류의 평행법(동의어적, 반의적, 종합적)인지를 규명하라.

부록 II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서론

I. 서론

가. 초기적 진술

1.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믿음의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정통적인 입장이 정립되었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구약의 예언을 구분하는 잘 정의된 여러 시기가 있다

ㄱ. 왕정 이전(사울왕 이전)

1) 선지자로 불려진 개인들

(ㄱ) 아브라함 - 창 20:7

(ㄴ) 모세 - 민 12:6-8; 신 18:15; 34:10

(ㄷ) 아론 - 출 7:1(모세의 대변인)

(ㄹ) 미리암 - 출 15:20

(ㅁ) 메닷과 엘닷 - 민 11:24-30

(ㅂ) 드보라 - 삿 4:4

(ㅅ)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삿 6:7-10

(ㅇ) 사무엘 - 삼상 3:20

2) 선지자 그룹에 대한 언급 - 신 13:1-5; 18:20-22

3) 선지자 그룹 혹은 길드 - 삼상 10:5-13; 19:20; 왕상 20:35, 41; 22:6, 10-13; 왕하 2:3,7; 4:1,38; 5:22; 6:1 등

ㄴ. 글을 남기지 않은 왕정시기의 선지자(그들은 왕에게 말했다)

1) 갓 - 삼상 7:2; 12:25; 삼하 24:11; 대상 29:29

2) 나단 - 삼하 7:2; 12:25; 왕상 1:22

3) 아히야 - 왕상 11:29

4) 예후 - 왕상 16:1,7,12

5)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 - 왕상 18:4, 13; 20:13,22

6) 엘리야 - 왕상 18 장; 왕하 2 장

7) 미가야 - 왕상 22 장

8) 엘리사 - 왕하 2:8,13

ㄷ. 글을 남긴 고전적 선지자들(그들은 왕에게는 물론 국가에 대하여 말했다): 이사야—말라기(다니엘은 예외)

나. 성경의 용어

1. *로예* = 보는 자, 삼상 9:9. 이것은 *나비*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된다. 후자는 “선지자”를 뜻하며 “부르다”라는 어근에서 나왔다. *로예*는 “보다”를 뜻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이해했고,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

2. *호제* = 보는 자, 삼하 24:11. 이것은 근본적으로 *로예*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인 “환상을 보다”에서 나왔다. 주로 분사형이 선지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3. 나비 = 선지자, 아카디아 동사 *나부* = “부르다”와 아랍어의 *나바아* = “선언하다”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이것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된다. 정확한 어원적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다”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말하도록 야웨께서 모세의 역할을 설명한 것에서 취할 수 있다(참조, 출 4:10-16; 7:1; 신 5:5).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자이다(참조, 암 3:8; 렘 1:7,17; 겔 3:4).
4. 대상 29:29 에서는 선지자직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된다: 사무엘 - 로애; 나단 - 나비; 갓 - 호제.
5. *이쉬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을 뜻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라는 의미로서 대략 76 회 사용된다.
6. 영어의 “선지자”는 헬라어에서 왔다. 이것은 (1) *프로* = “앞” 또는 “위해서” (2) *헤미* = “말하다”에서 왔다.

II. 예언의 정의

- 가. “예언”이라는 용어는 영어보다 히브리어에서 더 광범위한 어원적 영역을 갖는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룻기는 제외)까지의 역사적 책들을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 아브라함(창 20:7; 시 105:5)과 모세(신 18:18) 모두 선지자로 불린다(또한 미리암도, 출 15:20). 따라서 영어의 뜻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것은 조심을 요한다!
- 나.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참여의 관점에서만 역사가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예언주의의 합법적 정의이다”(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제 3 권 896 쪽).
- 다. “선지자는 철학자도 조직신학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언약의 증재자로서 백성들의 현재 삶을 개혁함으로써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하기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선지자와 예언,” *유대 백과사전* 제 13 권 1152 쪽).

III. 예언의 목적

- 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였다. 이것으로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지침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심을 인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격려하고,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의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종종 예언은 하나님께서 대변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신 13:1-3; 18:20-22).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 나. 종종 선지자들은 당시의 역사적 혹은 신학적 위기를 취하여 그것을 종말론적 상황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목적론적) 관점은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언약적 약속을 주셨다는 독특한 생각을 가져왔다.
-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서 선지자 직은 대제사장 직과 균형을 이루고(렘 18:18)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대언자에 의해 우림과 둠뭇은 말로 표현된 메시지가 되었다. 선지자 직은 말라기(혹은 역대기 저작)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400년 후에 침례(세례)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이 직은 없었다.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구약과 연결시키는지 확실하지 않다. 신약의 예언자들(행 11:27-28; 13:1; 14:29, 32, 37; 15:32; 고전 12:10, 28-29; 엡 4:11)은 새로운 계시의 계시자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그것을 미리 말하는 자들이었다.

- 라. 예언은 전적으로 혹은 주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그들의 직분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하지만 구약의 예언 가운데 . . . “2% 미만이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 5% 미만의 내용이 새언약의 시대를 특별하게 설명한다. 1% 미만의 내용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다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피 &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66 쪽).
- 마. 선지자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백성을 대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하박국서 처럼 예외가 있다.
- 바. 선지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그 책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연대적인 순서로 되어있지 않다.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을 따르지는 않는다. 종종 분명한 역사적 상황이나 시간의 지침 혹은 신적 예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말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1) 어떤 책을 한 가지 배경에서 이해하여 읽는 것이 어렵고 (2) 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우며 (3) 각 예언의 중심진리나 혹은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IV. 예언의 특성

- 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개념이 발전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았다. 때때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킨다(왕하 2 장). 선지자들은 때로 황홀경적 형태에 의해 구별되어졌다(삼상 10:10-13; 19:18-24).
- 나.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급하게 개인 선지자들의 시기로 이어졌다. 그들은(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모두) 왕과 관계하여 일했고, 왕궁에서 살았다(갓, 나단). 또한 독립적으로 일했던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와 철저히 관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아모스, 미가). 남자와 여자 둘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왕하 22:14).
- 다. 선지자는 종종 미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미래는 개인이나 국민의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다르게 되었다. 종종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우주적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반응에 의해 하등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우주적인 종말론적 계획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갖는 독특한 내용이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예언과 언약적 충성은 두 가지 초점을 이룬다(참조, 피와 스트어트, 150 쪽). 이것은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공동체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했다.
- 라. 대부분의 예언적 자료는 구두로 전해졌다. 이것은 후에 주제나 연대 혹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근동 문화의 다른 양식을 따라서 합쳐졌다. 구두로 전해진 것이기에 글로 쓰여진 산문의 구조를 갖지 않는다. 이 점은 예언서를 쪽 읽는 것과, 특별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없이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 마.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말씀을 전했다
 1. 재판 장면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법정에서 서게 하신다; 종종 이것은 야웨께서 자기의 아내(이스라엘)를 그녀의 충성되지 않음을 인해(호세아 4 장; 미가 6 장) 거절하시는 이혼소송으로 나타난다.
 2. 장례식의 만가 - 이런 양식의 메시지에 사용되는 특별한 운율과 특징적인 단어인 “화 있을진저”라는 용어는 이것을 따로 구별짓는다(이사야 5 장; 하박국 2 장).
 3. 언약적 축복의 선언 - 언약의 조건적인 면이 강조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래에 나타날 결과가 선언된다(신명기 27-29 장).

V. 성경이 말하는 참 선지자의 자격요건

- 가. 신명기 13:1-5(예언/기적이 순전한 유일신 신앙과 일치함)
- 나. 신명기 18:9-22(거짓 선지자/참 선지자)
- 다. 남녀 모두 선지자 혹은 여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임명받았다
 1. 미리암 - 출애굽기 15 장
 2. 드보라 - 사사기 4:4-6
 3. 홀다 - 열왕기하 22:14-20; 역대하 34:22-28
- 라. 주위의 문화에서는 점을 통해 그들이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그들이 선지자임을 확인했다
 1. 신학적 시험 - 야웨의 이름을 사용
 2. 역사적 시험 - 예언의 정확한 성취

VI. 예언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 가. 각 예언의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문맥을 살펴서 원래의 선지자(편집자)가 의도했던 바를 확인하라.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어떤 모습으로든 깨뜨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나. 예언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고 해석하라; 내용에 따라 대지를 잡으라. 이것이 주위의 예언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라. 예언서 전체(문학적 단위와 문단에 따른 구분에 의해)의 대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라.
- 다. 해당 본문이 상징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문자적 해석을 취하라; 상징적 용법인 경우에는 그것을 산문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라.
- 라. 상징적 행동은 역사적 상황과 병행귀절에 비추어 분석하라. 이것이 고대 근동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지 서구나 현대의 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
- 마. 예언의 내용을 신중하게 다루라
 1. 그것이 전적으로 저자의 시대에만 해당하는가?
 2. 그 내용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졌는가?
 3. 그 내용이 아직도 미래적인가?
 4. 당시에 성취되었으면서도 아직 미래적 성취에 속하는가?
 5. 현대 저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당신에게 답하게 하라.

바. 특별한 주의점

1. 예언의 내용이 어떤 반응의 조건에 의존적인가?
2. 누구에게 이 예언이 말해지는지(또한 왜) 분명한가?
3. 성경적으로 혹은/또한 역사적으로 다중적 성취의 가능성이 있는가?
4. 영감을 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많은 귀절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형론 혹은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영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방법을 그들의 것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VII. 유용한 도서

가. 칼 E. 알머딩과 W. 워드 개스큐의 *성경 예언 안내*

나. 고돈 피와 더글라스 스튜아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 에드워드 J.영의 *나의 종 선지자들*

라. D. 브렌트 샌디의 *쟁기와 전정 낮: 성경의 예언과 묵시의 언어를 다시 생각함*

마.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스 Jr.의 *구약의 암호를 해석하기*

부록 III 간략한 역사적 개관

메소포타미아 열강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개관(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 462 쪽 이하에 있는 자료에 주로 기초함):

I. 앗시리아 제국(창 10:11)

가. 앗시리아의 종교와 문화는 수메리아/바벨론 제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나. 지배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연대에 대한 개략적이고 잠정적인 제시:

1. 1354-1318 앗수르-우발랏 I 세:
 - ㄱ. 히타이트 도시인 칼케미쉬를 정복함
 - ㄴ. 히타이트의 영향력을 제거하여 앗시리아가 발전하게 함
2. 1297-1266 아닷 나라리 I 세(강력한 왕)
3. 1265-1235 살만에셀 I 세(강력한 왕)
4. 1234-1197 투쿨티-니누르타 I 세
 - 바벨론 제국이 처음으로 남쪽을 정복함
5. 1118-1078 티글랏-빌레셀 I 세
 - 앗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강대국을 이룸
6. 1012-972 앗수르-라비 II 세
7. 972-967 앗수르-레위-이슈이 II 세
8. 966-934 티글랏-빌레셀 II 세
9. 934-912 아수르-단 II 세
10. 912-890 아닷-나라리 II 세
11. 890-884 투쿨티-니누르타 II 세
12. 883-859 앗수르-나실-아팔 II 세
13. 859-824 살만에셀 III 세
 - 853 년에 카르카르 전투
14. 824-811 샬마쉬-아닷 V 세
15. 811-783 아닷-나라리 III 세
16. 781-772 살만에셀 IV 세
17. 772-754 앗수르-단 III 세
18. 754-745 앗수르-나라리 V 세
19. 745-727 티글랏-빌레셀 III 세:
 - ㄱ. 바벨론 왕위의 이름인 불로 불림, 왕하 15:19
 - ㄴ. 매우 강력한 왕
 - ㄷ. 피정복민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함
 - ㄹ. 주전 735 년에 “시리아-에브라임 연맹”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용 가능한 군사적 역량을 하나로 합쳐 앗수르의 커지는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연맹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티글랏-빌레셀 III 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참조, 왕하 16 장; 사 7-12 장).
 - ㅁ. 주전 732 년에 티글랏-빌레셀 III 세가 침략하여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이스라엘의 왕좌에는 조공을 바치는 왕으로서 호세아(주전 732-722 년)를

세웠다. 북왕국에 살던 수 천의 유대인들이 메데로 추방을 당했다(참조, 왕하 15-16 장).

- 20. 727-722 살만에셀 V 세
 - 호세아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앗수르의 침략을 받았다(참조, 왕하 17 장)
- 21. 722-705 사르곤 II 세:
 - ㄱ. 살만에셀 V 세가 시작한 3 년 간의 포위 후에 사르곤 II 세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정복했다. 27,000 명 이상이 메디아로 추방되었다.
 - ㄴ. 히타이트 제국도 정복되었다.
 - ㄷ. 714-711년에는 요단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집트가 동맹을 이루어 앗시리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 동맹은 “아스돗 반란”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유다의 히스기야도 관계했다. 앗시리아가 침략하여 여러 팔레스타인 도시를 멸망시켰다.
- 22. 705-681 산헤립:
 - ㄱ. 705년에는 사르곤 II 세 사후에 요단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이집트가 동맹을 이루어 반란을 일으켰다. 히스기야는 이 반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산헤립이 701년에 공격해 왔다. 반란이 진압되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져졌다(참조, 사 36-39 장과 왕하 18-19 장).
 - ㄴ. 산헤립은 또한 엘람과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했다.
- 23. 681-669 에살핫돈:
 - ㄱ. 이집트를 공격하여 정복한 최초의 앗시리아 왕
 - ㄴ. 바벨론에 강한 동정을 가져 이것을 수도로 재건함
- 24. 669-633 - 앗술바니팔:
 - ㄱ. 에스라 4:10 에서 오스납팔로 불린다
 - ㄴ. 그의 형제인 샬마쉬-습-우킨이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짐(후에 총독으로 물러남) 이것은 앗시리아와 바벨론 간에 여러 해에 걸친 평화를 가져 왔지만, 기저에 흐르는 독립사상이 652년에 그의 형제(총독으로 물러났던)에 의해 일어났다.
 - ㄷ. 테베가 주전 663년에 멸망했다
 - ㄹ. 엘람을 주전 653년과 645년에 무찔렀다
- 25. 633-629 앗술-에틸-일라니
- 26. 629-612 신-살-이스쿰
- 27. 612-609 앗술-우발릿 II 세:
 - 추방된 중에 하란에서 왕위에 올랐다. 주전 614년에 앗수르가 멸망하고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한 후에 왕이 되었다

II. 신바벨론 제국:

- 가. 703-? 므로닥-발라단
 - 앗시리아의 지배에 대항하여 여러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함
- 나. 652 샬마쉬-습-우킨:
 - 1. 에살핫돈의 아들과 앗술바니팔의 형제
 - 2. 그가 앗시리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됨
- 다. 626-605 나보폴라살:
 - 1. 신바벨론 제국의 처음 왕
 - 2. 그는 남쪽에서 앗시리아를 공격했고 메데의 씨야싸레스는 북동쪽에서 공격했다
 - 3. 앗시리아의 옛 수도인 앗수르는 614년에, 강력했던 새 수도인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멸망했다
 - 4. 남은 앗시리아 군대는 하란으로 퇴각했고 그들의 왕을 세우기까지 했다.
 - 5.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608년에 바로 느고 II 세(참조, 왕하 23:29)는 남은 앗수르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북쪽으로 출전하였다. 유다의 경건한 왕 요시야(참조, 왕하 23 장)는 이집트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거쳐 전진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므깃도에서 약간의 접전이 있었다. 요시야는 부상을 입어 죽었다(왕하 23:29-30).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졌다. 바로 느고 II 세가 앗시리아 군대가 망하는 것을 막기에는 이미 늦은 때에 하란에 도착했다. 그는 왕세자인 느부갓네살 II 세가 지휘하는 바벨론 군대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메쉬에서 주전 605 년에 싸워 크게 패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느고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 성을 약탈했다. 그는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있는지 3 개월만에 그를 폐위시켰다. 그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참조, 왕하 23:31-35).

6. 느부갓네살 II 세는 팔레스타인을 통해 이집트 군대를 남쪽으로 쫓아갔으나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 바벨론으로 돌아갔다. 같은 해에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갔다. 그는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위에 그대로 두었지만 수 천명의 지도자급 시민들과 왕족의 다수를 사로잡아갔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때 강제이송된 사람 가운데 있었다.
- 라. 605-562 느부갓네살 II 세:
1. 주전 597-538 년에 바벨론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지배했다.
 2. 여호야김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음으로(왕하 24 장), 주전 597 년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강제이송이 발생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II 세가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은 오직 석 달 동안 왕위에 있던 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에스겔을 포함한 만 명의 시민들은 그발 강(운하)가 옆 바벨론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재 정착되었다.
 3. 주전 586 년 이집트에 계속 의존하는 관계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고(왕하 25 장) 집단 이송이 발생했다. 여호야킨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었고 그달리야가 통치자로 임명되었다.
 4. 그달리야는 변절한 유대인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 군대는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 예레미야에게 그들과 함께 갈 것을 강요했다. 느부갓네살은 네 번째 침략했고(605, 596, 586, 582) 그의 눈에 보이는 남아 있던 모든 유대인을 사로 잡아갔다.
- 마. 562-560 에빌-므로닥은 아멜-마르둑으로 알려져있다
- 그는 여호야김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지만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참조, 왕하 25:27-30; 렘 52:31).
- 바. 560-556 네리글리살
-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느부갓네살의 장군이였다
- 사. 556 라바스키-마르둑
- 그는 네리글리살의 아들로서 오직 9 개월 후에 암살당했다
- 아. 556-539 나보니두스:
1. 나보니두스는 왕의 가문이 아니었기에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했다
 2. 그는 많은 시간을 달신인 “썬”의 신전을 테마에 세우는데 썼다. 그는 이 여신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우두머리인 마르둑의 제사장들과 원수가 되게 했다.
 3.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반란을 진압하고 왕국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했다.
 4. 그는 테마로 옮겼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나라의 일을 보도록 했다(참조, 단 5 장).
- 자. ? - 539 벨사살 (협동 통치)
- 바벨론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물의 방향을 바꾸고 저항없이 그 도시에 들어간 구티움의 고브리아스 지휘 아래에 있던 페르시아 군대에게 매우 빠르게 함락되었다.

도시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페르시아를 해방자요 마르둑 예배의 회복자로 보았다.
 고레스 II 세는 고브리아스를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웠다. 고레스 II 세 혹은
 고브리아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단 5:31 과 6:1 에 나오는 “메데 사람
 다리오”이다. 다리오는 “왕족”을 뜻한다.

- III. 메데-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II 세의 흥왕에 대한 역사적 개관(사 44:28; 45:1-7):
- 가. 625-585 키악사레스는 바벨론이 앗시리아를 쳐부수는 것을 도왔던 메데의 왕이었다
 - 나. 585-550 아스티아게스는 메데의 왕이었다. 고레스는 만다네가 낳은 그의 손자이었다
 - 다. 550-530 안샴의 고레스 II 세는 조공을 바치는 왕이었지만 반란을 일으켰다
 - 1.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는 고레스를 지지했다
 - 2. 고레스 II 세는 아스티아게스를 폐위시켰다.
 - 3. 나보니두스는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 ㄱ. 이집트
 - ㄴ. 리디아의 왕인 크로에수스(소아시아)
 - 라. 547 고레스 II 세는 사디스(리디아의 수도)로 진군했다
 - 마. 539년 11월 2일 구티암의 고브리아스는 고레스의 군대와 함께 저항없이 바벨론을
 점령했다. 고브리아스가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워졌다.
 - 바. 539년 10월 “대”고레스 II 세는 해방자로서 자신이 직접 입성했다. 민족들에 대한 그의
 관용적인 정책은 민족들에게 대해 오랫동안 행해진 추방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 538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받았다
 - 아. 530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II 세가 뒤를 이었다
 - 자. 530-522 캄비세스 II 세의 통치
 - 주전 525년 이집트 제국을 메데-페르시아 제국에 합병시켰다
 - 그는 자살했을 것이다
 - 카. 522-486 다리오 I 세가 통치자가 되었다
 - ㄱ. 그는 왕족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다.
 - ㄴ. 그는 고레스의 지방총독 제도를 사용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조직했다(참조, 스 1-6 장;
 학개서; 스가라서)
 - ㄷ. 그는 리디아처럼 화폐를 주조했다
 - 타.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의 통치:
 - ㄱ.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했다
 - ㄴ. 그리스를 침략하여 페르시아의 꿈을 이루려고 의도했지만 주전 480년 쉰모폴리
 전쟁과 주전 479년 살라미스 전쟁에서 패했다
 - ㄷ.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라고 불린 에스더의 남편은 주전 465년에 암살되었다
 - 파.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가 통치함(참조, 스 7-10 장;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 ㄱ. 그리스 사람들은 펠로파니아 내전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영토를 확장했다
 - ㄴ. 그리스는 나누어진다(아테네 사람 - 펠로파니아 사람)
 - ㄷ. 그리스 내전은 약 20년 동안 계속되었다
 - ㄹ. 이 기간 동안 유대 공동체는 강해진다
 - 하. 423-404 다리오 II 세가 통치했다
 - 가. 403-35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 가 통치했다
 - 냐. 358-33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 세가 통치했다
 - 다. 338-336 아르세스가 통치했다
 - 랴. 336-331 다리오 III 세가 통치했다
- IV. 이집트 역사의 개관
- 가. 힉소스(양치기 왕 - 셈족 통치자)-주전 1720/10-1550년
 - 나. 제 18 왕조(주전 1570-1310년):
 - 1. 1570-1546 아모시스

2. 1546-1525 아메노피스 I 세(아멘호텝 I 세)
 3. 1525-1494 툃모세 I 세
 4. ? 툃모세 II 세
 5. ? 하트쉴수트
 6. 1490-1435 툃모세 III 세
 7. 1435-1414 아메노피스 II 세
 8. 1414-1406 툃모세 IV 세
 9. 1406-1370 아메노피스 III 세
 10. 1370-1353 아메노피스 IV 세(아케나텐)
 11. ? 스멘크하레
 12. ? 투탄크하문
 13. ? 아이
 14. 1340-1310 하렘합
- 다. 제 19 왕조(주전 1310-1200 년):
1. ? 라메세스 I 세
 2. 1309-1290 세티 I 세
 3. 1290-1224 라메세스 II 세(람세스 II 세)
 4. 1224-1216 - 마르네탈타(메렌프타)
 5. ? 아멘메세스
 6. ? 세티 II 세
 7. ? 싯타
 8. ? 테오스렛
- 라. 제 20 왕조(주전 1180-1065 년)
1. 1175-1144 라메세스 III 세
 2. 1144-1065 라메세스 IV-XI 세
- 마. 제 21 왕조(주전 1065-935 년):
1. ? 스멘데스
 2. ? 헤리호르
- 바. 제 22 왕조(주전 923-725 년 - 리비아인):
1. 935-914 시삭(쇼센크 I 세 또는 쉐송 I 세)
 2. 914-874 오소르콘 I 세
 3. ? 오소르콘 II 세
 4. ? 쇼스넵 II 세
- 사. 제 23 왕조(주전 759-715 년 - 리비아인)
- 아. 제 24 왕조(주전 725-709 년)
- 자. 제 25 왕조(주전 716/15-663 년 - 이디오피아인/누비아인):
1. 710/09-696-95 샤바코(샤바쿠)
 2. 696/95-685/84 쉐테코(세비트쿠)
 3. 690/689, 685/84-664 - 티르하카(타하르카)
 4. ? 탄타문
- 차. 제 26 왕조(주전 663-525 년 - 사이틱인):
1. 663-609 사메티쿠스 I 세(삼틱)
 2. 609-593 네코 II 세(네쵸)
 3. 593-588 사메티쿠스 II 세(삼틱)
 4. 588-569 아프리에스(호프라)
 5. 569-525 아마시스
 6. ? 사메티쿠스 III 세(삼틱)

- 카. 제 27 왕조(주전 525-401 년 - 페르시아인):
1. 530-522 캄비세스 II 세(고레스 II 세의 아들)
 2. 522-486 다리오 I 세
 3.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
 4.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
 5. 423-404 다리오 II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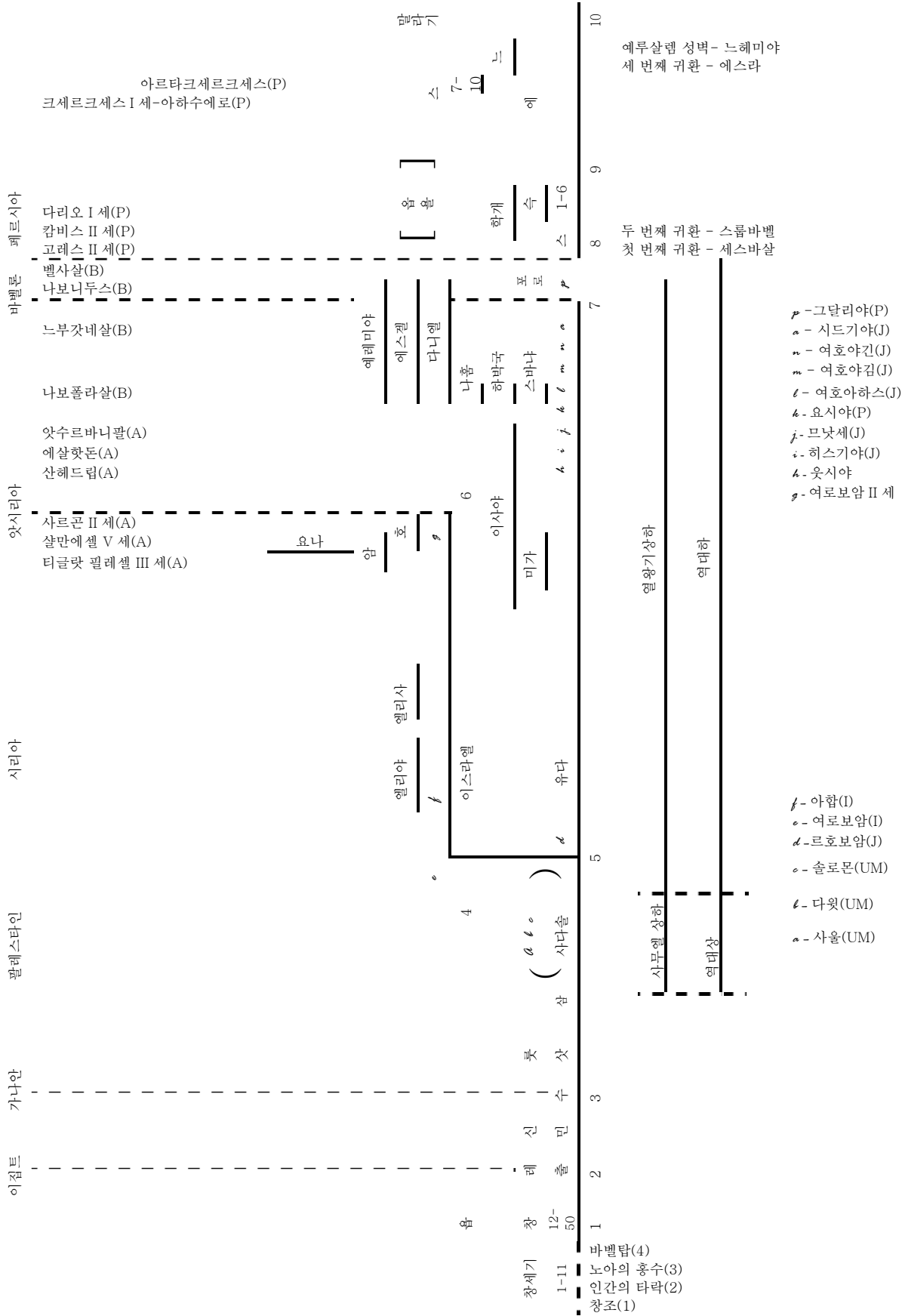
*상이한 연대를 보기 위해서는 존더반 출판사의 *화보 성경 백과사전* 제 2 권 231 쪽을 보라.

V. 그리스 역사의 개관

- 가. 359-336 마케도니아의 필립 II 세:
1. 그리스를 세웠다
 2. 주전 336 년에 암살당했다
- 나. 336-323 알렉산더 “대제” II 세 (필립의 아들):
1. 이수스 전쟁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III 세를 패주시켰다
 2. 주전 323 년 32/33 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죽었다
 3.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그가 죽자 그의 제국을 나누었다:
 - ㄱ. 카센더 -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 ㄴ. 리시미쿠스 - 쓰라세
 - ㄷ. 셀류쿠스 I 세 - 시리아와 바벨론
 - ㄹ. 톨레미 -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 ㅁ. 안티고누스 - 소아시아(그는 오래 가지 않았다)
- 다. 셀류시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는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투쟁한다:
1. 시리아(셀류시드 왕조의 통치자):
 - ㄱ. 312-280 셀류쿠스 I 세
 - ㄴ. 280-261 안티오쿠스 I 세 소터
 - ㄷ. 261-246 안티오쿠스 II 세 테우스
 - ㄹ. 246-226 셀류쿠스 II 세 칼리니쿠스
 - ㅁ. 226-223 셀류쿠스 III 세 케라우누스
 - ㅂ. 223-187 안티오쿠스 대왕 III 세
 - ㅅ. 187-175 셀류쿠스 IV 세 필로파토
 - ㅇ. 175-163 안티오쿠스 IV 세 에피파네스
 - ㅈ. 163-162 안티오쿠스 V 세
 - ㅊ. 162-150 데메트리우스 I 세
 2. 이집트인(톨레미 왕조의 통치자):
 - ㄱ. 327-285 톨레미 I 세 소터
 - ㄴ. 285-246 톨레미 II 세 필라델푸스
 - ㄷ. 246-221 톨레미 III 세 에베게테스
 - ㄹ. 221-203 톨레미 IV 세 필로파토
 - ㅁ. 203-181 톨레미 V 세 에피파네스
 - ㅂ. 181-146 톨레미 VI 세 필로메토
 3. 간단한 개요
 - ㄱ. 301 - 팔레스타인은 톨레미 통치 하에 181 년간 있었다.
 - ㄴ. 175-163 - 셀류시드 왕조의 여덟 번째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IV 세 에피파네스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유대인을 헬라화 시키기 원했다:
 - (1) 경기장을 지었다
 - (2) 성전 안에 이방 제단인 제우스 올림푸스의 제단을 만들었다

부록 IV 도표

구약의 연대표
(다음 페이지에 있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왕조의 왕들과 사건들

- 612(주전) 니느웨가 신바벨론의 군대(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함
- 608 바로 느고 II 세가 신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저지시키기 위해 갈게미스로 진격함
 유다왕 요시아가 그를 제지하려고 함
 요시아의 죽음으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름
 바로 느고 II 세의 압력으로 3 개월 만에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여호아김이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왕이 됨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가 이집트의 지배하에 들어감
 요시아의 개혁이 끝나버림
- 605 나보폴라살이 갈게미스로 군대를 보내 앗시리아의 남은 군대와 이집트를
 상대로 싸움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 평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함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버지(나보폴라살)의 부고를 듣고 왕관을 받기 위해
 바벨론으로 귀국함
 돌아가는 길에 그가 다니엘과 다른 여러 왕족을 사로 잡아감
- 605-538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함, 597 년; 10,000 명을 바벨론으로 사로 잡아감
- 586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수의 사람이 추방당함
- 582 유대인 게릴라 전사들이 그달라를 죽였기에 또 다시 대규모의 추방이 행해짐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들

- 562-560 에월 프로닥이 여호아김(참된 메시아 계보에 속함)을 감금에서 석방함
- 560-556 네리글리살
- 556 라바스키 마르дук이 다스림
- 556-539 나보니두스:
 달신인 신을 위한 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냄. 이러한 일은 마르дук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적대감을 초래함
 생애의 나머지 기간은 반란을 진압하고 왕국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함
 그는 테마로 옮겨 갔고 국가의 일을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김
 벨사살:
 대부분의 시간을 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사용함
 메대는 바벨론에게 커다란 위협이 됨

고레스의 지배

- 585-550 아스티아지스가 메대의 왕으로서 다스림(고레스 II 세는 만데인이 낳은 그의 손자였다)
조공을 바치던 고레스 II 세가 반란을 일으킴
나보니두스는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음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다:
1. 이집트
 2. 크레커스, 리디아의 왕
- 547 고레스는 사테(리디아의 수도)로 진격하여 소아시아 지역을 모두 손에 넣음
- 539 고비야스는 저항없이 바벨론을 손에 넣음(단 5 장;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와 공동으로 다스림; 또한 고비야스는 메데 사람 다리오였을 것임, 단 5:31)
- 539 년 10 월 11 일 나보니두스가 섬기던 달신인 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람으로서 고레스가 입성함

고레스의 후계자들

- 530 고레스의 아들이 그를 이어 왕이 됨(캄비세스 II 세)
- 530-522 캄비세스의 통치(엘리판틴 파피루스)
525 년에 이집트를 메데-페르시아 제국에 합병함
- 522-486 다리우스 I 세가 다스림
그는 고레스가 사용한 총독제로써 페르시아 제국을 조직함
그는 리디아와 같은 화폐제도를 확립함
-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에스터)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함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시도했지만 주전 480 년에 테모폴리 전투에서 패함
크세르크세스 I 세는 465 년에 암살당함
- 480 테모폴리 전투
-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 룡기마누스(에스라 7-10 장, 느헤미야, 말라기)
그리스가 페로파니스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확장해 옴
전쟁이 20 년간 지속됨
이 기간 동안 유대인 공동체가 재건됨
- 423-404 다리우스 II 세
엘리판틴 성전에서 무교병의 절기를 행하도록 공인함
- 401-35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 세
- 358=33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 세
- 338-336 알세스
- 336-331 다리우스 III 세

헬라

- 359-336 마케돈의 필립 II 세가 헬라를 세움
그는 336 년에 암살당함
- 336-323 알렉산더 대제(필립의 아들)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II 세를 몰아냄
그는 지중해 동부와 근동지역을 정복한 후에 323 년에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죽음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그의 사후에 제국을 분할함:
1. 카산더 -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2. 리시미커스 - 트레이스
 3. 셀렉스 I 세 - 시리아와 바벨론
 4. 톨레미 -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5. 안티고누스 - 소 아시아의 적은 부분
- 셀류시드 왕조 대 톨레미 왕조**
- 301 팔레스타인이 100 년 동안 톨레미의 지배를 받음
- 175-163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체육관을 건축함
이교도의 제단을 건축함; 제사장들을 학대함
- 168 년 12 월 13 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단 위에서 돼지를 죽임.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멸망의 가증한 일로 여긴다
- 167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킴. 마타디아스가 죽임을 당함.
유다스가 정권을 잡음
유다스 마카비우스가 성공적으로 게릴라 전을 수행함
- 165 년 12 월 25 일 성전을 재 봉헌함

통치자들

바벨론

626-605

605-562

562-560

556

556-539

539-

메대

나보폴라살이 죽음(“나부, 태양을 지킨다”)

625-585

시르자레스

느부갓네살 II 세

(“느보, 국경을 지킨다”)

아스티아게스

에월 므로닥 550

고레스 II 세

라마스키 마르둑

나보니두스

벨사살

고비야스

메대-페르시아

550-530

고레스 II 세(538 년에 메대-페르시아의 통치를 아케메니아 제국으로 부름)

530-522

캄비세스 II 세(이집트와 키프러스를 합병함)

522

가우마타 혹은 슈도, 스펠디스(6 개월 동안 통치함)

522-486

다리우스 I 세(히스타스페스)

486-465

크세르크세스 I 세(에스터의 남편)

465-42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팔레스타인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423-

크세르크세스 II 세

424-404

다리우스 II 세 노터스

404-359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 세 므네몬

359-338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 세 노커스

338-336

알서스

336-331

다리우스 III 세 코도만누스

헬라

359-336	마세돈의 필립 II 세
336-323	알렉산더 대제
323-	장군들이 제국을 분할함
	1. 카산더 - 마케도니아
	2. 리시미커스 - 시리아
	3. 셀류커스 I 세 - 시리아와 바벨론
	4. 톨레미 - 이집트
	5. 안티고누스 - 소 아시아(주전 301 년에 죽임을 당함)

톨레미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다가 주전 175-163 년에는 셀류커스에게 지배권이 넘어감

175-163 안토니커스 IV 에피파네스, 셀류커스 왕조의 8 번째 통치자

*연대와 이름은 대부분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의 역사* 461-471 쪽에서 취함.

분열 왕국의 왕들

유다의 왕들(대상 3:1-16; 마 1:6-11)					이스라엘의 왕들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르호보암	922-915	933-917	931/30-913	왕상 11:43-12:27; 14:21-31 대하 9:31-12:16	여로보암 1세	922-901	933-912	931/30-910/09	왕상 11:26-40; 12:12-14:20
아비야 (아비얌)	915-914	916-914	913-911/10	왕상 14:31-15:8 대하 11:20,22					
아사	913-873	913-873	911/10-870/69	왕상 15:8-30; 16:8,10,23,29; 22:41,43,46 렘 41:9	나답 바아사	901-900 900-877	912-911 911-888	910/09-909/08 909/08-886/85	왕상 14:20; 15:25-31 왕상 15:16-16:7; 왕하 9:9 대하 16:1-6 렘 41:9
여호사밧	873-849	873-849	870/69-848	왕상 15:24; 22:1-51 왕하 3:1-12; 8:16-19 대상 3:10 대하 17:1-21:1	엘라	877-876	888-887	886/85-885/84	왕상 16:8-14
(여호람 섭정왕)	----- ---	----- ---	853-848	왕상 22:50 왕하 1:17; 8:16; 12:18	시므리 (군대 장관) 오므리 (군대 장관)	876 876-869	887 887-877	885/84 885/84-874/73	왕상 16:9-20 왕하 9:31 왕상 16:15-28 왕하 8:26 미가 6:16
여호람 (요람)	849-842	849-842	848-841	대하 21:1-20 마 1:8					
아하시야	842	842	----- ----	왕하 8:24-9:29 대하 22:1-9	아합 아하시야	869-850 850-849	876-854 854-853	874/73-853 853-852	왕상 16:29-22:40 왕상 22:40,41, 49,51-53 왕하 18:1-3,19
아달라 (여왕)	842-837	842-836	841-835	왕하 8:26; 11:1-20 대하 22:2-23:21	여호람 (요람)	849-842	853-843	852-841	왕하 1:17; 3:1-27; 8:16-9:29
요아스	837-800	836-797	835-796	왕하 11:2-3; 12:1-21 대하 22:11-12; 24:1-27	예후 (군대 장관)	842-815	842-815	841-814/13	왕상 19:16-17 왕하 9:1-10:36; 15:12 대하 22:7-9 호 1:4

유다의 왕들(대상 3:1-16; 마 1:6-11)[계속]					이스라엘의 왕들(계속)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헤리슨	성경 본문
아마샤	800-783	797-779	796-767	왕하 12:21; 14:1-22 대하 25:1-28					
(웃시아 섭정왕)	----- ---	----- ---	791/90-767	왕하 14:21; 15:1-7	여호아하스	815-801	814-798	814/13-798	왕하 10:35; 13:1-9
웃시아 (아사랴)	783-742	779-740	767-740/39	대하 26:1-23 호 1:1; 암 1:1 슌 14:5	요아스	801-786	798-783	798-782/81	왕하 13:9-13,25 대하 25:17-25 호 1:1; 암 1:1
(요담 섭정왕)	750-742	----- ---	750-740/39	왕하 15:7,32-38	여로보암 2세 (섭정왕)	----- ---	----- ---	793/92-782/81	왕하 13:13; 14:16,23-29 호 1:1
요담	742-735	740-736	740/39-732/31	대상 5:17 대하 26:23-27:9 사 1:1; 7:1 호 1:1; 미 1:1	여로보암 2세	786-746	783-743	782/81-753	암 1:1; 7:9-11
(아하스 섭정왕)	----- ---	----- ---	744/43-732/31	왕하 15:30-16:20 대하 27:9-28:27	스가랴	746-745	743	753-752	왕하 15:8-12
아하스	735-715	736-728	732/31-716/15	사 1:1; 7:1 이하; 14:23; 38:8 호 1:1; 미 1:1	살룸	745	743	752	왕하 15:10,13-15
(히스기야 섭정왕)	----- ---	----- ---	729-716/15	왕하 16:20; 18:1-20,21 대하 28:27-32:33 잠 25:1	므나헴	745-738	743-737	752-742/41	왕하 15:14,16-22
히스기야	715-687	727-699	716/15-687/86	사 1:1; 36:1-39:8 호 1:1 미 1:1 마 1:9-10	브가히야	738-737	737-736	742/41-740/39	왕하 15:23-26
(므낏세 섭정왕)	----- ---	----- ---	696/95-687/86	왕하 20:21-21:18; 23:12,26; 24:2	베가	737-732	736-730	740/39-732/31	왕하 15:27-31; 16:5 대하 28:6; 사 7:1
므낏세	687/86-642	698-643	687/86-642/41	대하 32:33-33:20 렘 15:4 이하; 왕하 21:18-26	호세아	732-724	730-722	732/31-723/22	왕하 17:1-18
아몬	642-640	643-641	642/41-640/39	대하 33:20-25 렘 1:2; 슌 1:1 왕상 13:2-3	앗시리아에 의한 사마리아의 멸망	주전 724년	주전 722년	주전 722년	

유다의 왕들 (계속)					이스라엘의 왕들(계속)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해리슨	성경 본문	이름과 연대	브라이트	영	해리슨	성경 본문
요시아	610-609	640-609	640/39-609	왕하 21:24; 22:1-23:30 대하 33:25-35:27 렘 1:2; 습 1:1 마 1:10-11					
여호아하스	609 (3 달)	609	609	왕하 23:30-34 대하 36:1-4					
여호야김	609-598	609-598	609-597	왕하 23:34-24:6,19 대하 36:4-8 렘 1:3; 22:18-23; 25:1 이하; 26:1 이하; 27:1 이하; 35:1 이하; 36:1 이하 단 1:1-2					
여호야긴	598/97 (3 달)	598	597	왕하 24:6,8-17; 25:27-30 대하 36:8-9 렘 52:31; 겔 1:2					
시드기야	597-586	598-587	597-587	왕하 24:17-25:7 대하 36:10-11 렘 1:3; 21:1-7; 24:8-10; 27:1 이하; 32:4-5; 34:1-22; 37:1-39:7; 52:1-11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주전 586 년	주전 587 년	주전 587 년	예레미야 애가					

연대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위해 E. R. 킬레의 *히브리 왕들의 신미한 수들을 보라*.

부록 5 -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물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